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웠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로부터 1951년 1월 중순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강철의 의지로 미제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아넣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고있다.

락동강계선에 아군과 적들이 협착되여 일격이면 대구와 부산을 해방하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기 맥아더가 이끄는 5만 대병력의 인천상륙과 15개 나라 추종국가군대의 조선전선투입으로 일시 전선과 후방이 차단되고 전선의 주력부대들이 적들의 포위속에 들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온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지켜보며 우려를 표시하던 그때 급변하는 준엄한 군사정세를 피타게 의식하면서도 전선사령관인 김책과 총참모부의 남일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신통한 타개책을 못찾아 안타까이 모대긴다.

단 하루를 늦춰도 안되는 초긴장상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름다운 노래와 꿈을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그 어떤 원쑤도 놀래우지 못할것이며 결코 굴복시킬수 없을것이라는 드팀없는 확신속에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라는 새로운 작전적구상을 펼치시고 세계전쟁사에 없는 제2전선을 적후에 형성하시여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도록 하신다.

소설은 최악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불굴의 조선의 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그 원천을 두고있음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최 현	사단장, 후에 제2군단장
김 책	전선사령관
남 일	총참모장
최용건	민족보위상
박정덕	사단장
홍명희	부수상
류현수	공병중대장
주영섭	문화부중대장
로지봉	의용군출신 병사
리 숙	간호장, 류현수의 애인
리성조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숙의 아버지
서병호	병기생산국장
무 정	군벌주의자
맥아더	미극동군사령관

제 1 편

1

전쟁의 포화로 불타던 50년 여름도 이제는 시진하게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격전이 휩쓸어간 휘우듬한 언덕우에 땅거미가 내릴 때면 화광이 얼른거리는 하늘가에서 올차게 여문 별들이 파랗게 눈뜨군했다. 새벽에는 이슬이 내렸다. 한낮의 땡볕과 초연에 시들어버린 풀잎사귀들이 축축히 젖어들고 길가에 구겨박힌 미국제땅크의 포탑도 번지르해졌다.

가을이 오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해의 가을은 그저 조용히 오고있지만 않았다. 무엇인가 극적사변을 예고하는듯 별안간 태풍을 앞세우고 들이닥치고있었다.

9월 13일,남태평양상의 마리아나군도 서쪽에서 발생하여 천천히 이동하고있던 태풍9호가 급속히 북상을 시작하였다. 중심기압 약 995미리바르,폭풍우의 반경 약 108키로메터로 추정된 강력한 열대성저기압이 무로또갑을 거쳐 마침내 조선해협에 이르자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던 락동강전선은 미친듯한 폭우속에 휘말려들어갔다.

골마다에서 탕수가 끓어번졌다. 바위돌이 굴러내리고 아름드리 거목들이 뿌리채 뽑혔다. 하늘을 쩍쩍 가르며 창살같은 번개가 무시로 번쩍이고 하늘과 땅이 맞붙어 흐느끼듯 떨었다. 구름속을 파헤치며 뢰성이 사라져가면 지상에서는 또 열띤 포성들이 꽈당꽈당 화답하듯 울부짖었다.

달아오른 포신마다에서 비방울이 자글자글 끓었다. 구령소리,욕지거리,예광탄의 긴 불꼬리,몸서리치는 비명,폭발… 화광이 번뜩일 때마다 진창길에서 군화발을 철떡거리며 내달리는 인민군병사

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드러났다.

이따금 창백한 조명탄의 불빛이 그들의 머리우에 푸릿한 빛발을 확 뿌리기도 했다. 그러면 세찬 비줄기속에서 파들파들 떨어져내리는 하얀 종이장들이 보였다. 적들이 뿌린 삐라였다.

《유엔군 인천에 상륙!》

사품치는 락동강의 흙탕물우에,짓이겨진 논밭과 탕수 속에,구겨박힌 포차들의 잔해우에 그리고 필사적인 공격에 내달리는 병사들의 젖은 군모우에,어깨우에,중기관총 총차우에 삐라들이 떨어졌다.

《북조선군 장병들에게 알린다!
강력한 유엔군 부대들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진공하고있다.
보라! 당신들은 후방과 보급로를 차단당한채 포위속에서 전멸될것이다. 당신들을 구원해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투항하라!》

삐라에는 포연이 자욱한 서울시 전경,인천앞바다에 꽉 들어찬 함선들의 사진이 찍혀있었다. 평양—서울—대전을 련결하는 철도와 자동차도로를 커다란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림까지 그려져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를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세찬 비바람이 그것들을 가랑잎처럼 쥐여뿌릴뿐 공격전에 나선 인민군전사들은 한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한걸음만 더!…

눈앞에 대구와 마산,부산이 있었다. 하여 그들은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한치 또 한치 전진해가고있었다.

이 시각 광란하는 태풍과 더불어 얼마나 엄중한 위험이 시시각각 커가고있는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대구와 부산에 이르는 그 길이,그토록 지척에 보이던 남해기슭에로의 그 하루길이 이제 아득히 멀리 뒤에 남게 되리라는것을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

었다. …

최현이 탄 승용차는 차체를 들썩거리며 어둠속을 내닫고있었다. 풍도 없는 차였다. 세찬 비줄기가 사선으로 엇비스듬히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로 마구 쓸어들었다. 그러나 최현은 입을 꾹 다물고 좌석등받이에 어깨를 꽉 눌러대고있었다.

멀지 않은 산너머에서 불그레한 화광이 확 솟구쳤다. 쿵！— 쿠궁— 하는 둔중한 폭음이 울려왔다. 최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쑥 일으켰으나 차가 들추는바람에 털썩 주저앉았다. 군복바지에 스며들었던 비물이 뿜어나오며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었다.

《음—》

저도 모르게 신음하듯 웅글진 소리를 내질렀다. 그리고는 두툼한 손바닥으로 비물이 철철 흐르는 얼굴을 뻑 문질렀다. 웬일인지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딱히 찍어 말할수 없었다.

급변하는 정세때문인지 아니면 홍수로 불어난 강물때문인지？… 지금 그의 사단은 락동강을 강행도하하여 공격전면의 넓은 지역에 교두보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런데 보병직접지원땅크와 포차들의 도하가 지체되여 보병들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있었다. 그리하여 최현은 기본지휘소를 떠나 도하장으로 달려가는 길이였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기다리는 성미가 아니였다. 흔히 전화로 료해할수 있는 일도 직접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결심을 내리군했다. 그러한 최현사단장을 전사들은 존경하고 신뢰하였으나 상급지휘관들은 못마땅해할 때가 많았다. 특히 전선사령관 김책은 최현이 지휘소를 떠나있는것을 질색해하였다. 련합부대장이 목숨을 내걸고 공격선에 나가있을 리유가 없으며 또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지금 지원땅크와 포차들이 아직 도하장에 처박혀있는판에 어떻게 전화통이나 들고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도하장에 직접 나가보기로 결심하고 지휘소를 나섰을 때 그는 담당간호장 림정옥이 뒤늦게야 알고 비옷을 들고 달려나오는것을 보면서도 그냥 차를 몰아대게 했었다. 사단장

의 건강때문에 무던히도 속썩이는 간호장의 마음을 모르거나 무시해서가 아니였다. 웬일인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조바심만 자꾸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면 느닷없이 갈마드는 이 불안은 무엇때문인가? 혹시 전선사령관 김책에게서 받은 명령때문이 아닐가?… 방금전에 김책은 전화로 정황보고를 받고나서 말했었다.

《최현동무,제2제대부대들의 도하와 전투전개가 끝나면 차후임무를 대기하시오!》

놀라운 일이였다. 교두보를 차지하면 제2제대부대들의 전투전개를 엄호하고 종심성과확대를 위한 전투행동을 계속해야 한다는것은 하나의 군사적상식이다. 그런데 김책은 《…차후임무를 대기하시오!》라고만 했었다!…

차는 어느덧 락동강을 옆에 끼고 달리고있었다. 어둠때문에 격랑치는 강물은 보이지 않아도 무시무시한 그 흐름이 온몸에 느껴졌다. 수천수만의 말떼가 초원을 질주하는듯 뒤흔들고 진동하며 움씰거리는 위엄찬 소리가 파동쳐오고있었다.

온통 패운 길로 승용차는 달려갔다. 숱한 물웅뎅이들때문에 운전사는 자주 속도를 죽이지 않을수 없었다.

《왜 이리 굼떠,냅다 밟으라!》

최현이 독촉했다. 참을수 없는듯 목을 빼들고 퍼붓는 비발속을 내다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눈부신 섬광이 소리없이 번쩍했다. 파란 불의 화살이 어둠을 쫙— 찢어버리더니 순시에 새까매졌다. 길가녁으로 탄약상자를 메고가던 전사들이 주춤했다. 강기슭에 멎어선 마차우에서는 한 녀병사가 얼결에 귀구멍을 틀어막는듯했다. 그러나 그토록 무시무시하게 터지리라고 생각했던 천둥소리를 최현은 듣지 못했다.

《차를 세웠!》

도하장 접근로에 이른것이다. 차가 멎기바쁘게 그는 뛰여내렸다. 뒤따라 내려선 키큰 부관과 련락병을 피끗 돌아보았다.

《가서 지휘관을 찾아와!》

말이 떨어지자 련락병이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모았다. 그리고는 전투장에서 그러듯이 허리를 굽힐사하고 퍼붓는 비속으로

사라져갔다.

최현은 잠시 무시무시하게 사품쳐가는 강물의 흐름소리를 듣고있었다. 엊그제 이곳에서 강행도하를 하기전엔 이렇듯 세찬 물결소리를 상상하지 못했었다. 넓은 강물은 지친듯 느리게 흘렀었다. 전투가 있을 때에만 포탄과 폭탄에 뒤집히고 솟구치고 부글부글 끓어번지군했었다. 교두보를 점령하자 보위성직속 도하대대가 이곳에 배떼다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었다. 군집단을 지휘하는 무정장령이 나와서 앞으로의 총공격을 위한 발판이 될 이 도하장위치를 정해주었었다. 이들 공병대대는 무정에게 직속되여있었던것이다.

별안간 최현은 소스라쳤다. 만약 세찬 물결에 배떼다리가 떠내려갔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면 교두보를 차지한 강저쪽의 선견대와 구분대들이 위험하다. 지금 치렬한 싸움을 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배떼다리는 피줄과도 같은것이다.

그는 배떼다리가 있음직한곳으로 바삐 걸어갔다. 그쪽에서 격한 웨침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무섭게 성난 목소리다. 반가운 기대가 불길처럼 가슴에 타들었다. 가까운곳에서 포차 한대가 강물쪽에 전조등을 켜주고있다. 그러나 세찬 비줄기에 가리워 유령같이 얼른거리는 사람들만이 보일뿐이다.

그때 련락병이 물속에서 솟아난듯 눈앞에 나타났다. 뒤이어 키가 늘씬한 사람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련락병이 보고하자 그도 역시 최현과 부관 두사람쪽에 어방대고 경례를 붙였는데 키가 큰 부관쪽에 더 가까왔다.

《대대장인가?》

최현이 물었다. 그러자 그는 반쯤 몸을 홱 돌렸다.

《아닙니다, 사단장동지! 보위성직속도하대대 제…》

《간단히!… 대대장은?》

《전사했습니다.》

《그럼?…》

《2중대장 류현수! 당신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배떼다리는 무사한가?》

《옛, 무사합니다!》

최현은 얼굴의 비물을 뻑 훔쳤다.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공병중대장의 팔소매를 끄당겼다.

《자, 가면서 얘기하지. 헌데 이름이 뭐라구?》

《류현수입니다!》

《오— 형수! —》

최현은 자기가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있는줄 몰랐다. 다만 빨리 땅크와 포차들을 교두보에 넘겨야겠는데 하는 생각만 하고있었다.

《그런데 중대장! 왜 땅크와 포차들이 제때에 건너지 못해?》

《사단장동지! 물이 너무 불어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뭐 동무가?… 감히?!》

최현은 걸음을 멈추었다. 공병중대장 역시 멈춰서서 꺼리낌없이 마주보는데 어둠속에서도 감때사나운 눈빛이 알렸다. 그는 겁내지 않고 청높은 소리로 재빨리 설명했다.

《사단장동지! 배떼다리가 위험하게 됐습니다. 지금 견인쇠바줄을 더 보강하는중입니다. 목숨걸고 곧 도하를 보장하겠습니다!》

《…》

최현은 말없이 그를 쏘아보기만 했다. 결패있고 고집도 있는 젊은이 같다. 그러나… 두고보자!… 그는 또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이윽고 배떼다리가 나타났다. 공병전사들이 굵은 쇠바줄을 늘이느라고 벅적 떠들고있다. 힘껏 손세를 써가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흙탕물이 최현의 장화목을 철썩철썩 후려쳤다. 세찬 바람에 휘뿌려진 물보라가 흙탕물우에 분수비처럼 흩어져내렸다.

최현은 배떼다리우로 걸어올라갔다.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견인고리가 금시 끊어져나갈듯 삐걱거렸다. 부관이 소리쳤다.

《사단장동지!》

어느새 공병중대장이 그를 막아나섰다.

《위험합니다, 사단장동지!》

최현은 그를 떠밀쳤다.

《저기선 전사들이 피를 흘리고있어!》

부관과 련락병까지 달려들어 막아나섰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잔말 말고 전지불이나 비쳐!》

두다리가 뻣뻣해지고 사뭇 휘청거렸으나 그는 걸어나갔다. 객기를 부려보는것이 아니다. 전쟁에서는 흔히 순간의 지체가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심대한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는것이다.

그는 이제 당장이라도 전선사령관 김책이 《즉시 밀양계선으로 진출전개할것!》하는 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음속에 갈마드는 까닭모를 위구심때문에 그것을 굳이 믿어보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지간에 명령이 내렸을 때 사단의 진출이 늦어져 전반적전선의 공격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배떼다리는 안에 들어갈수록 더 세차게 요동쳤다. 부관과 공병중대장이 량쪽에서 그를 붙들고 련락병은 엉금엉금 기여나가며 전지불을 비치군했다. 쇠바줄, 견인고리, 최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여겨살폈다. 배떼다리에 부딪친 파도의 물갈기가 온몸에 들씌워지군했다. 아차 실수로 파도에 밀려나가면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휘감겨들것이다. 차차 걸음이 흔들리고 허궁 뜨면서 위태로와졌다. 부관이 소리쳤다.

《사단장동지!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건말건 최현은 자기에게 들씌워지는 물벼락을 막느라고 안깐힘을 쓰고있는 공병중대장을 끌어당겼다. 그의 귀전에 대고 고함치듯 물었다.

《쇠바줄이 왜 이모양이야.… 어째서 이렇게 늘어졌어?》

《사단장동지, 그 이상은…》

말끝이 폭풍에 날렸다.

《쇠바줄을 더 당기면 되겠나?…》

《사단장동지!…》

최현은 공병중대장의 어성으로써 대답의 뜻을 짐작했다. 그랬으면 위험을 피할수 있겠으나 자기네 힘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의미일것이다. 최현은 또 무슨 말인가 하려다 그만두었다. 배떼다리가 서로 부딪쳤다. 요동치며 한켠으로 쏠린 배떼다리우에 거센 물의 담벽이 들부어졌다.

최현은 팔을 허둥거리며 부르짖었다.

《인젠 됐어… 나가자！—》

서로 붙안고 비칭거리며 겨우 되돌아나왔다. 그러나 최현은 한결 마음이 개운해져있었다. 무엇인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런 리유로 최현은 늘 참모부의 지도앞에서가 아니라 총포탄이 무시로 쏟아지는 최전방에서 날카롭게 생각을 굴리고 단호히 결심하는것이다.

그는 물이 줄줄 흐르는 공병중대장의 팔소매를 끄당겼다.

《중대장！ 이름이 뭐랬더라？》

《옛, 류현수…》

《아, 형수！… 쇠바줄만 바싹 당기면 된단 말이지？》

《예.》

《틀림없겠다？》

《예, 사단장동지！》

《그렇다면 땅크로 끌면 될거 아닌가. 엉？》

《예？！…》

《빨리 말해！ 되겠나, 안되겠나？》

《사단장동지,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하지만…》

《그럼 됐어！》

최현은 몸을 홱 돌려 부관을 불렀다. 가서 물이 줄기를 기다리는 땅크병들중 누구 한사람 당장 불들어오라고 명령했다.

얼마후 다부진 체격의 한 땅크병이 불리워왔다. 멋지게 경례를 하고 최현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사단장 최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았다. 공격전에 나가기 위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중형땅크를 떼여 배떼다리쇠바줄을 잡아끌라는것이다. 그는 말도 못하고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쩍— 벌어진 입으로 세찬 비물이 쓸어들어갔다. 그러다가 최현이 또 벼락같은 고함을 지르자 화닥닥 놀라며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들었습니다, 사단장동지！… 곧 집행하겠습니다.》

《좋아, 동무네 사단장한텐 내 말해주겠소. 내가 철수명령을 줄 때까지 쇠바줄을 붙들구있어야 돼. 잘하면 훈장을 내신하구 도

망치는 날엔 기어이 잡아다가 총살하겠어！…》
땅크병은 다시 멋지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얼마후 부릉부릉하는 발동소리와 함께 《떼－32》형땅크가 접근로에로 굴러왔다. 공병중대장이 땅크에 뛰여올라 신호를 했다. 땅크가 이쪽저쪽 방향을 바꿀 때마다 무한궤도에서 찌걱찌걱하는 쇠소리가 사납게 울리군했다. 드디여 공병들이 쇠바줄을 고리에 걸었다. 땅크가 배기가스를 세차게 뿜으며 자갈판을 굴러나가자 공병들이 와！－ 환성을 질렀다.
이윽고 최현은 요동이 덜해진 배떼다리우로 승용차를 내몰았다. 전조등의 불빛에 드러난 강물은 무시무시했다. 싯누런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거품을 날렸고 다리에 부딪친 통나무가 허궁 솟구쳐오르기도 했다. 비는 여전히 억수로 퍼부어졌고 무시로 번개불이 번쩍이며 어둠을 찢었다. 그러는 가운데 도하가 시작되였다. 류현수의 공병중대전사들이 배떼다리의 요소요소에 표기병처럼 서서 신호를 했다. 최현의 승용차에 이어 곡사포를 견인한 포차들과 땅크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떼다리우에 올라섰다. 배떼다리가 흠씰흠씰했다. 그것이 철썩철썩 물속에 잠길 때마다 세차게 솟구쳐오른 물갈기가 쫘－하고 차체우에 쏟아져내렸다.
그때 최현은 뒤따르던 포차가 다리중간에서 멎어선것을 보았다. 불그레하게 들뛰며 쫓아오던 전조등불빛이 멎어서있다.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였다.
최현은 차에서 내려 곧추 뻗어있는 전조등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멎어선 포차에서는 운전사가 벌써 기관실덮개를 열어젖히고 우물거리고있었다. 포병들이 차에서 내려 기웃거렸다. 공병들과 날파람있는 중대장도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 어데가 고장이야？》
최현이 물었다.
《제－길, 기화기가 또 말썽이요.》
운전사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인차 되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 뜯어봐야지.》

최현은 격노했다. 당장이라도 결전진입이 있겠는데 태평스레 뜯어봐야 안다는것이다. 그는 버럭 소리질렀다.

《이녀석, 당장 내려와!》

운전사가 고개를 돌렸다. 비로소 자기 차의 전조등불빛으로 최현을 알아보고 당장 자라목처럼 쏙 움츠러들었다. 최현이 손짓하자 그는 후닥닥 뛰여내렸다. 최현의 어깨우 장령견장에서 물보라가 일고있었다.

최현은 가까이에 서있는 공병중대장을 손짓했다.

《이봐 형수! 포는 떼내고 고장난 차는 물속에 처박소!》

《들었습니다, 사단장동지!》

최현은 자기 차 있는데로 걸어갔다. 뒤에서 영싸!-하는 고함소리들이 들려왔다. 최현은 승용차에 오르려다 말고 운전사에게 소리쳤다.

《후진해가서 포를 끌어오라!》

《알았습니다!》

승용차가 배기가스를 힘껏 내뿜었다. 눈치빠른 련락병이 차의 뒤꽁무니쪽으로 달려가 운전사가 빗나가지 않도록 신호를 해주었다. 승용차는 조심스럽게 후진해갔다.

최현은 두손을 허리에 짚고 배떼다리우에 버티고 서있었다. 산너머쪽에서 화광이 펑끗거렸다. 허나 격렬한 총포성은 들리지 않았다. 얼굴의 비물을 훔치며 귀를 강구었으나 세찬 비바람과 사품치는 물소리때문에 전혀 가려들을수 없었다.

배떼다리가 흠씰거리며 찢어지는듯한 소리를 질렀다. 이윽고 불그레한 전조등불빛이 비발속을 뚫고 흔들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땅크와 포차들이 다시 강을 건너는것이다.

최현은 가볍게 한숨을 내그었다. 뜻하지 않던 위험은 가시였으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고있다. 애써 그것을 잊으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는 푸푸거리며 입에 쓸어든 비물을 내뿜었다. 포를 견인한 그의 승용차가 가까이 굴러왔다. 인상적인 공병중대장이 수기신호를 하며 차를 끌어오고있다. 마치 그의 의지에 따라 포차들과 땅

크들이 이끌려오는듯했다. 최현은 뒤따르는 포차의 전조등불빛으로 처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볼수 있었다. 턱이 뾰족하고 코마루가 날카로운것이 먼저 눈에 띄였다. 비물에 젖은 볼편은 자귀로 찍어낸듯 우묵져들어갔는데 그때문에 더욱 감때사나와 보였다.

(녀석이 괜찮아！…)

최현은 이렇게 북받쳐오르는 애정을 품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도하장을 떠날 때엔 우정 그를 불러 말을 걸기까지 했다.

《이봐 중대장, 지금 몇살인가？》

《스물세살입니다, 사단장동지！》

《봐둔 체넨 있나？》

《예？… 저… 전 아직…》

《원, 못난이로군！》

그 순간 최현은 자기의 담당간호장 림정옥을 생각했다. 어인 일로 느닷없이 그 얌전때기가 떠올랐는지 알수 없었다. 최현은 소리없이 웃으며 공병중대장의 어깨를 툭 쳤다.

《또 만나자— 형수！》

《고맙습니다, 사단장동지！》

최현은 차에 올랐다. 부릉부릉 발동소리를 울리고있던 승용차는 곧장 비줄기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최현은 교두보에 전방지휘소를 정하고 거기에 눌러있을 생각이였다. (빨리 종심에로 공격성과를 확대해야겠는데！…) 이 하나의 생각만을 집요하게 거듭하면서 어둠속을 쏘아보고있었다. …

그러나 날이 밝을 때까지도 기다리는 차후임무는 내리지 않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였다. 필사적인 노력끝에 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점령하고 확대했는데 종심돌파임무가 아직 내리지 않는것이다.

최현은 전화기의 발전자돌리개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그대로 굳어지고말았다. 정작 김책이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무턱대고 《전선사령관동지, 왜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하고 소리쳐 물을수도 없는 일이다. 그는 입을 꽉 다

물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젖은 군복에서, 잔등과 어깨우에서 뜨김이 문문 솟고있었다.

참모장과 부관도 말 한마디 없이 전화수결에 서있었다. 병사용 개인천막을 대충 쳐놓은 출입구에서는 담당간호장이 오도카니 서서 입술만 깨물고있었다. 처녀는 사단장이 흠뻑 젖은 군복그대로 이따금 후들후들 다리를 떨고있는것을 지켜보며 울상이 되여있었다.

별안간 최현은 몸을 흠칠 떨었다. 전화종소리가 《따르릉!—》하고 맵짜게 울린것이다. 송수화기를 틀어잡자바람으로 《최현입니다!》하고 소리쳤다. 다음순간 숱진 장미가 꿈틀거렸다.

전화를 걸어온것은 배속포병구분대의 지휘관이였다. 집중사격준비를 다 끝냈다는 뻔한 소리였다. 그 역시 명령을 기다리다 못해 한가지 구실을 만들어본것이였다. 최현은 투미한 어조로 좀 기다릴줄도 알라고 소리쳤다.

송수화기를 놓고 감시구쪽으로 다가갔다. 문턱에 쏟아져내린 비물이 마구 얼굴에 튀였으나 개의치 않고 앞만 쏘아보았다. 날이 밝고있었다. 비는 좀 뜸해졌으나 바람은 여전히 극성스럽게 불어쳤다. 비탈면에서는 적들의 인천상륙을 알리는 삐라장들이 어수선하게 굴러다니고있었다.

2

그날도 최고사령부는 엄숙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사람들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었고 말을 해도 거의 속삭이다싶이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고도로 긴장된 마음들이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 향하고있었다. 그이의 집무실에서 울리는 전화종소리는 물론 그이께서 지도를 번지시는 소리마저 마음의 귀로 듣고있었다. 이렇게 밤이 가고 다시 날이 밝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손으로 연필을 그루박으며 주의깊게 문서

를 번지고계시였다. 전선사령관 김책이 올린 전투상보가 총참모부에서 작성한 정황지도우에 펼쳐져있었다.

고요했다.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긴장한 사색의 흐름을 재여가고있었다. 강부관장이 들어와 아래로 드리운 창가림을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결에 연록색 창가림이 하느적거렸다. 이름모를 새들이 창밖에서 호들갑스럽게 떠들며 저네들의 숨넘어가는 언어로 새날의 일과를 토론하고있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신듯했다. 여전히 전투상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거기에는 락동강전선의 처절한 공방전의 전모가 그려져있었다. 사품치는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대한 최현사단의 전투행로도 다 밝혀져있다. 대구와 부산을 지향한 모든 련합부대 지휘관들, 전투원들이 마지막 총공격의 명령을 기다려 가슴조이고있는 심정이 글줄마다에서 엿보이고있다.

웅근 폭음이 창유리를 흔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머리를 드시였다. 비로소 강부관장을 알아보고 연필을 놓으시였다.

《최용건동무한테선 아직 소식이 없소?》

《장군님! 30분전에 렬차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천쪽에서 적기들의 폭격으로 철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직 숙천—문덕간 철길에서는 적기들의 공습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인천—서울지역의 위급한 정황때문에 신의주에 나가 예비부대조직사업을 하고있던 최용건을 급히 부르시였었다. 그런데 적기들의 폭격으로 예정보다 퍼그나 늦어질것 같다.

《알겠소, 도착하는 즉시 알려주오.》

강부관장이 발끝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자 그이께서는 구내전화기를 들고 남일을 찾으시였다. 잠시후 북관사람들의 강한 억양을 가진 남일의 목소리가 진동판을 울렸다.

《장군님! 남일이 전화받습니다.》

《남일동무, 내가 준 과업은 어떻게 되고있소?》

《지금 하고있는중입니다, 장군님!》

《…》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송수화기를 꾹꾹 누르시였다. 그때마다 진동판을 울리는 전류의 흐름이 도간도간 끊어지군했다. 남일에게서는 숨소리조차 없었다.

이윽고 그이께서 또 조용히 물으시였다.

《언제 보고하겠소?》

《오후 5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군님!》

《기다리겠소.》

《알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놓고 천천히 탁상일력에 눈길을 주시였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지 벌써 3일째이다. 그동안 세계전쟁사에서 가렬처절하기로 그 류례를 찾기 힘든 월미도의 격전이 계속되였다. 불과 4문의 포로 장비된 포병1개중대와 1개의 보병중대력량이 1,000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대소 함선, 5만의 상륙부대와 맞서 싸웠다. 전대미문의 포격과 폭격이 그칠새없이 퍼부어졌다. 보고된데 의하면 어제 하루만해도 적의 비행대는 100차례이상 출격하여 손바닥만한 섬우에 3,000여개의 폭탄을 퍼부었다고 한다. 지금 그곳에서는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시였다. 성깃성깃해지는 백양나무잎사귀들이 파르르 떨고있다. 어데선가 웅근 폭음이 또 울려왔다. 그이께서는 귀를 강구고 그 소리를 듣고계시였다.

조국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고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선과 후방이 차단되고 락동강전선의 주력부대들이 적의 포위속에 들수 있다. 때문에 그이께서는 이미 작전국에 새로운 작전전략적가능성을 검토할 과업을 주시였었다. 똑같은 임무를 남일에게도 주시였는데 그때부터 남일은 연 사흘째 꼬바기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담배연기로 방안을 꽉 채우며 잠도 때식도 다 잊고 일체 면회마저 금한다고 한다. …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자앞으로 돌아오시였다. 방향참모가 도착했다는 보고였다.

《방향참모동무가?… 어서 들여보내오!…》

잠시후 대좌의 견장을 단 방향참모가 들어섰다. 그와 더불어 화약가스냄새가 흘러드는듯했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시로 인천—서울지역의 정황을 료해하고 돌아온 길이였다. 떠날 때부터 이 시각까지 한잠도 못잔것이 알렸다. 충혈진 두눈을 줄곧 찌긋거리며 그는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수고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작전대가까이 이끄시였다.

《그곳 형편이 어떻소?》

방향참모는 다시 몸을 꿋꿋이 폈다. 차가성을 가진 방향참모 대좌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흥분이 앞선것 같았다. 의지력이 있어보이는 아래턱을 쑥 내밀고 그는 청높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적들은 미제 10군단의 1제대인 미1해병사단을 선두로 인천항의 안벽을 폭파하고 비행대와 함포사격의 엄호하에 상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방어부대들은 인천기상대가 있는 언덕에 화력진지를 구축하고 적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우리의 력량은?》

《지금 인천방어부대들로는 전선경비사령부소속 경비대 2개 대대,철도복구대 1개 대대와 2개의 박격포중대가 있습니다.》

《?…》

그이께서는 무등 놀라시였다. 방향참모의 꽉 부르쥔 힘줄투성이 주먹을 얼핏 바라보시였다.

《서울방어력량도 대단히 미약합니다.》

방향참모가 계속했다.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이동해가는 남포지구의 땅크부대와 철원에서 떠난 독립려단은 이틀후에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어 영등포구와 서대문구에 전개된 방어력량을 하나하나 렬거하였다. 그럴수록 그이께서는 날카로운 의혹심이 가슴을 찌르는것을 느끼시였다. 너무도 엄청난 무력대비이다. 사전에 배비했던 전투력있는 부대들이 줄어들었다.…

그이께서는 지난 7월, 서울해방직후에 벌써 적들이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끊을 목적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기도하리라는것을 예견하시였다. 하여 경기도방어지역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부대들을 증강하시였었다. 전선이 멀리 남으로 이동하는데 따라 최사예비대의 땅크 및 포병부대들까지 보충배비하시였었다. 그런데？…

잠시후 머뭇거리던 방향참모가 입으로 힘껏 공기를 들이마시였다. 그의 구리빛 이마와 목에서 피대가 부풀어올랐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번에 알아본데 의하면 경기도방어지역 군사위원회는 적들이 군산으로 상륙할것으로 판단하고 제87보병사단을 비롯한 부대들의 일부를 그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인천상륙은 기만술책이라고 보았다는것입니다.》

《？…》

《그뿐아니라 최고사령부에서 지시한 방어공사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있었습니다. 분명 의식적인 태공 아니면 해독행위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는 경기도방어지역 군사위원회안에서 암해분자, 해독분자들이 책동하고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침만 꿀꺽 삼켰다. 이번에 그곳에서 리승엽을 등대고 오만하게 굴던 작전부장 등과 날카로운 충돌이 있었지만 개인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만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무거운 걸음이였다. 그이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주단우에는 희여스름한 자욱들이 새겨지고는 천천히 스러져갔다.

암해분자, 해독행위… 최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몇번 보고되고 있었다. 무슨 《토지조사사건》이라는것으로 서울시의 많은 애국자들과 당원들이 의심받고 구류되였던 일들이 있었다. 그 내막을 추적하던 해당 일군은 암살되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 모든것을 밝혀내야 한다. 해독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미칠듯이 달려드는 적들을 저지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시간을 잃으면 안된다！…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차동무, 이제 그곳에 주둔한 모든 부대들은 새로 조직된 서해안방어사령부에 소속될것이요.》

그이께서는 얼핏 탁상시계에 눈길을 주시였다.

《동문 이제 나와 같이 새로 조직된 련합부대를 돌아봐야겠소. 인천, 서울지구에 투입할 력량이요.》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오후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조직된 련합부대에 대한 지도를 마치고 수도로 돌아오고계시였다. 황주—흑교로상에서 적기들의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지고 긴 구간의 도로가 심히 파괴되였으므로 산기슭의 달구지길로 멀리 에돌지 않으면 안되였다. 승용차가 굽인돌이를 에돌 때마다 눈부신 해빛에 차창이 번쩍거렸다. 하늘높이 정수리를 찌른 뽀뿌라나무들이 강기슭을 따라 위병들처럼 늘어서있었다. 하늘은 유리같이 투명했다. 좋은 날씨이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마음이 쓰리시였다. 새로 조직된 련합부대의 보잘나위없는 장비때문에 특히 괴로우시였다. 보총도 없는 병사들, 허리에 수류탄 하나씩만 차고있는 병사들이 태반이였다. …

승용차가 속도를 죽이며 경적을 울렸다. 앞쪽에서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 농군이 허둥지둥하며 소궁둥짝에 채찍을 안기고있었다. 길복판에서 달구지를 비켜세우려는것이였다. 그러나 비좁은 길이여서 뜻대로 되지 않는것 같았다. 농군은 느렁뱅이 황소의 뿔을 당겨 돌각담까지 끌어올리고서야 머리를 돌렸다. 그 순간 농군은 입을 쩍 벌리며 두눈을 둥그렇게 떴다. 승용차의 차창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있는 인민군대좌의 긴장이 어린 눈빛과 마주친것이다. 요란스러운 별들이 그보다 먼저 농군을 놀라게 했는지도 모른다. 농군은 얼결에 두손을 앞에 모두어쥐고 허리를 굽석했다.

차창밖으로 내밀었던 방향참모의 머리가 도로 쑥 들어왔다. 목덜미가 붉어져있다. 그이께서 이 모든것을 띄여보셨는지 해서 가만히 곁눈질을 하고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방금 돌아보신

부대의 병사들을 눈앞에 그려보고계시였다. 총이 없는 병사들, 인천, 서울의 격전장으로 떠나갈 그들에게 메워줄 총이 없다！…

차창밖으로는 여전히 례사로운 초가을풍경이 흘러지나고있었다. 돌서덕아래로 흐르는 내가에서 군청색 물촉새가 키낮은 관목숲을 헤치며 《쩨！—》하고 날아올랐다. 반두질하는 애들이 물황철나무 한그루가 비스듬히 자빠져있는 물굽이쪽으로 와— 밀려가는것이 보였다. 메뚜기를 주런이 꿰여든 어린 소녀가 마주오는 승용차를 피하여 미리감치 돌담아래로 내려섰다. 올롱한 눈으로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한손가락을 입에 물고있다. 지금 저애들은 자기들의 머리우에 얼마나 무거운 비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고있다. 전선에 나간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치렬한 싸움을 벌리고있는지 알지 못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힘들게 숨을 내그으시였다.

지금 락동강전선에서는 미친듯한 폭우속에서 결전을 벌리고있다. 전선사령관 김책의 보고에 의하면 최현은 창녕방면에서 락동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대하고있으며 서울제4보병사단장으로 갓 임명된 박정덕은 령산에서, 오백룡은 왜관동북쪽에서 대구를 위협하고있다. 지금 그들모두의 생각은 오직 공격, 또 공격이다. 눈앞에 대구가, 하루길사이에 부산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저리시였다. 적들의 인천상륙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두 전선에서 기술적으로 수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 준엄한 현실, 이 시점에서 비상한 대책을, 단호한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래일이면 늦는다！…

돌연 그이께서 방향참모에게로 머리를 돌리시였다.

《차동무, 하나 묻겠소.》

《예, 최고사령관동지！》

《동무생각엔… 인천, 서울 지역에서 적을 얼마간 더 견지할수 있을것 같소？》

《…》

방향참모의 두눈에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흔들거렸다. 당황해

하는것 같았다. 거무스레한 볼우에 재빛의 반점들까지 두드러졌다. 그는 눈시울을 껌벅거리며 속절없이 갓난애기 머리만한 주먹을 쥐락펴락하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제 생각엔… 지금형편에서…》

《어서 말하오.》

방향참모는 속이 타드는듯 두툼한 입술을 실룩거렸다. 또 한동안 갑자르다가 마침내 혀로 입술을 감빨았다.

《지금 적들은… 대규모의 무력으로 드디여 인천항에… 상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상륙하면 비행대와 포병의 엄호하에 수백대의 땅크를 앞세우고 공격해올것입니다. 더우기 인천－서울간 대도로를 따라 공격해오면…》

《동무가 거기서 적들의 침공을 막는다고 생각해보오. 현존 방어력량을 가지고 며칠간 더 견지할수 있겠소？》

《최고사령관동지！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적아간의 엄청난 력량상대비로 보아… 5일이상은 더 막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5일？》

김일성동지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러면 락동강전선의 우리 주력이 적의 포위에 들수 있다.

별안간 차바퀴소리가 요란해졌다. 자갈돌이 바퀴짬에서 뿌려져나가고 차체에서는 줄곧 찌걱찌걱하는 소리가 났다. 길이 험해진 모양이다. 차가 들출 때마다 화끈 달아오른 방열기에서 김이 씩씩 솟구쳤다. 방향참모의 이마우에도 땀이 한벌 내돋고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별안간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대기에 가득찬 볕에 그슬린 풀의 향기를 가슴가득 들이키시였다. 앞에 누런 등판이 펼쳐져있었다. 그곳에서 곡식이 익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왔다. 하늘중천으로 쪼각구름들이 모여들고있었다. 돌연히 그 구름장을 향하여 시꺼먼 회오리가 쫘－악 날아올랐다.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은 새떼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창유리에 머리를 바투 가져가시였다. 벌써 승용차는 등판에 올라 넓은 조밭을 한옆에 끼고 달리고있었다. 다시 또다시 새떼가 날아올랐다. 승용

차를 앞질러 시커먼 연기뭉테기처럼 푸루루！— 하고 날아올라서는 사방 흩어져 휙—휙 돌고있었다.

《차를 세우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차가 멎자 그이께서는 무리지어 날아도는 새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급히 길섶으로 내리시였다.

수백수천을 헤아리는 새떼 날개의 퍼덕임소리가 세찬 파도소리처럼 머리우를 휩쓸었다. 어느덧 하늘을 덮을듯 날아올랐던 새떼가 일시에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물속에 자맥질하듯 넓은 조밭에 잠겨들었다. 조이삭마다 매달리는통에 등판의 조밭이 일시에 나가넘어졌다. 람루한 적삼을 씌워놓은 허수아비들만이 우뚝 드러났다. 그런데 그 허수아비 꼭대기에까지 새들이 올라앉아 정수리를 마구 쪼아대고있었다.

《이럴수가 있나！》

김일성동지께서 허리를 굽혀 손에 잡히는대로 흙덩이 하나를 골라쥐시였다. 뒤미처 차에서 뛰여내린 방향참모도 어망결에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때 조밭가운데에 늘여진 새끼줄에서 왱강쟁강하는 깡통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한무리의 새들이 푸르르！— 세찬 바람소리같이 날아올랐으나 다시 밭의 저쪽에 내려앉았다. 그쪽에선 깡통소리들이 울리지 않았다. 줄이 끊어진것 같았다. 그런줄도 모르고 누군가 계속 줄을 당기고있다. 밭의 한쪽은 왱강쟁강 부산스러웠으나 다른 한쪽은 조용했다. 그곳에서는 숱한 새들이 곤두박질을 해가며 한해농사를 결딴내고있었다.

《이런 변이라구야.》

김일성동지께서 뒤를 돌아보시였다. 민망해하고 무척 난감해하시는 표정이였다. 이윽고 급히 밭가운데로 걸어들어가시였다. 방향참모와 부관장도 뒤를 따랐다. 부관장은 손에 들고있던 커다란 돌멩이를 쥐여뿌리기까지 했다. 《훠이！ 훠이！》하며 팔을 힘껏 내젓고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굳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 그에게 주의를 주시고 서덜밭 한쪽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그곳, 느

암이며 제비초리, 어저구들이 무성하게 자란 풀숲가운데 키낮은 뽕나무 두세그루가 서있었다. 낮동안의 더위에 달아오른 등판의 흙냄새며 시들어가는 쑥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그 풀숲 한가운데, 뽕나무아래에 멀쑥한 농립모를 눌러쓴 사람이 팔베개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책을 들고있었다. 그의 하얗고 가는 발목에 새끼줄이 감겨있는것이 보였다. 발을 들었다놓았다할 때마다 줄에 매단 깡통들이 소란을 피웠다.

《원, 저 사람이？！》

방향참모가 가느다랗게 부르짖었다. 기가 차는 모양이였다. 당장 달려가 한심한 게으름뱅이의 덜미를 잡아끌려는것 같았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 또 한손으로 막으시였다.

《가만！》

깡통소리들이 멎었다. 들었다놓았다하던 발이 털썩 내려졌다. 다른쪽 하얀 발가락으로 발등을 쓱쓱 긁어대였다. 그리고나서 머리우에 들고있던 책을 가슴우에 올려놓았다. 청을 돋군 글소리가 랑랑하게 울려왔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는

장군님 세워주신
참 좋은 나라

소년의 목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까딱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얼굴가득히 미

소를 그리시였다. 그이의 손에서 흙덩이가 부서져 부실부실 떨어져 내렸다. 소슬한 바람결에 그이의 이마에 드리웠던 한줄기 머리칼이 나붓기였다. 어데서 날아온것인지 메뚜기 한마리가 그이의 어깨우에 뛰여올랐다. 메뚜기는 가느다란 집게발을 연신 놀리며 어깨우를 재여갔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여전히 소년의 글소리를 여겨들으며 서계시였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일 잘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장군님 이끄시는
참 좋은 나라

소년은 제흥에 겨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해별이 자글자글 내려쪼였다. 등판아래 강기슭에 늘어선 백양나무 우듬지가 하느적거렸다. 여전히 조밭에서는 미칠듯한 희열에 날뛰는 새떼가 바글바글 끓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처음엔 발끝걸음으로, 다음엔 허리까지 굽혀 무엇인가 찾고계시였다.

마침내 그이께서는 줄이 끊어진데를 발견하시였다. 끊어진 줄을 서로 당겨 단단히 옭매놓은후 줄을 가만히 당겨보시였다. 깡통들이 춤추며 떠들었다. 이번엔 좀더 힘을 주어 당기시였다. 온 조밭이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이삭마다 매달렸던 새들이 놀라 뛰쳐났다. 청승맞게 서있던 허수아비도 찢겨진 팔소매를 너펄거리기 시작했다.

새들이 까맣게 날아올랐다. 방향참모가 다가와 줄을 당기고계시는 그이를 넋잃은듯 우러르고있었다. 등뒤에서는 여전히 소년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리고있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그이께서는 귀를 기울여 랑랑한 그 목소리를, 한 소년의 마음속에 깃든 보석같은 꿈과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계시였다.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장군님 이끄시는
참 좋은 나라

그이께서는 문득 어깨에 총도 없이 떠나던 병사들의 모습을 상기하시였다. 비록 허리에 수류탄만 하나씩 차고있었지만 준엄하고도 굳센 모습들이였다. 바로 그들이 저 마음속에 꿈을 키워준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였다.

그렇다! 전쟁이 아무리 가혹하다 해도 이 꿈과 노래는 없애지 못하리라. 아무리 모진 경난도 저 순결한 꿈과 노래를 간직한 심장은 놀래우지 못하리라!…

그이께서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시였다. 가슴속에서 용암이 끓고있었다. 밝은 미소가 비꼈던 그이의 안광엔 어느덧 강렬한 섬광이 번뜩이였다. 지금까지 괴로운 사색속에 펼쳐오신 비상한 결심이 순시에 무르익고있었다. 가장 크고 억센 믿음에 기초한 그 결심… 이러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기어이 승리한다. 그 어떤 원쑤도 우리 인민은 결코 꺾지 못한다!…

강부관장이 다가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팔목시계를 보시였다.

《음-》

떠들썩하던 조밭이 조용해졌다. 그이께서는 소년의 글소리가 울리는곳을 잠시 바라보신 다음 걸음을 옮기시였다. 걸음마다 한아름씩 조이삭을 건어안으시였다. 그때마다 영근 이삭들이,풍요한 가을이 그이의 넓으신 품에 안기군했다. 이윽고 승용차에 이르시였다.

문득 그이께서는 이상한 느낌에 머리를 돌려보시였다. 아닐세라 발머리 저쪽에 소년이 서있었다. 농립모를 벗어들고 해빛을 가리며 잔뜩 쪼프려 뜬 눈으로 유심히 이편을 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소년을 향해 손을 저어주시였다.

운전사가 발동을 걸었다. 이어 차는 떠났다. 누런 조밭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들었다. 무르익는 가을의 향기,차창우에선 해빛이 흥그러이 뛰놀았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발머리에 서있던 소년이 조밭을 가로질러 달려나오는것을 보시였다. 처음엔 뽀얗게 일어난 먼지발속에 가리워지다가 또 후사경속에 뛰여들었다. 종주먹을 부르쥐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길복판에서 우뚝 멎었다. 그리고 두손을 입에 모아 목청껏 부르짖었다.

《장군님！－》

가슴속을 찌릿하게 스쳐간 그 류다른 감각으로 그이께서는 이 절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였다.

승용차는 이윽고 등판을 넘어 달리다가 마침내는 큰길에 나섰다. 그이께서는 다시 뒤를 돌아보시였다. 먼 등판우에 서있는 소년의 모습은 어느덧 하나의 작은 점으로 사라져가고있었다.…

3

분망하신 하루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사에 돌아오시자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지도하시였다. 2시부터 3시 15분까지 조성된 엄중한 정세하에서 지방방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론되였다. 3시 30분부터는 보위성 부상을 통하여 인천－

서울 지역의 정황보고를 받으시였다. 이어 병기생산국 서병호국장을 찾으시여 극심한 부족을 느끼고있는 무기,탄약 생산문제를 의논하시였다.

5시엔 남일이 준비한 보고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남일이 집무실로 들어설 때 홍명희부수상이 또 회견을 청해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기 좀 앉으십시오.》

《장군님!》

홍명희의 가늘게 쪼프린 두눈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짧게 기른 코수염을 연신 비다듬고 마른 기침을 몇번이고 거듭한끝에 잰 말씨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어제 있은 놈들의 폭격통에 력사박물관이 또 크게 상했습니다. 제 불찰로 미처 소개 못한 유물들이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겠고 또… 전재고아들문제도 있고 해서 장군님을 뵙고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해봅시다.》

그이께서 거듭 자리를 권하시였다. 절제있고 고정한 이 로인이 구구히 찾아온 리유를 설명하는것으로 미루어 우정 용건을 만들어온것이 분명했다. 터질것 같은 불안을 한가슴 가득 채워온듯 눈에 띄게 바재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의자를 끄당겨주시였다.

《어서 앉으십시오. 여기서 우선 남일동무의 보고를 들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이제 남일동무가 우리 군대의 작전전략적가능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

홍명희는 잠시 늙은이답게 눈을 깜박거리며 남일을 지켜보았다. 짙은 의혹이 그 눈빛에 어려있었다. 한두번 머리를 흔들기까지 했다.

홍명희는 지난 6월 26일에 있은 공화국 군사위원회 제1차회의 당시부터 군사위원회 성원 7명중의 일원이다. 주로 부상병구호등의 일을 맡고있지만 여러 기회에 조성된 국면,전시국가계획 및

전시보급과 일련의 전투정황들에 대한 토론들에 참가해왔으므로 전쟁과 군사부문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리해를 깊이 하고있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육성 부상이였던 남일이 군사전략과 관련된 중대한 보고를 한다는것이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엉거주춤 자리에 앉으며 또한번 남일을 훑어보았다.

웬일인지 남일은 얼굴이 컴컴하게 질려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까이 부르시자 약간 흠칫했다.

《남일동무.》 **김일성**동지께서 미소를 담고 고무하시였다. 《어서 시작하시오.》

남일의 굳어진 얼굴이 실룩거렸다. 탁자앞까지의 몇발자국을 무겁게 움직여왔으나 잠시 옆구리에 끼고있는 서류만 만지작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 의아해하며 물으시였다.

《남일동무, 웬일이요？》

《장군님！》 단숨에 이렇게 내뿜고나서 남일은 꿋꿋해졌다. 추위를 타는듯 얼굴에 싸늘한 경련이 스쳐갔다. 《아직… 보고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보고드릴것이… 없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얼핏 홍명희쪽을 보시였다. 짧고 희여스름한 그의 속눈섭이 떨리고있었다. 재빛을 띤 입술을 우물거리다가 **김일성**동지께서 바라보시자 그만 고개를 수그리고말았다.

남일은 수치와 절망에 찬 마음으로 탁자앞에 굳어져있었다. 타는듯한 아픔이 입안의 침을 말렸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지혼솔을 쥐여뜯으며 숨소리마저 죽이고있었다. 너무도 긴장했던 나머지 목덜미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뚝처럼 굳어져버린 남일을 한동안 지켜보시였다. 홍명희가 참다못해 괴로운 기침소리를 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어떻게 된 일이요, 남일동무. 시간이 모자랐소？》

《아닙니다.》

《자료가 불충분했던건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말해보시오. 어떻게 된셈인지…》

《장군님！》 남일은 머리를 들었다. 그쯘한 체격을 곧바로 펴고 그 무엇인가 결심한듯 숨을 크게 내뿜었다.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조성된 정황하에서 우리 군대의 작전전략적가능성을 연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과정에… 저의 준비정도가 너무 어리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을 저로서는… 도저히 찾을수 없었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양복앞섶을 헤쳐놓으시였다. 어데선가 비맞은 뒤의 시크무레한 흙냄새가 흘러드는듯했다. 소창문이 약간 열려져있었다. …

남일은 교육자이며 또 능숙한 조직자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그가 가지고있는 능력과 품성가운데서 남다른 점을 한두번만 찾아보시지 않았다. 남들에게 오해를 살 정도로 강경한 성격,해박한 지식,선천적인 분석력… 그는 깊이 사고했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다듬어 말하군했다. 그러나 그는 전날에야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임명되였던만큼 유능한 참모일군으로서는 아직 너무도 준비가 미약하였다.

《나는 동무에게》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의 작전전략적가능성을 연구해보라고 했지 작전방안을 가져오라고 하진 않았소. 그러니만큼… 우선 그동안 연구한것을 말하면 되오. 그러되 남일동무！ 지금 정세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황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금후 사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며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것이요. 이것을 잊지 마시오.》

《알겠습니다,장군님！》

남일은 옆구리에 끼고온 서류가방에서 갖가지 표식으로 어지러워진 지도를 꺼내였다. 그것을 정히 펴놓으며 가볍게 기침소리를 냈다.

《먼저 락동강계선에 조성되고있는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현재까지 이곳의 우리 련합부대들은 대구를 점령하기

위한 결사적인 총공세를 벌리고있습니다. …》

그는 한마디한마디를 명확하게 발음하면서 보고를 계속하였다. 《ㅈ》발음을 《ㅉ》에 가깝게 할 때도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흥분이 그 특이한 억양으로 표현되였다.

《지금 우리 련합부대들은 락동강의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는 전역에서 공격성과를 확대하고있습니다. 우로부터 보면 포항,경주에 돌입하였으며 대구이북의 요충지들이였던 안동과 영천이 이미 해방되였습니다. 대구정면에서는 가산과 다부동을 점령하고 창녕,령산 방면에서는 적의 배후로 깊숙이 뚫고들어가 대구를 포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산정면에서도 파구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질겁한 적들은 지금 〈부산교두보〉를 견지하려고 미친듯이 병력을 보강하고있습니다. 정찰국에서의 보고와 적들의 방송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최근 약 15일어간에 미 제8군은 약 9만명,괴뢰군은 9만 2,000명으로 늘어나 우리의 2.5배에 달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 적들은 공군 3만 8,000여명,해군 3만 7,000여명을 락동강전선에 고착시키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또 지금 일본은 거대한 후방기지로 전변되고 보급물자와 자재는 한정없이 부산으로 밀려들고있습니다. …》

홍명희의 얼굴이 긴장해졌다. 얇은 입술에는 경련이 일어나고 남일을 지켜보는 그의 두눈은 엄하게 쪼프려졌다. 그러나 남일은 여전히 꿋꿋한 표정으로 보고를 계속하였다. 우리 인민군련합부대들과 적들의 무력대비,잠재력,전과와 손실 등을 언급했다.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정확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자비하기까지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인민군대가 입은 손실에 대해 어물쩍해 넘기지도 않았다.

차츰 홍명희는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킁킁 코소리를 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끼단추를 쥐여뜯기도 했다. 수학에 능한 전날의 이 교육부상이 서류도 보지 않고 임의의 수자들을 불러댈 때마다 두손을 열심히 비비적거렸다. 하얀 얼굴이 파르스름한 빛이 돌 정도로 창백해졌다.

《계속해서 인천,서울 지역에 조성된 정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

남일은 계속했다. 여전히 뚝뚝하고 메마른 어조였다. 적들의 병력, 장비, 화력, 우리측과의 대비, 예상되는 행동성격… 홍명희는 몸을 궁싯거리며 손가락마디들을 꺾었다. 어느덧 두눈엔 분노의 눈물이 어릴지경이였다. 미간으로 쪼프려진 성깃한 눈섭을 찌긋거리며 남일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엔 분노와 혐오와 적의가 가득차있었다.

《지금 적들은…》하고 남일이 계속했다. 《인천에 상륙한 제1제대 주력으로 곧 서울을 강점하고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락동강의 우리 주력부대들이 보급로를 차단당하게 되고 또 엄중하게는 포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돌연 홍명희가 기침을 했다. 더는 그대로만 듣고있을수 없었던것이다. 남일이 입을 다물고 묻는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홍명희는 아무말 없이 또한번, 그러나 약간 소리를 죽여 기침소리를 냈다. 그러자 **김일성**동지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듯한데…》

《저… 실은…》

홍명희는 말을 더듬었다. 부지중 자기의 분노가 의심스럽게 여겨지고 선뜻 입을 열기가 주저되였다. 얼어든 유리창에 귀를 눌러댔을 때처럼 고막이 징— 울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또 권하시였다.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웬일인지 홍명희는 눈시울을 사뭇 떨고있었다. 머리를 들어 정면으로 남일을 쏘아보며 그는 거친 속삭임으로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남일동무 인민군대가 서울을 내줄것처럼 말하시오?》

남일의 얼굴은 침울했다. 말마디들을 힘들게 발음하면서 그는 나직이 대답했다.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고있습니다.》

《?…》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홍명희는 꼼짝도 않고 그자리에 앉아있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해나고… 무엇인가 뼈속깊이 박히는 아픔이 있었다.

잠시후 남일이 다시 보고를 이어갔다. 예비부대들의 조직형편, 무기와 군수물자보급, 특히 총이 없어 사람들을 더 무장시킬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도 자상히 까밝혔다. 점차 홍명희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눈길은 책상우의 지도에 못박혀있었다. 남일이 며칠밤을 새우며 수자들과 갖가지 부호를 그려넣은 지도였다. 그 무심한 수자들과 여러 도형의 부호들이 얼마나 모진 경난을 의미하는것인지 리해되기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눈보라가 일고있었다.…

홍명희는 언제 남일의 보고가 끝났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시고 남일이 가지고왔던 서류와 지도를 거두어가지고 방을 나갈 때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조용해졌다. 불시로 찾아든 적막에 귀가 멍해졌다. 홍명희는 눈을 슴벅거리며 추운듯 몸을 옹송그렸다. 잠자코 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여겨보면서 심장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비로소 그는 그이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려와 아픔을 안고계실가 하는 생각에 목구멍이 타들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의 지도앞으로 걸어가시였다. 그곳에서 지도의 한점을 눈여겨본후 천천히 몸을 돌리시였다.

《부수상선생도 남일동무의 보고를 다 들으셨지요?》

《예, 하지만 군사문제엔 문외한이다보니…》

《선생이 노여워하는걸 저도 보았습니다. 남일동무가 너무 랭정하게 분석하는것이 마음에 안드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명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인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탁자 앞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라크칠한 탁자우에 땀밴 손자리가 났다.

《부수상선생!》 **김일성**동지께서 가까이 오시였다. 《남일동

무는 사태를 대담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힘든 문제도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또 무엇인가 생각하시는듯했다. 천천히 탁자를 에돌아가 화분대에 떨어진 꽃잎을 하나하나 모으시였다.

《다른 사람들같으면 아마 이러저러한 작전방안들을 내놓았을수 있습니다. 어느 계선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며 적들의 공격을 저지시킨 다음 어떤 력량으로 어데서부터 반타격을 가한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남일동무 조성된 정황을 분석한 결과 상상이외의 엄중한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태하에서 그는 아무런 방책도 세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았고 그때문에 피로워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최고사령부에서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있는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는 고지식하게 또 솔직하고 대담하게 자기를 드러내놓은것입니다.》

《장군님!》 홍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중임을 맡기시려는지… 외람된 질문인줄 알지만…》

《괜찮습니다. 그러찮아도 군사위원회에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침묵하시였다. 그이의 얼굴에 일순 어두운 그림자 같은것이 스쳐가는듯했다. 무엇인가 가슴 저미는 회오에 잠기시는것 같았다. 이윽고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쟁이 확대되고 첨예화되는 현단계에서… 나날이 최고사령부의 사업은 방대해지고있습니다. 총참모부사업만 놓고보아도 지금… 대담하고 확신성있게 일을 내밀수 있는 능력있는 주인이 없이… 여러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아직 총참모장자리를 비우고있는데… 전쟁의 국면이 첨예화되고있는 때 이것은 커다란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홍명희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있었다. 지난 9월 10일 강건 총참모장이 최전선에서 희생되였다는 비보를 받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민첩하고 쾌활하고 정력적이고 담찬 군사지휘관 강건 총참

모장이 희생되였다는것을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었다. 11일 오후 모란봉극장에서 영결식이 있었는데 군악대가 주악을 시작하자 순식간에 드넓은 홀은 비통한 추도곡의 홍수로 물결쳤었다. 군복을 입고 누운 강건의 얼굴은 평온하고 부드러웠다. 명철한 사색속에 고요히 눈을 감고있어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벌떡 뛰쳐일어날것처럼 생각되였었다. …

그 일을 생각하자 부지중 가슴이 쓰려났다. 그런즉 장군님께서는 지금 희생된 강참모장의 후임을 두고 말씀하신다. 그의 후임으로 저 남일을 생각하고계셨구나!… 무슨 말씀이든 올려야 했으나 비통한 생각만이 계속 입술을 태웠다.

《왜 아무 말씀도 안하십니까?》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홍명희는 달달 말라드는 입술을 감빨았다.

《장군님! 그저 좀… 생각에 잠겼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일없습니다.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저…》

그 순간 홍명희는 자기의 귀전에서 쇠불이소리처럼 쟁쟁 울리는 음향에 머리를 흔들었다. 장군님께서 강참모장의 후임으로 남일을 지목하신데는 깊은 뜻이 있을것이다. 출신이나 경력은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런건 다 부질없는 로파심에 불과할것이다. 하다면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믿으셨을가?…

《장군님!》 드디여 홍명희는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같이 전국이 불안하고 커다란 위험이 닥쳐온 이때 아무 경험도 없는 남일동무에게 그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시니… 좀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제일 어려운 때 그에게 너무 큰짐을 지우려 하고있습니다. 전문분야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준비된 간부들이 매우 적고 또 간부들을 육성해낼 시간적여유도 없습니다. 선생도 아시다싶이 지금 우리에겐 믿음과 기대가 있을뿐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조용히 미소를 그리시였다.

《선생은 안길동무를 만나본적이 없으시지요?》

《예,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혜롭고 다정다감하고 또 랭철한 의지를 가진 항일유격대의 지휘관이였습니다. 게다가 녀자같이 섬세하기도 했지요. 처음 입대했을 때 제손으로 자기가 입을 군복을 지었는데 그 바느질솜씨에는 녀대원들이 다 시샘을 할 지경이였습니다. 혁명을 시와 노래처럼 생각하던 인테리청년이였지요. 그러한 그였기에 입대한 첫시기 자기 마을에서 갖은 악행을 다했고 또 자기를 체포하려고 발악했던 악질특무놈이 잡혔을 때 끝내 제손으로 처단하지 못하고말았습니다. 몇번이고 총을 들었으나 눈을 꽉 감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끝내 총을 내리고 말았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있었답니다. 그러던 안길이 몇해어간에 중대장,련대정치위원,방면군참모장으로까지 자랐습니다. 해방후엔 보안간부훈련소 참모장으로서 불치의 병에 걸려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인민무력건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그린듯이 서계시였다. 조수처럼 밀려드는 추억의 물결에 몸도 마음도 다 잠그고계신듯했다. 이윽고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을 때 그 음성은 젖어있었다.

《얼마전에 희생된 강건동무 역시 내가 처음 북만의 녕안땅에서 만났을 때엔 허리에 칼과 수류탄을 찬 애어린 청년이였습니다. 그러나 스물아홉살에 벌써 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안길,강건… 빼앗긴 조국을 찾느라니 그렇게들 빨리 성장한듯싶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것이 있었다면 조국에 대한 사랑,인민에 대한 헌신성이 크고 뜨거운것이였습니다. 부수상선생,나는 남일동무한테서도 이 점을 보고있을뿐입니다.》

홍명희는 후두둑후두둑 뛰는 가슴 한쪽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대고있었다. 투명한 적막에 둘러싸인 이 방안에서 흥분에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유일한 음향인듯 여겨졌다. 그는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에,아니 장군님의 거대한 사상과 인품에 매혹된 심장의 웨침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흘러간 생애를 더

듣어보았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음을 감수하려니 비분을 금할수 없어》 자결의 길을 택한 부친의 유서를 벽에 걸고 보면서 잃어진 나라를 찾고저 꿈을 키우고 민족주의운동의 선풍속에도 뛰여들었으나 끝내는 심혈을 기울여 쓰던 력사소설마저 채 맺지 않고 붓을 꺾어버린후 초야에 묻혀살던 그였었다. 그때 벌써 홍명희는 60을 넘긴 로인,가물가물 꺼져가는 하나의 초불에 불과했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다 연소시켜버리고 흘러내린 초물덩이만이 덧쌓인 그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위대하신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그에게 활력을 주고 원천을 주었다. 위대한 사랑이 진해가는 심장에 세찬 피줄을 이어주었던것이다.

홍명희는 머리를 들고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비로소 그는 자기자신이나 남일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인격과 지혜와 능력을 저울에 달아보려는것이 얼마나 당치 않고 부질없는 시도인지를 깨닫고있었다. 비로소 그는 이 시대의 견실한 혁명가들과 그들의 견결한 정신이 우러난 샘터를 발견한 심정이였다.

그는 장군님께서 가져온 문건을 보자고 말씀하셔서야 서둘러 팔소매로 눈굽을 찍었다. 그리고나서 자필로 정히 쓴 문건을 펴놓았다.

부끄러웠다. 별안간 옹색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침략자들이 방대한 무력으로 인천에 상륙하여 전진하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가슴을 조이며 장군님을 우러르고있다. 이러한 때 전쟁의 중하를 다 안고계시는 장군님께,그토록 긴장하고 다망하신 장군님께 력사박물관 유물소개와 전재고아들의 교육,의복 등의 사사로운 용건을 만들어온것이다. 그는 석고같이 생기를 잃은 낯색으로 까딱않고 서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연필로 밑줄까지 그으며 주의깊게 문건을 넘기고계시였다. 렬차수송과 관련된 내용결에는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천천히 눈길을 드시였다.

《좋습니다. 부수상선생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착상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급히 착수하여야겠습니다. 군사교통부에는 제가 직접 임무를 주겠습니다.》

《…》

홍명희는 눈굽이 찌릿해졌다. 짧고 희여스름한 그의 속눈섭이 사뭇 떨리고있었다. 어느새 그의 마음은 벅찬 격정에 젖고있었다. 웬일인지 지금껏 귀전에 메아리치던 전쟁의 폭음이 멀리 사라져버린것 같았다. 남일이 불러대던 그 많은 미국제 대포와 땅크,비행기들이 거꾸로 돌린 시보영화에서처럼 순시에 뒤로 물러가버린것 같은 느낌이였다.

4

신의주발 평양행 렬차는 날이 어두워서야 도착하였다. 역앞에는 최용건의 승용차와 작전국 대기차가 나와있었다. 마중나온 작전국일군과 악수하면서 최용건은 먼저 《서울은 어떻소?》하고 물었다.

대좌견장을 단 그 일군은 무겁게 한숨을 내그었다.

《상동지,지금 서울에서는 대단히 힘겨운 싸움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최용건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부르쥐며 다우쳐물었다.

《어떻게?… 좀 자세히 말하오!》

《지금 적들은 인천항의 안벽을 폭파하고 끝내 인천에 상륙…》

《가만,그럴게 없이 가면서 얘기하기요. 내 차에 타오!》

차에 오르자 최용건은 인천,서울 지구의 정황을 하나하나 캐물었다. 적정은 물론 이 지구 방어부대들의 상태,전투과정을 료해하면서 그는 자기가 예상했던것보다 더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작전국의 대좌는 지금 적들이 미1해병사단으로 하여금 주타격

을 영등포로 지향시키고 인천—서울간 대도로상에서는 벌써 부평에 들이닥쳤다고 했다.

《부평에?》

최용건이 놀란듯 머리를 돌리자 작전국의 대좌는 재빨리 설명을 달았다.

《인천 동쪽에 있는데 전쟁전에는 미륙군보급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수천톤의 군수물자를 저장했던곳인데…》

최용건이 머리를 흔들자 대좌는 입을 다물었다. 최용건이 바란것은 그처럼 자상한 자료가 아니였다.

《부평에서 소사를 거치면 영등포구에 곧장 들어설수 있지 않소?》

대좌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한동안 입술을 꽉 악물고있더니 괴로운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상동지, 지금 적들이 비행대의 강력한 엄호하에 대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형편에서 래일 아니면 모레쯤엔 서울에서 시가전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음—…》

최용건은 불시에 심장 한쪽이 뜨끔해져서 어깨를 흠칫했다. 서울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 전쟁이 일어난 첫시기 서울까지 나갔다가 그곳에서 소환되여온 그였다. 그때 최용건은 서울해방작전에 참가한 주타격련합부대들을 련속공격에로 이끌지 못하고 3일간이나 지체했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잃음으로써 전선에, 나아가서 전쟁의 국면에 얼마나 많은 난국이 겹쌓였는가는 그후의 사태발전이 잘 말해주고있다. 례사로운 3일, 잃어진 3일을 되찾기 위해 바쳐진 거대한 노력과 희생에 대하여 그는 언제나 가슴저미는듯한 아픔없이 생각할수 없었다.

최용건은 뜨끔뜨끔 쏘아나는 가슴을 한손으로 꽉 눌러댄채 생각을 이어갔다.

(정세는 극도로 엄중하다. 어떻게 하면 남포와 원산에 있는 부대들을 속히 서울로 기동시킬수 있을가. 하지만 그 부대들도 실상은 아주 적은 력량인데… 지금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

우시겠는가?！…)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자 대뜸 긴장한 분위기가 페부로 느껴지는듯싶었다. 류달리 조용하고 엄숙했다. 부관실에서 그를 맞이한 강부관장의 얼굴도 여느때와는 판판 달라보였다. 최용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그에게 손을 들어 대충 답례하며 묵직하게 물었다.

《장군님께선 계시오?》

《예, 지금…》

《보고드리오.》

그는 집무실 문앞에 그냥 서있었다.

그는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다. 한꺼번에 너무도 많이 갑자기 생각하고있었기때문에 갈래가 잡히지 않고 가슴만 쿵쿵 걷잡을길 없이 뛰고있었다.

부관장이 그를 에돌아 집무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순간 최용건은 집무실에서 울려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여럿이, 적어도 네댓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리고 허물없이 즐겁게 웃고있는 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자기가 잘못듣지 않았는가싶어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 순간 다시 문이 열리며 부관장이 나타났고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왔다.

《최용건동무, 어서 오시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그를 향해 마주나오시였다. 악수를 나눈후 그이께서는 손수 의자를 당겨 자리를 권하시였다.

《최용건동무, 그간 후비부대조직사업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일때문에 불렀는데…》 그이께서는 책상우의 서류를 가까이 당겨오시였다. 《우선 이것부터 읽어보시오. 그동안 나는 토론하던것을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제서야 최용건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기이한 일이였다. 여기에는 아직 전쟁을 상기시키는것이 아무것도 없는듯했다. 숙연한 평온이 깃들어있는 검소한 집무실, 복판에 놓인 작전대와 탁자, 회전의자와 창가의 화분, 파르스름한 상보를 씌운 받침대우의 라지오, 적갈색의 윤기나는 가죽쏘파, 그 쏘파에 두사

람이 그리고 그옆의 접이식의자에 또 한사람이 앉아있었다. 쏘파에 앉은 한사람이 리승기박사라는것을 처음으로 알아보았다. 다른 두사람도 학계에서 명망높은 반백의 학자들이였는데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이 최용건을 향해 목례를 하자 그 역시 얼결에 답례했다. 그때 장군님께서 의자를 당겨가며 학자들과 마주앉으시였다. 최용건도 전화기들이 놓인 탁자를 등지고 앉았다.

눈앞에 그이께서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자필로 쓰신 명령서가 있었다. 그는 먼저 《전선사령부관하 군집단들에서 작전대형을 1개제대로 편성한 조건에서…》라고 씌여있는 글줄부터 주의깊게 읽기 시작했다.

《전선사령부는 주요방향에 력량과 기재를 집중하고》 《기동성이 높고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기계화련합부대를 전선사령부 작전적예비대로 장악하고》 등의 글줄이 계속되였다. 드디여 그의 눈길은 《기동방어의 형식으로…》하는곳에 가 멎었다. 훌연 눈시울이 아프게 죄여드는듯했다. 방어?… 대구와 부산을 눈앞에 두고있는 지금 장군님께서 방어를 명령하신다?!…

불시로 최용건은 어깨를 흠칫하며 머리를 돌렸다. 등뒤에서 장군님의 호탕하신 웃음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여러분의 심정은 알만합니다.》하고 그이께서는 마주앉은 학자들을 향해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에 위험이 닥쳐온 이때 여전히 실험실에만 들어앉아 무엇을 내라, 무엇을 해결해달라 하기가 괴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장군님! 사실 어찌할바를 모르고있다가 장군님께서 불러주셔서야…》

반백의 학자에 이어 리승기박사도 궁싯거리며 어줍게 미소했다.

《루란지세라고 저희들의 소견에도 형세가 위태로와보여 사실… 숨을 죽이고있었습니다.》

《루란지세라!… 뭐 알을 쌓아놓은 형세처럼 그렇게 위태롭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과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

지만 두고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궐기시켜 침략자들을 쳐부실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연구사업까지 중단하고 숨을 죽이고있을 필요야 없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타는듯한 기대에 눈빛을 빛내면서 그이께서 계속 말씀해주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최용건도 은연중 귀를 강구고 그이의 말씀을 마디마디 새겨듣고있었다.

《얼마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이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이였다. 《외국에 가있는 류학생들이 귀국하여 총을 메고 싸우겠다는 전선탄원서를 보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동무들은 안심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부를 더 잘하기 바란다는 회답전보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 전선에서는 한명의 전투원이 귀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래일을 생각해야 하며 래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되 오늘을 반복하는 래일이 아니라 더 좋고 더 훌륭한 래일을 오늘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머지 않아 전쟁을 이기고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겠는데 그때에 가서 또 무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리승기선생! 이제 전쟁을 이기면 그처럼 영웅적으로 잘 싸운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해입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은 그때에 가서야 실험기구며 설비들을 빨리 내라고 요구하겠습니까?!…》

학자들은 스스럼없이 소리내여 웃었다.

최용건은 자기 역시 입을 벙글써하고있는줄 알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재삼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은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해주십시오. 그럼 또 제기할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서슴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한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한껏 욕심을 부려 제기하십시오. 인민을 위함이라면 욕심이 하늘에 닿을수록 좋습니다!》

학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느끼던 불안이 가뭇없이 사라진듯 또 소리내여 웃었다. 어언 집무실은 더 밝아지고 더 포근해진듯싶었다. 최용건은 어깨를 쭉 폈다. 그는 장군님께서 학자들과 일일이 작별인사를 나누실 때까지 그쪽의 대화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를 기울이였다.

학자들이 방에서 나가자 장군님께서는 전화로 김종항비서 (내각사무국 부국장 겸임) 를 찾으시였다. 내각사무국에서 직접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특히 필요한 설비,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줄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탁자를 에돌아 작전대앞까지 오시였다. 최용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곧추 들었다. 비로소 그이께서 전쟁의 엄혹한 현실로 돌아오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잠시 지도의 한점을 응시하고계시였다. 서울— 역시 서울이였다.

《최용건동무.》 마침내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지금 맥아더란놈이 뭐라고 장담하는지 압니까?… 닷새동안이면 서울을 강점하고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듯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도 작은 섬인 월미도를 점령하지 못해 얼마나 발광하였습니까!》

그이께서는 탁상일력을 끄당겨 거기에 가득 씌여진 글들을 한동안 눈여겨보시였다. 그리고나서 천천히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보고에 의하면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불과 4문의 포로 3일동안에 적구축함 3척을 포함하여 각종 함선 13척을 격침격파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불사신처럼 싸웠습니다. 포병 한개 중대와 보병 한개 중대의 력량이 약 1,000대의 비행기와 수백척의 함선을 동원한 적의 대병력을 상대로 무려 3일동안이나 섬을 지켜냈으니… 세계전쟁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지도우에 눈길을 옮기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맥아더는 여전히 방대한 무력으로 서울을 강점하고 락동강전선의 미제 8군과 함께 우리 주력부대들을

포위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간을 쟁취하는것입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놈들의 모험적인 기도를 파탄시키고 시간을 얻어내야 합니다. 서울방어가 사활적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주의깊은 시선으로 그를 여겨보시는데 그것은 마치 《최용건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으시는듯하였다.

최용건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약간 지릅떠보는듯한 눈길을 지도우에 떨구고있었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계신다.) 하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쓰신 명령서에 밝혀있는 《기동방어》일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기동전일것인가?…)

《최용건동무!》

그이께서 조용히 부르시였다. 최용건은 눈길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송곳처럼 찌르는 날카로운 예감으로 장군님께서 이제 전례없는 비상한 그 결심을 말씀하시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 장군님의 다음말씀을 기다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준절한 어조로 마디마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결심하였습니다!》

《후퇴?》

《그렇습니다.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로서 우리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조성된 정세가 바로 그것을, 단호한 결심을 내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들여 력량상 비할바없는 우세를 조성하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려 하는만큼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우선 락동강전선의 주력부대들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군대의 골간, 우리의 핵심무력이 거기에 나가있습니다. 모든것은 우리 무장력의 기본을 이루는 이 부대들을 구출하는가, 구출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 부대들이 앞으로의 결정적인 반공격의 기본골격으로 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강력한 후비부대들을 조직하

며 전체 인민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전에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한데 어데서 그 시간을 얻어내겠습니까.… 여기 서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기서 놈들을 저지시키고 당면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최용건동무, 이 어려운 과업을 최용건동무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서해안방어사령관으로서 곧 서울로 떠나야 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용건의 두눈이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관자노리의 힘줄들이 금시 터질듯 부풀어오르고 꽉 틀어쥔 두주먹엔 땀이 흥건했다. 그는 가슴속에 꽉 들어찬 격정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벅찬 흥분으로 검붉어진 두볼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 어떤 위험앞에서도 결코 드놀지 않는 억센 담력을 지니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이렇듯 한순간 만나뵙기만 해도 마음이 거뜬해지고 한마디 말씀만 들어도 드센 배심이 생기는것을!… 그는 또한번 마른침을 삼키면서 더욱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또 말씀하시였다.

《어려운 임무입니다. 최용건동무, 이제 열흘이상은 더 서울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락동강에 나가있는 주력부대들을 구출할수 있습니다.》

《열흘이상!…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꼭… 기어이 막아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검붉어진 최용건의 얼굴을 여겨보시였다.

《밖에 나가 좀 거닐지 않겠습니까? 아, 덥군!…》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있었다. 고즈넉한 어둠속에 잠겨있는 정원길을 따라 그이께서 앞서 걸으시였다. 최용건은 묵묵히 그이께서 찍으신 발자국을 그대로 옮겨짚고있었다. 줄줄이 내려드리운 버드나무가지들이 어깨를 스치군했다.

《최용건동무, 어련하겠소만 이제 서울에 가면 우리 인민군병사들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전인민적항전의 바리케트로 적들을 저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더 하고싶으신 말씀이 많은듯했다. 천천

히 걸음을 옮겨가던 그이께서 돌연 최용건을 돌아보시였다.

《참, 이번에 가면 틈을 내여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예.》

《몇사람의 소식을 몰라 그러는데… 우선 경성기관구의 한덕모라는 기관사를 찾아보시오. 지난 7월에 내가 서울에 나갔을 때 전선원호수송대를 뭇고 맨 선참으로 떠나던 기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균관대학의 서만우교수와 비행기헌납운동을 발기했던 변영환이라는 상공인도 있는데… 시간이 나는 차제로 만날수 있으면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서울에 가있는 문화선전상 허정숙동무를 통해 다른 문화인들 소식은 받았는데 이들은 아직 소식이 없어 그럽니다. 참 잊을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이께서는 손가까이에 있는 나무줄기를 당겨 잎사귀들을 뜯기 시작하시였다.

하나, 둘, 셋… 어둠속에서 은빛물고기인양 반짝이며 떨어져내리는 버들잎사귀들… 최용건은 부지중 자기의 팔소매에 와붙은 잎사귀 하나를 꼭 쥐였다.

(장군님께선 그때 서울에 반나절밖에 안계셨어도 난 나흘동안이나 눌러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그곳에 회상할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움을 가지고 꼭 찾고싶은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으니… 과연 어찌된 일인가?!…)

그는 놀랐다. 발밑에서 바람에 불린 가랑잎들이 어수선하게 굴러다녔다. …

해방산언덕의 키높이 자란 나무우듬지너머로 검푸른 하늘의 작은 귀퉁이가 바라보였다. 어데선가 밀려온 구름장들이 밤하늘을 온통 뒤덮고있었다. 창공의 눈물같이 번뜩인 하나의 별빛, 싸늘하게 미소짓고는 구름속에 잠겨버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최용건은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그럼… 떠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최용건동무, 어려운 싸움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주시오. 거기엔 우리 인민군병사들과 수십만의 서울시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최용건동무, 지금 맥아더는 수만에 달하는 병력과 현대적인 비행기, 땅크, 대포를 가지고 오만하게 날뛰는데 이제 비싼 대가를 치를것입니다. 놈들은 이제 조직된 인민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며 무서운것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벌써 놈들은 월미도에서 비참한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그리고 놈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전인민적항전에 부딪칠것입니다. 그러므로 놈들이 이 땅에 침략의 발걸음을 들이밀수록 그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기어이 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고야말것입니다. 자, 그럼… 부탁합니다!…》

《장군님!－》

최용건은 그이상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부름속에 자기의 마음속 격정과 맹세를 다 담고있었다.

…정문옆에 최용건의 부관과 자동총수 2명이 풍친 차를 등지고 서있었다. 차광막을 내리지 않은 접수구의 불빛에 철갑모들이 번쩍거렸다.

최용건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리자 그이께서 그 손을 잡아내리고 꽉 힘주어 잡아주시였다.

군용차들이 발동을 걸었다.…

5

최현은 린접의 서울제4보병사단도 락동강을 강행도하하여 적진 깊숙이 파구를 뚫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곳 사단장은 바로 열흘전에 임명되여온 박정덕이다. 당년 31살의 지혜롭고 과단성있는 젊은이로서 지금까지 제5사에서 련대장으로 싸워왔었다. 그런데 사단장으로 임명되자바람으로 강행도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최현의 2사와 나란히, 조금도 뒤지지 않고 교두보를 확대해나

가고있다. 류현수중대의 배떼다리를 통과한 땅크와 포차들중 많은것들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지어 전선사령부 예비대들중의 하나이던 독립포련대도 그쪽으로 갔다.

최현은 박정덕의 지휘소를 전화로 찾았다. 사실은 전선사령관 김책의 새 명령을 기다리다 못해 그쪽의 동향에서라도 맥을 짚을수 있지 않을가 하고 생각했던것이다. 전화는 곧 련결되였다.

《박정덕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말했다.

《아, 이웃친구, 나 최현이요.》

《최현동지!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보, 보고된데 의하면 우리한테 오던 독립포련대를 동무네가 가로채갔다고 하더군. 그게 사실이라면 혼쌀을 내줄테요!》

《최현동지! 원, 무슨 롱담을…》

최현은 입맛을 쩝쩝 다셨다. 사실말이지 롱을 하고있을 계제가 못된다. 결전진입을 위한 제2제대의 진입계선진출도 끝났고 포병집단편성까지 다 끝냈는데 공격명령은 내리지 않고있다. 그는 감시구밖에서 구질구질 내리고있는 비줄기를 내다보며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였다.

《어떻게 된 셈판인지 내 눈엔 〈신호탄〉이 보이질 않누만. 여보, 이웃량반! 거게선 보이오?》

《신호탄》이란 공격명령을 두고 한 말이다. 박정덕은 조용히 웃는것 같았다.

《최현동지! 저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중입니다.》

《음-》

그렇다. 기다리는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그런데 최현은 늘 기다리는 일을 제일 힘들어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다음 수류탄깍지에 심지를 박고 켜놓은 야전용등불에 마주앉았다. 지도를 펴들고 태풍과 함께 시작된 이 놀라운 침묵의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안깐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미제8군은 미10군단의 인천상륙에 합세하는 필사적인 반공격준비를 끝내고있었다. 16만에 달하는 미제8군은 미1군단의

1기병사단과 미24사단을 주타격력량으로 하고 미2사 및 미25사단과 영제27려단,괴뢰군1군단 (수도사단 및 3사) 과 2군단 (6사,7사,8사) 을 보조타격력량으로 대구—김천—대전—수원을 주공전선으로 할 계획이였다. 인천상륙작전과 배합한 이 총공격은 날이 밝은 다음 시작할 예정이였는데 그 시각까지는 아직 4시간이 남아있었다. …

별안간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최현은 피뜩 머리를 돌렸다. 전화수가 송수화기를 감싸쥐고 부르짖었다.

《사단장동지, 〈금강산〉 입니다！》

《금강산》이란 아름다운 대호는 전선사령부를 의미한다. 최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수가 내미는 송수화기를 움켜잡았다. 미처 입에 가져다대기도전에 《최현입니다！》하고 웨쳤다.

전류흐르는 소리가 고막을 징—울렸다. 이어 전선사령관 김책의 갈린듯한 목소리가 귀전을 두드렸다.

《최현동무,교두보에 전개된 부대들이 얼마나 되오？》

최현은 오래 생각지 않고 대답했다.

선견대에 이어 먼저 도하한 부대,구분대들과 진입계선에 진출한 제2제대 부대들,배속 포병구분대와 땅크들… 그러자 김책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또 물었다.

《그 부대들을 강 이쪽으로 철수하려면 얼마나 걸릴것 같소？》

《예？！》

최현은 얼떠름해졌다. 김책이 반복하는 말을 듣고서야 기관포소리처럼 토막치는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전선사령관동지！ 원,무슨 말씀을… 롱담을 해도 분수가…》

《롱담이 아니요！… 최현동무,즉시 교두보에 전개된 부대,구분대들을 철수시키고 락동강서안의 공격출발계선에 방어를 구축하시오.》

《아니 전선사령관동지！》

《시간이 없소. 최현동무,날이 밝으면 련합부대가 방어로 이전해야 하오！》

《…》

최현은 혀가 굳어진듯했다. 김책이 어성을 높였다.

《최현동무! 왜 말이 없소?》

《…》

여전히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별안간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입술을 비틀었다. 저도 모르게 군복저고리의 목깃을 마구 헤쳐놓으며 거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전선사령관동지!》

《뭐요, 최현동무?》

《전선사령관동지, 이게 어찌된 일이오다, 예?!…》

몹시 흥분할 때마다 최현의 입에서는 북관사투리가 튀여나오군한다. 그는 걷잡을길 없는 충격에 모지름을 쓰며 포격처럼 맹렬히 퍼부어댔다.

《전선사령관동지, 내 군사재판에 넘어가 까꾸박질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할말은 좀 해야겠소다. 어째 피흘려 준비한 공격은 안하고 돌아서라고 하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서 피를 흘렸습니까. 생때같은 최춘국이도 여기서 잃었지오다?!…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지경인데 돌아서라니… 전선사령관동지도 그때 땅을 치며 한 말이 있지오다 예?… 그런데 다 먹어논 대구를 눈앞에 놔두구 어떻게… 제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다. 그러면 내 이제 저눔들이 홍찌를 싸갈기게 하지오다. 저 두억시니떼같은놈들이 헤때기를 쭉 빼물게 해놓겠소다!…》

《…》

침묵이 흘렀다. 강직하고 엄엄한 김책이였지만 최현의 세찬 반격에 흔들린것 같았다. 전류흐르는 소리만이 불안스럽게 귀전을 파고들다가 별안간 김책의 아주 낮아진, 거의 속삭임같은 목소리가 흘러왔다.

《최현동무, 우린… 후회를 하게 되오. 이건…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예?… 장군님께서요?!…》

《그렇소. 곧 명령을 집행하시오.》

《…》

목이 꺽 메였다. 심장의 고동이 멎는듯했다. 최현은 한순간 망두석처럼 굳어져있다가 가까스로 입술을 놀려 속삭이듯했다.

《알았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았다. 피발이 선 눈으로 수류탄등불에 비추인 젖은 통나무들과 전화수의 색이 바랜 군복잔등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참모장이 눈앞에 서있었다. 묻는듯한 눈빛이다. 불그레한 수류탄등불이 그의 얼굴에서 들레들레 뛰놀고있다.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동지？！》

참모장이 묻는 말이였다. 최현은 이발이 쏘는듯 괴롭게 이마살을 찌프리며 한마디한마디를 가까스로, 힘겹게 짜내였다.

《교두보에 전개된 부대들을 즉시 강건너로 철수해야겠소. 시간이 얼마 없소. 즉시 락동강서안에 방어를 구축하라는 명령이요！》

참모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여전히 버티고있었다. 그의 집요한, 묻는듯한 시선에 최현은 하는수없이 한마디 또 덧붙이지 않을수 없었다.

《후퇴요！》

이때부터 최현은 극심한 오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열에 들떠있으면서도 그는 군용지도를 펴놓고 붉은 색연필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린 대구와 부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군했다. 어둠도 그 붉은 동그라미는 숨기지 못했다. 그는 그 붉은 동그라미에서 변함없는 돌격의 함성을 듣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츰 재빛으로 되여갔다. 이마우에는 이슬처럼 땀방울이 돋아나고 입술은 꺼멓게 타들었다. 모진 심리적충격과 아픔이 범갈다던 그를 여지없이 타격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오랜 병마가 다시 달려들었다.

담당간호장 림정옥이 담가병들을 데려오자 최현은 무섭게 성을 내며 그들을 쫓아버렸다. 자신의 병세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만큼 그는 피가 끓는 전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불은 불로 다스려야 하고 피를 태우는 고열은 전투의 열광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는 감시소를 나섰다.

날이 밝고있었다. 세찬 바람도 잦고 비도 멎고있었다. 어느덧 진입계선에 진출했던 부대들이 떼를 무어 강을 건너고있었다. 부관의 말에 의하면 보병구분대들의 철수는 기본적으로 완료되고있으나 철수를 엄호할 구분대들과 륜전기재들의 다수는 아직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

《륜전기재？》

최현이 머리를 홱 돌리자 부관이 또 설명을 달았다.

《사단장동지！ 땅크와 각종 포차들은 배떼다리를 통과해야 하기때문에 도하장에서 지체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동지가 그곳에 나갔습니다.》

《물은 아직도 줄지 않는가？》

《…》

부관은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최현은 마비된듯 잘 말을 듣지 않는 팔을 들었다놓았다.

《가보자！》

그때였다. 우르릉—우르릉！—하는 굉음이 먼 하늘가에서 구을러왔다. 삽시에 주변의 산과 둔덕들우에 섬광이 번쩍이고 불의 파도가 흐느적거리며 솟구치고 휘몰아쳤다. 총공격에 나선 미제8군의 포병준비사격이 시작된것이였다. 적들은 특히 아군부대들이 차지하고있던 교두보를 맹타격하고있었다. 부대들이 철수하고 일부 엄호구분대들만이 남아있는줄 모르고 철불의 소나기를 퍼붓고있다. 간단없는 폭발이 땅을 짓이기고 검붉은 불의 타래가 골안을 휩쓸었다.

최현은 불길속을 걸어갔다. 부관과 련락병들이, 또 누군가가 그를 에워싸듯하면서 포연속을 헤쳤다. 그때 머리우에서 앙칼진 쇠소리가 울렸다. 다음순간 최현은 눈앞에서 번쩍인 섬광을 보았다.

폭발의 굉음은 아득한 심연속으로 사라진듯했다. 그는 구역질나는 폭약가스에 숨이 칵 막혀 헐떡이였다. 거무스레한 피빛의 불길이 사라지자 누군가 가늘게 신음소리를 지르는것이 알렸다. 최현은 온몸에 들씌워진 흙먼지를 털어버리며 소리쳤다.

《누군가, 누가 상했어？》

그 순간 그는 울퉁불퉁한 땅을 짚고있는 한 녀자를, 또 떨리는 두손으로 그를 부축해주고있는 키큰 부관을 보았다.

《간호장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엉？！…》

처녀의 두눈에 아픔의 눈물이 맺혀있었다.

《사단장동지！—》

처녀는 입속말로 한마디 하고는 새파래진 입술을 꽉 다물어버렸다. 비틀린 입술언저리로 경련이 지나갔다.

《왜 왔어, 간호장！ 여긴 뭣하러 따라왔어？！》

처녀는 힘들여 입술을 실룩거렸다.

《사단장동진… 막 떨면서… 그래서 비옷을…》

최현은 억이 막혀 부관을 밀치며 고집스럽게 웨쳤다.

《부관,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지, 엉？ … 뭘하구있어. 빨리！…》

부관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처녀는 어깨를 잔뜩 옴츠리고 꿈꾸듯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드리운 몇오리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다.

《사단장동지！… 난…》

처녀는 말끝을 흐리였다.

《간호장！》 최현이 크게 불렀다. 《용기를 내라구, 응？！》

그러나 그때 최현은 처녀의 몽롱한 두눈에서 한점 불빛이 걷잡을길 없이 검은 망막속에 잦아드는것을 보았다. 마지막 최후의 경련이 처녀의 목구멍에서 가릉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짜내였다.

부관이 처녀를 땅우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최현은 심장을 뜨끔하니 깨무는것 같은 아픔에 숨이 막혔다. 그는 처녀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갑자기 목이 꽉 메고 다리가 휘친거려 주저앉고만싶었다.

누가 이것을 알았으랴. 이런 불행이 쫓아오고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인들 할수 있었으랴！… 오랜 세월 시련도 많았고 모진 경난도 수없이 겪어온 무장 최현이련만 싸움터에서 녀자들이 죽는것은 차마 견디기 힘들어했다. 또한번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우들우들 몸을 떨었다.

부관이 그에게 비옷을 내밀었다. 간호장이 가지고 달려왔던 그 비옷이였다. 처녀는 그것으로나마 앓는 사단장의 몸을 덥혀보려 한것이다.

최현은 비옷을 정히 펴서 그것으로 처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허연 번개불이 눈앞에서 번쩍했다. 찬바람이 그의 젖은 몸에 덮치듯 달려들었다. 그는 잔등을 훑어내리는 차디찬 오한에 몸을 떨며 생각하였다. 후퇴의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는가?… 그러자 명치끝이 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어느덧 그의 굵다란 목에서 피대가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걸음마다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어야 한다. 걸음마다 놈들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한다!…

어느덧 도하장 접근로에 이르렀다. 도중 그는 길가에 내버린 자동차들을 여러대 보았다. 그때마다 매번 걸음을 멈추고 혹시나 해서 운전칸과 차바퀴밑을 들여다보군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도하장은 붐비고있었다. 불타고 오그라진 포차를 장기슭으로 밀어내는가 하면 포탄상자를 옮겨싣느라고 법석대기도 했다. 적들이 쏘아댄 포탄이 터질 때면 길마를 진 포마들이 길길이 뛰여오르며 울부짖었다.

참모장이 달려와 최현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최현의 얼굴은 완연히 흙빛이 되여있었다.

《차들은 왜 버렸소?》

참모장은 해쓱해졌다.

《고장난 차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저… 후퇴를 하는 이상… 아무래도…》

《그러니 아무래도 버릴거란 말이요?》

《사단장동지!》

《동무!》 최현의 관자노리에 부풀어오른 피줄들이 요동치듯 꿈틀거렸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거요. 그래 후퇴를 하는

데 어쨌다는거요?!》

《…》

참모장이 입을 다물고있자 최현은 고열에 달떠있던 두눈을 번뜩이며 격하여 부르짖었다.

《어느새 동문!… 그리도 빨리 구겨지다니!… 이보, 참모장! 우리 장군님께서 후퇴를 명령하셨을적엔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야 할게 아닌가, 왜 흔들리는가. 엉?!…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긴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 알겠소? 죽으나사나 이 신념만은 흔들려선 안돼!…》

날은 환히 밝았으나 아직도 하늘은 서로 얽혀돌아가는 검은 구름장들로 뒤덮여있었다. 사품쳐흐르는 락동강의 수면우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기슭에서는 감탕내와 또 알수 없는 비릿하고 물커진 냄새가 풍겼다.

한시간후엔 도하장에 정연한 질서가 섰다. 최현은 도하를 계속하는 한편 도하장접근로에 있던 일부 땅크 및 포병구분대를 종전의 전개계선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땅크들은 반돌격으로 적의 공격서렬을 토막쳤고 포병들은 강력한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적들의 공격은 일시 좌절되였다.

최현은 승용차를 불렀다. 후퇴의 첫걸음을 유유히, 위엄있게 시작하리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승용차는 흔들거리는 배뗴다리우에 올라섰다. 류현수라는 인상적인 공병중대장이 배뗴다리 이쪽에서 꿋꿋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최현은 아무말없이 한손을 약간 쳐들어주었다.

6

넝마처럼 찢겨진 구름장들이 서둘러 흩어져가자 넘실거리는 락동강의 수면우에 눈부신 해빛이 부채살같이 퍼져내렸다. 어데

선가 물러가는 태풍의 마지막 여운인양 먼 우뢰소리가 나직이 울려왔다. 비에 씻기운 하늘은 유리알같이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태풍이 휩쓸어간 뒤끝의 그리도 투명하고 맑고 고요히 숨쉬던 대기는 또다시 부르르 떨고 흐느끼고 부서져나가기 시작했다. 돌연 요란한 발동기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온것이였다.

《항공! 항공!—》

배떼다리 저끝에서 감시병이 목터지게 웨치고있었다.

중대장 류현수는 머리를 잔뜩 뒤로 젖히고있다가 아직도 기슭에서 꾸물거리고있는 병사들을 향해 힘껏 팔을 내저었다.

《모두 대피호로!—》

물안개 자욱한 기슭에서 떼를 뭇던 병사들이 폭풍에 날린듯했다. 현수도 가까운 웅뎅이속에 뛰여들었다. 그 순간 적기들의 첫 편대가 머리우를 날아갔다. 그 오만한 적비행기들이 어찌나 낮추 날았던지 배밑의 땅이 드르르 떨었다.

현수는 자기의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는것을 느꼈다. 애써 그것을 멈추고싶었으나 점점 더해갔다. 결김에 손으로 무릎을 꽉 감아쥐려 했다. 신음소리가 났다. 현수는 줄곧 하늘로 향하고있던 눈길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비로소 그는 자기와 무릎을 맞대고있는 3소대장 김수찬을 보았고 자기의 무릎이 왜 그처럼 세차게 떨렸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김수찬은 두눈을 꽉 감고있는데 얼굴은 꺼멓게 죽어있었다. 이마우의 땀방울마저 얼어붙은것 같았다. 며칠전에 새 군복차림으로 보충병들을 인솔해가지고 와서 《중대장동무!》하고 청을 돋구어 시작했으나 종시 보고를 끝맺지 못했던 사람이다.

《3소대장!》하고 현수는 그의 덜미를 잡아당겼다. 《눈을 뜨오. 넨장! 그게 무슨 꼴이요?!》

김수찬은 힘겹게 눈을 떴다. 턱밑엔 서리불린듯 솜털들이 까시시 일어서있었다.

《중대장동무, 배떼다리가… 무— 무사할가요?》

《그걸 제 눈으로 보오!》

머리우에서는 련속 앙칼진 폭음이 파도쳐갔다. 눈앞의 풀대들

이 가까스로 허리를 폈다가는 또 일시에 나가눕군했다. 그 순간 현수는 신음소리처럼 내질렀다.

《저런！… 저 미친 사람들이？！》

맞은편 대안에서 화물자동차 한대가 달려오고있었다. 차체에 온통 흙매질을 하고 위장까지 한 차였다. 그뒤엔 모터찌클까지 따라섰다.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었다. 안개가 자욱하다 해서 마음놓고 달려오는 모양이나 그들때문에 배뗴다리가 로출될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아직 철수하지 못한 구분대들이 적의 포위속에 들수 있다.

《제ー길！》

현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자동차가 배뗴다리를 건너오고있다. 마치 안개속을 헤여가듯 소리없이 둥둥 흘러온다. 그 순간 누군가 그를 세차게 떠밀쳤다. 3소대장 김수찬이였다.

《중대장동무！ー》

적기들이 기수를 숙이고 곧추 내려꽂히고있었다. 아츠러운 쇠소리와 둔탁하고 메마른 기관포소리, 이어 로케트탄이 쏟아져내렸다. 매캐한 화약내가 코로 쓸어들었다. 섬광이 번쩍이고 이어 눈앞에서 회오리치던 뜨거운 열풍이 얼굴을 후려갈겼다. 폭탄이 터진 모양으로 배밑의 땅이 또 들썩하고 진동하며 내장을 뒤집어놓았다.

그는 걷잡을수 없이 기침소리를 터쳤다. 급강하한 적기들의 기울사한 동체가 곧추 눈앞으로 날아들더니 또 한차례 화약가스와 불연기가 숨구멍을 틀어막았다. 눈앞의 풀대들이 어느 한 순간 면도칼로 밀어던진듯 싹 잘리워나갔다. 또다시 폭음, 진동… 가슴이 쓰려났다. 강가에 내려앉았던 물안개대신 검붉은 연기타래가 꾸역꾸역 밀려가는것이 보였다. 류현수는 으드득소리가 날 지경으로 이발을 악물었다. 이렇게 녹아나다니, 누가 그 사람들에게 그따위 모험을 하게 했단말인가！…

마침 몇대인지 알수 없는 적기들이 급강하했다가 다시 날아오르는것을 현수는 그 새된 음향으로 알아차렸다. 그것들의 흰 배때기에 일제사격을 퍼붓고싶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자신을 로출

시켜서는 안된다. 언제든 끄떡없이 적의 타격을 견디여내는것이 바로 공병들이다. 무너지면 세우고 끊어지면 다시 잇고… 총창을 비껴들고 복수할 기회도 거의 없다. 떠들썩한 이야기판에서조차 아무런 자랑거리도 꺼낼수 없어 점적하니 돌아앉는것이, 그 어느 병사들보다도 색이 바랜 군복을 입고 면모가 없다는 추궁을 잔등의 배낭처럼 지고다니는것이, 무거운 장구류들로 하여 늘 어깨가 짓눌려있으면서도 말없이 전선길, 강기슭, 철길우에서 하나하나의 징검돌을 놓아가는것이 바로 그들 공병들이다!…

꾸역꾸역 밀려드는 연기속에서 웬 군관이 술취한것처럼 비틀걸음을 하며 오고있었다. 하늘에서 쏟아진 대구경기총탄이 그의 발치에 먼지타래를 피워올렸다. 군관은 두손을 벌리고 허우적거리다가 비탈면으로 굴러내렸다. 현수는 그에게 달려갔다.

《동무가… 도하장 지휘관이요?》 경사면에서 허리를 잔뜩 꼬부리고 앉았던 군관이 물었다. 《난 련락군관인데… 그만… 이 꼴이 됐소.》

현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온통 피칠갑이 되여있었고 휘둥그래진 두눈은 참을길 없는 아픔때문에 뿌옇게 흐려져있었다.

모터찌클을 타고 배뗴다리를 건너온 군관이다. 그럼 나머지사람들은?… 화물자동차에 탔던 사람들은 어데 있는가?…

《가만 있소. 우선 처치를 해야겠소.》

현수의 말에 련락군관은 으드득소리가 날 지경으로 어금이를 깨물고나서 입을 열었다.

《난 철수하는 독립포련대를… 새 방어계선까지 안내할… 임무를…》

그는 허리를 펴려고 안깐힘을 썼으나 도로 주저앉고말았다. 시꺼멓게 된 손가락으로 군복상의의 단추를 마구 잡아뜯기까지 했다. 현수는 그에게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에 흔히 굳어져있는 그 일그러진 고통의 흔적을 보았다. 현수가 말했다.

《내가 도울 일은 뭐 없겠소?》

《음— 여기… 내 가방… 그안에 지도가 있소. 독립포련대가 도착하면… 알려주오. 지도에 표시된 방어진지로… 가야 하오.》

《알겠소. 그런데 동무에 대해선 어데 보고해야 하오? 이름이 뭐요? 내 이제 전화로 보고하고 동물 후송하겠소.》

《군집참모부… 련락군관 한병수요. … 〈내금강〉 50번을 찾으면 되오.》

현수는 비탈면에 파놓은 통신병참호에 대고 소리질렀다.

《전화수—〈내금강〉 50번!… 빨리 찾소!》

그쪽에서 전화수가 알았다는 시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곧 무릎우에 올려놓은 전화기의 발전자돌리개를 세차게 돌리는것이 보였다. 현수는 위생지도원을 소리쳐 불렀다. 위생지도원이 허리도 굽히지 않고 달려왔다. 그제서야 현수는 급강하하던 적기들이 해빛에 동체를 번쩍이며 사라져가는것을 보았다. 적기들은 강건너의 아군방어계선을 폭격하고있었다. 그쪽에서 고사포들이 짜당거렸다.

현수는 위생지도원에게 련락군관을 맡기고 통신병참호로 달려갔다. 전화수가 시꺼멓게 죽은 입술로 무어라고 웨치고있었다.

《나왔소?… 이리 주오!》

송수화기를 들고 《내금강》 50번인가를 소리쳐 물었다. 그쪽에서 《여보,귀청 떨어지겠소!》하고 웨쳐서야 자기가 엄청나게 큰소리로 막 고함치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목소리를 낮추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련락군관이 중상당했다는것,지도좌표를 넘겨받기로 했다는것을 보고했다. 그러자 묵직한 목소리가 공명판을 찌렁찌렁 울렸다.

《좋소. 포련대가 철수하는 즉시 배떼다리를 폭파하오!… 결과는 나한테 직접 보고하오. 여기 지휘소로— 50번!… 나 무정이요!》

현수가 규정대로 복창하고났을 때 전화는 이미 끊어져있었다. 그는 잠시 송수화기를 들여다보았다. 고막을 쩡쩡 울리던 그 묵직한 목소리들은 수화구의 구멍속으로 가뭇없이 잦아들어버렸다.

(배떼다리를 폭파한다!?… 이런것이 후퇴인가? 후퇴를 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것도 다름아닌 군집단을 지휘하는 무정장령의 엄한 명령이다.

현수는 며칠전 이곳에 나왔던 무정을 처음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다. 앙바틈하고 다부지고 꽉 부르쥔 주먹처럼 딴딴히 뭉친 사람이였다. 돈잎만한 코밑수염 또한 인상적이였다. 목소리는 묵직하고 엄엄했다. 그때 무정은 대대장에게 도하장의 위치를 정해주고 총공격이 끝날 때까지 목숨으로 지켜내라고 명령했었다. 그 임무를 받았던 대대장은 희생되고 오늘은 2중대장인 류현수가 그것을 폭파할 명령을 받았다.…

어쩐지 마음이 언짢았다. 그때 등뒤에서 난데없는 녀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웬 처녀군관이 그를 부르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저기서 련락군관동무가 찾아요.》

현수의 기상이 험악했던지 처녀군관이 《어마！—》하고 바람새는듯한 소리를 냈다. 현수는 잠자코 그를 바라보았다. 쭈그러든 견장에 박은 소성 한알이 눈에 띄였다. 팽팽하게 조여입은 군복 앞가슴우엔 흙먼지가 올라있고… 그는 한순간 《동문 누구요？》하고 물으려 했다. 그러나 묻지 못했다. 별안간 자기의 머리속을 스쳐간 하나의 기억에 몸을 흠칫했다. 검푸른 눈동자,꼭 다문 작은 입,하얗고 가느다란 목덜미… 어데서 봤을가？…

처녀군관이 재촉했다.

《빨리 가요. 그 련락군관동문 위급해요！》

《아— 알겠소.》

현수는 그 녀자를 뒤에 떨구고 달렸다. 서둘러야 했다. 누가 말했던가.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었던가？！… 전쟁은 서두른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쟁은 모든것을 재촉한다. 운명도 사랑도！…

담가에 실린 련락군관을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있었다. 난데없는 사람들,전쟁영화의 화면에서 뛰여나온것 같은 간호원도 있다. 경사진 모래무지 한쪽에 흙매질한 자동차가 서있는것을 보고서야 현수는 좀전에 배떼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다. 그가 다가서자 우두커니 서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며 비켜섰다.

《보고했소？》 련락군관이 헉헉 단숨을 내뿜었다. 《그럼 됐

구만… 그런데 난… 더이상… 못견딜것 같은게…》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겨드랑이밑에서 무엇이 끓어오르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처녀군관이 잰말씨로 그를 위안했다.

《괜찮아요, 군관동무! 이제 병원에 가면 다 무사히 될거예요. 거게선 다들 솜씨있게 한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요!》

그 녀자는 류현수에게 머리를 돌렸다. 뭘 그렇게 우두커니 서있는가 하는 눈빛이였다. 그리하여 현수는 전화내용을 말해주고 지도를 넘겨달라고 했다. 련락군관은 손에 쥐고있던 지도에서 독립포련대가 철수하여 전개할 방어계선을 가리켜보였다.

《그럼… 중대장동무, 부탁하오.》

담가병들이 허리를 짓수굿하고 담가를 들었다. 련락군관은 류현수에게 흐릿해진 눈을 돌렸다. 마지막고별의 눈빛이였다. 현수는 찌르는듯한 아픔때문에 응당 해야 할 고무적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담가가 떠나고… 무거운 발자국소리들이 멀어져가고있을 때 어느 하사관이 소란스러운 한숨끝에 중얼거렸다.

《도중에 죽을거야.》

그 순간 멀어져가는 담가쪽을 보고있던 처녀군관이 피뜩 머리를 돌렸다. 샘물처럼 끓어번지던 맑은 두눈이 가느다랗게 좁혀지고 그속에서 싸늘한 적의의 빛이 튀여나왔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동무!》

하사관은 턱을 쑥 내밀더니 면구해진 얼굴을 중대장쪽으로 돌렸다. 자기의 상관에게서 그 무슨 두둔이라도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중대장 류현수는 숨을 죽이고 그 녀자를 지켜보고있었다. 검붉은 두볼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 녀자다. 리숙이다!… 더부룩한 검은 눈섭을 미간으로 잔뜩 쪼프리며 그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리숙!… 먼 북방의 강기슭에 별안간 나타났던 하얀 꽃송이… 아니 그것은 단아한 녀학생이던 리숙의 눈부시게 하얀 쎄라복때문에 그렇게 느껴진것이리라. 보라색 아편꽃을 머리에 꽂고 우편마차에서 사뿐 뛰여내릴 때 물동가의 덜먹총각들은 물론 늙은이들조차 그 아련하고 청신한 모습에 숨을 죽였었다. 오래전, 현수가 열일곱살났을 때의 일이다. …

그러나 리숙은 전혀 현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기는커녕 단 한번 눈여겨보는 일조차 없었다. 같이 온 담가병들과 간호원들을 재촉하여 차에 오르게 하고는 박살이 난 운전칸에서 꾸물대고 있는 운전사를 다몰아쳤다.

《운전사동무, 뭘하고있어요. 빨리 떠나지 않고.》

운전사는 열리지 않는 문짝을 탕탕 때려보다가 오그라들고 찢어진 창틀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게 내 뭐랬소. 공습땐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만해요！》 리숙이 따끔하게 쏘아붙였다. 《지금 덕암산진지에선 숱한 부상병들이 우릴 기다리고있어요. 우리가 한발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늦어졌다간… 무사치 못할줄 아세요！》

운전사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뭐 그렇게 엄포를 놓을건 없수다. 어쨌든 간호장동문 운이 좋은줄 아시우. 그럭저럭 굴러가긴 하겠으니.》

운전사가 커다란 몽키스파나로 열리지 않는 문짝을 힘껏 두드리는동안 현수는 리숙에게 다가섰다.

《거기에 부상병들이 많소？》

《그래요.》

《얼마나？》

《글쎄요. 한 10여명된다더군요.》

리숙은 시종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였다.

《언제쯤 돌아오오？》

《그건 모르죠.》

《여기론 오지 마오！》

《왜요？》

《이제… 얼마후 배뗴다리를 폭파하오！》

《폭파？！》 리숙은 심드렁하니 되받았다. 그러다가 불쑥 굳어졌다. 그 녀자의 검푸른 두눈에서 반디불모양 타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럼 그땐… 다리가 없어요？》

《그렇소. 이제 포련대가 철수하는 즉시 폭파하라는 명령이요.

아마 적들이 가까이까지 온것 같소.》
《그럼 우린?… 부상병들은 어떻게 하구요?》
《글쎄…》
《뭐라구요?》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오한이 나는듯 몸을 떨었다. 자동차의 기관소리들이 저쪽에서 들려왔던것이다. 독립포련대의 포차들이 분명했다. 숱한 발동기들의 소음이 커지고있다. 그것들이 넘어서면 배떼다리를 폭파해야 한다.
《중대장동무!》 마른 입술을 깨물고있던 리숙이 가느다랗게 부르짖었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1시간만!… 아시겠어요? 지금 숱한 생명이… 중대장동무에게 달려있어요!》
《동무! 난 지금…》
《아무튼 믿겠어요, 중대장동무!》
리숙은 대뜸 운전실발판에 뛰여올랐다. 깨여진 문짝을 잡고 《출발!》하고 명령했다. 벌써 발동을 걸고있던 운전사가 변속단을 넣었다. 파르스름한 배기가스가 류현수의 온몸에 들씌워졌다.
벌써 포차들의 선두가 굽인돌이를 돌아서 달려오고있었다. 포차에 타고있던 포병들이 마주가는 자동차우의 처녀들에게 롱을 걸었다.
《처녀동무들— 그쪽으론 왜 가는거요? 다들 철수하는데… 갑자기 산보할 생각이라도 난게 아니요?》
《천만에요! 전쟁을 하러 가요. 포병들이 물러서니 우리가 대신 막아야죠!》
《어랍쇼! 굉장한 용사들이구먼.》
《영웅들이죠!》
《지원포사격을 해달라우?》
《필요없어요. 괜히 우리 머리우에다 퍼부을라구.》
겨끔내기로 떠들고 웃어대는 소리… 전쟁이라고 항시 죽음의 위협이 뒤따르는것은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슴이 졸아든채 살수는 없다. 그래서 전쟁판에서는 웃음과 노래가 그리도 많은것인지 모른다.

어느덧 선두의 포차들이 배떼다리를 건느기 시작했다. 목쉰 구령소리, 대안 저쪽의 호각소리, 부릉부릉하는 기관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넘실거리는 물결우에서는 아침해빛이 흥그러이 뛰놀았고 그우로는 포차들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연무처럼 흐트러져갔다.

3소대장 김수찬이 그의 귀가에 대고 낮게 말했다.

《중대장동무! 아까 그 간호장이름이 뭔지 압니까?》

느닷없는 물음에 현수는 뜨아해했다. 그러자 김수찬의 얼굴이 벌깃해졌다.

《리숙이라고 한다나요. 에— 맵시나는 녀자인데 좀 독하다구 할가… 사내들을 막 쥐락펴락하겠더군요. 그렇지요, 중대장동무?!…》

《쓸데없는 소리 마오!》

현수는 퉁명스럽게 그의 입을 봉해놓고 예비떼목을 준비하고 있는 2소대쪽으로 걸어갔다. 가던 도중 문득 짚이는것이 있어 걸음을 늦추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리숙의 말이다. 방금 그 말을 그대로 옮겼다!…

목덜미가 뜨거워났다. 그는 아무 의미도 없이 어깨띠를 바싹 잡아당기고나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머리속에서는 느닷없이 한줄기 연기와도 같은 추억이 가물거렸다.…

오래전 여름, 고콜불들이 가물거리던 토장의 저녁… 낯익은 우편마차가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끌며 달려오던것이 먼저 떠올랐다. 갈기털이 부르르한 절다말이 자갈을 물린 주둥이가장자리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는데 마차우엔 낯선 중년부인과 말쑥한 쎄라복을 입은 녀학생이 타고있었다.

마차가 영림서에 멎고 숱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낸 부인과 녀학생이 그안으로 들어가자 곧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얼마전 이곳에 왔다가 몸져누운채 오도가도 못하게 된 리성조라는 전기기술자의 가족이라는것이였다. 리성조인즉 압록강과 두만강은 물론 북부일대의 모든 강하천들을 답사하면서 무슨 수력자원을 찾는다고

했다. 처음 사람들은 골덴바지에 각반을 치고 헬메트를 눌러쓴 전기기술자가 자비로 그 힘겨운 일에 나섰다는것을 알자 어리둥절하였으나 그 가족들이 불리워오자 은근히 동정하기 시작했다.

단아한 녀학생은 전기기술자의 딸이였다. 아직 소녀티를 채 벗지 못한 나이로 어데선가 뜯어온 아편꽃이 머리우에 꽂혀있었다. 눈부시게 흰 쎄라복의 진한 줄무늬들이 목깃에서 물결치고있는것도 그렇거니와 보라색 아편꽃은 그때 열일곱난 인발구군이였던 류현수의 마음에 류달리 강한 인상을 새겨주었다. 아편꽃치고도 흔하디흔한 흰꽃이 아니라 굳이 보라색꽃송이를 골라 머리에 꽂은때문인지 아니면 그 아련한 녀학생이 검푸른 두눈으로 이슥토록 현수를 지켜본때문인지… 매미의 울음소리가 귀따가웁게 들리는 사시나무아래에서 현수는 흥상에서 왔다는 이와실이군 병술령감의 편지를 써주고있었다. 숱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그 모양을 지켜보고있었는데 그들중엔 아버지의 병때문에 멀고 먼 북방의 토장에까지 찾아온 그 녀학생도 있었다. …아마도 구멍이 숭숭난 베적삼, 베바지에 기름이 절고 바닥이 다스려진 통다비를 신고 광목수건으로 머리를 칭칭 둘러감은 현수가 서울뒤골목의 대서방 찜쪄먹게 글을 써주는것이 신기해보인 모양이였다. …

대통을 물고 한숨절반 연기절반 김빠진 소리로 령감이 중얼거리면 그때마다 현수는 빠른 솜씨로 글을 써나갔다.

《…아무튼 금년농사야 망해먹은거구… 젠장, 그럭저럭 빚값이래두 벌어갈가 했던노릇이 이모양 이꼴이니… 개똥같이 됐네. 남들처럼 대포집에두 드나들지 않구 꼬박꼬박 모아봤지만 쌍놈의 짓이 이짓인거야. 헌 지하족 한컬레 얻어갈것 같지 못하이. 윤두소를 기르겠으면 기르구 생금이년을 주사댁에 보내겠으면 보내구 맘대루 하게. 빌어먹을! 이 말을 들으면 그년이 또 눈물동이나 짜겠지만… 낸들 어떻게 하겠나. 제밀헐!…》

병술령감이 한참이나 쿨럭쿨럭 기침을 하는동안 현수는 편지를 다 썼다.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청했다. 그런데 현수가 쓴 편지는 병술령감이 불러준것과는 판 달랐다.

적당한 안부, 농사일 걱정, 처서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쓰고

이렇게 계속했다.

《아무튼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않을테요. 기어이 돈을 벌어가지구 갈 생각인즉은 그때까지 너무 걱정말고 기다리오. 윤두소를 기르는건 좀 힘에 부칠것 같은데 꽤 해낼수 있겠는지 잘 생각해서 하구려.

생금이는 절대 보내지 마오. 주사댁에서 기갈이 나서 덤빈다해도 내가 돌아갈 때까지는 아예 말듣지 마오.

그럼 오늘은 이만 쓰겠소. 다들 몸성히 지내기를 바라오.》

병술령감은 묵묵히 담배만 태웠다. 그러나 사시나무 그늘밖에서 귀담아듣고있던 쎄라복입은 녀학생은 몹시 감동된듯싶었다.

《그 편지 제가 부치죠.》

녀학생의 말이였다. 다들 뜻밖의 일이여서 녀학생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귀밑까지 붉어진 녀학생은 말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래일 가는길에… 부치면 더 빨리 갈가 해서… 좋지 않나요？》

《좋지비, 그렇게 해주겠다하문사 나쁠거 있나！》

여러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병술령감이 복을 받는가보이.》

《웬걸！ 총각을 봐서 그러는거지비！》

현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넘겨주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 똑바로 마주보았고 다음순간 서로 눈길을 피해버렸다. 그날 녀학생의 하얀 손이 편지를 받아쥘 때 현수는 자기의 거칠고 투박하며 어지럽기까지 한 손을 움츠러뜨렸다. 그바람에 하마트면 편지를 떨굴번했다.

편지를 받아쥔 녀학생은 봉투를 돌려보며 감탄했다.

《어머！ 글씨두 참 곱게 쓰네에！—》

이번엔 현수의 얼굴이 구운 가재빛으로 익었다. 사람들이 능갈치며 웃어대고 롱을 했다. 현수는 말한마디 못하고 허둥지둥 그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때 물동에서 《조심해라！—》하는 웨침소리가 울렸다. 든장을 쥔 떼군 한사람이 물동가에서 떼에 뛰여

올랐다. 물몰이를 시작하려는것이다.

《물몰이다!》

누군가 이렇게 웨치자 많은 사람들이 물동가로 우— 밀려갔다. 물몰이란 통나무를 가득 채운 물동에 물이 불기를 기다리고있다가 한꺼번에 수라문을 터뜨려 내달리는 물살의 힘으로 나무들을 떠내려보내는것을 말한다.

든장을 쥔 떼군이 《떴다! —》하고 호기있게 웨쳤다. 그러자 물동에 채워놓았던 떼목들이 일시에 앞을 다투어 수라쪽으로 쏜살같이 달려내려갔다. 무서운 속도로 좁은 수라에 돌진하는 아름드리나무들, 서로 찧고 받으며 뒤엉켜 돌아가는 떼우에서 대가 긴 갈구리를 쥔 떼군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밀려나오는 나무들을 수라쪽으로 돌리고있었다.

물몰이가 시작되자 녀학생도 온 정신을 그쪽에 팔고있었다. 난생 처음보는 무섭고도 장쾌한 장면이였다. 류현수는 경탄과 공포의 빛이 새겨진 그의 얼굴을 흘끔흘끔 곁눈질했다. 별안간 녀학생의 커다란 두눈이 굳어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막 울부짖으려는듯한 그 기색에서 현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머리를 홱 돌렸다. 순간 그는 물동에서 한 떼군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떡 대가리를 치켜든 통나무에 떠받들린채 물동으로 날아들고있는것을 보았다. 악! 하는 비명소리, 물동에서도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일시에 얼어붙었다. 한순간이면 방향을 잡지 못한 통나무들이 물동을 들이받아 사람이고 나무고 형체없이 짓뭉개버릴것이였다.

그때 현수는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힘으로 통나무를 하나 번쩍 둘러메고 죽을 힘을 다내여 물동에 뛰여들었다. 언제, 어떻게 통나무를 물속에 그루박았던지… 베적삼이 찢겨나가고 호된 타격이 어깨를 후려치는것과 동시에 물동을 들이받으려던 선두통나무가 획 돌아서 수라쪽으로 빠졌다.

《사람이 치웠다! —》

고함소리, 경악에 질린 신음소리, 그다음 모두 입을 다물고 턱을 덜덜 떨었다. 얼마후에야 물속에 처박혔던 현수의 머리가 떠

올랐다. 새된 비명소리들이 또 터져나왔다.

《살았소—총각이 살았소！—》

《이 밸 빠진녀석,소래기만 지르지 말구 덜미를 댕겨！》

《얼뜬 머리끄뎅이를 잡아라！》

《저리 비켜！ 내손 잡아라！—》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물속에 뛰여들고 잡아당기고 어깨에 둘러메였다. 가슴을 짓누르고 배허벅을 쓸며 물을 토하게 하는가 하면 서로 꾸짖고 나무라고 욕을 해댔다. 그러는 가운데 현수가 눈을 떴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로 성을 쌓고 땀에 절고 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맞댄채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 맨앞엔 하얀 쎄라복을 입은 녀학생이 있었다. 검푸른 두눈에서 눈물이 굴러내렸다.

《아프지 않아요？…》

현수는 아무말없이 샘물처럼 괴고있는 그 눈만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때 십장놈이 고래고래 소리치며 둘러선 사람들을 헤쳐가게 했다. 현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녀학생이 얼른 부축해주었다.

《일없겠어요？… 말째면 제가 도와드리죠. 우리한테 갖가지 약들이 있는데… 아버지랑 엄마랑 다 좋은분들이셔. 꼭 와요. 응？》 이어 속삭임같은 잰 말씨로 꼬리를 달았다. 《내 이름은 리숙이라구 해요.》

리숙！… 현수는 그 이름을 기억속에 새겨넣었다. 그외의것들은 중요치 않았다. 자기가 방금 죽을수 있었다는것,든장을 잡고 오랜 세월 여기서 일해온 처서군들조차 못한 일을 그가 해냈다는것, 그리하여 물동과 한사람의 떼군을 살려냈다는것,바로 그때문에 채찍을 건들거리는 왜놈십장까지 그를 아주 놀랍게 그리고 어지간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고있다는것 등 그 모든것들보다 더 귀중한것이 있었다.

십장은 한동안 느물거리며 그앞에 버티고섰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한손을 주머니에 찌르더니 헤여보지도 않고 만보 한줌을 꺼내들었다.

《자 물동을 살린 값으루 주는거다. 받아!》

《…》

현수는 지끈지끈 쑤시는 허리를 한손으로 짚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 만보 한줌이면 여라문명 인부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버린다.

《왜?… 이것두 적어서?》

《난 내것만 받소!》

《뭣이?!》 십장놈은 랭소했다. 《이자식 주두리를 놀리는것 봐라. 명월관 길이 확 열렸는데두 싫어?…》

십장은 만보쪽지들을 다시 주머니에 쓸어넣었다.

현수는 자기를 둘러싼 처서군,이와실이군들과 같이 인발구길을 허척지척 걸어갔다. 통나무를 발구에 실어날라야 했다. 산턱에서부터 물동에로 발구를 끌어가며 눈알이 튀여나올 지경으로 또 악을 써야만 했다. 어깨우에서 발구채가 삐걱거리고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 비칭거리는 다리를 쉴새가 없다. 경사지에서 발구가 쐘 때면 참나무목레루에서 파란 연기가 펄펄 일고… 뼈가 부서지는듯해도 이를 악물고 끌어가야만 한다.

사시나무아래에는 쎄라복의 녀학생이 현수가 대필한 편지를 가슴에 꼭 대고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은 더 가까이 사귈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저녁에 벌어진 뜻하지 않은 일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상기하기조차 쑥스러운 일이였다. …

현수는 팔을 홱 내젓고 배뗴다리로 향하였다. 화가 났다. 지금이 어떤 때이기에 그따위 객적은 생각인가? 강기슭의 너겁을 짓뭉개며 바삐 걸었다. 포차들의 도하가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7

언덕너머쪽에서 땅크포들이 꽈당거렸다. 이따금 기관총의 여

무진 울부짖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적들이 가까이 밀려오는것이다. 엄호구분대에서 담가로 실려온 한 부상병은 적들이 온 등판을 꽉 메우며 공격해온다고 했다. 그런데도 아직 리숙이와 그의 일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둔중한 폭음이 기슭의 언덕을 뒤흔들었다. 검누른 연기가 꾸역꾸역 치솟아오르며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현수는 회중시계를 꺼내여 귀에 대고 초침소리를 새겨듣고있었다. 10초후엔…배뗴다리를 폭파하도록 명령을 내릴것이다. 더이상은 지체할수 없다. 채칵거리는 초침소리를 헤여보고나서 그는 군복 웃주머니에 시계를 쓸어넣었다.

바로 그때 전화수가 거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중대장동무, 50번동지가 찾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졸아드는듯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듯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였다. 가슴한쪽이 뜨끔해났다.

《중대장동무, 빨리! ―》

전화수가 송수화기를 내들며 부르짖건만 그는 뛰지 않았다. 두 주먹을 꽉 부르쥐고 얼음판우를 걷듯이 지척거렸다.

(이젠 끝장이다!… 넨장, 리숙은 왜 오지 않을가?!…)

송수화기를 받아들자 먼저 마른침부터 꿀꺽 삼켰다.

《배뗴다리가 왜 아직 그대로 있는가?》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물음이였다.

《곧 폭파하겠습니다. 50번동지!… 그런데… 덕암산진지에 부상병들을 후송하러간 담가대동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뭣이?!》 별안간 저쪽에서 공명판이 찢어질것처럼 새된 웨침이 울려왔다.

《잔말 말고 당장 폭파하오. 당장!…》

그런데 바로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현수는 좀전에 독립포련대의 포차들이 굴러오던 그곳 굽인돌이에 《엠26》땅크들이 나타난것을 보았다. 한대, 두대, 석대… 흰별을 그린 적땅크들이 달려들며 12.7미리대구경기관총으로 도하장을 휩쓸기 시작

했다. 와릉와릉하는 발동기들의 소음이 태풍처럼 비탈면을 휘감았다. 아츠러운 무한궤도의 찌꺽거리는 소리, 정지함이 없이 쏘아대는 땅크포사격, 순식간에 벌어진 맹렬한 돌입이였다. 9대의 적 땅크가 도하장 접근로로 일시에 달려들며 들부시고 짓뭉개고 쾅, 쾅 쏘아대였다. 1소대장과 대원들이 수류탄을 들고 맞받아나갔으나 질풍같은 기관총사격에 모두 허리를 꺾으며 쓰러졌다.

중대는 단숨에 격파되였다. 적땅크에서 내쏘는 기관총사격이 어찌도 맹렬했던지 많은 전사들은 모래불에 엎드려 일어설념도 못했다.

현수는 정신없이 배뗴다리로 달려갔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지도 몰랐다. 돌연 3소대장 김수찬이 권총을 꽉 거머쥔채 조각상처럼 굳아져있는것을 보았다. 현수는 그의 어깨를 후려쳤다.

《3소대장！ 그건 뭣하러 빼들었어. 수류탄을 던져！ 대원들을 일으키오！》

목구멍에 무엇이 걸려 그르릉거렸다. 길다란 불줄기가 눈앞을 지나갔다. 땅크포소리가 터질 때마다 가슴이 터져나가는듯 했다.

현수는 강기슭에까지 밀려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찬 폭풍에 날려버렸다. 찌는듯 따가운 물결이 온몸을 휘여감아 태를 친듯했다. 더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서운 절망감에 눈앞이 아뜩해졌다. 여전히 권총을 틀어쥔 3소대장 김수찬이 모래불에 반쯤 묻혀있었다. 그곁으로 적땅크의 무한궤도자국이 지나갔다. 련락병 박원철이 김수찬을 끄당기다말고 정신없이 토하기 시작했다. 가까운곳에서 적땅크들이 우릉우릉 몸부림치며 시꺼먼 배기가스를 련속 들씌웠다. 반땅크수류탄조차 없는 공병들, 신병들이 절대다수인 중대였다.

벌써 여러대의 적땅크들이 배뗴다리를 건너가고있었다. 그런데 그 운명적인 찰나에 그는 맨앞의 적땅크가 검은 연기를 토하는것을 보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목을 빼들었다. 뒤따르던 땅크가 그것을 힘껏 밀어 물속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또 흠씰흠씰하는 배뗴다리를 무한궤도의 강철이발로 물어뜯으며 전진했다. 적땅크들주위에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대안에서 아군 반땅크포들이 사격하는것이다. 또 한대의 적땅크가 사슬을 풀어헤치며 멎어버

렸다. 그 순간 현수는 적땅크들이 멀리 보병을 뒤떨구고 달려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번개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가슴이 뻐근해지고 눈부리가 떨리는듯이 느껴졌다.

그는 헉헉 단숨을 뿜으며 강변의 모래불로 달려나갔다. 어느새 수류탄을 거머쥔 한팔을 힘껏 내뻗쳤다.

《적땅크를 뒤따르라! ─》 비탈면과 강기슭에 흩어진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땅크뒤를 따르라!… 그다음 다리를 끊소. 제길할, 어서 일어낫, 1소대장은 어데 갔소? 부소대장, 빨리 소대를 지휘하오!》

그는 2소대장을 찾아 있을수 있는 적보병들의 진출을 막으라고 소리쳤다.

《이젠 놈들이 독안에 든 셈이야. 젠장, 20분만 견지하오. 적보병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소. 그러면 저 빌어먹을 땅크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할수 있소. 알겠소? 그럼 빨리, 빨리 움직이오!》

기가 죽어 숨어버렸던 신병들조차 펄펄 날뛰는 중대장의 기상에 힘을 얻고 달려나왔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배떼다리를 건너서는 적땅크들의 꽁무니에 벌써 바싹 따라붙는 전사들도 있었다.

《장하오, 부소대장, 놈들을 물속에 처박소!》

엄습해오던 절망감이 무서운 기세로 바뀌였다. 이대로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테다!…

중대는 수습되였다. 어느덧 지휘관의 의지와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투집단으로서 신속히 정리되였다. 2소대장이 굽인돌이쪽에서 밀려드는 적보병들과 전투를 벌리기 시작했을 때 배떼다리의 중간이 뭉청 끊어져나갔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너던 여덟번째인가 아홉번째인가 하는 적땅크가 토막난 배떼다리우에 실린채 떠내려가며 악에 받쳐 포신을 돌려댔지만 육중한 무게를 지탱해내지 못한채 곧장 물속에 잠겨들고말았다.

저쪽 대안에 가닿았던 적땅크들이 사태를 알아차린것은 그후의 일이였다. 앞에서는 반땅크화력의 장벽이 막아서고 뒤에서는 산산이 격파된줄 알았던 공병들이 배떼다리를 토막쳐버리자 갈팡질팡

하며 발악하였다. 불의적인 돌입으로 도하장을 차지하려던것이 오히려 함정에 빠져든것이였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적땅크들을 향하여 집중포화가 퍼부어졌다.

얼마후 현수는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적보병들을 견제하며 점차 중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건너편 대안의 포병들이 그들의 철수를 엄호하여주었다. 그 알수 없는 지휘관에게 골백번이라도 감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많은 희생을 치른 중대의 철수가 있은후 그가 반땅크포대대의 지휘소에 들렸을 때 대위직급을 단 그곳 지휘관은 측은해하는 눈빛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공병중대장이요?… 가서 전화를 받소.》

《어데서 찾습니까?》

《50번동지요.》

오늘 벌써 세번째로 받는 전화였다. 송수화기를 들자 귀에 익은 무정의 목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동무요?》

《그렇습니다. 중대장 류현수…》

《인젠 중대장이 아니요.》

무정은 소리치지 않았다. 이제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전쟁터에서는 고함소리나 욕설도 일종의 믿음과 기대를 의미하는것인데 인제는 그런 믿음을 상실한것이다. 무정은 한마디로 간단히 그리고 아주 랭혹하게 말했다.

《중대를 인계하고 대기하오!》

《…》

현수는 미처 대답을 못했다. 별안간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주먹만큼 커져서 입안에 가득 들어찬것 같았다. 날카롭게 어이듯하는 목의 경련에 숨이 칵칵 막혔다. 그는 얼마나 가혹한 처벌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알아차렸다.…

얼마후 상급에심원중좌가 나타났다. 먼저 현수의 무기를 회수하고 견장을 뗐다. 누르끼레한 빛이 도는 얼굴에 가파로운 턱을 가진 사람이였다. 첫순간에 벌써 현수는 자기가 지독한 사람과 맞다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가늘게 좁혀뜬 까다로운 눈빛이나 윤

기없고 뻣뻣한 머리카락 그리고 좁은 이마는 결코 좋은것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랭정하게 언제, 어데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식으로 이것저것 따져물었고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는 《동문 여기 가만히 앉아있소. 내 좀 나갔다 오겠는데 절대 움직이지 마오!》하고 말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현수는 은페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그동안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은페부 천정이 들썩거릴 때마다 흙모래가 쏟아져내렸다. 도처에서 폭음이 터지고 기관총들이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적들이 도하하고있다는것을 알았으나 현수는 움직이지 못하였다. 군법의 엄한 요구가 그를 이 헐렁한 은페부에 못박아놓고있었다. 머리우에 직탄이 떨어진대도 할수 없다. 미칠것 같은 고독감속에서 현수는 난생처음 전투를 그 소음으로만 겪고있었다.

상급예심원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오래 있다가야 나타났다. 온통 불에 그슬리고 찢겨있었다. 표정은 더욱 심각하고 랭혹하였다. 아무말없이 현수를 차에 태웠다. 그는 자신이 차를 운전하였다. 차가 막상 출발했을 때 련락병 박원철이 《중대장동무! —》하고 웨치며 달려왔다. 대대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끼고있던 련락병이다. 그러나 며칠전 배뗴다리를 설치할 때 안경을 물속에 빠뜨렸었다.

《중대장동무!》 박원철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차체를 붙들었다. 《같이 갑시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장자리는 퍼릿했다.

상급예심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누가 동물 가라고 했소?》

《우리 2소대장… 아니, 새 중대장동무가…》

《동문 우리가 어데로 가는지 알구나 그래?》

상급예심원은 가속답판을 밟았다. 차는 떠났다. 더운 바람이 불었다. 멀지 않은곳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려오고 이따금 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차는 덜컹거리며 끄물거리는 연기속을 뚫고나갔다. 쓰린 연기가 눈을 허볐다. 현수는 깔깃깔깃해지는 두눈을 비비며 감탕이 게발린 둔덕을 바라보았다. 이 중대에서 하사관으로, 소대장

으로, 중대장으로까지 자라온 그였다. 걸어온 모든 싸움길— 장마비로 불어난 북한강, 영정리의 갈숲, 금강의 모래불과 락동강의 박진나루기슭에 그의 발자국이 찍혀있다. 그것은 그대로 전쟁의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중대의 자서전이다. 그런데 그 중대를 떠난다. 다시 오지 못할 길로 영영 떠난다. …

어느덧 그의 두눈은 생기를 잃어갔다. 얼굴은 주석으로 부은것처럼 꺼멓게 변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 때였다. 갑자기 상급예심원이 《항공！》하고 부르짖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수십대의 적기들이 해빛의 반사광으로 눈을 부시게 하면서 머리우를 날고있었다. 벌써 급강하하는 적기들도 보였다.

《차를 세웟！》

현수가 소리쳤다. 기총탄이 길 좌우에 먼지를 일으켰다. 차가 급정거를 하는통에 현수는 창틀에 이마를 세게 찧었다. 다음순간 하늘에서 길죽하고 시꺼먼 물체들이 뒤뚝뒤뚝 번져지며 또 순간마다 곱절이나 커지면서 아래로, 땅으로 곧추 떨어져내렸다.

이번에도 현수가 먼저 부르짖었다.

《뛰여내립시다. 빨리, 저기 웅뎅이로！…》

그러나 그들이 웅뎅이에 몸을 던지기전에 먼저 뜨거운 화염이 확 휘감더니 어데론가 허궁 들어 뿌려던지고 땅바닥에 태를 쳐놓았다. 무수한 흙모래와 재개비가 하늘을 덮고 소낙비처럼 쏟아져내렸다. 현수는 컹컹 기침을 하며 뜨거운 모래불을 더듬어갔다. 자동차는 형체없이 박살이 났고 쪼각쪼각 찢겨진 잔해들이 여기저기에서 불타고있었다.

어데선가 신음소리가 났다. 현수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비청거리며 불타버린 모래불을 걸어갔다. 몇걸음만에 반나마 모래속에 파묻힌 상급예심원을 발견하였다. 가까스로 그를 끌어냈다. 상급예심원은 피칠갑이 되여있었다.

《좀 봐주오.》

그가 말했다. 한손으로 너덜너덜 찢겨진 옆구리쪽을 가리켜보였다. 현수는 그를 뉘이고 파편이 헤쳐놓은 상처부위를 살폈다. 아

무말없이 자기의 내의를 이발로 물어 갈기갈기 찢었다. 그것으로 한겹두겹 재간껏 동이기 시작했다.

《어떻소?》 상급예심원이 헐떡거리며 물었다. 《난 아직… 임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자 현수는 등골이 선뜩해지는것을 느꼈다. 그가 받은 임무란 다름아닌 현수를 압송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는것이리라. 현수가 상처를 동이던 손을 멈추자 상급예심원은 례의 그 날카로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난… 죽으면 안되오. 어떻게 하나… 임무를 다하기전엔… 절대로 죽어선 안돼. 알겠소?》

《?!…》

현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가련하게 여겨졌다. 그러자 자기의 손가락들이, 그의 상처를 헤집던 손가락들이 막 끈적끈적해나는것을 느꼈다. 별안간 진저리를 치며 그는 또 손을 놀렸다. 그때부터 붕대를 다 감을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일을 끝내고 그를 둘쳐업고나서야 소리쳐 물었다.

《어데로 가야 합니까?》

《사령부로!…》 그가 중얼거렸다. 가릉가릉하는 목구멍소리를 삼키고나서 말을 이었다. 《가만, 여기 가까운곳에 4사 지휘소가 있을거요. … 그리로 갑시다.》

현수는 걸음을 옮겼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무턱대고 걸어갔다.

사방 화재의 불길이 충천했다. 비로소 현수는 적기들의 폭격이 끝나고 지금은 적의 원거리포들이 포탄을 들붓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숲이 타고 땅이 뒤집히고 강물이 끓어번졌다.

이윽고 현수는 반나마 타버린 대나무숲에 들어섰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위험구역으로는 들어서지 말아야 했으나 에돌아갈 힘이 없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잔등에 업힌 상급예심원에게 소리쳤다. 그런데 그는 죽은것처럼 반응이 없었다. 집게처럼 현수의 목덜미를 움켜쥐는것으로 미루

어 필사적으로 아픔을 참고있다는것이 알렸다.

불타는 대밭, 까실까실 터지고 찢겨진 참대들이 날창처럼 삐죽삐죽 솟아있었다. 사방에서 대가 튀는 소리가 탕탕—탕탕탕! 미친듯한 기관포소리처럼 울렸다. 귀가 먹먹하고 등골로는 차디찬 전률이 줄달음치군했다. 언제, 어떻게 그곳을 헤쳐나왔는지 모른다. 갑자기 등에 업힌 상급예심원이 말했다.

《인젠 거의 온것 같소.》

《…》

현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눈을 쓰리게 하는 땀방울을 입김으로 푸—푸— 하고 세차게 불어댔을뿐이다.

《동무!》 상급예심원이 또 헐떡거리며 그를 불렀다. 《동문… 알고있소? 난… 무정장령의 명령을 받고…왔댔소.》

현수는 허리를 잔뜩 굽힌채 멎어섰다. 더는 가낼것 같지 못했다. 두다리가 휘청거리다 못해 금시 무너앉을것 같았다. 가슴이 터질것처럼 숨이 찼다. 가까스로 한쪽 팔소매를 들어 줄지어 흐르는 얼굴의 땀을 씻었다. 그리고나서 칼칼해진 목소리를 짜내며 업힌 사람에게 물었다.

《군의소를… 찾아야지요?》

그러자 상급예심원은 약간 꿈틀거렸다. 놀라운 일로서 그는 중상당한 사람같지 않게 날카롭고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단장 지휘소로!… 난 오래 견디지 못하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오. 보고할게 있소!…》

그것은 그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였다.

8

그곳은 서울 제4보병사단 전방지휘소였다. 류현수가 상급예심원을 업은채로 은폐부앞에 드리운 병사용개인천막을 들치고 들어서

자 그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무전수와 전화수,통신참모라고 짐작되는 위급군관이 토굴 한쪽에 있었고 포대경앞에는 새파랗게 젊은 장령이 서있었다. 그는 포대경을 마주하고서 누군가와 전화로 말하고있었다. 감시구로 검은 연기가 쓸어들 때마다 가볍게 흥흥 코김을 불군했다.

《뭐라구? 무엇이 가능하단 말이요?》 그는 별로 어성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강경하게 말했다. 《지금 적들은 동무네 익측을 돌파하려고 노린단 말이요. 그곳 린접점을 특히 잘 살피오.… 그러게 82미리 한개중대를 증강해주지 않았소. 그걸 잘 써먹으란 말이요… 뭐 땅크?… 땅크는 내버려두고 뒤따르는 보병부터 먼저 족치시오. 동무! 동문 내게 포병전술강의까지 시킬셈이요?… 좋소,기다리겠소. 결과를 즉시 보고해주오!》

그가 바로 사단장 박정덕이다. 련합부대장들가운데서 제일 나이 어린,이제 31살에 난 박정덕은 바로 10일전에 장군님의 신임에 의해 사단장으로 임명되였었다. 전사참모부에서 돌리는 소문에 의하면 5사 사단장 김창덕이 자기네 련대장이였던 그를 내놓으면서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박정덕은 전화를 끝내자 곧 현수에게로 몸을 돌렸다.

《동문 누구요?》

현수는 급기야 군모채양아래까지 손을 올렸으나 그대로 굳어지고말았다. 보고할 말이 없었다. 지금 그는 견장도 없는 군복차림이였다. 때마침 등뒤에서 상급예심원이 입을 열었다.

《장령동지! 앉아서 보고하는걸 용서하십시오.… 전 야전군사재판소 상급예심원 김병국입니다. 전선사령관동지에게 직접 보고드릴 문제가 있는데… 제 상처가 위급해서 때를 놓칠가봐… 곧장 여기로 왔습니다.》

사단장은 잠간 생각하였다.

《좋소,전선사령부와 련계를 취해주겠소.》

박정덕사단장은 즉시 전화수에게 임무를 주었다. 잠시후 전화가 련결되였다. 그러나 전선사령관은 나오지 않았다. 박정덕은 송수화기를 내리고 상급예심원에게 말했다.

《마침 여기로 떠났다오. 곧 도착할거요.》
이리하여 현수는 자기가 이제 전선사령관을 여기서 보게 되리라는것을 알았다. 보통 전사들은 자기네 사단장도 한번 보기 어려우나 보위성직속 도하대대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하여 현수는 많은 장령들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전선사령관은 한번도 본 일이 없다.
사단장 박정덕이 통신참모에게 위생병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때 밖에서 몰방으로 터진 포소리와 함께 째지는듯한 구령소리가 났다. 이어 누군가를 질책하는 엄한 소리가 들리더니 병사용개인천막을 들치고 키큰 장령이 들어섰다. 무전수와 전화수,통신참모 등이 일시에 일어나 허리를 꿋꿋이 폈다. 박정덕이 청높은 소리로 규정의 보고를 했다. 은폐부에 들어선 사람은 전선사령관 김책이였다.
《여기선 든든히 자리를 잡았구만!》
김책이 한 말이였다. 롱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이였으나 김책은 날카로운 눈초리와 단호하고 결연한 어조로 그리고 침착한 동작으로 자기의 엄엄한 엄격성과 본성적인 지혜,강인성을 드러내보이고있었다.
《사단장!》 그가 또 말했다. 《왜 여길 떠나기 싫은가?… 영영 눌러앉을 잡도리요? 동무도 최현동무를 본따는게 아니요?》
《보고하겠습니다,전선사령관동지!》
박정덕이 한발 앞으로 나섰으나 김책은 가볍게 팔을 내저었다.
《이보,사단장! 다시 말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는 반드시 기동방어의 형식으로 진행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소. 그러므로 우리는 후퇴하는 지대의 모든 다리와 철길,도로 등을 파괴하고 적들로 하여금 기동과 군수물자보급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하는 한편 도처에서 반타격을 진행하여 적의 전투력을 극도로 약화시켜야 하오.》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타난 리유도 알만하겠소?》
《알만합니다.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한편 련합부대주력을 곧

철수하겠습니다!》

《교호식으로 철수하시오. 그러되 최현동무네 2사와의 린접점을 강화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전선사령관동지!》

김책은 포대경에 눈을 가져갔다. 통나무를 가로지른 엄폐부 천정에서 흙가루들이 떨어져내렸다. 김책은 성가신 파리를 쫓듯이 그것을 털어버리면서 포대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그때 박정덕이 입을 꽉 악물고있는 상급예심원을 돌아보았다. 비로소 생각이 난듯했다. 그는 《전선사령관동지!》하고는 상급예심원의 일을 천천히 몇마디로 요약하여 보고했다.

김책은 머리를 돌리고 처음엔 류현수를, 다음엔 상급예심원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하오!》

그러자 상급예심원은 그 찌르는듯한 눈빛을 현수에게로 돌렸다. 현수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렸다. 사단장을 향해 나가있겠다고 조용히 말하고는 출입구로 걸어갔다. 개인천막을 쳐놓은 그 출입구까지의 몇발자국을 겨우 옮겨놓았다. 속이 메슥메슥하고 두다리가 휘청거렸다. 밖에 나오자 교통호벽에 머리를 기대였다. 가까운곳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멀리 앙상하고 성깃성깃한 참대숲쪽에서 적땅크들이 굴러나오다가 반땅크포화력을 맞고 불타버렸다. 박격포들은 뒤따르는 적보병들을 향해 부동조애사격으로 급속히 포화를 들씌우고있었다.

그 시각 지휘감시소에서는 상급예심원이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류현수와 결부된 일을 보고하고있었다. 무정장령에게서 받은 명령과 자기가 료해한 내용을 말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전선사령관동지! 저는 상급예심원으로서 그를 체포하여 총살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후퇴가 시작된 준엄한 때인만큼 단호하게 군기를 세워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자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혁명동지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것이 바로 첫째가는 의무이라고 가르쳐주시

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선사령관동지에게 직접 청원합니다. 제가 알아본데 의하면 그의 중대 전사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부상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가 얼마나 가슴을 태웠는지…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철직시켜 전사로서… 전투에서 피로써 과오를 씻게 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 그를 총살하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급예심원은 흐려지는 눈에 애써 빛을 모으며 간절한 어조로 말을 마쳤다.

김책은 중좌인 이 상급예심원이 고맙게 여겨졌다. 그는 한 젊은 지휘관을 치욕과 불명예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치명상을 입은 자기 몸도 돌보지 않았던것이다. 하긴 그렇게 하는것이 그의 임무였다. 후퇴하는 엄혹한 정황이 그에게 자기임무의 중요성을 더더욱 자각케 한듯싶었다.

잠시후 위생병이 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와 상급예심원을 후송해갔다. 교통호에 서있던 류현수는 그가 담가우에 실려가는것을 보았다. 상급예심원은 아픔에 질린 눈빛으로 묵묵히 현수를 보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것이다. 잠시후 그는 교통호를 지나 멀어져갔다.

어데선가 발연탄의 검은 연기가 흘러왔다. 가까운 포진지에서 항공습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쏘아댄것 같았다. 이윽고 전선사령관 김책이 지휘감시소에서 나왔다. 피복창고의 곰팡내가 그대로 풍길것 같은 새 군복차림의 젊은 사단장 박정덕과 통신참모도 따라나왔다. 그들은 반대쪽 교통호를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벌써 류현수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고있는것 같았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뻐근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통신참모가 그의 어깨를 흔들어서야 피끗 정신을 차렸다.

《중대장동무, 전선사령관동지가 부르시오!》

《?!…》

현수는 그가 잡아끄는대로 따라갔다. 교통호를 따라 얼마쯤 가니 자동총을 멘 병사들이 교통호 한쪽에 서있고 전선사령관은 사단

장과 같이 따로 서있었다.

현수가 규정의 보고를 하는동안 김책은 주의깊게 그를 훑어보았다. 장령모의 채양아래 날카로운 두눈이 그의 마음속 생각까지 파고드는듯했다.

《언제 입대했소?》

《47년 봄입니다.》

《어느 훈련소?》

《제1소 직속 3대대였습니다.》

《어떤 전투들에 참가했소?》

《전쟁 첫날부터 도하대대에서 전진보장대로 싸웠습니다. 북한강, 금강, 락동강…》

현수는 말끝을 떨었다. 별안간 학질에라도 걸린듯 마구 오한이 났다.

김책이 또 물었다.

《강건너에서 오지 못한 부상병들이 얼마였다구?》

《1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장과 간호원들, 담가병들 칠팔명이 또 강을 건너갔습니다.》

김책은 알릴듯말듯 거무스레한 볼편의 근육을 떨었다.

《그들한테선 아직 소식이 없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무야… 그들이 간곳을 알면서 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소? 다리는 명령된 시간에 폭파하고 둬개 분대쯤 떼여보낼수 있지 않았는가?!》

《전선사령관동지! 전 미처… 그 생각은…》

김책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눈언저리가 시퍼래지고 꽉 다물린 입술에 경련이 일고있었다.

《이녀석!》

마침내 그는 이 한마디를 거칠게 내뿜었다. 사납게 변모된 그의 얼굴전체가 고통과 혐오에 못이겨 이지러지고있었다. 무섭게 쏘아보다가 박정덕에게 덕암산의 이전 진지에 즉시 정찰병들을 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교통호를 따라 걸어갔다. 자동총수들이

뒤따랐다. 박정덕역시 한동안 그뒤를 따라갔다. 다시 현수만이 홀로 남았다. 반나마 무너진 교통호로 누르끼레한 연기와 재티들이 바람에 날려오고있었다. …

날이 어두울무렵 현수는 박정덕사단장의 호출을 받았다. 낮에 상급예심원을 업고 들어섰던 그 지휘소였다. 그때와 다름없이 눈을 쓰리게 하는 화약가스가 차있는 그속에서 박정덕은 지도를 마주하고있었다. 현수가 규정의 보고를 하자 《음- 왔소?》하고 말했다. 지도를 접고 일어서더니 주의깊은 눈초리로 현수를 뜯어보았다.

《동문 자기가 얼마나 엄중한 과오를 저질렀는지 아는가?》

조용한 물음이였다. 그러나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강경한 어조였다.

《알고있습니다, 사단장동지!》

《아직 다는 모를거요.》 여전히 낮고 빈틈없는 어조로 박정덕은 말하였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해. 동문 자기가 받은 명령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했을뿐아니라 군관이라면 응당 했어야 할 의무도 수행하지 못했소. 그때문에 동문… 당장 처리될수도 있었소. 그러나… 동무문제는 최고사령부에 보고될거요.》

《예?!》

현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사단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경련이 줄달음쳤다. 그 순간 박정덕이 또 말했다.

《전선사령관동진 우선 동무를 전투장에 내보내여 피로써 과오를 씻게 하라고 했소.》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대렬참모한테 가보시오. 기다리고있을거요!》

사위는 아직도 짙은 포연에 덮여있었다. 병사용개인천막을 들치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가까운 비탈면에서 폭발의 불기둥이 잇달아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그러나 현수의 귀에는 아무런 폭음도 총성도 들리지 않았다. 물결처럼 밀려들고 또 밀려가는 불의 파도가 보일뿐이였다.

불타는 강아, 락동강아!…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전

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내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던가. 북한강에서, 금강에서 또 이 기슭에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헤쳐왔던가. 그런데 내 오늘 여기서 수치스러운 자욱을 남길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아 아, 이제라도 결사전에 나가 죽음으로 이 불명예를 씻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

대렬참모에게 갔을 때 현수는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련락병이였던 박원철을 보았다. 그는 어줍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있게 됐습니다. 중대장동무… 상급예심원동무의 부탁으로 제가 오게 됐다더군요. 원, 무슨놈의 판인지… 아까는 떽떽거리며 가더니… 중대에 전화가 왔다나요.》

《…》

현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들은 대렬참모가 지시하는데 따라 방어계선의 한 보병중대로 갔다. 둘 다 벽돌견장을 단 전사들이였다.

두사람이 도착하자 어깨가 널직하고 아주 대범한 인상을 주는 중대장이 무너진 교통호에 몸을 기댄채 전화기부터 끌어당겼다. 발전자돌리개를 세차게 돌리며 아직 우두커니 서있는 두사람에게 버럭 고함을 쳤다.

《허리를 낮춰! … 제길, 벌둥지가 되구싶소?》

그의 입귀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가 물려있었다. 묘하게도 입술에 풀로 붙여놓은것처럼 고함을 지를 때에조차 떨어지지 않았다.

《〈갈매봉〉을 주오!》

이렇게 소리치고는 송수화기를 목에 건채 웃주머니에서 누굿누굿하고 형편없이 쭈그러든 가치담배를 꺼내여 권했다. 현수가 머리를 흔들자 입귀에 물려있던 꽁초를 뱉아버리고 그것을 새로 물었다.

《〈갈매봉〉입니까?… 예? 뭐라구?…아― 통신참모동무댔군. 몸성히 잘 계시오?… 뭐 나야 이미 면역이 된 몸 아니요. 피탄면적은 남보다 커두 아직 성성하오. 하하! … 헌데 이보우― 사단장동진 안계시오?… 음― 다른게 아니구 사단장동지가 말한 그 사람이 방금 도착했소. 그렇게 전해주― 음, 알겠소.》

송수화기를 덜컥 놓고 전화줄까지 툭툭 당겨보고서야 현수를 쳐다보았다.

《그와는 잘 아는 사이요?》

《?…》

《사단장동지말이요.》

《아니, 그저 좀…》

중대장은 새로 문 담배에 불을 달았다.

《동무가 도착하는 즉시 알려달라구 하던데… 지금 자리를 뜨고 없구만. 그동안 소대에 가서 낯을 익히오. 인차 놈들이 또 달려들거요.》

《알았습니다.》

현수가 또 허리를 꼿꼿이 펴자 그는 팔소매를 쥐여당겼다.

《그따위 격식은 걷어치우오. 총알이 날아오는판에 무슨 허세요. 제길, 밥숟갈 놓고싶어 그러오?!》

그는 현수에게 2소대로 통한 물홈을 가리켜보였다.

《조심해서 가오. 공병!… 나두 곧 가겠소.》

현수는 박원철과 같이 허리를 잔뜩 낮추고 물도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열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납작 엎드렸다. 자지러진 기관총사격에 이어 륙공포의 장기판사격이 퍼부어졌다. 캬ー 캬! 하는 아츠러운 폭음이 계속되였다. 머리우에서 앙칼진 쇠소리와 더불어 윙ー윙 돌쪼각들이 파편처럼 날았다.

현수는 축축한 도랑채기에 까딱않고 엎드려있었다. 가위에 눌린것처럼 숨이 막히고 답답해나는것이 참을수 없었다. 그는 군복저고리의 목깃을 헤쳤다. (최고사령부, … 최고사령부에 보고된단 말이지, 내 문제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가, 이런 때에… 총살을 해야 마땅할 날 두구…) 이런 생각이 마쳐들자 가슴이 더 답답했다. 문득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잃은후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다한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가 이 일을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실가. … 그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헉헉 단숨을 들이그으며 풀대들을 쥐여뜯었다. 그때 박원철이 그의 귀전에 대고 소곤거렸다.

《너무 속쓰지 마십시오.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것처럼 분모가 커지면 상은 작아지는법 아닙니까!》

박원철이 그를 동정해서 하는 말이였다.

《일두 참 별나겐 됐지요?… 그 간호장동무만 아니였어두… 기다려달라 해놓군… 에익, 그런 일이 벌어질줄이야!…》

리숙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현수는 날카로운 눈빛을 그에게 던졌다.

《잠자코 있지 못하겠소?!》

박원철은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렸다. 그것을 보자 현수는 자기가 역증을 낸것이 무안해졌다. 그는 손에 쥔 풀대를 자근자근 씹다가 뱉아버렸다. 웬일인지 리숙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왜 그들을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가, 전선사령관동지가 말한것처럼 뒤개분대쯤 보내여 도와줄수도 있지 않았는가?…

리숙, 돌아오지 못한 간호장, 그가 살아있다면 이 현수를 얼마나 원망할것인가. 지척에 있으면서도 구원해주지 못한 이 못난놈을 얼마나 경멸할것인가?!…

꺾어진 풀대들에서 애달픈 냄새가 풍겨왔다. 깨풀, 신두리, 사라구… 특히 껍질이 벗겨진 어저구에서 씁쓸하고도 쏘는듯한 냄새가 풍겼다. 지나간 먼 시절 토장의 그 저녁에 쑥을 태우던 냄새와 흡사하였다. 그날밤에도 현수는 나어린 녀학생 리숙에게서 쓰디쓴 경멸의 눈총을 받았었다. 집집의 문창호지에 고콜불들이 어룽거리기 시작하던 저녁이였다. 그때 열일곱살난 현수는 숱한 처서군들, 이와실이군들에게 쌔워 다모토리집으로 가고있었다. 물동을 살린 값으로 왜놈십장이 주머니에서 꺼내준 한줌의 만보쪽지는 거절했지만 그의 용감성과 정의감을 위하여 한잔 들자고 나이든 축들이 잡아끌었을 때엔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것이다.

끔찍한 참변을 막은 대장부답게 한번 으시대고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눈부시게 하얀 쎄라복을 입고 머리 한쪽에 아편꽃을 꽂고 나타난 녀학생 리숙이 멀리 영림서 앞뜰에서 지켜보는줄 알자 시뚝시뚝 걸음을 더 크게 옮겼다.

써래기담배연기가 7부짜리 남포등을 휘휘 감싸돌던 술집, 누구인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양푼을 두들기며 거쉰 소리를 뽑아댔다. 분내풍기는 주인집녀자가 처음 온 현수의 목덜미를 어루쓸며 《일없어 총각, 이제야 좀 기별이 가는군그래.》하며 술이 찰찰 넘는 종지를 입에 가져다대군했다. 비린내 풍기는 어물장수들, 개다리소반에 마주앉은 말군들이 떠들썩 고아대며 응원을 했다.

마침내 병술령감이 흐릿해진 눈자위를 굴리며 심한 딸꾹질끝에 주인집녀자가 든 종지를 밀쳐버렸다.

《인젠 고만둬, 고만두라니. 그러다 아까운 총각 배려놓을라—》

《령감은 왜 지랄이요?》 주인집녀자가 엎지른 술종지를 들고 대들었다. 《외상준 술은 다 어쩌구 이것까지 쏟뜨리면서 생트집이요, 생트집이?!》

《어랍쇼, 이 엠네 수—수작질하는거 좀 보지, 머—뭐 내가 새—생트집이야?》

언제, 어떻게 그곳을 나왔는지 현수는 알지 못했다. 병술령감과 물몰이때 현수의 장한 모습을 지켜본 처서군 또 한사람, 이렇게 셋이 울퉁불퉁한 토장의 막돌길을 비틀걸음으로 더듬고있었다. 병술령감은 누구도 듣지 않는 푸념을 끊임없이 계속하였고 현수는 머리속을 한정없이 쑤셔대는 동통과 괴로운 욕지기때문에 머리를 쥐여뜯군하였다.

별안간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싸늘한 달빛이 하얗고 파르스름한 쎄라복을 비쳐주고있었다.

《어머!—》

가느다란 부르짖음.

뒤엉킨 머리속에 일순 번개불이 번쩍인듯했다. 영림서앞이였다. 목책너머 안뜰에 전기기술자의 부인과 딸을 싣고온 우편마차가 있었다. 현수는 병술령감의 부축에서 풀려나왔다. 비로소 그 아편꽃같은 녀학생이 저녁에 오라고 청하던 일을 생각해냈다.… 리숙은 아무 말도 없이 휙 돌아서더니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대문을 닫는 찌쿠덩소리가 현수의 애젊은 가슴을 콱 그루박으며 무겁게 울려왔다.

다음날 아침 지끈지끈 쑤셔대는 머리를 잡아뜯으며 그가 물동으로 걸어가고있을 때 전기기술자를 부축한 부인과 그의 딸 리숙이 우편마차에 오르고있었다. 내몽고산 절다말이 발을 저겨디디며 투레질을 했다. 마부가 고삐끈을 풀었다.

현수는 그자리에 굳어진채 움직이지 않았다. 마차가 떠날 때에도 워낭소리가 곁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2륜마차의 바퀴소리가 차츰 전나무숲사이로 난 길로 멀어갈 때에도 까딱하지 않았다. 다만 머리에 동이던 광목수건을 두손에 잡고 꽉 비틀어댔을뿐이였다.

마지막으로 리숙이 그를 한번 돌아본 일이 있었다. 한순간의 일이였다. 지나가는 길손을 바라보듯 무심결에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날 아침 현수가 맛보게 된 최후의 가장 무서운 멸시였었다. …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오늘 부디 그 일을 상기한것은 무엇때문일가? 리숙의 생사를 알길없는 은근한 불안때문일가, 아니면 박원철이 리숙을 빗대고 나무란때문인가?… 웬일인지 화가 났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그런 감상적인 생각이나 하고있을 때가 아니다!… 속이 뒤틀리고 숨이 가빴다. 안개발같이 드리운 화약가스때문에 가슴은 쓰리다못해 면도날로 어이는듯했다.

《뛰자구!》

현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2소대가 전개한 구역으로 숨가쁘게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모두 이제 있게 될 전투를 준비하고있었다. 소대장을 찾으니 꺾어진 군모채양아래 이마가 쏙 도드라져나온 애젊은 청년이 다가왔다.

《우리 소대에?》하고 그는 보고를 받자 쟁쟁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얗고 애리애리한 모습의 소년같았다. 《전투에 참가해본적이 있소? 아니면 알쭌히 신병들이요?》

현수는 잠자코 있었고 박원철이 눈가에 손을 올려붙이며 대답했다.

《우린 보충병들입니다, 소대장동무!》

《그건 아오! 내가 묻는건 신병인가말이요.》

《우린… 보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병들은 아니란말이지?》
《예.》
《전투엔 참가해봤소?》
《예.》
《아무리 봐야 동문… 책상물림이야. 옷은 그슬렸지만 화약내는 안나!》
이번엔 현수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동문 무슨 차림새가 그모양이요? 군관두 아니구… 전사두 아니구… 어데서 빌려입은건 아니요?》
《아닙니다, 소대장동무.》
《뭐가 아니란말이요?》
애젊은 소대장은 마치 이발이라도 쏘는듯 잔뜩 미간을 찌프렸다. 현수의 옷차림이 비위에 거슬려 참을수 없다는투였다.
《그 전투가방은 또 뭐요?》
《저… 이건…》
현수의 궁색스러운 처지를 보다못해 박원철이 끼여들었다.
《소대장동무, 사실 우린… 보위성직속…》
그 순간 현수가 머리를 홱 돌렸다. 그 날카로운 눈빛이 박원철을 굳어지게 했다. 소대장이 어리둥절하여 그들 둘을 번갈아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년처럼 귀엽게 씩— 웃으며 몸을 홱 돌렸다.
《3분대장동무, 여기 오시오!》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하사관이 달려왔다.
《3분대장동무, 구대원 한사람이 배치됐소. 바로 이 동무요!》 그는 현수의 잔등을 툭툭 두드렸다. 《이름이 뭐랬더라?… 아—이거 정말 인사가 늦어졌구만.》
《류현수입니다, 소대장동무.》
《리유정이요. 닷새전에 배치됐소. 도와들주시오.》
《…》
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애된 소대장의 그 진정에 넘친 말에 불뭉치같은것이 목구멍으로 욱 치밀었다.
소대장과 분대장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가기요.》

분대장이 말했다.

얼마후 그는 분대장의 특별한 신임의 표시인 반땅크수류탄 1개를 받았다. 이제부터 류현수는 보병중대의 한 보총수였다. …

9

밤은 깊었다. 창밖은 물론 집무실의 구석구석과 방바닥에도 빈틈없이 두터운 어둠이 둘러싸고 겹치고 깔려있었다. 등갓을 씌운 탁상등 불빛만이 탁자로부터 창가에 이르기까지 가까스로 어둠을 밀어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그 창가에 서계시였다.

밤은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주며 휴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심각한 사색에 잠겨 이밤도 시간을 잊고계시였다.

서울과 락동강전선에 조성된 어려운 정황때문만이 아니다. 후퇴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일부 심중한 문제들때문이였다.

물론 승리적으로 줄기차게 전진해가던 공격부대들을 그 목적지 바로 코앞에서 멈춰세우고 돌려세운다는것은 례사로운 일이 아니다. 최대속력으로 달리던 기관차에 급제동을 건다면 모진 충격으로 차량들이 세차게 흔들리고 련결부위가 끊어져나가고 부딪치고 찢겨지고 레루에 쓸린 차바퀴들에서는 불이 펄펄 일것이다. 바로 그처럼 많은 지휘관들이 충격을 받고 뒤흔들렸었다. 최현은 격하여 제발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고함을 쳤다고 한다. 전쟁의 승리를 이제 며칠안팎으로 내다보고있던 그였으므로 피흘려 넘어간 락동강을 도로 건너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너무도 분하고 절통하여 고질적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류경수는… 부드럽고 단정한 그였지만 전선사령부의 문앞에까지 땅크를 타고 들이닥쳤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땅크에서 뛰여내렸을 때 김책이 폭우속에 나와 버티고 서있는것을 보고는 기가 죽어서 사령관

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중얼거렸다 한다. 그 말을 하는 김책의 목소리도 떨리고있었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고도중 몇번이고 말을 멈추군했었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은 예상외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것은 일부 지휘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혼란과 동요,절망의식의 표현들이다. 그 한 실례로 무정은 권총을 빼들었다고 한다. 가차없이 벌하고 징계함으로써 칼날같이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한다. 후퇴를 하는 때인만큼 사람들을 무섭게 달구고 닦아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는것이다.

무정은 오늘 한 공병중대장을 체포하여 총살할것을 명령하였다. 그 중대장이 명령에 불복하여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그 중대장은 10여명에 달하는 부상병들이 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불의의 습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자신이 희생적으로 위기를 막았으나 무정은 가차없이 벌하기로 했다. 누구든 군사적과오를 범하면 죽음으로 징계된다는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처벌은 당연하다. 군법은 엄하며 전시하에선 더욱 가혹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엔 무엇인가가 결여되여있다. 날이 안선 장검처럼,아픔이 없는 추억처럼 애매하고 어정쩡한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10여명에 달하는 부상병들의 문제이다. 왜 무정은 그들 부상병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는가? 련합부대들을 적의 포위속에서 구출할 생각은 하면서도 10여명이나 되는 부상병들은 왜 구출할 생각을 못했는가?… 적어서? 도무지 여라문명밖에 안되기때문인가?… 위험한 견해이다. 보통 병사가 아니라 군집단을 지휘하는 군사지휘관인 까닭에 더욱 위험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자앞으로 돌아오시였다. 송수화기를 들고 《백두산》 (최고사령부 통신결속소) 을 찾으시였다.

《서해안방어사령부에선 아직 소식이 없소?》

《없습니다,장군님! 지금 계속 련계를 취하고있습니다.》

《좋소,기다리겠소.》

탁자우에 펴놓은 지도를 묵묵히 내려다보고계시였다.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남일이 자기 사업의 첫시작으로 작성한 정

황지도와 전투상보였다. 인천, 서울 지역의 엄중한 정세, 락동강전선에서 방어로 이전한 전선련합부대들의 전투행동이 낱낱이 그려져있었다. 그러나 그이의 생각은 여전히 무정과 한 이름없는 공병중대장에게로 달리시였다. 그 공병중대장을 체포하여 총살할 임무를 받고간 상급예심원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장에서 전사들과 담화하고 사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자기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였다. 하여 그는 대담하게 자기의견을 상부에 제기하였고 김책은 공병중대장을 전사로 강직시켜 전투장에 내보내면서 피로써 과오를 씻으라고 명령하였다. 그 공병중대장사건은 단순한 군법상의 문제만이 아닌것이다. 그런데 무정은 외곬으로 비뚤게 생각하고있다. 호기있고 결패있는 군사지휘관인 무정은 우리 혁명군대의 모든 규정과 교범은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원칙적단결에서 출발하고있음을 망각하고있다. 그는 또한 이 전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책벌이나 군사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참된 삶을 안겨준 우리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억세게 잘 싸우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다. 그리하여 전사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선 지휘관만이 군기를 세울수 있다는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릿저릿한 아픔을 누르며 여전히 탁자우의 지도에 눈길을 주고계시였다. 남일이 작성한 정황지도, 각일각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인천, 서울 지역과 락동강전선의 실태가 낱낱이, 정확하게 반영되여있는 지도… 별안간 흠칫 놀라시였다. 고즈넉한 정적을 깨뜨리며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있었다. 그이께서 급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장군님, 최용건입니다. 행주나루방어진지에서 금방 방어사령부에 돌아왔습니다.》

《아, 최용건동무, 기다렸습니다. 그새 정황이 달라진것은 없습니까?》

《장군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건은 서둘지 않고 천천히 보고드리기 시작했다. …

어제부터 적들은 미제1해병사단과 괴뢰군해병대들로 한강좌안을 강점하며 미제7보병사단과 괴뢰군 17련대로는 서울을 동남쪽으로부터 타격하려고 시도하였다.

날이 밝자부터 인천앞바다에서 날아오른 수백대의 비행기들이 인천—영등포사이의 큰길을 따라 파도식으로 밀려들었다. 그리하여 소사, 약대리, 할미산 일대를 비롯한 한강좌안은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밤까지 수십수백차례이상 불에 휩싸였다. 공습이 끝나면 바다우에 뜬 수백척의 함선들에서 각종 구경의 함상포들이, 지상에서는 200여대의 땅크와 수백문의 곡사포, 평사포, 박격포들이 일시에 울부짖었다. 그러나 가혹한 그 초토화작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하려던 적들의 기도는 파탄되였다. 닷새동안이면 서울을 점령하고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겠다고 그리도 호기있게 선언해온 맥아더였지만 아직 한강도 건느지 못하고있다.

적들은 다른 출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돌연 영등포일대에서의 한강도하를 포기하고 김포방향에로 주타격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정세를 요약하면서 최용건은 보고를 계속하였다.

《한편 적들은 미제1해병사단 주력을 수색— 서울사이의 큰길과 철길로 공격케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문천에서 기동해온 독립부대와 제143땅크련대를 중심으로 반돌격력량을 편성하고있습니다. 오늘밤… 계획하고있습니다.》

《음—》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필로 지도에 《143》이라는 수자를 써넣으시였다. 《봉대산일대의 방어부대들은 누가 지휘합니까?》

《김증동동무입니다. 어제 도착하자바람으로 지휘에 착수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또 지도에 표식을 하시였다. 《그런데 최용건동무, 적들이 서울 동남쪽 서빙고일대와 성동구방향에로 침입하려는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는 늦습니다. 영등포일대와 서대문구의 공격에서 실패한 적들은 우리의 방어가 약한 동남쪽으로 주공방향을 바꿀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부대들을 기동시킨다면… 혼란만 가져올뿐입니다. 즉시 서울시 원형방어를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형방어말입니까?》

《물론 병력도 물자도 시간도 부족한 형편에서 대단히 어려울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체해선 안됩니다. 그쪽에도 방어축성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 서울시 내부방어공사는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예,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선부대들이 차지한 진지의 후면으로부터 시가 중심에 이르기까지 벌써 700개이상의 방어축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수십만 서울시민들이… 놈들의 폭격과 포격이 계속되는속에서도 계속 동원되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최용건은 흥분한것 같았다. 별안간 어조를 바꾸어 이렇게 덧붙였다.

《한덕모라는 기관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철도기관구 로동자들로 지원병대대를 뭇고 싸우고있습니다.》

《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인사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동무뿐아니라 전 대대가 감격하여…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쳐 싸울것을 맹세다졌습니다. 오늘아침 그들은 행주나루계선의 방어진지로 자원해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지난 7월 전선수송지원대를 뭇고 첫 렬차를 몰아가던 그 기관사가 오늘은 서울방위의 최전연에서 로동자지원대대를 지휘하고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최용건동무, 래일까지 서울시 원형방어준비를 끝내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와 영등포일대의 방어부대들중 일부를 떼여 기동시키고 의정부계선에서도 증강할수 있습니다. 방어축성물공사는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하시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전인민적항전의 바리케트로 서울에서 놈들의 침공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장군님, 알았습니다!》

최용건의 힘찬 대답소리는 공명판을 쩡쩡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를 끝내고 지도우에 몇가지 표식을 더하시였다. 그리고나서 쏘파에 가서 앉으시였다. 자정이 넘은지 오래다. 창밖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재빛의 융단처럼 드리웠고 한줄기 찬이슬이 얼룩을 그리며 유리우를 천천히 오불꼬불 기여내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눈을 감으시였다. 다문 얼마동안이라도 눈을 붙이셔야 했다. 아늑한 집무실, 숙연한 정적이 발밑의 주단우를 안개처럼 흐르는듯 느껴지시였다. 그 유연한 흐름은 소리도 없이 계속 멀고먼 기슭으로 이어져갔다. 화광에 물든 강물이 그 흐름을 덮씌우기 시작했다. 불타는 강, 화염의 강 락동강이였다. 배떼다리가 흔들거렸다. 적땅크들이 소리도 없이 그리로 달려들고 다리우에서는 권총을 쥔 무정이 무섭게 웨치고있었다. 키는 크지 않으나 튼튼한 두다리를 떡 뻗치고 선 그의 모습은 위엄찬것이였다. 말총처럼 빳빳해보이는 검은 머리칼이 장령모의 귀밑에 삐여져나와있었다.

무정!… 본명은 김병희, 고향은 청진이다. 젊은 나이에 혁명의 웨침소리로 들끓던 동북지방과 산해관너머의 중국내륙각지를 찾아다녔고 그동안 여러번 족쇄를 차고 감옥살이도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무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견결하고 굽힐줄 모르는 투지로 하여 그는 8로군의 중급지휘간부로까지 되였다. 2만5천리장정때엔 모택동을 옹호하면서 당시 중앙의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던 장국도의 반혁명적기회주의로선을 대담하게 반대해나섰다. 8.15해방직후 곧 조국에 달려나온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혁명을 위해 헌신분투할 굳센 결의에 넘쳐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견결한 정신과 의지의 소유자인 그를 아껴주시였다. 그의 투쟁경험과 담찬 투지를 믿고 인민군대의 고위군사지휘관의 일원으로까지 내세워주시였다. 그런데 그 무정이 지금 군벌관료주의적경향으로 나가고있다. 동지들을 아끼지 않고 가혹하

게 벌하는것을 서슴지 않는다. 혁명의 나날에 모진 시련도 수없이 헤쳐온 그가 벌써 동지의 귀중함을 잊다니!… 그 동지 한사람, 한사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바쳤던가!… 그런데도 10명이상이나 되는 부상병들, 그들을 후송하러간 간호원, 담가병들을 감히 버리다니!… 참을수 없으시였다. 가슴이 찢기는듯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어느새 날이 밝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집무실을 나가시였다. 밖에 나서자 근무를 서고있던 호위원 리병섭이 차렷자세를 하였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들어 인사를 받으시였다.

《가서 말을 끌어오오.》

리병섭은 깜짝 놀란듯했다.

《장군님! 아직 시간이…》

《어서 끌어오라구.》

리병섭은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모았다.

《예, 알았습니다!》

그는 인차 돌아왔다. 기세좋은 황부루가 대가리를 주억거리며 따라오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능숙한 솜씨로 말잔등에 오르시였다. 고삐를 툭툭 채자 황부루는 뚜걱뚜걱 힘차게, 차츰 속도를 높여 빠른 구보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새벽에 말을 타고 달리는것을 새날의 첫 일과로 삼으시였다. 새벽의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네굽을 놓고 달리는 말발굽아래 편자에 부딪친 돌들이 반디불같은 불꽃을 사방 튕길 때, 땀으로 미역을 감은 말들이 거품침을 뭉치뭉치 떨구며 푸릉푸릉 코김을 불어댈 때, 갈기사이로 갈라지는 세찬 바람을 맞받아 내달리는 그 박력있는 운동감과 육체적 및 정신적인 변화와 도약, 새날의 첫 출발에 원기를 북돋아주는 그 모든 가락과 리듬을 즐겨하시는것이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것은 단순히 례사로운 아침일과로만 된것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마음이 피로우실 때마다 어뜩새벽에 말을 달리신다는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였다. 속도가 빠른 절다말, 가라말, 황부루 할것없이 번갈아 잔등이 푹 젖어 돌아오군하였다. 돌아오는 즉시 그이께서는 일에 착수하시였다. 그리고 그런 날은 하루의 긴장한 사업이 18～20시간이나 계속되군하였다.…

갑자기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삐를 힘껏 당기시였다. 황부루는 앞발을 높이 들고 곤두서더니 요란스러운 호용소리를 질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놀란 눈길로 주위를 살펴보시였다. 얼마후에야 왜 그리도 거리가 조용한지 알아차리시였다. 호위원 리병섭이 하던 말이 생각나시였다.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벌써 새벽일과를 시작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시였다.

거리는 잠들어있었다. 미친듯이 하늘을 썰던 폭격기들의 앙칼진 쇠소리와 지동치는 고사포소리는 물론 하늘을 샅샅이 뒤지던 탐조등마저 눈을 감아버렸었다. 파괴된 거리, 인적없는 거리, 불빛도 없다. 허리 꺾어진 가로수가 무너진 바람벽우에 넓은 잎가지를 한아름 펀채 동댕이쳐있었다. 이 거리에 비좁게 들어앉았던 가게방, 료리점, 약국, 사진관, 려관 등의 간판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둠, 싸늘한 정적, 규칙적인 말발굽소리만이 죽은듯 잠들어버린 거리에 뚜걱뚜걱 단조롭게 울렸다.

그이께서는 비로소 손목시계를 눈가까이 바투 가져다보시였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실실이 드리운 버들잎들이 어깨에 스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고삐를 잡고 기울어진 전주대쪽으로 걸어가시였다. 그때 길가에 멎어선 승용차가 눈에 띄시였다. 그곳에서 두사람이 기관실 덮개를 열어젖히고 머리를 맞대고있었다. 한사람은 운전사일것이고 다른 사람은… 중절모를 쓴것으로 미루어 차를 타는 일군인듯했다.

말발굽소리가 다가오자 두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돌렸다. 먼저 중절모가 길우에 뛰여내렸다. 모자를 벗어들고 부르짖었다.

《장군님！—》
다음순간 급작스럽게 기침소리를 터쳤다. 병기생산국 서병호 국장이였다. 몸이 체소하고 늘 얼굴에 병색이 도는 사람인데 사업에서는 놀랄정도로 이악하고 내밀성이 있다는 평판이였다. 언제나 현장에서 침식을 하고 로동자들과는 허물없이 대하나 공장간부들은 무섭게 다몰아친다고 했다. 아까운 일군인데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언젠가 김책이 걱정스럽게 말한 일도 있었다.
《서동무, 이 새벽에 무슨 일이요？》
그이께서 가까이 마주가시자 서병호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쭈밋거렸다.
《장군님！ 실은 저…》 말씀드리기 딱한듯 바재이다가 더 낮아진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이 문제는 따로 보고드릴가 했습니다만… 한 일군이…》
《어서 말하오.》
《예, 리성조라고 전기관리국에서 기사장을 하던 사람이… 도주했습니다.》
《도주？…》 **김일성**동지께서는 놀라시였다. 《도주하다니, 그가 왜 도주한단말이요？… 사실을 확인해봤소？》
《예, 확인해봤습니다. 얼마전 내각사무국에서 그를 우리 병기생산국사업에 인입시켰는데… 제가 직접 그를 군수공장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주했다고 볼 근거야 없지 않소？》
《그렇지만 집에도 없습니다. 알아보니 그의 처도 사흘전인가 짐을 싸들고 어데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밤중에 몰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장군님！ 벌써 해당일군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
황부루가 발을 저겨디디며 투레질을 해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는새에 고삐를 계속 감고계시였다. 팔목이 저려나는 것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시였다.
리성조는 해방전 일본와세다대학 전기공학과를 나온 기술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날 평안도지역에 가지고있던 많은 땅을 팔

아 대구소림광업주식회사의 주권을 산 이후 서울로 옮겨갔으나 그는 남았다. 그만은 왜 남았는가 하는 문제로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더우기 해방후 서울에서 사람이 데리러 왔었고 리화녀전졸업생인 그의 후처가 서울로 나갈것을 눈물로 간청하여 행장을 꾸린적도 있다는데 무슨 일로 다시 주저앉았는가 하는것이였다. 북에 남아있어 그에게 유리해보이는 점을 그들은 아무리 해도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를 처음으로 아시게 된것은 1946년 4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장시간의 담화가 있었다. 여기서 리성조는 자기의 필생의 뜻이 《조선의 전기불이 꺼지지 않게》하는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 말을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적으로 믿으시였다. 그가 해방전 아무런 보수도 없이 순수 자비로 조선북부 강하천들을 답사하며 수력자원을 찾았다는 단 하나의 사실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던것이다.

얼마후 리성조는 산업성 전기관리국 기사장으로 임명되였다. 다시 얼마후 그는 수풍발전소가 전례없는 대홍수로 물이 넘어나면서 언제물받이구조물 (에프론) 이 크게 파손되였을 때 현지에 파견된 기술자일행을 책임졌었다.

진지하고 소박하면서도 끈덕진 사람이였다. 넥타이 매는 법을 종시 배울수 없어 려행을 떠나서는 늘 그 모양대로 늦춰놓은채 걸어둔다고 했다. 미인으로 소문난 후처를 끝없이 사랑하나 그들사이엔 자식이 없다고 한다. 전처에게서 난 딸은 대학을 다닌다고 했던것 같다. 참, 이름이 뭐랬던가？… 체육과 예술활동에서 또 학과실력에서 뛰여난다고 했다. 수풍발전소의 에프론공사때문에 현지에 가계실 때 그런 말을 들으신 일이 있었다. 그날 리성조는 류달리 얼굴이 밝았고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게 아니요, 성조동무？》

이렇게 그이께서 먼저 물으시였다.

《장군님！》 리성조는 서슴지 않고 대답올렸다. 《좀전에 라지오에서 제 딸이… 웅변을 했습니다. 전국대학생웅변대회 우승자들의 연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소?！… 그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하고 그이께서도 기뻐하시였다. 《그걸 왜 나한텐 알리지 않았소? 나도 함께 들어보았을걸…》

얼굴을 붉히며 면구스러워하는 그에게 따님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리숙이라고 합니다, 장군님！》

리성조의 대답이였다.

그렇다. 리숙！… 비로소 생각나시였다. 인상적인 두자 이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날 유일한 살붙이인 자기의 외동딸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담아 말하던 리성조의 얼굴을 그려보시였다. 순진하고도 열정적인 인간이였다. 과거를 결별하는데서도 주저를 몰랐던 강한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병호를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어둠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체질이 약해서인지 그의 얼굴은 유별나게 까시시해보였다. 오한이 나는듯했다.

《리성조라면 나도 잘 아는 동무인데… 국장동무, 좀더 알아보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는 체소한 몸에 비해 류달리 굵은 목청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자신심은 없었다. 무엇인가 우려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듯했다.

《장군님！》 마침내 그가 또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가 후퇴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일부 사람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지어 어떤데서는 반동적인 요언이 떠돌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것만큼 저는…그 리성조라는 사람이 우리 국사업과 관련된 비밀도 적지 않게 알고있으므로 제때에 일부 사업을… 변경시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적없는 밤길에 나섰을것이다. 온밤 잠을 못자고 뛰여다녔을수도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삐를 당겨 말의 갈기를 쓸어주시였다.

《물론 동무의 심정은 리해되오. 하지만 서동무, 우선 믿고봅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을 더 믿어야 하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오.》

잠시후 그이께서는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웬일인지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서병호가 하던 말들이 계속 상기되시였다. 리성조가 도주했다, 사람들이 동요하고있다, 반동요언들이 떠돌고있다！…

물론 위급한 정세에 기가 질린자들이 적지 않다. 때를 기다리고있던 반동놈들 역시 도처에서 머리를 쳐들고있다. 흔히 그 어느때나 시대의 벽장틈에 몸을 숨기고 빈대처럼 살아가는자들이 있는 법이다. 어둠이 깃들면 기여나오고 불을 켜면 다시 숨어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별적현상에 사로잡혀 보다 큰것을 보지 못하는 거기에 있다. 한그루의 나무에 사로잡히면 숲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부지중 무정의 일이 또 상기되시였다. 그도 승리적으로 진격할 때엔 지금같지 않았다. 후퇴가 시작되자 정신적변동이 일어났다. 앞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제 적들의 침공을 저지시키는 어려운 싸움뿐아니라 패배주의와의 심각한 투쟁이 또 시작되였다는것을 발견하시였다. 그것도 하나의 큰 전선이다. 적들과의 피어린 싸움에 못지 않은 중요한 전선, 간고한 사상전선이다. 그러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의 신념으로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이께서는 돌아가시는 즉시 서울에 나가있는 문화선전상 허정숙을 급히 소환하실것을 결심하시였다. 그리고 인차 각 도당위원장들의 협의회를 여실 생각이였다. 그 협의회에서 토론될 주요의제들을 생각하며 언제 날이 밝기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하시였다.

멀리 강건너 사동중앙병원쪽에선가 수닭이 홰를 치며 울어대고있었다. 어느새 대기는 투명해지고 도처에서 선잠을 깨는 은밀한 음향이 느껴지시였다.

갑자기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기총탄자욱으로 흉하게 된 국립예술극장앞마당에서 웬 로인이 마당을 쓸고있는것을 보신것이였다. 보통키에 흰옷차림을 한 로인이였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송라같이 내리드리운 아래수염도 희여스름했다. 전설에 나오는 백설로인처럼 깨끗하고 근엄했다. 로인은 로타리건너편에서 걸음을 멈춘 황부루를 멀거니 보더니 허리를 굽혀 무슨 깨진 기와장이며 벽돌쪼각들을 주어던지고 다시 천천히 비자루질을 계속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로인에게서 한동안 눈길을 떼실수 없었다. 마음이 뜨거우시였다. 새벽안개속의 수염발드리운 로인이 고맙고 귀중하게 느껴지시였다.

그렇다. 인민은 드팀없다. 어느때든 인민의 마음은 굳건하다!…

그이께서는 다시 말잔등에 오르시였다. 차츰 속도를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련속 박차를 차시였다. 편자밑에서 불꽃이 튀였다. 말갈기에서 갈라진 바람의 에이는듯하는 휘휘 소리가 끊임없이 귀전을 스쳐갔다.

모락모락 연기를 뿜는 굴뚝들이 늘어갔다. 구기자넝쿨이 성한채로 남은 어느 울바자 안쪽에서는 뒤덜미에 커다란 비녀를 꽂은 아낙네가 걸싸게 뽐프질을 해대고있었다. 서평양조차장쪽에서 목메인듯한 기차의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전쟁의 하루가,례사로운 수도의 새날이 또 시작되는것이였다.

10

9월 21일.

이날도 맥아더의 상륙부대는 서울시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있었다. 월미도에 대한 미증유의 폭격과 포격을 시작하던 그날로부터 어언 열흘가까운 날들이 흘러갔으나 제1선의 미1해병사단은 아직 영등포에서 부절히 한강도하전투를 거듭할뿐이였다.

닷새면 인천—서울작전을 끝내겠다던 맥아더의 호언장담은 웃음거리로 되고말았다. 두번째 닷새가 다가왔으나 아직도 서울공략의 전망은 어두웠다. 맥아더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투장가까이에 나가 전투를 참관하며 아울러 피흘려 싸우는 1선장병들을 고무해야겠다면서 분연히 영등포구 안양촌을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는 정예의 1해병사단이 한강도하작전을 위한 공격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저녁 6시, 검은색 크라이슬러 승용차는 수많은 땅크와 포차들이 짓이겨놓은 농촌길을 힘들게 굴러가고있었다. 어데선가 벌쭉으로부터 웅뎅이의 썩은 감탕내가 풍겨왔다. 길좌우의 뽀뿌라나무줄기우에서 저물어가는 해빛이 얼씬거렸다. 까마귀 한마리가 그쪽에서 깃을 활 펴들었다. 그것을 띄여보자 맥아더는 황황히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그는 그 날짐승을 무던히도 싫어하였다. …

(오늘도 한강을 도하하지 못하면…)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상륙작전에서 기대했던 거대한 성과는 거의 가망없다. 래일이면 그 의의가 또 절반이상으로 줄어들것이다. 벌써 우리는… 기습공격의 주도권을 잃었다. …)

지겨운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있었다. 그 순간 차가 멎었다. 크지 않은 폭음소리가 울리고 자동총들이 뚜루룩거렸다. 앞에 앉아있던 부관이 문짝을 열어젖히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맥아더는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검은 구름장들이 서둘러 날아가는것이 보였다. 그것들은 이 땅우에 벌어진 끔찍한 살륙에 진저리를 치는듯 바삐 황황히 날아가고있었다.

부관이 돌아왔다.

《각하, 농군 한놈이 선두차에 수류탄을 뿌렸습니다. 호위병들이 방금 그자를 사살했습니다.》

《농군이라고？》

《조선사람 농사군입니다, 각하！》

《혼자서？》

《예, 혼자서 달려들었습니다. 허리엔 낫을 차고…》

《?!》
맥아더는 가볍게 손짓했다. 눈치빠른 부관이 다시 뛰여나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서쪽으로부터 누기차고 싸늘한 해풍이 불어오고있었다. 맥아더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호위병들이 사살했다는 조선농민의 시체있는곳으로 걸어갔다. 미식소총을 지여총한 호위병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무엇인가 찾다말고 허리를 쭉 폈다. 그의 손에 무슨 종이장이 쥐여있는것을 얼핏 스쳐보았다.
고급승용차들에 수류탄을 던진 농군은 주걱턱이 쑥 나온 좀 걸늙어보이는 사람이였다. 흙물이 밴 낡은 베적삼을 입고 미투리를 신었는데 어떤 연고로 죽음을 각오한 이 습격에 나섰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맥아더는 자기 차있는데로 돌아가려다가 돌연 호위병이 쥐고있는 종이장에 시선을 던졌다.
《그건 뭐요?》
《이 죽은 농군의 품속에 있던것입니다. 무슨 문서장같습니다.》
《문서?!…》
부관이 통역관을 불러왔다.
《이게 무슨 문서인지 보오.》
통역관은 종이장을 받아들자 경멸하는듯 입술을 비쭉거렸다.
《각하, 토지분여증서입니다.》
《뭐라고?》
《공산군이 남하한 이후 이북정부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매 농군들에게 이런 증서를 하나씩 쥐여주었습니다.》
맥아더는 승용차로 돌아갔다.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승용차는 다시 농촌길을 짓이기기 시작했다. 맥아더는 안양촌 서쪽의 118고지에 오를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알몬드소장, 스미스미1해병사단장 등 현지지휘관들이 118고지에서 맥아더를 영접하였다. 1해병사단의 군악대가 《100개의 피리》라는 곡을 연주했다. 태평양전쟁시기 련합군해군에서 류행되던것으로서 맥아더가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였다. 군악대는 폭격기들의 출격이 시작되여서야 연주를 그쳤다.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했다. 사나운 태풍처럼 폭음이 휩쓸고 지나가자 뒤이어 원

거리포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공격열에 도취된 미제1해병사단의 5해병련대, 1해병련대 및 32련대들이 영등포남쪽의 안양촌, 한강남안 행주나루쪽으로 공격을 거듭하고있었다. 포탄이 날아갈 때마다 목화송이같은 포연들이 먼 구릉지대에 무수히 피여났다. 작렬하는 폭발의 섬광속에서 허리를 굽힌채 달려가다가 밑둥잘린 풀대처럼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쌍안경의 렌즈에 얼핏얼핏 찍혔다.
맥아더는 눈살을 찌프렸다. 그를 기분나쁘게 한것은 무리로 쓰러지군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때문만이 아니라 아무리 눈밝혀보아도 쌍안경의 렌즈속에 북조선공산군들의 자태가 포착되지 않는 때문이였다.
그의 표정을 살피던 알몬드가 뜨직뜨직 말했다.
《참관이 너무 이른것 같습니다, 각하! … 시가전이 시작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참아달라는 소리였다. 맥아더는 피끗 눈길을 돌렸다.
《아니요. 너무 늦었소!》
다시 쌍안경을 올렸으나 곧 내리고말았다. 무엇인가 따끔히 오금을 박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당신들에게 묻고싶소.》하고 그는 알몬드와 스미스소장을 우울한 눈빛으로 더듬었다. 《며칠이면 서울을… 탈환할수 있소?》
알몬드와 스미스 두 소장은 서로 마주보았다. 이윽고 알몬드가 결연히 머리를 곧추 들었다.
《각하! 이제 3일이면 탈환할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래일 서울로 들어가야 하오.》
맥아더의 어성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심히 고압적이였다. 그는 결코 험한 욕설과 고함소리로 부하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저급한 인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강하게 요구하려고 애썼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있소. 적아가 다같이 시간과 싸우고있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알몬드와 스미스는 덤덤히 서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이래 벌써 수십번도 더 되풀이된 말이였던때문이다.

《그러자면 지금 정면공격 하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오. 공산군은 지금 서울의 서북쪽과 여기 서남쪽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있는것만큼 방어가 홀시되고있는 저 동남방향에 주타격을 지향시켜야 하오. 적이 없는곳을 치라！…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립증된 군사리론이며 바로 인천상륙작전의 출발점이요！》

알몬드는 여전히 침울한 눈빛이였다. 잠시후 무거운 어조로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공산군은 벌써… 서울시 원형방어를 구축해놓았습니다.》

《뭐라구？…》

《서울의 동남기슭에만도 2개의 보병련대, 로동자련대, 철도복구대와 독립땅크구분대, 박격포대대들이 전개되였습니다.》

《…》

잠시 맥아더는 눈섭을 잔뜩 찌프리고있었다. 그러다가 불쑥 물었다.

《그게 다요？》

《그렇습니다. 각하！》

《보잘것없는 무력이요！》 맥아더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에겐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요.》

알몬드는 주걱턱을 쑥 내밀었다.

《월미도에서도 그들은 보잘것없는 병력으로 각하의 무력에 대항했습니다.》

맥아더는 목에 경련이 이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늘 신뢰해왔고 역시 그에게 충실해온 이 스핑그스같은 사나이의 무례한 대답에 그만 숨구멍이 틀어막히우는듯했다. 그러나 금시 독살스러운 말이 튀여나오려던 껄끽해진 목구멍을 애써 눌렀다. 차라리 월미도를 상기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것 같았다. 월미도란 말만 들어도 그는 추위를 타는듯했다. 그 작은 섬은 맥아더가 지난 태평양전쟁때 최초의 미해병대상륙작전을 지휘한 타라와섬보다 더 무섭게 생각되였다. 중부태평양의 산호섬 타라와는 수로의 폭이 좁아서 미해병들이 수백메터를 걸어서 들어가야 했는데 그때 일본군은 사전에 있은 가

혹한 포격과 폭격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가 미해병들을 바싹 접근시켜놓고 치명적인 집중사격을 가했던것이다. 해안에 구축된 1.5메터높이의 통나무벽장애가 또 해병대에 섬멸적인 죽음을 준 원인으로 되였다. 그 섬을 점령하는데 수천의 희생자를 내였었다.

맥아더는 쌍안경을 들어 전투가 벌어지는 한강류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알몬드와 스미스소장도 슬며시 그쪽으로 눈길을 옮기고있었다. 그들은 별안간 벌어진 대화로 하여 거북스러움을 느낀것 같았다. 하지만 맥아더는 아무런 감촉도 느끼지 못하는듯 처신했다.

랭담한 의지,자기를 나타내려는 집요한 노력과 거만한 자기과신—이것이 바로 맥아더를 특징짓는 주되는 성격이였다. 사생활에서는 깨끗하나 군복은 일부러 조잡스럽게 입었고 기자들앞에서는 늙은티를 내지 않으려고 안경을 삼가했고 연약한자는 멸시하고 강력한자는 증오하고 현실보다는 력사를,녀자보다는 힘을,소란스러운 연회보다는 조용히 혼자있기를 더 즐기는 모순투성이의 완고하고도 고독한 71살의 맥아더—그는 지금 쌍안경의 광학렌즈가 가까이 당겨온 전투장의 여기저기를 지꿎게 살펴보고있었다. 무엇인가 찾고싶었는데 눈에 띄는것이 없었다. 폭발의 불기둥,연기타래,사슬을 풀어헤친 땅크,짓이겨진 논두렁,또 폭발,화염… 모든것이 월미도와 다름없었다. 철불의 파도가 휩쓸던 그 월미도에서도 공산군은 눈에 띄지 않았었다.

…그날도 맥아더는 사령함 《마운트 맥킨레》호의 갑판우에서 쌍안경을 들고 서있었다. 맑은 아침이였었다. 바다에 떠있던 고기배들과 주변섬들에서는 흰옷입은 주민들이 바다에 꽉 들어찬 군함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실로 어마어마한 상륙작전부대였다. 미7함대의 중순양함 《로체스터》,《토레도》,구축함들인 《맨스필드》,《데헤이븐》,《콜레트》,《칼크》와 영국해군 중순양함 《케니아》,《져메이커》 등 카나다,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프랑스군의 각종 항공모함,중순양함,구축함,로케트지원함,상륙용함선들 수백척에 1,000대의 비행기,미10군단의 1제대 1해병사단,7보

병사단을 비롯한 5만의 대병력이였다.

오전 11시,3척의 로케트지원함이 로케트발사기 10대를 가지고 15분동안에 도합 4,400발을 발사하는것으로서 월미도에 대한 미증유의 타격은 시작되였다. 로케트탄들이 꼬리에 불을 달고 쉬임없이 섬으로 날아갔다. 귀에서 뜨거운 바람이 쨍쨍 울었다. 끊임없이 잇대여지는 눈부신 섬광으로 하여 눈섭이 죄여들고 이마빼기의 피가 끓다못해 말라버린듯했다.

그때 맥아더는 함교우에서 한 해병이 갑판우에 무너지듯 꿇어앉는것을 보았다. 꿇어앉자바람으로 해병은 열심히 가슴에 십자를 긋기 시작했다.

맥아더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허나 다음순간 그역시 불안한 심정에 휩싸여 월미도에 쏟아지는 무서운 불의 소나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깊이 부르짖었다.

《오,주여！ 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 소리를 들으시옵니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저 노성을 들으시옵니까！…》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마음을 진정한 맥아더는 다시 눈가에 쌍안경을 가져갔다. 콜세아전투기들의 나팜탄공격과 더불어 지원포격부대사령관 히기스소장의 기함인 중순양함 《토레도》호에서 함포들이 한바탕 울부짖고있었다. 련이어 《맨스필드》,《콜레트》 등 6척의 구축함들이 섬을 에워싸며 십자포화를 소낙비처럼 퍼부어댔다. 월미도는 온통 불과 연기에 싸여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다. 펑끗거리는 섬광들과 오불꼬불 비꼬이며 타래치는 화염들뿐 공격을 담당한 미 1해병사단의 5해병련대를 실은 《에이 피 디》형 수송선들조차 암갈색의 장막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맥아더는 쌍안경을 눈에서 떼였다. 이러한 장면들은 태평양상의 섬들에서 지칠지경으로 보아온 그였다.

《나는 몹시 피곤하오.》 갈린듯한 목소리로 알몬드소장에게 말했다. 《내가 할 일은 더는 없는가본데… 이젠 좀 쉬여야겠소. 량해해주오.》

사실상 그는 피로했었다. 모험적인 이 《크롬마이트작전》을 추진시켜오기까지 며칠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것이다. 그동안 맥

아더는 인천상륙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자들을 설복하고 납득시켜야 했고 자기수하의 해군장령들도 끌어당겨야 했다.
민정국 제13처에서 조선전쟁준비를 위해 극력 봉사해온 전 일본군참모 대좌 미끼 다께오는 인천대신 군산상륙을 주장했었는데 해군측은 그에 전적으로 동감했었다. 그 모든 반대를 짓부시고 작전을 추진시켜왔다. 목이 쉬도록 설복을 하고 숱한 전보용지를 없앴다. 그러나 이제는 쉴 때가 된것 같다.
알몬드소장이 선망어린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각하, 가서 쉬십시오. 얼마든지 푹 쉬십시오.》
맥아더는 흐뭇한 마음으로 곰방대를 물었다.
《아니요. 월미도를 점령하면 곧 알려주오. 10분후에라도 일없소.》
알몬드는 미소했다. 맥아더나 다름없이 그도 월미도를 점령하는데는 몇십분이면 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알겠습니다, 각하!》
맥아더는 선실에 내려가자 가운을 걸치고 장식용선반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맥아더와 처 지니, 아들 아써가 나란히 앉아 그 무엇인가를 몽상하는듯 야릇한 미소를 짓고있는 사진이였다.
《귀여운 지니.》하고 그는 언제나 서글픈듯한 인상을 하고있는 19살아래의 처를 여겨보며 속삭였다. 《래일이면 당신에게 돌아가겠소. 래일은… 나와 당신이 축복받는날로 될것이요. 그럼 난 좀 쉬겠소.》
그는 그때부터 누군가 손기척을 하고 들어설 때까지 71살의 늙은이답지 않게 반쯤 몸을 꼬부리고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것은 시종 아.츄였다. 《저녁식사시간입니다, 각하.》 바퀴달린 상에 간단한 식사를 챙겨가지고 온 아.츄가 공손히 말하였다. 《식사시간을 어겨선 안됩지요. 각하께서 쉬시는동안 누구도 출입해선 안된다고 하지만 이건 별다른 문제올시다.》
《지금 몇시요?》
《저녁 7시입니다.》
맥아더는 급히 일어났다.

《젠장, 금방 누운것 같은데 벌써…》

하인은 숙련된 동작으로 작은 탁자를 주인앞으로 밀어왔다. 커피, 군빵, 빠다, 순대, 계란부침, 브란디… 여느때와 다름없이 간소하고 알뜰한 식탁이였으나 맥아더는 잠을 깬 직후여서 그런지 전혀 식욕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때문인지 두통이 나는것 같았고 참을수 없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르는것을 느꼈다. 그는 포크를 상우에 놓고 태평양전쟁때부터 시중을 들어온 충실한 하인의 작은 두눈을 들여다보았다.

《휘트니준장은?… 그는 저녁을 했는가?》

《아니올시다, 각하! 이제 곧 모셔오도록 합지요.》

오랜 세월 그를 섬겨온때문에 맥아더의 눈빛언어까지도 죄다 알아맞추는 아. 츄는 은쟁반우에 커피잔과 브란디잔을 옮겨놓고 공손히 물러갔다. 맥아더는 눈살을 찌프리며 선실안을 오락가락했다. 정신없이 두손으로 얼굴을 문질러대기도 했다. 그런즉 아직도 월미도를 점령하지 못한것이다. 그 작은 섬을, 손바닥만한 그 섬을 수백척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이 둘러싸고 포화를 들붓고있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것이다. 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괴란 말인가. 오 주여! 굽어살펴주소서!…

그때 맥아더의 첫째가는 측근자인 민정국장 휘트니준장이 들어섰다. 여전히 가운을 걸치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던 맥아더는 그의 표정부터 살펴보았다. 순간 자기의 예감이 확실하다는것을, 월미도는 아직 살아있으며 저항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맥아더는 맥없이 쏘파에 주저앉았다.

《앉소, 코트!… 앉아서 아무 얘기나 좀 해주오.》

휘트니는 그와 마주앉았으나 침울한 기색으로 두팔을 쩍 벌려보였다. 맥아더를 흡족하게 할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마치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십시오 하는것과도 같았다. 그리하여 또 맥아더가 입을 열었다.

《인천상륙을 맨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것이 누구인지는 당신도 잘 알고있지. 어떻소, 당신의 관할하에 있는 그 미끼 다께오는 왜 인천상륙을 무모한 무력시위라고 했을것 같소?… 나는 아오.

그자는 대본영의 참모본부 작전과장시절에 벌써 **김일성**장군유격대와 겨루어보았다는것을 턱에 걸고있는거요. 그래서 북조선공산군의 작전전술적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고했던거요. 참 어처구니없지, 내가 북조선공산군을 과소평가한다구?… 천만에!… 나는 한번도 적수인 대방을 과소평가해본적이 없소. 더우기 북조선공산군은…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다면야 내가 왜 부산교두보에 밀려가 롱성을 했겠소. 또 보는것처럼 저 월미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소? 지금 저 땅우에 생명가진것이 남아있다는 그자체가 벌써 기적이 아니요?…》

휘트니준장은 그 어떤 장광설도 참을성있게 들을 차비가 되여있다는 의미로 무릎우에 두손을 포개고앉아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고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지휘관으로서의 맥아더는 우선 고독한 로인이였으므로 자타가 공인하는 맥아더의 측근자인 그로서 할수 있는 가장 유효한 봉사는 조수나 조언자로서가 아니라 다만 벗으로서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함께 침묵을 지키는것이였다.

맥아더는 다시 성급하게 방안의 구석구석을 밟고 돌아가다가 탁자우의 커피잔을 들었으나 곧 도로 놓고말았다.

《코트, 나는 불안하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소?… 당신은 왜 말이 없소? 당신생각을 좀 말해보오. 과연 다께오의 말이 옳았단말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요. 무슨 힘이 저들을 불사신처럼 싸우게 하는것일가. 태평양의 일본군같았으면 벌써 동쪽을 향해 무릎꿇고 앉아 배를 갈랐을게 아니요?…》

맥아더는 극동군총사령부 민정국 제13처에서 미군을 위해 봉사하고있는 이전 일본군참모본부 작전과장이며 일본륙군에서도 가장 유능한 소장파장교였으며 뛰여난 군사외교관이기도 했던 미끼다께오가 쓴 보고를 다시 상기하였다. 그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을 다음과 같은 리유로 반대하였다.

《…우리는 지난날 관동군의 작전수행과정에 **김일성**장군유격대토벌에 직접 관여해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게릴라전의 능수들로서 그 어떤 포위망도 뚫고나가며 그 어떤 협착공세에

도 파렬구를 뚫는다. 그들과 싸우자면 전선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한정된 전선이 없어지고 모든 부대들, 적아간의 무장인원들이 뒤섞이고 혼란된다. 유능한 작전가도 군사령관도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이 되고만다. 그러므로 인천은 너무 멀다. 인천상륙이 성공한다고 해도 북조선공산군주력부대들을 포위섬멸한다는 작전적의도는 현실성이 없다. 용의주도한 그들을 포위한다는것은 채로 물을 치는것과 같게 될것이다. 때문에 북조선공산군의 배후에 상륙하기를 원한다면 군산을 택해야 한다. …》

그의 이 주장엔 휘트니준장도 동감을 표시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허세를 부리고있단말인가? 군산상륙을 주장한 다께오가 옳았단말인가? 과연 그의 주장처럼 저 북조선공산군을 결코 이겨낼수 없단말인가?… 그는 목에서 피대가 부풀어오르는듯했다. 바로 그때 휘트니가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각하, 도박에 이기려면 한시도 자기를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맥아더는 추운듯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 아침까지도 월미도는 저항을 계속했다. 상륙함대의 모든 포문들이 불을 토하고 함재기들이 동체에 불이 일지경으로 출격을 계속했다. 순양함의 400미리주포, 203미리포, 로케트포, 4인치고사포, 8련발속사포, 버커즈포들에서 오렌지색의 불길이 예광탄에 이어 섬광처럼 날카로운 탄도를 그었다. 섬은 쉴새없이 이글거리는 화염속에 몸부림치고있었다. 그속에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과연 어느 누가 믿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벌써 첫날에 구축함 《콜레트》호가 포탄 9발을 얻어맞고 침몰되고 다시 《칼크》호가 3발을 얻어맞는 등 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20척의 중소형함선, 함정들이 전투서렬에서 물러났을 때 맥아더의 불안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는 해군상륙지휘관 도일소장을 자기방에 불러들여 말하였다.

《워커중장이 보내온 전문에 의하면 락동강전선의 북조선군은 아직 끄떡없다고 하오. 어쩐지 불길하거든… 아무래도 생각을 바꾸어야 할가 보오. 이제라도 군산에 새로운 상륙작전을 실시합시다.

계획을 추진시켜주오.》

《…》

도일소장은 아무말도 못하고 물고기처럼 입만 넙적거리고있었다. 그것을 띄여보자 맥아더는 피나는 증오감에 몸을 떨었다. 월미도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그 알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 자기가 상대하여 싸우는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미칠듯한 증오감이였다. 그는 안면근육이 굳어져있는 도일소장을 이윽토록 지켜보다가 강경하게 덧붙였다.

《시간이 없소. 빨리 준비하시오. 군산으로!…》

그런데 15일아침, 운명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5해병련대 3대대가 《엘 씨브이 피》함 16척에 분승하여 11대의 땅크와 함께 섬에 첫발을 올려놓았다는 보고였다. 맥아더는 다시 도일소장을 불러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만두겠소. 군산상륙은 그만두겠소.》

상륙대대의 1진이 섬안으로 전진한다는 보고를 받자 부관인 번커대좌를 불러 중순양함 《로체스터》호의 미7함대 사령관에게 축전을 보내게 했다. 즉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생각해내여 불러주었다.

《미해군과 해병대에 오늘아침보다 더 영광이 빛난적은 일찌기 없었다. 당신들에게 신의 축복을!…

더글라스 맥아더.》

오후 2시가 지나서 맥아더는 월미도에 오르겠다고 해서 막료들을 놀라게 했다. 휘트니와 도일소장이 극력 만류했지만 그는 섬을 직접 돌아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아직도 화약연기와 눈을 쓰리게 하는 검누른 불구름이 거침없이 굼실거리며 기여다니는 속을 그는 걸어다녔다. 무너진 교통호에서 한참동안이나 지꿎게 무엇을 찾기도 했다. 발밑에 밟히는 파편과 탄피, 불타다 남은 보총, 빈 탄약상자… 어느 한 갱도입구에서 또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고있었다. 그는 71살의 나이에 어울

리지 않는 미칠듯한 흥분에 몸을 떨면서 그 어둑컴컴한 갱도속을 들여다보았다. 엿가락처럼 녹아휘여든 포신, 형체없이 타버린 고무바퀴, 포탄깍지, 아직도 끄물끄물 연기를 피워올리고있는 동발목… 그는 숨을 죽이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모두해서 4문의 포를 가지고 우리와 맞섰다. 포병 1개 중대와 보병 1개 중대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상륙함대와 감히 맞섰고 3일동안이나 상륙을 저지시켰다. 보통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고 믿을수 없는 일이 여기 월미도에서 벌어졌다. 하다면 불가사의한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것일가, 무엇이 그들을 불사신으로 만든것일가?…

별안간 목이 타들고 숨을 쉬기가 헐치 않았다. 그는 그것이 쓰린 연기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어쩐지 자기의 눈앞에 불길한 검은 구름이 빈틈없이 조여드는것 같이 생각되면서 눈이 바로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스스 몸을 떨면서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것으로 눈굽을 찍으며 돌아서려고 했을 때 갑자기 온통 불에 그슬린 갱도안벽에 새겨놓은 글발을 발견했다.

그는 흠칫했다. 무엇때문에 놀랐는지는 그자신도 알지 못했다. 무슨 글일가, 무엇이라고 새겨놓았을가?… 통역관을 소리쳐부르자 여러 막료들까지 밀려왔다.

통역관은 꺼멓게 탄 동굴벽을 손으로 더듬더니 큰소리로 바위에 정으로 새겨놓은 글발을 읽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때 맥아더는 온몸이 오싹해나는것을 느꼈다.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휩싸인듯 엉겁결에 손으로 굴벽을 짚으며 뒤걸음쳤다.

그것을 상기하자 또 가슴이 흠칫 떨려났다.

바위벽에 정으로 새겨놓은 그 글발이야말로 그가 찾고있는 그 신비의 근원에 대한 대답이 아닐가?…

그것이야말로 그처럼 적은 력량으로 어마어마한 상륙부대를 3일동안이나 저지시킨 그들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허리에 낫을 찬 한 농군이 단신으로 수류탄을 던지며 달려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대답도 주고있는것이 아닐가?…

맥아더는 여전히 쌍안경을 내다보고있었지만 속으로는 가지가지의 복잡한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갱도벽에 새겼던 글줄과 오늘길가에서 사살된 농군의 품에서 나온 토지분여증서의 글줄간에는 확실히 무슨 련관이 있을것이다.… 만약 그것만 밝히면 보잘것 없는 병력으로 어마어마한 상륙부대의 전진을 걸음마다 못박고있는 그 밑어지지 않는 힘의 근원도 밝혀질것이다.

그는 쌍안경을 내렸다. 피로해진 두눈을 비비며 어두워지고있는 전방을 바라보았다. 콜세아전투기들이 또 출격을 시작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 요란한 굉음이 머리우에서 파도쳤다.

피할길 없는 죽음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악스러워지는 법이다. 태평양전쟁시기 일본군들도 포위된 섬들에서 필사적으로 항거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농군은?…

서울의 상공에 검누른 구름이 덮였다.

그때 모터찌클 한대가 요란스러운 재채기소리를 터뜨리며 달려왔다. 스미스소장이 마주나가 한 해병중좌의 보고를 받더니 맥아더에게로 달려왔다.

《각하, 5해병련대에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선견대의 땅크들이 방금 잠실나루쪽으로 뚫고들어갔다는 보고입니다.》

《?!…》

순간 맥아더는 기쁨보다도 무서운 의혹심에 휩싸였다. 이곳의 전쟁관현악은 벌써 불협화음을 울리기 시작했었는데 그처럼 쉽게 돌파되다니? 혹시 이것이 적들의 계책이라면?… 보병도 같이 돌파했는가 아니면 땅크들만이 뚫고나갔는가를 묻고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세부들까지 총사령관인 자기가 관심할 필요는 없었다. 지금 중요한것은 사소한 성과라 해도 그것을 귀중히 하고 성공에로 부르는 한점의 불빛처럼 비쳐줄줄 아는것이다.

《좋소, 아주 좋은 일이요.》 맥아더는 자기를 과장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소. 오늘 다시 온 세계는 당신과 당신의 사단을 알게 될것이요.》

그는 큰소리로 말하며 가죽잠바호주머니에서 륙군은별훈장을 꺼

내였다.

《빛나는 사단의 빛나는 지휘관에게！…》

얼굴을 붉히는 스미스소장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준 다음 맥아더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상대방의 팔굽을 누르는 그에게만 고유한 독특한 악수로 친절과 격려의 뜻을 표했다.

《인젠 때가 된것 같소. 난 도꾜로 돌아가겠소. 장군, 곧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오.》

《그렇게 약속합니다, 각하！》

스미스의 청높은 대답이였다. 뜻밖의 감명에 젖은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11

어느덧 김천에 있는 전선사령부 근처에까지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적들은 진주, 합천, 김천 지역으로 미친듯이 공격해오고있었다.

김책은 무릎우에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전선서부방어집단 참모장이 합천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와 차후 예상되는 적들의 행동성격에 대해 보고하고있었다. 그와 좀 떨어진 탁자끝에서는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김일이 무겁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어려운 정황이였다. 전선서부방어집단의 정면에서 미제25보병사단과 영제27려단이 미제2보병사단과 배합하여 포위태세를 취하고있었다. 특히 합천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서부방어집단의 익측이 무너질수 있었다. 이미 적들의 화력권내에 들어가있는 전선사령부도 위험하였다. 서부방어집단 참모장은 전선사령부지휘소를 시급히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집요하게 반복강조하고있었다.

그러나 김책은 오직 한가지 생각만 골똘히 하고있었다. 그것

은 어떻게 하면 력량상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위험을 가시고 관하부대들을 신속히 후퇴시키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서울에서 쟁취하고있는 귀중한 시간을 리용하여 전선련합부대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철수시켜야 했다. 적들은 서울에서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수원쪽으로 남하시켜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협공하려 했던 미제7보병사단과 괴뢰군부대들을 서울동남쪽으로 다시 돌려세우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방어전선과 지대를 축소하여 적은 력량으로 적의 공격집단을 견제할것과 유리한 지형과 자연조건을 찾아 전선을 신속히 이동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기동방어를 하면서 주력을 보존하는것—바로 이것이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이였다.

김책은 머리를 들었다. 그새 전선서부방어집단 참모장은 보고를 끝내였었다.

전선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주겠는가 하여 초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김일도 무겁게 눈길을 들고있었다. 한초가 새로운 때였다.

《좋소.》 김책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입을 열었다. 《즉시 군집단 작전적예비대로 장악하고있는 모터찌클부대를 기동시켜 대도로를 따라 공격해오는 적의 선두부대를 반격해야겠소. 불의에 맹렬히 타격하여야 하오. 곡사포련대가 화력으로 그들을 지원하게 하고 교도대대와 자동포대대를 진입시켜 익측을 엄호하도록 하오. 그리하여 적의 공격집단이 공황상태에 빠져있을 때 오백룡동무네 련합부대를 반공격에 인입하시오.》

《알았습니다, 전선사령관동지!》

《차후 행동방향은…동무도 알고있는 그대로요. 적이 퇴각하면 즉시 철수해야 하오. 추격은 필요없소. 그럼… 집행하시오!》

김책은 또 지도우에 머리를 수그렸다. 이번엔 차요방향인 전선동부방어집단의 좌익방향에 주의를 돌렸다. 대구—김천, 대구—군위계선의 방어는 전선주요방향 련합부대들의 익측을 보장하는데서뿐아니라 군집단부대들의 차후행동을 보장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지난밤 김책은 전선예비대인 류경수의 기계

화부대를 투입하여 영천—안동사이의 큰길에서 공격해오는 괴뢰군 수도사단 선두부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제는 또 방어전선을 축소해야 한다. 한두개 련합부대만 남기고 전선사령부관하 모든 련합부대들을 즉시 기동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밝혀주신 기동방어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략적후퇴방침을 관철하는 길이다.

그는 군사위원 김일이 앉아서 기다리고있다는것을 감감 잊고있었다. 전선동부방어집단에 나가있는 그를 급히 불렀으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고저 했다는것을 잊고있었다. 저녁때가 다 되여오는 지금까지 점심식사도 못하고있다는것도 잊고있었다. 부관은 안타깝게 서성거렸으나 감히 그의 사색을 방해할념은 못했다. 말수더구 적은 김일도 두툼한 입을 꾹 다물고 부처님처럼 단정히 앉아있었다.

(누구를 남길것인가?…) 김책은 생각하고있었다. (군집단련합부대들의 철수를 보장하며 마지막까지 피어린 싸움을 벌리게 될 이 방어계선에 누구를 남길것인가?… 이제 그들은 정해진 날까지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을 견제하여 싸워야 한다. 포위될수도 있고 전멸의 위기에 처할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악조건에 처한다 해도 그들은 그 누구의 도움이나 지원도 기대할수 없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경험에 의거하는수밖에 없다.…)

그는 머리를 들었다. 이 문제로 군사위원 김일과 의논하자고 했었다. 김일의 생각을 묻고 결심하려 했던것이다.…

《군사위원동무.》

김책은 무릎우에 놓고있던 지도를 들었다. 탁자가운데로 옮겨앉으며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문제를 꺼내였다. 지도는 접어놓았다. 지도에는 누가 용감하고 더 완강하고 헌신적이며 더 믿음직한가 하는것이 적혀있지 않다.

김일은 생각에 잠겼다. 그 생각이 오래 계속될수도 있다. 김책은 독촉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기만을 바랐다.

저쪽 반토굴에서는 무선수, 전화수들이 땀을 들쓰며 일하고있었다. 최고사령부, 군집참모부, 련합부대들과 련계를 취하며 무수

한 명령,지시,보고들을 날리고 받고있었다. 그 한마디한마디들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아픔과 피와 땀이 들어있는것인지 총을 메고 화선에 나서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할것이다. 이제 그 전파에 실려 또 한마디 명령이 전해지면 어느 한 련합부대는 성원의 반수이상,혹은 거의 전체가 쓰러질 때까지 차지한 계선을 고수해야만 한다.

별안간 김일이 두툼한 입술을 실룩거리며 미소를 그렸다.

《전선사령관동진 벌써 결심하고있겠지만… 굳이 제 생각을 묻기에 하는 말인데… 솔직한 말로 이런 일에야 최현동무이상 있습니까. 끝까지 버텨낼겝니다.》

김책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한사람 더 골라보시오.》

그는 련합부대가 아니라 그 지휘관을 가리켜 말하고있었다. 왜냐하면 사단장이란 곧 련합부대의 전투력과 견인성,정신과 의지를 통털어 의미하기때문이였다.

《그런데.》하고 김책이 계속했다. 《우린 여기서 마지막까지 견지하며 싸우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명령받은 시간까지 한사코 적을 견제할뿐아니라 기어이 살아서 돌아올 그런 련합부대장을 골라야 하오. 다시 말하면 그걸 믿어야 하오. 누가 좋겠소?》

《전선사령관동지! 결심한바가 있으면…말씀하십시오.》

《박정덕동무를 생각하고있소. 군사위원동무 생각은 어떻소?》

《?…》

김일은 침묵했다. 눈동자마저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박정덕은 사단장으로 임명되자 자기자신이 공격전면에 대한 정찰을 면밀히 진행하였다. 당시 사단은 령산에서 덕암산의 적방어진을 돌파하지 못해 한주일나마 못박혀있었다. 특히 해발 545메터의 덕암산 기슭에는 옛 성벽이 길게 뻗어있었는데 적들은 여기에 수십대의 땅크와 각종 포들을 집중배치하고 련합부대의 공격을 막고있었다.

박정덕은 매 중대에서 키가 크고 날렵한 대원들 200명을 선발하여 수류탄투척훈련을 시키는 한편 련3일간 밤낮 끊임없는 허위공

격으로 적들을 피로케 한후 갑자기 공격을 중지했다. 그때 200명 기습조는 성벽밑에 붙어있었다. 그들에게는 기습조의 지휘관이 가지고있는 권총을 내놓고 보총한자루 가진것이 없었다. 등에 진 배낭뿐이였다. 그 배낭속에 지고갈만큼의 수류탄이 들어있었다.

이 모험적인 습격을 반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덕은 한사코 고집했다. 그때 련합부대에 나가있던 군사위원 김일이 그를 지지해주었다. 그가 지지한것은 련합부대 지휘관인 박정덕이 추호도 동요하지 않고 승리를 확고히 믿고있는 그때문이였다.

약속한 시간이 되였다. 새벽3시,신호탄이 날아올랐다. 200명 기습조는 서로서로 목마를 타고 성벽을 뛰여넘으며 일제히 수류탄을 뿌리기 시작했다. 돌격의 함성도 없었다. 별안간 달려들어 유령같이 돌아가며 적들의 땅크,곡사포,박격포,기관총좌지들에 수백수천개의 수류탄벼락을 들씌웠다. 30분후에 련합부대는 덕암산 기슭의 적 방어선을 돌파하고 공격성과를 확대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전투이다. 공격전투에서 솜씨를 보이던 지휘관도 방어전투에서 무력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더우기 박정덕은 너무나 젊다. 하지만 젊다는것이야 무슨 불만의 리유로 되겠는가!…장군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였었다. 중앙군관학교 제1기 졸업생들을 만나주시던 그때 전과목 최우등의 성적을 기록했고 련대공격전투훈련을 능숙하게 지휘한 박정덕을 두고 장군님께서는 련대장이 아니라 사단장도 시킬수 있지 않는가고 하시였었다. 그때 최용건교장이 아직 너무 젊어놔서 곤난할것 같다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젊었으면 좋은 일이지 나쁠게 뭐있소. 우리 인민군대가 그렇게 젊지 않소!》라고 하시였었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물론 아직 어리니 더 단련시키자고 하시면서 《난 믿소. 저 동문 사단장뿐아니라 군단도 지휘할수 있게 될거요!》라고 말씀하시였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김일은 미소를 그리였다. 내가 이게 무슨 로파심인가!…그는 김책을 향하여 말하였다.

《박정덕동무야 훌륭한 지휘관이지요. 용감하고 침착하고…싸움군이지요.… 그런데 장군님께선 전쟁전에 벌써 이 모든걸 보셨으

니…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사위원동문 매번 내 생각과 같아서 좋소.》
김일도 서둘지 않고 일어섰다. 김책이 또 말했다.
《이제부터 군사위원동문 전선동부방어집단의 철수를 도와주시오. 그럼 시간을 맞춥시다. 내 시계는 지금…》
별안간 시계를 들여다보던 김책의 눈길이 굳어졌다.
《가만, 오늘이… 22일 아니요?》
김책이 속삭이듯 묻는 말에 김일은 흔연히 대꾸했다.
《예, 22일입니다.》
《9월 22일! 오늘이로구만…》
김책의 짧고 검은 눈섭이 미간으로 잔뜩 쪼프려졌다. 그의 두 눈엔 형언할길 없는 고통의 빛이 뿌옇게 서리였다. 번듯한 이마언저리에까지 아픔의 그림자가 비껴갔다. 그는 칼칼해진 음성으로 낮게 부르짖었다.
《오늘이 바로…그날이요. 김정숙동무의 돐제!…》
그는 목구멍에 무엇이 걸린듯 괴롭게 기침을 했다. 별에 타서 거무스레해진 얼굴이 경련을 일으킨듯했다.
《지금 평양에선 어떻게들 하고있는지…생각해보오. 김일동무, 지금 장군님께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소. 전선형편도 이러한 때 김정숙동무의 돐제를 맞으시겠으니…홀로 마음쓰실거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이겨가실거요. 그런줄 누가 알기나 하겠소? 우린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고…나부터도 날이 다간 지금에야 생각했으니…이거 어찌문 좋소. 김일동무, 이럴 땐…어떻게 하면 좋소?!…》
《…》
김일의 숱진 눈섭이 푸들푸들 떨렸다. 어떤 경우에도 겉에 드러내지 않던 마음속 격정이 그의 얼굴에 잔무늬를 그리며 줄달음쳤다. 김일은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김책은 부관을 손짓해 불렀다.
《이제 곧 최사통신결속소와 련계를 짓소!》

《알았습니다, 전선사령관동지！》

김책은 또 한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밤이 오고있었다. 밤과 더불어 마지막 방어전의 시각도 다가오고있었다.…

밤이 깊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남일이 작성한 정황보고를 읽고계시였다. 서울지역의 정세에 특히 주목하시였다.

지난 19일부터 적들은 서울 서북쪽에 주타격을 지향시키는 한편 영등포와 동남쪽에서 맹렬한 공격을 배합하여 서울시를 포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된 서울시 원형방어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로 남일을 찾으시였다.

《남일동무요？》 그이께서는 지도를 끄당기며 말씀하시였다. 《서울 동남쪽방향으로 공격하는 적들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배후에서도 타격하도록 해야겠소. 서해안방어사령관은 지금 어느곳에 위치하고있소？… 그건 김중동동무에게 맡기고 곧 수원에 있는 부대들과 철도복구대들을 집결하여 관악산, 남태령계선에서 적을 타격하도록 해야겠소. 그러면 미제7보병사단 주력이 한강에 이르기전에 커다란 손실을 줄수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의 원형방어에 크게 기여할것이요.》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서울 동남쪽방향— 즉 서울시 원형방어의 남쪽 돌출부에 조성된 위급한 정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시였다. 남일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며 연필을 들어 탁상일력에 무엇인가 쓰려 하시였으나 부지중 손길을 멈추시였다.

9월 22일！… 탁상일력의 무심한 수자들이 눈에 띄시였다. 그러자 다시금 날카로운 아픔이 가슴을 어이듯 스쳐가는것을 느끼시였다.

오늘 하루 벌써 수십번도 더 느껴보시는 감정이였다. 탁상일력의 이날 페지엔 아직 글 한자 씌여있지 않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여러 지명, 이름, 시간을 적어놓군하시였으나 오늘은 매번 연필을 들었다가는 곧 놓으시군하였었다.…

그이께서는 서울에 새로 도착한 독립부대와 땅크부대들을 서북쪽 방어계선에 증강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신후 전화를 놓으시였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가시였다.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널려있었다. 정원의 나무가지에는 실낱같은 달이 걸려있었다. 창백한 달빛이 꺼멓게 보이는 유리창으로 흘러들었다.

그이께서는 라지오를 틀어놓고 쏘파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으시였다. 라지오에서는 바이올린협주곡을 내보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러나 어느덧 음악은 심중의 사색속에 잠겨들고 그이의 눈앞으로는 서울과 락동강계선의 피어린 싸움터들이 펼쳐지고있었다.

한 중대장은 신관을 장치한 지뢰를 안고 적땅크에 육박하였다. 바로 서울 서북쪽교외에서 있은 일이다. 그때부터 반땅크수류탄대신 지뢰를 가지고 적땅크와 싸우기 시작하였다. 이동차단물대를 지휘한 그 중대장의 이름은 박경식이라고 한다. 서해안방어사령부에서는 공화국영웅칭호를 내신하는 문건을 써보냈다. 그런데 락동강전선의 다른 한 중대장은 총살될번하였다. 류현수라는 보위성직속 도하대대의 중대장이다. 류현수… 그이께서는 탁자앞으로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였다. 22일이라는 날자가 뚜렷한 일력장이 눈길을 아프게 끌고있었다. 아직 한글자도 씌여있지 않는 일력장…

라지오에서는 흐느끼듯 떨리는 바이올린음악이 계속되고있었다. 그것은 애절하고 비통한 흐느낌이 아니라 희망과 동경의 부르짖음이였다. 아니 그저 애끓는 추억의 음악인지도 모른다. 고향에 대한 추억의 음악, 거기에는 세찬 숨결이 있었고 열렬한 속삭임이 있었다. 내 나라, 내 고향에 대한 벅찬 사랑이 흐르고있었다. 푸른 하늘, 푸른 들, 시내물, 나리꽃… 지금 전선의 인민군전사들은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과 부모처자들을 지켜 피흘리며 싸우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원쑤치는 싸움에 떨쳐나서고있다. 해방된 남녘인민들도 그러하다. 오늘 서울에서는 적들의 포격과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천수만의 녀성들이 멸적의 기세를 시위하는 일대 군중시위를 단행하였다. 밤하늘에 매달린 무수한 조명탄아래 거리에 떨쳐나 서울방위를 결의해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

들은 서울을 공략한듯이 떠들고있다. 방송과 출판물, 삐라까지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두개 전선에서 전멸되고 공화국이 다 망한것처럼 요란히 선전하고있다. 이에 질겁하여 의기를 잃은 사람들도 나타나고있다. …

그이께서는 문화선전상 허정숙이 왜 늦어지는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홍명희부수상을 전화로 찾으려다 그만 두시였다. 지금이 몇시인가?…라지오의 파란 불빛은 줄곧 숨쉬듯 껌벅이고 애절한 바이올린의 선률은 그이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얼마나 또 시간이 흘렀는지… 어느덧 라지오에서는 음악이 끝나고 녀자방송원의 목소리가 래일의 주요방송순서를 알리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시계를 보시였다. 파들파들 떠는 초침이 12시에 접근하고있다. 곧 새날이 시작되는것이다. 그이께서는 탁상일력을 번지려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머리를 돌리시였다. 소리없이 방에 들어서고있는 강부관장을 띄여보신것이였다. 깊은 밤엔 일체 전화를 삼가하는 강부관장이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 있어 알리려 들어온 모양이다.

《장군님! 홍명희부수상선생이 오셨습니다.》

《?…》

강부관장이 더 설명하기도전에 벌써 홍명희는 집무실에 들어서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여느때처럼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러나 홍명희의 얼굴은 어두웠고 슬픔에 잠긴듯했다.

《장군님! 허정숙동무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까지 만경대혁명학원 소개준비도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예—》

그이께서는 홍명희부수상이 이 깊은 밤중에 찾아온것이 그러한 보고때문이 아니라는것을 알고계시였다. 그대로는 지날수 없고 미룰수 없는 사연이 있을것이다. 하여 조용히 그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기다리고계시였다.

《장군님, 저… 실은…》

홍명희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들고계신 탁상일력에 눈길이 멎자 갑자기 낯색이 질렸다. 짧게 비다듬은 코수염이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장군님! 오늘이 녀사의 돐제여서… 제가 알아보니 오늘 아드님께서 홀로 동생을 데리고 산에 갔댔다고 합니다.》

《?!…》

《우린 그런것도 모르고… 김책동무가 전화로 물어와서야 그만…》

《김책동무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가로 천천히 눈길을 보내시였다. 어둠에 잠긴 창밖을 이윽토록 내다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려운 때에 그런 생각을 다해주니… 다들 고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천천히 탁상일력을 번지시였다.

《새날이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선에서는 전쟁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치렬한 싸움이 계속될것입니다. 그만큼 희생자들도 늘고 아픔과 고통도 커갈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며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이 인민의 모습에서 나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상일력의 푸른색 날자를 이윽토록 지켜보고계시였다. 새날 9월 23일이였다. …

12

전선사령관 김책의 명령에 의하여 최현의 련합부대는 김천—문경간 도로를 중심으로, 박정덕의 련합부대는 김천—대전간 교통로를 차단하고 적들을 견제하게 되였다.

김천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도, 충청도를 련결하는 주요 철도분기점이며 전략적도로중심지로서 부산과 마산, 진주, 대구 등지에서 북으로 가려면 이곳을 거치지 않을수 없다. 김천에서 동북쪽으로 거슬러가면 문경고개를 넘어 충주—서울간 도로가 뻗어있으며 서남쪽으로는 대전—평택—수원을 거쳐 서울로 가는 철도와 자동차도로가 열려있다. 그러므로 김천—문경간 도로와 김천—대전간 교통로를 차단하는것은 전적으로 수송수단에 매달리고있는 적들의 진공로를 대부분 차단, 봉쇄하는것으로 된다. 그만큼 치렬한 전투도 예견해야 했다.

방어는 교호식으로 하게 되여있었다. 즉 어느 한 중대나 대대가 임의의 외통길을 제정된 시간까지 막아 싸우다 물러서면 다른 중대 혹은 대대가 다음계선에서 적들을 견제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적들은 매개 구간의 다리, 고개길, 골짜기 등에서 치렬한 전투를 치르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게 되였다. 그렇게 얻어진 귀중한 시간을 리용하여 다른 전선련합부대들은 신속히 후퇴할것이다.

류현수가 배속된 중대는 날이 어두울 때까지 태화동의 개활지대에서 도로를 차단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있었다. 방어엔 불리한 지역이였으나 물량이 많은 직지천을 가로지른 약 20메터의 다리가 있어 여기에서 적들의 기계화보병을 저지시킬 계획이였다.

그리하여 현수는 또 다리를 앞에 두게 되였다. 락동강상의 배떼다리와는 판다른 콩크리트다리였다.

중대장이 그를 불러 말하였다.

《여보 공병! 이놈의 다리를 어떻게 하면 단숨에 날려버릴수 있소?》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반땅크수류탄 뭐개면 알아보지요.》

《그건 안돼!》 중대장은 성을 냈다. 《중대에 반땅크수류탄이 모두 몇갠지 아오?…구대원이라는게 그만짝도 생각을 못하다니, 무슨 다른 수가 없겠소?… 머리를 짜내보오!》

현수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다리주위를 빙빙 돌다가 마침 직지

천모래불에 박혀있는 불발된 폭탄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을 파내여 교각우에까지 끌어갔다. 모두 피하게 하고는 신관대신 수류탄을 달고 길게 끈을 매놓았다. 전 중대가 뚝너머 전호속에 머리를 틀어박자 끈을 당겨 폭탄을 터뜨렸다.

무시무시한 굉음이 터졌다. 콩크리트파편들이 사방 휘휘 날아가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른 물과 모래의 지붕이 뚝너머에까지 덮씌웠다.

중대장은 만족하여 현수에게 반나마 젖은 담배를 자꾸 권했고 애젊은 소대장 리유정은 얼굴을 붉히며 언제부터 전투에 참가했는가고 물었다. 현수는 대답하기가 난처했다.

《소대장동무, 내야 공병이 아닙니까. 그저… 좀 해봤지요.》

련락병이던 박원철이 속상해하며 무엇인가 자꾸 말하고싶어했으나 현수는 따갑게 눈총을 쏘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보안간부훈련소 입대생이며 전쟁첫날부터 싸워온 공병중대장이였다고 으시대겠는가!…

현수는 가운데가 뭉청 끊어져나간 콩크리트다리를 바라보고있었다. 남들은 무심히 볼수 있을지언정 그만은 그저 례사롭게 볼수 없는 다리였다. 오늘은 아무런 미련도 주저도 없이 폭파해버렸구나. 헌데 엊그제는… 명령받은 시간에 배뗴다리를 폭파하지 못한탓에 적땅크들이 달려들었지. 무정장령이 격노하고 상급예심원이 달려오고… 나중엔 최고사령부에까지 그 일이 보고된다고 했다. 이 준엄한 때 한 중대장의 문제가 전선사령관동지를 통해 최고사령부에까지 보고되다니!… 그는 손가락마디를 뚝뚝 꺾기 시작했다. 그만하자. 인젠 그만 생각하자. 그러다간 머리가 터질것만 같다.… 전선사령관동지가 말했듯이 피로써 과오를 씻어야 한다. 지금은 오직 그길밖에 없다.… 갑자기 머리를 홱 돌리였다. 석대의 화물자동차가 다리목에 와 멎고있었다. 몸이 체소한 군관이 차에서 내려 끊어진 다리를 살펴보더니 증을 내며 투덜거렸다.

《아침까진 제대로였는데 언제 이 모양이 됐어. 빌어먹을!…》

그러나 잠시후엔 보병중대장더러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

였다. 그는 자기가 어느 련대 병기공급장인데 대전병기창에서 탄약을 실어가는길이라고 했다. 여기서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적들을 견제할 임무를 맡았다. 탄약이 없이야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든 자동차들을 건네도록 도와달라! 하는 말을 목청껏 열심히 퍼부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현수는 부지중 최현사단장을 생각했다. 사품치는 락동강의 물결우에서, 요동치는 배떼다리우에서 무서운 표정을 하고있던 사단장, 도하장을 떠날 때엔 어깨를 툭 쳐주기까지 했었다. 《봐둔 체네가 있나?… 원, 못난이로군!》하는 괴이한 말까지 했었다. 지금 그의 사단도 어덴가 멀지 않은곳에서 결사적인 방어전을 하고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 병기공급장은 어떻게 벌써 적들이 밀려들고있을수도 있는 도로로 차를 끌고가겠다는것인지?… 어쨌든 그는 보병중대장을 설복했고 중대장은 사람들을 동원시켰다.

현수도 그리로 갔다. 거의 전중대가 달라붙어 여울목으로 차를 밀어주었다. 물속에서 첨벙거리며 목터지게 고함을 질렀고 어떤 병사들은 괜히 신이 나서 뛰여다녔다. 그때 누군가 현수의 팔소매를 덥석 잡았다.

《현수! 이게 현수 아니겨? 응?!》

자동차에 타고있던 몸집이 실한 병사였다. 현수를 끄당기며 울음소리처럼 부르짖고있었다.

《나여, 지봉이여, 그래두 날 모르겠어?!》

현수는 자기의 팔을 아프도록 꽉 그러쥐고있는 그의 벌깃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코구멍으로 물을 들이켰을 때처럼 골수에 찡—파문지어가는 충격을 느꼈다.

《지봉이, 너였구나. 응? 이 곰같은 친구야!—》

그역시 부르짖었다. 물속에서 마구 끌어안고 저만치 자동차를 밀어가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언제 군대 나왔니. 응? 의용군으로?!… 그래 언제? 어느 부대라구?… 나야 뭐 오랬지. 응, 보위성직속… 아니, 우린 말이야. 여기서 놈들을 막아야 해. 그럼! 한데 지금 어데로 간

다구?…》
그들은 상대가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서로서로 련달아 질문의 포격을 들이댔다. 로지봉은 코를 벌름거리고 퇴색한 군복팔소매로 땀흐르는 얼굴을 벅벅 문지르며 제말만 제말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게 얼마만이여, 응? 현수— 난말이여, 야—몰라보게 변했지?…》
그러나 그때 여울을 건너간 자동차우에서 병사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지봉동무, 뭘해, 빨리 오라! —》
현수는 그와 함께 첨벙거리며 나갔다. 로지봉이 자동차에 오르는것을 도와주며 이제 가면 편지하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어데로, 어느 우편함주소로 편지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했다. 아직 그자신도 자기 중대의 우편함 주소를 알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차가 떠났다. 로지봉도 마주 소리치고있었다. 서로 다급히 덤벼치며 제말만 고집스레 웨치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자동차들은 먼지를 말아올리며 달려갔다. 적재함우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손을 흔들던 로지봉의 모습도 뿌연 먼지구름에 가리워졌다. 현수는 멀거니 그쪽을 보고있었다. 애수와도 같은 회오의 정이 그의 마음을 젖게 하였다.
로지봉… 그는 현수의 친척도 아니요, 친우도 아니며 일생 우정을 약속한 절친한 벗도 아니다. 해방전 어느 한때 죽음의 고비를 함께 헤쳐온 일이 있을뿐이다. 그리고는 헤여졌다. 친우로, 벗으로 될수 있었고 혈육이상으로 가까이 지낼수도 있었으나 국경대안에서 서로의 고향을 찾아 현수는 압록강 상류쪽으로, 로지봉은 먼 충청도 보은땅으로 갈라져갔다.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거의 믿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이 그들을 이처럼 우연히 만나게 해주었고 미처 인사말도 나눌새없이 또 헤여지게 하였다.
현수는 차들이 굽인돌이 저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있었다. 길우에는 누르무레한 먼지구름만이 소리없이 갈앉고있었다. …
현수는 자기의 위치로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동차들

이 달려간 굽인돌이 너머쪽에서 폭음이 울려왔다. 땅크포와 위혁적인 기관총소리도 들려왔다. 전호속에서 전사들이 목을 길게 빼들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가 하고 상상해보며 은근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있었다. 갑작스레 격렬하게 터지던 폭음과 총포성이 뚝 그쳤다. 중대장이 웨쳤다.

《중대ㅡ 전투준비！ㅡ》

적땅크들이 굽인돌이쪽에서 나타났다. 무한궤도에서 말아올린 먼지가 구름발처럼 커져왔다. 현수는 으득으득 이발을 갈았다.

《지봉이！ㅡ》

마음속으로 괴롭게 부르짖었다. 어느새 적땅크들이 강철이발로 땅을 물어뜯으며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중대ㅡ 전투준비！ㅡ》

중대장의 웨침소리에 이어 각 소대장들이 전투준비구령을 성급히 받아웨쳤다.

현수는 반땅크수류탄을 꽉 거머쥐였다. 한 보병전사로서 달려오는 적땅크의 굉음소리를 여겨들으려니 가슴에 심장이 꽉 들어찬듯했다. 피나는 증오와 함께 전투를 앞두고 흔히 느끼는 고도의 흥분에 사로잡혀 점점 가까와오는 적땅크들을 쏘아보았다. 적들은 땅크마다 흰 뼁끼로 무슨 글들을 써갈겼다. 눈앞으로 밀려드는 먼지발속에서 현수는 가까스로 그것을 읽었다. 첫번째 땅크에는 《서울행》이라고 써있었고 두번째 땅크에는 《대전을 잊지 말자！》라고 썼었다.

현수는 저도 모르게 이발을 꽉 악물었다. 그때 《서울행》이라고 쓴 첫번째땅크가 끊어진 다리우에서 멎어섰다.

순간 반땅크총소리가 울리고 적땅크가 흠칠하더니 불길에 휩싸였다. 드디여 전투는 시작되였다.

날이 어둡기 시작할무렵 세번째로 적들이 공격해왔다. 건너기슭에서 불타버린 땅크와 자동차들을 밀어내고 이쪽대안을 향해 화염을 방사하였다. 야밤의 파도소리처럼 무시무시한 소음이 쏴ㅡ 밀려왔다. 적황색의 뜨거운 불길이 휭장우로 땅을 핥으며 우ㅡ우 밀려갔다. 불똥이 떨어져 군복잔등을 태웠고 거센 화염에 숨도 쉬

지 못하고 데굴데굴 굴었다. 현수는 박원철이 목을 졸라맨듯 모지름을 쓰며 손톱으로 가슴을 쥐여뜯는것을 보았다. 현수는 그의 잔등에 끈적끈적 달라붙은 불똥을 털어냈다. 그때마다 손바닥 살가죽이 뭉청뭉청 떨어져나가는듯했다. 그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불을 털어냈다.

적땅크에서 12.7미리 대구경기관총들이 울부짖었다. 그 미칠듯한 아우성속에서 미약한 반땅크총소리가 났다. 적땅크 한대가 또 흠칫 몸체를 떨더니 멎어섰다. 또 한방의 반땅크총소리, 어김없이 이번에도 꽁무니를 돌려 우회하려던 적땅크에 불이 확 당겼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른 적땅크포가 직접조준사격으로 이쪽의 반땅크총진지에 포탄을 쏘았다. 흉장이 무너지고 검붉은 화염이 회오리처럼 그우를 휘감았다.

중대장이 현수를 소리쳐 불렀다. 가까스로 그 소리를 가늠해 들을수 있었다. 현수가 달려가자 중대장은 배를 그러안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다치지 마오. 난…늦었어. 나대신…저 땅크들을 막아주. — 30분만 더 견지하면 되겠는데…난 다 들었소. 동무도 중대장이였지？…저 중기좌지에 내 반땅크지뢰 세개를 남겨뒀는데…그걸로 해보오. 인젠 반땅크총도 없고 반땅크수류탄도 없소. 그저…동무의 경험과 용감성을 믿는수밖에…부탁하오！》

현수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윽고 그는 두명의 자원해나선 병사들에게 반땅크지뢰에 신관을 장치하는 법과 그것을 어떻게 적땅크앞에 던져넣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그들은 현수의 뒤를 따라, 그러되 서로 10보이상의 간격을 두고 직지천을 건너가 적땅크를 까부시기로 했다. 중기관총좌지에서 그들을 엄호해주었다. 현수는 반땅크지뢰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치는 직지천에 들어섰다. 돌연 벼락치는듯한 총성에 약간 놀랐다. 그러나 물속에서 전투를 치르기에 습관된 그는 중대에서 그를 엄호하는 총소리라는것을 알았다. 물에서는 먼 총소리도 귀에 대고 쏘는것 같이 들린다.

현수는 끊어진 다리아래로 직지천을 건넜다. 15메터가량 되는

로출된 물과 모래불을 죽기로 내달려 강건너 개활지대에 나섰다. 사슬을 풀어헤친 적땅크뒤에 몸을 숨겼다가 또 앞으로 내달렸다. 귀따가운 기관총의 질풍사격이 그가 달려가는 발둔덕을 휩쓸었다. 적땅크포들도 그를 목표로 정한것 같았다. 그는 포탄구뎅이속에 뛰여들었다. 그리고는 열하나, 열둘, 열셋 하고 헐떡거리며 중얼거렸다. 쾅! —포탄이 터졌다. 그 순간 또 일어나 달려갔다. 하나, 둘, 셋, 넷… 《엠26》형 적땅크포는 포탄 한발 장약하는데 16초 걸린다. 그러므로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초를 계산하여 포탄자리를 옮겨가야 한다.

또 엎드렸다. 순간 무엇인가 머리를 무겁게 때렸다. 귀속에서 분간키 어려운 길고 긴 여음이 짱—하고 울리였다. 정적, 갑자기 귀구멍을 틀어막고있던 솜뭉치를 빼버린것 같았다. 아츠러운 쇠소리를 지르며 적땅크가 굴러오고있다. 재채기소리같은 기관총소리, 무한궤도의 신음소리, 현수는 벌떡 몸을 솟구치며 적땅크의 무한궤도에로 지뢰를 던져넣었다. 이어 포탄구뎅이속으로 굴러내렸으나 뒤미처 무엇인가 그를 휘감고 후려치고 불태우며 태를 쳐놓았다. (지뢰…지뢰… 정확히 던졌지… 정확히… 그런데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가…총살… 철직… 하지만 난 싸우고있다. 어떻게 돼서 내가 아직도 살아 싸우고있을가? 그렇지… 최고사령부에 보고되였으니까. 최고사령부에…) 현수는 눈을 감은채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

…오래동안 그는 자기를 업어가고있는것도 몰랐다. 캄캄한 밤중이였으나 사방에서 총포탄이 튀고 화광이 솟구치군하여 주위는 순간순간 대낮같이 밝아지군했다. 중대병사들이 교대로 그를 업어갔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가만, 정신이 들어요. 예?… 날 모르겠어요?》

현수를 따라온 이전 련락병 박원철이였다. 현수는 그를 알아보았다. 아니, 이상하게 갈린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러자 쿡 찌르는것 같은 모진 아픔이 심장에 사무쳤다. 이 보잘나위 없는 이전 중대장을 따라 예까지 왔구나. 그는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이제 군의소에 가면… 내

말을 들어요? 예?!…》

뜨거운 열풍이 엄습해왔다. 현수는 입을 열어 그의 이름을 부르고싶었으나 입술이 녹아붙은듯했다. 가까스로 내려뜬 눈시울아래 벌거우리한 화광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얼마후 전방군의소에 도착한듯했다. 피비린내가 확 풍겼다.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전지불을 켜든 군의가 다가왔다.

《중상이요?》

《예,중상입니다. 군의동지!》

군의는 뒤쪽에 대고 소리쳤다.

《간호장동무,빨리!》

전지불의 동그라미가 현수의 목덜미쪽에서부터 가슴팍으로,어깨밑의 험한 상처부위로 옮겨갔다. 무더웠고 참을길없이 목이 타들었다. 현수는 인정사정 모르는 군의가 상처를 동인 내의쪼박을 풀면서 움씰 몸을 뒤집었을 때 뼈속까지 찌르는 아픔에 으드득 이발을 갈았다.

간호장이 다가온 모양이였다. 군의가 큰소리로 말했다.

《응급처치를 다시하오! 중상은 아닌데 상처를 되는대로 다뤘소. 원,총만 쏠줄 알았지 붕대조차 제대로 감을줄 모른다니까!…》

전지불의 동그라미가 또 들레들레 흔들거렸다. 그순간 현수는 자기의 가슴팍으로 낮추 수그린 얼굴을 보았다. 상처가 마구 쑤시였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무던히도 낯익은 두눈이,간호장 리숙의 두눈이 그를 살펴보고있었다.

13

9월 25일 오후 2시 10분,맥아더는 도꾜에서 뜻밖의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맥아더자신이 쓴 다음과 같은 화려한 문구로 시작되였다.

《자비로운 신의 보호에 의하여 인류최대의 희망과 열망의 상징인 우리 유엔군은 드디여 서울을 탈환하였다. …》

그러나 그시각 미1해병사단은 서울의 서북쪽 마포,신촌에 머물러있었으며 제일 앞서 전진했다는 5해병련대도 서대문신학교부근에서 저지되고있었다. 하나의 바리케트진지를 돌파하는데 3시간이상 걸렸다. 그런데 바리케트진지는 서울시 중심부에 접근하면서 그 간격이 200메터로 좁아졌다.

한편 서울의 동남쪽 서빙고로 공격한 미제7보병사단은 왕십리방향과 장충단에서 인민군 기계화보병부대의 맹렬한 반격에 의해 3키로메터이상 퇴각하였다. 치렬한 전투는 다음날과 그다음날에도 계속되였다. 서울시가는 충천하는 화재의 연기와 화염 속에서 밤과 낮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적기들은 하루에도 수백회이상 출격하여 미친듯 폭탄을 퍼부었다. 이 시기 적들의 155미리곡사포는 포한문당 하루 50상자씩의 포탄을 발사함으로써 2차대전의 기록을 돌파했다. 차츰 서울시는 불바다로,재더미로 되여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은 불사신처럼 싸우고있었다.

그러한 어느날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선전상 허정숙이 서울에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보시던 사업을 미루고 즉시 그를 부르시였다.

…곤색 세루양복을 입은 허정숙의 동그스름한 얼굴은 별에 타서 좀 여윈듯했다. 눈밑엔 전에 없던 주름이 패웠고 옷에서는 희미한 화약내가 풍겼다.

허정숙은 그간의 사업정형을 자세히 보고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보고가 끝나자 그를 자리에 앉도록 권하시였다.

《그동안 서울에 나가서 수고가 많았소. 앉소. 편안히 앉아서 그동안 서울에서 보고들은것을 좀 말해보오.》

《장군님！》 허정숙은 이야기에 앞서 먼저 마음의 충동을 이기기 어려워하는듯했다. 《다들 무섭게 싸웠습니다,정말 무서운 싸움이였습니다！》

《무서운 싸움이라…》

《예,온 서울시가 다 떨쳐나섰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인민군대

를 도와 손에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놈들의 폭격과 포격을 무릅쓰고 군수물자를 운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쪽에선 바리케트를 쌓고 다른쪽에서는 부상병들을 간호하면서… 정말 전인민적인 방어전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영등포에선 여라문명의 녀성들이 치마폭에 식칼을 싸안고 밤중에 적진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

허정숙은 깍지낀 두손을 힘껏 부르쥐고있었다. 떠나온 서울이, 피흘려 싸우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그를 흥분케 하고있었다.

《계속하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서둘러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한번은 제가…마포구의 한강 기슭에 나가있었는데…미국놈들이 미친듯 포사격을 퍼부은끝에 대안에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병사들이, 부상병들까지 수류탄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중엔 앞못보는 부상병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민들이, 부상병을 나르던 녀학생들까지 다 삽이며 지레대며 닥치는대로 들고 또 빈손으로 무섭게 쓸어나갔습니다. 그날…놈들은 끝내 쫓겨갔습니다. 그 무서운 기세에 혼비백산해서 달아나버렸습니다.》

허정숙은 목구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을 꿀꺽 삼켰다. 어느덧 두눈에서 눈물이 괴고있었다.

《그곳을 떠나오려니…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허정숙의 눈물이 어린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뿌옇게 서린 얼굴을 심각히 바라보실뿐이였다. 허정숙이 계속했다.

《저도 그들처럼 끝까지 거기 남아서 싸우고만싶었습니다. 그러다 죽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서울것이 없을것 같았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하늘이 잔뜩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쪽하늘에서 산더미같은 구

름이 점점 커가면서 밀려오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가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바람질에 부대끼고있는 정원의 정수리높은 백양나무를 바라보시였다. 웬일인지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부지중 처음 허정숙을 만나던 때가, 그날의 허정숙의 인상적인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1945년 12월 어느날이였다. 해방산 언덕의 집무실로 김책이 허정숙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날의 허정숙은 홀쭉하니 여위고 볕에 까맣게 탔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정 등과 같이 여러달 동안이나 중국동북지방의 일본군 패잔병들과 싸우며 행군해왔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람루한 군복상의를 쥐여당기며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오랜 전투생활에서 몸에 익힌 동작이였다. 사실상 허정숙은 1930년초 광주학생사건 혐의로 아버지 허헌과 함께 체포되여 4년간 옥고를 치른후 전부터 알고있은 김책을 찾아 장군님 유격대에 입대하겠다고 분연히 만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책의 연줄은 찾지 못하고 중국관내인 한구에서 주은래를 만나 그의 주선으로 연안에 갔으며 그후 오래동안 주덕휘하의 서북전선군부대들에서 선전공작을 했던것이다.

허정숙은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했으나 그만 울음이 북받쳐 제대로 인사를 올리지 못하고말았다.

《장군님！ 그간 고생인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이께서는 오열에 떠는 그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내리시였다.

《이러지 마오. 동무의 소식은 다 들었소. 연약한 녀자의 몸으로 10여년간 군대생활을 하였으니… 참 장하오. 자, 그만 하라구… 그리고 이제부턴 군대식경례를 하지 않아도 돼.》

그이께서는 곁에 있는 김용범, 최용건, 오기섭 등에게 허헌선생의 따님인 허정숙동무라고 친히 소개해주시였다.

담차고 정열적인 녀성활동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헌신분투하는 의지와 기백을 귀중히 여기시였다.

허정숙은 처음 《정로》신문의 초대기자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장막염에 걸려 생사기로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그때 현지

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병자가 있는 합숙방으로 곧장 가시였다. 불덩어리같은 그의 머리를 짚어보시며 왜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보고도 하지 않았는가고 일군들을 책망하시였다. 젊은 녀성동무가 설한풍속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조국에 돌아왔는데 죽어서야 되겠는가, 왜놈들도 못죽인 혁명동지를 병에 걸려 죽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준렬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의사들이 자신없어한다는것을 보고받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책임지겠으니 빨리 수술하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친 어려운 수술이 끝나고 허정숙은 다음날 낮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다시 한달후엔 배에 고무호스를 꽂고있는 상태그대로 병원문을 나서기까지 했다. 해방직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할 일은 산더미같은데 준비된 일군들은 부족하여 장군님께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것을 생각하니 누워있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얼마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거쳐 공화국정부의 첫 녀성상으로까지 자랐다. 그런데…그처럼 결패있고 헌신적인 일군인 허정숙이 손에 총을 들고 바리케트진지에 나가 싸우고싶다고 하고있다. 자기에게 지워져있는 무거운 책임은 다 잊고 한 전투원으로서 용감히 싸우다 죽고싶다는것이다. …

밖에서는 세찬 바람질이 시작되고있었다. 찧고 까불던 새들은 바람에 불린듯 사라져버리고 성깃성깃해진 나무가지들만 태질하고있었다. 비방울이 후둑후둑 창유리를 때렸다. 그러나 멀리 찢겨진 구름장틈으로는 파아란 하늘의 한귀퉁이가 열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두워졌던 창밖이 훤해질무렵에야 탁자로 돌아오시였다. 허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꼿꼿이 서있었다. 얼굴은 벌거우리하게 상기되여있었다. 눈물자욱도 없다. 방금전에 그를 휘여잡고있던 심리적돌림병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꼿꼿이 선채로 조용히 그리고 절절하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제가 그만… 용서하십시오.》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아픔을 안고계시는 장군님의 마음을 순간이나마 괴롭혔다는 자책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있었다.

숨을 들이그을 때마다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다정히 바라보시였다.

《허동무, 지금 많은 중요한 사업이 문화선전상인 동무를 기다리고있소. 그래서 급히 소환했던거요.》

허정숙의 두눈이 확 불타올랐다.

《장군님!》

《지금같이 어려운 때 문화선전상인 동무는 무엇을 해야 하겠소? 격전장에 나가 직접 총을 쥐고 싸우겠는가, 아니면 전투원들을 고무하겠는가?… 그렇게 할 사람은 많소. 총쥔 사람들도 많고 구분대마다 선전원들도 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 서울을 떠나는것이 괴로왔다고 하오. 전투장에서 목숨바쳐 싸우고싶다고 했소. 물론 그 심정은 나도 리해하오. 그러나 허동무! 당이 동무에게 맡긴것은 어느 도시의 바리케트진지가 아니요. 당은 동무에게 우리 인민군대가 후퇴를 하고있는 이 준엄한 시기 전체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중대한 일에서 한몫 맡아줄것을 바라고있소. 지금 적들은 우리 공화국이 망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떠들고있소. 거기에다 온갖 동요분자, 비겁분자들이 나타나고있소. 이럴수록 우리는 전체 인민을 더 굳게 결속하고 궐기시켜야 하오. 우리는 이제 전인민적인 항전으로 침략자들을 격멸할것이요. 그러니만큼 허동무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성전에로 궐기시키시오. 당은 동무에게 이 중요한 사상전선을 맡겨주었소. 이 전선의 사령관이 바로 문화선전상인 동무요!》

허정숙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벅찬 격정의 파도가 그의 온몸을 뒤흔들어놓은것 같았다. 그는 경련적으로 입술을 떨며 부르짖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신문, 통신, 방송사업을 틀어쥐고 이를 통하여 적들이 벌리는 기만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어떤 경우에도 신문과 방송이 중단되여서는 안되며 문학예술사업도 잘 조직해야 한다는것, 한편의 시와 노래가 천만사람의 심장을 격동

시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접견은 끝났다. 세찬 충격을 받은 허정숙은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으로 그이를 우러러섰다. 분망하신 그이께 곧 인사를 올리고 물러가려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그때였다. 허정숙이 놀라며 저도 모르게 한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장군님! —》

속삭임소리와도 같은 가느다란 부르짖음이였다.

《왜 그러오?》

《장군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허정숙의 눈시울이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어쩌면 장군님께선 그렇게 조갈이 드신줄도 모르고…》

《?!…》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돌리시였다. 지금 허정숙은 녀성다운 그 세심한 눈으로 그이께서 불편하신 몸을 참고 이겨나가시는줄 알아차린것이다. 그이께서는 탁자우의 서류에서 무엇인가 찾으시려다가 찾지 못하고 또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다가 그만 두시였다.

《뭐 별거 아니요. 잠을 좀 설쳤더니…》

《아닙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선 편치 않으신 몸으로…어쩌면 그리도 신상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고맙소. 하지만 너무 걱정마오.》

《안됩니다,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알겠소. 다 안다니까. 이제 곧 군의국을 부탁하지.》 그이께서는 탁자를 에돌아가시여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소?》

눈물어린 허정숙의 두눈에 미소가 그려졌다. 그는 울고웃으며 《장군님!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하고 인사드린후 집무실을 나갔다.

《장군님! 부관장 전화받습니다.》

강부관장은 벌써 같은 말을 세번째 거듭하고있었다.
《남일동무가 아직 안왔소?》
《장군님! 지금 기다리고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한 남일이였다. 잠시후 남일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지도를 펴고계시였다.
《무슨 새소식이 있소?》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머리를 돌리시였다.
《어서 말하오.》
《장군님!》 남일은 흥분어린 목소리로 보고드렸다. 《지금 서울지역의 방어부대들은 미아리고개에서 강력한 반돌격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방금 련락이 왔습니다. 적의 공격은 좌절되였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남일의 얼굴만 견주어보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였다. 이로써 영웅적인 인천,서울지구 방어작전이 끝나는것이다.
9월 28일 저녁 8시였다. …

다음날 새벽 남일은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릴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부관실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강부관장과 잠을 못자 부석부석해진 기술서기 오영혜가 있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고개를 떨구고있다가 남일이 들어서자 머밋거리며 인사를 했다.
《장군님께선 계시오?》
남일의 물음에 강부관장이 대답했다.
《밖에 계십니다.》
《…》
산책을 하시는것이라고 남일은 생각했다. 그러나 어쩐지 강부관장이나 오영혜의 기색이 이상하여 또 물었다.
《왜,무슨 일이 있었소?》
《아닙니다. 저…》

강부관장은 대답을 흐렸다. 그러나 남일의 엄한 눈길과 마주치자 곧 자세를 바로하였다.

《장군님께선 지금 고열로 신고하시면서도 지난밤 또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선… 우리더러 자신께서 앓으시는데 대해 절대 말내지 못하게 하시니… 이 오영혜동문 그게 너무 안타까와…》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래서 오영혜가 눈물에 젖어있다는것이였다.

남일은 놀랐다. 부관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강직하고 침착하며 주도세밀하다고 한다. 타고난 군사일군처럼 군복은 대번에 몸에 어울리며 또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그 무엇도 숨기지 못하리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기술서기 오영혜가 눈물짓는 그 크나큰 아픔도 모르고있었다. 그 누구보다 더 장군님과 사업상 련계가 잦으면서도 전혀 감촉하지 못했었다.

그는 쏘파에 걸터앉았다. 그의 표정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영혜는 마치 지뢰원이라도 걷는듯 발끝걸음으로 한쪽구석에 물러섰다. 순진하고 명랑하던 오중성의 조카딸, 처녀는 남일이 무섭게 쏘아보는통에 어깨를 잔뜩 옴츠렸다.

《장군님께서 앓고계신지 오랬나?》

《예, 벌써 사흘째나…》

《음―》

남일은 처음으로 장군님께서 겪고계실 크나큰 아픔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이상한 일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때 쏘련의 침켄트시 교원대학 수학상급교원이였으며 해방후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 교육성부상 등으로 다년간 교육사업에 종사해온 남일은 난생처음으로 쓰라린 자책감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그는 부끄러웠다. 가슴이 뜨끔하였다. 지금 그 누구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시는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라는것을 별안간 어이는듯 아픈 마음으로 깨달았던것이다.

엊저녁에도 그이께서는 인천―서울방어작전이 끝난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것을 바로 남일이 보고드렸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창가에서 소리없이 불타는 먼 하늘가의 번개를 바라보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서울시민들의 지원밑에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의 공격을 14일동안이나 저지시켰소. 그리하여 우리의 전선과 후방의 련계를 끊으며 락동강전선의 우리 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려던 적들의 모험적인 침략기도를 완전히 분쇄하였소.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이 거둔 거대한 승리요!…》

그때 남일은 그이의 모습에서 굳센 확신과 희망의 빛 이외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었다. 그이께서 앓고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웬일인지 목이 탔다. 남일은 차대우의 주전자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오영혜가 재빨리 유리고뿌를 들었다. 그러나 남일은 주전자를 손에 든채 또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그의 시선은 벽에 붙인 한장의 지도에 못박혀있었다. 크지도 않은,책장 두장 합친것만한 조선지도,오영혜가 정성들여 그려붙였다는 지도이다. 전날 우리 인민군대가 해방한 남반부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에 작은 기발들이 빼곡이 그려져있다. 매일 최고사령부보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씩,둘씩 그려넣은것들이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보아주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저 락동강에서 우리의 련합부대들이 후퇴해들어오고있는 오늘 저 지도는 장군님의 심중에 또 하나의 큰 아픔으로 새겨질수 있다. 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가?…

차대우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남일은 손에 들고있는 주전자에서 물이 쏟아져내리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차대우에 그리고 격자무늬 마루바닥우에 물이 흘러 즐펀해졌다. 오영혜가 질겁한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부관장이 다가와 비여가는 주전자를 받았다. 그러나 남일은 여전히 지도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요즘도 장군님께선 저 지도를 보실테지?》

《예.》

남일은 처녀에게 한손을 내밀었다.

《가져오라구.》

처녀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비로소 그도 까닭을 안듯싶었다. 오영혜의 애끓는 눈망울에서 한점 불빛이 흔들거렸다. 그는 남일의 꿋꿋한 얼굴과 벽에 붙인 지도를 번갈아보다가 잰 걸음으로 다가갔다. 압정을 떼고 약간 누래진 지도를 가져왔다.

남일은 이윽토록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정히 접어서 처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동무가 건사해두오.》

《예.》

남일은 일어섰다. 장군님께서 계신곳으로 급히 나갔다. 그는 경위련대병영이 있는 숲속에서 보위색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계시는 장군님을 뵙게 되였다.

숲가는 호젓했다. 개암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잎사귀들이 찬이슬에 흠씬 젖어있었다. 가지를 넓게 펴든 소나무의 바늘잎사귀에도 이슬이 구슬처럼 꿰여져있었다. 그이께서 신고계시는 장화목에도 풀이슬이 번들거렸다.

여기서 밤을 밝히신것이다. 그이께서 밟으신 발자국들이 도처에 찍혀있었다. 해묵은 가랑잎들이 짓눌린 자국, 진흙이 게발린 원추리며 쑥대, 그 발자국마다에 널려진 나무잎사귀들… 지금도 그이께서는 찔광이덤불을 마주하고 하나하나 잎사귀들을 뜯고계시였다. 누렇게 퇴색한 잎사귀들이 련이어 떨어져내렸다.

남일은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부지불식간에 가슴속이 찌르르해졌다. 그이께서는 남일의 발걸음소리도 듣지 못하신것이였다. 여전히 찔광이 잎사귀를 뜯고계신다. …

남일은 가슴이 뻐근해났다. 언제나 침착하고 태연자약하신 그이만을 뵈워온 그로서는 그 무수한, 두서없는 발자국들을 찢기는듯한 아픔없이 바라볼수가 없었다. 축축한 땅우에 마구 찍혀있는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느라니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남모르게 커가고있던 고민이 동아줄처럼 목구멍을 비틀었다. (내가 무슨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인가?…매일 매시각 장군님의 아픔은 커가는데… 이렇듯 속수무책으로 있으니 어떻게 그 막중한 사업을 계속

붙안고있을수 있단말인가?!…) 그는 자기가 가슴아픈 보고를 드리는것으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했었다는것을 다시 상기했다. 그러자 숨이 막히는듯했다. 어제나 오늘처럼 래일도 역시 그러한 아픔만을 자기가 더해드릴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을수 없이 괴로왔다. 풀숲에 내린 새벽이슬에서 싸늘한 랭기가 온몸에 스며들었다. 바로 그 순간 장군님께서 그를 돌아보시였다.

《아, 남일동무!》

새벽이슬에 젖은듯한 음성이였다. 그러고도 한동안 깊은 상념의 세계에서 돌아오시지 못하는듯했다. 손에 든 나무줄기에서 이파리 하나를 꽉 잡고 남일의 어깨너머 어덴가를 보고계시였다. 어깨에 걸치신 옷깃에 뽀야니 덮여있는 이슬이 눈에 띄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손에 들고계시던 나무줄기를 떨구었다. 이슬젖은 잎사귀 하나가 소리없이 떨어져 그이의 장화앞코숭이에 내려앉았다. 여전히 그이의 상념세계는 멀리 아득한 공간 저끝에 가계신듯했다. 무엇인가 한없는 괴로움이 그이의 몸과 마음을 진감시키고있었다. 이슬에 젖은 그이의 눈섭이 가끔 푸들푸들 떨리군했다.

남일은 걷잡을길 없는 자책감을 느끼며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

그이께서 펀뜻 머리를 드시였다. 그 순간 남일은 그이의 두눈에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쇠물을 보았다.

《저 미국야만들이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보오!… 우리의 평화적주민지대에 무차별폭격을 들이대던 나머지 이제는… 강점지역에서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있소!》

그이의 음성은 격렬한 증오와 비분에 떨리고있었다. 그 한없는 분노의 절규가 파도처럼 남일의 가슴에도 밀려들었다. 남일은 부지불식간에 입술을 괴롭게 비틀었다.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인천에서만도 단 며칠동안에 수천명을 학살하였소. 놈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치떨리는 살륙이 벌어지고있단말이요. 벌써 서울에서도… 인민군대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이라면 늙은이건 어린이건 가림없이 수십수백명씩 한꺼번에 쏘아죽인다고 하오.

지어 집단적으로 생매장을 하고 땅크로 깔아죽이는 등 귀축같은 만행을 다한다는것이요. 〈자유의 녀신〉을 거만하게 내세우던 〈월가의 신사〉들이 지금 처녀들을 라체로 자동차와 땅크에 싣고다니는가 하면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있소. 그렇게 함으로써 비렬하고 추악한 저 살인귀들은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으려 하고있소. 가장 흉악한 살인만행으로써 우리 인민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이미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도덕적으로도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있소. 이제 놈들은 그 어떤 기만으로써도 자기들의 흉악한 살인만행을 가리우지 못할것이며 정당화할수 없을것이요. 우리는 놈들의 죄행을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며 반드시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요!》

새벽안개가 걷히고있었다. 그이께서 바라보시는 저쪽, 나무우듬지들너머에 엷고 푸른 하늘이 점차 넓어져갔다. 풀이슬 듣는 소리가 들렸다. 허나 그이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을 때 누기찬 땅을 밟는 발자국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괴로운 발걸음, 무수한 발자국들우에 다시 덧찍히우는 무거운 발자국… 부지런한 청서 한마리가 벌써 솔씨를 까려고 뽀르르 가지를 타고 가는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아무런 감촉도 느끼시지 못했다. 물속같은 정적…

슬픔과 아픔은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에 따라 바람처럼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오래동안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것을 가셔주는것은 오직 시간의 흐름뿐이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모진 아픔도 산중의 메아리처럼 멀리 사라져간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도 가시여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깃들어있는 아픔이 바로 그러하다. 그 아픔은 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한오리 두오리 희여가는 머리칼과 날을 따라 깊어가는 눈가의 주름살로 새겨진다. 시간도 세월도 그 아픔만은 덜지 못한다.…

갑자기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남일동무.》

아주 낮은 음성이였다. 하나 속삭이시는듯한 그 부름의 류달

리 침통한 어조가 남일의 가슴을 쿡 찔렀다.

《우린 비록 후퇴를 하지만… 놈들이 우리 인민들을 마음대로 모욕하고 학살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소. 어느때든 우리 인민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해야 하오. 전인민적전쟁이요!… 전인민적전쟁으로 침략자들을 타승할것이요!》

남일은 그이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가슴이 풀떡풀떡 뛰고 힘이 솟구쳤다. 강부관장과 오영혜가 하던 말들이 이제와서는 의심스럽게 여겨졌다. 그 도도한 기상, 쇠소리가 섞인 굳센 음성, 불이 이는 안광… 방금전까지 그이께서 그리도 괴로운 상념속에 계셨다는것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이께서 어깨우에 걸친 상의를 바로잡으시였다.

《무슨 일로 이 새벽에 나왔소?》

《장군님!》

남일은 또 한번 뜨거운 물이라도 들쓴것 같았다. 이마전에서 들뛰는 세찬 맥박을 느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락동강계선에서 군집단의 전선리탈을 보장하여 마지막까지 방어계선에 남아있던 두개의 련합부대가 각기 적들에게 포위되였습니다.》

《?…》

《최현동무와 박정덕동무의 사단들입니다.》

《…》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확인된 자료요?》

《예, 정찰국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동무들과는?… 무선련계를 취해봤소?》

《무선련계가 끊어졌습니다, 장군님! 고성능출력을 가진 최사통신결속소의 무선차까지 주야로 만가동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음— 그렇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계속 련계를 취해보시오. 그러되 중요한건…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것이요！…》

날이 밝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빨리 하시였다.

14

최현과 박정덕의 련합부대들은 9월말까지 군집단의 후퇴를 보장하기 위해 김천—대전간, 김천—리화령 (문경고개) 간의 두 전략적도로를 중심으로 치렬한 기동방어전을 벌렸다. 그들은 산악지형의 특성을 살려 큰길에 차단물을 설치하고 령길을 따라 여러층의 화력체계를 조직하여 우세한 적들을 타격하였다. 낮에는 강력한 화력타격과 반돌격을 배합하였고 밤에는 부단한 습격전으로 적을 족쳤다.

그러는동안 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상과 공중으로부터 적의 타격도 집중적으로 받게 되였다. 미제8군의 미1, 9군단, 괴뢰군1, 2군단, 영제 27려단 그리고 부산에 기여든 추종국가군대의 총화력이 두개의 전략적도로상에서 최현과 박정덕의 사단들에 집중되였다. 그리하여 두 사단은 다른 사단들을 38도선으로 원만히 조직적인 후퇴를 진행하게 하는 대가로 그들자신은 매일같이 가혹한 타격을 받고 줄어들고 소모되고 피를 흘리게 되였다. 이렇게 1주일이 지났다. 마침내 임무를 수행한 최현은 자기 사단을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 박정덕 역시 사단을 신속히 철수시키려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었다. 대전부근의 발달된 교통망을 리용하여 적들은 방대한 무력으로 사단을 포위하였다. 명성높은 서울제4보병사단은 위기에 처하였다.

적들은 포위된 서울제4보병사단이 완전히 괴멸되고있는듯이 방송으로 불어댔다. 신문에서도 굉장히 떠들었다. 그러나 서울제4보병사단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은 최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자신 시시각각 포위의 위험속을 헤쳐나가야 했으며 사단이

위기를 면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의식을 잃고 담가에 실려있었다. 오랜 병마가 그를 최종적으로 거꾸러뜨린것 같았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또 다음날 오전까지도 깨여나지 못했다.

…추풍령너머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였다. 어느새 거무칙칙한 구름발이 하늘을 뒤덮었다. 소리도 없는 번개가 먼저 어둑스레해진 먼 하늘가를 쩍—갈라놓았다. 잠시후 숨막힌 긴장으로 눈시울이 떨려날 지경에 이르러서야 꽈르릉! 뢰성이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소리도 담가에 실려있는 최현을 깨우지 못했다. 추풍령의 정수리를 타고앉았던 비구름이 리화령(문경고개)의 중턱까지 휘감아버렸다. 비구름은 이슬비처럼 랭기를 뿌리며 세찬 파도마냥 휩쓸어왔다. 후둑—후두둑! 굵은 비방울이 두눈을 꾹 감고 누운 최현의 이마언저리며 숱진 눈섭을 겨누고 엇비스듬히 때렸으나 이번에도 그는 두툼한 볼을 약간 실룩거렸을뿐이였다. 하늘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무숲이 태질하며 세찬 바람질에 부대꼈다.

《천막을 가져오—》

부관이 소리쳤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 애어린 간호원처녀가 개인천막을 펴고있었다. 부관과 간호원, 기병총을 멘 련락병 등이 개인천막 네 귀퉁이를 붙들고 담가를 따라섰다. 잠간 멎어섰던 일행은 다시 령을 오르기 시작했다. 후날 시와 노래로써 더더욱 유명해진 문경고개 중턱이였다.

바로 두달전, 찌는듯한 무더위속에서 최현사단은 이 령을 지나갔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죽령과 문경고개사이의 해발 885메터의 험한 싸리재에서 적의 방어진을 무너뜨리고 락동강의 좌안 합천, 의령지구에로 진출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피로써 열어간 그 길을 되돌아가고있다.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사들의 군모채양에서 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담가우에 쳐든 개인천막도 풍덩하니 처져내렸다. 바람이 세차지자 엇비듬히 내리는 비방울들이 최현의 얼굴을 후려쳤다. 최현이 또 입귀를 실룩거렸다. 그러자 간호원처녀가 비에 젖은 병아리처럼 몸을 떨면서 부르짖었다.

《가만！… 이자 사단장아바이가 뭐라 했어요！》
《…》
다들 걸음을 멈추고 서로 바라보았다. 잠시후 키가 큰 부관이 손바닥으로 비물이 줄지어내리는 얼굴을 뻑 문지르고 나직이 말했다.
《가자구.》
담가가 또 움직였다. 천막 한끝을 꼭 잡고가던 간호원처녀가 울먹거렸다.
《뭐라구 했어요. 분명 무슨 말인가 하는걸… 난… 봤어요.》
아무도 그 말에 응수하지 않았다. 비는 더욱 세차졌다. 천막우에 고인 비물이 키낮은 처녀쪽으로 들부어졌다. 경사지였다. 간호원처녀는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눈물과 비물이 동그란 작은 얼굴을 흠뻑 적셔놓고있었다. 처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꾸만 더 무거워지는 천막귀퉁이를 비비감으며 허둥지둥했다. 의식을 잃은 사단장아바이곁에 자기만 남기고 간 군의소장이 원망스러웠다. 사실상 군의소는 부상병들과 같이 먼저 자동차로 떠났었다. 어덴지 알수 없는 집결처에서 만나게 될것이라고 했다. 나이지숙한 상급준의가 사단장곁에 남아있으려 했으나 최현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창녕에서 담당간호장이 치명상을 입고 숨진 때부터 그는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았던것이다.
풀덤불이 와스스 떨며 짓이겨졌다. 싸리재쪽에서 번개가 번쩍했다. 이어 요란한 우뢰소리가 구을러왔다. 그때 전방척후를 나간 구분대에서 중성 두알을 박은 상급참모가 달려왔다.
《아바이가 어떻소. 아직… 회복하지 못했소？》
부관과 담가대원들 그리고 나어린 간호원의 울고있는 얼굴까지 둘러보고나서 그는 맥없이 중얼거렸다.
《난사로군！… 이걸 어쩐다？…》
앞에서 긴급정황이 생긴 모양이였다. 그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있는 천막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다음 잠시 사단장의 이지러진 얼굴을 보고나서 또 한번 《난사로군！》하더니 앞으로 달려갔다.

키큰 부관이 또 먼저 걸음을 떼였다. 담가대원들의 잔등에서 비물이 튀였다. 두둑두둑 천막을 두드리던 비줄기가 세찬 바람결에 흩날리기도 했다. 물에 흠씬 젖은 최현의 얼굴에 또 한번 고통스러운 파문이 줄달음쳤다. 실룩거리는 입술, 간호원처녀가 고집하듯이 정녕 무슨 말인가 하는듯했다.

그때 최현은 락동강기슭에 서있었다. 사단이 총공격으로 대안의 적을 타격하고있었다. 떼목우에 실린 땅크들이 불을 토했다. 장검을 빼여든 기병대들이 부교를 건너 질풍같이 내달았다. 그런데 넘실거리는 물결우에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쪽배 하나가 떴다. 작은 쪽배였다. 어린 계집애가 노를 젓고있었다. 멀리 뒤에 있는 최현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

최현은 꿈쩍 놀랐다. 룡옥이다. 이 세상에서 그가 제일 사랑하는 딸—위불없는 룡옥이다. 최현은 부르짖었다.

《룡옥아！—돌아와. 어서 돌아서라. 거긴 안돼！》

《일없어. 나두 갈래. 난 해군대장인데뭐—》

장군님댁에서 군사놀이 할 때마다 《해군대장》을 하겠다고 어거지떼를 쓰던 룡옥이다. 작은 노를 까칫까칫 저으며 세찬 물결을 헤쳐간다.

《룡옥아！—》

그 순간 세찬 물기둥이 솟구쳐올랐다. 작은 쪽배도 해쭉거리던 룡옥이의 앙증스러운 모습도 모두 물기둥속에 삼켜졌다. 차디찬 물보라가 최현의 얼굴을 덮씌웠다. 그는 숨을 죽였다. 물기둥이 내려앉기를 기다렸다. 세찬 물보라가 사라지고 다시 총공격의 함성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장검을 빼든 기마병들도 불을 토하던 땅크들도 일순간 멎어있었다. 이제 최현이 권총을 빼들고 한방 쏘기만 하면 순식간에 적진을 들부셔놓을것이다. 정적, 모든것이 숨을 죽였다. 그런데 웬일이냐？ 하늘높이 솟구쳤던 물기둥도 멎었다. 구름도 물결도 총포탄도 다 멎었다. 누가？ 왜？ 어째서？…

돌연 간호원처녀가 흑—느끼며 멎어섰다. 담가대원들도 일시에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서 무엇인지 펑끗했다. 한순간 눈이 부시

도록 새파래졌다가 금시 눈알을 뽑아간듯했다. 머리칼이 곤두서는 찰나 땅! ―하고 천둥이 터졌다. 온몸의 살이 막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간호원처녀가 먼저 천막을 놓쳐버리고 어망결에 두귀를 잡았다.

그 순간 최현이 눈을 떴다.

《무슨 소리야?》 거칠게 부르짖었다. 《누가 명령두 없이 쏘라구 했어. 엉? 누구야?!…》

다들 망연히 서있었다. 처녀가 떨군 천막쪽으로 비물이 콸콸 쏟아져 최현의 얼굴에 들이붓고있었건만 그것도 모르고있었다.

《사단장동지!》

마침내 간호원처녀가 부르짖었다. 최현의 머리맡에 풀썩 주저앉으며 엉엉 울음을 터쳤다.

최현은 얼굴에 들씌워진 비물을 훑어던졌다.

《넌 누구야?!》

젖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훑어내리였다. 룡옥이가 아니다. 그런데 어린 룡옥의 목소리처럼 가늘고 쨍쨍하다. 버긋하게 뜨고있던 두눈을 힘껏 문질렀다.

《도대체 이건… 뭐야. 우리 간호장은 어데 있어? 엉?!… 대관절 공격을 앞둔 때 날 어데루 끌고가는거야?!…》

락동강이 보이지 않았다. 피흘리며 넘어갔던 락동강이!… 세찬 비줄기속에서 나어린 간호원처녀가 그를 붙안고 울고있다. 키큰 부관은 비에 젖은 몸을 떨며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한마디 말도 없다. 어찌된 일일가, 왜 들것에 누워있었을가?… 인차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귀속이 웅웅 울렸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비로소 모든것을 기억해냈다. 군집단의 리탈을 보장하여 싸우던 1주일간의 피어린 나날이 떠올랐다. 그는 일어섰다. 순간 칼끝같은 섬광이 번쩍번쩍하며 머리우로 시퍼런 화살을 날렸다. 꽈르릉! ―천둥소리가 그의 온몸을 흔들어놓았다. 최현은 비틀거렸으나 부관이 내뻗친 팔을 뿌리치며 버티고 섰다.

《사단장동지, 안됩니다!》

간호원처녀가 천막을 움켜쥔채 부르짖었으나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기가 어덴가?》

《문경고개입니다, 사단장동지!》

《?!…》

그는 흐릿해진 정신을 가다듬으려는듯 금줄두른 장령모를 벗어들고 대줄기같은 비물에 얼굴을 맡겼다. 입안으로, 목덜미로 사정없이 비물이 쓸어들었다. 간호원이 팔목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사단장동지, 그러면 병이 더 심해집니다!》

《가만있어, 간호원! 병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병이라는걸 몰라!》

전류에라도 감전된듯 온몸이 쩌릿쩌릿 울려났다. 마치 번개에 감전된듯싶었다. 그는 으드득소리가 날 지경으로 이발을 악물며 벼락치는 하늘가를 노려보았다. 목덜미로 쓸어든 비줄기가 등골을 따라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발뒤꿈치에서 나무가지들이 부적거렸다. 지난해의 가랑잎들, 색이 변하고 말라비틀어진 떨기나무잎사귀들이 탕수에 밀려갔다.

최현은 두툼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벅벅 훔쳤다. 사무친 아픔이 날카롭게 그리고 사정없이 그의 가슴속을 쑤셔댔다. 언젠가 미혼진밀영에서 병에 시달리던 그를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눈물로 부르짖은 맹세가 있었다.

《장군님, 너무 걱정말아주십시오. 이 최현이 적탄엔 쓰러질지언정 절대 병에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때에 와서 또 쓰러지다니… 앙당그려문 이발사이로 푸푸 세차게 비물을 내뿜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앞에서 뒤에서 군관, 하전사들이 구령도 없이 달려왔다. 《사단장아바이》가 일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달려온 사람들이다. 물날은 군복이 비에 젖어 후줄근했지만 더없이 미덥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최현은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눈여겨보고있었다. 그는 그 병사

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있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들은 힘찬 구령소리를, 순간도 드놀지 않는 지휘관의 힘있는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명령이 내리면 필사의 힘과 용기도 되살아날것이고 명령이 없으면 의연히 어깨가 처져있을것이다.

최현은 온몸을 부르르 떨고나서 부관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참모장은 어데 있소?》

《척후대와 함께 먼저 가고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빨리 가자. 출발!》

그는 힘겹게 걸음을 떼였다. 부관이 다가와 비록 뒤늦은것이긴 하지만 병사용천막을 걸쳐주었다. 최현은 아무말없이 오직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싹 가다듬고있었다. 사단장이 비틀거리는 꼴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그럴바엔 차라리 담가우에 올라 눕는편이 낫다. 걸음마다 입을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켰다. 장화속에서는 줄곧 비물이 쿨쩍거렸다.

련락병과 함께 참모장, 작전부장이 달려왔다. 깜짝 놀라는것같았다. 담가우에서 의식을 잃고있던 사단장이 개인천막을 어깨에 걸치고 앞장서 걷고있는것이다. 세찬 비줄기가 어깨와 잔등에서 물보라를 날리고있다.

참모장은 빈 담가를 든 건장한 병사들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것은 마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단장을 영영 잃고싶어?》하고 부르짖는듯했다. 그러나 최현이 손짓하자 어쩌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섰다.

《보고하오!》

최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멎어서면 다시 한발자욱을 떼는데 혼신의 힘을 깡그리 바쳐야 할것 같았다. 등골이 쩌개지는듯했다. 저려나는 무릎이 견딜수 없어 당장 노그라질것만 같았다. 그는 참모장의 보고를 귀담아듣기도 하고 또 모두 귀전에 흘려버리기도 하면서 (령마루까지만 버티자. 거기까지만 견디면 된다!) 하는 생각만을 거듭거듭 되풀이하고있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문경고개정수리에 올라섰다. 사납게 비를 퍼붓던 검은

구름장들이 어데론가 황황히 밀려가고있었다. 후둑후두둑!—이따금 홋홋한 비방울들이 엇비듬히 눈섭을 때렸다. 그러나 서둘러 밀려가는 구름틈새로는 어느덧 높은 가을하늘이 드러나보였다.

최현은 어깨우에 걸쳤던 병사용천막을 활 벗어던졌다. 어깨우에서 뜬김이 무럭무럭 피여났다.

《괜찮아. 행겟나절 (저녁나절) 까진 나을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며 부관에게서 쌍안경을 받아들었다.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먼 골어귀에서 적자동차들이 가물가물 움직이고 있었다. 참모장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놈들은 한사코 우리를 포위환속에 가두어놓으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되 공격은 피하고 우리가 힘들게 뚫고나가면 또 새로운 력량으로 앞을 막아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릴 소금녹이듯하려는 심산입니다.》

《…》

최현이 잠자코 있자 그가 또 잇달았다.

《정찰에 의하면 지금 2개의 보병련대와 곡사포 1개대대력량, 12대의 중땅크,자동포들이 앞을 막고있습니다. 도로연선엔 2개중대의 81미리 박격포,3개중대가량의 60미리 박격포가 전개되여있습니다.》

《…》

여전히 최현은 쌍안경만 들여다보고있었다. 멀리 도로상에서 움직이는 자동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끈끈히 살피는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생각은 전혀 다른데 가있었다.

(지금도 최고사령부에서는 계속 우릴 찾고있겠는데…)

군집단의 철수를 보장하며 피어린 결사전을 벌리던 그때 무선기가 파괴되여 일체 외계와의 통신이 두절된것이다.

(장군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가… 밤낮 마음이 무거우실텐데 우린 이렇게 한마디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말인가!…)

가슴이 버글버글 끓어올랐다. 이런 때 자기가 담가에 실려있었다는것이 또 참을수 없었다. 어릿어릿해서 헛소리를 치고… 정신

잃고 쓰러져 꿈속을 헤매다니… 쌍안경을 쥔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팔을 내리며 참모장을 돌아보았다.

《당장 무선기를 하나 구해야겠소!》

그의 이 말에 참모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왜 그렇게 보는거요?》

《저…사단장동지, 지금 어데서 무선기를…》

《왜 없다는거요. 적들한테는 있겠지?… 정찰중대장에게 임무를 주오. 아니, 그럴게 없이 정찰중대장과 통신참모를 여기 불러오—》

얼마후 부름을 받은 두사람이 달려와 보고를 했다. 최현은 먼저 정찰중대장을 가까이 오도록 손짓했다. 허우대가 크고 꺼멓게 탄 얼굴에 수염터가 퍼릿퍼릿한 사람이였다.

《내 동무한테 중요한 임무를 하나 주겠소.》

최현의 말이 떨어지자 정찰중대장은 기세높이 허리를 꼿꼿이 폈다. 사단장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최현은 불을 뿜는듯 그의 귀전에 대고 말했다.

《지금 우리 사단은 최고사령부와 무선련계가 완전히 끊어졌소. 무선기가 파괴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도 받지 못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아무런 보고도 올리지 못하고있단 말이요. 그러니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겠나, 응?!》

《임무를 주십시오, 사단장동지!》

《적들의 무선기를 빼아오라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빼아와야 해! 알겠나?》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정찰중대장의 힘찬 대답에 최현은 말라터진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며 처음으로 미소했다.

《놈들의 지휘부를 답새기라구. 그러되 무선기는 흠집 하나 가지 않게 가져와야 해!… 통신참모는 이 동무에게 통신병 한사람을 붙여주오.》

《알았습니다!》

최현은 팔을 내저었다. 그들은 물러갔다. 그 순간 최현은 놀란 눈빛으로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은 뭐요?》

령마루에 많은 군인들과 사민들이 무리지어있었다. 참모장은 미간을 찡그렸다.

《사단장동지, 개별적으로 후퇴하던 군인들과 사민들입니다. 적들이 우리 사단을 포위하면서 앞길을 막은통에 여기 주저앉아있었습니다.》

《주저앉다니, 군대도 주저앉아?》

《…》

《모두 몇명이요?》

《군인 190명에 사민들은 대략 50명가량 됩니다.》

《그들을 정렬시키시오. 따로따로!》

《들었습니다, 사단장동지!》

참모장이 물러간후 즉시 작전참모가 령마루에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을 소리쳐 모이게 했다. 짤막하나 엄격한 구령소리들이 울렸다. 삽시에 단풍나무숲아래 190명의 군인들이 줄지어섰다. 그뒤쪽엔 각이한 옷차림을 한 사민들이 습관되지 않은 대오를 짓느라고 웅성거렸다. 그러나 장령복을 입은 최현이 나타나자 그들도 즉시 온몸을 꼿꼿이 폈다.

최현은 군인들이 정렬한 대오앞 펑퍼짐한 바위곁에 멎어섰다. 벌거우리한 피물이 내밴 붕대를 감은 병사, 불에 타고 찢긴 군복차림의 전사들이 태반이였다. 군관들도 더러 눈에 띄였다.

《군관동무들은 대오 3보 앞으롯!》

묵직한 구령이 울리자 일곱명의 군관들이 대렬훈련때처럼 대오앞으로 나섰다. 먼저 팔소매가 너덜너덜한 군관앞으로 다가갔다.

《어느 부댄가? 왜 부대와 떨어졌소?》

군관은 떠듬떠듬 부대와 떨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마지막으로 김천—대구간의 매곡동골에서 다리를 폭파한후 포위되였다가 뚫고나왔다는것이였다. 17명의 대원들

이 있었다.

《군복을 깁소.》하고 최현은 짤막하게 말했다. 《군복을 단정히 하기전엔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할줄 아오!》

《들었습니다, 장령동지!》

다음 차례차례 군관들을 료해했다. 피치못할 사정들이 많았으나 최현은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참을길 없었다. 한개중대도 넘는 이들이 도로가 차단되였다고 하여 주저앉아있었다는것이 그를 격노케 했다. 설사 몇개 사단이 막아섰대도 뚫고나갈 묘책을 찾아야 할것이 아닌가!…

한 젊은 중대장은 최현이 눈앞에 멎자 《려단장동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내무국 제3경비려단에 있던 김정렬입니다!》

최현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것도 대뜸, 날카로운 기쁨속에 알아보았다. 1949년, 그가 눈익혀둔 용감한 중대장이였다. 그래, 무더운 여름날이였지. 38도선에서… 평양에 회의를 갔다오니 그날 비상사고가 있었다. 어느 한 중대의 반대쪽 릉선을 적들이 차지한것이였다. 최현은 치를 떨었다. 자기의 살점을 오려갔어도 그렇듯 펄펄 뛰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는 제일 용감하고 날파람있는 대원들 12명을 골랐다. 다음 야밤삼경에 자신이 직접 습격조를 데리고 적들이 차지한 릉선으로 들어갔다. 벼락같이 그리고 무섭게 족쳤다. 최현자신은 허리에 두손을 짚고 릉선우에 떡 버티고서있었다.… 그후 장군님으로부터 엄한 추궁을 받았다. 아직 그토록 노하신 장군님을 뵈온적이 없었다. 그러니 대뜸 기억에 떠오를수밖에… 그는 바로 그날밤 최현이 데리고 들어간 12명기습조의 지휘관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최현은 수북한 장미를 치켜올리며 몰풍스럽게 잘라 말했다.

《모르겠어. 생각나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덴 비겁분자가 없어. 알겠는가?!…》

낯색이 창백해진 그의 곁을 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제4보병사단 근위18련대의 한 문화부중대장과 마주섰다.

《근위부대의 군관이 왜 이모양인가. 말해보. — 왜 부대와 떨어졌어?》

머리에 두툼하니 붕대를 감고있는 사람으로서 등어리가 구부정했다. 갈퀴같은 두손을 눌러댄것이 눈에 띄였다. 전형적인 산골막바지농사군의 모습이나 의외에도 대답은 조리있었다.

《사단장동지! 후방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오던중에 그만 후퇴가 시작되였습니다. 지금 부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찾아가?… 온통 적들이 깔렸는데.》

《찾아가겠습니다!》

《?…》

최현은 말없이 그앞을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은밀한 애착심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최현은 몸을 돌리고 다시 물었다.

《혼자요?》

《아닙니다. 후방병원에서 같이 온 동무들과 또 여기서 만난 대원들 모두 합해 17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구?》

《옛,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입니다.》

《음—부대를 찾아가겠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박정덕이 그 사람도 악전고투하고있을거요. 동무네 새 사단장!…알고있어?》

《소문은 들었습니다.》

《염통이 큰 사람이야, 젊구…》

최현은 실농군같은 주영섭의 어깨를 툭 쳤다.

《내 동무한테 약속해두지. 이제 동무네 사단과 만나게 되면 꼭 보내주겠소.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때 한사람이라도 내놓고 잘못되게 할순 없어.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모두를 기다리고계신단말이야. 알겠나? 여기서 함께 싸우자구. 우린 이제 동무네 사단과도 꼭 만나게 돼!》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최현은 군관들을 자기 위치에 들여보내고 대렬중간앞에 나섰다. 한쪽허리에 손을 짚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쥐고 마치 연탁을 때리

듯이 세게 내려쳤다.

《에익, 동무들! 왜 김빠진 축구공모양이 되여있나, 응? 이게 무슨 수친가. 그래 저놈들이 숱한 대포를 끌어왔다구 해서 주저앉았는가, 기가 꺾였는가?》

그의 눈이 번쩍이였다. 잠시 무엇을 기다리는듯 긴장하여 귀를 강구고있다가 두손을 마주치며 헌헌하게 계속했다.

《난 뭐 길게 말할줄 몰라. 우린 입으로가 아니라 총과 대포로 말하는 병사들이 아닌가!… 동무들, 명심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전략적인 후퇴명령을 주셨으니 이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그거요. 그러니 한시도 지체해선 안된단말이요. 대포건 땅크건 맞받아나가야 돼. 기어이 장군님의 새 명령을 받으러 가야 한단말이요. 알겠는가?》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최현으로서도 미처 예기치 못한 엄청나게 큰 대답이였다. 고개밑에서 포위를 조이고있는 적들의 귀에라도 미칠것 같이 요란한 웨침소리였다. 최현은 한팔을 들었다가 홱 내젓고 상급참모를 불러 대렬편성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민들을 만나보았다. 정치공작대원, 유격대가족, 맨주먹인 청년, 학자, 배우 등 각이한 사람들이였다. 뒤따라온 참모장이 군대 대오에 사민들이 따라서면 곤난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고 위험도 갑절 커질수 있다고 귀띔했다. 최현은 성난 눈길로 그를 쏘아보며 오금을 박았다.

《그들은 내나 동무의 등뒤에 숨어 목숨이나 구하자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장군님을 따라나선 사람들이란말이요. 한사람도 빠짐없이 대오에 들여세우오!》

소낙비가 멎자 희끗희끗 흐트러진 구름장들사이로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저 멀리 험산봉우리들에서 물기에 젖은 바위들이 번쩍거렸다. 실오리처럼 늘어진 산허리의 신작로, 황이 들기 시작한 작은 숲들, 강과 마을… 령남땅을 경계짓는 소백산줄기는 물러가는 더위와 북쪽에서 밀려온 서늘한 대기속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있었다.

최현은 다시 쌍안경을 들고 사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고개밑

의 도로에서 포좌지를 굴설하느라고 법석이는 놈들을 이윽토록 살펴보았다. 참모장의 보고와는 달리 더 많은 적들이 이미 은폐하고 있는것이라면 일은 상서롭지 못하게 벌어질수도 있다. 최현은 무릎우에 지도를 펴놓고 지형지물과 대조해보았다. 그러다가는 입술을 우물거리며 앓음소리를 삼키군했다. 웬일인지 지도에 그려진 등고선들과 여러가지 전술부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별안간 몸을 돌려 부관을 소리쳐 불렀다.

《군악대장 어데 있소? 내가 그한테 과업을 준게 있는데 왜 아직 보고하지 않는가?!…》

부관은 서둘러 전투가방을 열더니 정히 접은 한장의 종이를 꺼내였다.

《여기 있습니다. 사단장동지!》

《그래?!…어서 이리 주-》

최현은 악보가 그려져있는 하얀 모조지를 부관에게서 받아쥐자 지도우에 펴놓았다. 해볕에 눈이 쑤셨다. 접었던 자리를 꼼꼼히 누르며 먹으로 곱게 그린 악보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며칠전 사단군악대장에게 과업을 주어 그리게 한 악보였다.

《유격대행진곡》…

그는 악보를 볼줄 모른다. 그러나 그 깨알같이 까만 동그라미점들과 오르내린 선들을 보기 즐겨했다.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며 예리하고 강한 나팔소리로, 장중한 북소리로 울리는 그 격동적인 호소를 듣기 좋아했다. 거기에는 밀림을 뒤설레게 하는 세찬 눈바람소리며 대오앞에 날리는 붉은 기폭의 펴덕임소리 그리고 피타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듯한 결사의 각오, 열혈의 맹세가 있었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그는 오래도록 악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장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육실할것들이 지금 우리를 어째볼가 하지만 어림두 없습니다. 장군님품에서 자라난 이 최현이 아무려면 여기서 발목이 잽히겠습니까. 〈유격대행진곡〉

에도 있는것처럼 억천만번 죽드래두 원쑤를 치고 기어이 돌아가리다！…》

참모장과 여러 군관들이 가까운 등뒤에 서있었다. 그러나 누구 한사람 사단장의 사색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험으로 최현사단장이 저렇듯 꼼짝하지 않고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아 어느 한점만을 직시하고있을 때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것인지 그리고 그 사색의 뒤끝에 얼마나 담찬 전투행동이 벌어지는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말없이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였다.…

15

날이 어둡기 바쁘게 공격이 시작되였다. 좌익에서는 척후로 나가던 보병대대가 산밑에서 포위를 기도하고있던 적의 한고리를 타격했다. 우익에서는 고개마루에 주저앉아있던 190명전사들이 벼랑을 타고내려 적들의 105미리곡사포진지를 덮쳤다. 보총사격의 불꽃들이 령밑에서 바늘끝처럼 번쩍이였다. 중기와 경기들에서 내쏘는 예광탄의 불꼬리들이 골안의 어둠을 쩍쩍 갈랐다. 수류탄이 튀고 불길이 솟구쳐오르군했다.

최현은 대오에서 리탈되여있던 190명전사들의 공격선 뒤에서 전투를 지켜보고있었다. 벼랑끝이였다. 발밑의 어둠은 스산하리만큼 깊고도 음침했다. 그 아찔한 골바닥에서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그의 귀전을 후려치고있었다. 이따금 눈먼 탄알이 그의 머리우로 날아오르며 휘파람을 불군했으나 그는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앙버티고있었다. 머리속에서 끊임없이 쇠소리가 울리고 견딜수없이 쑤셔댔어도 한사코 참아냈었다. 간혹 입술을 찌긋하고 웃을 때도 있었다. 키가 장대같은 부관이 놀라서 서둘러 말을 걸었다.

《좌익에서 포위망을 뚫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

《곡사포진지도 까부셨습니다.》
《그건 나두 보구있어.》
《인젠…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래, 음…》
최현은 여전히 벼랑 한끝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발밑의 깊고깊은 어둠속에서 불빛들이 스러져가고 굽인돌이 한끝에서 불타던 자동차도 검은 연기속에 잠겨버렸다.
《이봐, 부관！》 최현의 목구멍에서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끓고있었다. 《동무생각엔 어떤가？… 이왕 우리 사단이 방차대임무를 받은 이상… 지금처럼 계속 놈들을 족치면서 가는게 더 좋지 않아？！》
《사단장동지！ 아까는 대렬앞에서 한시바삐 장군님의 새 명령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그랬어.》
참모장일행이 왔다. 도로가 열렸다는 보고였다. 그들은 벼랑을 에돌아 산허리를 굽이굽이 에돌아내린 도로에 나섰다.
최현은 힘겹게 걸었다. 병마는 집요하게도 그의 목을 졸라매고 있었다. 늘큰해지는 몸을 다잡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무겁게 들면서 최현은 방금 들부셔놓은 적의 105미리곡사포진지를 돌아서 갔다. 온통 파헤쳐지고 뒤집혀져있었다. 짜개진 포탄상자들, 사방에 널려진 누런 포탄들, 방순이 우그러들고 복좌기에 구멍이 난 포한문은 한쪽 바퀴를 찌글써 들고 파다만 홍장안에 구겨박혀있었다.
만신창이 된 적들의 시체도 사처에 널려있었다. 각이한 소속의 전사들, 령마루에 주저앉아있던 그 190명전사들이 해제낀것이다. 방금전까지 적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무력을 증강하는것을 보고 어쩔바를 모르던 전사들, 최현이 《비겁분자》라고 마구 다몰아대던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일단 대오를 짜주고 구령을 내리자 짝 부르쥔 하나의 강철주먹이 되여 적들을 타격하였다.
최현은 전장을 수색하며 바삐 돌아치는 전사들에게 소리쳐물었다.
《누가 지휘관인가？》

어깨에 로획한 미식소총을 두자루씩이나 멘 하사관이 앞으로 나섰다.

《동무요?》

《아닙니다, 사단장동지！ 저기… 누워있습니다.》

습관된 화약가스냄새와 더불어 기름타는 냄새, 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누더기를 태우는것 같은 역한 냄새가 풍겼다. 하사관을 따라가니 생생한 포차가 서있는 비탈면에 여러 전사들이 뭉쳐있었다. 사단장이 다가서자 모두 한옆으로 비켜섰다. 그들 가운데 한 군관이 방수포를 깔고 누워있었다. 누워있는 군관은 풀무처럼 씩씩 숨을 들이긋고있었다. 최현은 화광에 비추인 생기없이 퍼렇게 된 그의 눈이며 비좁은 이마우에 한벌 덮여있는 누런 땀방울들을 살펴보았다.

《중대장？！…》

《예, 사단장동지！… 내무국 제3경비려단에서 8중대장으로 있던… 김정렬…》 그는 웃어보이려 했다. 《글쎄 파편이… 전투가 다 끝날 때 하필… 분하게두…》

그가 아까 알은체를 할 때 어색하게 실쭉거리던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최현은 내가 아는 사람가운데 비겁분자는 없노라고 무뚝뚝하게 잘라버리고 그곁을 떠났었다. 그것이 가슴에 무딘 송곳처럼 박혔다.

《응급처친 했소？》

그를 대신하여 위생병이라고 짐작되는 군인이 구구히 설명했으나 그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보지 않고도 상처가 매우 위독하리라는것이 느껴졌다. 부상자는 사단장앞에서 안깐힘을 쓰며 태연해지려 했으나 자꾸 이발을 앙다물지 않으면 안되였다. 툭 불거진 광대뼈에는 아픔의 눈물이 고드름처럼 맺혀있었다.

《용기를 내라구. 동문 용감한 지휘관이 아닌가！ 이제 군의소에 가서 수술을 하면 돼. 당장… 자동차루 실어보내지, 응？！… 용감하게 싸운것처럼… 참아내라구.》

최현은 로획한 자동차로 부상자들을 실어가게 했다. 영동간도로를 따라 먼저 떠나간 후방부서들이 대기할 지점까지 이르도록 지

시했다. 다른 자동차에는 한개 소대 호송인원들을 태웠다. 그림자처럼 묻어다니는 나어린 간호원도 그편에 보낼 생각이였다. 참모장이 아직 로획한 자동차가 13대나 더 있다고 넌지시 귀띔했으나 최현은 그저 간단히 《모두 불태워버리오.》하고 말했다. 창황중에도 그는 줄곧 무엇인가 생각하고있었다. 어느것이 옳은 처사겠는가? 산발을 타고 거침없이 북상하겠는가, 아니면… 사단이 온통 찢기여 피투성이 될지언정 놈들의 발걸음을 얽매놓으며 방차대의 임무를 끝까지 안고 가는것이 더 옳을것인가?!…

구분대들이 어둠속으로 사라져가고있었다. 전투에 끼우지 않고 대기해있던 구분대들이 먼저 떠났다. 최현의 눈에는 서둘러 눈앞을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이 희뜩희뜩한 얼룩들처럼 보였다. 또다시 구역질과 함께 뼈를 쑤시는 경련이 목줄띠를 치달아올랐다. 그는 부득부득 이를 갈며 련락병더러 말을 끌어오라고 했다. 련락병도 부관도 어리둥절한듯싶었다. 최현은 숨이 차 헐떡거리며 다시 일렀다.

《팔이미리에 가서 끌어오라구. 제일 날쌘거루!…》

그리고는 나어린 간호원을 불렀다. 처음으로 간호원을 눈여겨보았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목이 가는, 최현의 눈으로 보건대 무척 어린 처녀였다. 하지만 이처럼 애어린 처녀들이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을 맡아하고있으며 얼마나 용감하게 희생적으로 싸우고있는지 최현은 잘 알고있다. 그런데 최현은 다른 누구보다도 처녀들이 희생되는것을 참아낼수 없었다. 지금도 그는 희생된 간호장 림정옥이 생각나 온몸이 저릿저릿해났다.

그는 물었다.

《지금 몇살이지?》

《열여덟살입니다, 사단장동지!》

《?…》

나어린 전선처녀들은 작건크건, 나이야 어려보이건말건 하나같이 모두 열여덟살이다. 그들은 언제 어느때건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저는 열여덟입니다! 하고 되풀이한다. 그것은 입대를 청원하러 군사동원부의 문턱을 넘어서던 그때 약속이나 한것처럼 마음

속으로 먼저 한두살을 더 먹었기때문이다.

최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중요한것은 그게 아니다. 그는 좀 망설이다가 별안간 결심한것처럼 엄숙하게 말했다.

《간호원! 이제 집결처에 도착하면 즉시 군의소로 돌아가야 해.》

《예?》

처녀의 두눈에서 놀란 빛이 번뜩이였다.

《거게선 동무 할일이 많아. 내게 붙어선 아무 할일도 없구. 알겠지?》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 목눌린 신음소리같이 나어린 처녀가 무어라고 부르짖었건만 돌아보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최현은 《사단장동지!》하는 부르짖음에 고개를 홱 돌렸다. 처음엔 누가 그렇게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결에 전장의 불길이 확 솟구쳐서야 알아보았다. 정찰중대장과 무선수, 최현은 수북한 장미를 흠칫거렸다. 무선수의 잔등에 지워진 무선기, 춤추듯 흔들거리는 안테나, 불빛에 드러난 어린 병사의 벌깃해진 얼굴, 또 허우대가 큰 정찰중대장의 시꺼먼 얼굴엔 웃음이 버무러져있다. 껌벅거리는 불빛이 그것을 히뜩히뜩 비쳐주고있다.

최현은 그가 거수경례를 붙이는것을 보자 급히 마주가 어깨를 쿡 쥐여박으며 낮은 소리로 다정히 물었다.

《그러니 빼아왔군 그래, 응?!》

《예, 빼아왔습니다. 사단장동지!》

정찰중대장 역시 낮은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최현은 만족하여 두손을 썩썩 맞비비다가는 또 어깨를 툭 쳐주었다.

《좋아, 중대장!… 그럼 당장 시작해봐야지, 응?!…》

《예!》

최현은 무선수를 향해 호기있게 명령했다.

《무선수, 곧 최고사령부를 찾으라!》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무선수는 급히 잔등의 무선기를 벗어내려놓고 이미 손에 쥐고 있던 안테나줄을 가까운 나무가지우로 뿌려올렸다. 그는 줄이 제대로 걸렸는가를 확인해보고나서 무릎을 꿇고앉아 레시바를 귀에 끼웠다.

최현은 무선수의 기계적인 손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무선수가 전원을 넣고 조절기를 돌리고있다. 공작파장을 맞추는것이다. 가늘고 가무스레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삐익—삐—하는 새되고 예리한 전파음들이 가슴둘레를 어이는듯했다.

(드디여 됐구나! …)

최현은 출렬표시등의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가슴이 졸아드는듯했다.

《장군님! 최현이 보고드립니다. 군집단의 리탈을 보장하고 현재 북상중입니다. 사단은 건재합니다.》

마음속으로 구절구절을 곱씹으며 숨을 죽였다. 숨막히는 휘파람소리같은 한 짧은 전파음을 붙들었다가 놓쳐버렸다. 이것일가, 아니면 저것일가? … 무선수가 조절기를 돌려댈 때마다 굵다란 신호, 가느다란 신호, 바늘같이 찌르는 음파, 둔탁한 파렬음들이 엇갈리군했다. 적아간의 격전이상으로 전파의 세계에서도 주파수마다 미친듯 부르짖고 찌르고 내달리며 법석 끓고있는것 같다. 출렬표시등의 불빛이 껌벅껌벅 숨쉬듯한다. 여전히 그 불빛을 지켜보고있던 최현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한손으로 레시바를 감싸쥔 무선수가 차츰 허둥지둥하기때문이였다.

별안간 무선수가 전건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었다. 레시바를 뽑고 일어나더니 검붉어진 얼굴을 숙이고 속삭이듯 말했다.

《안됩니다, 사단장동지!》

《뭐이?》 최현은 별안간 목이 칵 메여버린듯했다. 거칠게 숨을 내뿜고 가까스로 부르짖었다. 《그건 무슨 소리야?! …》

《사단장동지, 무선기출력이 낮아서… 안됩니다.》

《아니, 다시 해봐, 한번 더!》

무선수는 다시 꿇어앉았다. 레시바를 귀에 끼우고 꼭같은 방

법으로 아득한 공간을 더듬기 시작했다. 사위여가는 불빛에 침통해진 무선수의 얼굴이 언뜻거렸다.

최현은 여전히 출렬표시등의 껌벅이는 불빛에 매달렸다. 손톱눈만한 그 작은 불빛에 온갖 소원을 다 담고있었다.

무선수는 인내성있게 최고사령부를 찾기 시작했다. 또다시 귀에 익은 갖가지 전파음들이 울부짖고 흐느끼고 떨리며 들끓어대였다.

그렇게 또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차츰 무선수의 손동작이 굼떠지고 고개가 수그러졌다. 그것을 보자 최현은 지금까지 잊고있던 고열에 달뜨는 자신이 느껴졌다. 세찬 경련의 발작이 등허리를 꿰지르며 뻣뻣해진 목둘레로 뻗쳐올랐다.

그는 헉헉 찬바람을 들이키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시꺼멓게 죽어있는 정찰중대장의 얼굴을 띄여보았다. 그리도 기쁨과 자랑에 넘치던 그 얼굴이 수그러지고있다. 최현은 그앞을 지나갔다.

얼마후 그는 련락병이 끌어온 포마에 올랐다. 검푸른 밤하늘이 비좁게 열려있었다. 첩첩이 솟은 산봉우리들이 천리장성처럼 웅크러뜨리고 늘어섰다. 써늘한 바람결이 숲속에서 풍기는 씁쓸하고 아련한 풀이끼냄새를 실어왔다. 고삐를 감아쥔 최현은 장화발로 말의 배허벅을 찼다.

《출발！—》

말편자밑에서 자갈돌들이 딱딱 마치는 소리가 났다. 랭랭한 적막에 싸인 시꺼먼 골짜기가 앞에서 기다리고있었다.

16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이 지휘하는 17명 대원들가운데엔 의용군으로 입대한 로지봉도 있었다. 며칠전 직지천의 끊어진 다리 아래에서 현수와 반갑게 만났으나 인사말도 변변히 나누지 못하고 헤여진 그 병사였다. 그때 탄약을 싣고가던 그들은 갑자기 대도로

를 따라 공격해오는 적들과 조우했었다. 3대의 자동차중 선두차가 적땅크포사격에 불타버리자 나머지 차들은 급기야 산기슭의 달구지길로 방향을 꺾었다. 가까스로 적들의 추격은 피했으나 전혀 왕청같은 방향으로 빠져 최현사단의 방어계선에 이르렀다. 그곳 병사들이 아주 만족하여 탄약상자를 부리면서 입이 뚜해진 로지봉 일행을 적당히 구슬려놓았다. 누이 주려던 곶감을 매부가 잡쉈기로 그게 무슨 속앓을 일이란 말인가. 어데서건 이 총탄이 미국놈들을 쏘아잡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였다.

여기서 로지봉은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을 만났다. 그때 주영섭은 이런저런 리유로 부대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적진을 뚫고서라도 부대를 찾아가려 했었다. 그들의 부대가 대전부근으로 철수하며 기동방어전을 벌리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로지봉은 얼마전에 그쪽에서 탄약을 싣고 떠난것이다.

로지봉은 그때 주영섭이 《대전방향의 지형을 잘 아는 동무가 누구요?》하고 물었을 때 너무 기뻐 후다닥 뛰쳐일어났었다.

《예, 제가 알지유!》

그는 마치 누가 자기의 기쁨을 앗아갈가봐 겁을 내는듯했다.

《제가 알아유. 대전, 보은, 금산— 그쪽으로 가는 길들은 죄다 알지유!》

그리하여 첫날 부대를 찾아떠날 때 로지봉은 길잡이가 되였다. 바삐 걸었다. 그들이 가는쪽에 로지봉의 고향 보은땅이 있는것이다. 그것도 로지봉의 고향마을은 대전과 이웃하고있는 지경이였다.

다들 로지봉을 따라가느라고 헐근헐근했다. 한번은 주영섭이 그의 뒤를 겨우 따라잡으며 소리쳐 물었다.

《동무 혹시 황천왕동의 손자가 아니요?》

로지봉은 영문을 몰라했다.

《그게 누군데유? 황천왕?!…》

주영섭은 피씩 웃으며 말을 돌렸다.

《어느 련대요?》

《근위 18련대예유.》

《저런！… 한집안식솔이였구먼. 혹시 나없는새 우리 중대에 슬쩍 끼워든건 아니요？》

《어느 중대게유？》

《나 2대대 5중대！》

《아네유. 난 공급소대에 있은걸유.》

《오！—》

그런데 그처럼 바삐 서둘러 가던 길이 막혔다. 대전,보은 방향의 모든 길은 적들의 땅크와 자동차로 붐비고있었다. 그들은 세차례나 적들과 조우하여 전투를 하였고 가까스로 위험을 면하게 되였다. 하는수 없이 북으로 더 올라가 산길을 타기로 했다. 그러다가 문경고개에까지 올랐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적들의 포위에 들었다가 최현사단장을 만난것이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는것을 단념해야 했다. 로지봉은 최현사단의 맨 후미에서 고향과는 정 반대쪽으로 멀고 먼 북쪽을 바라고 가고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달은 실낱같은 한쪽 모서리를 얼씬 내밀었다가도 곧 구름장속에 숨군하였다. 로지봉과 얄궂은 유희를 거는듯했다. 그때마다 로지봉은 꺼지게 한숨을 내짓군했다.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이 그를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지봉동무,어째 그렇게 풀자루가 됐어？》

지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난 고향으로 가고싶수—》하고 말하겠는가. 《당신네들은 후퇴를 해도 고향이 있는 북으로 가지만 내야 머…》하고 말할수도 없지 않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로지봉의 걸음은 자꾸만 떠지고있었다.

그는 한없이 마음이 괴로왔다. 저 멀리 뒤에 두고 가는 보은땅,국사봉기슭에 그의 고향이 있다. 정든 집,분여받은 땅,늙으신 어머니와 애태우며 그를 기다릴 젊은 안해도 있다. 이제 가면 언제 올가,언제쯤이면 돌아오게 될가？…

참지 못하고 뒤돌아보군한다.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떠지군했다. 세상에 나서 두번째로 고향을 멀리 떠나는것이다.

처음 집을 떠난것은 일제가 패망하기 몇달전이였다. 매일같이

놈들은 《기름 한방울이 피 한방울!》이란 글을 써붙이고 송탄유 피마주에 미쳐돌아가는가 하면 17살 이상의 젊은이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로지봉도 놈들에게 끌려 머나먼 북만의 새초숲 우거진 타관땅으로 갔다. 거기서 방어공사에 내몰리였는데 로지봉은 일본군야포중대의 비루먹은 말과 함께 종일 물긷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비루먹은 암말이 소택지에 빠져 영영 일어서지 못했다. 소동이 일어났다. 이마니시라는 일본군군조가 미친듯 채찍을 휘둘렀다. 누런 이발을 드러낸 그자의 입에서 느침이 흘렀다.

《죽어봐라. 네놈이나 왜 살았어. 네놈이나 왜…》

몸뚱아리에 감겼던 채찍이 뒤덜미를 후려쳤다. 귀가 찢어지고 시퍼런 채찍자리가 어깨를 휘감았다. 그래도 그놈은 사정이 없었다. 몸을 피하여 돌아서면 면상을 겨누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면 정수리를 내려쳤다. 찢어진 귀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람루한 옷에서 실밥들이 흐트러졌다. 마침내 지봉은 더는 견딜수 없어 면상을 겨누어 날아들던 채찍을 한손으로 받아쥐였다. 힘센 손아귀로 꽉 감아쥐고 부르짖었다.

《이보시유, 내가 잘못한게 뭐유. 제대루 걷지도 못하는 말을 끌구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어째 내가 죄를 뒤집어써야 하는거유.》

《뭣이?!》 이마니시의 두눈이 고양이의 그것처럼 좁혀졌다. 거품이 끓는 입에서 찢어지는듯한 악청이 터져나왔다. 《찢어죽일테다. 네놈이나 사지를 찢어죽일테다. 놔라. 이걸 놔라, 놔라! ―》

로지봉은 그 미칠듯한 발광에 눌리워 채찍을 놓았다. 그러자 이마니시는 뒤로 벌렁 나가자빠졌다. 숱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창에 엉뎅이를 박고 주저앉은것이다. 다음 순간 벌떡 뛰여일어난 그놈은 채찍을 던져버리고 어느새 늪가의 사스래, 측백나무들이 늘어선곳으로 뛰여갔다. 그중의 한 나무가지에 철갑모와 기다란 보총이 걸려있었다. 이마니시는 무작정 보총을 들고 돌아섰다. 시꺼먼 총창이 로지봉을 향하여 날아들고있었다.

《죽여버릴테다아！ —》

로지봉이 몸을 피하자 총창은 비루먹은 암말이 끌던 수레바퀴를 텅 찌르고 튀여났다. 질겁한 사람들이 기피하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마니시의 피에 주린 광증을 더 자극했을뿐이였다. 이번엔 도망갈념도 못하고 엉거주춤 뒤걸음쳐가는 로지봉의 배허벅으로 곧추 총창이 날아들었다.

《죽어봐라！ —》

퍽 하는 소리가 났다. 얼결에 두눈을 꾹 감고있던 지봉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장엔 알아채지 못했다. 느침이 흙던 이마니시의 입이 항 벌려지고 그속에서 피거품이 흘렀다. 새파랗게 좁혀뜬 두눈도 그대로 굳어지고 손에 들었던 보총은 땅에 떨어졌다. 물렁물렁한 땅바닥에 꽂힌 총창이 후들후들 떨리고있었다. 그때 로지봉은 삽자루를 움켜쥔 한 청년을 보았다. 현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던 기억이 났다. 책을 많이 읽어 아는것이 많아서 밤이면 젊은이들이 그를 둘러싸고앉아 말똥을 태우며 중얼중얼하군했으나 아직 로지봉은 한번도 끼워본적이 없었다.

《야 현수, 너 어쩌자구 이런짓을！…》 누군가 삽자루를 움켜쥔채 굳어져있는 그를 흔들었다. 《인젠 어떡하문 좋니. 응？！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현수는 손에 든 삽을 떨어뜨렸다. 그다음 몸을 부들부들 떨고있는 로지봉에게 다가왔다.

《빨리 뛰자. 어물거리다간 끝장이야. 어서！…》

그후 공포와 쓰라린 절망에 사로잡힌 그들은 소택지를 건너 깔따구와 싸우며 고향에로의 멀고먼 길을 허위단심 걸었다. 밤이 되면 걷고 낮이면 죽어넘어진 말고기를 베여 찝찔한 눈물과 함께 그것을 씹으며 압록강에 이르렀다. 여기서 조선이 해방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서로의 고향으로 갈라져갔다. 다시 열흘이 지나 로지봉은 고향땅에 들어섰다. 국사봉기슭의 옛마바리집에서 늙은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얻어맞은것처럼 비칠거리며 허겁지겁 마주나왔다. 그러나 로지봉을 기다린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빈궁과 천대였다. 일제는 패망했어도 대신 미국놈들이 기여들고 지주놈의 행패질

은 더욱 우심해졌다. 로지봉은 소작지인 깡깡 마른 서덜밭에서 나는 몇섬의 조와 피,기장쌀마저 죄다 털리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마을 처녀 채순금과 가정을 이루었으나 누더기이불밖에 없는 살림이였다.

그러다가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 터지고 얼마후엔 인민군대가 마을을 해방하더니 이어 **김일성**장군님 은덕으로 토지분여사업이 벌어졌다. 로지봉에게도 4,000평의 논밭이 차례졌다. 논밭머리엔 로지봉의 이름을 먹으로 써놓은 지경패말을 박았다.

이게 네 땅이다！— 하고 지경패말은 선언하고있었다. 로지봉의 논밭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날 머리가 하얗고 등이 꼬부라진 로지봉의 늙은 어머니는 순금이에게 부축되여 4,000평의 논밭을 쭉 돌아보았다. 나중엔 지경패말을 붙안고 그것을 어루쓸며 눈물속에 부르짖었다.

《지봉아,장군님께서 살펴주셔서 평생소원을 풀었으니 이 고마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누？！…》

그렇다. 이 고마운 은덕을 어떻게 다 갚으면 좋단말인가！… 밤이 깊도록 그는 푸르싱싱한 논밭을 돌고 또 돌았다.

뜸부기가 울고 물안개가 흘렀다. 어느 밭머리에서는 새로 재를 무져놓은 두엄더미의 알싸한 냄새가 취할듯 날아왔다.

그때 안해 순금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 나좀 보세유.》 안해는 가만히 발끝으로 땅을 허비며 말했다. 《난 지금 거기서…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유. 다들 총을 메고 의용군으로 가니…그 생각을 하는줄…》

《？！…》

로지봉은 놀랐다. 어질고 순박하기만 한 안해였는데… 그 안해의 두눈이 별빛에 반짝이고있었다.

《걱정마세유.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잘 가꾸겠어유. 어머님도 잘 뫼시고… 그러니 맘 놓고 다녀오세유.》

이렇게 순금이는 이제 조만간에 전쟁을 이기리라고 믿었고 그래서 례사롭게 《다녀오세유.》하고 말했던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전선은 멀리 북으로 옮겨가고 적들은 물

밀듯 밀려들고있다. 지금쯤 그의 고향에도 미국제땅크들이 달려들어 논밭을 짓이기고 로지봉의 이름자가 새겨진 지경패말을 깔아뭉개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입안의 침이 바짝 마르는듯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그러다가 갑자기 멎어섰다.

《아니 저게 뭐유. 예?!…》

그의 부르짖음에 대오가 멎었다. 그를 따라 모두 멀리 대전쪽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먼 우뢰소리처럼 웅근 포성이 구을러오고 검은 하늘가를 벌거우리한 화광이 불태우고있었다.

그때 대오의 앞장에서 가던 최현도 말고삐를 잡고 그 먼 포성을, 화광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그것이 박정덕이 벌리고있는 전대미문의 치렬한 싸움이라는것을, 검은 구름장들을 짓태우는 그 거대한 화광이야말로 군집단의 전체 포화력을 총동원한것에 못지 않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무슨 일일가. 박정덕이 어떻게 되였을가?…)

그는 있을수 있는 온갖 정황을 다 상상해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었다. 불안도 컸고 희망도 컸다. 그 노한 포성의 파도가 그에게 불안을 주는가 하면 충천하는 화광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넓어져가는 거센 화광이 희망을 주기도 했다.…

그 일은 이렇게 되였다.

그날밤 사단장 박정덕은 3개 사단의 적들이 포위를 좁히고있는 조건에서 거의 모험적인 돌파작전을 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체 부대 및 구분대 지휘관들에게 대전시와 주변의 병기창들에 있는 각종 구경의 포를, 적들것이건 우리것이건 있는대로 집결할것을 명령했다.

대전시와 교외에는 그때 대량의 군수품들이 쌓여있었다. 지난 7월 대전포위전이 벌어지기전에 이곳은 적들의 대병기창으로 전변되여있었고 그후엔 우리 전선사령부의 전략물자집결지였었다. 여기엔 적들의 군용자동차만 하여도 100여대이상 널려져있었고 수백문의 포와 산더미같은 포탄들이 있었다.

박정덕은 180문의 곡사포, 평사포, 반땅크포들과 고사포까지 룡

방리,산소리의 전방을 겨누어 전개하였다. 우리의 82미리 박격포는 물론 적들의 60미리,90미리까지도 동원하였다. 포를 쏠수 있는 사람은 죄다 떨쳐나섰고 자동차운전사들은 온종일 포탄을 실어날랐다. 그리하여 총 290문의 각종 구경의 포들이 전방의 약 6키로메터 구간을 겨누게 되였다.

밤이 오자 박정덕은 련합부대 전체 대원들을 2시간동안 잠자게 했다. 적들의 총공격은 새벽에 있을것이다. 경계근무성원들과 포수들만이 눈을 밝히고있었다.

밤1시,드디여 290문의 포들이 일제히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각종 구경의 파편탄,지뢰탄,철갑탄,연막탄 지어 조명탄까지 불을 토하고 굉음을 터치며 울부짖었다. 포격은 1시간,2시간 계속되였다. 포신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천둥소리는 검은 장막을 찢으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충천하는 화염이 밤하늘을 짓태웠다.

2시 30분,련합부대는 제1제대,2제대도 없이 1렬횡대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뒤에서는 대오가 전진하는데 따라 사격수정을 가한 포들이 계속 앞서나가며 적진을 때렸다.

새벽 3시,붉은색 신호탄이 날아올랐다. 그러자 지동치며 울부짖던 포성이 뚝 그쳤다. 그대신 이번엔 무시무시한 돌격의 함성이 터졌다. 사단장이하 전 사단이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사단의 앞길을 막는 적들은 없었다. 거대한 집중포격에 이미 정신을 잃고있던 적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전투원들을 퀭한 눈으로 보고있을뿐이였다. 사단은 순식간에 6키로메터의 넓은 구간을 돌파해나갔다.…

로지봉이 맨처음 발견한 그 거대한 화광은 이렇게 시작된것이였다. 오래도록 멎어있던 대오가 다시 움직이였다. 여전히 로지봉은 멀리에서 타오르는 화광을 뒤돌아보군했다. 어느 마른 삭정이에 배낭이 걸려 비칭거리기까지 했다. 주영섭이 또 소리쳤다.

《지봉동무,뭘 꾸물거리는거요. 빨리 오! ―》

《예―》

대답한것은 로지봉이 아니라 자기의 헐근거리는 내심을 감추려고 애쓰는 다른 목소리였다.

17

아침이였다. 내가의 물황철나무들은 짙은 안개속에 묻혔고 여울가의 물동에서는 선잠을 깬 까마귀들이 이슬에 젖은 날개를 털었다. 그것들은 자동차가 가까이 달려오는데도 기슭에 밀려나온 나무가지들을 타고다니며 열심히 검부레기를 뚜졌다.

운전칸에 앉은 리숙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조는듯마는듯 차가 들추는대로 몸을 흔들고있었다. 태화동부근의 방어계선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득히 흘러간 유년시절의 기억처럼 더듬었다.

부상병들이 련이어 들이닥쳤었다. 군의장이 리숙을 불러 말하였다.

《여기 있는 부상병들은 동무가 맡아 후송하오!》

11명의 부상병들이였다. 위생차는커녕 달구지조차 없는 형편이였다.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야 했다. 그는 포차라도 한대 빼앗아오기로 결심했다. 포중대의 얽음뱅이 화력부관이 입을 쩍 벌린채 눈만 두릿거릴지경으로 을러메고 따지고 아프게 허비였다.… 마침내 포탄차를 빼앗아냈다. 이번엔 보병들가운데서 담가병으로 쓸 건장한 병사들을 빼앗기로 했다. 그러나 교호식으로 피어린 방어전을 하고있는 그들과는 이야기가 잘되지 않았다. 다행히 박원철이라고 하는 뼈대가 약한 전사가 자원해나섰고 그의 상급인 애젊은 소대장도 허락해주었다. 그가 왜 자원했고 소대장은 왜 선선히 동의했는지 후에 가서야 알게 되였지만 그때 리숙은 끔찍이도 그가 고마왔다.

그들은 서둘렀다. 리숙, 운전사와 박원철, 간호원 한영순은 죽도록 고생을 한끝에 부상병들을 날라 차에 싣고 떠났다. 이제는 03호병원까지만 가면 된다. 03호병원은 영동에 있었다. 그곳에 가면 03호병원 일군들이 렬차수송을 조직해준다고 했다.

리숙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앞으로의 일을 상상

해보고 지난 밤의 일들을 더듬어보기도 했다. 문득 견갑골아래 관통상을 입은 한 부상병에게로 생각을 이어갔다. 처음 업혀왔을 때엔 무심히 스쳐지났었다. 그 부상병은 소리치지도 않았고 간절히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입을 꽉 악물고 누워있었다. 옷차림이 좀 이상했고 어깨엔 군관용 야전가방을 메고있었다. 그러나 극도로 지친 리숙이여서 그런것들에 주의를 돌릴 여가가 없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섭에 매달린 졸음과 무섭게 싸웠을뿐이다.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가늘게 좁혀진 부상병의 눈동자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거기에, 부상병의 눈동자속에 굴절된 자기의 모습을 본것이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새까만 눈동자, 반디불처럼 타오르며 순간마다 명멸하는 그 작은 렌즈속에 리숙의 모습이 굴절되여있다.

리숙은 붕대감던 손을 멈추었다. 잠시 물끄러미 그를 지켜보다가 속삭이듯 물었다.

《나를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요?》

《…》

대답이 없었다. 리숙은 개의치 않았다. 흔히 부상병들은 아픔과의 지리한 싸움끝에 입을 열기조차 힘들어하는 때가 있다. 잠간 생각해보고 또 물었다.

《참, 언젠가 한번 만난 일이 있지요?… 아주 오래전에!…》

《…》

부상병의 두눈은 메말랐고 아픔의 그늘이 씌워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리숙의 주의를 끈것은 지꿎게 견주어진 그의 사나운 눈빛이였다. 리숙은 불현듯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얼마후 그의 군복상의주머니에 들어있는 증명서를 보고서야 리숙은 도하장에서 만났던 공병중대장 류현수라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벽돌견장을 단 보통전사이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무슨 일로 갑자기 견장을 바꾸었을가?… 군복은 불에 그을린 군관복 그대로인데… 어떻게 알수 있으랴. 그에 대해 말해줄수 있는 사람은 그자신뿐인데, 그는 무서운 생각만 집요하게 파고

드는것 같다. 아무말없이 이따금 불에 그슨 눈섭을 경련적으로 푸들푸들 떨고있을뿐이다.

이어 리숙은 또 무엇인가 생각했다. 두서없는 생각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서 차례대로 번져졌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일,그동안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하찮은 일들에 이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리숙이 중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페염을 앓다가 돌아갔다. 이태가 넘도록 아버지는 쓸쓸해하고 멍해져서 턱수염이 길어지다 못해 마른 강냉이수염처럼 배배 꼬이는것도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서울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달라졌다. 다시 서울로 갔다 돌아올 때엔 리숙이 앞에 젊고 아름다운 부인을 데리고 나타났다. 어느 주식회사 리사의 미망인이라고 했다.

《숙아,인사해라. 이제부터 우린… 함께 살기로 했다.》

아버지는 리숙이더러 그 부인을 굳이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영실이라는 그 젊고 아름다운 부인 역시 그런 허드레로 리숙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방된 이듬해 리숙은 손수 꾸린 작은 손짐을 기숙사로 옮겨갔다. 아버지의 어정쩡한 미소며 장영실의 우정 꾸며낸것 같은 배려가 지겨워졌던것이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취한 행인처럼,지팽이를 잃은 늙은이처럼 가끔 허둥지둥하군했다.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겼는지 그때의 리숙은 다 알지 못하였다. 실로 리숙은 그 아버지의 제일 큰 사랑이였고 희망이였었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리숙의 맑은 두눈을 통해서만 래일의 밝은 전기불을 내다보군했는지도 모른다.

그 일을 생각하는 리숙의 마음은 저릿저릿했다. 지금 무얼하고 계시는지,인민군대가 후퇴를 하고있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래도 리숙은 언제 어느때나 아버지를 믿는다. 혹시 남들의 눈에는 촉수높은 전기불에 눈이 나빠진 얼뜨기같이 보일런지 몰라도 리숙은 언제나 굳건히 믿는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녀자는… 그 아름다운 부인은 자신이 없다. 아버

지가 가는 길에 걸음마다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수 없다. 왜 그럴가. 어째서 마음에 걸리고 불안스럽게만 생각되는것일가?… 아직 우리사이에 애정이 없기때문에 그런것은 아닐가?…

애정이란 청해서 얻어가지는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선사받는것도 아니며 길가에서 주어모으는것도 아니다. 애정이란 가꾸는것이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가꾸는것이다.

그런데 리숙은 지금까지 그 녀자를 멀리하려고만 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끊을수도 지울수도 없는 육친의 정때문만은 아닌것 같다. 그러면 무엇이 더 있었을가. 무엇이?!…

차츰 머리속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잠들었다.

쪼각쪼각 흐트러진 꿈들이 들락날락했다. 대학동창생들과 선거선전연예대를 무어 떠났는데 기차를 놓쳤다. 난데없는 배에 올라타고 갔다. 다들 떠들썩하고 쿵쿵 의자를 밀쳐댔건만 리숙은 죽을지경으로 피곤했다. 선실에서 잠을 자다보니 모두 가버리고 문은 걸쇠로 단단히 걸어놓았었다. 발로 힘껏 차다가 놀라서 깼다.

늙수그레한 운전사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그를 흘끔 바라보았다.

《꿈을 꾼 모양이디요?》

리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운전사가 또 무슨 말인가 하는것 같았으나 등받이에 어깨를 붙이며 또 고개를 수그렸다.… 기관단총을 손에 들고 경사진 언덕으로 달려가고있었다. 도하대대의 중대장 류현수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있었다.

《거기루 가면 안되오. 서시오—섯!》

적들이 화염방사기로 불을 내쏘았다. 군모밑으로 삐여져나온 머리칼이 칙칙 타버렸다.

《서시오. 간호장동무!—》

고함소리가 멀어져갔다. 리숙은 눈이 쓰려 앞을 볼수가 없었다. 팔소매로 땀을 닦고싶었으나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왼쪽 차창으로 해빛이 비쳐들고있었다. 팔소매안에 끼운 손수건을 꺼내여 땀을 닦았다. 처음으로 밤새 한번도 눈

을 붙여보지 못한 운전사결에서 저혼자 잠을 잤다는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미안해요.》

리숙의 말에 운전사는 눈을 치떴다. 눈에 피발이 섰고 꽉 다물린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워있었다.

《좀 쉬고가지 않겠어요?… 눈 좀 붙이세요.》

운전사는 머리를 흔들더니 버릇처럼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간호장동문 아무 걱정 없는것 같수다레?》

《걱정이요?!…》

《우리 가는데에 병원이 없을수도 있지 않소다?》

《아—뇨, 03호병원은 영동에 있어요. 확실해요!》

《그래도 지금은 후퇴하는 때라는걸 잊지 마오다.》

《그런들 뭐라나요. 자동차가 있는데 따라가면 되는거죠.》

《원, 배심두!》

《왜요?》

《글쎄 나이든게 방정떨구싶진 않지만… 놈들이 우회해서 대전을 포위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설마!》

자동차는 강기슭을 따라 멀리 농가들이 주런이 들어앉은 부락쪽으로 달리고있었다. 왼쪽엔 흐름이 완만한 석천이, 오른쪽엔 송림우거진 산판이 소잔등같이 누워있었다. 어데선가 재를 태운것 같은 냄새가 흘러왔다. 차츰 강물우에 시커먼 연기뭉테기들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데서 화재가 난게 아닐가요?》

리숙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운전사는 연신 코를 벌름거리다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산불이 나던가 했겠디요… 옘병할것들! 나무숲하군 왜 해보지 못해 지랄인지… 휘발유통을 떨구지 않나, 소이탄을 마구 뿌리지 않나… 산이 그렇게 무서우면 산이 많은 조선땅엔 왜 기여들었담. 쳐죽일것들!》

문득 리숙은 그의 말씨가 범벅인것에 주의가 미쳤다.

《이상하군요. 운전사동문 함경도말씨구 평안도말씨구 다 섞어서 쓰는군요.》

《그럴수밖에요. 해방전엔 안가본데가 없구 못해본 일이 없소다. 리발사, 야장일, 어물장수, 금전판… 나중엔 자동차를 배웠디요. 그러다나니 8도강산 발 닿는데가 고향이구 제집이 됩디다레.》

리숙은 머리를 끄떡이였다.…

굽인돌이를 돌았다. 지금까지는 부락의 서북쪽 한끝만 보이던것이 이제는 전체 마을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부락을 꿰질러난 도로상에 흰별을 그린 땅크들이 굴러오고있었다. 그뒤로 무수히 많은 자동차종대가 늘어섰는데 해빛에 철갑모들이 번쩍거렸다.

맹렬한 대구경기관총사격소리, 부락의 한 변두리에서는 화재가 한창이였다. 벼짚이영들이 삼단같은 불길을 솟구쳐올리고 재가루가 산산이 흐트러졌다.

《세우세요!》리숙이 부르짖었다. 《놈들이예요. 빨리, 차를!…차를 돌려요!》

앞장에 섰던 적땅크가 마을쪽을 향해 겨눴던 포탑을 빙그르 돌리고있었다. 이쪽의 자동차를 발견한것이였다.

《뭘 꾸물거려요. 빨리!》

《넨장— 빌어먹을 기야가… 급할 때마다 말썽이라니…》

운전사의 얼굴은 대번에 땀으로 흠씬 젖어버렸다. 앞으로 뒤로 움씰움씰하며 무던히도 더디게 차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약 20메터앞쪽에서 포탄이 터졌다. 강에 면한 낭떠러지의 아카시아나무들, 또 무슨 잡관목과 바위들이 강물우에 뿌려졌다. 시창유리가 짱! —하면서 산산이 깨여졌다. 그러자 어느새 벌써 톱날같이 비쭉비쭉 모가 난 파편이 좌석등받이에 박혀 누르스름한 연기를 씩씩 뿜어대였다. 리숙은 소스라치듯 몸을 떨며 다리를 가드라뜨렸다. 목구멍에 불뭉치를 틀어박은것 같았다. 소리치고싶어도 숨길조차 막혀버렸다. 운전사가 팔과 어깨를 힘껏 놀려 조향간을 돌리다말고 허둥거렸다.

《넨—장! 이게 어찌된 셈판이야. 응?!…》

《뭘해요. 힘껏 밟아요!》 마침내 숨이 확 열려 리숙은 부르짖었다. 《왜 그래요. 미치지 않았어요? 빨리, 앞으로!》

《뵈질 않소다. 넨－장, 어째 보이지 않소? 응…》

그때에야 리숙은 그의 얼굴이 온통 피칠갑이 되여있는것을 보았다. 이마가 터지고 눈섭이 찢어져 드리우고… 그가 안타깝게 머리를 흔들어대자 새빨간 피방울들이 뿌려졌다. 리숙이 그의 어깨를 꽉 눌렀다.

《부상?!… 눈을 다쳤어요?… 보자요!》

《놓소. 이걸 놓소!… 그래 따라오우?… 놈들이… 거진 왔소다?!》

《왔어요. 거지반 다 왔어요!》

대구경기관총소리가 울렸다. 차체에 부딪친 탄알들이 쩡－쩡 쇠소리를 질렀고 차바퀴가 삐그극 긁히였다. 뒤미처 땅크발동기소리도 들렸다. 리숙은 미칠것 같이 들뛰는 초조와 절망에 빠져 《보라요. 다 왔어요!》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지금 적재함우엔 무기도 없는 부상병들이 절대다수이다. 게다가 몸이 성한건 간호원 영순이와 박원철뿐이다.

《이걸 놓소. 그리구… 앞을 대주오!》 운전사가 가속답판을 지그시 밟으며 웨쳤다. 《자 빨리!… 제대루 가오다?!》

《밟아요. 더 힘껏!》 리숙이 역시 조향간을 그러안았다. 희망이 있다. 구원의 희망!… 《왼쪽으로 꺾으면서… 다시, 다시!… 앞으로! － 좀 더, 앞에 굽인돌이가 있어요. 정신차려요!… 좀더, 좀더, 좀더－ 됐어요, 돌앗!… 그래 그래, 잘됐어요, 인젠 우측, 우측으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200메터, 힘껏 밟아요. 힘껏!…》

울음섞인 목소리가 입안에서 끓고있었다. 조향간을 틀어쥔 운전사의 손등우에 푸릿한 정맥이 살아서 꿈틀거렸다. 그우로 새빨간 피방울이 떨어지고 리숙의 눈에서 끓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깨여진 시창으로 더운 바람이 휘휘 쓸어들었다.

《됐소? 더 가자우? 어째 말이 없소?!》

《됐어요. 또 100메터앞에 굽인돌이… 저것만 돌아가면!… 앞으로, 좀더 앞으로, 인젠 천천히!… 왼쪽, 왼쪽!…》

앞에서 벙끗했다. 원추형으로 치솟아오르는 불길, 굉음이 떨며 울부짖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엇인지 사납게 찌국거리고 하늘과 땅이 곤두박질하며 돌아갔다. 무서운 충격을 받고 뿌려져나간 리숙은 땅을 허비며 일어나려고 했다. 휘발유 타는 냄새와 뜨거운 화염에 질식할것 같았다.

《간호장동지！―》

누군가 소리쳐부르고있다. 누가 소리치는가, 영순간호원인가？… 시커먼 연기로 가리워진 하늘을 배경으로 벌거우리한 환영들이 꿈지럭거리고있다. 눈앞으로 지팡막대기가 땅을 쿡쿡 찌르며 다가왔다. 부상병, 그가 후송하는 부상병들이 위험에 처했다！… 리숙은 모지름을 쓰며 자기의 잔등을 꽉 누른 부서진 적재함을 밀어냈다. 어떻게 되여 적재함이 그를 짓눌러놓을수 있었는지… 자동차는 눈앞의 낭떠러지에 한쪽 바퀴들을 떨어뜨리고 황황 불타고있었다. 그속에서 부상병들이 엉금엉금 기여내렸다.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리숙은 박원철, 한영순과 같이 부상병을 부축하여 숲속으로 들어갔다. 한발자국 옮길 때마다 사람들을 소리쳐 부르며 피타는 마음으로 제발 한사람이라도 더 따라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두세명 부상자들이 기를 쓰고 따라오는것 같았다.

비발치듯 총탄이 날아왔다. 도중에 비명소리가 몇번 있었다. 나무가지들이 중둥무이로 부러져나가고 도탄되는 탄알의 새된 음향에 머리칼이 곤두서군했다. 삽시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갑자기 리숙은 멎어섰다. 숨이 꽉 막혔다.

운전사는？！… 앞못보는 그 운전사가 보이지 않는다！… 또 그 사람 류현수…

뼈개지는듯한 아픔이 가슴을 짓이겨놓았다. 리숙은 신음소리를 질렀다. 벌써 저아래 도로에서는 모든것이 참혹하게 끝나가고있었다. 선두의 적땅크가 불타는 자동차를 낭떠러지로 굴려버리는것이 보였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쳐 산산쪼각으로 흩어져내렸다. 뒤따르던 자동차의 적들이 사방 둘러대고 어림짐작으로 총질을 했다. 땅크를 앞세운 적자동차 종대는 유유히,

멋음이 없이 굴러가고있었다.
　리숙은 비칠거렸다. 타는듯한 수치와 절망감이 가슴을 옥죄였다. 떨리는 손으로 옆의 나무가지를 더듬어 잡았다. 나무가지가 휘친거렸다. 그러자 어쩔새없이 그는 후려맞은것처럼 어푸러졌다. 발치의 나무등걸이 그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며 뚝 부러져나갔다.
　《간호장동무！》
　누군가 부르짖었다. 한영순이 그를 거들어 일으키고있었다. 등뒤에서 또 부르짖었다.
　《간호장동무, 저기 두사람이 또 올라옵니다！ ─》
　《？！…》
　리숙은 머리를 돌렸다. 머리속에서 번개불이 번쩍한듯했다. 다음순간 리숙은 서로 부둥켜안은 두사람이 헐근헐근하며 올라오는것을 멀거니 보고있었다. 한사람은 얼굴이 온통 피칠갑이여서 보기에도 끔찍스러웠다. 그가 바로 한손을 허우적거리는 운전사 김상준이였고 그를 부축하고 《운전》하고있는 사람은 류현수였다.
　리숙은 화닥닥 뛰쳐나갔다. 별안간 가슴속에서 불덩이같은 웨침이 터져나갔다.
　《동무들, 왔어요？ 살았어요？…》
　《어데 있소. 간호장！》 운전사가 웨쳤다. 《간호장동무도 무사하오다？！》
　《예, 무사해요. 무사해요！》
　리숙은 그들을 붙안았다. 박원철이 달려와 또 끌어안았다. 붙잡고 매달리고 정신없이 끌어당기며 리숙은 부르짖었다.
　《고마와요. 현수동무！ 고마와요. 고마와요！…》
　그는 울었다. 눈굽이 막 저려나고 목이 칵 메였다. 제한몸도 운신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류현수가 허우대 큰 운전사를 부축해왔다！… 도무지 믿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리숙의 앞에 있는 류현수는 숨이 턱에 닿아있었고 낯색은 죽어있었다.
　박원철이 떠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살아있는걸 우린… 얼마나 놀랐던지…》

《난 죽지 않아.》하고 현수는 꽉 앙다물었던 입을 열고 씨근벌떡거렸다. 《죽을수 없어. 난… 난 죽어선 안돼!…》

그의 무서운 어조는 대번에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진감시켰다. 분노에 갈리고 흥분에 떠는 그 목소리엔 상상하기 어려운 그 어떤 무서운것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충혈진 사나운 두눈을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입을 꽉 악물고있었다. 검붉은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살아 꿈틀거렸다.

18

일행은 9명이였다. 소나무가 빼곡이 들어찬 릉선우에 람루한 군복차림의 부상병들이 리숙을 둘러싸고있었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무전수 오윤남, 해군소속포중대의 포장, 그를 부축하고있는 간호원 한영순, 두눈에 붕대를 감고있는 운전사 김상준과 류현수, 박원철 등이였다. 김상준은 다행히 파편이 눈두덩을 찢어놓았을뿐 눈은 다치지 않았다. 처음엔 피범벅이 되여 앞을 보지 못했고 지금은 붕대로 감싸고있어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안한 생각으로 리숙은 몸을 떨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 전부를 보살피며 먹여주고 처치하고 이끌어가야 할 그였으나 첫 시작부터 03호병원을 목표로 떠난 그들이였으므로 적들이 앞길을 막아버린 지금에 와서는 어데로 가야 할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눈앞에서 붕—붕 소리가 났다. 황동색 비단조끼를 입은 산벌이 날아가고있었다.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랑곳도 않고 붕—붕— 폭격기소리같이 숨죽인 정적을 휘젓더니 아까 자동차가 굴러난 그 구배길로 사라져갔다. 그쪽에서 까마귀 한마리가 사위스럽게 울어댔다.

리숙은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찌르는듯한 류현수의 눈빛과 마주쳤다.

《갑시다.》

그가, 류현수가 한 말이였다. 리숙은 그것을 목소리로서가 아니라 그의 입놀림으로 알아들었다.

어데로?!… 리숙의 묻는듯한 눈빛을 보면서도 그는 입을 다물고있었다. 어쨌든 떠나야 할게 아닌가?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을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선 동무가 지휘관이 아닌가?!… 현수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하여 그들은 걸음을 떼였다. 누렇게 퇴색한 구름장들이 머리우에서 흘러갔다. 발밑에서는 두텁게 쌓인 락엽이 짓이겨지고 마른 삭정이들이 뿌적뿌적 부러져나가군했다.

일행은 북으로 가고있었다. 부대들이 가는곳, 수도 평양이 있는곳, 최고사령부가 있는 그곳― 북으로 북으로 가고있었다.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오래도록 망설일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리숙은 전날 공병중대를 지휘했던 류현수를 눈길로 찾군하였다. 현수는 무섭게 충혈지고 아픔에 쪼프려진 사나운 눈빛으로 리숙의 말없는 물음을 알아들었고 동의해주었다. 하지만 리숙은 다음 순간에는 어쩐지 그 눈빛과 마주치기가 두려웠다. 아직 단 한번도 중대장이였던 그가 왜 전사로 되여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아픈구석을 건드리고싶지 않았다. 언젠가는 알게 될것을 그리고 꼭 알아야만 할 리유도 없는것을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하여 상처를 처치할 때에조차 그들은 말한마디 없었다. 리숙이로서는 응당 아프세요? 괴로우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는 말들로 부상자를 도와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류현수에게는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는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신음소리조차 없었다. 견갑골아래에 파편이 박혔으므로 상체를 움직일 때마다 단말마의 고통에 입귀가 비틀어지군했다. 그러나 참았다. 리숙이 처치를 끝내면 그가 먼저 말했다.

《고맙소.》

아픔과 고통과 힘껏 싸운데 대한 찬사였다. 자기가 아니라 리숙이 더 지독한 고통을 이겨냈다고 하는 역설적인 격려였다.

한번은 릉선의 숲속에서 령길을 가득 메운 적들의 자동차종대

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기관소리의 파도가 밀려오고있었다. 땅크발동기소리, 무한궤도소리, 수십대의 자동차들이 앙—앙 모지름쓰고있었다.

앞못보는 김상준이 속삭이듯 물었다.

《놈들이디요? 예?!… 북쪽으로 밀려가는가보디요?…》

아무도 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준도 더 묻지 않았다. 잠자코 귀를 강구며 오한이 나는듯 어깨를 흠칫거릴뿐이였다.

그때에도 리숙은 자기에게 겯주어진 류현수의 찌르는듯한 눈길을 느꼈다. 그러자 마음이 언짢아졌다. 나는 싫다. 정말이지 참을수 없이 싫다. 나를 비난하는듯한, 무섭게 질책하는듯한 동무의 그 사나운 눈빛이 싫다!… 리숙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걸음을 떼였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발걸음… 그래도 간다!…

전선은 멀리 북으로 옮겨갔고 그들의 걸음은 연자망처럼 느리다. 어느덧 먼 포성도 들려오지 않는다. 나날이 부상병들의 상처는 험해지고 먹을것도 거덜이 났다. 하나의 령을 넘는데 인제는 옹근 하루를 바쳐야 한다.

밤이 깊어서야 어느 골안에서 쉬기로 했다. 적막한 골안을 훑어내린 찬바람이 등판의 새초숲을 흔들며 지나가군했다. 지치고 굶주린데다가 춥기까지 하여 부상병들은 괴로와했다. 무선수였던 오윤남전사가 불을 피우자고 제기했다. 리숙은 망설이다가 결국은 동의했다.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좀 돌아보고 오겠어요.》

그는 어둠속을 걷고있었다. 그 녀자로서는 그외 더 할 일이 없었다. 약도 없고 식량도 없다. 극도로 허약해지고 지쳐버린 부상병들에게 해줄 위안의 말조차 없다. 걸음마다 밟히는 적들의 삐라는 전선이 38도선을 멀리 넘어갔다고 했다. 투항하라고 유혹하는 녀자방송원의 목소리도 더는 머리우에서 들려오지 않는다. 그 비행기들도 후퇴하는 인민군련합부대들을 노리고 먼 북쪽으로만 날아가는 모양이였다. 부상병들로 무어진 리숙의 일행만이 이 산중에 홀로 남은것 같았다.

가끔 큰 부대가 지나간 길을 발견하군했다. 풀대들이 짓이겨

지고 나무가지들이 부러져나간 길아닌 숲속의 대통로였다. 그것을 바라보느라면 그들만을 남기고 모두 가버린듯한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내리는듯했다.

리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서 부상병들이 불을 피우고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점의 불꽃을, 한점의 온기를 기다리고있다.

불꽃들이 흐트러지는것이 보였다. 누군가 엎드려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으나 저녁무렵에 내린 이슬비때문에 불이 당기지 않는것 같았다.

리숙은 어깨가 죄여들었다. 참을수 없이 오한이 잔등을 줄달음쳤고 눈굽이 따끔거렸다. 찝찔한 눈물의 온기마저 지금은 그리워났다. 그렇게 지금 저기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험한 상처를 입고 시달릴대로 시달린 사람들이 누워서, 앉아서 한점의 불꽃을, 한점의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리숙은 다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도 피곤이 심하고 하도 허기져 꿈속을 걷는듯했다. 갈마드는 생각도 두서가 없고 제멋대로였다. 어머니생각… 그러면 까닭없이 이어지는 애달픈 회한, 가슴속이 쩌릿해지고 눈시울이 떨려났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이러는걸 보면 아버지는 뭐라실가?…

외동딸 리숙이를 무던히도 끔찍이 사랑한 아버지였다. 자기 딸이 남달리 아름답고 지혜롭고 강인하다고 굳게 믿던 아버지, 리숙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성취할것처럼 그 아버지는 생각했었다.

《너 체육선수가 되고프냐?》하고 언젠가 아버지는 웃으며 물었었다. 《학교롱구팀에 들어갔다며?》

《글쎄 그렇긴 한데… 하필 체육선수는 왜요?》

《요즘 거게만 정신을 파니말이지.》

《아뇨. 나야 키가 작은걸요.》

《음—》

전기기술자인 리성조는 아무래도 자기 딸이 기술분야엔 적합치 않다고 본것 같았다.

《그럼 사회활동가가 되지. 로자 룩셈부르그같은.》

《연설말예요? 아버지, 선거선전때 보니 내 말이 제일 설득력이 없는것 같더군요.》

《그렇게 여겨질뿐이겠지. 요구가 높다보니.》

《참, 아버지두.》

《아니면 영화배우는 어때?》

《그럼 일생 남이 써준 대사나 옮기게요? 독창적인 제말은 없이…》

《독창적으로 하려무나. 넌 그런 재간이 있지 않니?》

《그래도 필림만 랑비할거예요. 사진에 박힌 내 얼굴 좀 보죠? 전혀 나갈질 않아요!》

아버지는 손을 내젓고말았다.

《어쨌든 넌 한우물을 파야 해!》

아버지처럼 말하던 또 한사람이 있었다. 의젓한 체구에 미남자이던 학교민청부위원장이였다.

《동문 어느쪽이요?… 롱구와 바이올린!… 물과 불이지. 그건 그렇고… 쓸데없는데 정력을 쏟지 말고 수학적재능을 살리오. 그러면 곧 두각을 나타낼거요. 웃지 마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갈릴레이가 말했듯이 동무야말로 수학이라는, 자연이 말하는 언어를 리해하고있단말이요. 이게 어디 간단한 일이요? 천부의 재능이지!》

그때 리숙은 자기의 박식과 다변을 뽐내려는듯 열심히 말마디들을 고르는 그의 잘 생긴 얼굴을 흘깃 치떠보고나서 유쾌하게 웃어댔다.

《동무에게도 천부의 재능이 있군요. 배우와 같은… 어쨌든 생각해줘서 고마와요. 그런데… 난 뭐나 다 하고싶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다!…》

시와 외국어, 학과경연과 연예선전의 류랑한 나팔소리로 응원받던 그 시절의 한토막 추억이였다.

…멀리 산너머 어데선가 발동기들의 소음이 울려오는듯싶었다. 리숙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그쪽에 북으로 가는 큰길이 있다. 미국놈들이 땅크와 대포를 끌고 쉼없이 밀려가는 큰길!… 지

금 전선은 어데 있을가. 우리 동무들은? 우리 부대는?… 놈들은 계속 북쪽으로 밀려드는데 우린 부절히 산속을 헤매며 지치고 굶주리고있구나!… 이렇게 속수무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못마땅해하는걸가?… 사납게 번뜩이던 류현수의 눈빛이 떠올랐다. 100여명나마 되는 중대를 지휘하던 사람,수수께끼같은 사람이다. 상처의 고통과 싸우는지,내심의 고통과 싸우는지 알수 없다. 어쨌든 무엇인가 피타게 갈구하고있는 사람이다. 가혹하게 자신을 매질하고있고 또 무섭게 달구고있다. 그냥 내버려두면 무서운 그 열광에 자신을 다 연소시켜버릴지 모른다.

리숙은 몸을 돌려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마음이 조급해났다. 퍼그나 멀어진 화토불을 바라고 덤벼치며 걸어갔다.

화토불에 이르자 부상병들이 그에게 자리를 틔워주었다. 화토불의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리숙은 자리잡고앉았다. 박원철과 오윤남은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뒤져 가재잡이를 하고있었다. 앞못보는 김상준은 그들 가까운곳에 앉아 참개구리도 찾아보라고 권하고있었다. 류현수는 보이지 않았다. 리숙은 그가 어데 갔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개울쪽에서 박원철이 다가왔다.

《보초근무를 서겠다면서… 저기 등성이쪽으로 갔습니다.》

《뭐라구요?》 리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몸으로… 무슨 보초근무를 말하는거예요?》

박원철이 쭈밋거리다가 뜨직뜨직 대꾸했다.

《보초도 없이 어떻게 불을 피우고 잘수 있는가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성을 내면서… 다들 굶주리고있는데 동무야 할 일이 좀 많은가 하면서… 갔습니다. 누구도… 막을수 없었습니다.》

다른 부상병들이 그것을 확인하였다. 명령하기에 습관된 강경한 어조로 사람들을 눌러놓고 그자신은 보총을 메고 나섰다는것이다.

리숙은 아무말없이 몸을 홱 돌려 류현수가 갔다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차츰 걸음이 빨라졌다. 격해지는 심정을 누를길 없어 거의 반달음쳤다. 그때 누군가 숨을 헐떡거리며 뒤따라왔다. 리

숙이 걸음을 멈추자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채인 박원철이 앞을 막아나섰다.

《간호장동무, 제가, 제가 가서… 교대하겠습니다.》

리숙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동무들은 뭐예요. 누가 보초를 서라고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제멋대로 맡아나서나 말예요. 제가 있고 간호원도 있는데… 또 몸이 성한 동무도 있는데 어쩌면… 상처가 중한 부상자를 혼자 가게 할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그렇지만 간호장동무, 간호장동문 그가… 우리 중대장동무가 얼마나 괴로와하는지… 다 모를겁니다. 뭐 상처때문에 그러는줄 압니까. 왜 보초를 선다고 갔는지 압니까？ 혼자 있고싶어서… 그래서 갔을겝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간호장동문…》

어둠속일망정 그가 몸을 떠는것이 알렸다. 차츰 흥분으로 하여 숨결마저 가빠지고있었다. 리숙이 몸을 움직이자 또 그를 가로막아나섰다.

《간호장동무！ 말이 난김에… 좀 하겠습니다. 간호장동문 우리 중대장동무가 어떻게 돼서 전사가 됐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도대체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건 간호장동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분합니다. 난 간호장동무가 그런줄은… 정말 그렇게 박정하고 무정한줄은 몰랐습니다.》

《예, 뭐라구요？》

《물론 부상병들때문에 잠도 못자고… 고생이 막심한줄은… 압니다. 하지만 간호장동문 왜 아직 한번도 우리 중대장동무가 어떤 무서운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지 않는가 말입니다. 예？… 우리 중대장동문… 총살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간호장동무때문에… 뭐 알기나 합니까？！…》

《？！…》

리숙은 후려맞은듯했다. 미처 아픔도 느낄새 없이 누구인지 무

섭게 매질한듯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있었다. 폐부를 찌르는 차고도 매운 바람… 박원철이 또 격한 말마디들을 퍼부었다.

《간호장동문 다 잊었겠지만 우린 기억에 생생합니다. 언젠가 우리 도하장에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부상병들을 후송해오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배떼다리를 폭파할 임무를 받고있던 우리 중대장동문 기다렸습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넘도록 간호장동문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놈들의 땅크가 달려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끝내 우리 중대장동문 체포되고 상부에선 총살할것을 명령했지요. 그것이 최고사령부에까지 보고되고… 비록 총살명령은 취소되였지만… 보다싶이 전사로 강직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대장동문… 죽기로 싸우면서… 피로써 과오를 씻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 하는데… 그런데도 간호장동문 뭐라구요? 제멋대로라구요?…》

그는 목구멍이 칼칼해서 마지막 말마디들은 겨우 넘기고있었다. 어느덧 리숙은 온몸을 덜덜 떨고있었다. 무엇인가 그의 가슴을 게염스럽게 파먹고있는듯했다. 아픔과 쓰라린 울분과 분노와 노염이 덩이덩이 뭉쳐서 목구멍을 꽉 틀어막은듯했다. 그는 울컥울컥 치미는 마음속 번열을 삼키며 부르짖었다.

《그럼 동문 어째서… 이제야 그 말을 하는거예요. 왜 아무말없이 있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말하면 우리 중대장동무가 가만 있을것 같습니까?》

《그만해요!》 드디여 리숙은 힘껏 웨쳤다. 《옹졸해요. 동문!…》

리숙은 박원철을 밀치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등성이로,어둠속으로 마구 헤덤벼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쩔새없이 돌뿌다귀를 걷어찼다. 뼈에 사무치는 전률이 허벅지를 따라 쭉 뻗어올랐다. 그는 허리를 꺾고 주저앉으며 앞코숭이가 터져나간 장화앞끝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물렀다. 불같이 지지는 고통에 마음이 구깃구깃해졌다. 쓰리고 아프고… 어찌 알았으랴.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

졌을줄이야. 그 누가 상상인들 했으랴!… 그날 덕암산의 방어진지에서 부상병들을 찾았을 때엔 벌써 적들이 주변을 온통 덮고있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다 죽는줄 알았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탄갑을 모았고 탄알을 세여 나누었었다. 그러다가 정찰소대가 달려와 그들을 도와 강을 건느게 해주었다. 그저 그뿐이다. 전쟁판에선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서 그들은 그 일을 곧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한 공병중대장은 그 일로 하여 총살을 선고받았었다고 한다!…

벅찬 흥분과 아픔이 심장을 비틀었다. 리숙은 오한이 나는듯 온몸을 떨며 마음속으로 현수를 향해 부르짖었다.

《현수동무! 그런 일이라면야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말한마디 없이… 제가 도울일은 없을가요? 제가… 우리가 도우면 안될가요?…》

언틀먼틀한 비탈을 허우적거리며 올라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멎어섰다. 헐떡거리며 움직이고있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웅크러뜨린 그림자, 어깨우로 비쭉 솟아있는 총창, 류현수였다. 아직 등성이를 절반도 채 오르지 못하고 멎어있었다. 보총을 세워짚고 잔뜩 몸을 뒤틀고있다. 숨가쁘게 헐썩거리다가도 신음소리를 삼키느라고 부득부득 이발을 갈고있다. 그에게서는 살을 저며내는것 같은 아픔이 찬바람처럼 전해오고 있었다.

리숙은 숨조차 쉬는것 같지 않았다. 찬바람이 이슬젖은 풀대들을 흔들었다. 그때마다 리숙은 오한이 나는듯했다. 더는 한발자국도 움직일것 같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헐떡거리고 끙끙 모지름을 쓰는 시커먼 그림자만 지켜보고있을뿐이다. 이슬비에 질벅해진 흙이 장화밑바닥에 짝 엉켜붙은것을 느꼈다. 심장에 사무쳐오는 불길같은 아픔, 왜 이리 안타까운가, 어째 이리 고통스러울가?… 현수동무, 어쩌문 좋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어느새 두볼은 뜨거운 눈물에 젖고있었다. 부지불식간에 시커먼 그림자를 향해 달려나갔다.

《현수동무!》

눈물에 젖은 부르짖음이였다. 그 소리에 현수가 머리를 돌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얼른거렸다. 또 한번 신음소리를 삼키는듯했다. 그다음 리숙을, 울고있는 리숙을 알아본것 같았다. 드디여 그의 굳어진 눈동자속에서 한점 불빛이 떨렸다.

《간호장동무가？…》

《예, 저예요. 리숙이예요！》

오열을 삼키며 비틀거리는 현수를 붙잡았다. 팔을 돌려 그의 어깨를 감아안으며 조심히 부축해 일으키려니 가슴둘레로 뜨거운 경련이 지나갔다.

《가자요.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골바닥에서 차거운 안개가 흘러오고있었다. 별빛하나 없는 밤하늘에서 역시 누기찬 어둠이 무겁게 땅을 짓눌렀다.

리숙은 앙당그려문 이발사이로 가쁜숨을 내그으며 현수를 부축해갔다. 발밑의 풀줄기가 미끄러웠다. 차츰 목구멍에서 무엇이 가릉거렸다. 현수가 멎어섰다.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거칠게 속삭였다.

《됐소, 인젠… 나혼자서 갈수 있소.》

《…》

리숙은 아무말도 않고 현수가 들고있던 보총을 당겨왔다. 그리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보총의 총창에 활활 달아오른 볼을 대였다. 이슬 젖은 총창에서 차디찬 음향이 울려왔다. 물론 혼자서도 갈수 있겠지. 그처럼 무섭게 강심을 먹고있으니 죽음도 이겨내겠지. 하지만… 우린 어째서 서로 도우면 안되는가？ 우리 서로 고통과 아픔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헤쳐갈수 있지 않는가？！… 리숙은 아프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습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러자 등성이우의 풀숲에서 무엇이 설렁거렸다. 불쑥 리숙이 물었다.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했어요？》

《？…》

현수는 어리둥절해진듯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리숙은 애써 흥분을 누르며 자기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목에 긴장을 주었다.

《나도 다 들었어요. …거기 도하장에서 우릴 기다리다가 끝내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걸… 들었어요. 결국 나때문에 중대장동무가…》

리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얼결에 손을 올려 자기의 입을 막았다. 그와 마주서있던 현수가 갑자기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급격히 몸을 떨었던것이다.

《무슨 소리! 그게 아니요!》 그는 부르짖었다. 허턱대고 두릿거리며 비틀거리면서도 리숙이 부축하려들자 세차게 밀막았다. 《누가 그렇게… 동무들때문에 어찌 됐다고 합디까?…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명령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요. 난… 말하고싶지 않았지만… 이왕 말이 났으니… 합시다. 간호장동무, 난…총살선고를 받았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할 임무를 받은 한 상급예심원은… 중상을 입고도 병원으로가 아니라 전선사령관동지를 만나려고… 갔소. 거기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나도 다 모르오. 하지만 난… 내 문제가 최고사령부에까지 보고되였다는것을 알게 됐소. 생각만해도… 가슴이 막 떨리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간호장동무때문이겠소. 절대 아니요. 나는 사실… 죽을 죄를 지었소. 제때에 명령을 집행하지 못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소. 또 부상병들이 멀지 않은곳에 있고 간호장동무랑… 거기 갔는데… 도울 생각도 않고있었소. 그러니 내가 무슨 지휘관이겠소. 지휘관의 자격은 고사하고… 죽어도 마땅하오!… 그런데 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소. 총살선고를 받았던 내가!… 간호장동무, 어떻게 이리 됐는지 아오? 난 지금… 심장으로 느끼고있소. 지금같은 때에, …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나같은 한 전사의 운명까지 다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의 뜨거운 정을 느끼고있소. 난 살아서 피로써 그 은정에 보답하겠소. 다시 진격하는 날, 승리한 그날엔… 난 죽어도 한이 없소. 한이!…》

리숙은 울고있었다. 왜 울고있는지 자신으로서도 그 리유는 설명할수 없으나 소리도 없이, 옷섶이 흠씬 젖도록 울었다. 와들와들 떨면서 리숙은 그를 부축해가고있었다. 왜 그런지 아버지 생각이 났다. 계모도 생각키웠다. 무엇때문인지 이제 그를 만나면 어

머니라 부를수 있을것 같았다. 모두들 이 전쟁을 떳떳이 이겨내고 다시 한데 모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것 같았다. 그렇다! 우리는 이길것이다. 힘을 내야 한다. 힘을… 우선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가 용감성과 위훈으로 과오를 씻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고사령부에 보고되였다고 하니 이 깨끗한 사람의 운명은 제대로 될것이다. 내가 이 사람의 상처를 고치자. 다른 누구의 손을 빌것도 없다. 나라고 왜 못한단말인가. 이 사람처럼 강심을 먹고 달라붙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나자신이 수술을 하여 상처에 박혀있는 파편을 왜 파내지 못하겠는가!…

등판우의 짚더미들이 가까와졌다. 어둠속에 고깔모자같이 솟아있는 짚더미들… 리숙은 그리로 현수를 부축해갔다.

19

어느덧 산과 들은 울긋불긋 가을철단장을 끝내고있었고 먼 남쪽과 북쪽에서는 철새들이 날아가고 날아왔다.

락동강기슭에서 떠난 인민군주력부대들도 퇴색하는 산발을 타고 38도선부근에 이르렀다. 팔공산을 떠나 오대산,태백산을 거쳐 오는 부대도 있었고 가야산,속리산을 떠나 어언 림진강에 이른 부대들도 있었다.

적들도 역시 38도선이북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공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전쟁의 열점은 38도선을 가운데 두고 무섭게 가열되고있었다.

기나긴 민족분렬의 수난을 지켜온 38도선!… 원래 이것은 《국경》으로 설정된것이 아니다. 1945년 8월 10일이였다. 그날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겠다는것을 련합국정부들에 통보하였다. 그러자 일본관동군이 적어도 몇달은 쏘련군과 싸우리라 믿고있던 미국정부는 몹시 당황해했다. 예상했던것보다 사태가 빨리 도래했던것이다. 트루맨은 특히 조선반도문제로 초

조해했다. 당시 만주에는 쏘련군, 중국에는 장개석군이, 동남아시아에는 미, 영군 등 각기 해당한 련합군이 있었으며 일본본토에는 미군이 주둔할 작정이였으므로 조선반도만이 공백이였다. 더우기 여기서는 무조건 항복이후에도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저항하기로 결의한 조선군관구 제17방면군 등의 일본군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들의 무장해제를 누가 맡겠는가를 시급히 결정해야 했다. 즉 누가 조선반도를 차지하겠는가를 결정해야 하는것이다.

1945년 8월 10일, 아침 일찌기 트루맨은 국무장관 번즈, 륙군장관 스팀손, 해군장관 니미츠를 불러 비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먼저 **김일성**장군 령도하의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조국해방작전준비를 완료하고 국경연선으로 진출하고있는 사정이 커다란 우려속에 검토되였다. 자칫하다가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처럼 빨찌산들이 자기 조국의 수도를 해방할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미국이 개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또 쏘련군대가 만주에서 물밀듯이 남하하는 사정도 불안스러운 일이였다. 시간을 놓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극동의 조선반도를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맡길수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비상회의는 일본군의 항복을 《북부조선에서 받》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조선북방》을 어디로 정하겠는가가 문제였다. 리유가 있어야 했던것이다. 하는수없이 트루맨은 《3부조정위원회》가 대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령했다. 《3부조정위원회》는 국무성, 륙군성, 해군성의 장관들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 국무차관 러스크까지 참가하여 조선반도의 북위 38도선이남을 일본대본영륙군이 관할하고있었던만큼 대본영륙군의 항복을 저들이 받는것으로 하여 38도선 이남을 차지하자는 모의를 했다. 그것은 당시 조선중부 이북의 군관구는 관동군의 지휘하에 있었고 관동군은 쏘련군대의 작전대상인 반면에 조선중부 이남의 일본 제17방면군은 미군의 작전대상인 대본영륙군야전부대이기때문이였다.

38도선 이남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이 계획은 또한 당시 미군의

태평양륙군주력이 필리핀에 있고 조선에서 제일 가까운 미제24군단도 오끼나와에 있으므로 일본과 동시에 조선반도를 관리할만한 병력의 여유가 없었던 사정과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일본군무장을 해제하자는 대안은 트루맨의 비준을 받고 쏘련정부에 통고되였다. 그때 미국은 쏘련이 전략적고려에 의하여 더 남하할것을 완강히 요구하리라고 생각했으므로 몹시 불안해하고있었다. 하지만 쏘련은 미국과의 교섭에서 앞으로 받아내야 할 정치적문제들을 고려하여 이 제의에 간단히 동의해버렸다.

이렇게 되여 조선반도의 순수 지리학적 위도선에 지나지 않던 38도선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쏘미량군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그어진것이 한달후인 9월 7일 미제침략군의 선발대가, 다음날엔 오끼나와에 있던 미제24군단의 2개 사단이 악명높은 하지중장의 지휘하에 상륙하면서부터 군사, 정치적분계선으로 고착되고 3,000만 조선민족도 북에 900만, 남에 2,100만명으로 갈라졌다.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처음은 그저 논가운데로 뻗어간 도로상에 하나의 쇠사슬을 늘이고 나무로 대충 만든 초소가 하나 세워지던것이 나라를 가르고 민족을 갈라놓았다. 또 여기서 미제침략자들은 참혹한 전쟁을 도발하였고 지금은 이 분계선을 땅크로 짓뭉개며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미친듯 침공을 다그치고있다.

극적인 1950년 10월의 사변들은 이렇게 38도선을 넘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적들은 평양에로의 접근로들에서 특히 미친듯이 공격을 다그쳤다. 미제8군의 기간을 이루는 미1군단 관하 미제1해병사단, 영제27려단, 미제24보병사단, 괴뢰군1보병사단 등이 이 방향에 집중되였다. 조선 중부와 동부에서는 괴뢰군 2군단과 1군단이 각기 양덕과 원산을 목표로 전진하였고 인천상륙작전부대였던 미10군단은 원산상륙을 준비하고있었다.

맥아더는 추호도 승리를 의심치 않고있었다. 그의 휘하에는 어언 륙상부대만해도 미군 12만 5,200명, 괴뢰군 10만 2,000명, 영국, 필리핀 등 추종국가군대 2만여명, 합계 24만 7,200명의 미군과 괴

뢰군 병참부대 11만 9,600명,미극동공군 3만 7,000명,미극동해군 5만 9,500명,총병력 46만 4,300여명에 달하였다. 지난 그 어느 시기에도 맥아더는 이러한 대군을 지휘해본적이 없다. 그는 도꾜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인민군대에 《항복》을 권고하는 《최후통첩》이였다. 동시에 조선말로 된 성명문 250만매를 38도선과 평양 등의 주요도시들에 살포했다.

력사는 같은 날 베이징에서 발표된 하나의 강경한 성명도 기록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은래외교부장은 그 성명에서 미제의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침략전쟁을 중국인민은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놀라운 이 사태발전을 지켜보며 세계는 긴장해졌다. 제3차 세계대전 위기설이 나돌았다. 새로운 열핵전쟁에 대한 기사들로 서방세계의 신문,잡지들은 떠들썩했다. 세계각국의 모든 통신사의 안테나들은 극동에서 울려오는 사소한 음파라도 놓칠세라 고도로 예민해졌다. 수억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기들의 무차별폭격이 있은 역전광장부근을 돌아보고계시였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전차길에서는 엿가락처럼 휘여든 강철레루가 보도우에까지 삐여져나와있었다. 피빛의 불길이 사방에서 너울거렸다.

그이께서는 페허를 가로질러 가시였다. 화광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시였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없이 근엄한 눈길로 가슴아픈 파괴의 정상들을 하나하나 더듬고계시였다.

놈들은 이러한 야만적인 만행으로 우리 인민을 놀래우려고 한다. 전대미문의 무차별폭격으로 우리 인민의 의기를 꺾고 굴복케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폭격을 들이대고있다.…

사람들이 뛰여다니고 고함을 지르고있었다. 어느 골목길에서는 한 처녀가 거쉰 소리로 통곡하는 늙은이를 부축해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국립인민출판사 인쇄소 근처였다. 바람이 불면서 상공을 뒤덮은 연기와 재티를 몰아왔다.

《인젠 이 대통로에 성한 집이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

만！…》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부관장이 보고드렸다.
《어제도 놈들은 서평양조차장일대와 평천리에 500키로짜리 폭탄과 소이탄 900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각사무국에서 장악한 자료입니다.》
《…》
그이께서는 묵묵히 대동교로타리쪽에서부터 역전광장에 이르는 페허의 참상을 둘러보시였다. 울퉁불퉁한 담벼락무지와 구뎅이들, 철골들이 비쭉비쭉 드러나있는 벽체, 줄이 끊어져드리운 전주대며 아직도 화재의 불길이 날름거리는 지붕들… 그쪽에서 사람들이 불을 끄며 떠들고있었다. 그쪽의 소음때문에 그이께서는 멀지 않은 길건너 전주대우에 올라간 청년이 웨쳐대는 소리를 처음엔 가려듣지 못하시였다.
《저 동무가 뭐라고 소리치오？》
부관장은 귀를 강구다가 길 건너로 가려고 했다. **김일성**동지께서 그의 팔소매를 잡으시였다.
《가만, 들어보자구.》
청년은 불을 끄며 돌아치는 사람들을 향해 웨치고있었다. 떠들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인제는 청년의 목소리를 가려들으실수 있었다.
《들리지요？… 인젠 됐지요？》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청년이 줄이 끊어진 고성기를 이어놓으러 전주대에 올라갔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그쪽에서 웅웅하는 잡음에 뒤섞인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사람들은 일손을 놓지 않으면서도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방송원과 외국기자들의 대담이 진행되는것 같았다. 《데일리 워커》지 특파원 워링톤과 프랑스, 중국 등 외국기자들이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만행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격분에 넘친 어조의 각이한 외국말들이 쏟아져나오고 그를 통역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어 대담이 끝나고 방송원이 무슨 말인가 하더니 음악이 흘러나왔다. 허름한 모자를 뒤통수에 비딱하니 붙여쓴 전주대우의 청년이

또 소리쳤다.

《들어보라요. 〈발갈이타령〉이 나와요!》

청년은 한손으로 무슨 시늉인가 하고는 다람쥐처럼 날래게 기여내렸다. 사람들이 그의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칭찬하는것 같았다. 청년이 큰소리로 무어라고 말하자 둘러섰던 사람들이 큰소리로 웃어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이 다가온 차결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느새 부관장이 앞서가 승용차문을 열어드렸다.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머리를 돌려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오는 그쪽을 바라보시였다.

수도에로의 접근로들에서 전투가 치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정든 거리를 떠나가는 이때 사람들이 웃고 고성기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있는것을 무심히 스쳐지나실수 없으시였다.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발갈이가세

사람들이 전쟁에 습관되고있다. 승리의 환희도 알고 일시적인 난관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결코 다가오는 시련을 무섭게만 보지 않는 법이다. 그들은 용기를 가다듬고 그것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 오르시였다. 고성기의 노래소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귀담아 들으시였다.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러불러

그렇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불러 원쑤격멸에 궐기시켜야 한다. 인민은 위대한 힘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지금 기가 죽어가고있다. 전인민적항전으로 적들의 침공을 저지시키고 이 전쟁을 거꾸로 돌려세울수 있다는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집무실로 들어가시던 그이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였다. 부관실 한쪽벽에 붙어있던 조선지도가 보이지 않는것을 발견하신것이였다.

기술서기 오영혜가 그린 지도였었다. 다심한 처녀는 매일 최고사령부보도를 들으며 새로 해방된 도시나 마을을 붉은기로 표시하군했었다. 엊그제는 의정부, 서울, 어제는 수원, 평택, 충주… 나날이 늘어가는 기발을 가리키며 처녀는 기쁨에 넘쳐 부르짖군했었다.

《장군님! 금방 나온 보도를 들으셨습니까. 조치원을 또 해방했답니다!》

처녀는 마치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받은것처럼, 자기만이 알고있는것처럼 뛰여다녔었다. 때로는 그이께서 집무실을 나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새로 그려넣은 기발과 지명을 보여드리기까지 했었다.

《장군님! 인젠 부산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지도가 없다. 누군가 그것을 떼여버렸다. 이제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지금은 후퇴하는 때이므로 승리적으로 공격해나가던 시기의 지도가 가슴아픈것으로 느껴지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인민적항전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승리의 기발들을 꽂아야 할게 아닌가. 그러므로 더 큰 지도가 있어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 그 지도를 떼여버렸고 다른 지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책상우에 종이를 꺼내놓으시였다. 며칠전부터 줄곧 생각해오신 방송연설원고를 쓰시려는것이였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난후 두번째로 하시는 방송연설로 될것이다. 첫번째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에 있었다. 그날의 연설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이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시고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다 바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리하여 그이의 호소따라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는 반공격에로 넘어가 천리 남진의 길을 헤쳐갔었다.

그러나 오늘 정세는 급변하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엄중한 위협이 닥쳐와 나날이 커가고있다. 드디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일어나 침략자들과 판가리싸움을 벌릴 때가 도래하였다.

그이께서 힘주어 펜을 달리시였다.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

그때 홍명희부수상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후방으로 자리를 옮기기에 앞서 인사를 드리러 찾아온것이였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서류도 든것이 없이 빈손으로 그이앞에 나타났다. 장군님께서 떠나시기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집해온 그였으나 부득불 인제는 떠나는수밖에 없었다.

《장군님! 만경대학원과 과학,교육기관 일군들도 다 소개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백해진 홍명희의 안색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잘됐습니다. 그런걸 저는 선생이 너무 지체하신다고 걱정하고있었습니다.》

《저… 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위차와 인원을 더 많이 조직해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싸움을 겪고있는 때 정부기관의 인원으로서 경망히 굴면 되겠는가,전선에서는 지금 보총 한자루가 귀한 때인줄 모르는가 하고 말좀 했더니 좋지 않아하면서도 시골에 있는 촌가에 들려 며칠 치료를 하고 찾아오겠다기에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바래주고 오는 길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요구하는대로 해줄걸 그랬습니다.》

《장군님!》 홍명희는 힘들여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눈귀로부터 허연 판자노리쪽으로 잔주름살들이 파문지어갔다.

《저는 장군님께 긴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 황망히 들렸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어찌하여 장군님 자제분들은 아직 위험속에 남겨두십니까. 이번에 제가 자제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군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아무말씀도 없이 서계시였다. 홍명희의 그 말은 그이의 마음속에 항시 묵직하게 덩이지어 자리잡고있던 아픔을 상기시키시였다. 이 아픔은 어머니를 잃은 때부터 밤에 홀로 있기 무서워하는 어린 경희와 너무도 이른 나이에 그애의 보호자격이 되여 마음속 슬픔과 고통도 애써 감추며 동생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 어리신 아드님에 대한 애틋하고 눈물겨운 사랑에 근원을 둔것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벌써 그이께서는 평소의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시였다.

《념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선생이야 얼마나 큰 중임을 안고 가십니까. 그러니만큼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 이미 믿을만한 사람한테 부탁해놓았습니다.》

《장군님!》

《정말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이께서는 몸을 돌려 탁자앞으로 걸어가시였다. 책상서랍을 열고 그속에서 비로도천에 싼 권총을 꺼내시였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다섯간 정도에서는 잘 맞습니다. 보통때는 탄알을 따로 건사해두십시오.》

《장군님! 전…》

《일없습니다. 이걸 가지고계시면 마음이 더 든든해질가 해서 드리는것입니다. 정숙동무가 쓰던 권총입니다.》

《예?!… 그럼… 녀사께서 쓰시던것을 어떻게 제가…》

《어서 받으십시오.》

홍명희는 입술을 실룩거리고있었다. 짧게 비다듬은 코밑수염이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그이께서 재차 권하시자 옷섶에 손을 문지르고 정히 받아들었다. 비로도천에 싼것을 풀어볼념도 않고 꼭 받들어 쥐고있었다.

《로상에서 적기들의 공습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이께서 조용히 계속하시였다. 《어련하시겠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림지에 도착하면 내각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십시오.》

《장군님, 이처럼 불미한 저에게…》

《뭘 그러십니까. 김책동무가 내각사업에서 떠난이래 부담이 많으신줄 알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정문에까지 나가시였다.

《선생을 믿습니다. 그럼…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장군님! 저희들은 그저 장군님께서 기체무고하옵기만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장군님!》

이런 말을 남긴 홍명희를 바래신후 다시 집무실에 돌아오시였을 때 기다렸던듯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드시자 김종항비서 (내각사무국 부국장겸임) 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드렸다.

《장군님! 리승기박사의 가족과 실험설비를 무사히 실어보냈습니다. 호위원들도 조직해주었습니다.》

《잘했소.》

《그런데… 장군님께서 알아보라고 하신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와 계응상선생의 행처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송수화기만 꾹꾹 누르고계시였다.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가 《도주》한것으로 알려진이후 계응상박사 역시 행처불명이 되였다. 고정한 그 로인은 원산농업대학의 초청강의때문에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철길이 끊어져 지체되자 시간이 촉박해져 도보로라도 간다면서 차에서 내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무려 한주일나마 흘러갔건만 종무소식이였다.

하여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리성조의 경우처럼 《도주》라고 락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리고는 더이상 알아보지도 않았다.

놀라운 일이다. 전선형편이 어려워지자 많은 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관심하고 돌봐주어야 할 귀중한 인재들에 대하여 잊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라의 운명이 위급한 때에 개별적사람들의 운명까지

야 어떻게 돌아볼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른 손에 송수화기를 바꿔드시였다. 애써 흥분을 누르며 말씀하시였다.

《우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을 더 아끼고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하오. 그런데 실종된 박사에 대해서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있었으니… 얼마나 엄중한 일이요. 즉시 모든 중앙기관, 대학, 연구집단 특히 유능한 인테리들의 소개정형을 다 장악해야겠소. 대학교원, 학자, 설계가, 작가, 예술인…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소. 그런데 지금은 정세가 위급하다고 내버리고있소. 안되오! 한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야 하오. 즉시 대책을 세우시오!…》

다시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에야 그이께서는 펜을 드시였다.

20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는 지금 자기가 《도주》한것으로 인정되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리유로 장군님께서 몹시 걱정하시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시는줄도 모르고있었다. 리성조는 가지가지의 우연과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한것을 자기의 운수가 나빴기때문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곡절은 내각사무국에서 그를 찾던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때 리성조는 군자리의 기계공장에 출장중이였었다. 그곳에서 여러 로동자, 기술자들과 더불어 각종 변압기와 수력타빈 제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있었다. 밤중이였다. 공장지배인이 그를 직접 찾아와 한옆으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다.

《내각사무국 부국장동무가 전화로 찾소. 급한 문제인것 같소.》

전화를 받고나서야 리성조는 지배인의 낯색이 왜 그처럼 어두운지 알수 있었다. 그는 당장 공장을 소개할데 대한 아름찬 과업을

받았던것이다. 리성조에게는 현재 북방으로 이설되고있는 군수공장들에 대한 동력보장임무가 차례졌다.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기사장동무.》하고 내각사무국 부국장은 말했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소개되고있는데 전기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다 파철무데기로 되고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기관리국 기사장동무에게 직접 이 어려운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군님께서도 아십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병기생산국에 배속되여 일해주십시오. 서병호국장동무를 아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국장동무와 곧 련계를 가지십시오.》

병기생산국 서병호국장은 벌써 전화를 부탁하고있었다. 견결한 의지를 가진 사나이답게 청높은 목소리가 수화구를 쩡쩡 울렸다.

《기사장동무지요? 난 병기생산국장이요. 서병호라구 하는데… 에—같이 손잡구 일해봅시다. 그럼 곧 일에 착수할수 있겠소?… 아아, 그래주면 더욱 좋지요. 어려운 때이니만큼 언제 모다앉아 말공부질이나 하고있겠소. 난 그런건 질색이요. 그럼… 우선 현지로 떠나시오. 거게 가서 봅시다!》

서병호는 간명하고 무게있게 말할줄 알았다. 흔히 아무런 론리도 세울줄 모르는 일군들이 주석단에 앉아 남의 토론을 중단시키고 한바탕 판에 박은 연설을 하기 좋아하는 법이다. 서병호는 그런 류와는 달리 자기가 하는 한마디한마디가 기억에 남도록 할줄 알았다. 그리고 무섭게 요구하고 에누리없이 정확히 받아내였다. 리성조는 그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을 소문으로나마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당장 현지로 떠날 생각이였다. 그러나 전화가 끝난 후에야 하루 혹은 이틀쯤 말미를 얻지 못한것을 후회했다.

그는 안해를 두고 훌쩍 멀리로 가버릴수 없었다. 앞일을 기약할수 없는 이때 그대로 가버리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빚어질것이라고 생각했다. 안해가 다른 아낙네들같으면 언제까지 어느곳으로 짐을 싸가지고 찾아오라 하는 글쪽지만 보내도 될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안해 장영실은 사정이 달랐다. 해방직후의 어려운 정세하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고 피한들이 협박하려들자 서울로 가자고 끈덕지게 졸라대던 안해였다. 하얀 주먹으로 연탁을

두들겨대며 입에 거품을 물고 《프로혁명》을 부르짖던 사람들에게서 제나름으로 공산주의리념의 난해성과 가혹성을 보았고 그들이 기술자인 남편을 무대에 끌어내여 《친일분자》로 날카롭게 지탄할 때 불상용의 확실한 근거를 찾아본 장영실이였다. 그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두렵게 생각했으며 그때문에 새로운 생활에 적응될수 없었다. 그러한 장영실이 이제 먼 북관땅—궁벽한 시골농가 혹은 널판자로 대충 간막이를 한 로동자들의 림시거처로 찾아오리라고는 믿을수 없었다. 젊고 아름답고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있는 녀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그의 안해 역시 의심이 많고 도고하면서도 여리였다.

리성조는 결심했다. 북행차를 갈아타야 할 도중역에서 그대로 눌러앉아 평양으로 향했다. 집에 가서 안해를 설복하여 현지로 떠나갈 생각이였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니 우연적인 일이 그를 지체시켰다. 적기들의 야간폭격으로 철다리가 끊어진것이다. 지리하고도 피로운 낮과 밤을 기다린끝에 다시 출발한 렬차였지만 그동안 연착된 군수렬차들에게 밀려 한정없이 느리게 움직여갔다. 평양을 가까이 한 어느역에서 또 항공습격을 받은뒤 선로반원들이 끊어진 철길보수에 떨쳐나서고 역장실의 전화통에 매달린 역원들과 호송군관들이 겨끔내기로 먼곳의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고있을 때 그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걷기로 작정했다. 땀과 먼지를 들쓰고 다음날 아침에야 신리의 옛 관청주택가를 멀리서 바라볼수 있었다. 그동안 자기때문에 어떤 비상조치들이 취해져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른 불안으로 가슴을 조였다. 근래에 적기들의 폭격이 더욱 우심해졌었다. 폭격통에 혹시 무슨 불상사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지칠대로 지친 그였지만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부르튼 발바닥에서 물집이 터진것 같았다. 쓰리다못해 바늘끝으로 마구 쑤셔대는듯했다.

집이 가까와졌다. 알싸한 끄을음내 풍기는 골목길을 꿰질러갔다. 그쪽에 여러채의 벽돌양옥들이 성한채로 줄지어있었다.

뜨락에 들어서자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무너지듯 토방우에 주저앉았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고 또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제길, 무사하군. 제법 조용하기까지 한걸. 어처구니 없이… 헌데 어델 갔을가?)

호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았다. 그런데 열쇠가 없었다. 옆구리에 끼고온 서류가방을 열어 발칵 뒤졌다. 다음번엔 양복주머니로부터 차례차례 깐지게 찾아보았다. 그래도 열쇠는 나지지 않았다. 늘 열쇠를 잃어버리군하기때문에 안해는 한달이 멀다하게 새 자물쇠를 사오군했다. 끝내 열쇠는 나지지 않았다.

그때 이웃집 로파가 문을 열고 그가 헤덤비는 모양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이사람 또 쇠대를 잃어먹었나?》

《예, 할머니! 처한테 또 야단맞게 됐구만요.》

로파는 쯧쯧 혀를 차며 측은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사람이 그리 고정한지 원!…》

그는 면구스럽게 웃었다.

《그까짓 자물쇠 또 사오라지요.》

《그 말이 아닐세.》 로파는 가슴을 우벼내는듯한 기침소리끝에 또 나무람했다. 《안사람한테 너무 어자어자해선 못쓰네. 어제밤 어데로 가버린다면서 나갔네. 남들처럼 피난을 가자는겐지 아니면 영 집을 나가버린다는겐지 그 안속을 뉘라서 알수 있겠나.》

그 순간 리성조는 머리속에서 부시돌이 부딪치는듯한 야무진 소리가 나는것을 들었다. 그러자 한점 의혹이 불꽃처럼 펀뜩이였다.

《서울로 가요. 예? 예서 당신이 할일이 뭐예요. 거게서 당신을 데리러 사람까지 오지 않았나요. 가자요. 당장 떠나자요!》

해방직후의 일이였다. 밤마다 울며불며 간청했었다. 그다음 리성조가 산업성전기관리국 기사장으로 임명된후에는 밤낮없이 집을 나가 사는 남편을 원망하고 지청구를 퍼부었었다.

《기사장이란 벼슬덕에 차례진게 뭐예요. 나를 집지기로 만든것밖에 더 있어요?…》

《왜 또 야단이요.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오자 곧장 오질 않았소. 자, 뚱해서 그러지 말구 저녁이나 짓소. 가만 이 정신 봐라. 내

그걸 어데 뒀더라? !… 만년필말이요.》

그때 리성조는 사실상 자기의 가죽가방속에 있는 그것을 찾느라고 주머니를 열심히 뒤졌다. 안해의 기분을 눅쳐주려고 수선을 떨어본것이다. 허나 안해의 얼굴은 굳어져있었다.

《그게 그렇게 귀중한거나요?… 그런걸 난 진종일 내 청춘은 어데로 갔나 하고 찾았군요.》

리성조는 안해의 마음에로 통한 열쇠조차 가지고있지 못했다. 가정,행복 하는 말들은 다 허망한것이였다. 사랑도 역시 서가에 꽂힌 소설책의 먼지오른 갈피들에서 아직 현실로 환원되지 않았었다. 그래도 그는 기다렸다. 가정의 화목과 애정,행복을 갈구했다. 《잃어진 청춘》을 찾고있는 안해를 끔찍이 위해주었다. 이런것을 사랑이라 하는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지난날 병으로 잃은 전처는 조용했고 헌신적이였다. 말없는 그 꾸준함과 희생적인 헌신성이 오히려 그를 돌아보지 않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리성조는 오래도록 자기 안해가 앓고있는줄도 알지 못했었다.… 대신 아름답고 충동적인 장영실은 거의 매일과 같이 남편을 다몰아대였다. 나이지숙한 남편이 정조차 주지 않는다고 강짜를 부리기도 했다. 리성조는 웃고 빌고 또 순종했다. 이런것이 사랑인지,이처럼 고달픈 멍에를 지는것이? !… 흔히 말하기를 사랑에는 우의적인 사랑,정열적인 사랑,헌신적인 사랑,맹목적인 사랑이 있다고 한다. 하다면 리성조의 경우는 맨나중의것에 해당될것이다. 그 녀자의 무엇을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와 젊음이 분에 넘치는것이라고 여겨진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지난날 병든 안해에게 못다해준 정성이 그리도 가슴속깊은 상처로 남은때문인지…

리성조는 안해가 가있을만한곳들을 찾아헤맸다. 그러다가 리화녀고 동창생의 집에서 그를 찾았다. 서로 비슷한 처지의 두 녀자가 옛생활의 향수를 나누며 마주앉아있었다. 둘다 눈물자욱이 질펀했다. 리성조는 말마디를 힘들게 발음하면서 설복했다.

《…중요한 일때문에 빨리 가야 하오.》

《그러니 피난을 가는거죠?… 그만하세요. 어쨌든 피난이지 뭐예요. 그럴바엔 차라리… 친정으로나 가구말아야지.》

《뭐요?… 당신 그거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요?》

처가 말하는 친정이란 38도선이남의 한 도시를 말하는것이였다. 38도선이 막힌이래 아직 소식한번 주고받지 못한 그들이였다.

리성조는 격해지는 심정을 가까스로 눌렀다.

《당신 지금 미국놈들이 어데까지 밀려들고있는지 알기나 하오? 그래 이 전쟁통에…》

그가 미처 말끝도 맺기전에 장영실이 암팡지게 쏘아붙였다.

《전쟁이 뭐 어쨌단말이예요. 죽기밖에 더할라구요. 될대로 되라지요. 운명이 그런것이면… 그렇게 되겠지요. 저갈대로… 다 가는 법이죠.》

그 녀자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내던진듯했다. 입술이 새파랬다.

《그만하오. 제발 소리치지 마오!》 리성조는 사정했다. 《빨리 가서 짐을 꾸리기요. 지금 중요한 일때문에… 먼저 떠나게 됐소. 나를 찾을거요. 말도 없이 왔는데… 벌써 며칠째 이 모양으로… 빨리 갑시다. 정말 시간이 없소.》

안해를 설복하여 짐을 싸들게 하기까지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했다. 저녁무렵에야 그들은 북으로 소개하는 어느 연구소의 화물자동차를 얻어탈수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폭격통에 또 자동차를 잃었다. 순천을 지나던 어느 다리어귀에서 있은 일이였다. 길을 어기지 못해 기다리던 자동차들을 목표로 적기들이 내려꽂혔다. 차에서 뛰여내린 사람들이 사방 흩어지며 울부짖었다. 끔찍한 참변이 거기 벌가운데로 난 신작로에서 벌어졌다. 자동차가 박산나고 가로수가 꺾어졌으며 형체를 알수 없는 시신들이 길 좌우에 널려졌다. 이 통에 장영실은 거의 얼이 나간것 같았다. 하루종일 물 한모금 마시지 않았고 리성조가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놀려 따라올뿐이였다.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던 그 녀자의 고운 두눈에서는 가끔 한줄기 눈물이 쭈욱 흘러내리군 했다.

저녁무렵 리성조는 초라한 우편국에서 서병호국장을 찾고있었다. 며칠새 몰라보게 변한 장영실이 그의 곁에서 조는듯 마는듯 서 있었다. 남편이 서국장을 전화로 찾았다고 기뻐하는것도 아랑곳 않

았다. 보따리를 꿍쳐안고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있었다.
《여보, 곧 나온다누만.》 리성조는 손끝으로 수화구를 가리켜 보였다. 《이제 무슨 대책을 세워줄거요. 아무렴!… 보통일군이 아니요. 여느 사람들하군 다르단말이요.》 갑자기 그는 송화구를 입에 바싹 가져가며 반갑게 부르짖었다. 《예, 접니다. 리성조입니다. 서국장동무지요?… 예, 제 지금 순천에 와있습니다… 예?… 언제 떠났는가 하면 저…사실은 제가…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이보시오. 국장동무… 전 사실…》
뿌옇게 흙먼지가 오른 리성조의 얼굴은 차츰 어수선하게 흐려졌다. 피기가 가셔지고 더부룩한 턱수염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그건 너무합니다. 국장동무!》 그의 이지러진 얼굴 전체가 떨며 부르짖는듯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말할수가… 아니요. 그런게 아니란말입니다!…》
수화기를 떨구었다. 재빛이 된 얼굴이 밑으로 수그러졌다. 창턱에 걸려 데룽데룽 매달린 송수화기에서 바람소리같은 소음이 성가시게 울렸다.
장영실이 맥풀린 눈동자를 굴렸다. 처음으로 그 녀자는 어렴풋이나마 사태를 분간한듯싶었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뭐라구 해요?》
리성조는 진흙빛이 된 얼굴을 들었다. 암담한 공허에 빠진듯 생기없는 눈으로 그 녀자를 보고있었다.
《그 사람은… 우릴 믿지 않는구려.》
장영실이 금시 쓰러질듯하는 그를 부축했다. 그 녀자는 입술을 떨고있었다. 흐릿해진 두눈에서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러니 여직 당신은… 그런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고와서 한자리 주는줄 알았어요?… 청맹과니! 당신이야말로 청맹과니지 뭐예요.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우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단말예요! 아, 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다니까.》
장영실은 창턱에 매달려 계속 바람소리를 내는 송수화기를 홀들어던지다싶이했다. 그다음 얼굴을 싸쥐고 울었다.

《그들은 편협해요. 편협하고 옹졸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모질단말예요!… 해방후 이에서 신물이 나도록 겪어본 당신이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그 공산당간부들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때도 당신을 반동이니 뭐니 했지요?… 그런데도 아직 무슨 미련이 있어 이 모양이예요. 예? 무얼 바라고 누굴 따라서 이 고생이냐말예요?!…》

《그만하오!》

리성조는 술취한 사람처럼 문밖을 나섰다. 어두워지는 하늘에서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고있었다. 보따리를 꿍쳐안은 안해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그에게 매달렸다.

《여보-어델 가요, 예?》

《…》

그는 허탈상태에 빠진듯했다. 그 녀자를 뿌리치며 허척지척 걸음을 옮겨갔다. 비방울이 눈섭을 때렸다. 이마우에, 코잔등에도 떨어지고 차츰 턱수염에 맺힌 비방울들은 목덜미로 쓸어들었다.

《이봐요. 내 말 좀 들어요. 이제라두 제발… 돌아서요! 가지 말아요!》

《…》

비에 젖는 흙먼지냄새가 매캐했다. 바람이 휘-불어치면서 누런 종이장들과 검부레기들을 쓸어갔다. 개굴창을 뚜지던 돼지새끼들이 화닥닥 놀라며 널바자사이로 달아났다. 비줄기가 세차졌다. 부드럽고 따스한 비물이 샤쯔밑으로 흘러들었다. 그러자 몸이 으쓸해졌다. 비물은 따스해도 살결에 닿을 때마다 육체의 온기를 죄다 빼아가는듯했다. 온기, 온기가 그리웠다. 그는 얼굴의 비물을 손으로 훑어던졌다. 입으로 스며든 비물이 찝찔했다. 비물과 눈물, 가슴까지 온통 젖어들었다. 수척하고 지치고 허둥지둥하는 사나이, 그 누가 이런 꼴을 본다면?… 이것이 나란 말인가, 한점 온기가 그리워 방황하는 이 얼빠진 사람이 나란 말인가?!…

그는 비틀거렸다. 안해가 그를 붙들고있었다.

《가지 말아요. 제발… 돌아서라요!》

《…》

비에 젖은 안해의 모습은 파리해보였다. 별안간 누를길 없는 마음의 충동으로 그는 안해의 팔목을 틀어잡았다.

《가야 해. 내 말을 듣소. 난 꼭… 가야 한단말이요!》

안해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간다. 기어이 가야 한다!… 부지중 리숙의 앙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적의 모습이다. 쌍태머리 량끝에 꽃송이를 달고있는… 숙아, 내 딸아!… 너 어데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먼 싸움길을 가고있느냐?…

장영실이 무어라고 하소했건만 듣지 못했다. 무작정 되는대로 안해를 잡아끌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간다. 누가 뭐라든 나는 간다!… 숙아, 언제든 이것만은 믿어다오. 네가 걷는 그길을 나도 걷는다. 해방직후에도 서울에서 돈이 부르고 재산과 명예가 나를 불렀지만 난 이 길을 택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해 단죄하고 락인하지만… 나는 간다. 그 편협하고 속된 사람들을 쫓아가는게 아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공화국을 따라간다. 변함없이 언제나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을 찾아가는것이다!…

어둠속에서 시퍼런 불꼬리가 날았다. 그러자 잠시후 먼 하늘가에서 무시무시한 천둥소리가 구을러왔다.

21

드디여 그 시각은 왔다. 강부관장이 들어와 보고드렸다.

《장군님! 지금 대기실에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영실동무가 자제분들을 데리고 와있습니다.》

부관장의 목소리는 벌써 젖어있었다. 홀쭉해진 볼편의 근육이 알릴듯말듯 떨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반쯤 열리다 만 출입문에서 새까만 치마자락이 얼씬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급히 문가로 걸어가시였다. 그때 소리없이 문이 열리더니 조용히 웃고있는 자제분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

여전히 웃음을 띄우고, 그러되 여느때처럼 떠들썩하지도 않으며 퍼그나 낮게 부르짖는 어린 경희의 목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혀 따님을 안아올리시였다.

《오, 우리 경희로구나! …》

그러자 경희는 두팔로 그이의 목을 꽉 감았다. 파들파들 떨리는 흥분이, 어린 마음에 가득찬 기쁨의 경련이 그 섬약한 팔을 통하여 전해왔다. 경희는 따스한 볼을 바싹 붙이며 그이의 귀전에 대고 불같이 속삭이였다.

《아버지! 난… 난 참말 아버지 보고싶었어요.》 뜨거운 입김이 퍼부어지더니 이어 그 목소리는 흐느낌소리같이 들려왔다. 《그래도 울진 않았어… 정말이야요. 오빠한테 물어봐요. 난… 오늘도… 안울래…》

그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눈굽이 쿡 쑤시는것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 경희가 밤에도 자다가 놀라 깨여나서는 어머니를 찾으며 울군한다는것을 잘 아신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고 오빠한테 어거지떼를 쓰군한다는것도 다 들어 아신다. 그러한 경희를 데려오면서 그애 오빠나 영실이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주었겠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그리고있는 아드님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였다.

《자, 방으로 들어가자. 영실이도 같이…》

아드님과 영실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이께서도 경희를 꼭 안은채 들어가시였다. 비로소 전쟁이 시작된 이래 줄곧 헤여져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셈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불과하다. 잠시후엔 또 갈라져야 한다. 사랑하는 자제분들을 이제 갓 스물을 넘긴데 불과한 한 처녀—김형권선생의 외동딸 영실이에게 맡겨 멀고먼 험지로 떠나보내시려는것이다.

등뒤에서 문이 닫겼다. 강부관장이 그 문을 꼭 닫고 거기에 등을 붙인채 까딱않고 서있었다. 방안에서 웃음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장군님께서 웃으시고 아드님과 경희도 함께 웃고있었다. 그러나 강부관장은 그 웃음소리에 목이 칵 메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그자신도 알지 못했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강부관장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 전화종소리가 방안의 웃음소리를 깨칠가 저어하듯 급히 송수화기를 든 그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 이렇게 잘라 말했다.

《지금은 안됩니다. 한 30분후－아니 1시간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송수화기를 놓고 한동안 까딱않고 서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복도쪽의 문을 열며 낮게 부르짖었다.

《좀 조용해주십시오！》

다음 순간 입을 다물고 굳어졌다. 손에 마이크를 들거나 전기줄을 늘이고있는 사람들앞에 문화선전상 허정숙이 서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오늘 장군님께서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방송연설을 하시게 되여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는 갈증에 타는듯 말라버린 입술을 놀려 가만히 말했다.

《상동지,지금 장군님께선… 자제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작별인사를 하러 방금 왔는데…》

허정숙은 숨을 죽이고 서있다가 마침내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같이 온 사람들을 향해 조용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부관실에 들어섰다. 허정숙은 쏘파 한끝에 자리잡고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침묵이 깃들었다. 창밖에서 우짖는 새소리도 여겨들을만치 방안은 고요했다. 이 사색적인 침묵속에서 허정숙은 부관장과 같이 조용히 앉아 한쪽 벽면에 드리우는 나무그림자를 보고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쓰리고 아파났다. 그런데 그때 집무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음소리 뒤끝에 또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울리더니 조용해졌다.

그때 허정숙이 소리를 죽여 물었다.

《누가 자제분들을 모셔가요？》

《영실동무가 갑니다.》

허정숙은 펀뜻 눈길을 들었다. 예상외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급히 캐물었다.

《그애 혼자서？！…》

《예.》

《？…》

허정숙은 마치 후려맞은듯한 표정이였다. 벅찬 경련이 그의 얼굴을 줄달음쳐갔다. 그는 또 무슨 말인가 하려 했으나 혀가 말을 듣지 않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양복옷섶을 구겨대기만 했다. 그 순간 또 굳어졌다. 집무실에서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였다. 쇠소리가 섞인 웅근 목소리와 가늘고 쟁쟁한 목소리들이 조화롭게 울리고있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장군님께서 작별에 앞서 자제분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신다！…

별안간 몸을 떨며 허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타는듯한 무서운 아픔이 가슴을 쿡 찌른것 같았다. 기억에도 생생한 이 노래, 언젠가 그의 부친의 생신날 장군님께서 김정숙녀사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시였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인 그의 아버지를 축하하여 휘황히 타오르는 63개의 초불앞에서 조용히, 감회깊게 부르시던 이 노래, 장군님께서도 김정숙녀사께서도 제일 좋아하신다는 노래…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마감부분에 가서 노래소리는 겨우 분간해 들을만큼 작아졌으나 허정숙은 장군님과 자제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가려들을수 있었다. 그는 흐느끼듯 어깨를 솟구쳤다. 날카로운 아픔의 물결이 가슴에서 목구멍으로 솟구쳐올라 더는 참지 못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이윽고 집무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노래도 끝

나고 마지막 절절한 인사와 당부도 끝나고 이제는 조용히 마주앉아 계시는듯싶었다.

허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걸음으로 복도로 나섰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현관문까지 걸어나와서는 뿌예진 눈으로 파아란 가을하늘을 쳐다보았다. 먼 하늘가 한끝으로 기러기떼가 날고있었다. 소리도 없이 화살모양의 대형을 지어 새까만 반점들로 사라져갔다. 정원너머에서 전차의 굴음소리가 들려왔다. 큰길쪽에서 커다란 보짐을 이고 어린 소년을 데리고 가는 녀인이 보였다. 잔등엔 젖먹이를 업고있었다. 소년의 등에도 작은 배낭이 지워져있었는데 녀인이 한손으로 그것을 들어주고있었다. 그들도 어덴가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양이였다. 허정숙은 그들이 굽인돌이로 사라질 때까지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래도 저애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고있구나!… 그는 가슴이 저릿저릿해나서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한팔은 경희를 껴안았고 다른 팔은 아드님의 어깨를 부여안고계시였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영실이 눈굽을 찍으며 뒤따라나왔다.

《오, 우리 경희가 정말 용쿠나!》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럼, 오빠말을 잘 들어야지. 밥먹기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밤엔 배를 꼭 덮고서 자야 한다. 알겠지?》

《응.》

경희는 장군님의 목을 꽉 그러안고있었다.

《경희야.》 아드님께서 동생에게 손을 내미시였다. 《아버진 일이 바쁘셔. 인젠 내려서 아버님께 인사를 올려야지.》

《응.》

경희는 이렇게 대답했으나 가느다란 두팔은 그이의 목을 더 힘껏 감고있었다. 빨갛게 상기된 두볼우에 눈물자욱이 번지르르했다. 그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듯 몸을 잔뜩 옴츠리고 눈물어린 두볼을 장군님의 목덜미에 마구 비비였다.

《아버지, 우린 또 언제 만나나?》

장군님께서 역시 경희를 꽉 껴안으시였다.

《경희야, 우린 인차 만난다. 이제 아버지가 미국놈들을 다 몰아내고 경희랑 오빠랑 부르지. 얼마동안만 헤여져있으면 돼. 알겠지？》

《응.》

비로소 경희는 목을 감았던 팔을 풀었다. 그이께서 내려놓으시자 경희는 오빠의 손을 더듬어 꼭 쥐였다.

《오빠, 난 울지 않았어…》

그러자 아드님께서는 눈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을 가까스로 참는듯 고개를 돌리시였다. 머리를 끄덕여 동생의 말에 대답을 주고 곧 장군님께로 눈길을 드시였다.

《아버지, 경희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그러마…》

그이께서는 오누이를 끌어당겨 량팔로 꼭 안으시였다. 그리고는 영실에게로 머리를 돌리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부탁한다！…》

이윽고 영실은 오누이의 손목을 잡고 걸음을 떼였다. 처녀의 얼굴은 뜨거운 눈물에 흠씬 젖어들고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것 같았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정문쪽으로 타박타박 걸어갔다. 이렇게 처녀는 오누이의 보호자, 친누나, 친언니가 되여 어려운 후퇴의 길을 떠나게 되였다. 이때 누구도 그 정겹고 알뜰한 처녀가 몇달후 적기들의 폭격때 입원중이던 병원토굴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지리라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숨을 거둔 김영실의 한손엔 경희에게 주려고 며칠밤을 새우며 만들던 커다란 인형이 꼭 쥐여져있었다. …

영실의 일행이 정문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별안간 장군님께서 영실을 멈춰세우시였다. 그리고는 집무실로 들어가 하얀 종이로 만든 봉투를 들고나오시였다.

《애들아, 하마트면 잊을번했구나.》

그이께서는 오누이에게로 걸어가시였다. 손에 든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고 아드님께 내미시였다.

《어머니 사진이다. 가지고 가거라！…》

아드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시였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내드시자 눈이 사물거리는듯이 애써 흥분을 누르며 들여다보시였다. 동생 경희가 발돋움하며 거의 머리를 맞대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아드님께서는 숨결이 가빠나고 뜨거운 속삭임에 목이 잠기시는듯했다.

《아버지！… 우리 걱정은 마시고 부디… 몸조심하세요！》

《오냐. 정일아, 난… 믿는다！…》

장군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오누이를 품에 꽉 껴안아주시였다. 머리우에서 새들이 퍅－날아오르고 앙상하고 성깃성깃한 백양나무 정수리에서 금시 구름을 뚫고나온 해빛이 부채살같이 펴져내렸다. 어딘가 대동강이 굽이쳐가는 먼 평원쪽에서 쿠궁－쿵！－하고 웅근 포성이 울려왔다.

이렇게 자제분들은 떠나갔다. 수백수천의 사람들이 자동차가 말아올린 먼지를 들쓰며 가는 그 길, 찌국거리는 달구지채에 매달린 늙은이, 어린이, 녀인들이 가는 그 길로 그들과 꼭같은 행장을 하고 떠나갔다. 이윽고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물결에 잠겨 가뭇없이 사라져갔다.

이 모든 정경을 지켜보는 허정숙의 두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하지만 그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어느덧 눈물이 입귀로 스며들었다. 찝찔하고 따스한 눈물, 부지불식간에 그는 그것을 목메인 흐느낌소리와 함께 삼켜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자제분들이 떠나간곳을 바라보고계시였다. 자신도 모르는새에 손가까이에 드리운 버드나무줄기를 뜯고계시였다. 누런 잎사귀들이 발치로 떨어져내리고 이어서 잘디잘게 꺾어진 가는 줄기들이 떨어졌다. 황이든 잎사귀들은 떨어져내리자마자 바람에 불려 사방 흩어져버리군했다.

이윽고 **김일성**동지께서 몸을 돌리시였다. 비로소 허정숙을 알아보고 가까이 오시였다.

《웬일이요？》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허정숙은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렸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다 닦도록 그이께서 지켜보고계시였다.

《방송준비는 다 됐소?》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예, 장군님! 다 됐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자, 들어가기요.》

그러나 현관에 들어서려던 때 갑자기 련속적인 폭음이 대기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현관의 창문유리가 드릉드릉 떨렸다. 멀지 않은 서평양쪽에 또 적기들이 달려들어 폭격을 해대는것이였다.

허정숙은 심장이 졸아들었다. 끄물끄물 타오르는 검붉은 연기와 먼곳에서 번개불마냥 번쩍이는 섬광을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역시 그쪽 하늘을 바라보고있던 강부관장이 운전사를 소리쳐 불렀다.

허정숙이 그에게 다급히 물었다.

《그쪽이지요?》

《예, 그쪽입니다!…》

그쪽은 바로 자제분들이 떠나간 방향을 말하는것이다. 부관장은 차를 달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알아보려는것이였다. 호위원 리병섭이 먼저 달려나오고 뒤따라 김덕삼운전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때 **김일성**동지께서 부관장을 멈춰세우시였다.

《소동을 피우지 마오. 모두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그이께서는 준렬하게 말씀하시고나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허정숙을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다 됐소. 허동무, 곧 시작합시다!》

《예, 장군님!》

허정숙은 타는듯한 입술을 놀려 겨우 이렇게 대답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실로 들어가시였다. 그곳 집무탁우에 마이크가 설치되여있고 이제 3분후엔 그이께서 연설하시게 된다.

허정숙은 꿈속에서처럼 걸음을 옮겼다. 터질듯 부풀어오른 가슴속에서 뜨거운 입김이 쏟아져나왔다. 그 순간에는 지동치는 폭음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자기의 가슴속에서 잉걸불이 이글거리며 세차게 타오르는것을 느꼈다.

(사람들이여,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오만한 침략자들이 그 무슨 《최후통첩》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고 발악하고있는 이때, 세계의 량심이 커다란 우려를 품고 불구름에 휩싸인 이 땅을 지켜보고있는 이때 순간도 드놀지 않는 과감한 심장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 조선의 립장을 선언하신다. 들어보라, 사람들이여, 인민이여, 세계여! …)

그는 뜨거운 눈물이 어려 뿌예진 눈으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고있었다. 두뺨이 홧홧 달아오르고 심장은 벅찬 격정에 터질것만 같았다.

22

《이 방송을 듣고계시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잠시후에 중대방송이 있겠습니다. …》

방송원이 벌써 두번째로 알리고있었다. 기다렸던듯 하늘은 건듯 개이기 시작했다. 시꺼먼 구름장들이 허둥지둥 사라져가자 바람도 잤다. 방금 폭격이 있은 서평양부근에서만 화재의 불길이 치솟고있었다. 적기들은 사라져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의 마이크앞에 앉아계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심정이였다. 지뢰를 안고 적땅크에로 내닫는 병사, 가감변을 틀어잡고 철길우를 달리는 기관사, 전야에서 가을걷이를 하는 녀인들, 의자우에 올라서서 선반을 돌리고있는 소년,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눈앞에 보시였다.

먼 적후의 전사들도 그려지시였다. 최현과 박정덕의 사단장병들… 그들은 어데 있을가. 지금도 적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며 오

고있는것일가?…

그시각 최현은 소양강기슭에 이르고있었다. 락타등처럼 생긴 산중턱에서 최현은 지도를 들여다보고 무선수를 소리쳐 불렀다. 대답소리는 등뒤에서 울렸다. 적들의 무선기를 로획해온 때부터 사단장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나어린 병사였다.

《사단장동지, 시작하랍니까?》

벌써 그는 무선기를 벗어내리고있었다. 말없이도 사단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여기선 되지 않을가?…》

최현이 물었다.

《해보겠습니다, 사단장동지!》

최현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다시금 무선수의 가무스레한 가는 손가락들이 재빨리 움직이는것을 지켜보았다.

멀리 문경고개에서부터 매일같이 찾고 또 찾는 최고사령부였다. 그런데 오늘은 틀림없이 련계가 이어질것 같았다. 아무리 출력이 낮은 무선기인들 38도선을 눈앞에 두고있는 이곳에서야 왜 안되겠는가?!…

출력표시등이 켜지고 조절기가 섬세하게 움직였다. 광대한 공간, 전파음들의 비밀의 세계, 최현은 부지불식간에 숨을 죽이고있었다. 파장을 맞출 때마다 튀여나오는 짧은 전파음, 전건을 두드리는 소리… 어느덧 숨이 막혀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됐습니다. 최고사령부가 나왔습니다!》

금시 무선수가 환성을 지르며 뛰쳐일어나는듯했다. 너무도 아름찬 기대에 가슴이 뻐근해났다.

(장군님께선 지금 어데 계실가. 작전실에서 전선을 지도하고계실가?… 혹시 우리들때문에 근심하고계시지는 않을가?… 장군님! 장군님을 뵙고싶습니다. 장군님이 그리워 목이 타고 가슴이 타는 이 최현입니다. 장군님께 사단의 전투행적을 보고드리고 새 전투명령을 받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군님!…)

숨쉬듯 껌벅거리는 작은 불빛, 도간도간 튀여나오는 예리한 전파음들, 전건 두드리는 소리… 그때였다. 무선수의 두눈이 번뜩이였다.

《사단장동지！》 레시바를 낀 귀전을 한손으로 감싸쥐고 그는 부르짖었다. 《중앙방송을 잡았습니다. 우리 평양방송을！…》

《뭐？》 최현은 무엇이 가슴을 쥐여박은것처럼 헉 하는 소리부터 내질렀다. 《그래 뭐라구 해？ 무슨 소식이 있어？！…》

《예, 잠시후 중대방송이 있겠다고 합니다.》

《중대방송？》

《예, 들어보십시오.》

무선수가 음량을 조절했다. 그 순간 최현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온 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잠시후 중대방송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청취자여러분, 잠시후부터 중대방송이 있겠습니다！…》

별안간 허연 번개불이 눈앞을 스쳐간듯했다. 최현은 두눈을 꽉 감았다가 떴다. 숨을 크게 들이긋고 경련이 이는듯한 얼굴을 홱 돌렸다.

《참모장동무！》 그는 소리쳤다. 《전체 사단을 여기 모이게 하시오. 빨리, 시간이 없소！》

무선수가 걱정했다. 출력이 낮은 로획한 이 무선기로써는… 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한 50명만 둘러앉아도 다 듣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이였다. 최현이 그의 머리를 두들겼다.

《걱정말라구. 천명, 만명도 다 들을수 있어！…》

구령을 받은 부대들이 달려왔다. 서로 덮씌우듯 비좁게 들어앉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 방송을 듣고계시는 전국의 청취자여러분, 지금부터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방송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최현은 사레들린것처럼 흐느낌소리를 내질렀다. 뒤미처 누군가 입속말처럼 부르짖었다.

《장군님께서 연설하신다！—》

그러자 그 소리는 골안의 전체 장병들의 가슴에 파문지어갔다. 헝클어진 호흡, 피가 멎고 숨결이 멎고 심장의 고동조차 멎는듯

했다.

아득한 침묵의 공간이 열렸다. 고조되던 음악도 사라지고… 홀연 가슴을 압박하는듯한 적막이 있은후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친애하는 동포들!
형제자매들!
영웅적인민군장병들!
용감한 남녀빨찌산들!

미국강도놈들은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우리 3천만인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동안 커다란 타격을 받고 막대한 병력을 손실당하였으나 태평양지역에 있는 자기의 무력을 총동원하여 대공세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투를 계속하면서 부득이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선은 엄중한 형편에 처하여있습니다. 우리 조국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

최현은 주먹으로 눈언저리를 씻었다.

《장군님!》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최현이 지금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죄다 새겨넣고 있습니다! …)

눈굽이 쩌릿쩌릿 저려났다. 가슴속에서 밀물처럼 북받쳐오르는것이 있었다.

장군님의 연설이 계속되였다.

《영웅적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 미제침략군대는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였으며 마침내 우리 조국강토에서 완전히 격멸될 위기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희생을 당하더라도 여지없이 추락된 자기들의 위신을 만회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목적을 기어이 달성하여보려고 태평양방면

의 륙해공군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그리고 예비로 두었던 군함들까지 총동원하여 발악적인 공세를 감행하여왔습니다.…

…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평탄한 길을 걷는것이 아닙니다. 이 투쟁과정에는 성과도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도 있을수 있습니다.

…

멸망의 운명을 지닌 제국주의는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합니다. 제국주의는 로씨야에서 이것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이것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강도 미제국주의의 침략계획은 반드시 참패를 당하고야말것입니다.

…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는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준엄한 시련도 용감하게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다 마련되여있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장군님! —》

최현은 또 속으로 목메여 부르짖었다. 웬일인지 온몸의 근육이 아프게 죄여들었다. 살이 떨렸다. 그 어떤 작렬하는 섬광이 눈을 때린것 같았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부쩍부쩍 솟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고 불이 황황 입니다!… 그

는 연신 주먹으로 눈굽을 닦아냈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는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수호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쳐 용감하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모형제들을 살해한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역도를 천백배로 복수하며 우리가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

전체 인민들은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부득이 퇴각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모든 물자와 철도운수수단을 옮겨 한대의 기관차, 한대의 차량, 한알의 쌀도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적 강점지역들에서는 빨찌산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여 적의 지휘부를 불의에 습격소탕하며 도처에서 도로, 교량과 같은 적의 보급선을 끊으며 전신, 전화 시설같은 통신수단을 파괴하며 적의 창고와 군수물자들에 불을 질러야 하겠습니다. …》

이어 장군님께서는 후방의 로동자들, 농민들에게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마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며 적에게 새로운 결정적타격을 주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무력간섭자들과 리승만도당을 우리 강토에서 단꺼번에 그리고 영원히 소탕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라!

영웅적조선인민군에게 영광이 있으라!

…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위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

는 투쟁에 궐기한 영웅적조선인민 만세!》
연설이 끝나자 최현은 벌떡 일어났다. 구령을 받은것처럼 전 사단이 욱─일어섰다. 세찬 파도소리갈이 퍼져가는 그 움직임의 음향, 불시로 누군가 《만세!─》하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그러자 다들 걷잡을길 없는 흥분에 몸을 떨며 두팔을 번쩍 쳐들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최현의 주먹아래 나어린 무선수의 작고 가무스레한 주먹이 솟구쳐올랐다. 붕대로 감긴 팔뚝, 불타고 찢겨진 팔소매, 눈물에 얼룩이 진 주먹들이였다. 만세를 웨치고는 서로들 마구 붙안았다.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부글부글했다. 다시 찾은 삶과 희망, 서로 얼싸안고 목터지게 부르짖고 정신없이 울기도 했다.
…이날 최현은 전 사단장병들이 해여진 옷을 깁고 목달개를 갈며 바지주름까지 잡고 대렬검열에 나서게 했다. 오래동안 잊혀져있던 사단군악대도 준비되였다. 모두 명절처럼 차렸다. 그리하여 두시간후에는 언틀먼틀한 숲속공지에서 부대별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사단장 최현이 앞에 나서서 대렬경례를 받았다. 그는 대렬이 지날 때마다 소리높이 웨쳤다.
《동무들의 전투성과를 축하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전투원들이 목터지게 합창했다. 그리고는 곧 《만세!─》하는 호창을 위엄차게 뽑았다. 그들의 발걸음을 사단군악대가 연주하는 《유격대행진곡》의 힘찬 선률이 받들어주었다.
그길로 최현은 부대들을 양양해방전투에 진입시켰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불의적이고 드센것이였던지 양양의 적들은 일거에 섬멸되였고 동해연선을 따라 기동하던 괴뢰군1군단의 후속부대들마저 사방 흩어져버렸다.
양양해방전투가 끝나자 최현은 방향을 바꾸어 린제쪽으로 부대를 북상시켰다. 보다 큰 섬멸적인 공격계획이 최현의 머리속에서 무르익고있었다.

23

수도에로의 접근로들에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때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락동강계선에서 후퇴해온 전선사령부가 수도방어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하는 한편 림진강계선에서 서해안방어사령부관하부대들을 지휘하던 최용건은 다른 중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환하게 하시였다. 대신 전선사령관 김책이 방어지대에 대한 지휘정찰을 진행하는 한편 수도방어사령부관하 련합부대들의 임무와 배치를 확정하고 방어공사까지 다 맡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후비부대들의 이동전개는 남일이 맡았다. 그와 동시에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으로서 남일은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준비도 다그쳤다. 야전지휘소는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이동과 장군님의 전선지휘를 신축성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렬차로 정해졌다. 장군님께서 해방후 현지지도의 먼길을 이어가시던 전용렬차였는데 그것을 전선지휘용으로 개조하였던것이다.

남일은 이제 그것을 후비부대들의 이동전개정형과 함께 장군님께 보고드려야 했다. 그는 방어계선으로 이동하는 부대와 함께 수도로 향하고있었다. 한낮이였다. 오전중 내린 비때문에 논벌가운데로 뻗은 길들은 곤죽이 되였다.

어느 구배길에서는 포차 한대가 진창에 빠져 앙—앙 헛바퀴질을 하고있었다. 배기관으로 시꺼먼 연기뭉치들이 탕탕 기관포소리처럼 터져나왔다. 포병들이 몰켜서서 아츠러운 비명소리처럼 《영싸！—》하고 고함을 질렀다. 목줄띠가 퍼렇게 용을 썼으나 바퀴는 점점 더 빠져들고 거기에서 휘뿌려진 시꺼먼 진흙덩이들이 사람들의 가슴이며 무르팍에 다닥다닥했다.

진창에 빠진 포차때문에 길이 막혀 앞뒤에서 연방 경적소리들이 날아왔다. 뒤에서는 군용차들이, 앞쪽에서는 소개해가는 화물

차들에 피난민들의 달구지까지 쭉 늘어섰다. 그 가운데엔 외국기발을 꽂은 승용차도 있었다. 그 승용차가 특히 빵 빵―하고 성급하게 독촉해왔다. 그러자 그앞에서 멍에를 멘채 고인물을 마시던 털빠진 소까지 《음메！―》하고 울부짖었다.

그러건 말건 포병들은 뒤에서 걸어오는 보병대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오자 푸접좋게 달라붙었다. 도와달라는 청이였다. 밤새 행군해온 보병들은 《발바닥에 털난》 포병들을 두고 욕을 하면서도 다들 차에 매달렸다. 더 붙어볼데가 없는 사람들은 앞사람의 잔등을 냅다 떠밀었다. 저저마끔 소리를 지르며 저만이 힘을 쓰는것처럼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또 벅작 떠들었다.

길을 어기지 못해 주련이 늘어서있는 달구지와 자동차우에서 사람들이 목을 빼들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있었다. 손달구지를 끌고가던 녀인도 풀어진 눈동자를 굴렸다. 외국기발을 꽂은 승용차에서도 한사람이 차창을 열고 머리를 쑥 내밀었다.

바로 그때 남일이 차에서 내려 이곳에 왔다. 길이 막혀 붐비고있는 차들을 둘러보며 뒤따라선 지휘관에게 엄하게 말했다.

《행군속도를 높이시오. 17시까지는 방어계선에 도착해야하오！》

《들었습니다！》

부대지휘관은 거수경례를 하고 진창에 빠진 포차에로 달려갔다.

남일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하나하나 곱씹어보았다. 그러느라고 진창길을 밟으며 성급하게 마주오는 외국인도 미처 보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이 두손을 썩썩 맞부비며 말을 걸었다.

《이렇게 만날줄은… 정말 반갑습니다！》

《？！…》

남일은 군대와 피난민들이 서로 어기고있는 이 혼잡통에 불쑥 나타난 외국인을 뜨아하여 마주보았다. 그러다 곧 알아보았다.

스딴도르 벤끄！… 남일이 교육부상으로 있을 때 안면을 익힌 외국특파기자였다.

색이 바랜 가죽잠바를 입고 구겨진 모자를 뒤통수에 붙여쓰고있다. 글을 쓸 때마다 감빨고 쓰다듬어놓군하던 주홍색 턱수염은 여전히 잘 다듬어져있고… 광택이 없는 푸르스름한 두눈을 연신 껌벅거리며 그는 제나라 말이 아닌, 남일도 잘 아는 로어로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꼭 만나고싶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차례지지 않더군요. 전쟁이니까요.》

《…》

그때 진창에 빠졌던 포차를 끌어냈다. 움푹 패워들어간 길에 돌을 채워넣고 다들 길 좌우쪽으로 흩어졌다. 호기심어린 눈빛들이 키가 후리후리한 남일과 외국인에게 쏠렸다. 남일은 손짓으로 대좌에게 출발을 지시했다. 포차들이 다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앙―앙 지나가는것을 보고서야 그는 몸을 돌렸다.

《기자선생, 안됐습니다. 무슨 용무이신지…》

《예, 저는 당신과 작별하기에 앞서…》

《작별이라니요?》

《아,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군요. 전 본사의 지시로…》 벤꼬는 말을 더듬으며 두팔을 벌려보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대사관의 지시를 받고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다니… 본사로? 아니면 본국으로요?》

《그야 물론… 그 두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할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옳습니다. 귀국하는 길입니다.》

남일은 놀랐다. 다음순간 가슴에 욱 치미는것이 있었다. 스딴도르 벤꼬로 말하면 지난날 까르빠찌야산줄기를 횡단한 쏘련, 로므니아군의 제1선에서 싸운 발칸사람이였다. 의지가 강하고 억세였다. 결코 신변의 안전때문에 서둘러 귀국할 사람이 아니였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것처럼 대사관에서, 그의 조국에서 소환한것이다. 그들은 조만간 여기서 모든것이 끝장나리라고 생각한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다달았으며 영영 헤여나지 못하리

라고 내다본것이다.

《그럼 잘 다녀가시오, 벤끄선생！》

남일은 쌀쌀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러자 스딴도르 벤끄가 황황히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잠간！… 잠간이면 됩니다. 저는… 기자로서 당신에게 즉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고싶은 말이 있는데…》

《〈마지막〉이라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 그건 당신도 아다싶이…》

《그런즉 당신은 우리 나라를 영영 떠난다는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다시 오고싶고 또 그럴수만 있다면…》

《그럼 다시 오시오！》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뭡니까？》

스딴도르 벤끄는 남일의 집요한 시선을 견디내지 못하여 허둥거렸다. 입가엔 애처로울 지경으로 면괴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사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적들은… 너무 강합니다.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38도선을 넘어선 적들이 벌써 대동강하류에 이르렀다는… 용서하십시오. 우리 나라 속담에 나쁜 소식은 말을 타고 가고 좋은 소식은 걸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면…》

《아니요. 들은바그대로입니다. 며칠후엔 평양근교에서 전투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예？！…》

스딴도르 벤끄는 놀래여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웅근 포성이 들려오고있다. 포성이 울려오는 그곳으로 포차들과 보병대렬이 진창길을 저벅저벅 밟으며 가고있다. 맞은편에서는 가장집물을 가득 실은 달구지가 굴러오고있고… 그 한귀퉁이에 어머니의 낡은 목도리를 머리에 쓴 계집애가 눈이 올롱해서 앉아있다.… 어느덧 벤끄의 두눈엔 동정과 련민의 빛이 부옇게 비끼고있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말을 태연스레 하고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저로서는… 저 방대한 침략무력에 맞서싸우는 당신들에게…》

남일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빨리 자리를 뜨고싶은 생각뿐이였다.

《선생.》하고 그는 랭담하게 그루박았다. 《도깨비는 쳐다볼수록 커보인답니다. 우리 나라 속담입니다.》

남일은 인사치레로 한손을 약간 들었다내렸다. 그리고는 행군종대의 뒤쪽에서 천천히 미끄러져오는 승용차에로 곧추 걸어갔다.

길섶의 강냉이밭이 우수수 설레였다. 간밤의 비바람때 허리가 꺾인것들이 많았다. 마른 잎사귀들을 축 늘어뜨린 발머리에서 하릅송아지 한마리가 어정거리다가 제풀에 놀라 후닥닥 뛰여갔다.

남일은 차에 올랐다. 가슴이 뻐근했다. 맘껏 터뜨리지 못한 어떤 분노와 울분이 덩이로 맺혀있는듯했다. 스딴도르 벤끄가 한 말들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이를 앙다물었다.

(그렇게 서둘러 떠난단말이지！… 그것도 영영 떠나간다？！… 뭐 적들은 너무 강하다고？！…)

등성이에서 시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있었으나 남일은 차창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벌써 평양에서 여러 외국의 대공사관들이 떠나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스딴도르 벤끄의 귀국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그들이 말한것에도 부인 못할 근거가 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는 그였지만 웬일인지 계속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운전사쪽으로 머리를 홱 돌렸다.

《좀더 속도를 높이오！》

수면부족때문에 그의 눈은 피발이 섰고 눈언저리는 멍이 든것처럼 시퍼랬다. 전에없이 광대뼈가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볼편의 살이 자귀날로 찍어낸것처럼 쑥 우묵져들어간때문이였다. 시꺼먼 눈섭을 흠칫거리며 그는 오래도록 분을 삭이지 못해하였다.…

이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동부의 정세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계시였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던 미제10군단이 제1선에

서 물러나던 그때부터 적들의 움직임을 특히 예리하게 주시하시였었다. 정찰국에서 올린 보고에 의하면 미1해병사단은 인천항에서 배에 올랐고 미제7보병사단은 수원에서 남쪽으로 행군해간다고 했었다. 무엇인가 맥아더의 흉책이 예견되였다. 정예중의 정예라고 자처하는 미1해병사단을 전쟁이 한창인 때 본국에 실어갈리는 만무하며 인민군주력부대들이 무사히 후퇴해들어오고있는 이때 미7보병사단을 남하시킬 특별한 리유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맥아더가 또 한차례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것을 간파하시였다. 그러면 맥아더의 다음 상륙지점은 어디겠는가?… 주목되는것은 서해안의 남포와 동해안의 원산이였다. 그런데 남포는 지리적으로나 작전적으로 큰 의의가 없다. 맥아더가 노리는것은 원산이였다. 원산에 상륙하면 원산—양덕—평양간의 발달된 대도로를 따라 신속히 공격할수 있으며 38도선에 집결된 인민군부대들을 포위할 가능성이 생기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존 방어력량이 불충분한 조건에서 원산앞바다에 조밀한 기뢰망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시였다. 그리하여 해군사령부에서는 각종 자석기뢰, 닻기뢰, 음향기뢰 등을 총동원하였다.

이러한 때 원산앞바다에 미10군단이 나타났다. 놈들은 10월 12일부터 비행대와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의 엄호하에 일본해상보안청의 소해정들까지 동원시켜 기뢰해제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헐치 않았다. 소해작업의 첫날에 벌써 미해군 소해정 《파이레쯔》, 《프릿지》호 등 2척이 자석기뢰에 걸려 산산쪼각이 났다. 태평양전쟁때부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옛 제국해군들로 구성된 일본해상보안청의 소해정 2척도 련이어 거대한 폭발속에 사라져버렸다. 울상이 된 미1해병사단장 스미스는 맥아더에게 다음과 같이 타전했다.

《정예의 합중국해병대는 조선해역에서 멀미에 시달리고있다.》

상륙작전의 성과는 그의 은밀성과 신속성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러나 미1해병사단장 스미스는 기차를 놓친 사람격이 되고말았다. 그는 물론 도꾜의 맥아더조차 이 모든것이 사전에 예견되여

있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한걸음 또 한걸음 래일의 파국에로 끌려가고있다는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원산에 침입하고있는 괴뢰군 1군단의 움직임도 주의깊게 살피시였다. 이제 여기서 앞으로의 전쟁행정을 역전시킬 전대미문의 작전이 수립되게 된다. 그이께서 줄곧 구상하고계시는 비상한 사변은 바로 이곳에서의 적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작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국제1방향장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임무를 주시였다.

《이제부터 동문 전선동부지역, 특히 원산—함흥 일대에서 벌어지는 적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겠소.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즉시 나에게 보고하시오!》

사소한것,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말라고 그이께서는 강조하시였다.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상한 작전이 지금 그이의 사색속에서 무르익고있었다. …

포성에 창문유리가 드릉드릉 울렸다. 전선은 수도의 문어구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중앙기관들이 다 소개된지 오래고 이제는 최고사령부만이 남아있었다. 이때 누구보다 더 조바심치고 안절부절한것은 강부관장이였다. 그는 이틀전에 벌써 남일에게서 최고사령부가 야전지휘소로 옮기게 된다는것을 들었었다. 그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고 남일은 귀띔했었다. 그리하여 강부관장은 깐진 성미대로 모든 비품정리 및 이동준비를 했다. 장군님의 집무실을 제외하고는 최사통신결속소까지도 준비가 끝나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전선지휘에 여념이 없으시였다.

남일이 도착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를 받고계시였다.

계응상박사를 찾아 안전지대로 무사히 소개시켰다는 보고였다. 리성조에 대해서도 보고되였다. 《도주》했다던 리성조가 어데선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병기생산국 서병호국장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군수공업분야에 리성조와 같은 사람들이 발붙이는것을 원래 께름하게 여겨오던 그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곧 서병호를 전화로 찾으시였다. 잠시후 신성천역에 나가있는 서병호국장과 전화가 련결되였다. 보고된 내용과 같았다. 서병호는 리성조가 어데서 전화를 걸어왔는가 하는것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해방직후 극좌익 《프로혁명가》들이 부르짖던 《부르죠아자산계급출신인테리 숙청》의 메가폰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전에 메아리치고있는 모양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밖의 바람소리에 귀기울이시며 잠시 말없이 서계시였다. 비스듬히 열려있던 소창문이 덜그럭거리며 찬바람이 쓸어들었다.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군수공장이설은 어떻게 돼가오? 언제까지면 다 끝낼수 있소?》

《장군님! 이제 540호공장설비만 옮기면 기본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방금 놈들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피해가 많소?》

《제관직장의 샤링그와 기타 설비들이 파괴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리할수는 있습니다. 보다 더 문제로 되는것은 철도수송이 매우 긴장한데다가 540호공장설비를 문 기관차가 파괴된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요?》

《장군님! 군사교통부에 말해서 여기 신성천역에 서있는 위생렬차의 기관차를 먼저 돌려쓰기로 했습니다. 위생렬차는 부상병들을 더 기다렸다가 출발해도 됩니다. 장군님, 념려마십시오. 무조건 제기일내에 공장이설을 끝내고 생산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애써 분노를 누르시였다. 호흡이 급해지고 손마디들에 경련이 이는듯 느껴지시였다. 매일 매시각 더 어려워지는 전선의 정황도 이렇듯 고통스럽게 느껴보신적은 없었다.

물론 전쟁의 현 시점에서 군수공장이설은 분초를 다투는 초미의 문제이다. 허나 부상병들을 후송해야 할 위생렬차의 기관차까지 떼여 달 생각을 하다니, 누가 감히 그럴 권리를 주었는가. 피흘린 전사들을 1분 1초라도 지체시킬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전

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를 믿을수 없다고 은연중 밀어던진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천천히, 애써 어성을 낮추며 말씀하시였다.

《서병호동무, 군수공장이설은 물론 최우선적인 과업이요. 보총 한자루가 귀한 때이니만큼 그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소. 그러나… 그 모든 초미의 과업, 최우선적과업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소. 그것은 동지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이요. 이것은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요. 그런데 동문… 사람들보다 먼저 무기를 생각하고있소. 그 총을 메워줄 전사들은 왜 생각 못하오. 자기가 만든 총을 메고 싸워야 할 전사들이 그곳에서 고통받을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말이요！… 참을수 없는 일이요. 동무의 주관적의도는 어떻든간에 지금 동무는 탈선하고있소. 엄중하게도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순결한 애국심에 그늘을 던지고있소！…》

그이께서는 가슴이 쓰리시였다. 능력있고 정열적이며 통이 큰 일군으로 알려진 서병호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있는가！… 흔히 전쟁에서는 단호하고 무자비해야 한다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군들이 없지 않다. 그들은 이 전쟁이야말로, 날마다 시각마다 류혈과 죽음에 몸서리쳐지는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그것이 보통사람의 편견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수백수천명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일군들의 경우에는 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크게 숨을 내뿜으시였다.

《위생렬차의 기관차는 즉시 돌려주시오. 파괴된 기관차를 복구하되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엔 최고사령부에 직접 련락하시오. 그리고 리성조동무를 찾으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데리고 가야 하오！…》

그이께서는 전화를 끝내고도 한동안 계속 한자리에 서계시였다. 남일이 한발 앞으로 나서자 비로소 그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남일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새로 편성된 부대들이 전개된 계선을 지도에 몸소 표식하시였다.

그러는 가운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남일은 이 순간을 놓치

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힘들리라고 생각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

《장군님！ 한가지 더 보고드릴게 있습니다.》

《뭐요？》

그이께서는 아직 지도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였다.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가 특별렬차에 준비되였습니다. 이제 최사통신결속소만 옮기면 다 끝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허리를 펴시였다.

《지금 그 렬차가 어데 있소？》

《옥천차굴에 대기시켰습니다.》

《？…》

그이께서는 손에 쥐고있던 연필을 놓으시였다. 남일이 또 설명을 달았다. 급변하는 정세는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를 렬차로 정하는것이 장군님의 전선지휘를 보다 신속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하리라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남일의 말이 옳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우시였다. 남일이 진정 가슴조이며 기다리고있는것이 무엇인지를 그이께서는 알고계시였다. 그는 지금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야전지휘소로 한시바삐 옮겨가시기만 바라고있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상일력을 피끗 쳐다보고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최현동무와 박정덕동무들한테선 아직 아무 소식도 없소？》

《예.》

《김책동문？》

《지금 황주계선에서 미1기병사단의 침공을 저지시키고있습니다.》

《김책동무가 후방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야겠소. 지금 김책동무는 마지막까지 결사전을 벌릴 생각을 하고있는것 같은데…그래선 안되오. 즉시 련락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일은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집무실을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24

김책은 절대로 자리를 뜰수 없다고 남일에게 련락해왔다. 현존위치에서 끝까지 싸워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이동을 보장하겠다는 철석같은 결심이였다.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심각한 기색으로 말씀하시였다.

《부관 한사람을 파견하시오. 김책동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여기를 떠나지 않겠소! …》

땅거미가 깃들무렵에 김책은 도착했다. 메마르고 흙빛이 된 그의 이마우에는 굵은 피줄들이 부풀어올라있었다. 먼지 낀 군복에서는 화선병사들에게서처럼 화약가스냄새와 시크무레한 땀내, 먼지냄새가 풍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힘껏 잡으시였다. 그리고나서 출입문 가까이에 서있던 남일과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하시였다.

지난날 그들은 내각부수상 대 교육성 부상이라는 현격한 차이에 있었으나 지금은 보다 긴밀한 군사적위치에서 마주서게 되였다. 키가 비슷한 두사람은 반갑게 그리고 군사적인 례절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들을 작전대로 부르시였다.

《남일동무, 시작하시오.》

순간이 천금같이 귀중한 때였다. 반가운 인사말도 오래 나눌새가 없었다.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했고 가능하면 더 많은 시간을 쟁취하여야 했다.

남일은 전선정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였다.

《지금 전선서부 적의 주타격방향에서는 미제침략군1군단이 계속 평양방향으로 공격을 확대하고있습니다. 특히 미제1군단관

하 미1기병사단과 영제27려단은 사리원—평양사이의 큰길을 따라 공격을 다그치고있으며 수안을 강점한 괴뢰군1보병사단은 수안—평양방향으로, 미제24보병사단은 남포—평양방향으로 더욱더 맹렬히 공격해오고있습니다. 한편 아호비령과 양덕지역을 지향한 적들은…》

남일은 보고를 계속하였다. 긴장하여 듣고있던 김책은 차츰 머리를 짓수그린채 지도만 들여다보고있었다. 지난 시기보다 전선이 광대해지고 방대한 무력이 투입되여 격전을 벌리고있는 시점에서 그는 얼마나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고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고있었다. 전선사령관의 시야로 보던 전쟁의 폭과 깊이가 최고사령부의 시점에서는 비할바없이 확대되여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가끔 눈시울을 찌긋거리고있었다.

계속하여 남일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부대,련합부대들의 이동전개에 대하여 말하였다.

《…서해안 방어사령부에 소속되여있던 제190사단은 어제 곡산군 일송동과 가려주리 지역으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군단장 최운림동무에게는 당면하여 회창,서백년산일대에 있는 부대들을 통일적인 지휘체계에 인입하면서 황해도 동부산악지대를 장악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돌연 김책이 날카로운 눈빛을 그에게 던졌다. 적들은 대동강에 이르렀는데 잘 정비된 련합부대를 왜 위급한 지역으로 보내지 않는가? 하는 의미였다. 남일은 미간을 찌프렸다. 김책의 타는듯한 눈빛을 마주보며 또 계속했다.

《만년광산일대에 도착한 제320경비려단은 련천지역으로, 제226독립련대는 후퇴해 들어오는 구분대들로 력량을 보강하면서 차후 독립려단으로 편성되여 이천방향으로 기동하게 됩니다. 이상의 부대,련합부대들을 정비하고 재편성하며 근거지를 확보할 임무를 역시 최운림동무에게 주었습니다.》

《？！》

김책은 놀란듯했다. 군모채양이 눌러놓은 자리가 또렷한 이마언저리를 꾹꾹 누르며 있지도 않는 땀방울을 닦고있었다. 그러다가

불쑥 남일을 향해 성급하게 물었다.

《평양방어엔 어떤 부대들이 더 보충되오?》

《더 보충할 력량이 없습니다.》

《새로 조직한 후비부대들이 있지 않소.》

《후비부대들도 일부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일은 또 미간을 찌프렸다. 마치 그렇게밖에 말할수 없는 자기자신을 두고 화를 내는듯했다. 《아직 그 부대들은 훈련되지 않았고 장비도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럼 평양방어는 어떻게 되오?》

김책의 어조는 날카로왔다. 벌써 그것은 단순한 질문만이 아니였다. 남일은 대답을 못했다.

물속같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 김책이 묵직하게 말하였다.

《내 생각엔 무엇보다 평양방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린 여기서 적들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쓰러질지언정 더는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남일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마디마디 력점을 찍어가며 깍듯이 나오는것은 몹시 흥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래도 남일은 대답을 않고 목석같이 서있었다.

《총참모장동무!》

김책이 거친 숨결을 퍼부었다. 남일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역시 대답은 없다.

김책의 날카로운 눈빛을 묵묵히 마주보고있을뿐이였다.

마침내 **김일성**동지께서 지도우의 연필을 손에 드시였다.

《김책동무, 오늘 우리는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문에 김책동무를 불렀습니다.》

그이께서는 연필을 곤두세우고 지도우에 톡톡 그루박으시였다. 깊은 사색이 그렇게 다져지고있는듯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적들의 병력은 거의 46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동서 200키로에 이르는 전전선에서 홍수처럼 밀려들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무력앞에 훈련이 부족하고 무장장비도 변변치 못

한 후비부대들을 계속 투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홍수로 제방뚝이 터졌는데 거기에 흙가마니를 계속 던져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찬 물결은 그것들을 사정없이 쓸어버리고말것입니다. 말하자면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도 터진 제방은 막지 못할것입니다. 그래도 결사적으로 막아나선다면?… 그많은 희생을 무엇으로 정당화하겠습니까. 우리의 련합부대들을 하나하나 다 잃고 나중엔 전조국땅을 내준다면 우리는 인민앞에, 력사앞에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래도 우린 희생적으로 싸웠소, 적들은 15개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하였소,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웠지만… 너무도 력량상 대비가 컸소. 이렇게 말하겠는가?!…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적들이 홍수처럼 밀려든다면 홍수로 불어난 강물을 길들이듯해야 합니다.

김책동무, 예로부터 강물이 불어나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았습니까? 강물을 여러개의 물줄기로 째서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미친듯 날뛰던 격류도 대번에 맥이 빠져 수그러지고맙니다.》

어느덧 김책은 탁자모서리를 꽉 틀어쥐고있었다. 가늘게 쪼프린 눈속에서 반디불이 번뜩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삼키듯이 호흡하는듯했다.

《그러므로 우리는》하고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적들의 공격이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완강히 방어를 하며 후비부대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준비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적의 배후에서 적후투쟁을 활발히 벌려 적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당면한 우리의 주되는 과업입니다. 이것을 위해 새로 정비된 련합부대들을 적후에 더 들이밀수도 있습니다. 후퇴해 들어오는 부대들도 멈춰세우고 적후투쟁에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최현동무나 박정덕의 사단들은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시련속에서 단련되여있는만큼 적의 깊은 후방에서 배후교란작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김책의 두눈이 굳어졌다. 최현과 박정덕은 락동강기슭에서 군

집단의 철수를 보장하는 어려운 전투임무를 맡아 싸웠다. 그 임무를 바로 김책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아무 소식도 없다는것을 그는 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그들이 바로 지척에 있기라도 한듯이 말씀하고계신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 그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지 않는가?…

광대뼈가 두드러져보이는 김책의 여윈 뺨이 홧홧 달아오르고 있었다.

김책은 오랜 정치군사간부로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군사전략의 세계에로 통한 열쇠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김책으로서도 전쟁의 운명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장군님의 그 힘찬 사색을 따르기엔 무엇인가 힘과 박동이 부족되는것을 느끼였다.

그때 강부관장이 들어왔다.

《장군님! 작전국제1방향장동지가 전선동부에 조성된 긴급한 정황을 보고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무때건 보고하도록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셨다면서…》

《들여보내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새 말려져있던 지도를 활 밀어펴시였다. 방향장대좌가 들어서자 지도 가까이 부르시였다.

《보고하시오!》

김책과 남일이 자리를 드려주었다. 작전국1방향장은 지도앞에 나섰으나 거의 그것은 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흥분으로 떨리는 청높은 목소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전선동부에서 괴뢰군1군단의 기본력량이 함흥방향으로 침공하고있습니다. 정평 서남쪽 5키로메터 계선인 흥덕리일대에서 지금 괴뢰군 수도사단과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흥덕리의 아군은 자동포 5대와 1개의 자동총소대,내무원들로 무은 1개 중대입니다. 함흥 동흥산과 부민리에 전개되였던 2개 보병대대중에서 2개 중대력량이 땅크 4대와 함께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ㅡ알겠소.》

그이께서는 지도에 손수 표기하시였다.

방향장이 물러간후에도 무거운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였다.

남일은 버릇처럼 꿋꿋해서 서있었으나 김책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된 어느 방어계선의 무력이 자동포 5대, 1개의 자동총소대, 내무원중대 등등이다. 가슴아픈 일이였다. 적의 1개 군단무력에 대항하여 중대와 소대들이 계산되고있다. 방향장의 청높던 목소리가 계속 귀전을 두드려대는듯했다. 김책은 너무 마음이 괴로와 감히 장군님의 모습을 바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이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지도의 한점만을 응시하고계실수록 숨쉬기가 편치 않았다. 창문을 활 열어젖히고싶었다. 이 무거운 공기를, 괴로운 마음을 다 날려보내고싶었다.

방안 어느 구석에선가 탁상시계가 재깍거리고있었다. 재깍재깍 변함없이 단조롭고 고르롭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찍어가고있다. 등골에서는 어느덧 땀이 흐르고있었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 허리를 쭉 펴시였다. 그이의 입가에 알릴듯말듯 한점의 미소가 그려지시였다.

미소?!… 김책과 남일은 숨을 죽였다. 또다시 재깍거리는 탁상시계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토막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김일성**동지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드디여 우리는 강력한 제2전선을 적의 배후에 전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 연필을 더듬어 꽉 잡으시였다. 손끝이 떨렸다. 커다란 흥분을 애써 누르시는듯했다. 《이제는 적들의 약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보시오. 놈들은 주타격방향을 전선서부에 지향하면서 여기에 미제8군을 들이밀고 보조타격방향인 전선동부에서는 미제10군단과 괴뢰군1군단을 내밀어 중부조선을 다시 절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늦어지자 종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함흥이북으로 내몰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별로 침공하게 된 적들의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사이에는 거의 련계가 없습니다. 다 아는것처럼 미제8군은 워커가 지휘하고 미제10군단과 괴뢰군1군단은 맥아더가 직접 지휘합니다. 그런

데 맥아더는 도쿄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휘에서 통일성도 보장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놈들의 후방을 타격하기는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놈들의 동서집단사이에 험한 산악지대가 놓여있는데 이 중부산악지대를 장악한다면 적의 동서집단간 련계를 끊고 전선과 후방을 완전히 차단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들을 심히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전쟁의 다음단계에서 우리의 타격력을 증대시켜 신속히 반공격에로 이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반공격에 나설 전쟁의 새로운 전략적단계에서는 적의 퇴로를 막고 전선련합부대들의 정면공격에 배합하여 배후로부터 적을 타격하여 소멸할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결정적인 기회가 성숙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우리가 단호하게 후퇴를 결심했던것처럼 이번에도 주어진 유리한 정세를 과단성있게 적극적으로 신속히 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전선！… 단순한 적후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대규모련합부대들에 의한 제2전선의 전개—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총적목표입니다！》

그이께서는 손에 쥐였던 연필을 놓으시였다. 그리고 김책의 상기된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김책은 머리를 들었다. 눈앞에서 무엇인가 번쩍했다. 령롱한 빛의 파편들이다. 아니 번개불같다. 차디찬 밤하늘을 찢어놓던 번개… 그러자 흘러간 먼 시절의 진구렁이 소택지가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다. 어수선한 새초숲, 북만땅, 흥안령기슭의 진펄, 세찬 폭우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시퍼런 번개가 번쩍거릴 때마다 돌덩이같이 굳어진 무장한 사람들의 두 집단을 펀뜻펀뜻 드러내군했다.

그 가운데 무장해제된 김책이 서있었다. 앞에는 그를 체포할 임무를 받은 민족배타주의자들의 호송구분대가 가슴팍에 총을 겨누고있었고 뒤에는 한사코 그를 지키려는 200여명의 유격대원들이 역시 총을 내대고있었다. 누구든지 실수하여 재채기소리만 내여도 300여자루의 보총이 울부짖으며 끔찍한 참사를 빚어낼수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모두 거칠게 씨근거릴뿐 말한마디 없이 서

있었다. 앙당그려문 입으로 련속 비물이 흘러들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렸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와들와들 몸을 떨었다. 그때 천둥소리가 꽈다당! 하고 터졌다. 그러자 모두 일시에 몸서리쳤다. 방아쇠에 걸고있던 손가락에서 경련이 일었다.

그 순간 김책은 온통 비에 젖은 얼굴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소리없는 번개가 하늘 한끝을 갈기갈기 찢으며 번쩍여갔다. 그 번개불이 달려간 먼곳에 장군님께서 계셨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그곳… 아,아! 비물을 씹어삼키며 그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장군님! 어찌하여 조선혁명은 또 이런 진통까지 겪어야 합니까. 피흘리며 키워온 우리 혁명이 저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칼부림질까지 당하고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진 시련을 겪는 우리 혁명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군님!…》

세찬 비줄기가 그의 얼굴을 련속 후려갈겼다. 차디찬 비줄기는 입으로 쓸어들어 목구멍을 적시며 차츰 뜨거운 물결로 가슴을 채웠다.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한몸 바쳐 난국을 타개하시였다. 혁명적원칙성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막으시였다. 상처입고 피흘리던 우리 혁명을 다시 일으켜 적극적인 항일공세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 밝힌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받아안았을 때 김책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었다. 광활한 북만땅에 봄우뢰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날도 하늘에서는 천둥소리가 터지고있었다. 전체 대원들에게 장군님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책은 말갈기를 부여잡았다. 거기에 얼굴을 마구 비비며 목메여 흐느꼈다. 수백명 기마대원들이 그를 둘러싸고있었다.

세찬 폭풍이 일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한순간 새파란 불빛이 하늘과 땅을 확 밝혀놓고는 새까매졌다. 말들이 일시에 부르르 갈기를 털었다. 다음순간 온몸의 살이 막 찢겨나가는듯 땅!ㅡ 하고 천둥이 터졌다. 소스라친 말들이 길길이 뛰

여오르며 울부짖었다. …

가장 준엄하던 나날의 기억이였다.

장구한 유격투쟁에서 포위와 추격, 실패와 좌절, 추위, 질병, 기아와 희생 등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그러나 가장 엄혹한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몸으로 위기를 막아나서시였다.

그 시절의 번개불을 지금 김책은 다시 보고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강렬한 섬광, 하늘땅을 진감하는 천둥!… 바로 그 번개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 번개를 쥐고계신다. 강력한 정신이,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심장에 사무쳐왔다. 어느새 그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그 어떤 장엄하고 준엄한 격정에 잠겨있었다. 사뭇 눈시울이 떨리고 목이 메여올랐다. 미친듯이 말을 때려몰던 북만의 옛 싸움터에서도 이처럼 세찬 흥분에 잠긴적은 없었다. 락동강반의 우박치는 총포탄속에서도 이렇듯 터질것 같은 심장의 격동을 느껴본 일은 없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벌써 침략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드시였습니다. 제2전선의 철추로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고계십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진것도 의식하지 못하였다. 집무실의 창가에 비껴있던 한줄기 락조도 스러진지 오랬다.

《아!… 참… 장군님! 새삼스러운 일은… 없는데… 제 심장이 왜 이렇게 높뛰니까. 왜 이다지!…》하고 김책은 입귀를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국이 없을 때 먼 이역땅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을 선포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적들의 한복판에서 붉은기를 날리며 끝까지 싸워이긴 우리가 아닙니까. 그때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후방은 인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적들은 줄창 우리를 포위했지만 이긴건 우리였습니다. 20여년을 포위속에서 살아온 제가… 왜 2전선을 생각못했습니까. 2전선을!… 장군님, 우린 또 이겼습니다!…》

김책은 아득히 멀리 흘러간 흥안령기슭의 그날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 탁상등의 스위치를 돌리시였다. 그러자 밝고 부드러운 황금색불빛이 김책의 두드러진 관골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김책은 서둘렀다. 중화, 상원쪽에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군했다. 차가 발동을 걸었을 때 강부관장에게 당원증을 맡기며 부탁하였다.

《아무래도 부관장동무가 이 당원증을 맡아줘야겠소. 만약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엔 당중앙위원회 기요과에 보내주오.》

《전선사령관동지!》

강부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책이 서둘러 그를 제지했다.

《그렇게 해주오.》

마지막으로 김책은 남일의 손을 꽉 틀어잡고 말했다.

《남일동무, 부탁하오. 장군님의 사업을 잘 보좌해드리오.》

《…》

남일은 흠칫했다.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모질게 허비는듯했다. 지금까지 남모르게 안고 모대겨온 번민과 고통을 죄다 털어놓고싶은 불같은 충동이 일었다. 이 강직한 전선사령관 김책에게만은 꼭 말하고싶었다.

남일은 입술을 감빨았다. 빠른 말씨로 자기 역시 화선에 나가 총을 잡고 싸우고싶다고 했다. 그러자 김책은 열어젖혔던 승용차의 문짝을 도로 닫았다. 손바닥으로 힘껏 이마언저리를 문질러대더니 머리를 홱 돌렸다. 어둠속에서 그의 두눈이 섬광처럼 펀뜩이였다.

《남일동무, 도대체 그건 무슨 소리요? 장군님의 사업을 전적으로 보좌해드려야 할 남일동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찌된 일이요?》

《전선사령관동지!》 남일의 속삭임은 거친 숨소리 같았다. 《책임은 크고 무거운데… 경험도 능력도 없지… 전 지금 장군님의 기대에 보답못하는 일로… 괴롭습니다. 장군님께선 매일밤 지새

시면서 작전을 하시고 전선지휘로 그토록 분망하신데… 전… 그저… 가슴아픈 보고나 드릴뿐… 전선사령관동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책은 두손을 깍지껴서 우드득—우득소리를 냈다. 마치 의분에 끓는 그의 격한 마음의 모지름소리인듯했다.

《누군 뭐 자기를 타고난 군사령관으로 생각하는줄 아오?》 하고 그는 아픔에 겨워 부르짖었다. 《나에겐 뭐 자책과 고민이 적은줄 아오?… 솔직히 말해서 장군님을 만나뵙기까지 난… 결사전을 할 생각뿐이였소. 그러다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오랜 세월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내가… 누구보다 더 장군님의 사상과 전법을 익혔다고 자부해온 내가… 아직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니… 죄스럽고 한스럽소!…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소. 제일 무서운 일은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끝내 보답하지 못하는 그것이요. 그건 치욕이고 죽음이요!… 남일동무, 능력이 부족하면 피땀을 쏟으며 배워야 하오. 그래서 기어이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해야만 하오. 이것이 바로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는 우리 일군들의 철칙이요. 남일동무, 이것을 잊지 마시오!…》

그는 다시 승용차의 문짝을 잡았으나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는지 남일에게 손을 내밀었다. 힘껏 내던지듯했다.

《부탁하오.》 그는 강경히 말했다. 《전쟁의 어려운 때일수록 장군님을 더 잘 모셔야 하오!…》

《전선사령관동지!…》

강직하고 엄엄한 성격을 지닌 두 사람은 손을 꽉 맞잡고 서있었다. 검푸른 밤하늘을 배경으로 조각상마냥 굳어져있었다. 그러다가 아무말없이 손을 놓았다. 김책은 차에 오르고 남일은 한손을 모자채양에 올렸다.

하늘에서 웅근 폭음이 파도쳐왔다. 탐조등의 불기둥이 서로 교차되면서 솟구쳐오르더니 야밤의 침입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모란봉쪽에서 고사포들이 꽈당거렸다.

…얼마후 김책이 떠나간 그 방향에서 적기들의 공습이 벌어졌

다. 폭발의 굉음에 발밑의 땅이 뒤흔들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화광에 물든 상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시간을 재여보고 거리를 가늠해보시였다. 급히 부관장을 부르시였다.

《호위원들에게 차를 내주어 김책동무를 뒤따르게 하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도록 해야겠소.》

그리하여 리병섭 등 두명의 호위원이 곧장 중화쪽으로 난 길로 질풍같이 차를 달렸다. 전조등을 환히 켜고 만약경우 적기들의 목표물이 되여서라도 장군님께서 념려하시는 전선사령관의 신변호위임무를 수행할 결심이였다.

얼마후 그들은 김책이 탄 차를 따라잡았다. 곡산공장쪽의 화재로 하여 주위는 대낮같이 밝았다. 그곳을 빨리 벗어나려고 앞선 차도 뒤따르는 차도 힘껏 속도를 놓았다. 그러나 거리를 미처 벗어나기도전에 앞서 달리던 차가 멎더니 김책이 길 한복판에 나섰다.

뒤따르던 호위차가 급제동을 걸었다. 바퀴가 쓸리는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고무타는 내가 풍겼다. 먼지의 타래가 머리우에 덮씌웠다. 그러는 속에서도 호위원들은 전조등 불빛에 훤히 드러난, 길을 막고 서있는 김책의 엄엄한 기상에서 심상치 않은 일을 예감하였다.

《불을 끄시오!》

리병섭이 웨치며 차에서 뛰여내렸다. 아직도 적기들의 발동기소리는 파도처럼 머리우를 휩쓸고있었다.

《불을 켜오!》

김책이 소리쳤다.

《전선사령관동지!》

리병섭이 달려가 보고하려 했으나 김책은 짧게 되풀이했다.

《불을 켜라는데!》

전조등이 켜졌다. 밝은 불빛에 드러난 김책의 표정은 날카로왔다. 그가 격노했을 때 그의 눈초리앞에서 시선을 떨구지 않고 서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누구요, 나를 따라온게？》

《저… 전선사령관동지.》 리병섭이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장군님께선 전선사령관동지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닿은 다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

김책은 잠시 아무말 없이 서있었다. 볼편의 근육이 푸들푸들 떨리는것이 알렸다. 리병섭은 속이 한줌만 해서 서있었다. 마침내 김책이 또 날카롭게 물었다.

《동무！ 자기 임무를 아는가？！》

《저… 우린 호위원으로서…》

《누굴 호위해？》

《저…》

김책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전조등불빛이 이글거리는 그의 두 눈을 비쳤다.

《동문 장군님의 신변호위를 맡은 전사요. 그런데 감히 장군님곁을 떠나다니… 장군님의 신변호위는 당과 조국이 맡긴 임무야. 온 나라 인민이 동무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맡겼단말이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모르고있으니 무슨 호위원인가. 동문 자격이 없소. 자격은 고사하고 총살감이야！…》

그는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듯 팔을 홱 내젓고 돌아갔다. 그러나 차에 이르더니 또 돌아섰다. 한순간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성큼성큼 걸어와 얼어붙은듯 서있는 리병섭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전쟁의 어려운 때일수록 장군님을 잘 모셔야 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나라의 흥망이 장군님께 달려있어. 이걸 명심하라구.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야！》

그 절절한 음성이 가슴을 진감했다. 호위원들은 말한마디 없이 말뚝처럼 박혀있었다. 머리우를 스쳐가는 앙칼진 쇠소리도 듣지 못한듯했다.

어느덧 김책은 차에 올랐다. 이윽고 먼 화광이 구름발같이

길우에 떠오르는 먼지를 비쳐주었다. 호위원들은 전선사령관 김책이 탄 승용차가 어둠속으로 멀리 사라져갈 때까지 그자리에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계시였다.

《김책동무, 부디 몸조심하시오.》

그이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거듭 불러보시였다.

밤은 깊었으나 여전히 사위는 훤했다. 결사전을 각오하면서 김책이 달려간 그쪽에서는 오래도록 붉그레한 화광이 하늘가를 불태우고있었다.

…이때부터 전선사령관 김책은 후퇴해오는 련합부대들을 지휘하여 적의 주공방향인 전선서부에서 치렬한 방어전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최용건은 소환되였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보다 긴절한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를 소환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서에는 덕천군에 새로 전개되는 최고사령부야전지휘소로 도착하라고 씌여있었다.

25

최고사령부는 옥천지휘소에 이동전개되였다. 실무부서들과 통신결속소까지 그곳의 특별렬차에 자리잡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옥천지휘소에 도착하는 즉시 각 전선부대들과 련계를 짓고 작전을 지휘하시느라고 한시도 쉬지 못하시였다.

오전 10시엔 대동강류역에서 진행된 반돌격정형을 전화로 료해한후 부관장에게 남일이 언제 도착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남일은 수도방어에 새로운 후비부대를 증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음

이곳으로 오게 되여있었다. 부관장의 말에 의하면 남일은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전화가 왔었다 한다.

남일의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정확성이다. 그는 이번에도 제시간에 옥천지휘소에 도착하였다. 특별렬차가 가까이 보이는곳에서 차를 세우고 개울물에 내려가 세면을 했다. 장화까지 말끔히 닦고 군복의 먼지를 털며 길우에 올라섰다.

그러나 렬차가까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에 부딪쳤다. 남일이 나타나자 경위중대장이 몸을 돌려 차굴속으로 황황히 숨어버리는것을 띄여본것이였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은듯했다. 어떤 경우에도 경위중대장이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을 못본척하며 숨을리는 없다. 규정대로 하자면 숨이 차게 뛰여와 근무정형을 보고했어야 했다.

남일은 주먹을 꽉 부르쥐며 승강대로 다가갔다. 그때 또 이상한 감촉을 받았다. 렬차부관이 울상을 하고 거수경례를 하는것이다. 한마디도 규정의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입술을 비틀었다. 남일은 재빨리 그를 치떠보며 승강대로 올라섰다. 그 순간 번개같이 뇌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차대가리를 본것 같지 않았다. 차굴속에 있으려니 생각했었지만 그럴 리유가 없었다. 특별렬차는 차굴가까운 철길우에 나와있는것이다.

남일은 급히 승강대를 도로 뛰여내렸다. 그리고 차굴쪽을 그리고 정반대쪽의 텅빈 철길우를 휘둘러보았다.

기관차가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지휘용 특별렬차가 기관차도 없이 멎어있다.

분노의 아픔에 그의 심장은 조여들고 검붉어진 두볼은 후들후들 떨렸다. 넓은 이마우에로 검은 눈섭이 구붓하니 곤두섰다. 그는 충혈된 무시무시한 눈으로 자기의 서리찬 분격을 터뜨릴 대상을 찾았다. 차굴쪽으로 정신없이 걸어갔다. 장화발밑에서 자갈돌들이 불꽃을 튕겼다.

별안간 멎어섰다. 눈앞에 강부관장이 서있었다.

《기관차가 왜 없소?》

그는 속삭였다. 숨이 차서 헐썩거리며 눈을 가리는 땀방울을 손

바닥으로 훔치였다.

《어데 갔소… 누가 그걸… 떼여냈소？》

그는 말을 떠듬거렸다. 오른손은 옆구리의 권총집을 꽉 잡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마구 삼키듯이 공기를 마시고는 칼칼해진 목구멍으로 격노의 부르짖음을 터뜨렸다.

《이게 어떤 렬차요. 장군님께서 당장 떠나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 경위중대장은？… 그녀석은 어데로 달아났소？》

《…》

강부관장은 목에 경련이 이는듯 말 한마디 못하고 눈시울만 실룩거리고있었다. 그것을 보자 남일은 입을 다물고말았다. 모든것이 짐작되였다. 그러죄이는것 같은 아픔에 남일은 껄끽해진 목구멍을 누르며 띠염띠염 물었다.

《언제… 어데로 보냈소？》

《아침에… 신성천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위생렬차가 차대가리가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시며 장군님께서 당장 보내주라고 하셨습니다.》

《？！…》

둔덕우의 우중충한 수림이 철길로반우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덧 태양은 퍼그나 서켠으로 기울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일은 군복옷섶을 쥐여당겼다.

《장군님께선 지금 어데 계시오？》

《보위상동지와 함께 렬차안에 계십니다.》

《상동지？… 언제 도착했소？》

《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최용건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자우의 문건을 밀어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최용건동무가 왔단 말이요？！ 그런데 왜 그냥 들어오지 않고！…》

그이께서 막상 걸음을 떼시려는데 최용건이 들어섰다.
《장군님！》
최용건이 거수경례를 올리는 순간 그이께서 급히 마주가시였다.
《최용건동무！…》
그러나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그자리에 멎어서시였다. 놀란 눈빛으로 별에 탄 최용건의 수척해진 얼굴을, 붕대를 두텁게 감은 한팔을 번갈아보시였다.
《이게 웬일이요？… 어쩌다 이렇게 팔을 부상당했습니까？》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차창으로 흘러든 마가을의 설핀 해빛이 부상당한 왼팔을, 붕대로 한쪽어깨에 걸메고있는 최용건의 검붉어진 얼굴을 비쳐주고있었다.
《장군님！》하고 최용건은 애써 웃어보이려 했다. 《별치 않은것입니다. 약간 다쳤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여 이리 됐습니까？》
그이께서 거듭 물으시자 최용건은 성한 손으로 어지러워진 붕대를 감싸보려고 했다.
《서울로 나갈 때 적들의 비행기가 달려드는통에… 좀 상했습니다.》
《그러니 한달전에？！… 그런걸 왜 오늘까지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부상이길래… 장군님, 일없습니다. 이젠 거의 다 나았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묵묵히 서계시였다. 물날은 그의 군복을, 눈가장자리까지 시퍼렇게 죽어있는 그의 험해진 모습을 살펴보시였다. 먼길을 달려온탓에 팔소매와 귀밑머리에도 뿌옇게 먼지가 올라앉고 눈에는 피발이 서있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최용건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참 고생이 많았겠소. …》
조용히 혼자말처럼 뇌이시는 말씀이였다. 그러자 최용건은 살

눈섭을 흠칫거렸다. 과묵하고 굳센 그였지만 그이의 아픔에 젖어든 말씀을 듣자 뜨거운 충격을 참아낼수 없었던것이다.

《최용건동무.》하고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동안 서울에 나가 정말 큰일을 하였습니다. 적들의 방대한 무력과 맞서 싸우려니 고생인들 오죽 많았겠습니까!… 이번에 최용건동무가 서울에 나가 14일간이나 적들의 침공을 저지시켰기에 락동강전선의 주력부대들을 구출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모퉁이를 맡아 큰일을 해놓았습니다.》

《장군님!》하고 최용건은 볼편의 근육을 푸들푸들 떨며 말씀드렸다. 《우린 그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싸웠을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탁자앞으로 돌아오시였다. 나무그림자들이 렬차간벽에서 너울거렸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디 서울뿐입니까. 그동안 38도선과 남천계선의 방어전투를 지휘하여 얼마나 힘겹게 싸웠습니까. 그렇지만 정세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최용건동무, 우리의 피어린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은 단숨에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강점할 야망밑에 미친듯 공격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부지중 힘껏 주먹을 부르쥐고계시였다. 그것을 띄여본 최용건은 숨이 칵 막히는듯 얼굴이 컴컴해졌다. 이마에 구슬땀이 배일만큼 긴장해지고있었다.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다시금 결사적인 방어로 반타격의 준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사령부는 전선서부를 김책동무에게, 전선동부는 최용건동무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새 최용건은 소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있었다. 그의 관자노리에서 피줄들이 살아 꿈틀거렸다. 입은 무겁게 꽉 다물고 턱은 모가 져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와 마주서시였다.

《최용건동무, 곧 황초령으로 떠나야 하겠습니다. 금시 싸움터

에서 온 동무인데 다문 얼마간이나마 휴식을 주고싶지만… 정세는 위급합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최용건동무가 또 위험한 모퉁이를 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최용건은 입귀를 실룩거렸다. 더부룩한 검은 눈섭이 흠칫거리고 가늘게 좁혀진 두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장군님!》 마침내 그는 거칠게 숨을 내뿜었다. 《장군님께서 어려운 임무를 주시면… 전 행복합니다. 일생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다가 백두산에 묻히겠다고 그 시절에 벌써 김책동무랑 같이 맹세드리지 않았습니까.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재력이 닿지 못해 안타까울뿐입니다. 장군님!…》

최용건은 크나큰 흥분을 멈출수가 없는듯 검붉은 두볼을 후들후들 떨었다. 장군님께서 그의 성한 팔을 끄당겨 힘껏 다그어 안으시였다.

《그럼 믿겠습니다, 최용건동무!…》

잠시후 그이께서 전선동부의 방어임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자 최용건은 힘있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그럼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목이 꽉 메는것 같으시였다. 아무 말씀도 없이 최용건의 얼굴에 나타난 검버섯들을 어이듯하는 아픔으로 바라보시였다.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때식도 한끼 나누지 못하고 그 먼 싸움길로 또 보내다니!… 무엇인가 모질게 가슴을 비틀어대는것이 있었다. 부상당한 팔을 메고 찾아왔는데… 오자바람으로 그냥… 밥 한술 같이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이대로야 보낼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목이 타서 견디실수 없었다. 흉곽을 조이는 뻐근한 아픔에 숨쉬기조차 힘드시였다.

《장군님! 그럼…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최용건은 몸을 돌려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거침없이 힘차게 가고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오한이 나는듯 느껴지시였다. 별안간 몸을 홱 돌리시였다.

《잠간!》

마침내 그이께서는 막 문고리를 잡고있는 최용건을 멈춰세우시였다. 그리고는 크지 않은 렬차간을, 집무탁과 쏘파, 의자 등을 둘러보시였다.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던지 인차 생각나시지 않았다. 그러다가 창가의 상두대우에 놓여있는 종이꾸레미를 발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들고 최용건에게 다가가시였다.

《최용건동무, 이거라도 가지고 가면서… 요기를 하시오. 오늘아침 누가 가져다놓은 건빵인데… 변변치 못하지만 이밖엔 더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오.》

최용건은 두눈을 사뭇 슴벅거리고있었다. 이윽고 수척해진 얼굴의 퍼런 빛이 끼였던 눈언저리가 즐벅해졌다.

《장군님 ! ―》

흐느끼듯 숨을 들이그을 때마다 그의 목에서 피대가 꿈틀거렸다. 그러는 최용건의 팔굽을 잡으며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자, 갑시다. … 내가 바래주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최용건과 함께 렬차에서 내리시였다. 로반너머 두두룩한 둔덕에서 그늘진 숲이 설렁거렸다. 바람이 불면서 황이 든 나무잎사귀들을 철길우로 쥐여뿌렸다. 장군님께서는 그 잎사귀들을 밟으며 최용건과 나란히 철길너머로 걸어가시였다.

…

얼마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용건이 떠나간 먼 길쪽을 이윽토록 바라보고계시였다. 저 멀리 골어귀까지 구름처럼 피여나던 먼지도 갈앉은지 오랬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계셨다.

이제 남은것은 제2전선이다. 최현이만 돌아오면 그에게 2전선을 맡겨야겠는데… 하지만 그한테선 아직 아무 소식도 없다. 그래도 믿고 기다린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황초령방어에 부상당한 최용건을 즉석에서 떠나보내지 못할것이다.

믿음이란 곧 가장 굳센 사랑이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보답은 헌신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후 렬차에로 돌아오시였다. 남일에게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비품들은 자동차에 옮기고 곧 창성을 목표로 행군할것을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곳 창성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최고사령부 군관장령회의를 소집하실 계획이였다.

다음날 자동차행군이 시작되였다. 승용차들, 무선통신차, 화물자동차들로 구성된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는 쉴새없이 창성에로의 먼 로정을 계속 달렸다.

한밤중에야 행군을 멈추고 잠시 휴식하기로 했다. 휴식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운전사들은 조향륜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려 길가를 거니시였다. 오싹하리만큼 추위가 느껴지는 밤이였다. 올차게 영근 하늘의 별들도 차겁게 반짝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둠속을 더듬어살피며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함지박처럼 우묵진 골안에 여러채의 농가들이 있었다. 수수울바자도 있고 키낮은 돌담도 있다. 불 한점 없이, 개짖는 소리도 없이 죽은듯 잠들어버린 산골막바지 농가들이다. 어데선가 그을음냄새와 재를 버리는 두엄무지에서 나는 알싸한 냄새가 풍겨왔다. 길에서 가까운 어느 동기와집에서는 닭우리의 암닭이 구구거리는듯했다.

그 동기와집으로 강부관장이 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인가 짐작되는바가 있어 그를 부르시였다.

《그 집엔 왜 가오?》

그이께서 물으시자 강부관장은 쭈밋거렸다. 남일이 급히 다가서며 그를 대신했다.

《장군님, 날이 찬데 밖에서야 어떻게 쉬시겠습니까.》

《난 일없소.》

《장군님, 이제 저희들이…》

《일없다니까. 뭣때문에 곤히 자는 사람들을 깨우겠소. 우리야 아무렇게든 잠간 쉬고 가면 되겠는데 마을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소?… 그러지 말고 여기에 불이나 피우기요. 그게 더 좋소!…》

그리하여 잠시후 길가의 밭둔덕아래 작은 화토불이 타올랐다.

《보오, 얼마나 좋소! 고요하고 사색도 할수 있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난감해하는 빛을 숨기지 않고있는 남일을 불가까이 눌러앉히시였다.

《남일동무, 산에서 싸울 때 우린 늘 이런 화토불을 벗하며 살았소. 밤이면 불곁에 빙 둘러앉아 고향과 조국을 그리군했지…》

감회깊으신 어조였다. 어느덧 손에 든 꼬챙이로 삭정이며 솔가리를 하나하나 덧놓으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제 조국을 해방하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하고 누가 말을 떼기만 하면 끝없이 이야기꽃을 피우군했더랬소. 참, 꿈도 많고 노래도 많은 화토불이였지…》

벌써 화토불은 탁탁 소리내며 타올랐다. 솔가지가 타들 때마다 바글바글 진액이 끓어올랐고 너울거리는 불길속에서 나무잎들이 후둑후둑 타버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백색의 불길이 확 나가누우며 질은 연기를 뿜어대기도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불담을 모으시였다.

어데선가 선잠을 깬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다. 바람에 떠는 문풍지소리까지 들려오는듯싶었다. 혹시 둔덕우의 말라빠진 새초숲을 휩쓰는 산바람소리인지도 모른다.

김일성동지께서 남일에게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인젠 좀 눈을 붙이오.》

《일없습니다, 장군님! 웬일인지 전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소. 산에서 싸울 때도 불곁에 앉아 밤을 밝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소. 새 전투를 구상하느라 그래, 회의준비를 하느라 그래… 그중에서도 소식을 모르는 전사들, 소부대들을 기다리던 밤들이 제일 많았지…》

《…》

남일은 아무말 없이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지금 그이께서는 조용히 타오르는 화토불을 마주하고 아무 소식도 없는 최현과 박정덕을 생각하고계시는것이였다. 침묵이 흘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람이 부는대로 너울거리는 불빛을 이윽토록 지켜보고계시였다.

지금 지난날 공격집단의 중추를 이루던 두개 사단이 뒤에 남았다. 적들은 그 사단들이 포위되여 전멸됐다고 불어대고있다. 그러나 포위가 곧 전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포위되면 항복하던가 전멸되는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례들이다. 쓰딸린그라드에서 파울류스의 30만 도이췰란드군은 빈틈없는 포위환속에서 더는 헤여날 길이 없다는것이 명백해지자 항복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웨벨대장휘하의 영국,인디아,오스트랄리아의 련합군도 일본군 야마시다중장의 제25군에 포위되자 투항하였고 맥아더가 어뢰정으로 겨우 탈출한 바탄반도의 미군,필리핀군 8만장병도 그러한 전례를 따랐다.

항복하지 않을 경우엔 꼬르쑨—쉡첸꼬브의 포위속에 든 10개 사단 도이췰란드군처럼,린가엔만,레이떼 등 수많은 태평양상의 일본군처럼 전멸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포위당하면 끝장이라는것이 서방식전쟁론거일수는 있어도 우리 혁명군대의 성격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지난날 우리의 항일유격투쟁은 적들의 2중 3중의 포위속에서 진행되였다.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 단련된 견결한 혁명가들이 지금 대대와 련대,사단을 지휘하고있다. 최현을 보라! 무장으로 타고난 사람인듯 담차고 걸싸고 호방스러운 그는 《포위》라는 말쯤에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을것이다.

투실투실한 그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장군님!》하고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 느껴지시였다.

《장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러면 이 최현이 저 두억시니떼같은 놈들에게 포위되겠습니까? 저 육실할것들을 다 짓모아놓고 꽉 돌아가리다!》

그러면 박정덕은 또 어떠한가?… 미남형의 날파람있는 젊은이이다. 조용히 웃었고 침착하게 사색했다. 해방전엔 신의주의 소년배달부였었다. 그러다가 **김일성**장군님부대를 찾아간다면서 압록강을 건넜다. 만주에서 갖가지 운동에도 뛰여들고 감옥살이도 하다가 손에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웠다.

조국이 해방되자 곧 달려나왔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를 만나주

시였을 때 무엇을 하고싶은가 하는 물으심에 장군님을 모시고 본때나게 싸우고싶다고 웨치듯 말했다.

그이께서 웃으며 물으시였다.

《본때나게 누구와 싸운단 말이요?》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장군님! 싸워야 할 적이 많습니다!》

그후 박정덕은 제1중앙군관학교를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전쟁은 그의 용감성, 그의 지혜, 그의 군사적기량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보였다. 사단의 1제대로서 그의 련대는 통천에서부터 포항에 이르는 먼 싸움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시였고 마침내 명성높은 서울제4보병사단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시였다. …

그들은 기어이 돌아온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였다. 이제 그들을 주축으로 강력한 적후투쟁을 벌릴것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부대, 련합부대들을 더 투입할것이다. 비록 오늘은 한걸음, 두걸음 나날이 북으로 후퇴해들어가지만 정예의 사단들을 우리는 남기고 간다. 적의 심장부에 제2전선의 시한탄을 장치하고있다. 이제 전쟁의 종국은 여기서 결정될것이다! …

어데선가 차디찬 안개가 흘러오기 시작했다. 검푸른 하늘로 성벽처럼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이 희읍스름해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위여가는 화토불 가까이 팔을 내밀어 시계를 보시였다.

《아, 벌써 5시가 되였군. …》

남일도 시계를 보았다.

《가서 사람들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마을사람들이 일어나기전에 떠납시다!》

동기와집 굴뚝쪽에서 닭이 홰를 치며 길게 목청을 뽑았다. 그 장한 웨침소리에 외양간에서 자고있던 송아지가 음매—하고 울었다.

승용차들이 발동을 걸었다. 최사통신결속소의 처녀병사들이 차에 올랐다. 다들 말없이 조용히 서둘렀다. 아직도 시꺼먼 어둠이 깔려있는 산비탈경사면으로 전조등의 밝은 불빛이 쭉 뻗어나갔다. 아직도 창성까지는 몇시간을 더 달려야 했다. …

26

이무렵 도꾜의 다이이찌 빌딩 (맥아더총사령부 건물) 은 열병에 뜬것처럼 분주했다. 조선전선에서의 혁혁한 《승리》를 전하려고 전신기들이 련발사격을 해대듯 따르륵거렸고 숱한 전보문들이 날아가고 날아왔다. 전화기는 하루종일 쉴새없이 몸부림쳤다. 따르릉, 따르릉！… 민정국장 휘트니준장은 성가시게 울어대는 전화기로 다가갔다. 송수화기를 드니 일본내각 관방장관 오까자끼 가쯔오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류창한 영어로 가쯔오가 말했다. 《한가지 청을 드리고싶어 이렇게 실례하는거예요. 예, 예, 다름아니라 요시다 시게루수상이 총사령관각하를 뵙고저 하는데… 오늘 혹은 래일 상면이 가능한지 문의해주시겠습니까？》

휘트니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원수는 요즘 몹시 바쁘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전선에서는…》

《아, 전선형편은 우리도 잘 압니다. 참, 미리 축하를 드려야 하는건데… 우린 모두 유엔군의 혁혁한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고맙소.》

휘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요 깜찍한 녀석이 왜 여기로 전화를 걸어왔겠는가. 절차대로 하면 부관실을 통해 문의하는게 옳을것이다. 그러나 맥아더의 벗이라고도 할수 있는 나를 통해 쉽게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작정한게 분명하다.

《그래 원수를 만나려는 용건은？…》

휘트니의 물음에 가쯔오는 재빨리 말했다.

《예, 수상각하는 조선전선에 조달할 군수품문제와 시게미쯔 전외상문제 등을 급히 토의하고저 합니다.》

《알겠소. 그렇게 보고드리지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럼 안녕히!》

10분후 그는 맥아더의 방에 가있었다. 공기조절기가 설치된 그의 사무실은 크지 않았다. 호두나무로 장식된 아담한 벽, 검소한 가죽안락의자, 푸른색 라사천이 씌워진 탁자, 한쪽벽에 붙여놓은 유리책장들… 거기에는 수많은 군사리론책들이 꽂혀있었다. 그밖에 또 작은 흡연탁자가 한쪽구석에 놓여있었다. 맥아더는 회색주단을 오가면서 무엇인가 사색하고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혼자 조용히 외계와 동떨어진 세계에 박혀 사색하기를 즐겨했다.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방에는 전화기도 없다. 불필요한 치레와 번잡한것을 그는 질색하였다.

맥아더는 요시다수상의 상면요청에 애매하게 머리를 기웃거리고나서 한동안 주단우를 오락가락했다.

《마침 잘 왔소. 거기 상우에 있는 전보를 읽어보오.》 그는 방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량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나는 당장 압록강에 가닿으려 하는데 저기 워싱톤에서는 괴이한 상봉을 제의하고있소.》

휘트니는 탁자앞으로 다가갔다. 한장의 전보가 그우에 놓여있었다.

《국무성 제74368호 전보

보낸 사람: 국방장관
받는 사람: 극동미군총사령관

오는 15일 트루맨대통령이 당신과 회담을 가질것을 바라고있는바 회담장소는 호놀룰루가 적합하다고 본다. 사정이 있으면 웨이크섬이나 기타 당신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곳에서 만날수도 있다.》

휘트니의 표정을 살피던 맥아더가 무슨 영문인것 같으냐고 물었다.

휘트니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잠시 생각을 굴렸다. 변호사 출신에 다방면적인 지식의 소유자이고 또 맥아더의 심복인 그로

서는 적중하고 현명한 해석을 주어야 했다. 전보장을 뱅뱅 돌려 보고나서 그는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각하의 눈부신 군사적승리를 가로채려고 기도하고있습니다.》

휘트니의 확신에 찬 말에 맥아더는 곰방대를 든채 회색 주단 가운데서 굳어졌다.

《지금 합중국내에서는 치렬한 선거경쟁을 벌리고있는데 이러한 때 대통령이 각하를 만나 회담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조선전쟁의 승리를 대통령자신의 이름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그야말로 제때에 맥아더원수를 승리에로 이끌어준 현명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자는것이지요.》

맥아더의 곰방대는 불이 꺼져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깊은 생각이 그를 못박아놓고있었다.

아직 맥아더는 한번도 트루맨을 직접 만나본적이 없다. 지난날 트루맨은 두번씩이나 맥아더를 초청했지만 그는 일본의 정세를 구실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과 일본사이의 어느 중간지점에서 만나자고 한다. 물론 트루맨은 하와이로 정했으면 할것이다.

맥아더는 계속 불이 꺼진 곰방대를 뻐금뻐금 빨면서 생각하였다. 하와이는 너무 멀다. 웨이크섬을 택하자. 그러면 트루맨은 미국으로부터 나와 그와의 사이의 4분의 3을 날아야 하지만 나는 4분의 1만 날면 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웨이크섬이야말로 지난 태평양전쟁때 나의 눈부신 공적이 깃든 전적지이다. 응당 미국대통령은 여기에 날아와 전선지휘관인 이 맥아더를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

맥아더는 곰방대를 탁자우에 놓았다.

《전보를 치오. 〈15일 웨이크섬에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맥아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는 의미있는 미소를 띄우고 계속했다. 《나는 지금 모택동의 16자 전법을 써보려고 하오.》

휘트니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모택동의 《16자전법》이 그

가 활용한 유격전의 기본원칙 즉 《적진아퇴 (敵進我退), 적주아요 (敵住我搖), 적피아타 (敵避我打), 적퇴아추 (敵退我追)》를 이르는 말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회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자 맥아더는 흔히 뽐낼 때 취하는 자세로 두손을 허리에 짚고 목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사하면서 말했다.

《적퇴아추—바로 이거요. 대통령이 퇴각을 시작했은즉 추격을 해야 할게 아니요!… 웨이크섬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나는 대통령에게 아니 전체 합중국국민들에게 누가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고있는지 보여줄테요!》

맥아더는 트루맨이 루즈벨트가 죽은후 헌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대통령권좌에 올라앉던 그때부터 그를 질시하였다. 맥아더 자기가 《웨스트 포인트 륙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 미합중국 륙군의 가장 젊은 대좌로 승진의 길을 걷고있을 때 트루맨은 한갓 《트라흐스터》라는 가게방의 심부름군, 은행서기를 거쳐 1차대전때엔 초모되여 후방공급장교로서 련대점포를 열고 장사질이나 해먹던 녀석이였던것이다. 그러다가 벼락같이 출세의 길을 밟기 시작했는데 은행서기를 한 경험이 묘하게도 그를 닦아주고 장식해주었다. 전후 제대되여 미주리주의 정치적실권자에게 가붙었던 그때 깐진 계산과 검열에 대한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 미주리주상원의원으로서 참가한 첫 재정검열 결과는 그의 명성을 북소리마냥 울려주었다. 그후 국가방위예산안 재정검열에서 또 귀신같은 솜씨를 발휘하여 그의 정치적발판은 공고화되였고 나중엔 부대통령자리에 올라앉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1945년 4월 12일, 이날은 트루맨이 《축복》받는 날로 되였다. 그날 루즈벨트대통령이 자기의 초상화를 마무리짓고있던 화가의 눈앞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후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것이다. 그의 침상을 지키고있던 의사들이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하기 바쁘게 비밀경호원들이 트루맨에게 달려가 뒤문으로 끌고 나왔다. 어리둥절해진 트루맨이 방탄유리를 낀 승용차에 실려 백악관을 향해 달리고있던 그 시각에 이미 그는 미국헌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였던것이다. 이러한 트루맨

이였으므로 전쟁과 피어린 《승리》를 통하여 자기의 명성을 성돌처럼 믿음직하게 하나하나 구축해온 맥아더로서는 경멸할만도 했다.

또 트루맨과 맥아더는 정치적인 적수들이기도 했다. 트루맨—애치슨을 주축으로 하는 국무성—민주당은 유럽제1주의로, 맥아더를 비롯한 국방성—공화당은 아시아제1주의로 호상 격렬하게 대결하였고 1948년 대통령선거때에도 이 두 세력은 각축전을 벌려왔던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대결감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독점체들의 손에 받들려 정계와 군부에 나섰으며 조선전쟁의 직접적 도발자들로서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의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공산주의를 《박멸》하겠다는 피타는 념원이였다. 공산당,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총과 딸라의 산아들—맥아더와 트루맨은 그러한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웨이크섬에서 회담하기로 하였다.

워싱톤에서 보내온 답전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용비행기 《인더펜덴스》호로 워싱톤을 출발하여 쎈트 루이스, 쌘프랜씨스코, 하와이를 거쳐 웨이크섬으로 가는바 일행으로는 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드리대장, 륙군장관 페이스, 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대장, 특별보좌관 해리맨 등 수행기자단이 2대의 수송기에 갈라타고 극비밀리에 떠난다고 했다.

요란스러운 행차였다.

전보를 읽은 맥아더는 잠시 생각한끝에 말하였다.

《나의 일행은 단출하게 무읍시다. 당신과 부관, 남조선주재미국대사 무쵸, 그밖의 전선지휘관들은 싸움터를 떠나서는 안되오. 기자들도 필요없고… 그런데 주치의사는 꼭 준비시키시오.》

도꾜에서 웨이크섬까지는 약 8시간 걸린다. 도꾜시간으로 오후 3시에 웨이크섬에 내렸는데 작전직일장교의 말이 현지시간은 12시 10분이라고 했다. 다들 시계바늘을 돌려 현지시간에 맞추었으나 맥아더만은 자기 손목시계를 얼핏 들여다보고나서 숙소로 곧추 들어가버렸다.

휘트니는 무쵸대사와 같이 섬을 돌아보았다. 찌는듯한 태양아

래 쉼없이 밀려드는 파도의 물갈기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전쟁과 긴장한 로동에서 벗어나고싶었다. 그런데 무쵸가 아메리카식 실용주의의 체현자답게 말했다.

《제때에 쉴줄 아는자가 일할줄 아는자라고 했소.》

다음날 아침 6시 30분 트루맨의 일행이 섬에 내렸다. 비행기가 멎고 문이 열리자 맨처음 승강대로 발을 내짚던 트루맨이 주춤 멎었다.

휘트니는 당황했다. 아직 맥아더가 나오지 않은것이다. 대통령의 얼굴이 해쓱해지는것 같았다. 안경을 주무르며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고있었다. 그때에야 맥아더가 나타났다. 태평양전쟁때의 낡은 군모를 쓰고있었다.

트루맨이 내려서자 맥아더는 경례를 붙였다. 격식대로 악수를 하고나서 트루맨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장군, 해리 트루맨은 일없어도 미군 최고사령관을 지체시키는것은 좋지 않소!》

맥아더는 고개를 숙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회의는 7시 30분에 시작되였다.

트루맨측에서는 브래드리 합동참모본부의장 외 8명이 주런이 위엄있게 앉았으나 맥아더측에서는 휘트니와 부관이 마주앉았을뿐이였다. 무쵸는 서울에서 걸어온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고 빠졌다.

이른아침이고 랭풍기도 돌고있었으나 방이 무더워서 트루맨은 웃동을 벗었다. 그래도 맥아더는 군복단추를 다 채우고 덤덤히 앉았는데 그의 손에는 유명한 곰방대가 들려있었다.

트루맨이 타자를 친 12건의 토의안건을 꺼내놓고 개회사를 하였다.

대일강화문제, 대만방위문제, 필리핀, 인도지나문제 등이 하나하나 토의되였다. 트루맨이 안건을 제기하면 담당자가 설명하고 맥아더가 짤막하게 의견을 내놓군했다. 다른 의견이 없는가 물으면 매번 《없습니다.》하는 대답이 나오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군했다. 광범한 국제문제들, 특히 동방의 제국가, 제민족들의 운명을 트루맨과 맥아더 둘이서 다루고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담의 기본의제인 조선전쟁문제가 토의되였다. 먼저 선천—고인동—풍산—성진까지로 규정되였던 《맥아더선》 문제가 론의되였다. 사실상 맥아더는 자기의 이름으로 명명된 이 계선이상은 절대 넘어서지 않겠다고 언명했었으나 오늘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사태처럼 밀려가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약속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있었다. 그는 《맥아더선》을 철회할것을 주장했다. 그대신 새로운 《감은절공세》를 벌려 전조선을 재빨리 일거에 점령하여야 한다고 력설했다. 그러면 극동의 조선반도는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로 될것이고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즉 정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 그때에 중국이나 쏘련으로 급속히 진출할수 있을것이다.

맥아더는 군사작전회의에서 연설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적당한 체스춰로 자기의 주장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줄 알았고 박력있고 정확하게 다듬은 말마디를 련속 줄기차게 내뿜을줄 알았다. 그럴 때 그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곰방대로 내뿜는 지독한 연기에 취하듯이 전설적인 이 오성장군에게 취하고마는것이였다.

그러나 트루맨은 부기원출신답게 타산이 밝고 랭정하고 무서울만치 싸늘한 침착성의 소유자였다. 맥아더의 열띤 장광설이 고조에 이를무렵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들고 입김을 불며 닦기 시작했다. 그 무심한 동작에 맥아더는 입을 다물고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트루맨은 기다리고있은듯 조용히 물었다.

《장군, 전쟁이 언제 결속되오?》

바로 이것이 그의 주되는 관심사였다. 그가 알고자하는것은 여기에 있었고 여기서 그의 정치적책략이 시작될것이였다.

《각하.》하고 맥아더는 미소를 띄웠다. 《조선에서 적의 저항은 감은절 (11월 제4주 목요일) 인 11월 23일전으로 끝장날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것은 첫째, 38도선 이북의 북조선군대는 현재 10만명 미만인데 그것도 장비와 훈련이 매우 부족합니다. 골격을 이루던 부대들은 전선남부에서 포위섬멸되거나 붕괴되였습니다.》

맥아더는 또한번 미소했다. 그러나 트루맨은 여전히 안경을 닦고있었다. 이것은 맥아더로 하여금 약간 어성을 높이게 했다.

《둘째, 우리는 무적의 공군을 가지고있습니다. 압록강의 북쪽이건 남쪽이건 가림없이 적의 기지와 보급로를 마음대로 파괴할수 있습니다. 설사 수십만의 대군이 나타난다 해도 우리 공군은 그들을 소멸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에는 타격할 대상이 없는것이 골치거리입니다.

각하, 이것은 제8군이 크리스마스전으로 일본에 돌아올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빈집이나 다름없이 된 일본을 쏘련이 노릴수 있기때문에 빨리 전쟁을 결속하고 조선에는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미군 2개 사단과 그밖의 유엔군 부대들을 남겨두는것이 합당합니다. 총선거는 래년 1월초순에 하게 될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트루맨의 권한에 속하는 정치문제까지 제멋대로 다루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도 틀지고 너무도 확고하여 트루맨조차 비난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다들 유쾌한 기분이였다. 조선전쟁이 끝나면… 하는 화제가 시작되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열변으로써 회의는 사실상 끝난셈이였다.

얼마후 트루맨과 맥아더는 섬의 운수과장방에 가서 휴식을 했다. 과장방은 더웠다. 트루맨은 줄곧 땀을 훔치면서 얼음차를 청해서 마시고있었지만 맥아더는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태연히 앉아있었다. 공동성명초안이 작성된후 수표를 했다. 이로써 웨이크섬회담은 끝났다.

이렇듯 웨이크섬회담은 외견상 트루맨과 현지사령관사이의 상봉비슷한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남부태평양상의 고도—웨이크섬에서 있은 이 회담은 사실상 미제의 새세계전략의 리정표로 되였다. 드디여 트루맨—애치슨을 주축으로 하는 국무성—민주당의 이른바 유럽제1주의정책은 아시아제1주의로 방향전환을 시작하였다. 트루맨과 맥아더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아시아를

지배하여야 하며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반도를 반공전략의 교두보로 확고히 전변시켜야 한다는데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전선의 《감은절공세》가 결정되고 맥아더는 호기있게 《전군은 압록강을 향해 돌진하라!》는 공식명령을 내리게 되였다.

그러나 트루맨과 맥아더는 오산하고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눈먼 소경노릇을 하고있다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다. 전장에서 일생을 보냈으며 로회한 책략의 능수,빛나는 작전의 명수,전설적인 명장 등으로 언론과 사가들에 의해 화려한 의상을 떨쳐입고있은 맥아더조차 바로 그무렵 자기네 배후에 강력한 제2전선이 전개되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지어 그는 8군사령부에서 《북조선공산군 주력부대들중 일부가 중부산악지대에 집결되고있다.》라는 전보를 보내왔을 때도 그것을 낡은 휴지장모양 밀어버리고 말았었다. 맥아더의 심복인 휘트니준장이 그 전보를 알게 된것은 그로부터 이틀후의 일이였다.

매해 10월에 개최되는 히비야공원의 국화전시회는 도꾜의 전통적인 가을축제중의 하나이다. 휘트니는 이꾸찌외무차관의 초대를 받고 거기로 갔다. 사실은 맥아더도 초청되였으나 그는 이찌다마 일본은행총재의 방문을 구실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에 처 지니와 아들 아써를 보냈다.

1903년에 만든 도꾜에서 가장 오랜 이 공원은 한때 일본에서 보낸 벚꽃나무의 답례로 워싱톤에서 기증한 산딸기나무로 덮여있다. 공원구조 역시 동서양식의 범벅이여서 이국적인 맛은 덜하였다. 그러나 흔치 않은 휴식의 한때여서 휘트니는 사뭇 기분이 좋았다. 그는 지니를 상대로 또 이꾸찌외무차관에게는 자기의 박식을 뽐내려 도꾜의 력사를 훑기까지 하였다.

15세기중엽 군주 도칸오카가 성을 쌓아 에도라고 부를 때만 하여도 크지 않은 도읍이던것이 수세기를 지나서는 어떻게 나라,교또를 딛고 일어나 수도로 번창하게 되였는가 하는 장황한 풀이였다. 그러던중 이꾸찌외무차관이 잠간 자리를 뜬 짬을 타서 지니가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원수하고도 늘 력사풀이를 하세요?》
휘트니는 좀 얼떠름했다. 지니가 또 재빨리 입을 열었다.
《원수가 제일 즐기는건 상륙과 폭격이예요. 통털어 말하면 전쟁이지만…》
《저… 무슨 말씀인지…》
《아유, 당신이 그걸 모르시는게 유감이군요. 10군단이 아직 원산에 상륙하지 못했어요. 또 당신네들이 웨이크섬에 가서 열변을 토하고있을 때 포위섬멸했다던 북조선군대주력이 다 빠져나갔대요. 일부는 어덴가 집결했고… 워커장군한테서 그런 전보가 왔어요!》
휘트니는 서둘렀다. 적당한 구실을 붙여 곧장 총사령부로 달려갔다. 맥아더를 찾아가 국화전시회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한 다음 넌지시 문제의 전보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맥아더는 한동안 우울한 기색을 하고있다가 천천히 곰방대를 빨았다.
《10군단의 상륙이 늦어진것이나 워커의 전보나 다 대수롭지 않은것이요. 10군단은 장진을 거쳐 강계로 쳐들어갈것이니 처음부터 예견했던 그대로인 셈인게고… 다음은 살아남았다는 북조선공산군 사단들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는 내 이미 웨이크섬에서 다 얘기하지 않았소?… 떠들어댈것은 아무것도 없소.》
이어서 그는 자기가 늘 인용하군하는 석가모니의 말로써 끝을 맺았다.
《말해주는것은 좋다. 그러나 생각하는것은 더 좋다. 지혜로운것은 좋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것은 더 좋다!…》
휘트니는 입을 다물고있었다. 맥아더의 곰방대에서 뿜겨진 회색의 연기가 또다시 그를 취하게 하고있었다.

27

그날… 리숙이 류현수의 상처를 수술하였다. 한 간호장에 불과한 처녀가 손에 메스를 들고 달려붙었다. 현수는 처녀가 팔을 부

들부들 떨던것을 먼저 기억한다. 눈을 꽉 감고 보지 않으려 했지만 순간순간 몸을 흠칫거리며 눈을 뜨군했었다. 한두번 칼질을 하면 될것을 열번 스무번도 더 했던것 같다. 리숙의 이마우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던 커다란 땀방울도 기억한다. 간호원 한영순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러면 인차 커다란 땀방울이 또 데룽데룽 매달리군했다.

이를 사려물고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지독한 아픔과 싸우면서 현수가 본것은 그것이 전부였던것 같다. 끝내 그의 상처를 파헤집고 파편을 끄집어냈다. 겨우 손톱눈만한것이였다. 그토록 작고 보잘나위없는 쇠붙이가 그리도 큰 아픔과 고통을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날밤… 현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에야 깜박 잠들었다가 또 눈을 떴다. 새벽의 등판은 싸늘한 이슬에 푹 젖어들었었다. 현수에게서 열발자국쯤 떨어진 등성이 한끝에서 리숙은 짚단을 깔고 앉아 자고있었다. 옆에는 언젠가 현수가 보초를 선다면서 메고가던 보총을 비스듬히 세워놓고 무릎을 감싸안았다. 무릎우에 머리를 얹고 꼼짝도 하지 않고있다. 첫 수술을 하고나서 죽은듯이 자고있다.

고요한 안개가 리숙의 무릎아래를 포근히 덮고있었다. 등뒤의 살맹이나무가 처녀의 머리우에 가지를 드리웠다.

차츰 새벽빛이 넓게 퍼져갔다. 현수는 저 맞은편 짚더미우에 앉은 처녀를 지켜보고있었다. 리숙의 머리우에 뽀야니 내려앉은 이슬이 희끄무레하게 드러났다. 나무가지에 맺힌 이슬이 소리도 없이 떨어져내린다. 하나, 둘, 셋… 계속 규칙적으로 떨어져내리건만 리숙은 여전히 고달픈 꿈결속을 헤매고있는것 같다. 차츰 등판의 풀들이 잎사귀를 펴들기 시작했다. 대기는 선잠을 깨는 숲의 미묘한 음향으로 가득찼다. 그 순간 현수는 리숙이 머리를 드는것을 보았다. 놀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있다. 이슬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고 모자를 썼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총을 들려다가… 갑자기 그 손을 움츠렸다.

《어마！—》

가느다란 부르짖음소리, 잠시 까딱하지 않고 서있다. 현수는 숨을 죽였다. 이윽고 리숙은 나무가지에 기대여 세운 보총에 손을 내밀었다. 무슨 지뢰인발선이라도 다치는듯 조심스럽게 손끝을 놀리고 총창끝을 어루쓸고 또 손끝을 놀리고있다. 그 순간 현수는 그 총창끝에 망울을 터친 한송이 나팔꽃이 달려있는것을 보았다. 밤새 그 어린 줄기가 총창끝을 뱅뱅 돌려감았던것이다. 그 무슨 자연의 속삭임이라도 엮어놓은듯 촘촘히 한벌, 두벌 또 한벌 감은것 같다. 리숙이 그것을 풀고있다. 이슬에 젖은 꽃망울, 섬약한 줄기가 끊어질세라 조심스럽게 풀고있다.

뜨거운 아픔이 목구멍으로, 가슴속으로 불길처럼 스며들었다. 웬 아픔이냐, 웬 눈물이냐?!… 물어보자. 온밤 나를 지켜봤을 별들아!… 총살선고를 받고있는 나를 지켜준 저 깨끗한 사랑을 나는 왜 진작 몰랐더냐. 어데 가나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이 뜨거운 사랑을 나는 왜 아직 다 모르고있었더냐?!…

파르스름하고 희슥희슥한 쑥덤불에서 풀벌레가 씨르륵거렸다. 찔레꽃나무의 엽전잎같은 잎사귀들이 번들거렸다. 풀잎사귀들에서 이슬이 뚝뚝 떨어져내리고있었다.

…그때부터 현수의 상처는 빨리 아물어갔다. 비록 몸은 말라빠지고 시꺼매졌어도 그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다. 소생하기 시작한 기력은 그를 차츰 일행의 맨 앞장에 서도록 했다. 그대신 리숙은 맨 뒤에 섰다. 리숙은 저도 모르는새에 자기가 걸머지였던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현수에게 넘겨주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저녁무렵부터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일행은 화전민부락이 내려다보이는 등판에서 소금을 구하러 내려간 한영순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돌연 날카로운 총소리가 산아래에서 울렸다. 마을끝에 있는 산막집에까지 이르렀던 한영순이 되돌아 달려오르는것이 보였다.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뒤따랐다. 얼마후에 마을쪽에서 재빛의 작은 점들과 같이 작게 보이는 적들이 쓸어나왔다. 적들은 재빨리 버성긴 산병선을 지으며 추격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분명 마을에 내려갔던 녀병사 한사람뿐이 아니라는것을 짐작한듯했다.

다수가 몸을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부상병들이여서 리숙은 어찌할바를 몰랐다. 마을로 내려갔던 간호원은 무작정 일행이 기다리는 산등성이로 곧추 달려오고있었다. 나무에 가리워 잠시 보이지 않다가는 또 피끗 드러났다. 적들이 쏘아댄 총탄에 나무가지들이 뚝뚝 부러져나갔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망연히 어찌할바를 모르고서있었다. 돌연 누군가 신음소리처럼 가늘게 부르짖었다. 한영순이 한순간 비틀거린때문이였다. 발치의 바위돌에서 불찌가 튕겨났다. 그러나 다음순간 처녀는 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뛰쳐올라왔다. 탄환은 여전히 그의 발꿈치 가까이에 팍팍 들이박혔고 머리우에서 날카로운 죽음의 휘파람소리를 질렀다.

《빨리, 빨리！…》

리숙이 부르짖었다. 그옆에서는 낮이 새파래진 박원철이 이를 북북 갈며 끙끙거리고있었다. 아무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추격하는 적들과 점차 거리가 좁혀지는것을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고있을뿐이였다. 점차 탄알은 그들 가까이에까지 미쳐왔다.

《영순이, 이쪽으로…》

리숙이 또 부르짖었다. 그리고 피뜩 머리를 돌려 누군가를 찾았다. 류현수를 찾고있는것이다. 오직 그만이 이 위급한 정황에서 제때에 옳은 결심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현수는 벌써 보총을 겨눠들고있었다. 사계가 좋은 츠렁바위아래에서 탄갑을 옆에 놓고 때마침 리숙을 건너다보았다.

《간호장동무, 빨리 피하오. 다들 데리고 저기… 비탈을 에돌아가오. 계속 산중턱을 가로질러 가야 하오.》

《그럼 동무？…》

《놈들을… 막겠소. 30분이상은 견지할수 있소.》

그때에야 다들 현수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지금 그가 무엇을 결심하고있는지 비로소 알아차렸다.

《그건 안돼요！》 리숙의 목멘 웨침소리였다. 《우린 다같이… 가야 해요. 그렇게 해선 안돼요！》

《못난소리！ 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빠지오. 놈들이 우릴 포

위하고있소!》

그러자 박원철이, 다음 김상준이 그에게로 다가들었다. 박원철의 떼꾼해진 두눈이 펀뜩이였다.

《나두 남겠어요!》

《섯!》

현수가 웨쳤다. 그리고 박원철의 가슴앞으로 곧추 보총을 겨눠들었다.

《다가서지 마오! 알겠소?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용서치 않겠소. 내 말을 듣소. 성한 사람들이 다 남으면 부상병들은 어떻게 되겠소. 빨리 피하오. 간호장동무, 구령을 치오. 어서!》

숨이 턱에 닿은 한영순이 눈앞에 나타났다. 휘파람소리같이 가쁜숨을 내뿜으며 풀썩 쓰러졌다. 머리우에로 점발사격의 총성이 메아리치며 울려갔다. 현수는 억제할수 없이 울컥 치솟는 격정을 삼키며 웨쳤다.

《뭣하는거요, 간호장!… 이제 조금만 더 지체했다간 다 끝장이요. 젠장, 빨리 피하오!》

《현수동무!》

눈물에 목멘 처녀의 부르짖음이였다.

《가오. 가라는데!… 난 죽지 않소. 뒤따라갈테요, 리숙!…》

리숙은 한영순을 일으켰다. 정신없이 두릿거리다가 해군소속포병이였던 중상자를 거들었다.

《날 따라! — 다들 조심해요!》

박원철도 김상준도 어쩌는수가 없었다. 그네들이 남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병 두사람도 남아야 한다. 다들 자기가 거들던 부상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였다. 아츠러운 총소리가 이제는 멀지 않은 곳에서 터졌다. 구령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 순간 《땅!—》 하는 단발사격이 여무지게 터졌다. 현수가 쏜것이다.

리숙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검푸른 그 녀자의 두눈이 한순간 굳어져버린듯했다. 입은 벌려지고 소리없는 웨침이 막 터져나오는듯했다.

《가오, 리숙! 념려말고, 어서!》하고 현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숙을 바라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동무를 잊지 않겠소. 리숙, 기운을 내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니까. 동무들은 모두 살아야 하오. 나도 꼭… 찾아갈테요！…》

리숙은 목을 비틀며 휘친거렸다. 홀로 남은 현수에게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무엇엔가 걸채이군했다. 헐금씨금 눈물에 젖으며 부상병의 람루해진 옷자락을 꽉 붙잡고 갔다. 어느덧 그들의 뒤에는 땅거미가 깃든 한산한 숲만이 남았다. 보이지 않는 그쪽 츠렁바위아래에서 탄알을 아껴가는 여무진 총성이 울리군했다. 무질서한 미식소총의 사격소리도 그치지 않았다. 얼마후엔 그 총소리들이 산너머쪽으로 옮겨진듯했다. 류현수가 적들을 달고 가는 모양이였다. 리숙이 수술한후 겨우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또 짓이겨질것이다. 아직 누군가의 부축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하던 류현수이다. 그러한 그가 지금 적들을 달고 산너머로 가고있다. 풀대를 그러쥐고 땅을 허비며 한치 또 한치 기여가는지도 모른다. 질풍같이 터지는 총소리끝에 또 한방 보총사격소리가 울렸다.

《현수동무！—》

리숙은 걸음을 멈췄다. 땀에 젖은 머리칼이 눈섭우에 달라붙어있었다.

리숙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귀를 강구고 터질것 같은 가슴을 누르며 또 한방의 총성을 기다린다. 그러나 더는 아무소리도 들려오지 않는것 같다. 이를 악물었다. 목구멍은 뜨거운 경련에 마구 죄여들었다.

《어떻게 된 일이예요, 예？ 현수동무！—》

그때 멀리서 울리는 기관총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물기를 머금은듯한 그 귀에 익은 여무진 보총소리는 더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모두 서로 엉켜선채 헐썩거리며 귀를 강구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지나온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들이 났다. 적들의 한무리가 발자취를 쫓아오는것이 분명했다. 장교인듯한놈이 앞선 사병들을 재촉하고있었다.

리숙이와 상병자들은 서로 부축하며 숲속을 가로질러갔다. 소

리를 죽여보려고 무진 애를 다 썼으나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에 삭정이들이 부서져나가군했다. 그때마다 가슴이 졸아들어 마지막 열물까지 짜낼것 같았다.

갑자기 일제사격의 총성이 지척에서 터졌다. 모두 일시에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머리우에서 나무우듬지들이 부러져내렸다. 불과 스무나문발자국뒤에서 놈들이 어둠이 깃든 숲속에 대고 총을 쏘아대고있었다. 시꺼먼 숲의 어둠이 놈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운듯했다. 무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있은후 또 일제사격의 총소리가 울렸다. 리숙의 눈앞에서 한영순의 두눈이 미친듯 흥분에 달떠 불꽃처럼 타고있었다. 리숙이 힘들게 속삭였다.

《앉아요. 다들！… 조심해요. 소리내지 말구…》

시꺼멓고 침울한 적막이 그들의 머리우를 꽉 내려누르기 시작했다. 머리속이 웅웅 울리고 이따금 발밑의 땅이 무너져내리는듯 아찔해졌다. 그러는속에서도 리숙은 보총을 겨눠들고 무섭게 웨치던 류현수를 생각했다. 불시로 가슴속에 들어차는 쓰라린 아픔으로 하여 그는 숨이 막혔다.

머리우의 어둠속에서는 재빛구름이 낮추 스쳐가는듯했다. 찬기운을 풍기며 밤이 깃들인 숲속에서 썩은 나무잎이며 물기를 머금은 땅의 씁쓸한 냄새가 풍겨왔건만 리숙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오래도록 귀를 강구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현수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다. 사위는 싸늘한 적막에 잠겨있었다.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한 동켠 하늘에서는 별들이 힘없이 깜박이고있었다.

날이 밝자 류현수가 싸우던 츠렁바위아래에까지 그들은 살살이 더듬어보았다. 그곳에서 힘들게 기여간 자리가 산등성이너머로 나있었다. 바위모서리에,나무등걸에 불에 그슬려 꺼멓게 된 천터럭들이 붙어있었다. 이따금 짓이겨진 풀대들에 묻은 피자욱까지 눈에 띄였다. 마지막으로 총을 쏜곳에서 세개의 탄피를 주었다. 그곳의 풀대들은 온통 짓이겨져있었다. 무수한 발자국들이 그곳에서 맴돈것 같았다. 어지럽게 찍혀진 발자국들우에 점점이 피방울들이 뿌려져있었다. 수술후 경과가 좋다고 몹시 기뻐하던 류현

수였다. 수술자리에 감았던 붕대가 풀려나가고 상처가 다시 헤쳐진 모양이였다. 그런데 그 모든 흔적들은 생생하건만 류현수자신은 아무데도 없었다.

리숙은 숲속으로 난 발자취를 쫓아가다가 그만 우뚝 서버렸다. 별안간 무서운 상상이 억센 발톱처럼 가슴을 그러쥐였다. 두눈이 희뿌옇게 흐려지고 목덜미까지 꿋꿋해졌다. 리숙은 어이는듯한 아픔에 신음하며 누군가를 질질 끌어간것 같이 마구 파헤쳐진 자리를 지켜보았다.

《현수동무!》

불같은 속삭임이였다. 어느덧 리숙은 가슴속 피가 죄다 말라버린것 같았다. 리숙은 손을 들어 얼굴을 싸쥐였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와 알게 된 지난 몇주일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두서없이 련이어 떠올랐다.

《아—현수동무, 어찌됐나요. 죽지 않는다고 하더니… 죽지 않는 운명이라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예요, 이게!…》

소나무가지들사이로 이슬비같은 안개가 흘러오고있었다. 새벽하늘은 아직도 선뜩하니 푸르렀다.

28

날이 어두워질무렵 최현은 린제군 서화면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38도선이북으로서 남에는 가리봉, 서쪽엔 대암산, 북에는 가칠봉 등 1,200～1,500여메터의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계곡 분지였다. 사흘전 최현은 동해연선의 주요 주민집결지이며 적들의 보급기지인 양양을 쳤다. 그리고는 방향을 돌려 이곳 북강원도의 산간오지로 쑥 들어선것이다. 여기서 곧추 북으로 외통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 지방의 유명한 개고개를 넘어 남강의 상류에 이르게 된다. 남강을 끼고가는 단 하나의 이 외통길을 따라 계속 북상하면 드디여 고성으로 빠지게 되는바 이제 최현은 고성과 통천을

또 해방할 생각이였다.

최현은 명당산기슭에서 휴식할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사방 정찰을 파하여 적정을 알아보게 했다.

휴식구령이 내리자 두리에서 병사들이 떠들썩했다. 분주히 식사준비를 하고 숙영준비도 하느라 강기슭을 뛰여다니고 쌀을 일고 마른 나무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우며 부산을 피웠다. 그들은 지금 자기네가 38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멀고먼 락동강 좌안에서부터 예까지 왔다. 다들 고향집에 들어선듯한 기분들이였다.

사방에서 화토불이 타올랐다. 적구라 해서 불을 못피울게 뭔가. 최현사단의 병사들은 그 어데서건 뻐젓이 불을 피우고 숙영을 했다. 장군님의 10월11일방송연설을 들은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검사도 깐깐히 했다.

로지봉도 싸리나무를 한아름 해가지고 소양강의 물굽이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문경고개에서 최현사단장이 대오에 받아들인 사민들도 있었다.

어느 한 화토불가에서는 이쁘장한 녀교원과 박영일이라는 전사가 싸리나무를 꺾으며 저녁을 준비하고있었다. 녀교원은 이제 겨우 스물셋에 난다고 한다. 그렇듯 이쁘고 회초리같은 녀자가 왜 집을 나와 이 전쟁판에 끼여들었는지 로지봉에게는 잘 리해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종일 말 한마디 없는 녀인도 있고 지팡막대기를 짚고있는 풍채좋은 사나이도 있다. 그중에서도 종군작가라고 하는 김람인이 유표했다. 동그란 백테안경을 끼고있는데 여가만 있으면 수첩을 펴들고 시를 쓰군한다.

화토불은 조용히 타오르고있었다. 군용밥통을 주런이 꿰여 짝지발우에 걸었는데 그밑에서 불길이 날름거리고있었다.

로지봉이 다가가자 화토불가의 두사람이 자리를 드티여주었다.

《마침 잘 왔어요.》 녀교원이 말했다. 《여기 좀 앉으세요.》

로지봉은 손에 들고 온 싸리단을 털썩 놓고 그우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녀교원이 애잔한 미소를 띄우고 그를 바라보았다.

《시를 좋아하세요?》

《시？…》

《예, 이 군대동무가 좋은 시를 많이 알고있는데 같이 들어보자요.》

《？！…》

로지봉은 말없이 박영일을 치떠보았다. 그러자 박영일은 면구스러워했다.

《뭐 내가 쓴건 아니구… 우리랑 같이 가는 정치공작대 있지요？ 김람인이라는 안경낀 시인！… 그분이 쓴건데… 수첩을 좀 빌려보군했지요.》

지봉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털어 큼직하니 한대 말면서 두루 생각을 더듬었다.

시라는것을 그는 별반 들어보지 못했다. 락동강전선에서 공격을 앞둔 어느 군무자총회끝에 누군가 나서서 시를 읊었는데 크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히 흐느끼는듯 시작하다가 나중엔 목이 쉴 지경으로 목청껏 부르짖었다. 너무 웨쳐대지만 않았어도 좋았을것을！… 그는 불찌를 하나 들어 담배에 붙였다. 물씬！— 구수한 담배연기를 한껏 빨았다.

꼬챙이로 불담을 모으고있던 박영일이 생각을 가다듬는듯했다. 돌격을 앞둔 군무자총회끝에 시를 읊은 전사도 맨처음엔 박영일이 그러듯이 잔뜩 울상을 했었다. 박영일은 목을 쑥 빼들었다. 가느다랗게 두눈을 쪼프리고 마치 꿈을 꾸듯 로지봉쪽을, 아니 그를 넘어 저물어가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두메산골
비탈진 돌짝 밭머리
북데기 파뒤지며 살았더란다

약간 떨리는듯한 목소리였다. 지봉은 금시 눈굽에 이슬이 떨어질것 같은 그의 얼굴을 놀라서 쳐다보았다.

가난에 허리굽고

시름에 쪼들려
눈물속에 한숨속에 살았더란다

지봉은 문득 담배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느꼈다. 어둑스레해지고있는 골안은 허전하고 피피했다. 그래서인지 박영일이 읊고있는 그 시의 한마디한마디가 또렷하고 날카롭게 귀전을 울렸다.

구름발 감기고
하늘도 좁은 골짜기
…

로지봉의 고향집도 하늘 좁은 골안막바지에 있었다. 그역시 비탈진 돌짝 발머리에서 호미가 모지라지게 일하였다.

그는 두눈을 슴벅거리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강굽이쪽에서 차거운 안개가 기여들고 등뒤의 소나무숲은 씁쓸한 냄새를 풍겼다. 그저 그뿐이다. 여전히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의 강기슭에 퍼더버리고 앉아있을뿐 백화산도 돌서덕도, 고향집 뜰안의 배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로지봉은 이발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자기의 해진 신발끝과 물이 끓기 시작한 군용밥통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그러니 이건 누구의 고향애긴가?… 허름한 배낭을 지고가는 그 시인이라는 량반이 그런 산골에서 북데기를 뒤지며 살았다는 말인가?…)

…
얼음밑에 숨쉬던 개울물이
해방의 봄노래로
산기슭 굽이굽이 씻어흐를제

장군님 은덕으로
분여받은 내 땅

더미더미 고랑지어 갈아엎을제

울긴 왜
울긴 왜！… 하면서
속으로 운것은, 더 운것은
…

로지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가랑가랑한 박영일의 모습을 더는 바라볼수 없었다. 그 흐느끼는듯한 목소리를 더이상 앉아 들어낼 힘이 없었다.

울긴 왜
울긴 왜！… 하면서
속으로 운것은, 더 운것은
…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목구멍이 끓어올랐다. 그는 허척지척 걸어가며 소리없이 흐느꼈다. 구름발 감기고 하늘도 좁은 골짜기가 눈앞으로 달려왔다. 먹으로 로지봉이라고 큼직이 써놓은 지경패말이며 그것을 어루쓸며 눈물을 뿌리던 머리하얀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했다. 뜸부기 울던 논벌, 지금쯤 안해 순금이 가을걷이로 밤을 새우고있는지 모른다. 아니, 미국놈들이, 미국제 땅크들이 분여받은 그 논밭을 짓뭉개고있다면？！…

가고싶었다. 한달음에 달려가 그 땅을, 그 집을, 어머니와 안해를 지켜주고싶었다. 그는 몸을 떨며 걸음을 멈추었다.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이 마주오다가 놀랜 소리를 질렀다.

《지봉동무, 왜 그러오？》

《？！…》

지봉은 물고기모양으로 입을 벌리고 서있을뿐이였다. 수염뿌리들이 돋아나온 입언저리로 눈물이 흘러내리고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다. 주영섭의 눈빛을 보고서야 자기가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는것을 깨달았다. 황겁히 팔소매로 눈굽을 문지르며 돌아서버렸다. 주영섭은 더 묻지 않았다.

그때 주영섭은 한 소년을 데려가고있었다. 겨우 열서너살 났음직한 소년이였는데 숙영지로 기여들다가 보초에게 걸린것이였다. 그런데 나팔주둥이처럼 입이 뚜해져서 누가 물어도 대답을 안했다. 울상이 되여있는것 같기도 하고 잔뜩 골이 나서 뱉뚜시를 부려보는것 같기도 했다. 허름한 동복을 걸치고 어데서 얻었는지 군관혁띠까지 띠고있었다.

주영섭이 따져물었어도 대답을 안했다. 이 밤중에 왜 군대들이 있는 산속에 기여들었는가, 누가 시켰는가? 하고 으름장을 놓았어도 여전히 울상을 하고있을뿐이였다. 주영섭은 소년을 지휘부로 데려갔다.

마침 최현이 소년의 출현에 관심을 가졌다. 괘꽝스러운 녀석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최현이 앉아있는 화토불가로 소년을 데리고 갔다.

《넌 누구냐?》

최현이 물었다. 소년은 불빛에 비쳐진 최현의 성난것 같은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난 알아요. 최현대장이지요?》

최현은 놀랐다.

《너 나를 어떻게 아니?》

《왜 모르겠나요. 작년, 재작년에도 38도선을 돌아보면서 우리 양지촌에 들려가지 않았나요.》

《그래?!》

《그때 내가 소년단원들을 대표해서 경례를 했지요. 나하구 악수까지 하구선…》

《오— 생각나!》 최현은 소년이 실망할가봐 우정 반갑게 소리쳤다. 《그때 넌 요만했었지.》

최현이 너무 과장해서 키를 낮추었기때문인지 소년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더니 제손으로 귀언저리를 가리켰다.

《그때도 이만짝은 했어요.》

《아, 그랬던가!… 어쨌든 네가 나를 먼저 알아봤구나.》

《그럼요. 여기서야 최현대장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최현대장!…》 최현은 그 말을 되뇌이며 벙긋 웃었다. 《그래… 그렇게들 불렀지… 지금 난 사단장이다.》
《난 참모장이예요!》
《?!…》
최현은 놀라서 소년을 쳐다보았다. 화토불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웃어댔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최현과 소년을 둘러싸고있었다. 소년은 웃는 사람들을 마뜩지 않게 둘러보는데 동그스름한 얼굴이 구운 가재처럼 익어있었다.
《난… 꾀꼴새소년빨찌산… 참모장이란 말예요. 왜들 웃어요?!》
《저런! 빨찌산 참모장이라누만!》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또 다들 웃어댔다. 그들속엔 로지봉도 끼여있었다. 그는 웃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최현이 또 소년에게 누가 어떻게 빨찌산을 조직했는지 물었다. 소년의 대답이 먼저 어른들이 장군님의 10월11일방송연설을 듣고 그날로 《금강인민유격대》를 조직하자 그들도 소년단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들로 소년빨찌산을 조직하고 이름은 《꾀꼴새소년빨찌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대장, 부대장, 참모장까지 선출했는데 최현의 앞에 서있는 소년이 바로 참모장이였다.
《그래 참모장! 이름이 뭐지?》
《예, 한성일입니다.》
《대원들은 많겠지?》
소년은 우물쭈물했다.
《왜 말을 못해. 뒤개 소대쯤 돼? 아니면 뒤개 분대?》
《저… 한개 소대면… 몇명 돼야 하나요?》
《소대라면 적어도 한 스무명쯤 돼야지.》
소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럼 한개 분대는 몇이나 되나요?》
《음, 분대는 대체로 열명미만이다.》
소년은 또 머리를 기우뚱했다. 잘근잘근 입술을 깨무는것이 아

주 락심한 표정이였다.

《그러니 두개 분대도 채 안돼?》

《예.》 풀이 죽은 대답이였다. 《우린 모두 아홉명인데…》

소년이 어찌나 슬프게 말했던지 아무도 웃을념을 못했다. 그 아홉명중 대장, 부대장, 참모장이 있다 하니 그야말로 철저한 간부빨찌산이다. 그들에 대한 지도는 《금강인민유격대》의 청소년부장이 맡아한다고 한다. 그가 바로 《꾀꼴새소년빨찌산》의 기본임무를 정찰이라고 규정했으므로 소년들은 교대로 한계령, 명당산 등지에서 적정을 감시한다고 했다. 한성일이라고 하는 이 소년빨찌산 참모장도 숙영지의 화토불들을 보고 정찰하러 들어왔던것이다.

최현은 소년이 아는 한도에서 말해주는것을 듣고도 《금강인민유격대》가 장군님의 방송연설을 듣자바람으로 기세높이 조직되긴 하였지만 지휘성원들이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다가 유격활동을 너무 신비화한 나머지 참가인원부터 엄격히 제한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유격대장은 대대장인데 5개 중대가 있었다. 5개 면의 면당위원장들로 중대장을 임명했던것이다. 그런데 전체 성원은 60명미만이라고 한다. 군과 면의 당일군들, 내무원들, 민청일군들로 엄선하였기때문이다.

최현은 즉시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격활동의 원칙과 방법은 물론 무기도 넘겨주고 군사훈련도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서둘러야 했다.

최현은 작전과장을 불러 소년과 같이 갈 사람들을 선발해서 당장 대곡리의 범의 굴 같은데 들어박혀서 머리를 쥐여짜고있는 유격대장을 모셔오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 소년은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너 왜 그러니?》

최현이 물었다. 소년은 둘러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빛이였다. 그러다가 최현의 귀전에 대고 그만이 들을수 있도록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와 같이 가는 저 아저씨한테 명령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붙들렸댔다는 말을 못하게.》

《그건 왜?》

《그럼 웃음가마리가 돼서… 참모장이라는게…》

그렇다. 소년은 어엿한 소년빨찌산 참모장이다. 그런데 참모장이라는게 제편이긴 하지만 정찰을 나갔다가 붙들렸다고 하면 아주 멋적어질것이다. 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의 머리를 마구 헝클어놓았다.

《좋아, 그렇게 하자!…》 최현은 이어 소년과 같이 가게 될 련락군관에게 정색해서 말하였다. 《동무, 무슨 부탁인지 알겠지? 비밀을 지켜주라구.》

《알았습니다!》

련락군관이 대답했다.

소년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고맙습니다, 최현대장동지!》

《잘 가라구, 참모장!》

소년은 굽석 머리숙여 인사하고 떠나갔다. 그들의 모습은 곧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써늘한 어둠이 드리운 숲너머 검푸른 하늘가에서 쪼각달이 하염없이 헤염치고있었다. 화토불에서 불찌들이 날아올랐다. 별들이 반짝이였다.

제 2 편

1

리성조의 도착을 제일 기뻐한것은 서병호국장이였다. 청높은 목소리가 수화구의 진동판을 막 찢어놓는듯했다. 징—징 하는 떨림소리때문에 어떤 말은 잘 알아들을수 없었다.

《여보,지금 어데서 전화를 하오? 뭐 540호공장에?!… 젠장— 왜 강계로 먼저 오지 않았소. 급히 토론할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잘됐소. 우린 동무가 꼭 오리라는걸 알구있었소. 정말이요! 전번엔 좀 가슴아픈 소리도 했지만… 어찌겠소. 전쟁통에 신경이 바늘끝처럼 돼간다니까. 지난일은 다 잊어버리고 손잡고 일해보기요. 아무튼 전쟁을 이기고 볼 일이지. 그렇지 않소?… 음— 그렇게 생각한다니 고맙소. 그럼 그곳에서 먼저 일에 착수하시오. 동무가 도착했다는것을 곧 내각사무국에 보고하겠소. 장군님께서도 소식을 받으시면 대단히 기뻐하실거요. 몹시 걱정하셨는데… 자,그럼 다시 만나기요!》

사람이 판판 달라진것 같았다. 리성조는 놀랐다. 그리고 다음순간엔 벌써 아프게 할퀴였던 마음속상처가 대뜸 아물어버린듯느껴졌다. 그가 옳게 말한것 같다. 전쟁이니까…

며칠후 서병호가 전화로 그를 찾았다. 벌써 전날의 감격적인 어조는 사라지고 친밀한 말투도 바뀌였다. 공장의 기술장비실태를 묻고는 대뜸 《당장 여기로 오시오. 중요한 회의가 있소. 5시까지는 도착해야 하오!》하고 딱딱하게 말했다. 교통수단이 불비한 조건에서 수백리길을 단숨에 달려간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러나 서병호는 애당초 그런 조건을 념두에 두지 않았다. 리성조는 시계를 보고나서 어느 농가의 웃방에 들어있는 안해에게도 알

리지 못하고 성간역으로 달려갔다. 오늘밤 돌아가지 못할수도 있는데… 하고 리성조는 불안스럽게 생각했다. 안해가 걱정스러웠다. 병자처럼 해쓱하니 여윈 그 녀자의 커다란 두눈을 상기하기가 겁났다. 거기엔 쓰라린 애수와 병든 원한이 비껴있었는데 늘 말 한마디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남의 집 웃방, 춥고 한산하고 먹는것도 변변치 않다. 거기에 설분을 토할 주인마저 없고보면… 외롭고 기가 죽은 모습으로 어둑컴컴한 방구석에 까딱하지 않고 쪼그려 앉아있을것이다.

적기들이 날아와 작은 산간역주변을 온통 뒤엎어버렸다. 리성조가 역에 이르렀을 때까지 철도복구대원들은 아직 선로를 복구하지 못했었다. 원방신호기가 서있는쪽에서 웃도리를 벗어제낀 사람들이 뛰여다니고있었다. 목도채가 휘도록 흙을 담아 나르고 있다.

리성조는 토막숨을 헉헉 내뿜으며 멎어섰다. 산기슭의 인입선에 여러개의 화차를 단 기차가 서있는것이 보였다.

(됐구나 ! …)

열어제친 코트앞자락으로 얼굴을 마구 문질렀다. 목구멍에서는 아직도 겨불내가 났고 두다리마저 비칭거렸다. 당장 그자리에 주저앉고싶었다. 그러나 숱한 사람들이 뛰여다니는데 퍼더버리고 앉아있을수도 없어 그는 천천히 기관차쪽으로 걸어갔다.

그을음냄새가 코를 찔렀다. 류황이 타는 냄새, 기름에 쩔은 침목들이 피식피식 연기를 뿜으며 지독한 냄새를 피웠다. 엿가락처럼 휘여든 레루장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선로복구장에서는 도끼질소리와 레루못을 박는 함마소리가 소란스러웠다. 기름도 먹이지 못한 침목을 깎느라고 하얀 도끼밥을 날리고있었다. 왼팔에 완장을 두른 늙은이가 째지는듯 호각을 불었다. 리성조는 멈춰섰다. 그더러 물러서라는 요구인것 같아 그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멀찌기 에돌았다. 또 호각소리, 그 늙은이는 벌써 사람들을 지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로 가져와, 이녀석 ! … 아지미결에서 자구난 녀석같이 얼뜬해서…》

《됐수다. 괜히 떠들면서…》
호각소리,
《임자 귀구멍이 막혔어? 그것두 여기 쏟으라구!》
호각소리,
몸집이 실한 중년녀인이 늙은이쪽으로 머리를 홱 돌렸다.
《아주바니! 전에 통검을 했나봅니다레?!》
《그건 무슨 새빠진 소린가?》
《그러게 호각을 그리 잘 불지. 귀청이 찢어지겠수다레!》
떠들썩한 웃음소리, 누군가 목청을 돋구었다.
《그 아주머니 입심두 세다. 우리 선로반장아바이쯤은 노긋노긋하게 주물러대겠군그래. 단번에 떡반죽을 만들거야!》
대철레루를 목고해가던 장년의 남자들이 흐하흐하 웃어댔다.
또 호각소리, 걸죽한 욕설, 그래도 웃음은 그치지 않았다. 리성조는 저도 모르게 그자리에 멈춰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방금 폭격이 있은 이 페허에서 그칠줄 모르는 웃음소리를 놀랍게 듣고있었다. 별안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힘겨운 때인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웃고 떠들고있다. 전쟁이라고 해서 웃음까지도 다 잊고 살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만난을 이겨낼것이다. 그래… 리숙이도 어데선가 저 사람들처럼 웃으면서 힘든 고비들을 넘길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만은… 내 처만은… 온몸이 식어버렸다. 마음까지도…)
리성조는 이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였다.
얼마후 그는 《미가하 63》이라고 새긴 기관차자호를 눈여겨보며 멈춰섰다. 운전실에서 철도복을 입은 늙수그레한 사람이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바이가 기관삽니까?》 리성조는 머리를 젖히고 물었다.
《보면 모르겠소?》 퉁명스러운 대답이였다.
《다음역까지만 좀 타고 갑시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저기 뒤에 달린 차장차에 가서 부탁해보오.》
리성조는 금시 기관차가 떠날것 같아 맨 마지막 방통쪽으로 황황히 달려갔다.

차장차에서는 광대뼈가 나온 처녀차장이 리성조의 다급한 설명을 무심히 듣고있다가 말없이 승강대에서 비켜섰다. 리성조는 승강대우로 올라갔다. 긴 숨을 후— 내뿜고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원방신호기가 있는 그쪽에서는 아직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였다.

차장차를 문 기차는 얼마후에야 떠났다. 여전히 리성조는 차장차 널벽에 기대고있었고 처녀차장은 승강대발판우에 있었다. 차츰 기차는 속도를 높였다. 역사건물들이 뒤로 지나갔다. 그때 처녀차장이 호각을 길게 불더니 누군가를 향해 손짓했다. 리성조는 전철기쪽에서 웬 젊은이가 마주 손저어주는것을 보았다. 허우대가 크고 억센 젊은이였다. 순박하고 친절한 미소가 어린 젊은이의 얼굴이 처녀차장의 어깨너머로 언뜻 지나갔다. 처녀도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방긋 웃었다. 리성조는 좀 못생긴편인 처녀차장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늘 얄궂게 생트집을 일삼는 다른 한쌍의 눈을 상기하였다. 날씬한 몸매, 어여쁜 얼굴에 짙은 사색의 흔적이 비낀 그 녀자—군수공장의 반토굴식 합숙방 한간, 다음엔 가까운 부락 어느 농가의 웃방에서 하루종일 머리를 싸쥐고 말 한마디 없는 장영실… 리성조는 은연중 한숨을 내쉬였다.

처녀차장은 기차가 산굽이를 멀리 에돌아가자 몸을 돌렸다. 그때에야 지금껏 리성조가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는것을 깨달은듯싶었다. 처음엔 무척 놀란듯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차장칸으로 들어가버렸다. 리성조는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어데를 둘러봐도 페허뿐이지만 그곳에서 사는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있다. 그런데 내 마음속 한구석은 왜 이렇게 어둡기만 할가. 또다시 안해의 시름질은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돌연 캄캄해졌다. 기차가 굴속에 들어선것이다. 레루이음짬을 넘는 차륜의 덜커덩소리가 소란스러워졌다. 굴간벽이 쿵쿵 울렸다. 연통에서 쓸어나온 연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그러나 그는 기차가 굴밖을 나설 때까지 까딱하지 않고있었다.

산기슭, 날카로운 메부리들사이의 벼랑턱으로 기차는 달리고있었다. 비탈면엔 유난히도 붉은 붉나무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불

길처럼 타고있었고 바위벼랑우에는 흰옷을 팽팽히 조여입은 숲속의 아가씨, 봇나무 두그루가 슬픈 명상에 잠긴듯 서로 의지해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또다시 마음이 쓸쓸해지고 이름할수 없는 애수가 그림자처럼 가슴 한구석에 드리우는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지금 그가 의지할 굳건한 사랑이 없다. 나날이 우울해지고 시들어가는 안해가 있을뿐이다. 이제는 빈정거리지도 않고 고약하게 쏘아붙이지도 않으면서 다만 꺼지는듯 한숨만 내뿜는 안해, 온 공장이 떨쳐나서는 돌격작업도 공기함마의 드세찬 메질소리도 시험사격의 총소리도 지긋지긋해하면서 몸을 옹송그리고 고뇌에 잠겨있는 안해… 하지만 그들이 서로 알게 된 그때, 사랑과 희망에 도취되여있던 그 나날의 장영실은 얼마나 산뜻하고 경쾌하고 충동적인 것이였던가!…

맨처음 장영실을 알게 된것은 해방전 서울로 가산을 정리해 이주해간 아버지의 신식벽돌양옥집에서였다. 《소림광업주식회사》의 주권을 사면서부터 《시국은 기업의 터전을 마련할 현명한 인간을 요구한다》는 좌우명을 가지기 시작한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친지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중 한사람이 유명한 외과의사 《장도칼》이였다.

청등, 홍등이 꿈을 불러오고 틀어놓은 전축에서 잠에 취한 색스폰소리가 아마릴리스청자화분이 놓인 창가를 배회하던 부친의 생일연회, 진솔바지저고리에 호박물부리를 정중히 문 아버지를 둘러싼 사람들이 마쯔오까일본외상의 도이췰란드방문과 뒤이은 쓰딸린회견뉴스로 자기들의 선견지명을 시위하고있을 때 리성조는 《장도칼》이 데리고 온 산뜻하고 매력있는 장영실과 마주앉아있었다.

《저분들은 가는곳마다 그 얘기뿐이예요.》 장영실의 부드럽고 애잔한 목소리에 리성조는 취해있었다. 《마쯔오까외상이 베를린에 갔을 때 환영의 오케스트라가 최고조에 달했다느니 베를린 전시가가 일본국기로 뒤덮여있었다느니 돌아올 때엔 모스크바에서 몰로또브와 비밀교섭을 했다느니 쓰딸린자신이 역에 나와 바랬다느니… 온통 정치문제예요. 과연 일본이 쏘련과 싸우자고 할가

요? 성조씨 생각엔 어떠세요?》

《괜한 수고입니다. 내게서 정치적예언이 나오리라고는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그럼 미술은 어떠세요? 례하면 저 벽에 걸린 치찌안의 〈원죄〉는 누가 골랐어요? 성조씨의 취미겠죠?》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사들인겁니다. 말하자면 신식기업가의 정신적너울이지요.》

《어머— 감히 아버지조차 비웃으시네요. 하지만 제 보기에 성조씨 아버진 놀라운 수완가예요. 땅을 팔아 기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나이에…》

《그런것쯤이야 뭐…》

《아니예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법이예요.》

장영실은 고운 두눈을 내려깔고 조용히 시를 읊었다.

나는 산으로 오르련다
거기엔 부잇한 옛성터가
아침해발을 받으며 서있어라
깎아지른듯한 벼랑우에

리성조는 깊고도 따스한 그 목소리를 손에 들고있던 포도주잔과 더불어 단숨에 들여마셨다. 꿈결같은 운률이 머리속에서 춤추듯 들레였다.

《하이네지요?… 참 취미도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그런데 난… 전기밖에 모르는…》

《전기란 밝은 빛이 아닌가요. 그러니 성조씨의 장래는 그 빛처럼 휘황할거예요.》

그때 창턱에서는 《장도칼》이 리성조의 아버지를 구슬리고있었다.

《격강이 천리라더니 이제사 만났구먼요.》

《무슨 의미로 하는 소린지…》

《원, 사장의 눈엔 쇠돌밖엔 안보이는 모양이군. 저길 보시오.

우리 딸이 그 집 기술자와 어울리는걸… 영낙없는 천상배필이군요.》

《그래도 저앤 나이가 좀…》

《우리 영실이도 처녀는 아닌걸요. 글쎄 하루아침에 청상과부가 되길래 비운이 차례지나 했더니 저렇듯 의젓한 사람을 만나고자 했었단말이지요.》

잠시후 백회색세루지양복을 입은 《장도칼》이 리성조의 아버지를 이끌고 그들의 식탁으로 다가왔다. 느닷없이 축하의 인사말이 있었다. 처음엔 리성조나 장영실도 어안이 벙벙해있었다.

먼저 장영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발그레하게 얼굴을 붉혔다.

《고마와요. …》

그리고나서 상긋 웃으며 리성조를 건너다보았다. 만약 그때 그녀자의 고운 눈매에서 흐르던 미소가 리성조의 《휘황한 장래》를 향해 보내진것이라는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모든것은 달리 되였을런지도 모른다.

리성조는 머리를 흔들었다. 차칸에서 처녀차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어느덧 기차는 그가 내릴 간이역에 들어서고있었다.

2

서병호국장과 병기생산국의 여러 간부들, 각 부문의 기술자들 등 10여명이 모여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있었다.

제일 먼저 련락을 받은 서국장이 문을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섰다.

《수고했소. 기사장!… 정말 반갑소.》

체소하나 강마른 그 성격처럼 아귀센 손이 리성조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잡아쥐였다.

《동무에 대해서 장군님께도 보고드렸소. 장군님께서는 동무가 기어이 오리라고 믿었다고 하시며 대단히 기뻐하셨소. 자, 어서 들어가기요.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려고 불렀소. 다들 기다리

던참이요.》

그는 잰말씨로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띄웠다. 리성조는 너무도 달라진 그의 곰살궂은 태도에 약간 얼떠름해졌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권하는 등 부산을 피웠다. 모두 군수생산과 인연이 깊은 기술자들이였다.

얼마후 회의가 시작되였다. 여러 군수공장들의 생산실태와 특히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난문제들이 론의되기 시작했다. 차례가 540호공장과 관련된 문제에 이르자 리성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첩을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540호공장에서 아직 설치하지 못한 각종 선반, 볼반, 후라이스반 등 공작기계들과 제관직장의 샤링그 기초가 굳지 않은것 등 허다한 난문제가 있었다. 한때 일본놈들이 금광개발을 목적하여 놓았던 철도시설의 보수문제, 자동차수송을 위한 도로확장공사 등은 그럭저럭 로동자들의 결사적인 전투로 진척되였지만 제일 애로되는것은 전기의 부족이였다.

서국장은 리성조의 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했다.

《여보시오, 기사장동무! (그렇게도 그를 반겨맞아주던 서국장의 어줍던 미소는 이미 간데온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지금이 어떤 때이기에 그런 소릴 다 하는거요. 문제의 요점만 말하시오. 누구나 다 아는 사정은 곱씹지 말구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또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한가 하는것을 듣잔말이요!》

리성조는 수첩을 도로 쓸어넣었다. 서국장의 말이 옳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후퇴의 먼길을 걸어오면서 매일, 매시각 눈앞에서 벌어지던 참상을 벌써 잊었단말인가?…

《대책은… 우선 전천이남지구의 송전선을 잘라버리고 군수공장들에 집중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다음 제가 있는 공장에서는 샤링그와 같은 대형기계들의 기초가 굳어지기까지 무려 10여일이 걸리므로 비록 부족되는 전기이긴 하지만 기초타입물양생을 전기열법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옳소! 그런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단말이요!》 서국장이 두손을 썩썩 비비며 만족해했다. 《그래서 내각에서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군수공업부문에 아낌없이 돌려주었단말이요!》

그러나 만족하기엔 아직 일렀다. 리성조에 이어 여러 사람들이 걸린 문제들에 대하여 렬거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적인 난문제들이 많았다. 모임은 자연 열띤 론쟁으로 번져갔다. 그러자 서국장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는 먼저 약간 대머리진 이마를 높이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동무들은 지금 무슨 말들을 하고있는거요?…》 돌연 맹렬하게 기침을 깇고나서 말을 이었다. 《애로와 난관이 없는 투쟁이 어데 있겠소. 더우기 오늘의 엄혹한 정세하에서 그러한 리유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단말이요?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놓고 무슨 말공부질인가 말이요,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따지기전에 사상적으로 받아물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단말이요. 이것이 첫째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단말이요!

그런데 동무들은 뭐요? 지금 전선에서는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이 피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여기 앉아서 된다, 안된다 하면서 머리를 찧고있을수 있는가, 총탄 한알이 한 생명과 맞먹는 이때 수학공식이나 풀고있을새가 있는가!… 적들은 지금 청천강에 이르고있소. 며칠후이면 여기까지 밀고 들어올수도 있소. 당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때 뼈를 갈아서라도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할게 아닌가. 로동자동무들을 보오. 동무들은 눈이 있으면 저 우리의 로동계급을 보란말이요. 로동계급적자각과 불굴의 투지로 만난을 극복하며 싸우고있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고있소. 젖먹이가 달린 애기어머니들을 또 보시오. 기대옆에 애기를 잠재워놓고 일하고있소! 손이 터져 물집이 생기고 젖이 모자란 애들은 울 기력마저 없소. 그래도 일한단말이요.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있단말이요. 우리도 이런 정신과 투지를 가지고 달라붙는다면 무엇을 못해내겠소. 당적량심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단말이요. 이런 준엄한 시각에 우리의 당적량심을 검열해봐야 하오. 저 로동자들처럼 손으로 피대를 돌려가면서라도 당에서 준 과업을 기어이 실천할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는가, 없는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약한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동요분자들은 우리 대오에 있을 자리가 없소. 없단말이요!》

그의 두눈에서 숯불이 이글거리고있었다. 그는 흥분에 몸을 떨며 또 사람들을 휘둘러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기가 질려 꿋꿋해졌다.

《자, 그럼 토론합시다.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서국장은 자리에 앉았다. 조용해졌다. 리성조는 흘끔흘끔 서병호를 곁눈질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착잡한 마음이였다. 그의 열변에 공감되였고 또 의심이 가기도 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다. 사실상 리성조는 그의 인간됨됨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없다. 건강상태가 나빴으므로 겉으로 보기엔 허약한 체질을 가진 그였다. 허나 결패있고 완력있는 지도일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흔히 능력있는 간부라고 말하는 그런 다양한 기질, 즉 소탈하고 정력적이고 웅변도 있는 사람이다. 로동자들과 같이 웃동을 벗어제치고 기초구뎅이를 파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함마질도 했다. 공장장이나 기사장 등 간부들이라면 무섭게 달구어댄다. 하루에 겨우 두세시간 책상우에 엎드려 쪽잠을 잔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의 몸을 혹사하군했으나 그의 내부에는 아직도 무진장한 정력이 남아있는듯했다. 한데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꼭 있어야할 그 무엇이 결여되여있었다.

《리성조동무！》 서국장이 불렀다. 《540호공장에서만도 이달에 700정의 무기와 3만 5천발의 포탄을 생산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고된것은 그 절반도 안되오. 어디에 걸려있다고 보오？》

《…》

리성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사실상 그는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주었던것이다. 전기에 걸려있다！… 다른 일이라면 서국장의 말그대로 뼈를 갈아서도 해낸다치고 전기란 그렇게 생겨나는게 아니다. 전기기술자인 리성조로서도 군수공장들에 소요되는 전기를 다 보장해줄 그러한 기적은 만들어낼수 없다.

한때 설계를 끝내고 건설을 시작했던 장자강발전소 (독로강발전소) 마저 중단되여있는 지금 더는 방도가 없는것이다.

리성조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있자 서국장은 문건철을 벌컥벌컥 뒤지기 시작했다. 참기 어려운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가 성

을 내건 다시금 감동적인 웅변으로 분발시키건 어쨌든 리성조는 다른 대답은 결코 못할것이다. 그는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서병호가 그것을 받았다.

《예, 서병호입니다. 예? 뭐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인가 웃주머니에서 찾으려다가 급히 책상우의 수첩을 펼쳐놓더니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꽉 틀어잡았다.

《병기생산국장 서병호 전화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군님!》

일시에 진공상태에 들어선듯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공명판을 울리는 그분의 친근한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게 들을수 있었다. 언제,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섰던지… 리성조는 알지 못했다. 심장의 박동이 세차게 흉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서국장에게 무기문제와 관련하여 묻고계시였다. 난국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시각이 다가오고있다, 미국놈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38도선이남으로 몰아내면서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의 력량을 소멸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력량을 튼튼히 갖추는것—이것이 우리의 전략적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무기와 탄약을 대량 생산보장해야 한다, 당에서는 그 어려운 과업을 지금 동무들에게 맡기였다, 그런데 군수공장들의 생산실적은 아직도 추서지 못하고있다.

무엇이 더 요구되는가, 언제면 전량을 생산보장할수 있는가?…하고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장군님!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하여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어이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술자들과 토론하는중입니다.》

《그러니 해낼수 있단말이지. 좋습니다. 언제까지 전량을 생산보장할수 있겠소?》

《장군님, 한달동안에 해내겠습니다!》

《한달!… 가능성이 있소?》

《장군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로동자들은 손으로 피대를 돌려가면서 일하고있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서병호와 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몇분이나 흘렀는지… 창문틀이 드릉드릉 울었다. 세찬 바람이 불어치는 모양이였다. 마침내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일한다－그게 가능성이란 말이지… 아니, 국장동무, 그것이 영웅적인 이야기로는 남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오. 왜 손으로 피대를 돌려야만 하는가？… 동무들은 부족되는 동력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군님！》

《그런즉 아직 대안이 없단말이지… 지금 거기에 기술자, 전문가들중 누가 있소？ 혹시 리성조동무가 거기 있지 않소？》

《있습니다, 장군님！ 성조동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리성조는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서국장이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거듭 손짓을 해서야 의자를 넘어뜨리며 다가갔다. 어떻게 전화를 넘겨받았는지… 대번에 목이 잠겨버린듯했다.

《장군님！》

《아, 성조동무！… 동무의 소식을 들었소. 정말 반갑소. 당을 따라 그 어려운 길을 헤쳐왔는데… 고생이 많았겠소！…》

《장군님！…》

《부인도 같이 와있다는데 외지에서 불편한게 많겠구만.》

《일없습니다. 저희들은… 장군님의 믿음에 꼭 보답할 그 마음뿐입니다！》

별안간 목이 칵 메였다.

《고맙소.》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지금 무기생산에서 제일 걸린 고리가 전기인데 기사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정 해결방도가 없겠소？》

《장군님！ 저희들도 그 문제로 머리를 짜고있습니다.》

《전쟁때인만큼 다른 부문은 좀 죽이고 군수공장들에 우선 보

장해줄수도 있지 않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일체 주민지역과 청천강이남으로의 송전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공장들이 이설된 이 지역은 워낙 전기가 적게 공급되던곳이여서 도저히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다름아닌 장군님께 그런 괴로운 말씀을 드리고있다!…

《그래도 동무야 무슨 방도를 찾을수 있지 않소. 동무야…》

《…》

리성조는 송수화기를 부여잡고있는 두손이 꽛꽛하게 곧아드는 것을 느꼈다. 순간의 침묵이 얼음쪼각처럼 가슴을 찔렀다. 잠시후 그이께서 또 말씀하시였다.

《어렵단 말이지… 지금 형편에선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는 입을 열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있었다. 가슴의 압박에 참을수 없을 지경으로 숨이 차올랐다.

《성조동무!》

《장군님!》

마침내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또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릴수 있겠는가?!… 어느새 등골로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라도 서국장처럼 기어이 해내겠습니다!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 전량을 해낼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일이였다.

《장군님!…》 그는 헐떡거리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

돌연 진공상태에 빠진듯 귀가 웅웅 울었다. 예리한 금속성의 여운이 심장을 어이는듯했다. 이윽고 그이께서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알겠소. 우리 더 토론해봅시다.》

수화기를 놓으신듯 전류흐르는 소리가 끊어졌다. 골수를 파고들며 짱— 하고 스쳐간것은 다른 소음이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병호국장이 무어라고 웨쳤고 아연실색한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그는 송수화기를 떨어뜨리며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다음 두손으로 머리를 꽉 움켜쥐였다. …

3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를 끝내신후에도 한동안 송수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시였다. 좀더 알아보고 좀더 론의해보고싶으시였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고 헐썩거리며 말을 갑자르던 리성조의 갈린 목소리의 여운만이 아직도 그이의 뇌리에 울리고있었다.

《장군님! 지금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서병호는 손으로 피대를 돌려서라도 해내겠다고 했었지만 리성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엔 마음속의 극심한 고통이 들어있었고 량심과 의무간의 심각한 대결이 빚어낸 고뇌와 몸부림이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더듬으로 연필을 쥐시였다. 아까부터 펴놓고있던 군수품생산과 관련된 보고서의 어느 한 부분에 의문부호를 크게 그리시였다.

손으로 피대를 돌려가지고는 전선에서 요구하는,이제 있게 될 강력한 반타격전에 소요되는 그 많은 량의 무기와 포탄을 생산할수 없다. 그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정에 어둡고 무책임한 사람들만이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척척 류창하게 대답을 망탕 하는 법이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며 자기가 생각하는바를 말하기 두려워하면서 힘들게 입을 연다.

그이께서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였다. 크고작은 수자들마다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지금 온갖 애로를 겪으며 후비부대들을 조직하고있으나 그들에게 메워줄 총이 절대적으로 부족된다. 총이 없어 후퇴를 했는데 또 총이 걸려 후비부대들을 더 늘이지 못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은 퇴창가로 다가가시였다. 피기없는 태양이 좁은 골안상공을 지나 뉘엿뉘엿 저물어가고있다. 길건너쪽 학교 지붕우에 한무리의 참새떼가 내리더니 바람에 불린 가랑잎들처럼 사방 흩어져버렸다.

저 수수한 단층교사건물에서 어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리하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고 각급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며 구분대와 부대들에 정치부 부대장,구분대장 직제를 내오고 중대에는 당세포를,대대와 련대들에는 당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금 량적으로 급격히 증가되고있는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비추어 군대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사상적으로 강화된 군대라 해도 총이 없이는 적과 싸울수 없다. 총이 없이는 병사도 부대도 승리도 있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구석에 놓인 자그마한 책상앞으로 돌아오시였다. 수첩장을 번지고 《총－전기！》라고 쓰시였다. 하지만 각종 무기와 총포탄생산이 전기에만 걸리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그이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였다. 전선의 수요를 보장할 방대한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 능력있는 일군들이 부족했다. 결단성있고 헌신분투할줄 아는 일군들은 거의 다 전선에 나가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침공을 저지시키고 결정적인 반공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방사업 전반을 틀어쥘 아귀센 일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고계시였다. 그러한 일군으로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신것은 김책이였다. 해방후 줄곧 산업부문사업을 맡아보았고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작성의 주되는 참가자이며 만사람에게 잘 알려진 신망있고 권위있는 일군으로서 그이상의 적임자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선사령관으로서 전선서부 적의 주타격방향에서 피어린 방어전을 지휘하고있다. 그를 전선지휘에서 소환하면 커다란 공백이 생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밖으로 나서시였다. 찬바람이 불고있었다.

그때 무선통신차가 서있는 체신소쪽에서 키가 후리후리한 남일이 거의 반달음으로 달려오는것이 눈에 띄시였다. 무척 흥분하고있는것 같았다. 언제보나 담담한 빛이던 그의 얼굴이 불에 쪼인듯 상기되여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방금 적구에서 최운림동무가 보내온 전문에 의하면 최현동무가 양양과 고성,통천을 련달아 해방했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일이 올리는 전문을 급히 받아드시였다.

《어디 봅시다! …》

전문을 읽으시였다. 연거퍼 두번세번 읽고나서 흥분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최현동무답소,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거요. 그래서 놈들을 치면서 보무당당히 오고있소! …》 그이께서는 부지중 갈린 음성으로 혼자말처럼 뇌이시였다. 《오고있소. … 끝내 돌아오고있소! …》

그이께서는 남일에게 전문을 넘겨주시였다.

《곧 최현동무가 북상하는 동해연선에 련락군관들을 파견하시오. 최현동무는 지체함이 없이 최고사령부로 올것. 한개 부대만 함께 오고 기타 부대들은 적구에서 활동하는 부대들과 합세하도록 할것! …》

그이께서는 잠시 머리속에서 최현의 북상로정과 그 시일을 가늠해보시였다. 되도록이면 그를 빨리 오도록 해야 했다. 적의 침공을 저지시키며 새로운 결정적인 반공격을 가하기 위한 그이의 작전적구상에서 최현은 중요한 일익을 벌써 맡고있었다. 그에게 지금 준비되고있고 또 맹렬한 활동을 벌리기 시작한 제2전선의 지휘를 맡기시려는것이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하고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최현동무를 빨리 오도록 하시오. 련락군관들을 여러 조 편성해서 떠나보내시오. 빨리 올수록 좋소! …》

《알았습니다!》

남일이 힘있게 대답했다.

그때였다. 그이께서는 별안간 가슴이 쿡 쑤시는것을 느끼시였다. 며칠전 최현의 어린 딸이 후퇴도중 잘못되였다는 보고를 받

던 일이 상기되신것이다.

최현이 끔찍이도 귀애하던 딸이다. 그애의 손등이 약간 긁히기만 해도 숱진 장미를 흠칫거렸고 밤에 자다가 식은땀만 흘려도 온밤 머리맡에 앉아 담배연기로 방안을 꽉 채운다고 했다. 덜퉁하나 애모쁜 사랑으로 그애의 먼 장래를 축복하던 그였었다. 그러한 최현이 그처럼 사랑하던 딸의 죽음을 알면 얼마나 괴로와하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저려나시였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먼 산줄기너머로 눈길을 주시였다. 한동안이 지난후에야 여전히 꿋꿋하게 서있는 남일을 돌아보시였다.

《인젠 박정덕의 사단만 돌아오면 되겠는데… 틀림없이 그들도 돌아오고있을거요. 대전쪽에서 적의 포위에 들었으니까… 전선중부로 들어올수 있소. 그곳에서 활동하는 부대들에 과업을 주어야겠소. 박정덕의 사단이 도착하면 더 후퇴하지 말고 곧장 적후투쟁에 진입하도록 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적구에서 활동하는 최운림이와 리승엽에게 곧 련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또 최현을 생각하시였다. 지금 적구의 부대, 련합부대들로 무어진 제2군단을 부군단장인 최운림이 림시 지휘하고있으나 실상은 군사위원인 리승엽의 수중에 쥐여져있다고 한다. 그곳으로 유격전의 능수이며 배심이 드세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범같은 군단장을 속히 파견하여야 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10월도 다 가고있던 어느날 박정덕의 련합부대는 비로소 38도선을 넘어서고있었다. 오불꼬불 잇대여진 끝없는 총창의 흐름이였다. 소나무, 사스래, 전나무들 사이로 한결같이 색이 바랜 람루한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지나갔다. 해별에 철갑모와 장구류들이 번쩍이였고 검누른 말잔등들이 늠실늠실 흘러가기도 했다. 적들의 엠완, 칼빈 소총이며 브로우닝경기들도 많았다. 목다리가 긴 미국제군화를 신고가는 병사도 있지만 태반이 너덜너덜 찢겨진 신발을 칡줄로 동여매고있었다.

담가도 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릴 때마다 담가가 기울어져 극히 조심하였다. 나무가지를 휘여잡고 두발을 벋디디며 서로 을러메듯이 주의를 주군했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잡관목들이 꺾어지고 땃들쭉, 매저지 등이 짓뭉개졌다. 바위우에 엉켜붙었던 마른 이끼마저 홀랑 벗겨져버렸다. 대오가 지나가면 길고 긴 오솔길만이 뒤에 남았다.

사단장 박정덕은 락타등처럼 생긴 어느 한 산중턱에서 멎어섰다. 잠시 지도를 들여다보고있는데 등뒤에서 말투레질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머리를 돌려보니 사단장의 3명 련락병중에서 제일 좌상인, 박정덕보다 7년이나 나이가 더 우인 고기남이 점백이 말의 주둥이를 다독여주고있었다. 말이 소란을 피운것이 자기의 잘못이기라도 한듯이 고기남은 사단장쪽을 흘끔흘끔 바라보군했다.

박정덕은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참모부의 군관들사이를 헤치며 척후대대의 한 군관이 달려왔다.

《사단장동지！》

그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으므로 박정덕은 한팔을 가볍게 내저었다.

《무슨 일이요？》

《사단장동지！ 령너머 큰길쪽으로 적들의 기동부대가 움직이고있습니다.》

《력량은？》

《증강된 미군보병련대입니다. 땅크 12대, 자동포 6문, 자동차 28대…》

《됐소. 계속 전진하오. 그러되 놈들이 도발하면 즉시 반격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시오.》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그를 돌려보내고 생각하였다. 지금 적들의 기본집단은 북상하는데만 주력하고있다. 후방에 남은 부대들은 힘이 딸려 될수록 접전을 피하고있다. 특히 박정덕이 지휘하는 련합부대가 전쟁 초시기에 벌써 명성을 날린 《라이온 (사자) 사단》이라는것을 알고있

는 적들은 길목을 막아나서는것도 꺼리고있다. 그리하여 어떤 때엔 빼젓이 서로 마주보며 가기도 했다. 큰길에서는 적들이, 산릉선에서는 인민군대오가 북으로, 북으로 행군했다. 적들은 자동차를 타고 갔고 그들은 걸어서 갔다.

그러나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위18련대를 우회시키라고 참모장에게 명령했다. 도발하는 경우엔 즉시 포위할것!… 그이상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지칠대로 지친 병사들이건만 전투의 총성이 울리면 결사적으로, 무자비하게 싸운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다시 지도를 펴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점백이말이 또 요란스럽게 호용소리를 질렀다. 고기남련락병이 성을 내며 무어라고 웨쳤지만 대가리를 흔들며 갈개였다. 성급한 투레질소리가 연신 울렸다.

그때에야 박정덕은 첨병구분대가 앞서간 릉선 저쪽에서 말탄 사람들이 달려오는것을 발견하였다.

우리편이다. 아군기마수들이다!… 첫순간에 느낀 벅찬 예감이였다. 앞서간 대오에서 환성을 지르는듯했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파도치듯 밀려왔다.

박정덕은 급히 군복옷섶을 쥐여당겼다. 숨가쁜 기대와 바라마지 않던것에 대한 예감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자동총을 둘러멘 기마병 셋이 사민 한사람을 앞세우고 달려왔다. 점백이말이 세차게 푸릉푸릉 코김을 불었다. 그러자 저쪽에서 달려온 말들이 앞다리를 버쩍 쳐들었다. 부그그 거품이 이는 아가리를 쩍 벌리고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놈도 있었다.

누런색상의에 승마바지를 입은 사민은 모지름을 쓰며 고삐를 당겼다. 성급하게 구는 말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그는 우정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부대장이요?》

장령견장을 단 박정덕을 향한 물음이였다. 박정덕은 잠자코 있었다. 여전히 말안장우에 앉아 빙빙 돌아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을뿐이였다. 누구던지?… 본것 같으면서도 생각나지 않았다.

《왜 그러오?》 박정덕이 되묻자 말탄 사람이 신경질을 부렸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소?》

그때에야 별안간 생각이 났다. 박정덕은 한발 앞으로 나서며 거수경례를 했다.

《서울제4보병사단 사단장 박정덕입니다!》

《아! ―》

말탄 사람은 갈개는 말때문에 또 한바퀴 빙 돌았다. 승마바지에 친 누런 각반이며 역시 누런 웃옷에 달린 네개의 주머니 등이 괴이했다. 왜정때의 협화복 비슷했다. 누런색 모자역시 옛시절의 관헌들을 상기시켰다.

《그러니 동무가 그… 박정덕이군?》

《…》

《언제 임명됐소? 언제부터 사단장인가말이요?》

《…》

말이 성급하게 구는통에 또 빙빙 돌아가고있어 자초지종을 설명할수가 없었다. 그를 따라온 자동총수들조차 민망해하는듯했다. 그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고삐를 잡고있었다. 유독 그 사람만이 자기의 요란스러운 직급을 기어이 상기시키려는듯 내리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소?》

박정덕은 앞으로 나가 그의 말고삐를 틀어잡았다. 천천히 그리고 억세게 조이자 진정하지 못하고 갈개던 말이 대가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어룽머룽한 눈으로 고삐를 꽉 조이는 박정덕을 쳐다보았다.

《말이 순하군요.》 박정덕은 빙긋 웃었다. 말의 주둥이를 툭툭 건드리고나서 갈기를 쓸어주었다. 《그런데 배때끈을 너무 조인것 같군요. 그러면 말이 불안해합니다.》

《…》

승마바지를 입은 사나이는 말없이 흘끔 치떠보았다. 손에 감아쥐였던 고삐를 풀고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그러자 박정덕은 그와 같이 온 자동총수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소 나누는 인사였다.

《음, 반갑소.》 그는 손을 내밀며 박정덕을 깐깐히 훑어보았다. 《아— 소문에 듣던바 그대로군. 좋소. 젊은 친구… 우린 동무네가 포위되여 몽땅 잘못된줄만 알았지. 헌데 멀쩡하니 살아들있거던!… 응?… 아무튼 좋은 일이지. 그런데 이보 젊은 친구, 혹시 포위됐었다는것도 뜬소문이였는가?…》

《포위됐던건 사실입니다.》

《오— 그러니 포위를 뚫고나왔군. …》 그는 멀리 끝없이 잇대여진 행군대오를 살폈다. 《장하단말이요. … 인젠 최고사령부에서 왜 동무를 그리 신임했는지 리해가 가오, 응? 젊은 친구!》

《…》

박정덕은 대답을 피했다. 웬일인지 그가 자꾸 《젊은 친구》라고 하는것이 기분에 거슬렸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가 쏘는듯 미간을 찡그렸다.

물론 젊음이란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러나 빈정거리는듯한 그 사나이의 야릇한 어조는 구역질이 나도록 지겨웠다.

박정덕이 은근히 외면하는 눈치를 알고 그가 또 말을 걸었다.

《그런데 동무! 여기서 뭘하고있소?》

《아군부대들과 련계를 가져볼 방도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래 방도를 찾았소?》

《아직…》 박정덕은 머리를 저었다. 《무선기가 파괴되여 우린 지금까지 최고사령부에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음—》 그 사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작고 세모진, 찌르는듯 차거운 눈길로 이쪽을 살피면서 재빨리 말하였다. 《그건 나에게 맡기오. 내가 직접 보고드리지, 응?!…》

박정덕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왜?》 그가 따지듯 물었다. 낮으나 새된 목소리였다. 《미덥지 않아서 그러오?》

《…》

이번에도 박정덕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기분을 몹

시 상하게 한듯했다.

《이보, 사단장！ 행군속도를 다그치시오. 저녁까진 전체 련합부대를 가려주리에 집결시켜야 하오. 들었소？ 내가 나가 천리길을 헤쳐온 병사들과 담화하겠소.》

《그렇지만 우린 아직… 최고사령부와 련계를 못가지고있으므로 우선…》

《동무！》 별안간 그는 날카롭게 쏘았다. 가늘게 쪼프린 두눈이 매서웠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전체 련합부대 군인들에게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당의 전략적구상을 해설하겠단말이요. … 군단 군사위원으로서 하는 말이라는걸 명심해두오！》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말께로 갔다. 아무말없이 말에 뛰여오르자 그를 따라온 자동총수들도 말에 올랐다. 채찍소리가 울렸다. 가파로운 산중턱, 길아닌 길이였지만 마구잡이로 달려갔다. 끝없이 잇대여진 두줄기 행군대오를 맞받아달리는것이였다. 얼마후 말을 달리면서 뭐라고 웨치는것 같았다. 천리길을 헤쳐온 전사들에게 무슨 전투적인 인사의 말을 했거나 아니면 격동적인 구호를 웨친 모양이였다.

박정덕은 잠자코 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련락병이 그에게 점백이말을 끌어온것도 알지 못하고 고개를 기웃하면서 자근자근 솔잎만 씹고있었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군단군사위원이라니… 누구요？》

《오－리승엽！》

참모부의 한 군관이 역시 낮은 소리로 대답해주었다.

4

10월말에 이르러 전선에는 늦가을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엄혹한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이시기 적들은 나

날이 침공속도가 떠지고 보급이 딸려 허덕이기 시작했다. 어느덧 전선의 너비는 청천강어구로부터 전선동부에 이르는 1,000여리로 늘어났고 광대한 전선에서 미제8군과 미10군단만은 서로 멀리 떨어져 협동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대도로를 따라 침공하는 적의 익측은 이미 아군에게 드러나있었다. 이러한 때 창성에서는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최고사령부 군관,장령회의가 준비되고있었다.

무정이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에 도착한것은 날이 밝을무렵이였다. 작전국의 직일군관이 먼저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남일에게 그의 도착에 대하여 보고했다. 그쪽에서 무어라고 하자 직일군관은 《알았습니다!》하고 웨치듯 말하고는 무정에게 송수화기를 내밀었다.

《장령동지! 전화를 바꾸랍니다.》

무정이 송수화기를 들자 남일은 정중하게 례의를 표하며 먼저 자기한테 들려달라고 했다.

남일은 최사통신결속소가 자리잡은 체신소 뒤쪽의 네마구리 큰집에 들어있었다. 몸채와 앞채,곡간채들이 따로 서있고 안마당을 둘러싼 담장도 높았다. 일각문과 직선으로 무선통신차가 서있었는데 바로 그옆에 완전무장한 보초가 있었다.

남일은 벌써 방안을 담배연기로 꽉 채우고있었다. 무정이 들어서자 한순간 마주보다가 아무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한때 무정이 간부부의 높은 직위에 있을 때 남일은 결코 그와 이렇게 상대할념을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 남일은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으로서 그와 마주서있다.

무정은 악수를 나누며 남일의 굳센 아래턱과 차거우리만큼 서늘한 눈빛을 면바로 들여다보았다.

《반갑소.》

무정이 한 말이였다. 남일은 그에게 키낮은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이어 남일은 실눈을 하고 걸탐스럽게 담배를 빨았다. 한손으로 탁자우의 담배갑을 무정에게 밀어주었다. 무정은 두툼한 두손가

락끝으로 담배가치를 뽑아물었다. 남일이 불까지 권했으나 자기 호주머니에서 전리품 라이타를 꺼내였다.

이윽고 두사람이 경쟁적으로 연기를 뿜어대자 방안은 숨이 막힐 지경으로 뿌옇게 흐려졌다. 무정이 먼저 손끝까지 타들어가는 담배를 나무재털이에 비벼끄자 남일은 바라지문을 쭉 열었다. 회색의 뿌연 연기가 꿈틀거리며 흘러나가고 대신 누기차고 랭랭한 공기가 쓸어들어왔다. 남일도 담배불을 손으로 눌러 껐다. 그런 다음 방복판의 문갑에서 벼루집을 밀어놓으며 큰숨을 내뿜었다.

《장군님께서는 무정동무가 도착하면… 군벌행세를 하면서 대오의 통일단결을 저애하고 맡겨진 방어임무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혼자서 후퇴해온데 대하여 자기 검토를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소. 장군님께서… 대노하셨소.》

《나도 들었소. 내 죄가 너무 크오.》하고 무정은 호흡이 절박해진 모양으로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난… 각오하고있소. 난 죽어마땅하오.》

《？！…》

남일은 아무 말도 안했다. 그로서는 그 이상 더 할말도 없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두손을 깍지끼고 우득 우드득 소리를 내고있던 무정이 피끗 눈길을 들었다.

《장군님께선 어디에 계시오？》

《적후의 전사들에게 보내줄 솜옷때문에 피복공장으로 가셨소. 아주 먼데요.》

무정은 또 한동안 손가락마디들을 뚝뚝 꺾었다. 그는 무엇인가 망설이다가 드디여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좀 도와주오. 장군님 계신곳으로 가야겠소.》

남일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길이 멀고 험한데다가… 내 생각엔… 장군님께서…》

무정은 고집했다.

《어쨌든 가야겠소. 난… 가야 하오！… 좋은 말 한필이면 되오. 지름길로 가겠소.》

…그리하여 무정은 얼마후 최사경위련대의 공골말을 타고

장군님 계신곳으로 달렸다.
멀고도 험한 길이였다. 피복공장에 이르렀을 때엔 날이 막 어둡고있었다. 마침 장군님께서 공장을 떠나시려던 참이였다. 무정은 비지땀에 젖은 말잔등에서 뛰여내렸다.
그때 차에 오르시려던 그이께서 무정을 돌아보시였다. 저으기 놀라신듯한 표정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이의 눈빛은 엄해지시였다.
《장군님！》
무정은 거쉰 소리로 목메는듯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분노의 아픔에 목이 칼칼해진듯 기침을 하시였다.
《여긴 왜 왔소？ 누가 동무를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가？！…》
《장군님！ 전… 장군님을 뵙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어서…》
《나를 만나선 무얼 하겠다는거요. 용서를 빌겠다는건가？！…》 하고 그이께서는 아픔에 젖은 음성으로 격하게 말씀하시였다. 《누가 동무를 용서하겠는가. 자기 동지들의 가슴팍에 함부로 총부리를 휘두르며 군벌행세를 한 동무를 누가 용서하겠는가？… 게다가 동문 맡은바 방어임무도 다 수행하지 못한채 혼자서 덜렁덜렁 돌아왔는데 그런 동무를 누가 용서하겠는가？！… 생각해보오. 동무는 나보다 앞서 생사를 같이하던 동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것부터 들어봤어야지.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병사대중이 무어라 하는지 그것부터 들어봤어야 했단말이요. 무정이,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걸 모르고있으니 무슨 지휘관이며 혁명가인가. 동문 혁명을 헛했소！》
그이께서는 뜨겁게 단 입김을 내뿜고나서 승용차의 열려진 문짝을 잡으시였다. 그이께서 차에 오르시자 발동소리가 울렸다. 이윽고 차는 떠났다. 그이께서는 그때까지도 무정이쪽을 돌아보지 않으시였다.
땅거미가 졌다. 재빛의 철산령봉들이 우중충하게 둘러선 하늘가에서 락조가 불타고있었다. 스러져가는 그 노을속에서 파란 별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컴컴한 골짜기가 마주 다가왔다. 길아래쪽을 흐르는 내물우에도 어둠이 내리고있었다. 그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승용차의 후사경속에 뛰여든 말탄 기수를 얼핏 보시였다. 무정이 미친듯 말을 때려몰며 차를 쫓아오고있는것이였다. 뽀얀 먼지발속에서 얼핏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잠시후엔 또 기를 쓰고 나타나군했다. 네굽을 놓고있는 공골말우에서 거의 몸을 엎드리고 세차게 채찍질을 해대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말갈기사이로 휘휘 날아지나는 찬바람에 피기 하나 없이 얼어든듯했고 두눈은 충혈져있었다. 세차게 팔을 휘두를 때마다 날카로운 채찍소리가 허공을 쩍쩍 갈랐다.

무정은 지금 자기가 무엇때문에 장군님께서 타신 차를 한사코 따라가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여기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것, 죽기로 따라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만을 집요하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차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정은 강기슭에로 말머리를 돌렸다. 길을 질러가려는것이였다. 숨을 헐떡거리며 꽛꽛하니 굳어지는 발로 박차를 차군했다.

어느덧 어둠은 짙어가고 굽인돌이를 돌고있는 승용차는 전조등을 켰다. 그 불빛으로 무정은 자기가 멀리 뒤떨어졌다는것을 별안간 깨달았다. 무엇인가 뜨끔하니 심장을 깨무는듯했다.

《장군님！…》

숨쉴수도 없이 가슴이 꽉 막히고 명치끝이 얼얼해났다. 터질것같은 가슴을 움켜잡으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장군님！… 저를 벌해주십시오. 이 못난놈을…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저버린 이놈을 여기서… 벌해주십시오. 장군님！—》

그러한 그를 바라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주먹을 꽉 부르쥐고계시였다. 자꾸만 뒤로 멀어져가는 무정을 향해 마음속으로 엄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부르시였다.

《무정이, 떨어지지 마오！—》

그리도 기를 쓰며 쫓아오건만 무정은 멀어져가기만 했다. 먼 강변에서 은빛 물방울들이 부서졌다. 무정의 말이 물을 걷어찰 때마다 하얗게, 파랗게 그리고 락조의 여광에 갖가지 령롱한 빛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솟구치고 부서져내렸다. 그러다가 돌연 네굽을 놓는 공골말도, 희뜩희뜩하던 채찍도, 말탄 기수도 어둠속에 잦아들

고말았다. 승용차는 골안을 뒤에 남기고 바위벼랑턱 굽인돌이를 돌아갔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무정은 목에 경련이 이는듯했다. 마지막 기력을 다 짜내며 채찍을 휘둘렀다. 공골말은 기진맥진했건만 너무도 가혹한 매질에 못이겨 언틀먼틀한 비탈면을 뛰여올랐다. 하지만 승용차의 불빛은 사라져버리고 길우에 피여났던 먼지도 고요히 갈앉고있었다. 무정은 턱을 덜덜 떨면서 련속 채찍질을 해댔다. 그 발작적인 동작에는 거의 절망적인 의미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느껴보지 못한 그런 당황함이, 뼈저린 후회를 동반한 몸부림이 있었다.

말은 미친것처럼 내달렸다. 어느새 승용차가 사라진 바위벼랑턱 굽인돌이를 돌아갔다.

그 순간이였다. 무정은 몸을 뒤채며 가까스로 말갈기를 거머쥐였다. 그가 탄 말이 별안간 앞다리를 버쩍 들고 일어서면서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던것이다.

무정은 숨구멍이 막힌듯했다. 사레들린것처럼 헉헉 숨을 내긋고 갈개는 말잔등에서 뛰여내렸다.

눈앞에 승용차가 멎어있었다. 차곁에 장군님께서 서계셨다. 그를 기다리고계신것이였다.

《장군님! ―》

무정은 왼손에 감아쥐였던 고삐를 놓았다. 채찍도 던져버렸다. 다음 순간 앞으로 엎어질듯 뛰쳐나가려 했으나 그만 비칭거리며 멎어섰다. 호흡이 헝클어지고 심장은 마비된듯이 굳어졌다.

《무정이!》

그이께서 나직이 부르시였다. 무정은 또 한번 흐느낌소리를 삼키며 걸음을 떼였다. 발밑의 땅이 흔들거렸다. 별안간 사위는 차디찬 적막속에 얼어붙은듯했다. 무정은 자기의 심장이 뛰는 거센 박동소리를 들었으며 전신이 끊임없이 와들와들 떨리는것을 의식했다.

그가 멎어서자 장군님께서 엄하게 물으시였다.

《왜 따라왔소. 그렇게 기를 쓰며 쫓아올적엔 무슨 할말이 있

는것 같은데… 말해보오. 뭐요?…》

무정은 가까스로, 힘겹게 숨을 내긋고있었다.

《장군님, 전 사실… 아무것도…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전 그저…》

《?…》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무정은 전신에 경련이 뻗치는것 같았다. 무엇인가 가슴을 쥐여비트는듯 그 짧은 침묵의 순간도 견딜수 없었다.

《무정동무.》 마침내 그이께서 준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무정동무, 그래도 동무야 오랜 세월 혁명을 위해 몸바쳐 싸워온 사람이 아니요? 엄혹한 시련도 헤쳤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뚫고나오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되여 제멋대로 동지들을 총살할수 있으며 자기 맡은 방어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저혼자 덜렁덜렁 돌아올수 있는가?!…》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한쪽 옆구리를 움켜쥐시였다. 그리고나서 불같이 지지는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난 잊지 않고있소. 동문 해방직후 조국에 돌아오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바쳐 싸우겠다고 불같은 맹세를 다졌소. 그때 우린 동무의 그 마음을 귀중하게 여겼소. 동무의 그 열렬한 애국심을 믿었소. 그런데 동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겠다던 동무가 왜 이렇게 됐소?… 그래 동문 알고있는가. 동무의 군벌행세가 어떤 후과를 빚어냈는지 아는가 말이요. 동문… 우리 혁명군대의 고상한 성격을 모독하였소. 우리 군대의 통일단결을 저애하고 그 원칙성과 순결성을 흐리게 했소. 그러니 엄중한가, 엄중하지 않은가?… 또 동문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도 저버렸소. 전쟁형편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때 맡은바 전투임무도 다하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 돌아올 면목이 있는가?… 나는 그런 무정이를 만나고싶지 않았소. 내가 알고있었고 기대했던 무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단 말이요!…》

《장군님! 이 못난놈이 그만… 큰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요?》
《전… 처벌을 받겠습니다.》
《처벌?!…》
《예, 그 어떤것이라도… 전 각오하고있습니다. 장군님!—》
별안간 그이께서는 《무정이!》하고 격하여 부르시였다. 《고작 생각했다는것이 그게 다요?… 동무 생각엔 그렇게 단순하게 혁명에 끼친 후과를 가셔낼것 같은가?…》
그이께서는 목깃단추를 헤쳐놓으시였다. 참을길 없는 의분으로 하여 몸을 떠시였다.
《물론 과오의 엄중성에 비추어 처벌은 당연한거요. 그렇지만 동무!… 우린 지금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제국주의와 판가리싸움을 하고있소. 한치한치 우리의 귀중한 조국땅을 내여주며 후퇴를 하고있소. 그런데 동문 뭐요. 이처럼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자기가 범한 과오를 놓고 머리만 쥐여뜯고있겠다는거요? 아니면 책임도 의무도 다 내놓고 물러서겠는가. 과오가 있다고 해서 혁명을 포기하겠는가?!… 아니, 그럴수 없소! 지금은 싸워야 할 때요. 과오의 근원도 싸움터에서 찾고 처벌도 싸움터에서 받되… 가장 중요한것은 원쑤를 타승하는 그것이요. 무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소?》
《장군님!…》 무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은 뻐근하다못해 막 터져나가는듯했다. 검고 수북한 눈섭을 흠칫거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피로써… 과오를 씻겠습니다. 장군님!—》
《난… 기다리겠소.》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내가 알고있고 기대했던 그런 무정동무를, 용맹스럽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무정동무를 기다리겠소. 그럼… 병사들속에서, 인민들속에서 과오를 씻소!…》
《장군님, 알겠습니다. 꼭 과오를 씻겠습니다!》
벅찬 경련에 목이 잠기여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관자노리의 피줄들이 맹렬하게 풀떡거리고 눈굽은 어느새 뜨겁게 번져져있었다. 무정은 흐느낌때문에 오무라든 입술을 꽉 악물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는 그냥 숨가쁜 오열이 솟구쳐올랐다. 커다란 주먹우에 뜨

거운 눈물이 줄지어 떨어졌다. …

다음날 새벽 무정은 전선으로 차를 달렸다.

우연한 일로 그 시각 전선사령관 김책은 최고사령부로, 창성으로 차를 달려오고있었다.

그는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오래도록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흘러가는 고산지대의 풍경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책의 얼굴은 근엄했다. 볕에 타서 거무스레해진데다가 입술은 말라서 텄다.

락동강기슭을 떠난 때로부터 어언 40여일이 흘러갔다. 그동안 줄곧 제대로 잠을 자보지 못했었다. 잠을 잘 시간이 차례지지 않았고 잠을 자서는 안되는 그런 위급한 정황이 계속되였었다. 특히 적들의 주공전선인 전선서부에서 후퇴해온 련합부대들을 지휘하여 수도에로 통하는 한치한치의 땅을 지켜가던 때가 제일 어려웠었다.

10월 20일, 그날의 일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 김책은 고도로 긴장되여있었다. 적들이 숙천, 순천 지역에 미제187항공륙전대를 투하하고 아군서부방어집단을 포위하려고 기도한때문이였다.

21일밤 김책은 영유 (평원) 남쪽고지에 진지를 차지하고있던 부대로서 적항공륙전대를 기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적들내부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163고지를 차지한 적들을 타격하여 격퇴하였다. 다음날 아침엔 적 기본력량을 포위하고 부단한 기습전으로 유생력량소모전을 벌리였다. 그리고 포위된 미187항공륙전련대를 구원할 목적으로 22일 오전 평양－신의주사이의 도로를 따라 공격해온 영제27려단 선견대를 과수원속에 몰아넣고 무려 3시간에 걸치는 섬멸전을 벌렸다. 이리하여 맥아더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직접 지휘한 항공륙전대작전은 완전히 파탄되였다.

그후 김책은 평양－신의주, 평양－개천방향으로 부대들을 기동시키면서 매 계선마다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시켰다. 그리하여 차후 청천강과 그 이북계선들에서의 새로운 방어를 준비함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다. 편하기는 고사하

고 늘 가슴속에 덩이덩이 뭉쳐 내려가지 않는것이 있었다. 북으로 옮겨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무쇠같이 강직하던 그의 의지력도 이 쓰라린 마음의 상처만은 아물게 할수 없었다. 잠을 못자서 피발이 선 눈으로 치렬한 싸움터를 살펴보군하였다. 깊은 밤이면 전지불을 비쳐가며 지도에서 피흘리던 싸움길을 더듬어보았다. 그길에서 무엇이 미흡했던가를 오래오래 돌이켜보군하였다.

어느덧 10월도 다 가고있었다. 동시에 군대에서의 그의 책임적인 사업도 끝났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소환명령을 받고 한밤중 창성으로 차를 달렸다. 시꺼먼 산봉우리들이 묵묵히 밤하늘을 치받들고있었다. 싸늘한 어둠과 정적이 깊은 골안을 뒤덮었다. 외줄기 전조등불빛만이 거침없이 불의 막대기를 내지르군했다. 불빛은 아슬하니 높은 절벽에 부딪치기도 하고 끝없는 어둠의 나락을 곧추 꿰지르기도 했다. 갈수록 길은 험했다. 경사급한 령길을 오를 때마다 기관이 낡은 그의 승용차는 앙― 앙 모지름을 써야만 했다. 라지에타가 설설 끓고 이따금 무엇인가 칙칙― 튀였다. 기름이 타는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나 김책은 여전히 의자등받이에 어깨를 꽉 대고있었다. 눈을 감고 갖가지 일들을 생각했다. 처음 머리에 떠오른것은 전쟁의 첫시기 지난 7월 4일에 열렸던 군사위원회였다. 그날 군사위원회 위원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해방까지의 전쟁상황에 대한 보고가 먼저 있었다. 다음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련속적인 타격전을 벌림으로써 시간을 얻어 붕괴되는 괴뢰군을 수습정리하고 미지상군의 전투진입을 보장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분쇄할데 대한 내용이였다. 이어 전선사령부가 조직되고 김책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였다. 최용건은 소환되였다. 다음날 7월 5일 김책은 서울로 떠났다. 맑고 깨끗한 여름아침이였다. 방금 모살이가 끝난 벼포기들이 푸르게 자라는 논벌을 끼고 차는 달리고있었다. 그때 전쟁과는 인연이 없는 평화로운 뜸부기울음소리도 들었던것 같다. 벌에서 일하는 흰옷입은 농민들이 자주 눈에 띄였다. 전선이 가까와지면서부터는 각종 군용차들이 길을 메우기 시작했다. 모두가 남으로 남으로 달리고있

었다. 이따금 북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있었다. 길섶엔 파괴된 적땅크,포차들이 많아졌다. 그중 사슬을 풀어헤친 어느 땅크우에 한 간호원처녀가 서있었다. 위생가방을 메고 기관단총을 지여총하고 만족해서 웃고있었다. 애된 처녀였다. 길이 막혀 잠시 지체하는 통에 김책은 그 어린 처녀가 파괴된 미국제땅크의 포탑에 하얀 분필로 큼직큼직하게 써놓은 글을 읽을수 있었다.

《03호병워는 자측 골자기에 잇습니다→》

처녀는 자기가 써놓은 글이 철자법상으로 얼마나 큰 오유를 범한것인지 짐작도 못하고 웃고있었다. 표말을 깎아세우는 수고대신 자기가 아주 날쌔게 마사진 적땅크를 써먹었다는것이 미쁘게 여겨진 모양이였다. 차에 앉아있는 김책에게도 생긋 눈웃음을 선물했다. 사복에 중절모까지 눌러쓴 김책이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처럼 가깝게 생각된때문인지… 김책도 역시 마주 웃어주었다. 여지없이 불타버린 미국제땅크를 리정표처럼 써먹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는 웃음이였다. 처녀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우리 인민이 다 글을 갓 배웠던터에 문법상오유야 무슨 대수랴. 승리하는 인민의 모습이여서 그리도 장하고 아름다운데야!…

차가 움직였다. 김책은 녀병사에게 한손을 저어주었다…

그날의 이 생생한 기억이 이제야 비로소 떠오르는것이 놀라왔다. 아직 그는 단 한번도 이 일을 상기해본적이 없었다.

김책은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같은 어둠뿐이다. 찬바람이 쓸어들었다. 차가 몹시 들추었다. 외줄기 전조등불빛이 후딱후딱 들뛰였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전선을 떠나는것때문에 이리도 허전할가? 이것이 나의 마지막전선길이여서 그럴가?…

부관이 그에게 머리를 돌렸다.

《사령관동지,적기들이 나타났습니다.》

《…》

김책은 귀를 강구었다. 부관의 말이 옳았다. 그토록 귀에 익은 발동기들의 소음이 야밤의 대기를 뒤흔들고있었다. 이제 외통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을 발견하고 쉬파리떼처럼 달려들것이다. 한초 또 한초 기다리고있으려니 가슴의 압박에 숨쉬기가 헐치 않았

다. 내가 혹시 객기를 부리는것이 아닐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손가락마디들을 우드득 소리나게 꺾었다. 숨이 막힌듯 짧게, 칼칼하게 말했다.
《차를 세우오!》
그 순간 저앞의 길모퉁이에서 로케트탄이 터졌다. 길바닥을 따라 기총탄이 촘촘히 누벼나가는것을 보았다. 전조등불빛이 꺼졌다. 어둠속에 쑥 잠겨버렸다. 화약가스와 기관실의 쇠가 단 냄새가 일시에 엄습해왔다. 그러나 김책은 여전히 꼼짝않고있었다.
날이 밝아서야 창성읍 가까이 이르렀다. 김책은 차를 세우고 청소를 하게 했다. 그 역시 몸의 먼지를 털고있었다. 그때 뽀얗게 먼지를 일구며 마주 달려오던 승용차가 멎어섰다. 그속에서 몸이 다부진 한 장령이 튕겨나오듯 땅에 내려섰다. 다음 순간 뒤따라 밀려온 먼지발이 그들에게 들씌워졌다. 김책은 미간을 찌프리며 마주오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정이였다. 보통키이나 쇠몽치같이 딴딴하게 뭉친 억센 사람이다. 풍부한 경험, 군사적지혜, 한계를 모르는 열광적인 대담성 등으로 사람들을 놀래웠고 군벌관료주의적행위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정이라면 권총을 빼든 장령의 암팡진 모습부터 상상해보는것이였다.
《전선사령관동지!》
무정은 재빨리 무게있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군대안에서 그가 조심히 대하는 사람은 김책 한사람뿐이다. 김책은 엄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부르쥔 주먹에서 경련이 이는듯했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그때문에 마음쓰신 일을 생각하니 타는듯한 분노가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전선사령관동지.》 무정이 또 입을 열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에… 갔었습니다.》
《…》
김책은 여전히 돌미륵처럼 무섭게 버티고있었다. 무정은 눈빛을 흐렸다. 돈잎만한 코밑수염을 경련적으로 떨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마땅히 군사재판에 회부되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있었는데…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새로 조직된 군단을 맡겨주셨습니다!》

《뭐?…》

김책은 흠칠했다. 자기가 잘못들은게 아닌가 해서 무정의 상기된 얼굴을 파고들듯이 바라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정의 일로 그토록 분노하시던 장군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더는 우리 군대에 무정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믿음을, 새 군단을 맡겨주시였다.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어느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예견할수 있었겠는가!…

《전선사령관동지!》 무정의 눈시울이 실룩거렸다. 《이 못난놈이 글쎄 뭐라고… 또 이렇게 믿어주시겠습니까. 전… 울었습니다. 온밤 잠못들면서… 어린애처럼 부끄럼없이 소리내여… 울었습니다. 부모의 정을 모르고 살아온 저였기에… 난생 처음 어버이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지…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책이 크고… 목이 메여서… 전… 전장에서 피로써 과오를 씻겠습니다. 전선사령관동지, 믿어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기어이 목숨바쳐 수행하겠습니다!》

무정의 두눈이 타는듯 이글거렸다. 그것을 보면서 김책은 세찬 충격에 몸을 떨었다. 흉곽이 죄여들었다. 가슴에 사무치게 스며드는 아픔이 있었다. 그는 별안간 무정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 내던지듯했다.

《잘 싸워주오. 무정동무!》

《알았습니다. 전선사령관동지!》

그들은 뜨겁게 손을 잡았다. 마주잡은 손을 통하여 뜨거운 전률이, 피의 흐름이 느껴졌다. 잠시후 무정은 자기 차로 달려갔다. 김책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발동이 걸려있던 무정의 승용차는 그가 올라앉자마자 후닥닥 앞으로 뛰쳐나가듯했다. 얼마후엔 벌써 곤두벌레처럼 차체를 들썩거리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한줄기 먼지타래를 말아올리며 무

정의 차는 멀어져갔다.

그러나 이날 무정은 자기가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끝내 보답하지 못하고 불치의 병에 쓰러지리라는것을 알지 못했다. 병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과오를 씻지 못하고 가는 모진 아픔에 가슴이 미여지리라는것을 모르고있었다. …

김책은 무정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있다가 천천히 차에 올랐다.

최고사령부에는 1시간후에야 도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나오시여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기다렸습니다. 김책동무, 어서 들어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자 그에게 의자를 권하시였다. 잠시후 김책이 전선형편을 보고드리는동안 그의 메마른 손을 묵묵히 바라보시였다. 동녹을 뿌린듯 푸릿푸릿한 반점들이 돋아난 손, 거칠게 험해진 그 손으로 밤새워 지도작업을 하고 포연서린 엄페부에서 송수화기를 거머쥐고 전투지휘를 했으리라. 어떤 곤난에도 드놀지 않고 어떤 실패에도 좌절되지 않던 김책이였다.

김책은 전선형편을 요약하고나서 입을 다물었다. 끝까지 자기를 소환한 리유를 묻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강인하고 충직한 전사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에 목이 잠기는것을 느끼시였다.

《김책동무.》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지금까지 김책동문 전선사령관으로서 어려운 싸움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왔습니다. 금강 강행도하, 대전포위전, 락동강전선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후퇴가 시작되면서는 평양근교에서, 청천강에서 피어린 싸움을 벌려왔습니다. 그러한 희생적인 투쟁에 의해 우리의 주력부대들이 다 구출되고 적후에도 강력한 제2전선을 전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이고 또 의심할바 없는 승리입니다. 김책동무, 나는 김책동무가 이 승리의 주추돌을 고이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책은 눈길을 쳐들었다. 숭엄한 격정이 그의 두눈에서 연물로 끓고있었다.

《장군님!》

《김책동무, 드디여 반공격의 시기는 도래하고있습니다. 지금 적들은 하루 1키로이상 더 전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적들의 힘이 한계점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대신 우리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결속되고 강해지고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김책동무를 소환했습니다. 이제부터 새 예비군단들을 장비시키는데 다량의 무기, 전투기술기재와 피복, 식량 등이 요구됩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 일군이 없습니다. 군수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일만 해도 능숙한 지휘를 요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파괴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리재민들을 구제하는 사업도 시작해야 합니다. 또 새해 영농사업, 파괴된 공장기업소들을 복구하기 위한 대책, 교육, 문화, 보건사업…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업을 조직할 막중한 임무가 지금 김책동무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김책동무만이 이 거창한 사업을 떠메고나갈수 있습니다.》

《！…》

김책은 솟구쳐오르는 격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있었다. 어깨가 떨리고있다. 눈굽이 번지르르해졌다.

그이께서 조용히 미소하시였다.

《참, 사업토의는 후에 하고 가서 식사를 합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였군…》

그러나 뜨락으로 나서자 곧 멎어서시였다. 남일이 오고있었다. 무선통신차에서 곧바로 오는것 같았다. **김일성**동지께서 남일을 눈짓하시였다.

《정황보고를 가지고 오는것 같습니다. 언제보나 시계처럼 정확하고 과단성도 있는데… 문제는 저 동무의 얼굴에서 한번도 웃음을 볼수 없는 그것입니다.》

남일이 왔다. 불면때문인지 눈가장자리가 시퍼랬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흥분했을 때의 버릇으로 된발음을 힘들게 번졌다.

《최고사령관동지！ 방금 보고받은데 의하면… 오늘 새벽 적들이 초산에 침입하였습니다.》

《？！…》

김책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무겁고 딴딴한 무엇이 떨어져내렸다, 명치끝을 찌르는듯한 아픔이 전신을 전률케 했다. 초산！… 나라의 최북단, 압록강기슭이다. 여기 최고사령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거기에 놈들이 침입했다고 한다… 그는 두주먹을 짝 부르쥐였다. 장군님의 긴장해지신 모습을 돌아보았다.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시였다.

《력량은 얼마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일의 대답이였다. 《창성군내무서장의 통보에 의하면 벌써 적들이 그곳을 강점하고 학살만행을 벌린다고 합니다. 이제 곧 정찰을 파하겠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발치에 감겨도는 어미닭과 병아리들을 잠시 내려다보시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병아리의 노란 솜털이 헝클어지고 뒤집혀지군했다. 병아리 한마리가 그이께서 신고계신 장화때문에 길이 막혀 삐약삐약 울어대고있었다.

젖먹이의 주먹처럼 아주 작은놈이여서 한뼘 앞도 보지 못하는 모양이였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무리속에 옮겨주고 남일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언제 정찰을 파하고 대책을 세우겠소. 곧 오재원동무에게 임무를 주시오. 보위 500부대의 한개 대대력량을 보내시오. 그러되 방어계선의 부대를 기동시키는 등 부질없는 소동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소. 보나마나 적의 력량은 많지 않소.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지금 전선은 운전, 박천, 향산, 운산 계선에 있는데 큰 부대라면 전선을 뚫고 그렇게 깊이, 은밀히 기여들지 못하오. 분명 그 무슨 무훈을 꿈꾸는자들이 별동대를 들이밀었을것이요. 즉시 포위소멸하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남일이 힘차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김책은 굳어져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절절 끓어번졌다. 비로소 그는 비상한 사변의 시각이 다가오고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

신 그 승리가 멀지 않았다. 울컥울컥 목구멍으로 격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부르짖었다.

《장군님! 아직도 싸움의 길은 멀고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산악같은 장군님의 그 의지가 강산에 뻗어있고 인민의 가슴속에 피줄기로 뛰는 한 우리는 기어이 이깁니다. 장군님!… 저는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승리를 봅니다. 승리한 인민의 환호소리를 듣고있습니다!…》

김책은 그이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서리찬 창공에서 밝은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김책은 저도 모르게 한손을 눈가로 가져갔다. 눈굽이 저려들다못해 막 뜨거워났던것이다.

이날은 1950년 10월 25일,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전과정에 특기할만한 사변들중의 하나가 기록된 력사적인 날이였다. 이날 중국인민이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아래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던것이다.

5

10월말의 베이징,아직 이곳은 조선북부의 산악지방처럼 춥지 않았다. 서늘한 바람이 중남해의 둘로 갈라진 중해와 남해의 물결우에 잔무늬를 일으켰고 밝은 달빛은 풍택원의 국향서옥 안뜰에 켜진 정원등과 서로 빛을 다투고있었다.

고요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모택동은 모안영,류사제와 함께 뜨락을 거닐며 이제 도착하게 될 손님을 기다리고있었다. 모택동이 앞서고 모안영과 류사제는 한걸음 뒤에서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지금 그들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심각한 문제를 토론하고있었다. 모택동은 마당가에 솟아있는 100년 묵은 측백나무곁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뒤따르던 젊은이들도 소리없이 멎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하고 모택동이 입을 열었다. 《이미 토론을 했었단 말이지. 사제는 동의했느냐?…》

《예, 우린 벌써…》
모택동은 머리를 끄덕였다. 류사제의 옆모습을 살피며 그는 성장한 아들과 함께 나어린 그 며느리가 한없이 돋보이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결혼한지 겨우 1년밖에 안되는 류사제— 한때 나이 18살이 채 못찼다고 하여 모택동은 누구도 나라의 법을 어길수 없다면서 결혼을 허락치 않아 처녀의 나이 만 18살을 채워서야 식을 올렸었다. 그리하여 깨가 쏟아지는 신접살림을 방금 시작했는데 오늘 사랑스러운 그 남편이 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한다.
모택동은 뜨락 가운데로 난 십자길을 따라 또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여기 중남해는 원래 황궁의 공원으로 꾸려졌고 력대 황제들은 풍택원안에 있는 이 ㅁ자형의 집을 서재로 리용한다면서 《국향서옥》이라 불러왔다. 국향서옥의 마당은 잔디밭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작은 길을 엇가로 내여 잔디밭이 밭전 (田) 자로 갈라져있었다.
모택동은 동쪽의 서재가까이 걸어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림자처럼 따르고있는 아들 안영이쪽으로 돌아섰다.
《좋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다. 이제 팽장군이 오면 네가 직접 부탁해보는게 어떠냐?》
《그렇게 하겠어요.》 모안영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음—》
모택동은 서재의 불빛에 드러난 모안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안영을 끌어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참았다. 그는 이미 어린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아직 소년 모안영의 머리를 쓰다듬어본 기억이 없다.
1930년 모택동의 부인 양개혜가 체포되여 장렬하게 희생된후 지하당조직에서는 어린 모안영과 모안청을 찾아 쏘련에 보냈다. 그곳에서 안영은 15년간 머물러있다가 1946년에야 귀국하였다. 모택동의 눈앞에는 정규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병사로 도이췰란드놈들과 싸웠고 베를린에까지 쳐들어갔던 끌끌한 젊은이가 서있었다.

그때 모택동은 말했다. 리론이란 지식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너는 쏘련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또 쏘련을 보위하는 전쟁에도 참가했지만 중국의 혁명대학에는 못가보았다, 때문에 너는 중국실정을 잘 모르고 단련되지도 못했으니 이빠진 과목을 보충해야겠다.

모택동은 《이빠진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아들에게 알곡종자들을 넣은 배낭을 메워 모범농촌인 오가원에 보냈다. 그곳에서 모안영은 농민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고된 로동을 이겨내며 단련하였다.

호종남의 10만대군이 연안으로 쳐들어오던 1947년에 모택동은 섬북에 남고 모안영은 중앙위원회를 따라 황하를 건너 섬서 등지에 가서 토지개혁에 참가하였다.

지금 28살난 모안영은 베이징기계공장 당지부 부서기로 공작하고있으나 또 조선전선에 탄원해나섰다. 결국 그들 부자는 부단한 그리고 오랜 리별의 운명을 타고난것만 같았다.

모택동은 시계를 보았다. 인제는 손님이 도착할 시간이 된것 같았다. 바로 그때 장서기가 다가와 팽덕회의 도착을 알렸다. 모택동은 서두르며 남쪽의 응접실로 어서 모시라고 말했다.

응접실에는 알뜰한 식탁이 준비되여있었다. 모택동이 조선전선으로 떠나는 팽덕회를 위해 따로 차린 간소한 연회였다. 식탁에 마주 앉자 류사제가 상보를 벗겼다. 가지수는 많지 않았으나 보기드문 갖가지 료리들이 놓여있었다. 팽덕회는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이게 누구의 솜씨입니까. 대단합니다!》

모택동이 대답했다.

《류사제의 솜씨요. 물론 재정은 내가 부담했고.》

류사제는 주전자를 기울이며 간단한 시중을 들다가 소리없이 자리를 떴다. 식탁에는 세사람만이 남았다.

모택동은 허두의 잡다한 여담이 없이 단번에 본론을 끄집어내는 성미였다. 이번에도 그는 팽덕회가 좋아하는 꿩료리를 옮겨놓으며 직판 본론에 들어갔다.

《당신은 지원군사령원 겸 정치위원인만큼 모든 지원군 장병들에게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왜 이 중대한 결심을 했는가 하는것을 잘 인식시켜야 하오.》 그는 잠시 생각해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전번 정치국회의때에도 말했지만 우리 중조 두 나라는 순치의 관계에 있소. 조선을 돕는것은 바로 우리자신을 위한 일이요. 조선의 안전은 곧 우리 중국의 안전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단 말이요.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금 모스크바에 가있는 주은래동무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최근 미국정계에서는 조선전쟁을 끝내고 아시아의 지극히 중요한 지역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고 하오. 그 지역이란 대만과 인도지나를 의미하는바 이것은 바로 미국이 앞으로 3개의 주요 방향 즉 조선,대만,인도지나에서 중국을 공격하려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눈앞에 번져오는 침략의 불길을 수수방관할수 있겠소？ 우리는 절대로 적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수는 없소！…》

일단 말을 시작하면 모택동은 어느 한 시점을 주의깊게,끈덕지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침착하고 조리있게 말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민활하게 생각을 굴리며 분석하고 종합하군했다.

《물론 방금 해방된 우리 나라로서는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수 없소. 아직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빈궁에서 헤여나지 못했고 토지개혁은 지금 진행중에 있소. 그런데 국내의 반동세력과 변강지역에서 준동하고있는 200만의 비적들과 국민당 잔여분자들,특무들을 숙청해야 하고 티베트문제도 있소. 하지만 이 모든것보다 더 절박하고 사활적인 문제는 우리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것이요！…》

모안영이 빈잔들을 채웠다. 모택동은 비로소 자기의 고정된 시점에서 눈길을 옮겼다. 그는 잔을 들다 말고 담배갑을 열었다. 모안영이 불을 붙여주자 웃으며 말했다.

《덕회,무슨 생각을 하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주석동지！ 전 듣고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하고 모택동은 가늘게 눈을 쪼프렸다.

《우리의 렬세한 장비를 가지고 미군과 싸우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있소. 게다가 조선전선은 제공권도 없다, 미국놈들이 제공권을 휘두르며 날치고있는데 우리는 고사무력조차 변변히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내놓고 말한다고 하오.》

그러자 팽덕회의 얼굴이 검붉어졌다. 그는 약간 어성을 높여 말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석동지! 조선동지들도 비행기는 없지만 얼마나 잘 싸웁니까.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다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아마 두달전에 끝났을것입니다.》

모택동은 소리내여 웃으며 팽덕회에게 잔을 권했다.

《나는 동무가 그렇게 나올줄 알았소. 정말이요. 자, 어서 드오.》

모택동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나서 잠시 빗나갔던 화제에로 말머리를 돌렸다.

《우린 공산주의자들이요.》 심각하게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그는 말을 이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정세를 외면할수가 없소. 더우기 우리 중국혁명은 조선동지들과의 혈연적관계속에서 이어져왔소. 팽동무도 잘 아는것처럼 조선의 수많은 우수한 아들딸들이 중국혁명을 도와 피를 흘렸소. 특히 항일전쟁은 수많은 조선동지들의 희생적인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소. 그런데 이제와서 그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를 외면하면 되겠소? 그럴수 없소. 지난날 어깨겯고 싸우던 전우들과 그들이 바친 값높은 피의 성원을 잊는다면 우리가 무슨 혁명가이며 공산주의자들이겠소. 아니, 절대로 그럴수는 없소!》

류사제가 종려나무화분을 들고 들어와 원래 위치인 책장옆에 놓았다. 책을 사랑하고 책과 떼여놓고서는 자기의 생활을 말할수 없는 모택동은 수천권의 장서와 그곁의 종려나무를 특별히 관심했다. 그래서 류사제는 낮에 해빛쪼이기를 하고는 어김없이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놓군하였다.

모택동은 류사제가 나가자 웃음을 머금고 팽덕회를 건너다보았다.

《덕회, 내 아들이 당신과 함께 조선전선에 가겠다오. 나더러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내게야 무슨 권한이 있소. 당신은 사령원이니까 이애를 병사로 받아주지 않겠소?》

팽덕회는 깜짝 놀란듯했다. 손에 든 잔을 떨굴번하면서 허둥지둥했다.

《아니, 그건 안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모택동은 새 담배대를 꺼내들었고 모안영은 초조해나서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있었다.

《팽아저씨, 왜 안됩니까! 나도 쏘련에 있을 때 군복을 입고 도이췰란드놈들과 싸웠다는걸 잘 아실텐데요.》

《안영이, 그건 안돼. 자넨 아버지와 너무 오래동안 떨어져있었어. 그리구…》

《팽아저씨!》

《글쎄 안된다니까.》

그때 팽덕회의 눈치를 살피던 모택동이 정색해서 말했다.

《안영이 대신 내가 정식 청원을 해도 안되겠소?… 덕회, 어서 결심하오.》

한동안 물속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마침내 팽덕회는 말했다. 《내가 안영이를 맡아주겠소. 그런데 안영인 꼭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그러지요. 전선에만 나갈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좋습니다.》

모안영이 기뻐하는것을 보고있던 모택동이 병을 들고 세개의 잔을 모두 채웠다.

《그럼 이 잔을 당신네 두사람의 출전을 위하여 듭시다.》 모택동은 두사람이 잔을 들기를 기다렸다가 엄숙하게 말하였다. 《팽동무, 안영이, 조선에 나가면 **김일성**동지를 잘 받들어 중조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간의 전투적우의를 빛내여야 하오. 그럼 승리를 위하여!…》

어느덧 달빛은 국향서옥 안뜰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6

백악관의 미국대통령 집무실은 오벌 오피스라고 불리운다. 타원형의 방이라는 뜻이다. 방가운데 크고 넓은 두개의 창문을 등지고 정교한 조각장식을 한 집무탁이 놓여있고 그 맞은편벽가엔 오래된 벽난로가 있어 그우에 죠지 워싱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그날도 트루맨은 도수높은 근시안경을 끼고 앉아 사무를 보고 있었다. 눈앞의 서류를 뒤적거리며 가끔 이발이 쏘는듯 이마살을 찌프리군하였다. 지금 그는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조선전쟁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11월 7일이 중간선거날이므로 바삐 돌아쳐야겠는데 조선전쟁형세가 나날이 불리해져서 도저히 움직일수 없게 된것이다.

(오늘은 조선전선에서 왜 아무 소식도 없을가?…)

트루맨은 푸들푸들 뛰는 귀언저리의 피줄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그때 구내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트루맨은 전화기를 흘깃 쳐다보았다.

아무때건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당돌한 사람들을 트루맨은 좋아하지 않았다.

송수화기를 들자바람으로 저쪽에서 맑고 청높은 목소리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메조 쏘프라노가수인 딸 마가레트였다.

《나 돌아왔어요. 아유! 대성공이였지 뭐예요. 뉴저시에선 제일 가는 개인음악회였다나요. 텔레비죤을 보셨죠?》

《오, 너의 성공을 축하한다, 마지!》

《오늘은 어머니가 만찬을 차린대요. 늦어지진 않겠지요?》

트루맨이 대답도 하기전에 전화를 바꾸는것 같았다. 역시 고운 목소리를 가진 그의 처 베스가 말했다.

《마지를 위해서 일찍 나오세요.》

《음, 알겠소. 그렇게 하지.》

그가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특별보좌관 해리맨이 들어섰다. 트루맨은 그의 손에 쥐여져있는 전보장을 보았다. 조선전선에서 날아온것이리라. 트루맨의 이 생각이 옳다는것을 긍정하려는듯 해리맨은 소리없이 웃어보였다. 그런데 그 웃음이 괴이쩍었다.

《각하. 맥아더장군이 합동참모본부로 보내온 전보인데 브래드리대장은 대통령각하의 결론을 바라고있습니다.》

트루맨은 손을 내밀었다.

《주오. 어디 봅시다.》

전보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는 갑자기 오만상을 찌프렸다.

《이건 뭐요. 그자가 요구하는게 도대체 뭐요?》

《각하.》하고 해리맨은 침착하게 말하였다. 《전보에도 있는것처럼 극동군 총사령관은 쌘프랜씨스코에 정박한 8척의 수송선들을 즉시 출항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05미리, 155미리 포탄과 탄약이 결정적으로 부족되고있다는것입니다. 극동군 보급사령관 웨이벨소장이 벌써 날아와있습니다.》

트루맨은 성을 냈다.

《그러기에 내가 묻는거요. 며칠전에 그자는 탄약수송선의 출항을 중지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소. 지금 가지고있는것만으로도 넉넉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공산군들이 배후에서 일체 보급선들을 차단했습니다. 제8군은 고립무원해지고있는데다가 청천강이북에서 포위될 위험에 직면하고있습니다.》

《포위?…》

트루맨은 뜨아해했다. 그것은 바로 맥아더가 웨이크섬에서 열변을 토하던 때 련속 튀여나오던 말이다. 북조선 공산군 주력을 《포위》하였고 나머지 력량을 또 《포위》하고 하면서 줄곧 그 말을 입에 올리군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8군이 포위될 위험성을 두고 말한다.

8군!… 트루맨은 책상서랍을 급히 열었다. 언젠가 페이스륙군장관이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적어준 종이장이 있다.

옳지, 여기 있었군！… 그는 청천강계선에서 악전고투하고있는 미제8군의 실태를 그 종이장을 통해서 가늠해보려고 했다. 거기엔 아무런 수자도 없이 이렇게만 적혀있었다.

— 조선전선지상군 —

△ 미제8군
  1. 미1군단
    · 미24보병사단
    · 미1기병사단
    · 영제27려단
    · 남조선군1사단
    · 남조선군7사단
  2. 미9군단
    · 미2보병사단
    · 미25보병사단
    · 남조선군11사단
  3. 남조선군2군단
    · 6사단
    · 8사단
△ 미10군단
  1. — 미1해병사단
     — 미7보병사단
  2. 남조선군1군단
    · 수도사단
    · 3사단
△ 기타
  1. — 미3보병사단
     — 영제29려단
     — 남조선군3군단 (편성중)
       · 11사단

· 5사단

2. 뛰르끼예군 려단

타이군 대대

네데를란드군 대대

카나다군 려단

※ 그외는 수송중임…

사실은 이러하다. 제8군만 하여도 10개사단에 달하는바 미군 1개사단의 병력은 북조선 공산군의 1.5배, 화력은 10배 이상에 달한다는것을 트루맨은 알고있다. 여기에 맥아더가 그리도 열을 올려 자랑하던 공군의 강력한 지원도 있다. 그런데 8군이 누구에게 어떻게 포위될 위험이 있다는것인가? 배후의 북조선공산군이란 또 무엇인가?…

트루맨은 신경질적으로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자가 바라는대로 다 해주시오. 그러나 도꾜에 전보를 쳐서 매일 매시각 변화되는 전선형편을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하시오!》

해리맨이 나간다음 그는 방안을 거닐었다. 갑자기 2층에 있는 호화로운 연회장이며 수십명 귀빈들이 자기의 대통령취임을 축하해주던 광경이 떠올랐다. 그 연회장에서 나와 베스와 나란히 백악관의 동쪽채 큰 홀을 가로질러 오던것도 생각났다. 그때 베스는 그의 한쪽팔을 끼면서 재빨리 속삭였었다.

《보세요. 여기 량쪽 벽엔 력대 대통령 부인들의 초상화가 걸려있어요!》

바로 그때에야 트루맨은 자기가 얼마나 요란스러운 황금의 옥좌에 올라앉았는가를 가슴 벅차게 깨달았었다. 여기서는 대통령 부인들까지 자기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게 되여있는것이다.

워싱톤으로부터 루즈벨트에 이르기까지 력대대통령들의 초상화는 2층 연회장으로 통하는 큰 홀의 붉은색 비단으로 조화롭게 장식한 벽에 걸려있다. 이제 거기에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맨의 초상화도 걸리게 될것이다. 공산주의 박멸의 제창자, 랭전의

선포자, 세계에서 첫 원자탄투하를 명령한 《위대한》 살인자 해리 트루맨!…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이제 조선전쟁만 잘 치르면 그도 역시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 백악관의 첫번째 주인인 죤 아담스에 못지 않는 명언을 남겨 여기 어느 홀의 한벽에 금빛 명제판을 걸게 할수도 있을것이다.

얼마후 약속한 시간이 되였을 때 트루맨은 백악관 남쪽 홀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베스와 마가레트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마가레트의 개인음악회 성공을 축하하는 가족만찬이 준비되여있었다. 만만한 비프스테이크, 아스파라가스료리, 호화로운 식탁에는 의례 있기마련인 죠니워카, 나뽈레옹꼬냐크, 남새볶음도 있고 크고 두툼한 담황색 카스테라도 있었다.

트루맨은 딸이 말하는 소리를 흥심없이 들으며 과일즙을 마시고있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조선전선에 가있었다. 조선전선의 승리의 소식은 그가 수백수천번의 선거전 연설보다도 더 위력한 효과를 나타낼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한생을 전장에서 보냈다는 그 맥아더가 오늘도 불안에 찬 전보를 보내왔다. 그렇게 우쭐렁거리기 잘하던 맥아더가!… 무슨 일이 생겼을가. 맥아더까지 놀란것을 보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게 아닐가?…

《아버지! 아버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딸이 나이프로 식탁을 두드렸다. 《또 조선전쟁때문에 그러세요?》

《오, 마지! 난 네가 숱한 꽃다발속에 묻히는 광경을 상상해봤다. 한때 온 세상 사내들이 마를린 먼로에게 꽃을 던지던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트루맨은 사실 지금쯤 맥아더는 잠을 자고있을가, 아니면 전쟁형세를 돌려세울 작전을 하고있을가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그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지 따져묻고싶었으나 참아야 했다. 마가레트가 또 뉴저시의 음악회를 두고 신이 나서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워싱톤시간으로 29일 저녁 8시는 도꾜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였다. 맥아더는 잠을 자고있지도 않았고 작전을 하고있지도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자기 청사로 성큼성큼 걸

어가고있었다. 직일병의 인사에 무심히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개인 전용승강기로 다가갔다. 2분후엔 벌써 6층우의 자기 집무실에 들어섰다. 휘트니준장이 들어와 공손히 아침인사를 하고나서 지난밤 8군에서 보내온 전투상보를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맥아더는 그것을 뒤적거렸다. 영제27려단이 대령강에서 강력한 반공격을 받고 붕괴되였으며 미24사단은 왕인리라는 알지 못할 계선에서 저지되고 괴뢰군 6사단 7련대는 고장에서 포위섬멸되였다.…

이틀전부터 시작된 북조선공산군의 놀라운 반공격,포위,습격전에 대한 보고들이다. 맥아더는 눈섭을 찌프렸다.

《코트!》하고 그는 휘트니준장을 가까이 불렀다. 《이건 누가 보고한것이요? 설마 워커장군이 직접 보낸건 아닐테지?》

《각하,8군사령부 참모차장이 보낸것입니다.》

《워커는 그럼 어데서 무얼 하고있소?》

《워커중장은 장갑찌프차를 타고 운산지구로 나갔답니다. 그쪽에 위험이 조성되고있는것 같습니다.》

《?!…》

맥아더는 흠칫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당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불안한 가슴이 옥죄는듯하여 참을수 없었다. 워커로 말하면 《부르독장군》으로 불리울만치 사납고 도고했다. 그가 직접 장갑찌프차를 타고 전투장가까이 나갔다는것은 커다란 위험이 생겼다는것을 의미한다.

《워커를 찾소!》

맥아더는 부르짖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기의 경솔함을 저주하였다. 지금 총사령부와 8군사령부와의 중요통신련락은 8군에 한대밖에 없는 《마크2》형 텔레타이프로 진행되고있었다. 그런즉 운산에 나갔다는 워커를 그앞에 호출하려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

맥아더는 장지손가락으로 두눈섭사이를 세차게 비벼대였다. 도대체 어떻게 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여지없이 붕괴되였다고 믿고있었던 그들 북조선공산군이 어떻게 되여 전선과 배후에

서 별안간 일시에 공세를 취하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행동을 해야 했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맥아더는 5공군 사령관에게 청천강이북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1시간후 《비29》, 《비26》폭격기 및 《에프80》, 《에프50》전투기 등 600여대가 출동하여 조선북부산악지대와 압록강연안에 대한 무차별적인 맹폭격을 감행하였다.

7

이해의 겨울은 전례없이 일찍 들이닥쳤다. 북부고산지대는 벌써 흰눈에 뒤덮이고 나날이 맵짠 칼바람이 휘파람소리를 지르며 불어쳤다. 정오에만 바람이 자고 따스한 볕이 내려쪼이군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방이 확 트인 높은 령길우에서 차를 멈추고 적들의 무차별폭격이 있은 주민지역과 도로를 이윽토록 살펴보고계시였다.

적들이 발악하고있다. 저기 운산과 희천, 박천, 대령강, 팔원리계선에서 아군련합부대들이 반공격을 배합한 완강한 방어전을 벌리고있는데 극도로 당황한 적들은 제공권으로 사태를 수습해보려하고있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제 최고사령부 군관장령회의에서 적비행기와의 투쟁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중국인민이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보내여 피로써 우리를 도와주고있는 유리한 환경에서 중국인민지원군부대들과의 협동작전을 잘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어제날 항일혁명의 간고한 투쟁에서 함께 피흘리며 싸웠듯이 오늘도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과 같이 공동의 적 미국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어깨겯고 싸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고 멀리 구름바다우에 섬들처럼 솟아있는 아득한 령봉들을 바라보시였다.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다가오고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려면 반공격집단을 더욱 튼튼히,속히 꾸리며 제2전선부대들의 배후타격을 더욱 적극화하여 적들의 명맥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함으로써만 적의 대집단을 포위환속에 몰아넣고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 그리고 부족되는 무기와 탄약 등을 속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 오르시였다. 운전사에게 멀리 바라보이는 철탑을 가리키시였다.

《저 송전탑쪽으로 가보기요.》

차는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령길을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후 **김일성**동지께서는 파괴된 고압전주주위를 거닐고계시였다. 군수공장들에서 전기가 부족되여 무기생산이 지장을 받는 때에 뜨문한 적기들의 폭격때문에 자주 정전이 되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그때문에 이곳까지 송전선을 따라오셨는데… 아직 전기문제를 풀 확실한 방도는 나지지 않고있다.

장군님의 부름을 받고 미리 나와있던 서병호국장이 부관장과 함께 파괴된 송전탑 저쪽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향산쪽으로 난 길가에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서있고 호위성원들이 오락가락할뿐 산촌의 외통길은 고요했다. 폭격을 맞은 흔적들만 아니라면 바야흐로 겨울이 시작된 북방의 자연풍치에 눈길이 갈수도 있을것이다. 폭탄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길좌우쪽엔 온통 구뎅이들이고 릉선을 가로지른 고압선들은 머리태처럼 땅에 늘어졌다. 길가의 잡관목들과 소나무숲도 불타버리고 앙상한 검은 가지들만이 음산하게 드러내고있었다.

서병호국장이 천천히 몇발자국 걸어나서며 심중한 생각에 잠기신 그이께 조심스레 말씀올렸다.

《방금 복구대가 떠났습니다. 이제 곧 송전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문어린 시선을 돌리시였다. 끊어진 선을 잇고 송전을 계속 하리라는데 대하여 보고받으실 필요는 없는것이였다. 그것이 늦어진다는 리유로 일이 바쁜 서병호국장을 부르신것은 아니였다.

《이 고압선이 어데로 이어져있는지 아오?》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날가봐 우려하는듯 조급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시였다.

《저… 이 선은 희천과 개천 그리고는 평남도로 이어져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것 같다?…》

그이께서는 몹시 실망하신 기색이였다. 지금까지 그이를 흥분케 하던 사색과 구상이 삽시에 허물어져버린듯했다. 고압전주의 기초콩크리트에 한손을 짚으시였다. 묵묵히 찌뿌둥한 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지금까지 전기문제로 줄곧 사색을 이어오시였다. 그런데… 령북땅에 늘여진 송전선은 우리 나라 최대의 전력원천지인 수풍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

절대적으로 부족되는 전기를 수풍에서 끌어올수만 있다면!… 그러나 수풍에서 이곳까지는 험한 산발들이 가로놓여있다. 행인들도 멀리 청천강지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형편이다.

그래도 이 생각에서 헤여질수가 없으시였다. 전선에서는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요구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전기이다. 동력문제를 제때에 풀지 못하면 그만큼 반타격의 준비도 지연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끊어진 고압선을 다시 바라보시였다.

《수풍에서는 고압선이 어떻게 뻗어있소?》

《…》

서병호는 난감해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게서 그이상 더 기대할것이 없다는것을 아시였다.

《좋소. 그 문제는 리성조동무와 토론합시다. 그가 지금 어데

있소?》

《…》

다시 서병호는 어깨를 움츠렸다. 릉선을 내리려던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시였다. 야릇한 불안이 엄습해왔다. 준엄한 전시환경이니만큼 예상치 않던 우연과 불행이 자주 빚어지는것이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장군님!》 마침내 그 무엇인가 결심한듯 서병호는 결연히 대답올렸다. 《우린 그 동무를 철직시켰습니다!》

《?!…》

《그 동무는 로동계급적립장을 떠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있습니다.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가면서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흥정하는가 하면 지어…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까지도…》 성급한 그의 얼굴이 해쓱해지더니 맹렬한 기침이 터졌다. 안면근육을 푸들푸들 떨기까지 했다. 《장군님! 우린 당적량심을 저버린 그런 사람을 용서할수 없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제가 자신께서 전화로 무기생산과제의 가능성을 료해할 때 리성조가 대답올린 그것과 직접 련결되여있다는것을 아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얼마 사이를 두고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뒤따랐다.

흐린 하늘, 불타다 남은 숲, 폭탄구뎅이, 파헤쳐진 길섶에서 줄지어가는 개미떼가 눈에 띄시였다. 보금자리를 잃고 어데론가 급급히 이사를 가는 무리였다. 전쟁은 그것들에게서도 안정을 빼앗아갔다.

그이께서 머리를 돌리시였다.

《그 동무가 지금 어데 있소?》

서병호는 다시금 어깨를 움츠렸다.

《540호공장 인입선공사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음!…》

김일성동지께서는 목깃단추를 헤치시였다. 어성을 높이지 않

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지만 잘되지 않았다.

《누가 그렇게 결정했소? 국장동무가 지시한거요, 아니면 동무가 말끝마다 입에 올리는 로동계급의 요구요?》

《장군님! 우린 생각하기를…》

《동무!》 준렬한 어조이시였다. 《동무는 왜 그가 당적량심을 저버렸다고 보오? 왜 그에게 패배주의감투를 씌우는거요? 그 동무가 자기의 량심이 시키는대로 대답했다는 그때문이요? 동무의 말대로 하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라도 기어이 해내겠다고 대답했어야 옳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는 기술자요. 기대를 돌리는 로동자라면 그렇게밖엔 대답할수 없겠지만 기술자인 그에게는 다른 대답이 있을수 없었소. 동무, 생각해보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야 사실이 아니요? 그런데도 덮어놓고 〈할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면 그가 무슨 기술자겠소. 그 동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를 믿지 않았을거요. 그러나 그는 몹시 힘들었지만 그 말을 했소. 그 말을 듣기가 나는 뭐 쉬웠는줄 아오? 그러나 그때문에 나는 그 동무를 더 믿게 되였소. 그 동무의 당적량심을 더 믿게 되더란말이요! 그런데 동문… 그가 당적량심을 저버렸다고 인입선공사장으로 내쫓았소. 기술자인 그더러 삽자루를 주면서 당적량심을 되찾으라고 했소. 동무! 당적량심이라는게 뭐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도 할수 있다고 흰소리를 치면서 뻔뻔스레 낯을 내는게 당적량심이요? 흔히 그렇게 흰소리를 쳐놓고도 일을 치지 못하면 남에게 책임을 넘겨씌우고있소. 나는 침식을 잊고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아글타글 애썼다, 그이상 무엇을 더 할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있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것 같단말이요. 웃동을 벗어제치고 같이 일도 하고 밤잠도 미루어가며 선동도 하고 추궁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있소. 그런데 모든게 다 옳은것 같으면서도 옳지 않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것이요. 왜 그런가?…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의혹이 생기오. …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시키는가? 타산도 없는 일을 누가 벌려놓았는가? 왜 마구잡이로 내모는가? 하고 말이요. 엄중한가, 엄중하

지 않은가?!… 그런데도 귀맛좋게 발라맞추는 사람은 애국자로 내세우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비당적이라고 단죄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소? 정직한것이 허풍에 눌리우고 량심적인것은 위선에 몰리게 되오. 권력이 조장되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말거요. 그래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란 말이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수걱수걱 시키는대로만 일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소?… 그래도 이것이 엄중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컴컴하게 질린 서병호의 뒤덜미에는 어느덧 땀이 흐르고있었다.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았던 기술자 한사람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게 분석될줄은 몰랐던것이다.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에서는 부관장이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갈길이 바쁜 그이께서 자꾸 지체하시는게 걱정스러운 모양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퍼그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그러나 아직 못다하신 일이 남아있었다.

《그 동무가 일하는곳이 머오?》

그이께서 물으시자 서병호는 흠칫 놀라며 눈길을 들었다.

《멀지는 않는데… 장군님! 길이 몹시 험합니다.》

《거기 들렀다 가겠소.》

김일성동지께서 승용차로 다가가시자 운전사는 벌써 발동을 걸고있었다. 강부관장이 차문을 열어드렸다. 그이께서 문짝을 잡고 서병호를 돌아보시였다.

《동무가 앞서시오.》

8

그이께서는 줄곧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시창밖으로 스쳐가는 고산지대의 풍경을 묵묵히 내다보실뿐이였다. 이끼덮인 바위

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외통길이다. 왼쪽으로 검푸른 내물이 흘렀다. 음달진 계곡은 음침했다. 오른쪽 벼랑턱우에서는 단풍나무가지들이 누런 잎사귀를 흔들었다. 산비둘기가 날개를 치며 날아갔다. 그 등성이너머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였다. 서병호, 리성조!…대조적인 두사람, 두 일군이다. 한편은 강인하고 전개력있는 지도일군이고 다른편은 조용하고 책임성있는 기술자이다.

서병호는 체소하고 병색이 도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뜨거운 정열로 자신을 불태우는 이악스러운 일군이다. 어린 시절부터 로동에 손이 익고 잔뼈가 굵었다. 곡절많은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 우연적인 인연으로 두만강을 건너 쏘련에 건너간 그는 거기에서 열화같은 혁명의 리론을 배웠다. 지도경험도 쌓고 기술과 기계도 얼마간 배웠다. 해방후 자기가 배운 모든것을 조국건설에 써먹자고 달려나왔다. 주관적으로는 당과 혁명에 몸바쳐 일할 각오도 높고 결단성과 전개력도 있다. 반면에 리성조는?… 사생활에서는 비록 어리무던할지언정 기술자로서의 량심은 결백하고 굳건했다. 후실로 들어온 녀자로 하여 괴로움이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외동딸을 끔찍이 귀애하고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기술자로서 《조선의 전기불》에서 참된 삶의 긍지를 찾고있다. 그러한 사람을 서병호는 규탄하고 쫓아버렸다. 기술적인 타산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한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당에서 맡겨준 무기생산과제를 수행하기 곤난하다고 솔직히 말한탓으로 처벌을 받았다. 과학과 기술이 도덕을 강요당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존엄성 없다고 타매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것을 느끼시였다. 얼마나 무지한 완력인가. 혁명의 리론도 적지 않게 배웠다는 사람이 어떤 만용을 부리고있는가?!…

… 험한 길이였다. 날이 어둡기 시작할무렵에야 목적지에 이르렀다.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선 협곡으로 새 인입선이 놓여지고있었다.

앞서간 서병호가 알려준 모양으로 험한 작업복차림의 리성조

가 모자를 움켜쥐고 달려왔다. **김일성**동지께서 마주가시자 그는 별안간 말뚝처럼 박혀버렸다.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급히 다가가시였다. 후들후들 떨고있는 리성조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성조동무! 그새 잘 있었소? 무척 수척해졌구만, 응?!… 고생했겠소.》

앞코숭이가 터진 지하족, 그 한끝으로 발가락이 내밀려있었다. 그것을 감춰보려고 애쓰는 리성조를 보자 그이께서는 얼핏 눈길을 돌리시였다. 가슴을 저미는듯한 아픔이 느껴지시였다.

《그래 집은 어데 정했소? 주택조건이 어려울텐데… 아주머니가 몹시 불편해하겠구만. 돌보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장군님! ―》

목메인 부르짖음, 거침없이 흐르는 눈물, 그의 일신상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는 수척해진 두볼에 번쩍이는 눈물이 더 자세히 말해주고있었다.

《성조동무, 혹시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니요?》

《장군님! 일없습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말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떨리는 그의 어깨를 다그어안으시였다. 《자, 이젠 그만 진정하구 어서 말하오. 개인적인 비밀이라면… 듣지 않겠소.》

《아닙니다, 장군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여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제가 책벌을 받고 여기로 나오자 처가 집을 나갔습니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리성조는 말끝을 맺지 못한채 더 깊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의 안해는 궁벽한 산촌생활에 질겁하였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돌격작업, 험한 굴간, 광차바퀴소리, 함마질소리, 남편의 꿰여진 장갑, 남의 집 웃간에 펴놓은 살림, 추위, 굶주림 등에 진저리쳤다. 이 모든것들에 습관되려면 다시 태여나야 할 장영실이였다. 그런데 별안간 남편이 패배주의자, 동요분자로 락인받고 철직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철도인입선공사장에 나가버렸다. 그 녀자는 더

이상 견딜수 없어 남편도 만나지 않고 어데론가 사라지고말았다. 주인집 처녀애가 리성조에게 가져온 편지엔 이렇게 씌여있었다.

《저는 가요. 당신을 원망하며 잃어진 내 청춘을 찾으러 가요. 하지만 이제 어데 가서 그것을 찾겠나요. 부질없는 일인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떠나가요. 당신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기전에 생각을 고쳐하세요.

영실 씀.》

이렇게 되여 두 심장이 한 세계를 소유할것을 약속한 그날로부터 시작되였던 한 가정사는 끝나고말았다. 리성조는 지금껏 감췄던 가정사정을 그이앞에서 털어놓고나니 어둡던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듯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험하게 된 그의 손우에 자신의 손을 다정히 얹으시였다.

《안해를 사랑했소?》

《…》

《솔직히 말해보오.》

《장군님! 그 변변치 못한걸… 그래두 안해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속물인줄은 모르고…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장군님!》

《성조동무, 전쟁이 가혹하니 시련을 이겨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거요. 하지만 다들 이겨낼거요. 전쟁때에 제일 무서운건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는거요. 이제 동무의 안해도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걸 리해하게 될거요. 많은것을! …》

그이께서는 몹시 수척해진 리성조를 눈여겨보며 고무적인 말씀을 오래 계속하고싶으시였다. 지금 그 어느때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때 그의 안해가 사라졌다.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더 따뜻한 인정이 요구되는 때 사람들은 마치 그가 반혁명이라도 한듯이 외면하고있다. 그에게 힘과 열정을, 분출하는 사색을 되돌려주어야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그가 버림받는 존재로가 아니라 자기가 순결하고 정직하고 요긴한 존재로 되기를 그 어느때보다 더 열렬히 갈망하고있음을 잘 알고계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성조동무, 동무와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소.》

《저와 말입니까？！》

《그렇소. 동무한테 왔소. 전기관리국 기사장동무와 의논하려고 말이요.》 그이께서는 산턱을 깎아낸 로반우에 리성조를 앉히고 자신께서도 무릎을 꿇고 앉으시였다. 그다음 가까이에서 손에 잡히는 나무꼬챙이를 꺾어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였다. 《이제 전기문제를 의논해봅시다, 기사장동무！… 주의해보시오. 여기는 신의주, 여긴 만포, 이쪽은 강계, 또 이만쯤 해서… 개천이요. 수풍발전소는 여기 있고 우리가 관심하는 군수공장들인 540호공장, 550호공장, 560호공장들은 다 이쯤에 있는데…》

눈물에 젖어있던 리성조의 두눈에서 광채가 번뜩이였다.

《무슨 의민지 알만하오？》

《예, 장군님！… 알만합니다.》

《그럼 됐소. 이제부터 동무가 말해보오. 수풍전기를 끄는 고압선이 어데로 이어졌소？》

리성조는 너무도 벅찬 환희에 몸을 떨었다.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자바람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죽죽 금을 긋기 시작하였다.

《장군님！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삭주—구성—태천—박천！… 이렇게 뻗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박천에서, 맹중리에서 끌어올수 있습니다.》

《그렇단말이지. 그러니 문제가 풀렸단말이지？》

《예, 장군님, 풀렸습니다. 전기가 풀렸습니다！》

《성조동무！》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의 어깨를 힘껏 껴안으시였다.

《됐소. 이젠 한시름 놓게 됐소. 성조동무, 그래서 동물 찾아온거요！》

리성조는 걷잡을길 없는 기쁨과 더불어 다시금 목이 메고 눈

물이 솟구쳐올랐다. (어째서 나는 이 생각을 못했는가! 손꼽히는 전기기술자이며 수리공학자인 내가 어찌하여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가?!…)

그것은 비범한 안목과 통찰력은 물론 크나큰 심장을 지니고서만 가능한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리성조를 다그어안은채 허리를 펴고 일어서시였다.

《성조동무, 나는 이 중대한 일을 동무에게 맡기려 하는데… 동무 생각엔 어떻소?》

《제가 말입니까?》

《그렇소. 그런데 지금 그곳은 적후요. 그런만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요.》

《장군님!》 꺼칠해진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다. 《신임에 보답하겠습니다. 장군님, 꼭 해내겠습니다!》

《고맙소, 성조동무! 내 그럴줄 알았소.》

그이께서는 다시금 그의 어깨를 힘껏 안아주시였다.…

다음날 김책은 수풍발전소의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별동대를 조직하였다. 전기부문 로동자 5명과 송전작업용기자재를 실은 화물자동차가 배정되였다. 그들을 호위하기 위하여 보병 한개 소대 (28명) 가 동원되였다. 별동대의 책임자로는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가 임명되였다.

출발하기 직전에 김책은 리성조에게 자기가 애용하던 권총을 넘겨주었다.

리성조의 별동대는 적후에로의 멀고도 위험한 길을 떠났다.

한밤중부터 세찬 눈발이 고산지대를 뒤덮기 시작하였다. 갓난애기 주먹만큼씩한 눈송이들이 어찌도 극성스럽게 퍼부어지는지 승용차의 시창유리닦개가 겨우 움직일 지경이였다. 허리를 쭉 펴고 시창유리에 눈이 닿도록 앞을 내다보던 운전사도 끝내는 혀를 내두르고야말았다. 강부관장이 엄하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자기보다 퍼그나 손우인 김덕삼운전사에게 평시엔 깍듯이 존대하지

만 일단 차에 오르면 돌로 깎은듯 꼿꼿이 앉아서 위엄을 보이군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도 높고낮은 10여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것을 잘 아시는것만큼 하루종일 긴장하게 운전대를 잡고있는 운전사를 좀 쉬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차를 멈추오. 여기서 좀 쉬였다 가기요.》

차가 멎었다. 부관장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님!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최사작전국에 도착할 시간을 말하는것이였다. 그곳에서 전선형편을 분석하시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시려면 또 한밤을 지새야 한다는것을 잘 아는만큼 그대로 달려야 하지 않을가 하는 의미였다.

《일없소. 이럴 땐 밖에 나가 허리를 펴고 찬공기도 마시며 좀 쉬는 편이 나아. 자, 강동무도 나가보자구. 눈이 굉장하구만… 함박눈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던데…》

어느 령밑이였다. 오불꼬불 비꼬이며 쏟아지는 눈발, 높다랗게 치솟은 산봉우리들도 눈에 파묻히는듯했다. 어깨우에 내려쌓이는 눈송이들을 맞으며 그이께서는 천천히 몇걸음 오가시였다.

(지금부터 새해 영농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부림소, 종곡… 전쟁으로 집을 불태우고 가장집물을 잃은 인민들의 생활안정문제도 반공격준비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풀어나가야 할 일들은 날이 갈수록 더 산더미처럼 쌓이고있었다. 그이께서 각 전선 련합부대들을 직접 지휘하시므로 김책이 내각사업에 돌아왔지만 그이의 결론, 비준, 방침을 기다리는 문제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들만 하여도 단기작물현물세징수정형보고, 국가량곡수송대책, 새해춘경사업보장을 위한 협의, 중앙예산 4.4분기예산, 외국주재 국가기관들의 분기예산, 각 성의 불합리한 기구정원개편, 내각전원회의 안건, 거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전선사업까지도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다시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김덕삼운전사

는 잠간사이에 깊은 잠에 들었었다. 쌓이고쌓인 피곤이 일시에 밀려들었던것이다. 어찌나 깊이 잠들었던지 모자가 뒤로 흘러내렸으나 그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부관장이 그를 깨우려 했으나 **김일성**동지께서 막으시였다. 피곤해하는 그에게 다문 얼마라도 눈을 붙이게 하려고 우정 차를 멈춰세우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아까 보시던 오늘호 중앙신문들중 《민주조선》을 펴드시였다. 실내등불빛쪽으로 신문을 돌려가며 차례로 보시였다. 거기에는 갖가지 전선소식은 물론 신계목장의 19살난 처녀가 20여마리의 소를 몰아 천리길을 걸어온 소식, 곡산인민유격대의 첫 활동, 구월산에서의 전투, 각지에서 청소년근위대들의 조직에 대한 소식들이 편집되여있었다. 이러한 신문기사들을 읽으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는 인민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크나큰 고무를 받으시는것이였다.

신문에는 또 남조선에서 후퇴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들어온 김규식일행을 축하하여 베푼 내각연회소식도 상세히 실려있었다.

얼마전 **김일성**동지께서는 김규식박사일행의 도착소식을 보고받고 그들을 축하하는 연회를 마련할데 대하여 홍명희부수상에게 말씀하시였었다.

그러자 홍명희는 무척 놀라와했다.

《연회까지 말입니까?… 장군님! 지금 나라가 어려운 후퇴를 겪는데 어떻게 연회까지야…》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괜찮습니다. 후퇴야 우리가 주동적으로 결심한것인데 후퇴를 한다고 그만한 여유도 없겠습니까. 우리를 따라 먼길을 온분들인데 잘 환대해줍시다. 더우기 김규식선생이야 진갑도 썩 지나고 건강도 좋지 못한 몸이 아닙니까. 환영연회를 차리고 저를 대신하여 부수상선생이 연설도 잘하여 따뜻이 맞아주어야 하겠습니다.》

해방전 우익민족주의거두들중의 한사람인 김규식으로 말하면 일찍부터 시대착오적인 반공리념을 낡은 민족주의두루마기에 싸안고 한생을 반공에 바쳐온 사람이였다. 1945년 11월 김구와 함께

상해림정의 요인 제1진으로 남조선에 돌아온 김규식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조직된 《민주의원》(《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의 부의장으로 다음 제1차 쏘미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엔 기만적인 《좌우합작운동》을 벌리는 등으로 미제의 조종에 적극 추종하였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립법의원》 의장직에 나선 때부터 그는 반공의 전초선에서 더더욱 맹활약을 시작했으나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참가를 기점으로 돌연히 사상전환의 기로에 들어섰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정거장을 향하여 줄달음치던 그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뵙고 혼탁된 정치계에서 암중모색하던 지난날을 돌이키며 독립과 건국의 길에 돌멩이 하나 고이지 못한것을 끝없는 비탄속에 후회하였다. 1차대전이 끝난직후 (1919년 6월) 상해림정의 대표로 빠리강화조약 조인식장에 《조선독립청원서》를 들고 달려갔던 그때, 그러나 궁전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베르사이유궁전의 두터운 담벽을 주먹이 터지도록 두드리며 통탄의 눈물을 뿌리던 때를 회고하면서 그는 말하였었다.

《이 나라 삼천리강산을 통일천하하실 유일무이한 민족의 령도자는 오로지 **김일성**장군님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김규식이 북으로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것이였다. 그것도 어려운 후퇴의 길을 따라왔다는 사실을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우 중히 여기시였다.

드디여 내각에서는 김규식일행에 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고 그 소식이 신문에 소개된것이였다.

먼저 홍명희부수상의 환영연설이 있었고 이어 일행을 대표하여 김규식이 연설하였다.

《벽초 (홍명희) 선생！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흉중에 사무친 이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나친 격식을 삼가해서 즉흥적으로 말하고저 하니 량해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정세는 위급한 단계에 놓였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생사존망을 놓고 우려하는 때가 아니

겠습니까. 제가 서울을 떠나던 그 시각까지도 어떤 친지들은 저더러 조용히 시국을 관망하다가 돛을 다는게 상책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벗들은 곡해투성이의 지난날과 단연 결별하고 북으로의 발걸음을 떼였습니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때부터 겨레의 국부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배려를 실로 많이 받아온 우리인 까닭입니다.

… 실인즉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지 않았던들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것입니다. 백범 (김구) 의 참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놈들은 그같이 잔인무도한 피습을 우리에게도 뻗치려고 발악하였습니다. 만일 서울해방이 좀 늦었던들 여기에 좌석을 같이하고있는 우천 (조완구) 과 의산 (최동오) 은 물론 민세 (안재홍) , 국사 (오하영) , 규운 (윤기섭) 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놈들의 흉악한 마수에 걸리고야 말았을것입니다.

…어려운 전쟁을 겪고있는 목전현황에서 저희들이 한갖 무엇이겠습니까. 재력도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 장군님께서 오늘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의 뜻을 다 아뢸지 모르겠습니다. …》

신문에 실린 김규식의 연설을 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지중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남북련석회의때 흥분을 이기지 못하던 그에 대하여 회상해보신것이였다. 눈이 억실억실하고 너부죽한 얼굴에 코도 주먹코인 무척 담차고 호방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였다. 작고 동그란 안경만이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듯 했다. 랭랭하게 반뜩이는 그 작은 안경을 통해서는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기가 몹시 불편할것이였다. 그러나 남북련석회의때부터 위대한 사상에 고무된 그는 낡은 민족주의의 협애한 시야에서 벗어났고 마침내는 인민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단심 북행길을 걸어온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놀란 적들은 온갖 비방과 중상으로 우리를 헐뜯고있다. 지어 방송극을 만들어 매일과 같이 불어댄다고들 한다. 인민군대가 김규식, 안재홍, 최동오, 정인보 등을 강제로 끌어가는

내용이였다.

험한 산길로 포승에 결박된 사람들이 끌려간다. 더는 걷지 못하겠다고 뻗대는 김규식을 호송군관이 권총으로 쏴죽인다. 그때 련락군관이 달려온다. 누가 쏘라고 했느냐, 다 쓸모가 있어 데려가는것이니 너희들 호송원들이 업고서라도 데려가야 한다, 하고 그가 고함을 친다. 호송원들은 내놓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들을 또 끌고간다. 병들고 기력이 진한 안재홍이 로상에서 또 숨이 진다. …

유치하고도 파렴치한 날조극이였다. 놈들이 어찌도 끈덕지게 불어댔던지 김규식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의 맏아들이 북상하는 미군과 함께 들어와 곳곳을 돌아친다고도 한다.

하지만 김규식의 이 연설이 신문에 나가고 방송으로 나갔은즉 놈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김규식의 육성까지도 꾸민것이라고 우겨대겠는가?…

진리에로의 길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가는것이 아니라 리성의 부름에 자연히 따르는 법이다. 왜냐면 진리는 위협하지도 강요하지도 지어 호소하지도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으며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암야의 등불마냥 고요히 빛을 발한다. 그 불빛은 부르짖지도 않으며 유혹하지도 않는다. 다만 리성의 눈을 틔워줄뿐이다.

하여 오늘 김규식의 일행은 진리의 빛을 따라 멀고 험한 길을 왔다. 스스로 찾아나선 참된 인생의 새 길이였다!…

맵짠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자 정신없이 자던 김덕삼운전사가 와뜰 놀라며 깨여났다. 그 순간 자기가 혼자 잠을 잤으며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셨다는것을 깨달았다. 어쩔바를 몰라하며 괜히 흘러내린 모자를 집어 비벼대고있었다.

그가 당황해하는것을 보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문을 놓으시였다. 다음 크게 기지개를 하시였다.

《아, 나도 그새 피곤을 풀었소. 자, 또 달려볼가.》

승용차는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다시 험한 구배를 에돌아 눈이 쌓여진 고개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9

함박눈은 그칠새없이 퍼부어졌다. 솜덩이같이 부드럽고 상냥한 그 눈송이들로 하여 대기는 온갖 은밀한 속삭임으로 꽉 찬듯했다. 승용차의 발동소리마저 차츰 숨을 죽이는듯싶었다. 두리가 희붐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창밖에 펼쳐지는 눈송이들의 세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은연중 못잊을 추억에 잠기시였다. 흘러간 먼 시절, 만주광야의 백설, 쓰러진 전우의 부탁, 눈보라… 그러는 가운데 어데선가 노래소리가 울려오고있는듯 느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퍼붓는 눈발속을 눈밝혀 살펴보시였다. 전조등의 불빛이 저앞에 주먹처럼 쑥 내밀린 바위벼랑턱까지 휘저으며 나갔지만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지만 노래소리는 계속 울렸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그이의 추억속에 흘러든 노래가 꿈결에서처럼 아득히 울려오고있었다. 눈은 계속 하염없이 내리고 승용차는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노래소리를 따라 달리고있었다. 노래소리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계속 울려왔다.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대렬합창이였다. 인민군전사들이 아니고서는 그렇듯 힘차게, 억세게 그리고 그렇듯 가슴을 터쳐 우렁차게 노래할수는 없을것이다. 아닐세라 승용차가 바위벼랑턱을 돌아가자 총멘 전사들의 긴

대오가 눈발속에 나타났다.

승용차들이 다가들자 대오는 길 량쪽으로 갈라졌다. 그랬으나 대렬합창은 계속되고있었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미끄러지듯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죽였다. 눈을 한벌 뒤집어쓴 병사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해여진 여름군복, 갈기갈기 터진 신발들, 자꾸만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수척한 얼굴들에서 흰입김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승용차가 멎어섰다. 김덕삼운전사는 벌써 그이께서 허리를 펴고 주의깊게 대오를 바라보시던 때부터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있었으므로 《차를 세우오.》하고 말씀하시기 바쁘게 조용히 멈춰세운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무수한 눈송이들이 마치 축복의 꽃보라인양 그이의 어깨우에, 머리우에 아낌없이 퍼부어졌다. 그이께서 길우에 내려서시자 행군하던 전사들이 일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무런 구령도 없었건만 대렬은 걸음을 늦추다가 저절로 멎고말았다. 대렬지휘관인듯한 군관이 승용차의 전조등불빛에 눈이 부신듯 한손을 들어 손채양을 하고 바라보았다.

운전사가 전조등을 껐다. 돌연 조용해졌다. 쏟아지는 눈송이들의 미세한 음향마저 들려오는듯했다.

《어데서 오는 동무들이요?》

그이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

한순간 병사들은 서로 마주보았다. 누구실가?… 하는 가벼운 움직임들이였다. 다음 순간 가까운곳에서 기다란 보총을 멘 한 전사가 큰소리로 대답올렸다.

《락동강에서 옵니다!》

챙챙한, 무척 나어린 소년의 목소리 같았다.

《락동강에서？！…》
그러자 이번엔 수십명 병사들이 일시에 목청을 합쳤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어데로 가는 길이요？》
《최고사령부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어린 전사가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올렸다.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최고사령부로 찾아가느냐고 물으시자 어린 대원은 힘차게 대답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전투명령을 받으러 갑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어린 대원 가까이 몇걸음 더 다가가시였다. 그러나 그 전사는 캄캄한 밤중이여서 물으시는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래 동무들은 명령만 받으면 미국놈들과 싸워 승리할수 있겠소？》
그러자 전사는 청을 돋구어 힘차게 대답올렸다.
《승리할수 있습니다. 꼭 승리할수 있습니다！》
세찬 입김에 불려 내리던 눈송이들이 흩날렸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뒤에 따라선 수원들을 돌아보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조선청년은 죽지 않았소！ 조선인민은 꼭 승리하오！ 꼭 승리하오！…》
눈송이들이 엇갈리며 쏟아져내렸다. 하늘도 땅도 온통 눈송이들의 설레임과 그 미묘한 음향으로 꽉 차버린듯했다.
그때였다. 별안간 대렬지휘관이 《동무들, 정돈！》하고 갈린 목청으로 구령을 쳤다. 순식간에 대오가 정돈되였다. 그러자 지휘관은 대렬중간위치에서 《차렷！ 가운데로－ 봣！》하고 쩡쩡하게 웨쳤다. 거수경례를 붙이고 힘찬 대렬동작으로 발구름소리를 울리며 장군님앞으로 다가왔다.
언땅을 구르는 발걸음소리, 발뒤꿈치를 딱 맞쪼으며 멎어서자 바람으로 목갈린 소리로 보고드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조선인민군 제377군부대 제1대

대는…》
흐느낌소리가 말끝을 삼켜버렸다. 끝내 규정의 보고를 끝맺지 못하고 그는 거쉰 소리로 《장군님! ―》하면서 울먹거렸다. 그러자 전 대오가 웍―밀려나오다가 돌연 굳어져버렸다.
《장군님! ―》
그리도 뵙고싶던 장군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했던 전사들이였다. 목터지게 부르짖는 가운데 허연 입김이 덩이덩이 쏟아져나왔다.
《장군님! ―》
해여진 신발들이 서로 엉켜돌았다. 불에 탄 팔소매, 찢겨진 배낭들이 비좁게 뭉쳤다. 그이께서는 눈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전사들 가운데서 챙챙한 목소리로 보고드리던 어린 대원을 다그어 안으시였다.
《지금 몇살이요?》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열여덟살입니다, 장군님!》
《이름은?》
《옛, 1대대 3중대 대원 리명호입니다!》
《언제 입대했소?》
《전쟁이 일어나자 나왔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또 가까이에 있는 전사들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을 물으시였다. 전쟁의 첫날부터 싸워온 전사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중엔 군복상의의 단추들을 채우지 못할 지경으로 두툼하게 붕대를 감고있는 병사도 있었다.
《동무 어데서 부상당했소?》
그 병사는 김천부근의 방어전투에서 부상당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대대장이 나서면서 대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부터 후퇴해왔는데 도중에 만난 동무라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부상병들의 대오에 끼워 후퇴하다가 적들과 조우하게 되자 단신으로 적들을 유인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어느 부대요?》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보위성직속 도하대대였습니다.》

《이름은?》

《류현수입니다!》

순간 그이께서는 지난날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죄다 단꺼번에 상기하여보시였다. 날카로운 기쁨속에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음—동무였군…》

부지중 그이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끼시였다. 이 병사가 바로 무정이 총살을 선고한 그 류현수이다. 한 상급예심원이 전선사령관 김책을 통하여 최고사령부에까지 제기해온 그 중대장… 그는 살아있으며 부상당한 몸으로 2,000여리를 걸어 여기까지 왔다. 아까 나어린 전사가 대답했듯이 새 전투명령을 받으러 준엄한 싸움길을 헤쳐온것이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그를 다정히 안으며 잘 싸우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이 병사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심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의 터갈린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다. 자신의 팔목을 잡고 울먹이는 전사들의 어깨우에 쌓인 눈송이를 털어주며 흥분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잘 싸웠소. 동무들! 정말 장하오… 지금 동무들은 후퇴의 길이 아니라 반공격의 길을 걷고있소. 승리의 길을 가고있단말이요!》

한덩어리처럼 뭉쳐진 병사들의 대오가 또한번 움씰거렸다.

《장군님! —》

세찬 입김에 눈송이들이 흩날렸다. 그이께서 힘주어 계속하시였다.

《동무들, 우리는 빨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가지고 우리 조국강토에서 원쑤놈들을 몰아내야 하오!》

그러자 전대오가 큰 숨을 몰아쉬였다. 다음 순간 일시에 《만세!—》하고 가슴을 터치며 부르짖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장군님께서는 흩날리는 눈발속에 메아리쳐 울리는 그 환호와 눈물어린 감격의 선풍에서 거창한 힘과 맹세를 듣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향하여 불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기상이요. 이러한 힘을 꺾을자는 없소. 우리는 기어이 승리할것이요！…》 이어 그이께서는 눈을 들쓴채 환호성을 터치고있는 전사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뜨겁게 속삭이시였다. 《고맙소. 동무들, 동무들이 나에게 새 힘을 주었소. 동무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았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만세의 호창소리는 계속 눈덮인 야밤의 산발들에 메아리쳤다. 이밤 대자연은 준엄한 전선길에 자기의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함박눈은 밤새 그칠줄을 몰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먼 려로끝에 새벽 4시에야 새로 정한 최고사령부지휘소인 고산진에 도착하시였다.

10

최고사령부 련락군관을 만난 최현은 장군님의 명령대로 한개 부대만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나머지 부대, 구분대들은 적후활동구역에 남겼다. 마지막으로 최현은 서울 제4보병사단의 한 문화부중대장과 한 약속을 상기하였다. 한달전 문경고개에서 있은 일이였다. 그때 최현은 그들의 부대를 만나게 되면 보내주겠다고 했던것이다.

최현은 주영섭을 불러 대원들을 데리고 자기 부대로 돌아갈것을 허락했다.

《부대에 돌아가면 박정덕사단장한테 내 인사도 전하라구.》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주영섭은 기쁨에 넘쳐 대답하였다. 어쨌든 자기 부대, 자기 중대가 더 그립고 간절하였다. 최현은 나무라지 않았다. 그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이봐 문화부중대장, 포위란게 뭔지 알지？… 그런데 걸리면 아주 힘들지. 전멸되던가 항복하는게 일쑤야. 하지만 동무네 사단은 살아있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구. 내 전에 말했지, 자기 부대로 꼭 가게 된다구…》 별안간 최현은 두눈을 슴벅거리며 주영섭의 어깨를 꽉 그러쥐였다. 《가서 잘 싸우라— 우린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행군해가는데… 아무튼 또 만나게 돼！》

《고맙습니다, 사단장동지！》

주영섭은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이리하여 주영섭은 17명 대원들을 이끌고 자기 부대를 찾아갔다. 드디여 자기 중대로 가게 됐다고 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해하였다. 람루해진 군복을 손질하고 목달개를 갈아달고 로지봉의 웃주머니속에 있는 작은 손거울을 빌려 수염도 깨끗이 밀었다. 더는 손질할데가 없는데도 자꾸 쓸고 닦고 밀었다.

이틀후 그들은 부대와 만났다. 참모부에 갔다온 주영섭은 약간 서운해하는 기색이였다. 그와 늘 붙어있다싶이한 로지봉의 눈으로 보건대 자기의 실망감을 겨우 참아내는듯했다.

그는 말했다.

《동무들, 우린 당분간 계속 함께 있게 됐소. 그리고 중요한 소식은… 래일밤 우리도 습격전투에 참가하게 된거요. 독립소대로 말이요. 소대장은 나요！》

습격대상은 신평에 있는 적대대지휘부였다. 주영섭자신이 대원 두명과 같이 정찰을 하고 돌아왔다. 문화부중대장더러 정찰을 하게 한것도 로지봉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주영섭은 그저 한마디로 《여긴 내가 잘 아는고장이요.》했을뿐이였다.

이윽고 기다리던 습격의 밤이 왔다. 날이 어두우면서 싸락눈이 내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엇비듬히 날려온 싸락눈이 따끔따끔 얼굴을 침질하듯했다.

소대는 피뢰군복으로 갈아입고 신평읍으로 대렬을 지어갔다. 적

들은 매일같이 북으로 이동해가고 또 새로 옮겨왔으므로 빈틈이 많았다. 이 점을 리용하기로 했다. 주영섭은 걸어가면서 거듭 임무를 료해시켰다.

멀리 뒤쪽에서 전조등의 불빛이 날아오자 길섶의 앙상하게 베여낸 강냉이그루터기들이 피끗피끗 드러났다. 불빛은 잠시 사라졌다가 또 날아왔다. 굽인돌이를 돌아나선 모양이였다. 대렬은 길옆으로 비켜섰다.

로지봉은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지금 뒤쫓아오는 그 전조등불빛이 괴뢰군복장을 한 그의 정체를 환히 발가낼것 같은 느낌이여서 자꾸만 돌멩이를 걷어찼다. 가운데 단추 하나만을 채운 상의앞자락을 쥐여당기느라고 걸음이 떠지기도 했다. 그러자 그의 뒤에서 걷고있던 박영일이 잔등을 쿡 찔렀다.

《이거 왜 이래요. 술에 취했나?》

어느덧 자동차의 발동소리도 들려왔다. 머리우를 날던 전조등불빛이 길바닥을 휘저었다. 그때 주영섭이 구령처럼 웨쳤다.

《길을 막소. 다들 길복판으로!》

지봉은 다른 전사들을 따라 길가운데로 들어섰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주영섭의 목소리가 또 울렸다.

《길을 막으면서 가오. 슬슬 애를 먹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소? 어떤놈인지 보잔말이요. 케를 보다가 뺏아탈수도 있지.》

주영섭은 태연했다. 그 느릿한 어조도 변함이 없었다. 이번엔 로지봉을 소리쳐 불렀다.

《지봉동무, 경상도말 할줄 아오?》

《전라도 말은 좀…》

《좋소! 이제 놈들이 길을 내라구 고아대면 아무 소리나 한마디 하오!》

《예, 그러지유.》

《그럼 다른 동무들은 내 구령을 기다리오. 자 자— 거지반 다 온것 같소. 정신을 바싹 채리오!》

경적소리가 울려왔다. 벌써 자동차가 대렬꽁무니에 바싹 붙어서고있었다. 신경질적으로 연신 경적소리를 울려대나 《괴뢰군대

렬》은 흘끔흘끔 뒤돌아보면서도 그냥 걷는다.

《여, 여！》 뒤에서 소리친다. 《길을 비켜！… 느들 귀구멍이 메였어？》

뒤에서 길을 좀 틔워준 모양이다. 불쑥 앞으로 나서던 차가 또 속력을 늦추었다. 그리하여 자동차는 대렬가운데 들어섰다. 괴뢰군 장교가 문짝을 열어젖히고 고함을 질렀다.

《이 자슥들아, 느들 어느 부대야？ 이 쌍것들 비키지 못하겠어？》

그때 박영일이 지봉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지, 무슨 말이건 하라고 했다. 경상도말, 아니 전라도말이든 뭐든！… 로지봉은 고개를 돌렸다. 전조등불빛이 눈을 때렸다. 홀연 모든것이 사라지고 자기를 겨눈 불빛밖엔 없는듯했다. 악이 치밀었다. 그는 전조등불빛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소릴 함닝껴. 우린 머 귀가 젬벽인가 하는강？… 소래기는 왜 지르능겨？！…》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투닥투닥하는 소리와 혀를 깨문 비명소리가 울린것 같았다. 앞서가던 전사들이 우— 차에로 밀려갔다. 로지봉의 눈을 때리던 전조등불빛이 사라지며 눈앞이 새까매졌다.

《지봉동무, 빨리 와 타오！》

주영섭이 그를 부르고있다. 로지봉은 그때에야 자동차있는데로 걸어갔다. 벌써 적재함우에 올라앉은 전사들이 저마끔 손을 내밀었다.

《지봉동무, 이걸 잡소！》

《여게 오라구. 얼뜬！》

《뭐 귀가 젬벽이라구？ 하하… 이 친구 이따금 택수가리가 떨어지게 웃긴다니까！…》

로지봉은 쑥스러웠다. 주영섭이 시키는대로 한마디 했을뿐인데 마치도 그가 자동차를 로획하기라도 한것처럼 떠들고있다. 그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다. 탄약상자를 가득 실은 차였는데 좀 불편하긴 했지만 적재함너머로 발을 드리우고 남의 잔등에

기댈수 있었다. 주영섭이 주의를 주었다.

《조심하오. 조금 가면 놈들의 경계초소가 있소.》

경계초소의 적들은 제편차려니 하고 세우지도 않았다.

작은 읍거리였다. 산자드락에 붙어있는 집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운데에서 큰길이 두갈래로 갈라졌다. 한길은 동뚝을 따라 났고 다른 길은 산밑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갔다. 갈림길어구에서 차를 세운 주영섭은 다시 대렬을 지어가게 하고 걸어가면서 임무를 확인했다. 방뚝 근처의 석조건물이 첫째 목표였다. 건물뒤쪽에 오늘 전선으로 가다가 멎어있는 105미리곡사포 10문과 10대의 포차,2대의 연유차가 있다. 그곳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 소비조합상점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곳은 연유저장고로 되고있다. 주영섭이 걸어가면서 설명하는 말이였다. 그는 눈을 감고도 이 모든 대상들을 찾아낼것 같았다.

골목길을 지나자 대렬은 멎었다. 목표까지는 약 200메터,벼락같이 달려들어 족쳐대야 한다. 주영섭의 명령에 의해 소대는 두개의 기습조로 갈라졌다.

《전투준비！》 주영섭이 낮게 부르짖었다. 바로 그때 우측에서 강렬한 불빛이 날아왔다. 집담벽 가까이 세운 찝차의 전조등불빛이였다.

《홀트 워트 아유？！ (어떤자들이야？！)》

찝차안에 웅크리고있던 미국놈이 겁에 질려 소리지르고있었다. 껌벅껌벅 전조등을 켰다 껐다 하더니 주영섭이 다가가려고 하자 미식소총을 겨눠들었다.

차에 앉아 졸고있던 운전사놈이였는데 벗어던진 모포가 문짝너머로 흘러내리고있었다.

뜻밖의 정황이였다. 겁에 질려있는 그놈은 주영섭이 한발자국만 더 내짚어도 무턱대고 쏠 태세였다. 주영섭은 불빛에 홀랑 드러나있었다.

《빌어먹을！》

주영섭이 한손을 내저었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차에 앉아있던놈이 뛰여내리려는것 같았다. 그 순간 그쪽으로 수류탄이 휙—

날아갔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순간 주영섭이 돌격구령을 웨쳤다.
로지봉은 달려갔다. 석조건물, 연유저장고, 석조건물, 연유저장고！…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였다. 그가 맡은 습격대상물이다. 우익에서 몇사람이 달려가고있었다. 어데선가 콩볶듯 총소리가 터졌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서 박영일이 수류탄을 쥐여뿌렸다. 그러나 지봉은 계속 헐떡거리며 달려갔다. 앞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파편이 귀뿌리를 스치며 날아갔다.
《나가자— 앞으로！…》
누군가 사납게 웨쳤다. 석조건물이 보였다. 건물창문들에서 불꽃이 펑끗거리고있었다. 적들이 브로우닝기관총을 휘둘러대는것 같았다. 로지봉의 좌익에서 뛰여나가던 분대장과 키가 작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전사가 벌떡 몸을 솟구치면서 쓰러졌다. 우익에서도 누군가 신음소리를 지르며 허리를 꺾었다. 로지봉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뼈가 으깨여진것 같았다. 기관총이 비질하고있는 창문쪽에 수류탄을 연거퍼 던졌으나 사격은 계속되였다. 예광탄의 불줄기가 이마빡을 지져대는듯 낮추 날았다. 또 몇사람이 약진해나갔으나 대여섯걸음도 못나가서 엎드렸다. 적들이 건물안에서 고아대고있었다. 불의적인 기습이 실패하는것 같았다. 적들이 수습하고 반격해나온다면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기습조는 위험하게 된다. 박영일이 기여와 그를 향해 부르짖었다.
《수류탄이 있으면 줘요, 예？ 내가 이제 저놈을…》
수류탄은 없었다. 언제 어떻게 쥐여뿌렸던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대신 머리속에서 펀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로지봉은 석조건물의 담벽쪽으로 기여갔다. 그곳에 도람통들이 몇개 있었다. 그것을 건물앞에 굴려보낼 생각이였다. 기름을, 불을 들씌워야 했다. 놈들이 눈도 못뜨게 해야 했다. 눈도 못뜨고 숨도 못쉬며 타죽게 해야 했다.
건물담벽에 이르자 로지봉은 도람통 하나를 번쩍 들었다. 아니 번쩍 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무릎우에도 올리지 못하고 떨어뜨렸다. 이번엔 으드득 이발을 갈며 끙！ 하고 다시 들어올렸다.

펑— 적탄이 도람통에 구멍을 뚫은것 같았다. 그 순간 건물창턱에로 힘껏 굴려보냈다. 적황색의 불길이 데굴데굴 굴러갔다. 불이 달린 도람통은 창턱아래에서 다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세찬 불길이 담벽을 핥으며 솟구쳐올랐다. 우— 우— 바람소리같이 타오르며 창턱의 기관총수까지 휘감아버린것 같았다.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터졌다. 때를 놓치지 않고 엎드려있던 전사들이 달려나갔다. …

로지봉은 비틀거렸다. 박영일이 달려와 그를 붙안았다. 울며 웃으며 그가 부르짖었다.

《어쩌문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놈들이, 놈들이 타죽는걸 보라요, 예? 저걸 보라요! —》

울고있다. 아직도 황황 솟구쳐오르는 불빛에 그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번들거리고있다. 로지봉은 우들우들 몸을 떨고있을뿐 아무 말도 못했다.

로지봉은 또 한사람이 울고있는것을 보았다.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이였다. 그는 자기가 울고있는줄도 모르고있었다.

그것은 새벽녘에 있은 일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산자드락의 한 우물가에 몰켜서있었는데 그들가운데 주영섭도 있었다. 모여선 사람들이 치를 떨었다. 우물은 학살된 사람들로 거의 메워져있었다. 로지봉이 그곳으로 갔을 때 전사들이 웃도리를 벗어제치고 학살된 사람들을 꺼내고있었다. 이미 꺼낸 시체는 우물곁의 밭고랑사이에 한줄로 뉘여있었다. 총탄에 뚫린 험한 상처들이 헤쳐졌다. 서로 뒤엉킨 시체들은 퉁퉁 부어서 모두다 한모양으로 참혹하였다. 한 녀인은 네댓살이나 났음직한 어린이를 자기의 치마폭으로 꽉 감싸안고 굳어져있었다. 마치도 그것으로나마 자기의 어린생명에게 날아드는 총탄을 막아주려고 한것 같았다. 어머니의 품에서 굳어진 어린것을 떼여내려고 하였을 때 돌연 주영섭이 부르짖었다.

《다치지 마오!》

웃도리를 벗어제친 전사가 와뜰 놀라며 움츠러들었다. 로지봉도 그의 목소리에 몸서리를 쳤다. 그 비통한 울부짖음이 가슴을 찢

었다.
  녀인과 어린이를 이미 눕혀놓은 사람들결에 옮겨가자 주영섭은 모자를 벗어들고 비칭거리며 다가갔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앉아 한덩어리로 굳어진 녀인과 어린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다들 숨을 죽이고 범상치 않은 그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주영섭은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녀인의 크게 부릅뜬 두눈을 감겨주려고 헛되이 애쓰다가 끝내 구겨쥐였던 자기의 모자를 덮고말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허척지척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풀어진 두눈, 허탈상태에 빠진듯한 비틀걸음, 굳어져 내려드리운 두팔… 부지중 로지봉은 솟구치는 오열을 누를길 없어 누구든지 붙잡고 소리내여 울고싶었다. 그러나 그 무슨 우악스러운 손아귀가 입을 틀어막은것만 같았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도 괴로운 압박감에 가슴이 빠개지는듯싶어 미칠것만 같았다. 그는 어떻게 되여 자기가 주영섭을 따라섰는지도 몰랐다. 도처에서 전장을 수색하고 정리하는 병사들이 뛰여다녔고 신작로에는 벌써 수많은 군중이 밀려나오고있었다. 가슴팍으로 기관단총을 당겨놓은 전사들이 어엿한 자세로 기쁨에 넘쳐 달려나온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인지 주고받고있었다. 터져나오는 만세의 환성, 기쁨에 울고불고하는 사람들… 그러나 로지봉은 터벌터벌 앞서가는 발자국을 따라 걷기만 했다. 모자도 없이 붕대로 감겨있는 주영섭의 머리가 맥없이 돌려졌다. 로지봉이 말없이 다가가자 이상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를 알아본 모양으로 로지봉의 어깨를 꽉 그러안았다. 흐느낌소리와도 같은 목멘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지봉동무! ―》
  그러자 로지봉은 쓰라린 감정이 목구멍 가득히 치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주영섭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무섭게 번뜩이는 두눈을 마주볼수 없었다. 마주보기만 하면 자기가 견딜것 같지 못했다. 슬픔과 증오가 사무쳐 펄펄 끓고있는 그 눈… 이윽고 주영섭이 그를 붙안았던 팔을 풀었다. 그리고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지봉동무, 동문 우릴… 부러워했지？… 고향으로 간다구 말

이야. 응?… 자기는 고향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우리만 간다구…》
지봉은 목이 꺽 메였다. 등골의 살점이 찢겨나가는듯했다. 이 사람은 알고있었구나. 속까지 다… 보고있었구나!…
주영섭이 또 거친 속삭임으로 계속하였다.
《여기가 내 고향이요. 난 여기서… 해방후 토지를 분여받구… 행복을 찾았소. 그런데 이렇게 불타구… 무참히들 죽었소. 동무도 봤지? 내 처와 아들이… 학살된것을…》
《?!…》
로지봉은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또다시 등골로 줄달음쳐가는 짜릿한 전률에 몸서리쳤다. 치마자락으로 싸안은 어린이가 눈에 밟혀왔다. 그 어린이를 꽉 껴안고 굳어져있던 녀인… 움푹 꺼졌던 눈확, 푸르뎅뎅한 목덜미의 끔찍한 상처… 지봉은 자기의 두볼로 흐르는 눈물도 알지 못했다. 가슴은 쓰리다 못해 마구 저려났다. 그런걸 난… 고향으로 달려가 내 땅과 내 집을 지키고싶어했지, 내가 가면… 이 어깨로 막아서면… 분여받은 땅도 정든 안해와 지금 태여났을 자식도 다 지킬것처럼… 에구— 이 헌털뱅이, 이 게뚜더기야, 군대를 떠나 집을 지키러 간다구?!…
그는 피가 나도록 가슴팍을 허비고싶었다. 푸들푸들 입술이 얼어든 주영섭을 대신하여 막 울부짖고싶었다. 그 원쑤들을 갈가리 찢어죽이며 목터지게 고함을 질러도 성차지 않을것 같았다.
주영섭이 혁띠를 꽉 당겨매였다. 그리고 또 걸어갔다. 어데로? 무엇하러?… 지봉이 따라섰다. 한발자국 내짚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를 대신하여 소리없이 피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걸음마다 앞서가는 주영섭을 향해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냥 가면 어쩌우. 예?… 그대루 가면 어떡하나 말이예유!… 저게… 저게다 다들 남겨두구… 가면 어데루 가냐 말이유. 예? 어데루, 어데루 자꾸만 가는거예유?!…》
숨이 꺽꺽 막혔다. 눈물이 입으로 흘러들었다. 찝찔한 눈물이, 울컥울컥 치솟는 열물이 한데 범벅이 되였다. 차라리 주영섭이 자기를 붙안고 소리내여 울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것 같았다. 그러나 마르고 타는듯한 눈빛을 번뜩이며… 그는 가고있다.

비청거리며 자꾸만 걸어간다.

《어데루 가는가말이예유. 한마디라도… 말이나 좀 하세유. 예？！…》

로지봉은 투닥투닥 얼어든 발이랑을 걷어차며 계속 따라갔다. 발밑에서 비쭉비쭉한 강냉이그루터기들이 짓밟혀나갔다. 동켠하늘에 시뻘건 빛이 비꼈다. 검푸른 새벽하늘을 창살같이 꿰지르는 피빛노을이였다.

11

압록강기슭의 고산진은 예로부터 혜산진, 중강진, 만포진 등과 더불어 군사들의 군영이 진을 치고있던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세기말까지는 변강의 한산하고 작은 고을로서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동떨어져있었다. 그러던것이 일제의 대륙침공이 시작되면서부터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우편국 등이 자리잡았고 영림창이 들어앉아 떼군들을 소리쳐불렀다. 온갖 떼거지들— 순사보, 경부, 목재상, 거간군들이 쓸어들어 밤마다 기생들이 두드리는 장고장단에 따라 거쉰 목청으로 《둥근달을 술잔에 담아 마시고》하는 노래를 뽑아대군했다. 눅거리의 대포집들은 영림창에서 회계를 마치자바람으로 쓸어든 떼군들, 이와실이군들이 양푼을 두들기며 《오동동추야에 달이 동동 떴는데》하고 울부짖는 소리로 법석 끓었다. 이렇듯 압록강에 면한 돌무재기슭, 서문거리에서 환락의 인생, 버림받은 인생들이 술에 팔리고있을 때 가상골, 림성골, 구절골과 안골 등에 들어찬 농가들에서는 굶주린 인생들이 눈물에 젖고있었다. 말라가는 천수답때문에 울고 배고파 우는 자식들때문에 멍이 든 가슴을 두드려댔다.

해방이 되자 순사, 기생, 겐뻬이다이（헌병대）, 사카린, 류랑민들이 그리고 절컥거리는 칼소리, 온갖 소란과 혼잡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대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양수기가 압록강물을 퍼올리고

새로 문을 연 고산인민학교(당시)에서는 아이들이 《산 산 백두산 높이 솟은 백두산》하고 목청을 돋구어 글을 읽었다. 들에서는 발갈이하는 소가 구성지게 영각소리를 뽑았다.

그러던 고산진이, 수수한 이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과 다름없이 이름없던 고장이 일약 온 나라와 이어진곳으로 되였다. 11월 5일, 여기에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았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첫날부터 긴장한 사업을 계속하시였다. 신문, 통신, 방송사업, 평화옹호세계대회대표단 접견, 인민생활안정, 운산—희천계선의 반공격전투… 그처럼 분망한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줄곧 누구인가를 기다리고계시였다.

매일과 같이 남일에게 그리고 최사작전국의 방향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물어보시였다.

《아직 아무 소식도 없소?》

《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제 도착하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지금 최현을 기다리고계시였다. 적후의 부대, 련합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 제2전선의 활동을 보다 적극화함으로써 새로운 반공격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가 북상하는 방향으로 이미 련락군관까지 파견하였건만 기다리는 최현은 아직 종무소식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림성골의 최고사령부지휘소로 승용차 한대가 달려왔다. 차가 멎는 소리에 강부관장은 모자도 쓰지 못한채 달려나갔다. 누군가 아무런 사전련락도 없이 최고사령부로 승용차를 달려온것으로 미루어 최사작전국에서 긴급통보를 보내왔거나 혹시 최현장령이 도착한것이리라고 짐작했던것이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자 그만 입을 벌린채 잠시 말뚝처럼 박혀있었다. 외투를 입고 털모자까지 눌러쓴 외무상 박헌영이 차에서 내렸던것이다. 박헌영은 인사도 받는둥마는둥 하며 마주오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털모자를 벗어 운전사에게 던져주었다. 침울한 얼굴이였다. 성에가 불린듯 희끗희끗해보이는 눈섭을 비비며 그는 부관장에게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다. 장군님께서 계신가 하는 의미였다. 강

부관장은 아직 미제의 고용간첩이였던 그의 추악한 정체를 알수 없었으므로 범상하게 여기고 그를 장군님께 안내하였다.

그이께서는 라지오를 틀어놓고 신문을 읽고계시였다. 박헌영이 들어서자 저으기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토록 박헌영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입을 실룩거릴 때마다 귀언저리쪽에서 퍼런 피줄이 툭툭 불거지군했다.

《갑자기 무슨 일로?…》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악대의 힘찬 취주악이 울려나오고있는 라지오를 끄시였다. 박헌영에게 친히 의자를 권하시였다. 그러나 그는 굳이 사양하며 무겁게 한숨을 내긋더니 추위에 얼어든 두손을 마주비비였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시오.》

그이께서 재차 말씀하셔서야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 다름아니라… 지금 적들이 희천에까지 기여들었다고 하기에…》

《그래서?》

《이런 형편에서 저… 정부기관들을 그대로 둘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우울한 기색을 하고있는 그를 지켜보고계시였다. 무엇인가 예감되였지만 설마하는 생각에서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리시였다.

《아무래도》 하고 박헌영이 그이의 안색을 살피며 또 입을 열었다. 《적들이 바투 기여들고있는만큼 정부기관들을 안전한곳으로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옮기다니, 어데로말이요?》

《저… 국경너머로 옮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뭐요?》

《그러지 않다가는… 위험합니다. 정부기관들뿐아니라 최고사령부도 역시 제때에 자리를 옮기는것이…》

박헌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움츠리였다. 별안간 장군님의

안광에서 펀뜩인 분노의 섬광에 기가 질린것이였다.

《그러니 나더러 또다시 압록강을 건느란 말이지…》

그이의 음성은 비록 높지 않았으나 격하게 울리고있었다. 그러자 박헌영은 무던히도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황겁히 변명을 했다.

《전 사실… 최고사령부의 안전을 념려하여…》

《그럼 나라와 인민은 어떻게 하고?… 그들은 누가 념려하는가?!》

엄한 음성이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전선과 적후에서 결사전을 벌리고있는데 그들을 버리고 가란 말이요? 다시한번 말해보오. 이 준엄한 때 피흘려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을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겠는가?!…》

아직 그이께서 이처럼 격노하신적은 일찌기 없었다.

《나는 한시도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소. 그래서 나는 지금 인민을 믿고 인민은 우리를 믿고 생사운명을 같이하고있는거요. 그런데도 자기 인민을 버리고 감히 국경너머 남의 땅으로 가라고 한단말인가!… 자기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저갈대로 가시오.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것이며 싸워 이길것이요.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침략자들을 쓸어버릴것이요. 우리 인민은 꼭 승리하오!》

박헌영은 피기 하나 없이 해쓱해져서 후들후들 다리를 떨고있었다. 그는 억지로 입가에 주먹을 가져다대고 킹킹 헛기침을 하려고 해보았으나 끝내 아무소리도 내지 못하고말았다. 분노하신 장군님앞에서 자리를 피해보려고 해도 후들거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듯했다. 어느덧 그의 코등우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내돋고있었다.

바로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그러자 남일의 청높은 목소리가 진동판을 세게 울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방금 인민군협주단배우들이 도착했습니다.》

《뭐 협주단배우들이?》

《예, 그런데 수천리길을 헤쳐온 그들을 좀 휴식시키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겠다면서…》

그래서 부득이 전화를 걸었다는 의미일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협주단배우들이 지금 최고사령부로 막 정신없이 가고있다면서 그들이 무섭게 떼를 써서 막을수 없었노라고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별안간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어제는 락동강에서 떠난 인민군전사들이 최고사령부를 찾아 2천리나 되는 멀고도 험한 싸움길을 걸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인민군협주단배우들이 최고사령부를 찾아온것이다.

그이께서는 벌써 박헌영에게는 주의도 돌리지 않으시였다. 비실비실 뒤걸음치던 그가 입안소리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사라지는것도 알지 못하시였다.

…이윽고 인민군협주단배우들이 나타났다. 손에, 어깨에 악기를 들고 메고있는 배우들, 홀쭉한 배낭을 지고있거나 불에 그슬린 목도리를 감고있는 배우들도 있었다. 맨 먼저 앞코숭이가 터진 장화를 신고오던 한 녀배우가 두손을 모두어쥐며 딱 굳어졌다. 장군님께서 나오시는것을 띄여본것이였다. 그는 별안간 온몸을 부르르 떨며 흑— 하고 흐느꼈다. 그러자 모두 일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북받치는 오열이 그들을 뒤흔들어놓은듯싶었다.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수척해진 그들의 얼굴을 대번에 흠뻑 적셔놓는듯했다. 모두 일시에 욱 밀려나오더니 이상한 목소리로 《최고사령관동지!》, 《장군님!》하고 부르짖었다. 두팔을 허우적거리며 뒤늦게야 달려오는 나이 많은 배우도 있었다. 한 어린 녀배우는 벌써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목메여 울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어깨를 힘껏 다그어 안으시였다.

《동무들이 왔구만. 우리 협주단배우들이!…》 그이의 음성도 어느새 갈리고있었다. 《반갑소.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소!》

그이께서는 북받치는 오열을 멈출수가 없어서 자꾸만 흐느끼고있는 그들을 둘러보며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의 소식은 다 들었소. 지난 여름 해방된 서울에서 공

연을 시작한 때로부터 계속 전선에 나가 전투원들을 고무해주었다지. 그래 동무들은 어데까지 나갔더랬소?》

지휘자인듯한 군관이 그들모두를 대표하여 말씀드렸다.

《장군님!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남진하는 부대들을 따라 충주, 대전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 소편대로 나뉘여 락동강전선의 여러 부대들에서 위문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래 제일 멀리 나갔던 소편대동무들은 누구요?》

《장군님!》 낯이 해쓱한 녀배우가 대답올렸다. 《저희들은 진주에까지 갔댔습니다.》

《진주!… 그러니 저 남해기슭에까지 갔댔단말이요?》

《예,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 녀배우의 눈물젖은 얼굴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할끔하고 목이 가는, 아직 스무살에도 닿지 않아보이는 처녀였다.

《어린 동무가… 조국땅 한끝까지 갔다가 왔단 말이지. 전사들과 같이 온 나라 삼천리를 다 밟으며!… 그러느라니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소!…》

《장군님! 저희들은 그저…》 처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세찬 흐느낌때문에 자주 끊어지군했다. 《장군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걸음을 늦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리구 만리구 기어이 장군님을 찾아가리라고 결심하구… 이렇게 왔습니다.》

처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는 또 소리내여 울었다. 목메는 생각이 눈물로 번져지고 아름찬 기쁨이 어깨를 마구 떨게 하였다. 장군님께서 역시 밀물처럼 거세게 그리고 뜨겁게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격정에 못이겨 그들을 힘껏 끌어안으시였다.

《나는 동무들이 기어이 오리라고 믿었소. 장하오. 정말 장해!》

그이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여 처녀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속으로 뜨겁게 뇌이시였다.

이 나어린 처녀는 조국땅 끝에서 끝까지 걸어 최고사령부를 찾아왔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혁명의 노래를 간직하고

멀고도 험한 수천리 길을 헤쳐왔다. 바로 이것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하거늘 어느 누가 감히 이러한 인민을 모독한단 말인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인민을 버리고 갈수 있단 말인가！…

그때 지휘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희들은 자나깨나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는것이 소원이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선에서 전투원들을 고무하던 노래와 춤을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은 그 한생각뿐입니다. 장군님！》

그러자 전체 배우들이 그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절하게 부르짖었다.

《장군님,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꼭 보아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움도 다 잊고 울며 웃으며 매달리는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여겨보며 말씀하시였다.

《고맙소. 동무들의 공연을 봅시다. 꼭 보아주겠소！》

그리하여 후퇴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되는 인민군협주단공연이 고산인민학교강당에서 10월혁명 33주년기념보고회끝에 진행되였다. 객석이 좁아 의자를 들어내고 멍석을 깔았다.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들, 주둔부대 군인들, 인민들이 꽉 들어찼다. **김일성**동지께서 앉으신 좌석 가까이엔 여러 간부들과 각국의 외교관들까지 자리잡고있었다.

협주단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막을 올렸다. 합창이 시작되자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장중하고 기백있는 선률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관중은 모두 하나같이 숨쉬고있었다. 락동강의 피어린 싸움터에서 높이 부르던 노래 《진군 또 진군》을 독창으로 불렀을 때엔 많은 전사들이 소리없이 흐느껴울었다. 떠나온 그 기슭에서 돌격을 앞두고 다지던 맹세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 맹세와 함께 돌격에 나아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잊지 못할 전우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조국보위의 노래》와 무용 《나는 정찰병》, 기악중주 《간호원의 노래》 등이 계속되였다.

마지막으로 《싸우리라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는 시와

합창이 시작되였다. 소개자는 이 작품이 수천리 준엄한 후퇴의 길에서 시를 짓고 곡을 붙인것이라고 했다.

관현악이 울리면서 합창대앞으로 한 녀배우가 나왔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남해가까운 진주에까지 나갔댔다고 하던 그 처녀임을 알아보시였다. 그는 물결치듯 흐르는 관현악의 선률을 타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은하수 비낀 저 하늘가에
오붓한 내 고향마을이 있어
푸른 시내가엔
진달래 그리도 붉게 타더니

그것은 그저 시인것이 아니라 뜨거운 속삭임이였다. 한없는 사랑의 정으로 내 고향, 내 마을을 그리는 절절한 흐느낌이였고 불같이 타는 부르짖음이였다.

침략의 불구름 밀려와
마을은 간곳 없고
웃으며 뛰놀던 내 동생
내물을 피로 물들여

차츰 숨결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련발사격의 총성과도 같은 소고소리, 포성같이 웅글진 북소리, 불덩이같이 뜨거운 호소가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하늘도 떨고 땅도 타는
사무친 저 원한 듣느냐
오 전우들아
탄환을 재우자
복수를 재우자

지휘자의 손끝이 곧추 뻗어오르자 음악은 격렬한 파도마냥 장내를 휩쓸었다. 비발치는 총탄을 맞받아 돌격에로 내달리는 전사들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했다. 돌격선의 맨 앞장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 앞서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뒤따르던 전사가 또 받아쥐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비록 패배주의자들은 감히 제 나라, 제 땅을 버리고 자기 인민마저 버리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굴함없이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섰다. 저 분노의 웨침을, 저 피타는 호소를, 저 억센 신념과 맹세를 들어보라!…

오 전우들아
탄환을 재우자
복수를 재우자

겨레의 피눈물 헤치고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장군님 안겨준 그 봄을
가슴에 지니고 앞으로

조국을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리라
승리하리라

격앙된 심정이 장내를 휩쓸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일먼저 일어나 박수를 쳐주시였다. 그러자 온 장내가 움찔 일어났고 돌연 만세의 환호로 끓어번지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배우들이 울고 온 장내가 다 울었다. 그것은 그저 눈물이 아니라 분출하는 용기였고 맹세였다. 멍석을 깔고 가득 들어앉았던

군인들, 각계층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있던 그 피타는 호소를, 맹세를 들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무대로 올라가시였다. 협주단배우들의 두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거듭 말씀하시였다.

《수고했소, 동무들. 좋은 노래를 불러주어 고맙소!》

배우들의 얼굴은 온통 젖어있었다. 하염없이 흐느끼며 매달리며 그들은 목메여 부르짖었다.

《장군님! —》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얼싸안고 말씀하시였다.

《아주 훌륭하오. 싸우는 조선인민의 신념을 잘 노래했소. 장하오.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소!…》

공연은 끝난지 오랬어도 장내는 여전히 끝없는 환호와 격정으로 끓고있었다.

12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노래를 잊지 못해하시였다. 차를 달리실 때에도 작전도를 마주하실 때에도 그날의 시와 노래가 줄곧 머리에 떠오르시였다. 《싸우리라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는 그 노래에 맥박치는 전투적기백과 의욕과 불굴의 신념이 귀중하게 여겨지신때문인지… 가끔 자신도 모르는새에 기억에 새겨진 격조높은 그 시와 노래를 상기하군하시였다.

오 전우들아
탄환을 재우자
복수를 재우자
…

그날도 **김일성**동지께서는 만포에서 새로 조직되는 군단의 장

비정형을 료해하고 돌아오는 도중 줄곧 속으로 그 선률을 더듬고계시였다. 림성골에 돌아왔을 때 어데선가 와— 와 하는 환성이 울려왔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친위중대원들이 오늘 마을사람들을 도와 추수마당질을 하기로 되여있다는것을 상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보시였다. 잠시 생각해본끝에 떠들썩한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친위중대원들이 들어있는 농가의 뜨락엔 온 동네가 다 모여온것 같았다. 늙은이들은 구팡돌우에 앉아 종자로 쓸 조이삭을 자르고있었고 부관들과 친위중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번갈아 도리깨를 잡아보았다. 장군님께서 오시자 뜨락은 명절같이 흥성거렸다. 늙은이들에 이어 조무래기들까지 와 밀려와 그이께 인사를 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네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웃저고리를 벗으시였다. 손수 도리깨질을 하시려는것이였다. 그러자 동네 늙은이들은 장군님께서 어찌 그런 일까지 다 하시겠는가 하면서 극력 만류해나섰다. 바로 그때 부관 김수명이 《아야！—》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있던 도리깨를 떨구었다. 서툰 일을 덤벼치며 하다가 도리깨아들로 자기 귀를 때린것이였다. 그는 두 손으로 귀바퀴를 움켜쥐고 망돌처럼 뱅뱅 돌아갔다. 그러자 숱한 사람들이 웃어대고 조무래기들은 토담우에서 와— 환성까지 질러댔다.

김일성동지께서 역시 웃으시며 그를 살펴보시였다. 얼굴이 벌개진 김수명은 《일없습니다. 그저 얼얼할뿐입니다.》하고 중얼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떨군 물푸레나무도리깨를 들고 눈여겨보시였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구만. 구멍도 커지지 않았고 칡줄도 닳아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귀를 때린단말이요！》

멀찌감치 물러났던 김수명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것두 뭐 도리깬가？！…》

그 모양을 보고 구팡돌우의 늙은이들까지 호함지게 웃어댔다. 조무래기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녀인들도 껴들었다.

《저 아저씨 괜히 애꿎은 도리깨만 욕하는구려.》

《손에 익지 않아 그러지요. 도리깨를 탓할게 있수.》
《괜한 소릴 함무다. 부관어른!》
한 늙은이가 그를 두둔해나섰다.
《그만들하슈. 처음이니 그럴수 있지.》
김일성동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수명동무, 동네어른들 말씀이 옳소. 도리깨를 탓할게 아니라 서툰 일솜씨를 탓해야지. 아무 일이나 손에 익히자면 감각이 있어야 하오. 도리깨채를 우로 쳐들 때 도리깨아들이 고르게 펴지는가 서로 얽히지 않는가 하는걸 눈으로 보지 않고도 감각으로 느껴야 한단 말이요. 그럼 내 좀 해볼가…》
그이께서 김수명이 나무라던 도리깨를 쳐드시였다. 세가닥의 도리깨아들이 하늘로 훌쩍 날아오르더니 쫙 펴든 손가락들 모양으로 벌려지면서 힘껏 내려졌다. 휘딱 짚더미를 두들겨대는가싶더니 또다시 훌쩍 머리우로 날아올랐다. 경쾌한 반원을 그리며 훌썩! 때리고 휘딱! 솟구쳐오르고는 또 훌썩! 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탄에 찬 눈길로 그이의 일솜씨를 지켜보았다. 짚검불이 묻어올라 춤추듯 날아가는가 하면 골고루 펴놓은 수수이삭들이 털썩, 흐물썩거리며 뒤집히군했다. 진정 그이께서는 이 단순한 로동도 호흡과 가락을 가진 환희로운 률동으로 변화시키시는것이였다.
늙은이들이 채수염을 비다듬으며 황홀해서 바라보았다. 어느덧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는 아낙네들의 눈굽은 번지르해졌다.
장군님께서 도리깨질을 하신다. 우리 장군님께서 준엄한 전쟁도 다 잊으신듯 여기서 수수마당질에 여념이 없으시다!…
도리깨를 휘두르시는 그이의 마음속에도 사무치는 격정이 있었다. 2천리 먼길을 헤쳐온 인민군협주단배우들이 부르던 노래《싸우리라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는 격조높은 합창의 선률에 맞추어 두드리고계셨다. 하얀 와이샤쯔바람이였지만 그이의 어깨우에서는 어느덧 흰김이 무럭무럭 피여오르고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얼굴에 온통 웃음이 버무러져있는것 같은 강부관장이 달려왔다.
《장군님!》

도리깨질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땀배인 얼굴을 돌리시였다.

《장군님! 서문거리 작전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전에 최현동지가 그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최현동무가?!》

《예. 이쪽으로 막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흔히 반가운 소식은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 불쑥 찾아오는 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운곳에 있는 한 친위중대대원에게 도리깨를 넘겨주시였다. 그다음 상의를 벗어 걸어둔 삽짝문으로 걸어가며 흥분어린 음성으로 거듭 뇌이시였다.

《드디여 왔단말이지. 최현동무가!…》

최현은 작전국직일관이 전화를 걸고있을 때 벌써 앞마당에 있는 승용차에로 급히 가고있었다. 무엇인가 손질하고있는 운전사를 보자 큰소리로 물었다.

《최고사령부까지 얼마면 가댈수 있나?》

《저… 걸어서말입니까, 아니면…》

《차를 타구!》

《예. 차로 가면 한 5분정도…》

《그래?!… 그럼 빨리 가자구!》

최현은 대바람으로 승용차에 훌쩍 올라앉았다.

《뭘해! 빨리 최고사령부로 가자!》

작전국의 운전사는 어리둥절하여 눈섭이 무섭게 곤두서있는 장령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지싯지싯 중얼거렸다.

《저… 작전직일관동지가… 대기하라고…》

《이 따라지같은녀석! 지금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신단말이야. 알겠어?》

최현은 벼락같은 호령으로 운전사를 재촉하여 차를 들이몰았다. 서문거리에서 장군님 계신 림성골의 한 농가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렸다.

장군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부관실도 비여있었다. 보초병은 강부관장이 그의 도착소식을 알려드리러 방금 뛰여나갔노라고 했다. 최현은 ㄷ자형으로 된 농가를 재빨리 돌아보았다. 맨 웃방이 장군님의 집무실이였다. 자주색책상보가 눈에 익었다. 전화기, 자개박이벼루함, 필통, 펜대, 《별》표 색연필… 책상을 마주한 원형등받이 쏘파와 개인의자들까지 다 눈에 익었다. 오래전부터 그이께서 사용하시던 그대로 옮겨와있다. 웬일인지 머리가 핑 돌았다. 소박하고 아담한 이 집무실이 한없이 귀중한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샷노전우를 손으로 더듬었다. 싸늘했다. 사납게 얼굴을 찡그리고 가운데 세살문도 열었다. 그 방도 매한가지였다. 맨아래 식당칸을 내놓고는 모두 싸늘했다. 그는 아무도 없는줄 알면서 또 한번 부관실을 벌컥 열었다. 잠시 망연히 서있다가 대뜸 부엌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부엌안에 뽀얗게 서려있던 뜬김이 그의 얼굴을 휘감았다. 후덥고 눅눅한 증기발속에서 점심식사준비에 여념이 없던 료리사와 그를 돕던 기술서기 오영혜가 반갑게 부르짖었다.

《어마나ㅡ 사단장아바이！》

《그래 잘들 있었나？》

그는 찌뿌드드해서 내던지듯 한마디 하고는 부엌을 훑어보았다. 국이 끓는 가마와 함석버치, 놋대야, 물초롱, 망돌… 장단지까지 열어보고나서 맥없이 문턱에 주저앉았다. 료리사와 기술서기가 하얀 행주치마에 두손을 싸안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는것을 보자 그만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그 어떤 험한 욕으로도 풀리지 않을 그런 노여움이 가슴에 마쳐왔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방은 차고 부엌에선 고사리나물로 굼때고… 소갈머리 없는 녀석들 하는 짓들이… 오뉴월 더부살이다！… 부관실이 비여있지 않았더라면 한바탕 체조를 시켰을것을… 허리를 쭉 편 그는 주눅이 들어버린 녀자들을 일별하고 문밖으로 나섰다. 구팡돌을 짚고 내려서려니 마음속에 걸린것이 또한번 가슴에 마쳐왔다. 아무리 어려운 때이기로서

니 이럴수가 있는가?!… 별안간 걸음을 옮길수 없이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도 미처 정하지 못한채 망연히 서있었다. 그순간 무엇인가 전류처럼 온몸을 진감시켰다. 귀에 익은 발자국소리, 친근한 음성,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최현동무!》

《장군님!》

발을 걸채며 달려나가던 최현은 급기야 뚝 멎어섰다. 아래도리를 후려맞은것처럼 비칠거렸다.

《장군님!》

그이께서 어느새 그를 붙안으시였다. 뜨거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꽉 잡아주시였다.

《최현동무, 드디여 이렇게 돌아왔구만!…》

《장군님!… 제가 그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줄 알았소. 기어이 돌아오리라고 믿었소!… 그새 정말 고생이 많았겠소. 몸이 편치 않아 몹시 신고한다던데… 지금은 어떻소?》

《장군님, 이젠 다 나았습니다. 열이 좀 오르군했지만… 최고사령부가 가까와지니 아예 싹 나았습니다.》

《그렇다니… 다행한 일이요. 그런데… 몹시 축갔구만.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도 다 건강하오? 정말 고생들이 많았겠소.》

최현은 목구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켰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건강하시면 우린 다 건강합니다.》

《고맙소. 최현동무!》

알봉의 그늘진 소나무숲너머에서 한무리의 새들이 날아와 산기슭의 조밭머리에 쫘— 악 흩어져내렸다. 그것들은 정오의 해빛에 녹아 성깃성깃해진 눈더미들과 그루터기만 남은 밭고랑사이로 종종뜀박질을 하는가 하면 가까와오는 발걸음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앙증스럽게 눈알을 굴리다가는 일시에 포르르 날아가기도 했다.

따스했다. 후더워진 마음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것인지도 모른다. 최현은 장군님과 나란히 구절골로 이어진 소로길을 걷고있었

다. 그는 후퇴를 시작하던 때부터의 일들을 죄다 말씀드렸다. 방차대의 임무를 스스로 맡아하며 양양,고성,통천 등 여러 지방을 해방한 사실도 보고드렸다. 장군님께서 그처럼 기다리시는줄 모르고 제일 뒤늦게 돌아온것을 죄송스러워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최현동무야 군집단의 리탈을 보장하느라고 마지막까지 락동강방어선을 지켜 싸우지 않았소. 게다가 후퇴하면서 동해연선의 여러곳을 해방하고 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요?…》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최현의 수척해진 모습을 눈여겨보시였다.

최현은 눈굽이 찌르르해졌다. 그이의 눈빛에 어린 비애의 그림자를 알아보았다. 그이께서 무엇인가 망설이며 괴로와하신다는것을 깨달았다. 무엇일가,무슨 일로 그처럼 괴로와하시는지?…

《장군님!》

무겁게 입을 열었으나 더 이을수 없었다. 웬일이십니까,무슨 일로 그렇듯 마음쓰십니까?… 하고 묻고싶었는데 목이 잠기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역시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이제 최현에게 알려주셔야 할 그 비통한 소식이 그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있었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 어려운 후퇴의 길을 헤쳐왔는데… 최현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외동딸 룡옥이가 잘못되였다는것을 어떻게 알려주겠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저릿해지시였다. 하지만 더 미루실수도 없을것 같다. 이제 당장 적후에로,더 어려운 싸움터로 떠나보내셔야 하는만큼 오늘 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이께서는 또 걸음을 옮기시였다. 안타까울 지경으로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계시였다. 아무말없이 묵묵히 따라오는 최현을 피끗 돌아보시였다.

《최현동무.》 마침내 그이께서 조용히 부르시였다. 하지만 아프게 가슴을 허비는 그 말은 또 잠간 묻어두기로 하시였다.

《최현동무가 오기를 몹시 기다렸댔소. 어떤 사람들은 최현동무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거라고 했소. 상식으로 보면 돌아오지 못할 길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린 최현동무가 이렇게 꼭 올줄 알고 중요한 임무를 준비해두었소.》
《장군님!》
《몸이 편치 않은 최현동무인데 적후에서 나오자바람으로 또 새로운 임무를 맡겨야 하니… 어쩌겠소 최현동무, 하루이틀 휴식할 시간도 줄수 없구만!…》
《장군님!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최현동무, 당에서는 이미 최현동무에게 적후에서 활동하고있는 군단을 책임지우기로 했소. 제2군단장이요.》
《!…》
최현은 두주먹을 힘껏 그러쥐며 굳어져있었다. 숱진 눈섭이 움쭉움쭉 일어서고 두눈은 숯불처럼 타오르고있었다. 그이께서 마주보시자 목이 멜 정도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어려운 임무요.》하시며 그이께서는 최현의 팔굽을 잡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제 최현동무가 활동하게 될 중부산악지대로 말하면 군사행동지대로서는 매우 불리한 험산준령들이요. 그러기에 적들도 중부산악지대는 내놓고 동서로 갈라져서 침공해들어오고있소. 그 험한 산지에서 싸우자면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거요. 엄동설한에 몸도 녹일새 없이 하루에 수백리씩 행군을 하고 전투는 끝이 없을것이요. 게다가 식량이며 탄약의 부족은 말할것도 없고 부상자들과 환자들이 늘어날거요. 이제 기필코 적들도 대병력을 들이밀텐데 그러면 매일같이 적의 포위속에서 싸울것이요. 그러나 현단계에서 제2전선은 이제 시작될 반공격의 디딤돌과 같소. 제2전선의 활동여하에 따라 반공격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소. 그러므로 우린 이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최현동무에게 맡기는것이요. 생각해보면 늘 제일 위험한곳에 최현동무를 보내군하는데…》
그이께서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자 최현은 또한번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생각같아서는 《장군님, 그토록 신임해주시니 정말 고맙

습니다!》하고 부르짖고싶었으나 여전히 입을 열수가 없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치밀어오르는 세찬 격정이 그대로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최현동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이께서 조용히 계속하시였다. 《한달만 견디여내시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 한달만 견디면 사태는 역전될것이요. 이제 우리는 전선서부 즉 청천강일대에서 주타격을 가할것이요. 이를 위해서 제2군단은 강원도와 황해도 일대의 넓은 지대를 장악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한편 남으로부터 올라올 적증원집단을 맞받아쳐서 놈들의 중간방어기도를 완전히 분쇄해야 하겠소.》

《장군님! 장군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놈들을 짓뭉개놓겠습니다!》

최현은 확확 열기를 뿜고있는 얼굴을 들어 장군님을 우러르고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격정에 사무친 어조로 계속 부르짖고있었다.

《장군님! 이 최현이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이지 이 최현이야 최현이기전에 장군님께서 키워오신 한 전사가 아닙니까. 내 이제 적구에 나가 싸우다 죽드래두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을 하리다!…》

차츰 칠성산마루에 구름발들이 감기기 시작하였다. 따스한 볕을 즐기던 잡관목우의 메새들이 푸시시 털을 날리며 떨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자 길섶의 말라버린 어저귀,쇄기풀들이 파르르 떨며 나가누웠다. 또 한바탕 눈이 내릴것 같았다.

그때 림성골어귀에 강부관장이 나타났다. 급한 걸음으로 거의 반달음쳐오더니 《장군님!》하고 부르짖었다. 희소식을 가지고 오는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부관장이 보고드렸다. 《방금 김책부수상동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관리국 리성조기사장이 송전작업을 끝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 송전작업을!…》 장군님께서 큰소리로 되받으시였다. 《그러니 끝내 해냈단말이지!…》

최현은 장군님께서 처음 밝게 웃으시는것을 보았다. 무엇때문

인지 줄곧 괴로와하시던 장군님이시다. 마음속 아픔을 참고누르며 내색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다 쓰시던 장군님이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잊으신듯했다.

《이제부턴 좋은 소식이 더 많을것이요.》하고 그이께서 흥분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최현동무,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다는 모를거요… 리성조라고 산업성 전기관리국기사장을 하던 동무가 적후인 박천군 맹중리에까지 들어가 송전작업을 해냈소. 그래 이제부턴 군수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게 됐소.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전선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소!》

최현은 가슴이 뭉클해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러볼뿐이였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전기가 걸려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전기를 끌어왔는지 그로서는 전혀 가늠할수 없었으나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였다. 오랜 세월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그로서는 누구인가 그이께 크나큰 기쁨을 드렸다는것, 군사적으로 말하면 어느 한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주공방향의 작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그것이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바로 그 점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것이였다.

(리성조!… 리성조란 말이지.)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째 나는 여태 모르고있었을가. 아무튼 괜찮아. 이제 그 량반을 만나게 되면 단단히 인사를 차려야겠군.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렸는데야 무엇인들 못해줄라구. 필요하다면 백마에 태워 군단열병식도 사열하게 할수 있는것이지. 못할게 뭔가!…)

그러자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한 기술자의 이름이 무던히도 친근하고 정답게 여겨지는것이였다.

(좋은 친구로군, 꼭 사귀여야지…)

여전히 최현은 장군님의 웃음어린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장군님의 안색을 흐리게 하던 그 마음속 아픔은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최현은 두리반을 사이에 두고 장군님과 마주앉았다. 어느덧 작

전지도를 통한 구체적인 임무료해도 끝난지 오래고 지금은 적후로 떠나기에 앞서, 작별에 앞서 저녁상을 마주하고있는것이다. 최현의 어깨우엔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황갈색의 윤기나는 털외투가 걸쳐있고 두리반에는 검소하나 알뜰한 지성이 깃든 식사가 준비되여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수저를 드는것도 잊고계시였다.

최현은 아무 기척없이 마른 입술을 혀로 추겼다. 분명 크나큰 아픔을 안고계신데… 어째 그러실가, 어째 그렇게 괴로와만 하실가?…

고즈넉한 침묵, 흉중에 사무친 그 많은 사연들을 더듬는 아릿한 회오의 침묵이였다. 등갓을 씌운 전등아래 한줄기 연기처럼 가물가물 서려오르던 뜨김도 잦아들었다. 어느 주추돌밑에선가 유정하고도 간절하게 읊조리던 귀뚜라미의 뜻모를 노래가락도 그쳐버렸다.

고요했다. 웃방의 탁상시계가 채칵거렸다. 그때였다. 장군님께서 머리를 드시였다.

《가만, 우리가 왜 이러고있소?… 어서 드시오.》

《예.》

아직 최현은 장군님께서 손수 따라주신 술 한잔을 들었을뿐 식사는 념두에도 없었다.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이든 하시기를 가슴조이며 기다리고있을뿐이였다.

갑자기 장군님께서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적후에선 아직도 여름옷을 입고있을테지…》

《…》

최현은 숨을 죽였다. 그때문이였는가? 그것이 장군님께 그리도 어두운 그늘을 지워드렸는가?…

《이번에 갈 때 매 군인들이 솜옷을 몇벌씩 지고 가도록 해야겠소.》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최현은 제꺽 대답올렸다.

《솜옷말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군님!》

《전선형편이 이렇지만 않아도 적후의 전사들에게 뭘 좀 많이

보내주어야겠는데…》

《…》

최현은 또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마음속으로만 목메여 울먹이며 부르짖고있었다.

《장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얼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리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데 어째 우리가 얼겠습니까. 그 어떤 무서운 추위도 절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또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였다. 국이 다 식은것도 몰랐다. 별안간 그이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시려다가 눈길을 피하시였다. 최현은 가슴이 떨렸다. 문득 무엇인가 예감되였다. 그 어떤 커다란 불행에 대한 예감이였다. 숨길이 빽빽해지며 뜨끔뜨끔 마쳐왔다. 그는 두리반우의 종지에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먼저 그것을 잡으시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전자를 기울여 잔에 한가득 부으시였다.

《최현동무, 쭉 마시오.》

《장군님, 자꾸 이러시면…》

《일없소. 자 어서 잔을 비우오.》 잔을 권하시는 그이의 손끝도 가늘게 떨리였다. 《최현동무, 마음을 굳게 먹고 내 말을 듣소… 사실 이 말은 후에 할가 했는데… 이런 기회가 쉬 올것 같지 않아서 말해주기로 했소.》

《장군님!》

《놀라지 마오, 최현동무. 얼마전 후퇴하던 도중에 룡옥이가… 그만 잘못되였소.》

《?…》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소. 최현동무가 그렇게도 끔찍이 귀애하던 룡옥이를 그만… 잃고말았소.》

《…》

《이제 적후의 어려운 싸움길을 가야 할 최현동무에게 이런 가슴아픈 소식을 말하게 되여… 정말 안됐소.》

별안간 최현은 헉— 하고 흐느꼈다. 그리고는 세차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목구멍으로 울컥울컥 치밀어오르는것을

삼키느라고 입귀가 사뭇 실룩거렸다. 소리없이 어깨를 떨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갈린 음성으로 나직이 말씀하셨다.

《우오. 내앞에서 울지 않으면… 어데 가서 울겠소. 맘놓고… 우오.》

《…》

최현은 마침내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가슴을 비트는 슬픔때문만이 아니였다. 자기자신의 슬픔과 아픔보다도 장군님께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계시기때문이였다.

(어서 입을 열어 말씀드려라!) 하고 그는 자기자신을 매질하였다. (지금 장군님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기에 그걸 알면서도 노전바닥만 쥐여뜯구있어?… 이 허챙이같은눔아, 어서 입을 열고 여쭈어야지. 너무 속쓰지 마시라구 왜 한마디 말이라도 올리지 못하는거야?!…)

최현은 서리가 불린듯 희여스름하게 질린 얼굴을 들었다. 코를 울리며 비틀린 입술을 움직였다. 그러자 목을 졸라맨듯 거쉰 소리가 터져나왔다.

《장군님!—》

다음 순간 그는 넙적 무릎을 짚고 그이앞에 꿇어앉았다.

《장군님! 내 기어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백번이구 천번이구 쓰러지면 또 일어나 장군님 주신 임무를 꼭 수행하겠습니다.》

그는 꿇어앉은 자세그대로 종지에 가득 술을 따랐다. 후들후들 떨리는 두손으로 그것을 받들어쥐고 말씀드렸다.

《장군님! 장군님을 하직하면서 드리는것이니… 부디 사양하지 마시구 받아주십시오. 이 최현이 적후로 가면서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루… 받아주십시오!》

해쓱해진 그의 광대뼈어름이 경련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또 무엇인가 말씀드리려다가 그만두는듯했다. 장군님께서는 마르고 터갈린 그의 입술이 근엄하게 꾹 다물려지는것을 보면서 손을 내미시였다.

《고맙소. 최현동무！…》

최현은 두손으로 종지를 쳐들며 또한번 목구멍에까지 치밀어오른 뜨거운것을 꿀꺽 삼켰다. 어느덧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끓고있었다.

… 이렇게 최현은 떠나갔다. 그는 먼저 후퇴의 길에서 함께 싸워온 련합부대 군인회의를 룡림에서 열었다. 수백수천의 전투원들이 수림속에 빽빽이 죄여앉아있었다.

여기서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적후투쟁임무에 대하여 세세히 이야기하였다. 전투원들의 기세는 불길마냥 타올랐다. 이윽고 부대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다시 적후에로 행군을 시작하였다. 목적지는 강원도 이천군 가려주리— 장군님께서 찍어주신 적후활동의 중심이 될 열점들중의 하나였다.

말고삐를 잡은 최현이 앞서고 총포탄과 여러벌의 솜옷까지 자기의 배낭우에 덧진 전투원들이 깊은 눈속을 헤쳐나갔다. 나날이 혹독해지는 추위속에서 행군은 힘겨웠다. 대오의 선두는 골짜기를 지나고 앞산을 넘었는데도 대오의 후미는 아직 골짜기를 내리고있어 기나긴 총창의 흐름은 끝이 없는듯싶었다. 캄캄한 밤에도 몇길씩 되는 절벽을 톺아오르는 간고한 행군길에서 초급정치일군들은 《산에서 살고 산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자！》라는 구호를 전사들의 배낭뒤에 붙여놓군하였다.

숙영하라는 신호가 나면 모든 전사들이 부르튼 발바닥을 성냥불로 지지였고 얼음을 까고 찬물에 발을 씻고 발싸개를 빨아 말리였다. 오랜 세월 산에서 싸워온 최현군단장의 엄한 명령이였다. 때로 강행군에 지친 전투원들이 휴식구령과 함께 불도 피우지 않고 바위에 기대여 잠드는것을 발견하면 당장 눈속을 파고 들어앉도록 하기도 했다. 사나운 눈보라가 눈구뎅이속에 들어간 전사들을 영영 묻어버릴것처럼 태질하는 가운데 다시 출발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리면 소대장,중대장들이 권총을 탕탕 쏘며 대원들을 불러일으키군했다. 그리하여 깊고도 험한 골짜기에 묻혀 보이지 않던 대오가 다시 움직이고 설핀 해빛에 총창들이 번쩍이군했다.

어느덧 북대봉산줄기의 험산준령들을 뒤에 남기기 시작했다. 무

선수들은 나날이 더 멀어지는 최고사령부와의 통신을 결속하여 행군로정을 보고하는가 하면 적후에서 싸우고있는 련합부대들에 보내는 군단장 최현의 명령을 전하기 위하여 얼어든 두손을 오래동안 입에 대고 불군하였다.

아호비령산줄기를 타면서부터 차츰 먼 포성을 자주 듣군하였다. 적후에서 활동하는 부대들의 소식을 알리는 포성이였다. 이무렵 군단장 최현은 군단 군사위원과 무선통신을 주고받던중 어느날 심상치 않은 보고를 받게 되였다.

《서울제4보병사단장 박정덕을 해임함,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보고하겠음.

군단 군사위원 리승엽》

이제 이틀후면 군단장이 가려주리에 도착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가 돌발적으로 이러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 까닭을 최현은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즉석에서 군사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명령하였다.

《일체 해임, 처벌, 조동을 중지할것.

군단장 최현》

13

류현수는 7군단병원에서 벌써 닷새를 보내고있었다. 한때 리숙이 수술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후퇴해 들어오자 병원에 끌려간것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새 부대들이 편성되고있었으므로 자칫하다가는 전혀 생소한 부대로 갈수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부상병들이 그 일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만 류현수는 뜻밖에 병원 신세를 지고있는 일로 하여 일종의 거북스러움과 수치감을 느끼

고있었다.

리숙이와 그의 일행을 자주 생각했다. 그들과 같이 힘겨운 길을 걷고있을 때에 비하면 아주 멀쩡해진 자기가 병원에 들어박혀있는것이 참을수 없이 창피스러웠다.

현수가 들어있는 호실엔 5명이 있었다. 그중 키가 크고 수다스러운 반땅크총부사수만이 초면이였다. 그는 자기가 도합 일곱대의 적땅크를 파괴했노라고 자랑하군했다. 얼마전 수술에선 견갑골아래에 박힌 장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파편을 꺼냈다고 은근히 귀띔하기도 했다. 그를 보통 《부사수》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로 그는 매일 한두가지의 새소식을 가져오군했다. 거기엔 치렬한 싸움이 벌어진 운산지구의 전과로부터 새로 부임된 지휘관들, 표창, 처벌 관계, 간호원처녀들간에 오간 비밀의 속삭임 등 별의별것이 다 있었다.

《여보게들, 이제 우리 군단이 곧 전선동부로 진격한다누만!》

그는 복도 한끝까지만 거닐어도 고성능안테나처럼 새소식을 받는듯했다.

《그런데 병원에 배겨있는 콩깍지들은 다 버려둔채 간다더군. 말하자면 임자네 같은 사람들이지.》

《그럼 자넨 뭔가?》

《나야 알쌈이지. 탄알이 그득차있는 알쌈!》

그는 늘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있는 현수를 건드리지 못해 안달아했다.

《이보게 공병! 싸움판에 나가지 못해 그러나?… 그래서 늘 벌레씹은 상이였군그래. 그럼 나 하라는대로 해보겠나? 멋진 수를 하나 대줍세.》

현수는 원래 수다군들을 믿지 않았다. 더구나 남을 웃기려고 우정 말재간을 피우는 사람들앞에서는 심한 불편을 느끼군했다.

저녁무렵이였다. 키다리 《부사수》가 지팡막대기를 딱딱 소리나게 짚으며 잠간 나갔다 오더니 현수에게 한눈을 찌긋했다.

《여보게 공병! 희한한 소식 하나 대달라나?》

현수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하― 임자 귀구멍이 번쩍 트일 새 소식인데두 안듣겠다?!…에라 그럼 별수 없지. 다음은 우리 전수옥동무 차례요―》

전수옥이란 이제 겨우 열예닐곱이나 났음직해보이는 귀염둥이 간호원이다. 그 처녀는 한 부상병의 상처를 처치하고있었다.

《수옥동무, 새소식이 있는데 어디 맞혀보라구요―》

《흥, 싫어요. 또 전번처럼 놀림가마리를 만들려구!》

《아― 그런게 아니요. 내 방금 피복서기를 하는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새 피복공급규정이 나왔구만. … 굉장하오. 수옥동무, 이제 처녀들에게는 말이요…》

그는 처녀의 귀에 대고 낮게 수군거렸다. 그러자 수옥이 얼굴을 붉히며 낮게 부르짖었다.

《어마! 내가 그건 해서 뭣합니까!》

《아― 모르는 소리.》 키다리 《부사수》가 또 희떱게 열을 내여 말했다. 《어떤 환난속에서도 랑자는 꽃같이 자기를 가꿀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오? 강감찬장군이 설죽화에게 한 말이요!》

현수는 참다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문 이발새로 신음소리 같은것이 새여나왔다. 얼굴은 퍼런 빛이 돌만큼 침침해졌다. 그는 껄끄한 욕지거리가 목구멍으로 치미는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지금 전선은 100리안팎에 있다. 거기서는 이 시각에도 피어린 격전이 거듭되고있으며 사람들이 피흘리고있다. 리숙이와 그의 일행은 아직도 먼 적구에서 눈물겨운 고된 행군을 계속하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 《부사수》는 시시껄렁한 롱지거리로 사람들을 웃기고는 장한듯 으시대고있다.

현수는 문가로 걸어갔다. 그의 심상치 않은 기색이 사람들의 주의를 끈것 같았다. 《부사수》가 그를 불렀다.

《여보게 공병!》

현수는 멎어섰다. 천천히 머리를 돌리고 가늘게 쪼프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속에서 불찌가 튕기고있었다. 홀연 방안은 조그만 소리에도 깨질것 같이 땡땡 얼어든 적막이 서렸다.

《난 래일… 전선으로 가오.》 부사수의 말이였다. 입을 실룩

거리며 바람새는 소리같이 이상해진 목소리로 계속했다. 《동무들을 유쾌하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주게.》

《…》

별안간 명치끝이 쑤시는것 같았다. 현수는 흙매질한 벽모서리를 짚으며 몸을 돌렸다. 《부사수》가 또 말을 이었다.

《동무가 무슨 일로 속을 썩이는지 나도 아네. 그래 좋은 소식을 알려줄가 했던것인데… 이건 정말일세. 들어보겠나?… 적구에서 대규모적인 파괴전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의해서 전투경험이 풍부한 공병들을 선발하고있네.》

《…》

《왜 믿어지지 않나?… 더 정확히 말하면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64호일세. 숱한 공병들이 곧 적후투쟁부대들에 파견된다더구만.》

《…》

현수는 눈시울을 가늘게 떨고있었다. 목줄띠를 잡아당기듯이 목에 경련이 일어났다. 수다쟁이 《부사수》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바람에 불린듯 사라져버렸다. 그는 비칠거리며 손더듬으로 돌쩌귀를 찾아쥐였다. 당장 문을 차고 달려나갈 기세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홱 돌렸다. 《부사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그러쥐고는 별안간 입귀를 바르르 떨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고맙소, 동무!…》

이 며칠사이 그가 처음 한 말이였다. 그는 밖으로 나섰다.

얼마후 현수는 외과과장앞에 서있었다. 한때 민주선전실이였던 집의 넓은 칸을 미닫이로 대충 막고 그 한쪽에 군의일군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다른쪽은 수술실이였다. 석탄산, 요드 등 강렬한 약냄새가 진동하고있었다.

《난 전선으로 가야 합니다.》 현수가 말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외과과장은 중좌를 단 늙수그레한 사람이였다. 두눈에 피발이 서있었다. 입을 놀리는것도 힘겨운듯 지싯지싯 중얼거렸다.

《자네가 언제 나가야 하는지 아는건 우리야.》

《난 적후로 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알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가야 합니다!》

《우린 죽을새두 없어.》

외과과장은 귀찮은듯 한팔을 내젓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러는것을 현수가 막아섰다.

《이제 당장 적구에… 파괴조들이 떠난단말입니다. 적구에서 대규모적인 파괴전을 벌릴데 대해 장군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공병이라는게 이쯤한 상처때문에… 그래 말이 됩니까, 예?… 장군님께서 나를 부르셨단말입니다. 이래도 못알아듣겠습니까?…》

현수의 마지막 말에 외과과장은 펀뜻 정신을 차린듯했다.

《이름이 뭐라구?》

《예, 류현수입니다. 여게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 그래!…》

외과과장은 탁자우에서 병력서가 아니라 자그마한 수첩을 펴들었다. 킁킁 코소리를 울리며 몇장 번져보다가 또 현수의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그렇댔군!…》

현수는 어리둥절했다. 별안간 입을 다물고 그가 전화기의 발전자돌리개를 잡는것을 놀라서 바라보았다. 외과과장은 전화를 걸었다.

《대렬부장을 주시오!…》

잠시 기다리는동안 현수에게 엄한 시선을 보냈다. 벌써 그는 지칠대로 지쳐버린 늙은이가 아니라 까다롭고 막무가내로 고집이 센 군의일군이였다.

《부장동지! 군단병원 외과과장 서용삼입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아까 부장동지가 말하던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예, 류현수!… 지금 제앞에 와있습니다. 예, 스스로 왔지요. 어데서 귀동냥해들었는지 적후로 간다나요. 마구다지로 소래기를 지르고있습니다. 예?… 그것말입니까?… 물론 싸우기야 하겠죠. …》

현수는 긴장했다. 입술이 말라들었다. 외과과장은 현수쪽을 눈짓하며 주름이 잡힌 입을 비쭉거렸다.

《상처말입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거지반 나아가고있습니다. 예, 지금상태로도 적구에 들여보내면 폭약대신에 망치를 휘둘러 철다리를 파괴하려들겁니다. 이자도 주먹으로 저의 골을 막 부시려들던걸요. … 예, 제꺽 쫓아보내지요.》

좋은 늙은이였다. 익살맞고 부드럽고 점잖고 고지식하고 또 능청스러운 늙은이였다. 전화가 끝나기 바쁘게 현수는 그의 두손을 꽉 거머쥐였다.

《고맙습니다. 과장동지!》

외과과장이 비명을 질렀다. 황겁히 손을 빼내자바람으로 입김을 불어댔다.

《원 쇠집게같은게!… 이게 어떤 손인지 알아?… 생명을 건지는 손이야!…》

군단대렬부장은 키가 작고 다부진 사람이였다. 잠을 못자 부석부석한 얼굴을 손으로 한참 문질러댄후 현수를 가까이 오도록 손짓했다.

《며칠째 동무를 찾고있었소!》

볕에 탄 거무스레한 주먹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현수를 뜯어보더니 머리를 기웃거렸다.

《싸울수 있겠소?…》

《…》

현수는 그가 자기의 강마른 얼굴을 계속 살피는동안 입을 다물고있었다.

《왜 대답이 없소?》

《부장동지! 저에 대해선… 이미 외과과장동지가 보증하였습니다.》

《음-》

대렬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수 역시 용수철처럼 튕기듯 일어났다.

《적구로 가야겠소.》 대렬부장은 대뜸 이렇게 시작했다.

《이제 곧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의해 적후활동지역에서 대규모적인 파괴전이 진행되는데… 제1진과 2진은 벌써 출발했소. 동문 제3진으로… 서울제4보병사단활동지역으로 파견되오. 여섯개의 파괴조를 인솔하는 지휘관이요!》

그는 책상서랍을 열고 새 군관견장을 꺼내였다.

《종전의 직급 그대로 활동하게 되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말씀이 계셨소.》

무엇인가 가슴 한쪽을 뜨끔하니 깨무는듯했다. 힘껏 다문 입술이 움씰거리고 목이 꽉 메였다.

《장군님께서?!…》

가까스로 불길같은 짧은 호흡으로 이렇게 속삭였을뿐이였다.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동무가 가혹한 처벌을 받았지만 후퇴의 어려운 시련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만난을 이겨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주신 새 전투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

현수는 가쁜 숨을 들이그으며 헐썩이였다. 심장은 벅찬 경련에 헝클어진 박동으로 맹렬하게 뛰놀았다. 눈앞이 뿌예지고 대렬부장의 말소리조차 아득히 먼 상공에서 울려오는듯했다.

《받으시오. 현수동무!…》

눈시울이 사뭇 세차게 실룩거렸다. 형언할길 없는 격정이 가슴속에서 길길이 솟구쳐올랐다.

《장군님!》

그는 어깨를 떨면서 목메여 부르짖었다.…

14

드디여 병사들은 다시금 공격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게 되였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나 귀뜸해서가 아니라 심장과 감각으로 반공

격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한때 적기들의 공습과 돌입해 들어오는 적땅크의 무한궤도앞에서 최후의 결심까지 다져보았던 많은 전사들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시련은 이겨냈으며 마침내 적을 타승할수 있는 결정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였다는것을 분명히 알기 시작했다. 청천강이북에서 미제8군이 인민군부대들의 반타격에 공격을 저지당하는 한편 전선동부에서는 미제10군단이 황초령과 매덕령에 주저앉을무렵부터 사람들은 지금 침략자들이 마지막 기력까지 깡그리 짜내여 공세를 취하고있으나 쇠진해가는 그 힘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것을 감촉하지 않을수 없었다. 천평의 저울판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기미가 보이고있었다. 이제 그 저울판에 작용할 결정적인 추의 역할, 다시말하여 저울을 완전히 한편으로 기울어뜨리게 할수 있는 추의 역할이 제2전선부대들의 활동에 달려있었다. 그리하여 이해의 11월은 반공격의 급속하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제2전선부대들의 맹렬한 활동으로 장식되였다.

그러한 어느날 사단장 박정덕은 련합부대를 이끌어 시변리계선에 증강된 영제29려단을 공격하는 대담한 공격작전을 벌렸다. 그런데 포위속에 든 적들이 이미 설치해놓은 화점과 전호에 의지하여 발악하면서 서울에 증원을 요구하고있을 때, 급보를 받은 미제8군사령부가 비행대를 출동시켜 맹렬한 공습을 들이대는 한편 수십대의 자동차로 증원부대를 급파하고있을 때 박정덕은 뜻밖에도 군단군사위원으로부터 주타격방향의 부대들에서 3명의 대대장을 급히 소환한다는 명령전문을 받았다. 전문은 《…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지휘부에 도착시킬것.》이라고 적혀있었다. 리유인즉 자기가 따로 꾸리기 시작한 《유격대》 (정규구분대) 의 중요지휘성원들로 소환한다는것이였다. 박정덕은 너무도 의외의 일이여서 한동안 아연해있었다. 공격을 앞두고 부대들에서 지휘관들을 떼여낸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리고 락동강전선에서부터 함께 싸워온 용감하고 지혜로운 대대급지휘관들을 토의도 없이 강권으로 무작정 소환하는것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박정덕은 그것이 리승엽의 반혁명적음모라는것은 알

지 못했다. 그는 오래 생각할새가 없었다. 로획한 박격포로 적증원부대와 포위에서 빠져나오려는 적들을 향해 불벼락을 퍼붓고있었다. 얼어붙은 대기를 산산이 찢어발기는 포성속에서 그리고 여러 참모부성원들이 불안스러운 눈길로 지켜보는속에서 박정덕은 별안간 통신병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전하오. 〈련합부대는 총공격에 진입함. 전투도중 공격부대의 지휘관들을 소환하기 곤난함. 련합부대장 박정덕, 참모장…〉》

그순간 련합부대 참모장이 피끗 머리를 돌렸다.

《사단장동지, 총공격은 날이 밝은후에 하게 되여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린 공격을 개시했소.》

《그렇지만…》

《참모장동무!》 박정덕이 날카롭게 말했다. 《전문에 참모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되겠소?》

《?!…》

참모장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것을 얼핏 보고는 통신병을 향해 한팔을 홱 내저었다. 그대로 송신하라는 의미였다.

얼마후 적습격기편대들이 날아와 포위된 제편이 뚫고나갈 길을 열어주려고 미쳐날뛰였으나 강철가락지처럼 굳게 맞물린 포위환을 풀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자 적수송기편대가 또 날아와 포위된 놈들에게 수없이 많은 락하산을 여기저기 되는대로 떨구었다. 그때마다 우리 전투원들은 선손을 써서 그것을 빼앗거나 미리 매복했다가 락하산에 매달린 궤짝을 가지러 달려드는 놈들을 족치군했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련합부대는 결정적인 돌격에로 넘어갔다. 적병 1천여명을 살상포로하고 6백여정의 보총을 비롯한 많은 무기와 군사물자를 로획하였다. 또한 적들이 총알받이로 끌어낸 천여명의 인민들도 구원하였다.

다음날 군단군사위원 리승엽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서리발같은 눈길이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말썽군들이 다 있소? 그래 여기선 누가 상관이요?》 새된

음성으로 그가 부르짖는 말이였다. 《왜 말들이 없소. 누가 상관인가?》
박정덕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무엇인가 자기가 예견했던것보다 더 난감한 일이 벌어지리라는것을 예감하고 짐짓 목소리를 낮추어 대꾸했다.
《접니다. 군사위원동지!》
《뭐라구?… 동무가 상관이란말인가?》
그때에야 박정덕은 비로소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트집을 잡는것이다.
때는 늦었다. 리승엽은 손에 들고있던 채찍으로 허공에 대고 소름이 끼칠만큼 딱! 하고 소리를 내더니 이어 무섭게 독이 올라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째서 군사위원이 있는데서까지 동무가 상관이 될수 있는가. 누가 그런 황당무계한 권리를 동무한테 줬소? 어느 군사규정책에 그렇게 씌여있던가. 사단장이면 상급도 없는가. 상급도 없고 규률도 없고 제멋대로 무정부주의적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어데서 배웠는가. 혹시 염석산이나 장작림한테서 배워온건 아니요?》
박정덕은 아무 대꾸도 않고 입술만 세차게 깨물고있었다. 지독한 욕설을 예기하지 못한바 아니다. 허나 이렇듯 모욕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참을길없는 분노와 반항의 욕구가 목구멍을 불태웠다. 이제 머리를 곧추 들어 서로의 눈길이 마주치기만 하면 불꽃방전이 일어나 번개불처럼 서로 찌르고 태우며 번뜩이리라.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머리를 들어 상대를 쏘아보았다. 그러자 리승엽은 조개턱을 덜덜 떨었다.
《어째서 말을 못해!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무사할줄 알았는가?!》
박정덕은 눈길을 떨구지 않았다. 마디마디 힘을 주어 대답했다.
《군사위원동지, 우린 그때 한창 포위된 적을 소멸하던중이였습니다. 그럴 때 공격부대의 지휘관들을 떼여내서는 안된다는것을 군사위원동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리승엽이 타고있는 말이 대가리를 주억거렸다. 발을 저겨디디

며 가랑거리는통에 리승엽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러자 고삐를 꽉 거머쥐고 소리쳤다.

《그럼 전투가 끝난후엔 왜 보내지 않았소? 전투후에도 안되는 리유가 또 있다는거요?》

《있습니다. 군사위원동지! 그 리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걷어치워!》 그의 목소리는 그악스러웠다.

《감히 어따 대고 엇서는가. 유격부대들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조치를 반대하는건가. 누굴 등대고 배짱놀음이야! 참모장, 당장 여기 와서 무기를 회수하오!》

참모장의 검붉은 얼굴이 컴컴하게 질렸다. 부지불식간에 그는 뒤걸음쳐갔다. 등뒤에서 대가리를 맞대고있던 여러필의 말들이 투레질소리를 지르며 엉켜돌아갔다.

《뭣하는거요. 참모장?!…》

리승엽이 다시 소리를 지르자 참모장은 옆에서 돌아가는 가라말의 고삐를 움켜잡았다. 다음 목갈린 음성으로 침통하게 말하였다.

《아니 그러면 안됩니다. 군사위원동지, 그건… 안됩니다.》

《뭣이?!》

리승엽은 말에서 뛰여내렸다. 손에 들고있던 고삐를, 뒤이어 채찍마저 홱 던져버렸다. 참모장에게 서리찬 눈빛을 던지고나서 곧 돌미륵처럼 굳어져버린 박정덕에게로 다가들었다. 그의 눈에서 얼음쪼각처럼 차디찬 빛이 번뜩이였다. 마파람같이 휘— 찬기운이 쓸어왔다. 어느새 그는 박정덕의 앞가슴으로 한손을 쭉 내뻗쳤다.

《이리 내. 무기를 바쳐!》

박정덕은 흠칫 몸을 떨며 권총집으로 손을 가져갔다. 끼끗하던 그의 얼굴이 순시에 이지러졌다. 불그레한 빛이 차츰 꺼매지다가 창백해지고 권총을 꺼내든 손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러나 리승엽이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별안간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손을 치웟!》 어찌도 사납게 웨쳐댔던지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였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전률할

지경으로 무섭게 웨치고나서 숨을 헐떡거렸다. 또 부르짖었다.
《누구든… 날 건드렸다간… 용서치 않을테요！》

돌풍이 불어쳤다. 차디찬 산바람이 격렬한 소음을 싹 날려버린듯했다. 별안간 조용해졌다. 피가 얼어들었다. 리승엽은 뒤걸음쳐가다가 갑자기 멎어서서 경련이 이는 얼굴을 한손으로 어루쓸었다. 그러면서도 박정덕의 손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젊은 사람이… 벼락같이 웨쳤었다. 권총을 뽑아들고 사정없이 쏴갈길 태세였다. 아니, 틀어쥔 권총으로 정수리를 내려칠것 같았다. 그저 젊은 사람이 아니라… 갈범 한가지다. 제길！… 너절하겐 됐다. 공포와 분노가 가슴속에서 근적거렸다. 이렇게 해선 안된다. 안돼. 적당히 구슬려야 한다. 리승엽은 발치의 어펑바위에 풀썩 주저앉더니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며 박정덕을 또 치떠보았다.

《그만하오. 사단장！ 도대체 이게… 무슨 추태요！ 명령을 어겼는데… 그만한 추궁도 못한단말이요？ 철부지！ 당신은 아직 철부지요！》

《…》

박정덕이 잠자코 서있자 그는 좀더 열을 올렸다.

《전시법에 따르면… 용서받지 못할수도 있소. 철직시키던지 군사재판에 넘기던지… 그래가지고도 무슨 혁명군대의 지휘관이요？》

《한가지만 말하는데.》 마침내 박정덕이 입을 열었다. 입귀가 아직 푸들푸들 떨렸다. 《나는 장군님의 신임으로 련합부대를 지휘하고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무기를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내 간부들을 소환하려면 응당 련합부대장과 사전에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옳소. 그렇지만 이보오— 지금은 전쟁때이고 또 우린 적후에서 싸움을 벌리고있소. 여기서는 사소한 의견불일치나 불복종도 있어선 안된단말요. 그런데 당신은 뭐요. 부하들앞에서 무슨 추태나말요. 에 에— 창피하오. 사단장！ 련합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상부의 의도를 알고있어야지. 밸을 쓰면 다요？ 말해보— 그게 뭐요. 유격대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리해 못하고… 여보, 모르면 배우오. 나는 원체 무식한 사람들은 질색

이요. 혁명도 리론에 토대해야 하오.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당의 유격전술도 몰라가지구야 무슨 일이 되겠소. 원!…》

리승엽은 승마복바지가랭이에 붙은 가막사리를 쥐여뜯으면서 흘끔흘끔 곁눈질했다.

《여보, 무슨 말인지 인젠 리해가 되오?》

《…》

박정덕은 아무말없이 갑자기 누렇게 병색이 도는 리승엽의 낯색만을 집요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가느다랗게 일직선으로 꽉 다물고있는 그의 입술에서는 숨길수 없는 혐오와 신랄한 조소가 바르르 떨고있었다.

이틀후 군단장 최현이 도착하였다. 의례적인 인사말, 공식적인 실태보고 등이 있은 뒤끝에 리승엽은 자기가 서울제4보병사단장 박정덕을 해임시키기로 결심하게 된 리유를 루루이 설명하였다. 당의 유격투쟁전술에 대한 몰리해로부터 리승엽 자기가 조직하는 유격대들을 무시한다는것, 실상은 유격투쟁 그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상부의 명령지시까지 거역하기에 이르렀다는것, 제멋대로 전투를 조직하면서 극심한 무정부주의상태에로 련합부대를 변질시키고있다는것 등이였다. 그는 론박할수 없는 사실자료들로써 자기의 주장을 안받침하고있었다.

한동안 최현은 반나마 눈을 감고있었다. 무겁게 피곤이 실린듯 짙은 눈섭이 처져내리고있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리승엽의 그칠줄 모르는 력설을 듣는둥마는둥하더니 힘들게 눈을 치뜨고 말했다.

《엄중하군, 흥—》

《…》

별안간 리승엽은 입을 다물었다. 오랜 세월 그가 겪어온 2중적인 생활, 촉수를 곤두세운 집요한 경계심이 그를 긴장시켰다. 그는 새로 임명되여온 최현군단장이 여기까지 행군해오는 도중 적후투쟁부대들과 무선련계를 부단히 가지고있었고 또 백일리에서는 일부 지휘관들을 앞질러 만났었다는 사실을 별안간 상기했다. 그는 속이 뜨끔해났다. 혹 최현이 료해한 자료는 리승엽 자기가 설

명하는것과 전혀 다른것일수도 있다. 최현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리승엽도 몸을 일으켰다. 때맞춰 례절을 지키려는것이다.

《군사위원동무.》 최현이 말하였다. 《박정덕동무문젠 장군님께 보고드려 결론 받읍시다. 군사위원동무의 견해도 보고드리고… 내 의견도 보고드리고… 그 동문 락동강에서부터 내 좀 아는데… 지금껏 잘 싸운 동무요!》

《글쎄 그렇다면… 군단장동무가 좋도록 해주시오.》

리승엽은 더 고집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대방의 내면심리를 정확히 판별해내는 탐침과도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있는 그였기에 즉시 고분고분해졌다.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비밀선을 리용하여 미군폭격기들에 의한 군단지휘부폭격을 기어이 성사시킬것을 속다짐하고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속생각을 알지 못했다. 강마르고 성칼사나운 이자가 미국정탐기관에 의하여 흡수되고 키워진 고용간첩이라는것 역시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리승엽— 1905년 인천의 소부르죠아가정에서 난 그는 인천상업학교를 나온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공산청년동맹,조선공산당에 들고 서대문형무소 출입도 하였다. 세번째로 검거된 1940년 그는 변절을 선언하고 석방되여 나와 박헌영과 만났다. 그때 박헌영은 이미 10년전에 일제경찰에 전향을 서약했고 서울 종로 구정목에 있던 료리점 《백합원》에 드나들면서 연희전문학교 교장이며 미국정탐인 언더우드에게 간첩복무를 맹세하였었다. 박헌영은 해방후 언더우드를 통해 서울반도호텔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죤.알.하지와 수차 밀회하였고 그를 통해 리승엽,조일명 등의 지위를 확립하며 간첩활동을 보장지도할데 대한 지령을 받았다.

리승엽이 미국의 간첩으로 복무할것을 직접 서약한것은 1946년 하지의 정치고문인 미중앙정보국 요원,미군대좌 버취와 만났을 때였다. 그때부터 리승엽은 서울에서 계통적으로 당을 파괴하고 주요인물들을 체포케 했다. 다음해인 1947년부터는 미국무성 촉탁,미군정청 정치고문,후엔 미국대사관 정치고문으로 된 미중앙정보국 요원 노불과 련결되였다. 왜정때 영어를 좀 배웠던 리승엽은 통

역없이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중요정보를 직접 전하였다. 1948년엔 박헌영으로부터 입북하라는 비밀지령을 받았다. 그후 박헌영도 《체포령》을 구실로 입북하였다. 노불은 박헌영의 존재가 중요하므로 간첩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승엽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주었다.

리승엽은 당과 정부의 중요 결정,군사배치 및 화력과 기동정형 등을 체계적으로 자기의 선을 통해 전달하였다. 1950년 6월 서울해방직후 박헌영의 적극적인 뒤받침에 의해 서울시 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을 때부터 그의 활동은 가열화되였다. 리승엽은 《토지조사위원회》라는것을 조직하고 그 청사 지하실에서 저네들의 정체를 눈치챌만한 사람이면 무조건 체포하여 비밀리에 고문학살하였다. 수다한 애국자들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살해되였다. 또 리승엽은 서울시방어공사를 지연,파탄시키고 인민군부대들의 기동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하지만 교활하고 악랄한 미제의 고용간첩 리승엽은 바로 이때부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 전쟁의 그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한치 또 한치 극비밀리에 자기의 더러운 죄악의 발자취를 밝히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이날밤 리승엽은 후에 10지대 지대장이 된 자기의 심복 맹가를 불렀다. 《강안려인숙》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붙은 쌍통집의 웃간방에서 그들은 최현군단장과 박정덕 등 제2전선부대들의 지휘간부들을 폭사시킬데 대한 모의를 하였다. 새벽녘까지 그 방의 문창호지엔 솔강기름불이 비쳐져있었다.

15

6개의 폭파조를 책임진 류현수는 10여일만에 적구의 박정덕련합부대활동지역에 도착하였다. 처음 만난 경계초소에서 지휘부가 위치하고있는곳을 대주었다. 얼마후엔 말을 탄 사단장 련락병 고기

남이 그들을 마중나왔다. 사단장은 지휘관만 데려오고 나머지인원들은 휴식시키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수는 고기남을 따라 지휘부로 걸음을 다그쳤다.

말을 탄 기마통신병들이 사방으로 뛰여다녔다. 박격포병들은 길마를 진 말의 궁둥이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어데론가 이동하고있었다. 기관단총과 보총, 미국제소총들이 엇섞여 돌아갔다. 미국제군화, 물통, 군복까지도 눈에 띄였다. 도로상에서는 보병들이 길 굽인돌이 한쪽을 경사지게 깎은 다음 물을 끼얹어 얼구고있었다.

모든것이 새롭게 그리고 놀랍게 생각되였다. 적구에서 활동하는 부대들에서만 찾을수 있는 특이한 점들이 많았다. 해여진 여름군복, 규정에 없는 미국제 장구류, 길가의 화토불, 취사용 가마를 등에 진 공골말, 각이한 옷차림… 하지만 그 무엇보다 현수를 감동시킨것은 그들모두의 모습에서 한결같이 엿보이는 그 전투적인 활기와 엄정한 질서였다. 싸움에서 승리한 병사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였다. 지난 여름의 공격때에 늘 볼수 있었던 그런 자부심어린, 항시 롱을 하고 또 몹시 서둘러대는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표정들이였다.

(이처럼 크고 정연한 련합부대들이 적구에서 싸우고있었구나. 이렇게 큰！…) 하는 생각에 현수는 가슴이 뿌듯해졌다.

현수와 함께 걷고있는 고기남련락병은 좀 나이가 든 아바이병사였다. 말고삐를 잡고 걸으며 그는 련합부대가 싸워온 로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많이는 자기네 《사단장아바이》에 대해서였다. 아바이로 불리자면 사단장보다 제가 먼저 꼽혀야겠으나 그는 말끝마다 《아바이》였다. 아바이가 철원해방전투를 지휘하면서 어쨌고 가평을 치면서 어쨌고 하는 얘기들이였다. 지금은 2차 철원해방전투를 준비한다고 한다.

박정덕사단장은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화토불을 마주하고있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렸다. 현수는 반가운 마음에 부지중 소리쳤다.

《사단장동지！》

박정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공병지휘관이 왔구만. 반갑소!》

그는 손을 내밀었다. 최고사령부에서 파견한 폭파조책임자를 반갑게 맞는 인사였다. 전날의 공병중대장—견장도 없이 중상당한 상급예심원을 업고 지휘감시소에 나타났던 류현수에 대해서는 가뭇잊고있는것이였다.

《사단장동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현수는 목이 메는것을 느꼈다. 《총살선고를 받았던 공병중대장… 상급예심원동무가 그때 전선사령관동지를 만났지요. 그다음 사단장동지가 저를 불러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전사로 싸우라, 피로써 과오를 씻으라! 하고 말입니다.》

《?!…》

박정덕은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를 끄당겨 꽉 끌어안았다.

《동무였군! 이렇게 또… 돌아왔군. 응?!…》

얼떠름해 서있던 고기남련락병이 성급히 말고삐를 당기며 물러갔다. 박정덕은 현수를 화토불가까이 이끌었다.

《그동안 어떻게 싸웠소. 말 좀 해보. — 우리 부대에 내려보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것처럼 새 군관복차림으로 나타났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것을 한두마디로 이야기하기는 헐치 않다. 현수는 가능한 짧게 요약해서 지나간 일들을 말했다. 2차 철원해방전투를 준비하고있는 사단장의 시간을 오래 빼앗을수는 없다. 그가 말하는동안 박정덕은 주의깊게 한번도 곁눈을 파는 일이 없이 듣고있었다. 말이 끝나자 그의 손을 잡았다.

《장군님의 기대에 꼭 보답해주오!》

오래도록 그의 손을 꼭 잡고있었다.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었다. 그러다가 정색하여 사업토의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련합부대활동경내의 폭파대상들인 중요도로, 다리, 철길, 야적탄약고, 연유창 등에 대해 알려주고 이렇게 말했다.

《동무에게 우리 사단 공병별동대도 맡기겠소. 지금 문화부중대장을 하던 동무가 림시 지휘하고있는데 적임자가 왔으니 참 다행이요.》
그때였다. 별안간 현수는 흠칠 몸을 떨었다. 고기남련락병이 두필의 말고삐를 잡고있는 둔덕아래에서 한 녀성군관의 모습이 얼씬했던것이다. 그는 일순간 흐느끼듯이 숨을 들이그었다. 아니, 그럴수 없다. 내가 잘못본게지！… 그 녀자는 적후에서 보기드문 차림으로서 새 모직군복을 입고 번쩍거리는 장화까지 받쳐신고있었다. 말궁둥이들이 빙빙 돌아갔다. 또 그 녀자가 이쪽을 얼핏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현수는 딱 굳어져버렸다.
그의 류다른 표정이 박정덕의 주의를 끌었다. 박정덕은 현수와 저쪽의 녀성군관을 번갈아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는 사이요？》
《예.》
《어떻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를 수술한 간호장이 바로 저 동무입니다.》
박정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댔군！… 오늘은 반가운 일들만 련달아 생기는군. 응？！…》 박정덕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저 동문 닷새전에 왔소. 부상병들을 데리고… 참 놀라운 처녀요. 숱한 부상병들을 데리고 예까지 왔으니… 저 동무 이름이…》
《리숙입니다.》
《옳소.》
사단장은 아까 보던 지도를 무릎우에 펴들었다. 지나가는 말처럼 《가서 만나보오.》하고 말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또 만나기 힘들거요. 저 동문 군단지휘부로 소환됐소. 이제 당장 떠나야 하오！》
《？！…》
《어서 가보라는데！》

현수는 벌떡 일어섰다. 사단장에게 규정의 보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단장은 벌써 지도에 눈길을 박고 골몰해있었다.

《리숙!》

그가 불렀다. 리숙은 고기남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놀란듯 바라보았다.

《리숙동무!》

현수가 다시 불렀다. 그러자 리숙은 마치 후려맞은듯 손에 쥐고있던 고삐를 힘껏 당겼다.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것이다. 말투레질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현수동무!》

리숙은 입속말처럼 속삭였다. 그리고나서 고삐를 내던지고 달려왔다. 서로 손을 맞잡자 웃는지 우는지 그 녀자의 엷은 입귀가 바르르 떨렸다.

《현수동무, 그러니 동무도 여게 왔군요. 그렇지요? 어떻게… 언제 부대와 만났어요? 그때 헤여져선… 곧장 왔어요? 그런걸 얼마나 찾았다구… 글쎄 얼마나 속태우며 찾았다구!…》

《리숙!… 난말이요, 그때… 후퇴하던 구분대를 만나 만포까지 갔댔소.》

《만포?!… 아유 거기가 어디게!…》

그들은 아직도 두손을 맞잡고있었다.

《후퇴하던 도중 어느날 장군님을 만나뵈왔소.》

《예?》

《장군님을 만나뵈왔단말이요!》

《아이 무슨… 꿈이야기같이?!…》

《정말이요!》 현수는 다급하게 속삭였다. 《장군님을 직접 몸가까이 만나뵈왔소!…》

별안간 리숙은 온몸을 떠는것 같았다.

《그래서요?》

처녀는 속삭이였다. 그것은 겨우 귀전에 울려오는 입속말이였다. 그리하여 현수는 저도 모르게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눈내리던 그

날밤의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끝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장군님께서는 그후 나를 적후에 파견하시였소. 장군님께서 직접 여기로 나를 파견해주시였소.》

《장군님께서요?》

《그렇소, 리숙동무. 그래서 이렇게…》

비로소 리숙은 생판 달라진 현수의 모습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현수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빼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또한번 더듬었다. 검푸른 두눈에서 맑은 샘물이 끓고있었다.

《어마나, 그새!… 또 중대장?!…》

《음, 또 이렇게…》

그런데 이때 개울건너 저쪽 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숲가에서 한 군관이 리숙을 소리쳐 불렀다. 리숙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재빨리 현수를 돌아보았다.

《나를 찾아요. 난… 가야 해요.》

《?!…》

비로소 현수는 자기가 리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제말만 제말이라고 했다. 자기의 기쁨에만 도취되여있었다. 잊을수 없는 전우들에 대해서도 묻지 못했다. 박원철, 오윤남, 한영순, 김상준… 그들은 어찌되였는지?…

그들은 개울가를 따라 걸어갔다. 몇걸음 걷다가 또 멎었다. 고기남련락병은 두필의 말과 함께 아예 멀찌기 물러가있었다.

이번엔 리숙에 대해서 물었다. 그들의 일행과 그를 소환하는 까닭을 물었다. 재우쳐 묻고 급히 몇마디로 대답을 하며 얼어붙은 개울가에 서있었다.

이렇게 만나자바람으로 또 헤여진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쉬웠다. 가슴이 알알해났다. 비로소 현수는 자기와 리숙의 운명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리숙은 여전히 입술만 깨물고있다. 빨리 헤여져야 한다. 군단병원 군의장이 성이 나 독촉하고있다. 하지만… 어찌 그처럼 례사롭게 헤여질수가 있으랴. 심중에 간직한 뜻깊은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어찌 무심히 갈라져 갈수 있으랴.

현수는 그 녀자의 곱슬곱슬한 귀밑머리칼과 가늘고 하얀 목덜미를 눈여겨보고있었다. 언젠가 안개 흐르던 새벽, 등판우에서 쪽잠에 들어있던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피곤에 지쳐 잠든 그때, 꿈을 찾아헤매던 그 시각에 보총의 총창끝에서는 순결무구한 한송이 보라빛 나팔꽃이 망울을 터뜨리고있었다. …

현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언젠가 》하고 현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수술해준 다음부터… 생각하기를… 난… 동무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을… 거 뭐랄가, 꼭 하고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만… 오늘까지…》

《저한테요?》

리숙이 가늘게 그리고 아주 힘들게 물었다. 가는 손가락들이 경련을 일으킨듯했다.

《그렇소.》 현수 역시 힘들게 말을 이었다. 《동무가 아니였다면 난… 이처럼 빨리 전투대오에 서지 못했을거요.》

《…》

리숙은 두눈을 쪼프렸다. 현수는 그의 얼굴에 별안간 피곤이 실리는것을 보았다. 그는 당황했다. 녀성들과의 교제에 서툴고 용기조차 부족한 그로서는 더는 할말이 없을듯했다. 정녕 이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내놓고는 아무 말도 할것이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모든 작별은 서먹서먹하고 거북스러워지는걸가? 정작 헤여지는 마당에서는 누구나 그것을 서두른다. 할말을 다하고 약속도 하고 당부도 하고나면 조바심치며 기차가 들어서기를, 배가 출항고동을 울리기를 은근히 기다린다. 무엇때문일가, 왜 그럴가?… 작별의 연후에 지나간 모든것을 더듬어보기 위해서일가?…

살얼음밑에서 돌돌 구으는 개울물소리가 들렸다. 현수가 기침을 했다. 리숙이 그를 쳐다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동문… 나만 아니라 우리 부상병들 모두를 위해 참 많은걸 해주었소. 고맙소. 언제든 동무를 잊지 않겠소.》

《…》

이번엔 리숙이 놀란듯했다. 갑자기 손을 입가에 가져다대고 불기 시작했다. 새빨갛게 얼어든 작은 손이였다. 그러나 눈만은 그에게서 떼지 않고있었다.

《그게 다예요?》

속삭임같은 목소리였다. 타는듯한 그리고 경계심어린 눈빛이였다. 만약 이때 그 녀자의 마음속에서 나팔소리처럼 메아리치는 간절한 기대를 들을수 있었더라면 현수의 대답은 전혀 달랐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북스러운 생각밖에 없었다. 피로운듯 미간을 잔뜩 찌프리며 무뚝뚝하게 말해버렸다.

《다시 만납시다!》

순간 리숙은 두눈을 내리깔았다. 숱진 속눈섭이 바르르 떨렸다. 아니다. 리숙은 남들이 보는것처럼 그저 도고한 녀자가 아니다. 어찌 그 녀자라고 심신의 피로와 슬픔을 하소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때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싶은 마음의 기둥을 가지고싶지 않겠는가! 그라고 어찌 부드럽고 살틀한 한생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싶은 애틋한 소원이 없을수 있으랴!… 리숙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숙아, 리숙아! 한때 너 역시 소중한 이름을 불러 남포등밑에서 심중의 고백을 한자두자 쓰고싶어하지 않았더냐. 네가 쓴 다정한 글줄들이 자부심 강한 어느 젊은이의 가슴을 두드려 굳게 닫힌 마음의 창문을 열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더냐. 한때는 소녀다운 호기심으로 또 어느때부터인가는 꿈결같이 흘러드는 몽상속에서 대바르고 결백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았더냐. 낮모를 그 젊은이와 끝없이 속삭이며 동요시절의 추억이 깃든 바다가 모래불에 마음속 발자국을 나란히 찍어가지 않았더냐!… 하지만 오늘은… 모든것이 심중의 애끓는 추억으로만 남았구나. 네게도 꿈이 있고 눈물의 애수가 있다는것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랑과 진정을 깡그리 바쳤건만 모두… 이렇게 가버리고마는구나!…

눈길을 떨군채 리숙은 걷고있었다. 자기가 지금 어데로 무엇때문에 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내가에서 곧추 숲속으로, 한줄기

희망의 오솔길처럼 뻗어간 송림속에 난 길로 걸어갔다. 뒤미처 성급한 발자국소리가 따라왔다. 리숙은 그 발자국소리에 귀익은지 오랬다. 총상을 입었던쪽의 다리를 조심스레 옮기는 대신 다른 발자국소리는 힘있고 묵직했다.

불규칙적인 발걸음소리가 멎었다. 거친 숨소리가 귀전에 퍼부어졌다.

《가만있소, 리숙동무! 도대체 웬일이요. 응?!… 왜 그러는거요?》

리숙은 몸을 돌렸다. 무심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왜냐구?…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그걸 내가 말해야 하나요?… 맑고 검푸른 눈동자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또 만나요.》 리숙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구… 잘 싸워주세요. 그럼… 안녕히!》

리숙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뒤따르는 발자국소리는 없었다. 그것을 듣고싶었다. 고개를 돌려보고싶었다. 그러나 조용히 곧추 걸어갔다. 얼어붙은 자갈들이 장화발밑에서 빠드득거렸다. 마음은 쓰리고 어수선했다.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있던 은밀한 꿈과 기대가 바람에 불린것처럼 사라지고 텅 비여버린듯했다. 이제라도 그가 《리숙이!》하고 한마디만 소리쳐 불러준다면 걸음을 멈추고 느닷없이 그를 향해 달려가련만 그를 부르는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야속하고 분하고 쓰라린 마음… 숨을 죽인 마지막 기대, 타는듯한 마지막 기대, 차디찬 바람결에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저려나는듯 느껴졌다. 이것이 사랑인가? 하다면 이 가슴의 아픔은 무엇이며 눈물은 웬일일가? 까닭없는 노염과 반발심은 또 무슨 영문일가? 얼음장같은 처녀를 눈물의 온기로 녹여버리고 감때사나운 젊은이를 겁먹게 하고 주눅이 들게 하는 이런것이 사랑인가?…

사랑이란 두사람이 한 세계를 소유하는것이라고도 한다. 하다면 우리에게는 함께 소유할 한 세계가 없단말인가?!…

리숙은 숲속으로 난 한줄기 오솔길로 정처없이 걸어들어갔다.

해빛이 설피여졌다. 바람이 불었다. 미츳미츳한 나무우듬지들이 능청거렸다.

16

이천군 방장면 소재지인 가려주리에 제2군단 지휘부가 자리잡고있었다. 리숙이 여기에 도착한것은 정오가 지났을 때였다. 그를 안내한 군의장의 말이 이 작은 읍거리에 군단참모부와 후방부, 군단병원, 군단통신련락소, 군단통신기마중대 등이 자리잡고있다고 했다. 나무기와 혹은 돌기와를 이은 집들이 길 좌우에 빼곡이 들어앉아있었다.

바람이 불면서 길바닥의 먼지를 날렸고 동기와를 얹은 지붕우의 말라버린 호박넌출을 뒤집어놓았다. 추녀아래 빨간 고추를 매달아놓은것이 눈에 띄였다. 리숙은 그것을 눈여겨보았다. 웬일인지 그것이 정답게 느껴졌다. 토방아래에서 줄넘기를 하는 계집애들도 자꾸 돌아보았다. 모두 스쳐지날수 없는 정경들이였다. 함지를 머리에 인 어펑진 아낙네가 무어라고 욕을 하며 길을 건너가는데 털부숭이 강아지를 안은 사내애가 뒤를 쫓고있다. 무얼 달라고 칭얼거리는 모양이다. 말발굽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나이듬직한 병사가 말잔등에 찰싹 달라붙어 저쪽 음달쪽의 눈더미를 걷어차며 달려갔다. 옆으로 욱—밀려났던 늙은이, 아낙네들이 호함지게 웃어대며 또 뭉쳐 걸어갔다. 이고 지고 들고… 이즈음 새로 섰다는 장마당으로 가는 모양이였다. 어데선가 종소리가 울려왔다. 폭탄깍지를 때리는 종소리이다. 뗑—뗑—뗑— 리숙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종소리가 울리는 산기슭쪽으로 머리를 돌리니 둔덕우의 청석기와를 얹은 교사들이 보였다. 아이들이 밀려나오고있다. 수업이 끝난 모양이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눈시울이 바르르 떨리고 웬일인지 소리내여 막 울고싶은 심정이다. 흘러간 시절의 추억이 여기에 있다. 해방후 수년간 그리도 정들었던 생활의 숨결이,

그 목메는 체취가 벅차게 느껴졌다.

《그러다간 늦겠소.》 군의장이 재촉했다. 《후방부군단장이 군단장동지 있는데로 곧장 오라 했는데… 빨리 가기요.》

그는 이제 군단장동지를 만나면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보고하라는등 골백번도 더 곱씹었을 그 말들을 또 늘어놓았다. 리숙은 걸음을 빨리 했다.

《다 압니다, 군의장동지.》

마을변두리, 봉당이 있는 량통집으로 갔다. 이고장 특유의 돌담을 쌓고 대문대신에 지게문을 단 허술한 농가였다. 그대신 널직널직 자리잡고있었다. 외양간과 고방, 간벽이 없는 작두간도 있는데 돌담너머로 늘여진 전화선들이 주위의 다른 집들과 특히 구별되게 했다. 봉당마루에 커다란 가죽장화 한켤레가 놓여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방에 없었다. 외양간에서는 두필의 말이 건초를 씹고있고 나이든 병사가 작두간에서 일하고있었다. 마사원같았다.

《군단장동지 계시오?》

군의장이 그에게 물었다. 마사원은 군의장과 리숙을 번갈아보다가 느릿느릿 허리를 펴며 마지 못해 례의를 표했다.

《저쪽에 있습니다. 굴뚝 뒤쪽에.》

그쪽에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와 도끼질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군의장이 먼저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잠시후 나타나 리숙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말하는듯 낮게 속삭였다.

《왜 그런지 군단장동지가 성이 난것 같소.》

리숙은 입술만 자근자근 깨물었다.

군단장은 그쪽에서 웃동을 벗어제끼고 장작을 패고있었다. 그의 곁에 서있는 후방부군단장은 두툼한 솜옷을 입고서도 추운듯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었으나 군단장의 목덜미에서는 김이 문문 솟아오르고있었다. 도끼날이 번뜩일 때마다 굵은 참나무가 쩍쩍 쪼개져나가군했다.

리숙을 보자 후방부군단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섰다.

《보고하오.》

리숙은 지금 자기의 출현때문에 군단장과 이들간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리라는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자기의 출현이 왜 문제로 된것인지 그 리유는 짐작할수 없었다. 후방부군단장자신이 직접 그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군단장동지, 보고할만합니까?》 군단장이 머리를 돌렸다. 리숙은 거수경례를 붙인채로 서있다가 재빠른 말씨로 계속했다. 《군단병원에 소환된 간호장 리숙 당신의 담당간호장으로 임명되였음을 보고합니다!》

군단장은 손에 들고있던 도끼를 도끼모태 한귀퉁이에 쿡—박아놓았다. 어느새 어데서 나타났는지 군단장보다 키가 한뼘이나 더 커보이는 부관이 그의 어깨에 보기드문 털외투를 걸쳐주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리숙은 거수경례를 붙인채로 서있었다. 군단장의 소문난 눈섭이 쭝긋거렸다.

《쉬엿하오.》 다음순간 사납게 얼굴을 이지러뜨리며 후방부군단장을 향해 돌아섰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담당간호장이구 뭐구 나한텐 필요없다구. 당장 이 체네군관을 군단병원에 데려가시오!》

후방부군단장이 어쩔바를 몰라하며 《군단장동지!》하고 입을 열었으나 최현은 이미 앞뜨락으로 씽하니 걸어나갔다. 키큰 부관이 그의 뒤를 따르다가 하얗게 질려있는 리숙을 흘끔 돌아보았을뿐이였다.

…이날 최현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도끼를 틀어잡고 장작을 패는것을 하나의 유쾌한 오락처럼 성수나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분노를 묵새길길 없어 도끼를 내려치군했었다. 그의 이러한 분노는 며칠전에 있은 사단장 박정덕의 해임문제와 관련된 론의때부터 시작되고 커져온것이였다. 군사위원 리승엽이 물론 그때에는 조심스럽게 그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의견을 즉석에서 묵살해버린데 대하여 의견을 가지고 뒤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나 그따위쯤은 참고 넘어갈수도 있었다. 그의 속을 뒤틀리게 한것은 아무런 까닭없이 군단장이 명령한 부대들의 이동전개가 자꾸 늦어지는때문이였다. 더우기 심상

치 않은것은 일부 지휘관들은 부대들이 이동하는 때마다 적기들의 항공습격을 받군한다고 보고해왔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군단지휘부안에서부터 지난날의 이러저러한 자유주의적이고 무규률적인 경향을 따지고들었으며 단호하게 유일적인 명령지휘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저녁무렵 최현은 군단통신련락소에서 지도를 마주하고있었다. 리승엽과 그 추종자들의 악랄한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후투쟁부대들의 활약은 더욱 맹렬해졌다. 하여 적들은 아호비령을 《괴물령》, 마식령을 《마귀고개》, 원산—마전리간도로를 《매복도로》라 부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적들은 자기들의 전반적작전수행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우리의 제2전선부대들을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다.

최현은 지도우에 큼직한 동그라미들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먼저 철원, 이천, 평강을 련결하는 삼각지대, 다음 마전리를 축으로 하는 아호비령, 마식령 지구, 성천과 강동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중부산간지역, 황해도의 신평, 곡산, 만년 지구, 끝으로 개성동북방 장풍과 금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그라미들이였다. 그는 복잡한 전술부호들로 지도를 장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크고작은 동그라미, 삼각형, 릉형, 화살표—이것이면 그 어떤 작전방안도 다 옮길수 있었다. 동그라미에도 갖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정성들여 굵게 원형을 그린것은 포위소멸, 타원형의 가는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터쳐놓은것은 반타격 및 역포위를 의미했다. 문제는 도형이 아니라 그 도형에 깃든 원숙한 사색과 탐구에 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의 참모군관들속에서는 최현이 수표를 할 때 드문히 이름대신 동그라미를 그려놓군하는데 그 어떤 명서기도 그것만은 위조해내지 못한다는, 무심히 그려넣은것 같은 동그라미에 아주 복잡한 비밀이 있으며 만약 위조하는 날에는 그가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풍설까지 돌아가는것이였다.

한때 철공소였던 외통집의 건넌방에서는 무선수들과 전화수들이 군단참모장의 엄한 독촉하에 각 부대들과의 련계를 취하느라

고 교환대의 접속코드들을 재빨리 끼우는 등 부산스러웠으나 최현이 허리굽혀 서있는 이쪽방은 조용하였다. 낡은 연통에서 바람소리처럼 불길이 빠지는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천정에 드리운 거미줄이 양철판을 오려댄 창문틈새로 마구 쓸어드는 찬바람에 그네처럼 흐느적거렸다. 아무도 그를 방해시키지 않았다. 그가 찾기전에는 누구도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최현이 거꾸로 세운 삼각형을 신양쪽에 그려넣을 때였다. 문밖에서 부관과 웬 녀자가 무슨 일때문인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부관이 성이 나 《동무!》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주 되알진 녀자의 목소리가 《걱정마세요. 나도 내가 할바를 알고있어요!》하고 쏘아붙였다. 문이 열린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누가 어데서 무슨 수로 구해왔는지 알수가 없는 새 모직군복차림을 가뜬히 한 처녀군관이 용감하게 걸어들어왔다. 최현은 흘러내리는 털외투를 바로잡으며 시선을 들었다.

《군단장동지!》 안면있는 처녀군관의 보고였다. 《간호장 리숙 만날수 있습니까?》

《?!…》

무엄하기 그지 없는 일이였다. 허락도 없이 군단장에게 들어갈수 있다는것을 과연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최현은 성난 눈길로 리숙을 쏘아보았다. 아까 자기가 쫓아보낸 처녀였다. 그때엔 무엇때문인지 가슴이 저려났었다. 락동강에서 희생된 간호장 림정옥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날의 가슴을 비틀어대던 아픔이 상기되였었다. 아니, 안된다. 그런 일만은 견디여내지 못한다.

그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왜 또 왔소?》

《군단장동지, 저는 군단장동지의 담당간호장으로서 한가지 비준받을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군단장동지! 이제 곧 지휘처를 옮긴다기에 기회를 놓칠가봐 그랬습니다.》

최현은 덤덤히 처녀를 바라보았다. 당돌하다고 하기엔 너무도

조리있었고 무엄하다고 하기엔 지나칠 정도로 깍듯한 처녀였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나에겐 동무가 필요없소.》하고 최현은 무자비하게 잘라 말했다. 《군단병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왜 또 왔어? 동무를 처벌해야겠소.》

《군단장동지! 전 특별임무를 받고…》

《내가 군단장이야. 난 그런 임무를 준적이 없어. 알겠는가?》

《군단장동지! 군단장동지의 건강을 잘 돌보라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뭐라구?!… 장군님께서 동무를?!》

《아닙니다. 전 아직 장군님을 만나뵈온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단의 군의근무일군들에게 특별히 군단장동지의 건강을 잘 돌볼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습니다. 군단장동지!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돌아가서 다른 간호장동무를 보내도록 제기하겠습니다.》

《…》

최현은 난생처음으로 나어린 처녀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말문만이 아니라 억이 막혔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군단장이 소성 한알 박은 간호장한테 몰리다니?… 그와 동시에 그는 적후로 떠나오던 그날 장군님께서 그의 만성적인 병치료에 쓰라고 비상약을 친히 보내주시던 일도 회상하였다. 후방부군단장이 담당간호장문제를 어제부터 줄곧 꺼내드는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것이다.

《그래 비준받자는게 뭐요?》하고 최현은 당장 수표라도 해줄것처럼 지도우에 놓았던 《붉은별》표 색연필을 들었다. 명백한 후퇴였다. 이런 경우엔 군단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무상 권위도 소용없는것이다.

리숙은 여전히 차렷자세로 서서 그를 마주보고있었다. 아무런 비준문건도 내놓지 않고 그저 흥분어린 목소리로 명령서라도 읽듯이 그 내용을 구술하였다.

《군단장동지! 우선 치료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침과 점심전에 약을 잡숫도록 제가 통제하는것을 허락하십시오. 저녁 7시부터 15분동안은 주사시간입니다. 기타 병세가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엔 일과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데서 이런 따벌같은 처녀를 골라왔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능구렝이같은 후방부군단장을 두고 속으로 욕을 퍼붓는수밖에 없었다.

《그게 다요?》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군단장동지! 나머지시간엔 제가 병원이나 해당부대 군의소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최현은 쩝쩝 입맛을 다시다가 탁자곁의 철판의자에 걸터앉았다. 철공소에서 한때 만든것일 그 철판의자는 싸늘하였다. 그는 부자연스럽게 몸을 궁싯거리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문자판이 잘 알리지 않았다. 날이 어둡고있었다. 지금 이 시각 박정덕의 4사는 철원의 포위환을 압축할것이고 한창봉동무네는 신계간도로상에서… 이렇게 그는 지금까지 머리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그 모든 실제적인 전투행동의 구상을 돌이켜보려 했으나 허사였다. 대리석으로 쪼아낸것 같은 맵시있는 처녀군관이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있다.

웬일인지 이번엔 처녀를 쫓아보내고싶지 않았다. 온순하고 부지런하던 이전 간호장과는 판판 다른 이 차돌같은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왜 그렇게 소제대처럼 꼿꼿해있어?》하고 그는 버럭 소리쳤다. 《거게 앉으라구. 이름이 뭐랬더라? 리숙?!…》

《예.》

퍼그나 조용한 대답이였다. 긴장한 자세로 서있은탓인지 별안간 몹시 맥이 진한듯해보였다. 처녀가 자리에 앉자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면서 조화롭게 잘 다듬어져있는 처녀의 자태를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본래부터 그렇게 당돌한가?》하고 최현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아닙니다, 군단장동지! 그저… 좀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니 철갑모를 쓰고 덤벼들었다 그 말이지, 엉?!》

《예.》
《내가 무섭지 않아?》
《무섭긴 해두… 소문보다는 좀…》
《허ㅡ》
최현은 이 처녀가 교양도 있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요한 인내와 용기도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불쑥 그는 주머니를 뒤져 곱게 접어놓은 모조지 한장을 꺼내 탁자의 지도우에 펴놓았다. 문경고개에서 사단군악대장이 그려준 《유격대행진곡》의 악보였다.
《읽을줄 알아?》
리숙이 악보우에 머리를 숙였다. 《압니다.》 처녀는 천연스레 대답하였다.
《그럼 어디 소리내서 해보라구.》
최현은 털외투로 몸을 감싸안으며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이 처녀에게서 자기의 심금을 울려주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기를 기대하고있었다.
잠시 악보를 들여다보던 처녀가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행진곡의 선률을 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도도도라 쏠쏠쏠도 레레레 레미도ㅡ》
불쑥 최현이 눈을 부릅뜨며 처녀를 노려보았다.
《됐어.》
처녀는 영문을 알수 없이 가느다랗게 중얼거렸다.
《그럼 가사를 붙여 부르랍니까?》
《됐다니까.》 최현은 두툼한 손으로 악보를 정히 접으며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렇게 부르는게 아니야. 이건 그저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불러야 해!》
악보를 접어 군복안주머니에 넣은 최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녀도 일어섰다. 이것으로써 담화는 끝나버린듯했다. 때마침 군단장의 부관이 간드레불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섰고 뒤따라 참모장과 작전부장 등이 나타났다.
최현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붓끝같은 간드레의 불길이 시계

의 문자판우에서 얼른거렸다.

《동문 가보라구.》

리숙에게로 향한 최현의 말이였다. 그러나 처녀는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의혹과 실망,불안과 기대,쓰디쓴 패배에 대한 의식이 처녀의 얼굴을 질리게 하였다. 그러건말건 최현은 참모장과 작전부장을 가까이 오도록 손짓하며 무뚝뚝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가보라구,어서. 우선 노래부터 배워야겠어. 그런 식으루 유격대행진곡을 불러가지구선 어림두 없어. 제2전선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못한단말이야!》

17

군단장 최현은 박정덕에게 철원해방과 동시에 평강의 적비행장을 습격할것을 명령했다. 38도선 중부지대의 가장 큰 요충지인 철원은 물론 평강의 적비행장을 습격하는것은 자못 중요한 임무였다. 적들은 전선가까이 비행장을 하나 더 두고 공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태평양전쟁말기 일제가 공사를 벌리다가만 비행장을 다시 닦았다. 폭격기중대들이 날아들고 연유와 폭탄이 산더미처럼 쌓이고있었다. 괴뢰군 17련대의 한개 대대병력이 이 비행장을 경비하고있었다.

박정덕은 련합부대의 주력을 제2차 철원해방전투에 진입시키는 한편 일부 구분대들을 비행장습격을 위한 모의훈련에 동원시켰다. 비행장에는 공병시설물들이 조밀하게 설치되여있으므로 류현수의 공병별동대도 준비시켰다.

사실 박정덕은 만나자바람으로 현수에게 류다른 친근감을 느끼고있었다. 그가 용감하고 날파람있는 중대장이래서만이 아니다. 장군님께서 그를 친히 료해하시고 적구의 박정덕에게 파견해주셨던것이다.

박정덕은 비행장습격임무를 받자 먼저 류현수부터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불러 습격조들의 통로를 개설하는 공병보장임무를 주었다.

《모의훈련을 조직하오.》하고 박정덕은 말했다. 《동무네가 제때에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일을 망칠수 있소. 그러니 정찰자료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준비해야겠소. 다시는 여기서 놈들의 비행기가 날아오르지 못하게 해야 하오!》

훈련이 시작되였다. 비행장주변과 비슷한 지형지물을 선택하였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 그런데 공병별동대는 전문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전사들이 태반이였다. 각이한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주영섭이 림시 지휘하던 구분대이다. 여기엔 한때 특이한 인연으로 현수와 운명을 같이하던 로지봉도 있었다.

로지봉은 추위를 참을수 없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잔등과 어깨는 물론 앞가슴, 허벅지까지 온통 젖어버렸다. 진눈까비가 목덜미를 후려쳤다. 그는 팔굽으로 짚으면서 개울바닥을 기여가고있었다. 질척한 물이 배허벅으로 스며들자 그는 진저리를 치면서 기침을 터쳤다. 그 순간 등뒤에서 날카로운 웨침소리가 날아왔다.

《그만! 제3조 일어섯!… 뒤로 돌아—출발위치롯!》

중대장이다. 엊그제 만나자바람으로 얼싸안고 볼을 비비던 류현수이다. 지봉은 일어섰다. 누군가 투덜거렸다. 로지봉의 기침때문에, 그가 꾸무적거리며 로출되기때문에 벌써 여라문번이나 반복동작을 하고있다. 지봉은 현수와 눈길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로획한 미식소총을 둘러메고 지금껏 얼어든 몸을 끌면서 기여왔던 출발위치로 걸어갔다. 턱이 덜덜 떨렸다. 참을길 없는 오한에 잔등이 쩌개지는것 같았다. 그는 줄줄 물이 흐르는 군복상의를 자꾸만 아래로 쥐여당겼다. 그것이 말려올라가 잔등을 드러낸것만 같아 모지름을 쓰며 꽛꽛해진 군복을 잡아다리다가 돌연 멎어섰다. 눈앞에 현수가 있었다. 먼 북만에서 그를 살려준 사람, 병든 지봉이를 업고 수십리 진펄을 건너온 둘도 없는 은인… 지난밤에도 화토불을 마주하고 앉아 지봉의 고향소식이며 젊은 안해 순금이에 대해 물었었다. 밤을 새워도 끝이 나지 않을 이야기를 마무리하

며 그가 말했었다.

《춥지？… 우리 옛날처럼 등을 맞대구 자자.》

밤중에 깨여보니 낡은 모포는 고스란히 지봉의 몸을 감고있었다. 현수는 잔뜩 허리를 꼬부리고 등뒤에 누워있었고… 지봉은 한동안 그를 내려다보다가 크지 않은 모포를 씌워주었다. 그러자 현수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같이 덮구 자자.》

《현수.》 지봉이 말했다. 《우린 늘 같이 있게 되겠지？》

《그럼.》

《고향에두 같이 가구.》

《그럼.》

《난 말이여 저기 락동강에서…》

《지봉이, 명령이야. 이젠 자자.》

그렇다. 그는 생명의 은인이였고 친구였고 또 그의 지휘관이였다. 그는 명령하고 지봉은 집행해야 한다. 아무리 뼈속까지 얼어들었어도 그가 명령하는만큼 또 개울바닥 20여메터를 기여가야 한다. 기침도 하지 말고 등어리도 드러내지 말고 질벅질벅한 개울바닥을 배밀이해야 한다. 젖은 옷이 갑옷처럼 짱짱해지건만 이 고집불통인 현수는 무자비하다. 사정없이 날카로운 웨침소리로 다시, 다시！ 하고 부르짖는다.

지봉은 으드득 이발을 마주치며 흐느꼈다. 다리가 무섭게 와들거리는것을 느끼며 현수를 마주보았다. (무슨 말을 하자는거유, 중대장동무？…) 속으로 이렇듯 고통스럽게 물었다. (또 추궁을 하려는거유？)

《춥지？》

현수의 말이였다. 그에게 손을 내밀고있었다. 지봉은 그의 손바닥우에 놓여있는 굵은 소금알들을 보았다.

《기침이 나서 정 참기 어려울 땐 이걸 입에 넣어 녹이면 돼.》

와들와들 떨리는 지봉의 손을 벌리게 하고 소금을 쥐여주었다.

《이 길이 바로 고향으로 가는 길이야. 지봉이, 이걸 잊지 말자구.》

《…》

지봉은 잠자코 있었다. 그가 놓아준 소금을 꽉 움켜쥐였을뿐이다. 또 훈련이 시작되였다.…

짤막한 휴식시간에 현수는 비행장습격의 중요성에 대하여 또 설명했다. 적들의 경계초소, 지뢰원(인발지뢰였다), 3선철조망 등 갖가지 차단물배치상태도 일일이 기억시켰다. 모두 앉지도 못하고 빙 둘러서있었다. 진눈까비가 세차게 퍼부어져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울 지경이였다. 지봉은 몸을 떨며 오직 한가지 소원만을 거듭 생각하고있었다. 불, 따뜻한 화토불… 그것이면 되였다. 지금 당장은 그이상 더 절박하고 긴절한것이 없었다. 그때 공병별동대를 인계한 주영섭이 다가왔다. 비행장습격전투에 참가하고 자기 구분대로 떠나겠다고 했다. 류현수가 망설이는것을 보자 사단참모장한테서 직접 허락을 받았노라고 했다.

로지봉은 반가왔다.

그는 문화부중대장이라기보다 말이 적은 분대장같았으며 그들 모두의 형님벌 되는 혈육과도 같았다.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마저 잃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목격한 로지봉이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또 있으랴만 그는 멀어져가는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듯 홀로 그것을 묵새기고있었다. 그와 함께라면 견딜수 있을것 같다. 그는 소리치는 일이 없다. 아픈 소리도 할줄 모른다. 그저 대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할뿐이다. 지금의 로지봉에게는 마음속 가장 가까이 서있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생각에 잠겼던 로지봉은 류현수가 《위치 앞으로!》하고 웨치는 구령소리에 와뜰 놀라며 습관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한 전사와 이마를 세게 부딪쳤다. 맵짜게 후려치는 진눈까비를 피해 모로 서있었다는것을 잊고 그대로 나갔던것이다. 다들 소리내여 웃어대는 가운데 그의 팔소매를 잡아끌며 주영섭이 롱조로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지봉동무? 한다하는 구대원이 동서남북도 모르다니… 그러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도 삭갈릴게 아니요?》

지봉은 속이 뜨끔해났다. 주영섭의 그 말이 의미심장한 뜻으로 해석되였다.

《원 그럴리야…》하고 그는 무안하여 중얼거렸다. 《그걸 삭갈리면 되겠어유, 멀지도 않은 길을.》

《그래, 멀지 않지. 멀지 않아… 그렇지만 피로써 헤쳐가는 길이지.》

그다음 그들은 질척한 개울곬을 따라 기여가기 시작하였다. 이발이 떡떡 맞쪼이고 탐침을 쥔 손끝에서 감각이 잃어져갔다. 공병가위를 쥔 주영섭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낮게 속삭였다.

《새로 온 중대장이 아주 늘차거던, 그렇지?》

《…》

지봉은 여전히 이발을 맞쫓고있었다. 늘차다. 늘차다!… 가까스로 그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옳은말 같다. 박영일이라는 친구도 그 비슷한 말을 했던것 같다.

《우리 중대장동진 완전히 급사격이군요, 기관총같이.》

그래, 그래, 옳은 말이다. 군대식으로 말해서 류현수는 기관총이다. 열을 올려 말할 때는 련발사격처럼 격한 말마디들이 튀여나온다. 반면에 주영섭은 122미리 곡사포 (까비츠) 이다. 그 포성처럼 깊고 웅글지다.

지봉은 감탕바닥을 밀며 기여나갔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직 감탕내를 구별할수 있는것만도 다행이다. 기침이 나오려 했다. 입안에 넣은 소금이 거의 다 녹아 없어졌다. 뒤이어 중대장이 주의를 주었다.

《탐침!… 〈적진〉이요.》

로지봉은 탐침을 찌르며 또 언몸을 움직여갔다. 등뒤에서 공병가위소리가 울렸다. 진짜 철조망을 늘여놓은 이 지뢰매설구역에서는 숨소리조차 저어해야만 했다. 자칫하면 《적》의 중기, 경기들이 《총탄》을 퍼부을것이고 《탐조등》이 대낮같이 밝히며 강렬한 불빛으로 비질할수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안타깝게는 저 인정사정없는 중대장이 《다시! 뒤로 돌아—출발계선 앞으로—갓!》하고 웨칠수 있다. 지봉은 그의 《다시!》하는 구령소리만 상기해도 눈앞이 아뜩해졌다. 이제 또 한번 이 참기 어려운 노릇을 반

복시킨다면 자기 친구에 대한 애착심이 여지없이 줄어들것 같았다. 그런데 로지봉의 이 마음속 최후통첩이 가닿았던지 그들이 통로를 개설하고 가상적인 대상물에로 달려가고있을 때 《그만— 휴식！》하는 구령이 울렸다.

류현수는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을 불러 무슨 일인지 흥분해서 말했다. 그들곁에는 박원철이라는 련락병이 서있었다. 상급참모부에서 급한 련락이 왔는가싶었다. 재빠른 말들이 한참 오갔다. 그러나 추위에 언 전사들은 불을 피우는 일에만 정신을 팔았다. 젖은 삭정이와 졸가리를 무져놓고 벌써 우물처럼 둘러쌌다. 류현수가 소리쳤다.

《동무들, 계속 몸을 놀리오. 이제 곧 새 동복이 도착하오. 그새 몸을 녹이고 신발도 말리시오！》

그는 주영섭과 소대장들까지 불러 어데론가 급히 달려갔다. 그가 가면서 무슨 말인가 또 했지만 로지봉은 제대로 가려듣지 못했다.

가슴앞섶에서 김이 문문 솟아올랐다. 불과 연기가 눈앞에서 흐느적거렸다. 앞가슴이 녹는듯했다. 그러나 진눈까비에 푹 젖은 엷은 여름옷잔등으로는 선뜩선뜩한 칼바람이 거침없이 날아들었다. 많은 병사들이 그처럼 화토불주위에 쪼그리고앉아 까딱 움직일념을 않고있었다. 큰 일이다. 중대장이 말한것처럼 몸을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불앞에서도 얼어죽을수 있다. 젖은 잔등쪽으로 늙은이들이 말하듯이 랭이 속까지 배여들면 얼든가 병에 걸리든가 어쨌든 일어나지 못하고만다.

진눈까비도 멎고 구름발도 성글어졌으나 차디찬 새바람이 점차 사정없이 불어치기 시작하였다. 흐릿한 하늘가에서 이따금 흰눈송이들이 펄펄 날렸다. 그러나 세찬 바람질로 미루어 본격적으로 눈이 퍼부을것 같지는 않았다.

로지봉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하였으나 사정없이 눈까풀이 내려덮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이 피로와 주림의 첫 징후라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허기진 처지에서 순간이라도 이렇게 잠들어서는 안된다. 앞에는 뜨거운 불길, 뒤에는 차디찬 칼바람의 습격, 두 극의 한가운데 내던져진 몸이 차츰 굳어지는것 같이 여겨졌다. 생각도 흐릿해지고 너울너울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마저

꿈결에서 본 기괴한 그림자와도 같았다. 누구든지 소리쳐 불러일으켰으면싶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은 알았지만 감각을 잃고있는 육체는 맹렬히 그것에 항거하고있었다. 한순간, 다문 한순간이라도 편히 잠들고싶다. 제발 잠시라도 건드리지 말아주렴! 하고 끝없이 속삭이고 부르짖고 애원하는것이였다. 몸집이 실하고 억대우처럼 든든한 로지봉조차 불앞에서 머리를 떨구고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에 누가 그처럼 사납게 일어섯! 구령을 웨칠수 있겠는가. 어제도 화토불앞에서 새우잠을 자고난 그들이였다. 그제는 철원—련천간 도로부근에서 온밤 불도 없이 매복해있던 그들이였다. 이틀간 따뜻한 국 한그릇도 비워보지 못하였었다. 속이 비고 몸이 얼고… 아니, 이제는 추위도 감각에 닿지 않는듯했다. 눈앞에서 타오르는 화토불이 그들을 고요와 안정과 혼탁된 꿈나라에로 이끌어가고있었다. 아지랑이와 같은 세계였다. 소리없는 물결, 너울거리는 해빛, 반짝이는 하늘, 불타는 산봉우리, 검은 나무숲, 흰수건… 흰수건을 들어 소리없이 부르고 또 부르는것은 채순금이였다. 《에그머니! — 끝내 왔네에—》 그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그새 소식 한장 없이… 어쩜 그리두 오래…》 초물처럼 눈가에 굳어진 눈물에서 반짝이는 불빛, 붉은 눈송이, 또 흰수건… 별안간 《동무들! —》하는 웨침소리와 부산스러운 움직임의 감촉이 그를 아지랑이의 세계에서 끌어내였다. 떠들썩한 환성, 그의 어깨를 끌어올리는 아귀센 손길, 《지봉동무, 이것 보오. 솜옷이요.》 흐느낌소리가 더 많은 귀에 익은 그 목소리, 그 목소리의 임자가 그의 가슴에 두툼한 솜옷을 안겨주었다.

《이게… 웬… 솜옷이여, 응… 웬 솜옷?!…》 로지봉은 꿈꾸듯 솜옷을 부둥켜안고 두눈을 슴벅거렸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셨소, 지봉이!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솜옷을 보내주셨단말이요, 응? 왜 멍청히 서고만 있어. 이 곰같은 사람아!…》

마침내 로지봉은 감각을 잃고있던 자기의 얼어든 몸으로 따뜻한 온기가 흘러드는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온몸이 봄볕속으로 하염없이 휩싸여드는듯싶었다.

그는 생시임을 확인하려는듯 서둘러 솜옷을 펼쳐들고 안감에 찍힌 검인도장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았다. 호수를 밝힌 수자, 공장이름 그리고 서툴게 써넣은 수수한 재봉공녀인의 이름.

No. 397 리 순 녀 국영강계피복공장 ㉠

로지봉은 다른 전사들이 누빈 솜옷을 입고 서로 돌아가며 살펴보는 때에도 그 정다운 이름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그의 누이벌이나 어머니벌 되는 녀인인지 아니면 순금이 또래 처녀인지 알수 없으나 한없이 귀중하고 다정한 혈육임에는 틀림없었다. 한뜸한뜸 정성들여 누벼놓은 혼솔을 더듬어보고 안주머니에도 손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마치 자기가 예견했던것처럼 느껴지는 쪽지편지를 더듬어쥐였고 그것을 꺼내들자바람으로 흥분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그의 곁으로 류현수가 다가오고있었다.

《현수!… 중대장동무!》하고 지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이게 편지가 아니유? 이게 도대체 웬일이유?…》

현수와 여러 전사들이 삽시에 그를 에워쌌다. 화토불이 탁탁 튀면서 불꽃을 흩날리고 뜨거운 불길로 전사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곱게 접은 편지를 받아쥔 류현수가 먼저 빠른 시선으로 훑어본 후 목청을 돋구어 읽기 시작했다.

《적후에서 싸우는 인민군대동무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어제 밤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금 적후투쟁을 하는 전사들이 엄동설한에 여름군복을 입고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더 많은 솜옷을 지어 동무들에게 보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는 오늘부터 매 사람이 5벌씩 더 지어 적후의 영용한 인민군대동무들에게 보내줄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부탁할것은 이 솜옷을 입고 더 용감하게 싸워주세

요. 미국놈들에게 천백배 복수를 하여주세요. 승리의 그날까지 몸성히 잘 싸울것을 간절히 빌면서

1950년 11월 18일

리순녀 올림.》

아직 지봉은 그 누구에게서도 편지를 받아본적이 없다. 그는 류현수가 여러 전사들의 요청으로 편지를 다시 읽는동안 울렁거리는 가슴을 누를길 없어 안절부절하였다. 다음 그의 손에서 다른 전사들의 손으로 편지가 넘겨지는것을 보자 더 참지 못했다. 슬그머니 편지를 당겨다가 흐릿해진 눈길로 글줄들을 더듬었다. 아직 글을 채 익히지 못한 그였으나 하나하나의 글발이 눈에 익었다. 글씨까지도 눈에 익고… 정든 사람의 손길이 여기에 닿아있다. 뜨거운 사연이 여기에 씌여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솜옷 안주머니에 정히 건사하였다.

박영일이 다급한 소리로 《나두 좀 보자요!》하며 손을 내밀자 로지봉은 벌거우리해진 눈을 돌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후에 또 보자구. 응?… 후에 얼마든지 또 보자!》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18

이슥한 밤중이였다. 먼 산봉우리에서 신호탄이 날아올라 확 불타더니 물속에 잠기듯 꺼져버렸다. 겨울치고는 류달리 잠풍한것이 곧 눈이 올것 같았다.

리숙은 군단장의 발꿈치에 바싹 붙어가고있었다. 군단장이 직접 인솔한 10여명의 일행이 깊은 계곡을 따라 서남쪽으로 전진하고있었다. 자동총을 휴대한 기마통신중대의 련락병들과 부관이 말을 타고 앞서나갔다. 그 나머지는 군단장과 같이 도보로 걸었다. 오래도록 말없이 갔다. 군단장 최현은 그림자처럼 묻어가는 리숙이도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유격대행진곡》의 악보를 두고 벌어진

담화후부터 아직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약속한 시간에 리숙이 군단장을 찾아갔을 때 돌연 《폭풍》경보가 울리고 군단지휘부의 이동이 시작되였다.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였다. 그것을 명령한 군단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내막을 알지 못했다. 군단장은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불의에 군단지휘부를 1시간내 이동할것을 명령하였다. 그자신은 군단통신련락소와 함께 행동했다. 부관과 간호장 리숙, 군단통신기마중대에서 련락병 2명을 일행에 보충했을뿐이였다. 기타 군단지휘부 각 부서들은 참모장이 인솔했다. 목적지는 군단참모장에게만 알려주었다. …

그 어떤 불안스러운 예감이 지꿎게 최현을 휘감고있었다. 그는 3명의 무선수들을 선발하여 공작파장을 맞춘 상태에서 행군하도록 했다. 2명의 무선수는 2차 철원해방전투를 지휘하는 박정덕, 개성－금천강도로상에 매복한 한창봉과 직결되여있었으며 1명은 최고사령부와의 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여있었다.

이윽고 밤하늘에서 눈송이들이 흩어져내렸다. 쏟을듯말듯 그칠듯말듯 너불너불 눈앞을 스치는 눈송이들을 보면서 리숙은 저혼자의 생각에 묻혀 자주 돌을 걷어차군했다. 두서없고 갈래많은 생각이였다. 군단장이 왜 쫓지 못해할가. 나의 무엇이 마음에 안들가 하는 생각을 자꾸 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가느다란 한숨같이 남몰래 류현수를 생각했다. 지금 어데 있을가, 무얼 하고 있을가. 철원해방전투에 참가했을가, 아니면 공병이니만큼 어느 도로에 매복하고있을가?… 그와 같이 개울가를 걸을 때, 분명 무엇인가 의미깊고 길이 잊혀지지 않을 말 한마디를 하려고 벼르면서도 끝내 평범한 인사말밖에 더 번지지 못했을 때 까닭없이 치밀어오르던 서운함과 야릇한 반발심이 상기되면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어수선해졌다. 흐릿하던 갈망, 눈물, 그때 눈물은 왜 솟구쳤던지, 어째서 가슴은 그리도 뻐근했던지?… 눈물없는 사랑이란 없다고 한다. 사랑이란 기쁨이기전에 먼저 아픔이라고들 한다. 아픔!… 허나 그것은 따스한 아픔, 온기를 품고있는 눈물의 아픔이다. 하다면 리숙은 언제 어느때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였을가? 도하장에서 처음 보았을 때 무척 낯익게 여겨졌던 그 시각부터일가, 아

니면 보총을 겨누어들고 당장 쏴갈길것처럼 무섭게 으르대던 그때부터일가.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오래전, 그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것일가? 사내애들과 두렴없이 아귀다툼을 하던 밸통머리 사나운 소녀 리숙이 별안간 거울앞에 서서 자기의 눈매를 이윽토록 들여다보던 그때, 문득 자기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기자신에게 반하기 시작하던 그때, 호기심어린 처녀의 눈길이 동년배인 총각애들은 멸시하고 좀더 어른스러운 사람들께로 은근히 옮겨가던 그때부터였을가?… 그러다가 처녀의 꿈속에 그려지던 그 젊은이가 불쑥 눈앞에 나타난것이나 아닌지… 뉘 알랴, 사랑은 자기의 출발을 점찍어놓지 않는다. 별안간 사랑에 빠진 자기를 발견할뿐이다!…

리숙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고있는지 알지 못했다. 컴컴한 야공에서 푸실푸실 눈송이들이 떨어져 수그린 목덜미에서 녹아버리군했다. 별안간 걸음을 멈추었다. 앞을 막아선 군단장에게 가볍게 부딪쳤다. 그러나 군단장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산너머 먼곳 어데선가 발동기의 소음이 들려오고있었다. 군단장은 귀를 강구어 그것을 듣고있는듯했다. 둔중한 폭음이 울려왔다. 잠시후 화재가 일어난 모양 벌거우리한 불빛이 눈꽃 날리는 밤하늘을 물들이고있었다.

《저건 우리가 떠나온데가 아닌가?》

최현군단장이 처음 입을 열었다. 즉시 통신련락소의 소대장을 불러 새로운 보고가 들어온것이 없는가고 물었다. 소대장은 아직 아무런 보고도 없다고 했다.

《이상하거든.》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꼭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것 같단말이야.》

리숙이와는 달리 군단장은 이 야밤의 행군길에서도 전투와 작전, 있을수 있는 각종 정황 등의 군사실무에서 헤여질수가 없는 모양이였다. 리숙은 누빈 솜옷의 웃단추를 마저 채웠다. 그다음 눈을 밝히고 귀를 강구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감상적인 상념에 잠겨있었다는것이 죄스러워졌다. 그때 무슨 생각인가 골똘히 하고 있던 군단장이 또 입을 열었다.

《10여년전 일인데… 그게 아마 1937년 여름이였던것 같아. 내가 한 소부대를 이끌고 행군하다가 휴식을 하댔는데… 너무 피곤해서 당장 말뚝잠에 들고말았지. 헌데 별안간 꿈속에 웬 백발로인이 나타나질 않겠나. 커다란 지팽이를 쥐고있는데 꼭대기에 룡대가리를 새긴거였어. 온통 하얀 옷차림이구 한발이나 넘는 채수염도 새하얗더군. 그 백발로인이 지팽이로 나를 두들겨대며 노해서 소래기를 지르더라니. 〈최현아, 눈을 떠라. 천길 낭떠러지가 무너져내린다! ―〉 해서 난 후닥닥 일어났지. 헌데 이게 웬일인가. 숱한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있는게 아닌가!…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리숙은 군단장의 발꿈치에 바싹 묻어갔다. 이제 또 무슨 말이 있겠는지 잠자코 기다리자 최현이 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거든.》 그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것 같단말이야.》

《군단장동지! 그건 너무 과로한탓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허―》 최현은 털외투자락을 활 열어젖혔다. 《리숙이, 그 성미가 마음에 들어. 그렇지만 않았어두 당장 쫓아보내는건데…》

《군단장동진 그러지 않아도 한번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왔지. 의뭉스럽게!》

《어마나, 제가 뭐…》

《괜찮아, 나무라는 소리가 아니야. 헌데 리숙이, 집에 부모랑 다 계시나?》

《예, 아버지와 또…》

《아버진 무얼 하시나?》

《전기관리국 기사장을 했습니다.》

《뭐?》 군단장은 무엇인가 기억의 갈피를 더듬는듯했다. 《가만있자. 아버지 이름이 혹시 리성조가 아닌가?》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질 아십니까. 군단장동지?!》

최현은 걸음을 멈추고 새삼스럽게 리숙을 뜯어보았다.

《알지, 내 그 량반을 알아! … 숙이,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얘길 들었지. 얼마전 적후에 들어가 전기를 끌어왔더군. 목숨을 걸구말이야!》

《우리 아버지가요?》

《응, 그렇게 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던 전기문제를 풀어드렸단말이야. 대단하지. 정말 대단해! …》 최현은 리숙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거의 껴안다싶이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이번에 장군님을 만나뵈올 때말이야. 그런 기쁜 소식이 왔어. 리숙이 아버지가 적구에 들어가 전기를 끌어왔다는거야. 그래서 전기때문에 애를 먹고있는 군수공장들이 만부하를 걸수 있게 됐다는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나? … 모를거야. 리숙이도 다 모르지.

장군님께서 되우 기뻐하시더군. 장군님께선 무기생산이 걸려 몹시 걱정하시댔는데 그 문제가 풀렸거든. 대단해. 그날 나는 말이야, 장군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린 전기기사장이란 량반을 아무때건 꼭 만나봐야겠다구 생각했지. 우리 군단에 초청해다 사열식이라도 해줘야겠다 하구 말이야. 헌데 그게 바로 뒤웅스러운 리숙이 아버지댔군! …》

최현이 이렇듯 길게,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간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리숙은 그림자처럼 소리없이 걸어가고있었다. 아니 최현의 팔뚝에 받들려 둥둥 떠서 간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바로 군단장인 최현장령을 통해 아버지소식을 듣는것이 기뻤다. 아버지가 장군님께 그토록 큰 기쁨을 드렸다는것이 놀랍고 벅차고 눈물겹도록 기뻤다.

《아버지!》 하고 리숙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속삭이였다. 《전… 믿고있었어요. 아버진 변치 않으리라고 말이예요. 정말 아버진… 좋은분이예요. 아버진 훌륭해요. 훌륭한 아버지를 가지고있는 내 마음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를 자랑해요. 자랑해요. 아버지! …》

최현이 휘친거리는 리숙을 끄당기며 물었다.

《숙이, 웬일이야. 왜 말이 없어?》

《군단장동지!》 하고 리숙은 불같이 속삭였다. 《전 너무 기

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군단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원, 무슨 소릴!… 난 외려 이렇게 리숙일 알게 된게 더 기뻐!… 참 좋은 사람들이야. 리숙이도 숙이 아버지도!…》

그 말을 듣자 리숙은 웬일인지 눈굽이 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어찌된 셈인지 막 울고싶었다. 소리내여 울고 웃으며 어린애처럼 막 내달리고싶었다. 울고 웃으며 어둠속으로, 골짜기로, 숲속으로!… 저도 모르게 리숙은 코를 훌쩍거리며 최현에게 매달렸다. 마치 손을 놓으면 영영 떨어지기라도 할듯이 힘껏 매달리며 걷고있었다.

어느덧 일행은 계곡을 빠져나왔다. 산자드락으로 작은 오솔길이 나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갔던 부관이 말을 달려왔다. 앞으로 약 300메터쯤 더 들어간곳에 야장간이 있다는것을 보고했다. 최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여기에 무슨 야장간이 있단말인가. 사람발길도 닿지 않는 이런 골채기에말야.》

《우리도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분명…》

《분명하단말이지. 그럼 어떤 도깨비들이 있는지 가보자!》

《도깨비》는 셋이였다. 60에 가까왔을 로인들이다. 최현이 들어서자 일시에 허리굽혀 인사했다. 모루우에서 쇠붙이들이 꺼멓게 죽어갔다. 화독의 연기를 뽑기 위해 뚝처럼 쌓은 토벽연통을 등대고 제일 년장자다와보이는 늙은이가 서있었다. 범가죽으로 지은 큰 덧저고리를 걸치고있는것이 자못 위엄이 있었다. 로인은 최현의 털외투깃속에 드러나있는 누런 장령견장을 자꾸 곁눈질했다. 최현은 스스럼없이 웃으며 자기를 소개한후 로인들에게 담배를 권했다.

《깊은 산골막바지에 야장간이 있다 하니 들렸습니다. 로인장들, 어서 편히 앉으십시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범가죽덧저고리를 입은 늙은이가 먼저 대답했다.

《우린 인민유격대외다. 수류탄을 만드는 유격대지요. 군단장어른, 이것들이 〈통졸임수류탄〉이고 저 두상이 집고있는건 뭐 대포에 쓴다는 결탁쇠라나보웨다. 그게 고장나 애먹는다기에 군대일을 도울가 해서 고쳐보지요.》

《?!…》

그제야 최현은 물론 부관과 리숙 등은 구석구석에 놓인 각종 병들, 통졸임들과 포탄깍지, 탄약상자들까지 둘러보았다.

《이건 탄약상자가 아닙니까?》

《예, 옳쉐다.》 범가죽덧저고리를 입은 포수같아보이는 로인이 또 나섰다. 《병기수리소 군대들이 그걸 가공하기에 우리도 해보는거죠. 뭐 도이췰란드제총탄이 돼서 약간 손질해야 쓸수 있다고 하웨다.》

《참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뭐 처음엔 병기수리소군대들을 좀 돕느라고 한 일인데… 판이 커졌지요. 한번은 한창봉이라고 련대장을 하는분이 파편쪼각과 폭약을 다져서 〈통졸임수류탄〉 만드는법을 대주며 부탁하더군요. 그때부터 보잘것 없긴 해두 우리가 만드는게 미국놈들을 조겨댄다니 성수가 나구 욕심이 더 커졌지요. 그렇지만 군단장어른, 말은 내가 하지만 일은 저 두상들이 다 합네다. 강원도아근에서 한다하는 야장쟁이들이웨다. 나는 그저 포탄깍지나 날라다주구 보초를 서주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리라고 보았습니다.》

최현은 부지중 마음이 후더워졌다. 도처에서 인민들은 적후투쟁부대들을 원호하기 위하여 타다 남은 벼낟가리를 헤치고 수천컬레의 버선과 장갑, 지어 나무껍질로 물을 들인 솜옷까지 지어보내고있다. 양주와 화천에서는 묻어두었던 현물세량곡가마니를 적들몰래 파내여 운반하던 도중 5명이 희생되였고 철원군 묘장면의 한 농민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끌려가던중 인민군대에 의해 구원되자바람으로 어혈이 진 몸도 아랑곳 않고 눈바람 세찬 논밭에서 흩어진 벼이삭들을 줏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일도 있었다.…

최현은 포탄깍지며 통졸임수류탄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어떤것을 어떻게 수리하고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인차 자리를 뜨고싶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당부하시던 일들이 하나하나 상기되기도 했다. 60에 이른 이 늙

은이들에 대하여 장군님께 말씀드리고싶었다. 무선통신으로가 아니라 직접 보고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장군님!…이 《도깨비》령감님들을 좀 보십시오. 산속에 병기창을 차려놓고 제2전선을 돕고있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최현은 부지불식간에 도처에서 적들과 싸우고있는 인민유격대들이 생각났다. 후퇴하여 들어가던 때 자기가 만나본 소년빨찌산 참모장녀석도 생각났다. 그때 최현은 《금강인민유격대》에 180여정의 무기를 넘겨주었다. 그들과 이틀간이나 마주앉아 유격활동에 대해 말해주었다. 군사훈련도 주었다. 그들도 지금 그곳에서 적들과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있을것이다.

최현은 군단활동지역의 평강, 이천, 철원, 김화, 세포 등지의 인민유격대들도 군단의 작전에 인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 생각이 떠오른것이 놀라왔다. 바로 이 《도깨비》들이 귀띔해주었다.

최현은 얼마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늙은이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로인들의 소행을 거듭 치하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범가죽덧저고리를 입은 포수가 한가지 청이 있노라고 했다. 사연인즉 자기를 군대에 받아달라는것이였다. 기골이 장대한 그 늙은이는 최현이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걸걸한 목소리로 또 말을 이었다.

《여기 이 두상들두 다 알지만 나두 한땐 소문을 낸 포수웨다. 아직도 범같은건 문제가 없쉐다. 그러니 그깐놈의 양코배기들이야 더 말할것두 없지요.》

그는 기어이 자기를 군대에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최현은 웃었다.

《로인장이 아니라도 싸울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여기서도 할일이 좀 많습니까. 놈들이 얼씬 못하게 이 야장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로인장만 믿고 가겠습니다. 정 우기신다면 군대들을 떼여 이 야장간을 지켜야 하겠는데… 꼭 그리해야 옳겠습니까?》

로인은 서운한듯 코밑을 주물러대다가 불쑥 최현의 손을 꽉 잡아쥐였다.

《실은 내같은게 짐이나 되겠지요. 하지만 군단장어른! 아직 여기까진 미국놈양코배기들이 한번도 기여들지 못했수다. 하상 그런 일이 생긴다쳐두 내 다 해치우리다. 그것만은 장담하웨다.》

《그렇게 해주시면 작히나 좋겠습니까. 로인장, 믿겠습니다.》

《그럼 군단장어른! 한가지만 더 약속해주시우. 전쟁이 끝나면 꼭 한번 여기에 오겠다는걸 말이웨다. 리왕조때 대대로 사냥을 나오던 소문난 고장이 아니웨까. 워낙 산짐승이 많아서 본때나게 사냥을 할수 있지요. 더우기 군단장어른이야 장군님수하 장수들가운데서두 총 잘 놓기루 유명한분이라는걸 다 아웨다. 그러니 꼭 와주시우.》

《고맙습니다. 로인장들, 약속합니다!》

…심산속의 야장간을 떠나 금화쪽으로 1시간가량 더 갔을 때였다. 통신결속소의 3명통신병들이 공작파장을 맞추고있는 무선기에 맨 처음 군단지휘부 암호 《북극성》을 찾는 전파가 있었다. 서울제4보병사단 통신이였다. 련합부대장 박정덕이 직접 철원포위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아침까지는 전투가 결속되리라고 했다. 그런데 평강의 적 야전비행장기습이 뜻하지 않은 적들의 증원으로 악전고투를 벌리고있다고 했다.

최현은 야전비행장습격에 참가한 력량을 물었다. 보고에 의하면 2개의 증강된 보병중대, 새로 조직한 공병중대(별동대)인바 적들의 차단물 깊숙이 잠입한 공병들이 보병중대와 분리되여 위험에 처했다고 하였다. 이제는 적진 깊숙이 들어간 공병전투원들의 힘과 인내, 과감무쌍한 돌격에 모든것이 달려있었다. 그때 최현은 간호장 리숙이 숨소리조차 없이 말뚝처럼 박혀있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다른 통신병의 무선기에 군단작전부장의 보고가 들어왔는데 1시간반전 적들의 폭격기가 종전 군단지휘부위치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이였다. 아까 둔중하게 울리던 폭음과 밤하늘의 구름장들을 벌거우리하게 물들이던 화광이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대오안에, 그것도 군단지휘부 아주 가까이에 나쁜놈들이 있는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예감하고 급작스러운 지휘부이동을 명령했었다. 최현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악물었다. 이제부터는 군

단의 모든 련합부대들과의 지휘통신을 군단장에게 집중시키도록 해야 했다. 작전협의대상을 극소수로 제한하되 그 성원들을 엄선하며 그 어떤 명령이든 군단장의 구두 혹은 수표가 있는 서면이외의것은 일체 무효로 하며 그것을 어길 경우엔 엄벌에 처할 결심이였다. 전군단을, 그의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최현 그자신의 손아귀에 꽉 틀어쥐여야 했다.

최현은 이렇게 마음을 도사리며 걸음을 옮겼다. 행군이 시작되면 생각이 쉬이 정리되는 그였다.

(평강비행장 습격전투를 힘들게 치르구있다 했지. 공병들만으로 돌격해야 할 형편이라구 했지. …)

최현은 박정덕에게서 받은 소식을 두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느닷없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힘을 더 내라, 힘을! … 절대 주저앉아선 안돼! …》

최현이 다시 걸음을 옮기자 뒤를 이은 군관들과 무선수들이 서둘러댔다. 리숙이도 앞서가는 군단장의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짚고있었다.

19

눈앞에 비행장이 있었다. 넓게 다진 토활주로, 세가닥의 유도로와 감시대, 활주로 가까이에도 군데군데 보초막이 있고 멀리 비행사들이 들어있는 콘세트천막도 보였다. 비행기들은 아마 활주로의 반대쪽에 있을것이다.

현수는 각종 차단말뚝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물홈에서 이발을 덜덜 떨며 3선철조망의 마지막철선들을 공병가위로 끊어놓았다. 물홈을 따라 배밀이하며 기여들어온지 어느덧 2시간가까이 되였다. 이제는 뼈마디까지 얼어붙어 팔다리의 관절도 놀리기 어려웠다. 공병중대의 경험있는 전사들 몇이 3선철조망밑을 기여들어가 탐침으로 지뢰를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뢰원

까지 해체하면 사실상 그들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끝난다고 할수 있다. 뒤에서는 보병중대들이 공병작업이 끝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

차디찬 새벽바람이 귀뿌리를 얼구며 불어쳤다. 오랜 시간을 물홈에 엎드려있자니 그 고통이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꽛꽛하게 얼어붙은 군복자락이 와삭거리군했다. 감시대의 적들이 투광등을 비쳐댈 때나 적순찰병들이 지나갈 때면 덤불이 엉킨 개울바닥에 코를 들이박고 한참씩 참아내야만 했다.

앞에서 흰 손수건이 언뜻거렸다. 앞서나간 조가 지뢰원을 해제한것이다. 현수는 계속 전진할것을 지시했다. 소리없는 구령, 소리없는 전진이다. 군복옷섶에서 얼음버캐가 와삭거리지만 않는다면 여기 황량한 비행장은 무덤굴같이 여겨질것이다. 얼어붙은 군복들이 얼어든 땅을 긁어댔다. 손끝이 모지라지고 감각을 잃어간다. 이제 얼마간 더 그대로 엎드려있다가는 영영 얼어붙고말수도 있다.

또 흰수건이 언뜻거렸다. 이번엔 정지신호이다.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다. 그쪽에서 언땅을 뚜지는 소리가 났다. 엄청나게도 큰 소리다. 현수는 그쪽으로 기여갔다. 터진 팔굽에서 피가 흐르는것 같았다. 그래도 아직 아픔을 느낄수 있으니 다행이다. 감각을 잃어가는 팔굽을 한치한치 내밀어짚으며 이를 악물고 기여나갔다. 그때 앞쪽에서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파란 불덩이가 휘— 날아올랐다. 조명탄이다！ 누군가 잘못하여 조명지뢰를 터뜨린것이다. 비로소 현수는 그 창백한 파란 불빛아래서 눈꽃이 날리고있는것을 보았다. 다음순간이였다. 《누구야！》하는 기겁한 웨침소리와 거의 동시에 《땅！》총소리가 울렸다.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렸다. 꽁꽁 얼어든 가슴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뚝 떨어져내렸다. 파편에 허비운듯한 쓰라린 아픔, 눈앞이 캄캄해지는 망연자실, 비행장 저쪽에서도 자지러진 기관총소리가 울렸다. 도처에서 조명탄이 날아올랐다. 푸르께한 빛의 파도가 주변을 살살이 훑어가는 가운데 《공산군이다！—》하는 웨침소리가 련이어 터졌다.

무서운 일은 그다음부터였다. 앞서나간 공병들이 마지막지뢰

원을 해제하고있다는 신호를 받고 벌써 보병중대의 수십명 전투원들이 개설된 통로에 들어서고있었다. 한줄기 좁은 통로여서 뒤로 빠질수도 없다. 오직 앞으로 내달리는 길뿐이다. 기관총몰사격이 그들을 쓸어눕히기 시작했다. 탐조등불빛이 날아왔다. 그속으로 보병전투원들이 눈이 먼것처럼 뛰여나왔다. 앞에서 쓰러지면 또 달려나온다. 3선철조망을 맞받아 달려가다가 그대로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강렬한 탐조등불빛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것 같다. 무서운 함성, 기관총소리, 급사격의 선풍속에서 지뢰들이 쾅쾅! 튀고 있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끌장이다!… 아니, 그럴수 없다.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지경이 되다니.)

각종 차단물을 사이에 두고 보병중대와 분리된 그들의 처지에서 이제 한순간만 더 지체했다가는 몰살을 면치 못한다. 행동해야 한다. 지금,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공병들만으로도 돌격해나가야 한다.

현수는 자기가 어느새 어떻게 되여 벌떡 뛰여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감각을 잃어가던 팔을 쭉 내뻗쳤다. 목구멍이 터져라 하고 고함을 쳤다.

《중대— 앞으롯!—》

누가 맨처음 따라섰는지 누가 그의 구령을 목청껏 되받아 불렀는지도 알지 못했다. 기관총은 물론 자동총조차 없는 공병들이다. 기병총이나 허리춤에 매단 한두개의 수류탄밖에 없다. 탐침이나 공병가위를 손에 든 그대로 뛰쳐일어나 와— 쓸어나갔다. 활주로가운데로, 투광등이 언뜻거리는 감시대로 또 저쪽 콘세트천막쪽에서 맨내의바람으로 뛰쳐나온 적병들을 맞받아 무턱대고 달려갔다. 맵짠 칼바람이 토활주로바닥을 휩쓸었다. 뒤따라 투광등의 불빛이 비자루질을 하기 시작했다. 기관총몰사격이 그들에게 쏠린것 같았다. 그래도 힘껏 달린다. 소리도 없이 죽을힘을 다하여 달린다. 한발자국, 한순간을 늦으면 끌장이다.

《누구야, 누구야?!》

별안간 현수는 눈앞에 불쑥 나타난 적병을 보았다. 총부리를 앞에 내대고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소리를 연방 내지르고있다. 그자는 야밤의 활주로에, 탐조등이 휘저어대는 불빛속에 유령들처럼 나타난 인민군전사들을 뻔히 보면서도 기겁한 소리만 거듭하였다.

《자식, 이 등신아!》하고 현수는 거침없이 소리쳤다. 《누군지 보구두 몰라. 인민군대가 비행장을 습격하고있단말이야!》

그는 내달리던 그 기세로 얼혼이 나간 적병의 면상을 권총으로 힘껏 후려쳤다. 꺽하는 비명, 다음순간 한무리의 적병들이 또 쓸어오는것이 보였다. 사방에서 적아가 한데 어우러지고있었다. 강렬한 탐조등불빛이 어지럽게 휘돌며 눈을 때리고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현수는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어 쓰러진 적병의 철갑모를 벗겨 썼다. 그리고 뒤따라온 대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한 다음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정지, 누구야!》하고 소리쳤다.

《자식— 위병장이다!》 앞서오던 장교놈이 꿱꿱거리며 소리쳤다. 《정신을 바싹 차려, 사방 공산군이다.》

그놈은 정황이 발생하자 보초를 늘이기 위하여 병졸들을 데리고 달려온것이였다. 그때 땅에 엎드려있던 전사들이 뛰쳐일어나며 다가선 적병들을 쏘아눕혔다. 동시에 현수는 마주선 적위병장교의 가슴팍에 권총을 찌르며 소리쳐물었다.

《비행사들은 어데 있어. 빨리 대라!》

《비행기로, 이제 비행기로 갈거요. 여보시오. 난…》

그는 한초가 새롭다는것을 깨달았다. 비행사와 비행기들을 놓친다면 오늘의 습격은 수포로 돌아가는것이다. 다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활주로 한끝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사방에서 맨내의 바람의 적병들이 덤벼치고 소리치며 정신없이 뛰여다니고있었다. 그 순간 연유탕크가 폭발하며 거센 불기둥을 휘말려올렸다. 주위는 대낮같이 밝아졌다. 그러나 병영쪽으로 앞서달리던 기습조만은 뜻을 이루지 못한듯했다. 맹렬한 몰사격이 그들을 저지시켰다. 현수 역시 지상지휘소의 목조건물에서 멀지 않은 유도로근처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행기쪽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발견

한 적들이 집중사격을 가하기 시작한때문이였다. 눈앞에 줄지어 촘촘히 박히는 탄알들이 죽음의 불꽃을 뿌리고있었다. 누군가 기관단총을 휘둘러 감시소의 투광등을 박살냈으나 그자신도 허리를 꺾으며 구겨박히고말았다.

《지봉동무, 오윤남! 엄호하오—》

벌떡 일어서 내달리려다가 다시 엎드렸다. 이제는 한발자국도 더 전진할수 없었다. 활주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수백발의 총탄이 벌둥지처럼 만들어놓으리라는것이 명백했다. 집중사격의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있었다. 감시소쪽으로 수류탄이 날아가 적황색의 불길을 솟구쳐올렸다. 기관단총과 기병총, 보총들이 대응사격을 가했으나 화력충돌은 대비조차 되지 않았다.

(제길할! … 이제 곧 비행기가 뜰텐데…)

귀밑에서 피줄들이 푸들푸들 뛰놀았다. 그는 오윤남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소리치며 견인차들이 서있는쪽으로 기여갔다. 그 뒤쪽에 방수포를 씌운 커다란 무지들이 눈에 띄였다. 포탄상자들임에 틀림없다. 집채같은 저 포탄상자더미를 폭발시키면 비행장은 온통 불바다속에 잠길것이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꽉 틀어잡았다. 병영쪽으로 대원들을 끌고온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이였다.

《내가 하겠수다. 중대장동무, 그건 내가 맡았던거지요!》

《무슨 소리요?》

《내가 한다니까. 걱정마시오. 이런 일엔 보병이 더 낫수다!》

그는 모자도 없는 맨머리바람이였다. 수류탄을 틀어쥔 두손이 흥분에 떨고있었다. 잠시후 또 거칠게 숨을 내그으며 그가 말했다.

《내가 맡겠소. 믿어도 되우. 이게 어떻게 마련된 싸움이요. 글쎄 저 락동강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먼길을 와서… 내 인츰 해제끼구 오겠소!》

어느새 주영섭은 견인차들사이로 달려갔다. 달려가다가는 엎드리고 그리고는 또 힘껏 달렸다. 현수는 거의 반쯤 몸을 일으키며 웨쳤다.

《지봉동무, 문화부중대장을 엄호해주라! —》

로지봉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뛰쳐일어나 주영섭이 사라진 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다가 견인차들 가까이에서 차바퀴에 몸을 의지하며 엎드렸다. 견인차의 시창유리에서 검푸른 불길이 쏟아져 나오고있었다. 불달린 그 차가 폭발할수 있었다. 분명 지봉은 그것을 느꼈던 모양으로 또 달려가기 시작했다. 마침 적들의 사격은 활주로에 집중되고있었다.

가슴을 쥐여뜯는듯한 순간들이 흘렀다.

(빨리, 빨리 하오. 문화부중대장! 우린 시간이 없소. 제발 빨리!…)

공중에서는 조명탄이 연방 터져 둥둥 매달렸다. 교차사격의 새된 회오리속에서 수류탄이 터지며 분간하기 어려운 외국말비명이 날아왔다. 병영쪽에서, 콘세트천막근처에서 갈팡질팡하던 괴뢰군과 미국놈들이 돌격태세를 갖추는것이 분명해졌다. 구령소리들이 또렷해지고 이리저리 뛰여다니던 적들이 은페물들에서 교호식으로 사격하고있었다. 여러갈래로 갈라져 달려가는 적병들도 조명탄의 불빛속에서 드러나보였다. 아마도 보병중대의 결사적인 공격을 저지시키려 차단물계선에 증원하는 모양이였다.

(왜 이리 굼뜬가. 문화부중대장!) 심장이 초물처럼 녹아내렸다. (내가 가는게 낫지 않았을가? 제길할! 이러다간 다 녹는다.)

적들이 돌격해나오기 시작했다. 병영기습에 나섰던 주영섭의 조까지 합해도 두개 분대정도밖엔 안된다. 이들을 가지고 정면충돌을 하다가는 다 녹는다. 은페할곳도 없는 활주로와 유도로근처의 개활지대였다. 나무등걸, 파헤친 흙더미들이 고작이다. 다시 수류탄이 날아갔다. 꽝!— 하는 요란한 폭음이 배밑의 땅을 뒤흔들었다. 누군가 반전차수류탄을 던진것 같았다.

《수류탄을 아끼라. 반전차수류탄은 비행기에만 던지라!》

눈앞의 나무등걸에 총탄이 퍼부어졌다. 현수는 헉헉 단김을 내뿜고있었다. 순간순간이 살점을 저미는듯했다. 미칠듯한 초조감때문에 달려드는 적병들을 바로 겨눌수 없었다. 한무리의 적병들이 일제사격에 중등무이로 나가넘어졌다. 그러나 또 달려들것이다. 그리고 비행기쪽으로 갔다는 비행사들은… 바질바질 타드는 가슴, 비행기의 기관소리같은것이 울려왔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

발동기소리가 목줄띠를 사정없이 조이는듯싶었다. 아니다. 더는 지체할수 없다. 그는 이것이 단 몇분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것을 알지 못했다. 설사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도 미친놈이라고 웨쳤을것이다.

《련락병, 날 따라— 동무들은 엄호하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죽더라도 비행기 있는쪽으로 달려갈 생각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온몸을 들었다놓는듯한 진동을 느꼈고 말뚝처럼 박혀버렸다. 뒤미처 무서운 폭음이 터지며 거센 불기둥이 확 치솟아오르는것을 보았다. 불의 회오리, 귀가 먹먹해지는 폭음, 그는 폭풍에 날려 토활주로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수천수만발의 포탄이 일시에 터져버린것이다. 웅근 한개 도시라도 산산이 박살낼수 있는 거대한 포탄더미가 폭발하는것이다. 회백색의 섬광들이 전광처럼 번쩍이고 불의 타래가 몰아치면서 적아를 가리지 않고 가랑잎처럼 사람들을 나딩굴게 했다.

미증유의 거창한 폭발, 또 폭발, 눈도 뜰수 없었다. 파도처럼 휩쓰는 불의 해일에 밀려 몸을 지탱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폭풍속을 뚫고 적기들이 먼 활주로끝에서 날아오르는것을 현수는 보았다. 맨처음 활주로를 따라 리륙하려고 달려오던 적기가 불의 화살에 맞아 찢어져 나딩굴었다. 포탄상자더미에서 아직도 그칠새없이 포탄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이다. 또 한대, 두대의 적기가 경쟁이라도 하는듯 달려오다가 서로 부딪쳐버리는것도 보였다. 날아오르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적들이기에 필사적으로 포탄들이 튀여나는 활주로를 달려오는것이다. 활주로는 물론 온 비행장구내가 화염속에 잠겨들었으나 적기들은 미친듯 달려오고 또 달려온다. 현수는 단 한대의 적기라도 날아오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끊임없는 폭발속에 저절로 다 불타버리기를 기다릴수 없다. 그는 비칭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한대라도 날아오르게 해선 안된다. 절대… 안된다!)

그는 자기의 잔등에 불이 달린것도 모르고있었다. 화염의 강이, 도하장이, 쓰러진 전우들이 떠올랐다. 급강하하던 적기들, 미친듯 쏘아대던 기총탄, 반나마 상체만 남았던 김수찬소대장, 정신없이

토하던 련락병 박원철,폭음을 울리며 새떼처럼 련속 달려들던 적기들… 안된다. 한놈도 날아오르지 못한다!…
누군가 달려들어 잔등의 불을 꺼주고있었다. 오윤남이다. 후퇴의 먼길을 함께 헤쳐온 전사,하지만 너는 아직 적기들의 미친듯한 공습은 겪어보지 못했을것이다. 저놈들을 살려주어선 안된다!… 그는 반전차수류탄을 거머쥐고 아직도 비틀비틀 활주로를 따라 굴러오는 적기를 맞받아 달려갔다. 그리고 불속에서 요행 살아나온 적기를 향해,금시 바퀴를 덜덜 떨며 날아오를듯 요동치는 적기를 향해 힘껏 수류탄을 뿌렸다.
아무런 폭음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다 메여버린듯했다. 하지만 반전차수류탄에 맞은 적기의 동체가 뭉청 끊어져 동강이 나는것만은 똑똑히 보았다.…

주영섭이 보이지 않았다. 포탄더미를 날려버린 그 사람이 살아있으리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수백메터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가랑잎처럼 나딩굴게 한 폭발이다. 활주로우에서 날아오르려던 적기들을 불의 화살로 찢어버리던 무서운 폭발… 현수는 정신없이 돌아쳤다. 많은 전사들이 그와 같이 뛰여다녔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머리를 짓숙이고있는 로지봉을 발견하였다. 현수를 보자 그는 비틀거리며 마주왔다. 그을음 낀 그의 얼굴에서 피방울같은것들이 굴러내렸다.
《문화부중대장은 어데 있소?》
현수가 소리쳤다. 그러나 로지봉은 아무것도 가려듣지 못하는듯했다. 맥없이 축 드리웠던 한손을 들었다. 불에 타고 갈기갈기 찢겨진 가방이 들려있었다. 주영섭의 전투가방이다. 지봉은 아무말없이 그것을 현수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현수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예리한 파편이 심장 한끝을 스쳐가는듯했다. 그는 없다. 수더분한 문화부중대장 주영섭은 형체도 없이 갔다. 폭풍에 날려버린 이 전투가방만이 남았다. 자기 부대 근위18련대로 가게 되였던 사람,그는 후퇴의 먼길을 함께 걸어온 전우들과 이 전투를 마저 치르고 돌아가려 했었다.

…그의 가방안에서 성한채로 나진것은 크지 않은 수첩이였다. 수첩 한가운데 누르끼레하게 색이 바랜 한장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가리마를 곧게 탄 젊은 녀인이 어린 아들을 껴안고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배경은 사진관에 그려놓은 서투른 풍경으로서 련꽃이 핀 못과 고풍의 정자가 있었다. 녀인이 팔굽을 올린 작은 원탁우엔 꽃병 하나가 놓여있었다. 밝고 평온한 정경이였다. 놀란듯 눈이 올롱해서 쳐다보고있는 어린애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였다. 사진을 보자 로지봉이 몸을 떨었다. 얼마전 우물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실을 상기한것이였다. 장정들조차 떼여낼수 없이 서로 꽉 껴안고있던 녀인과 아들, 굳어지고 얼어붙은 그들을 떼여내려 했을 때 주영섭이 무섭게 소리쳤던것이다.

《다치지 마오！》

수첩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표창내신할 사람, 희생된 사람, 생년월일, 집주소, 무덤위치… 소대와 중대의 모든 전사들이 거기에 적혀있었다. 마지막엔 박영일, 로지봉 등의 이름과 주소도 있었다. 그것을 보자 로지봉은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건잡을길 없이 어깨를 떨며 사레들린것처럼 허덕이였다. 현수가 그에게 수첩을 내밀었다.

《이건 동무가 건사하오.》

《…》

로지봉은 알아듣지 못했다. 현수는 큰소리로 반복했다.

《이건 동무가 건사해야 돼！》

《…》

로지봉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자기에게 내밀어준 수첩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받소, 지봉동무！》

《뭐이라는거유. 응？ 지금 뭐이라 하는거유？》

고함을 지르듯했다. 온통 질벅해진 얼굴에서 충혈진 두눈이 무섭게 번뜩이고있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현수는 그가 폭발때 귀가 멀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참을길없는 아픔이 가슴을 옥죄였다. 현수는 그의 손에 수첩을 쥐여주었다. 불시에 그를 와락 끌어당기며 귀

전에 대고 고함을 쳤다.

《잘 건사하라구. 응? 지봉이?！…》

로지봉은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펴들었다. 또한번 사진을 들여다보고 꽉 감싸쥐였다. 이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다. 작은 손거울이 나왔다.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토록 정히 간수해온 손거울이건만 어느새 산산이 깨여져있다. 수십수백개의 쪽무이로 그의 덜퍽진 몸집과 피빛화광을 흐트러뜨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것을 떨구었다. 꿈과 희망,추억이 담겨있던 거울,백화산기슭의 실그러져가는 마방집과 부끄럼 잘 타는 안해 순금이를 비쳐주던 거울이다. 여태껏 지봉은 손바닥 한줌에나 들어가는 그 작은 세계에서 살고있었지만 곁을 떠나간 이 사람은 수십,수백명 전우들의 꿈과 희망을 다 안고있었다. 그는 헉—하고 울컥 치밀어오르는것을 토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발치에 떨어져 흩어진 거울쪼각을 마구 쥐여뿌리기 시작했다. 이 미련한놈아,이 쫄보야,게뚜더기야！ 거울이나 가지구 고향에 간다구? 너같은놈이나 사등뼈가 분질러질것이지. 찌러기 같은건 살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갔으니… 아— 이 일을 어찌해야 하누—

현수가 그를 일으켰다. 로지봉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구 소리내여 울었다.

20

11월 23일,이날은 바로 5주일전인 10월 15일 웨이크섬회담때 맥아더가 조선전쟁을 끝장내기로 했던 《감은절》이다. 맥아더는 원래 이날에 도꾜의 궁성앞광장에서 성대한 《전승열병식》을 거행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조선전쟁의 형세는 시원치 않았다. 맥아더는 다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전으로 조선전쟁을 결속하겠다고 엄숙히 선언하고 11월 24일부터 새로운 대규모적인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벌리기로 했다.

드디여 11월 24일이 밝았다. 전날 북부조선일대는 맑게 개인 날씨였었으나 새날에 접어들면서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웠다고 한다. 맥아더는 그 말을 듣고 이마살을 잔뜩 찌프렸다. 웬일인지 그 검은 구름이 심상치 않게 여겨졌던것이다. 그는 나뽈레옹처럼 드러내놓고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초자연적인,그 불가사의한 힘에 겁먹군했다.

그러나 검은 구름때문에 작전을 포기할수는 없었다. 작전준비는 완료되였고 청천강남부에 전개한 미제8군 18만 9,000여명은 10시로 예견된 공격개시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있었다. 더우기 이날의 총공세는 맥아더가 현지에 도착한 다음 시작하게 되였으므로 빨리 서둘러야 했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전선에 나갈 때마다 입는 전투복차림을 깐깐히 하고있었다. 그때 휘트니준장이 들어와 여러장의 커다란 사진들을 책상우에 펴놓았다.

《뭐요?》

맥아더의 물음에 휘트니는 가볍게 미소했다.

《각하의 반신상제막식의 사진들입니다.》

맥아더는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청동의 반신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것인데 맥아더 자기와는 전혀 비슷해보이지 않았다. 반신상은 미국에 사는 일본 조각가 가와무라 고조가 만들었다고 한다. 어제 오후 2시에 도꾜 니혼바시에 있는 미쯔꼬시백화점 중앙홀에서 이 반신상제막식이 있었다.

맥아더는 어느 한장의 사진을 들고 자세히 눈여겨보았다.

반신상밑 대리석받침대에 영어로 새겨놓은 글이 찍혀있었다.

맥아더	나는 누구요?
미합중국	당신은 영웅이요!
일 본	당신은 힘이요!
자유세계	당신은 희망이요!

맥아더는 그 글이 마음에 들었다. 바로 그것을 사진찍어온 휘

트니의 처사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있던 사진을 떨어뜨리며 이발을 사려물었다. 분노와 수치감과 피나는 증오가 로쇠한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있었다. 바로 이렇듯 서반구의 자유세계가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고있는데 조선에서는 날이 갈수록 그의 명예가 손상되고 깎이우고 짓밟히고있는것이다. 이제 《크리스마스총공세》마저 실패하면 그가 온 생애를 바쳐 구축해온 영웅의 기념비는 형체도 없이 무너져버릴것이다.

맥아더는 쭈글쭈글한 전투모를 눌러썼다.

《갑시다. 지체 말고!》

그리하여 맥아더는 하네다비행장에서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라메이어중장, 작전부장 라이트준장, 정보부장 월로우비소장, 민정국장 휘트니준장 등과 함께 전용비행기 《스캪》호에 올랐다.

목적한곳은 신안주비행장이다. 지금 그곳에서는 8군사령관 워커중장과 미1군단장 밀번소장이 벌써부터 나와 대기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맥아더는 자동차에 실은 사다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기장인 스트리중좌에게 명령하였다.

《안주에 내리기전에 더 북으로 날아가보겠소.》

스트리기장의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각하, 그럼 어데까지 가시렵니까?》

《나는 적의 후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싶소. 그러니 압록강상공까지 가봐야겠소.》

극동공군사령관이 전투기들의 호위가 조직된후에 돌아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맥아더는 《나는 가겠소!》하고 어성을 높였다. 이럴 때엔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못했다.

《스캪》호는 지루한 비행시간을 보낸후 드디여 북부조선상공을 날기 시작했다. 맥아더는 안경을 끼고 눈아래에 펼쳐지는 황량한 세계를 굽어보기 시작했다.

흰눈에 덮인 산줄기들, 작은 댕기오리처럼 늘어진 강줄기, 흰종이우에 검은 점들을 찍어놓은듯한 촌락들,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산지대의 풍경이였다. 바람에 날린 눈가루들이 흰연기처럼 도처에서 피여오르고있을뿐 그가 찾고저 하는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

았다.

이것이 신비로운 산악의 나라 조선의 북부지역이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이 사는 동방의 조선— 이 나라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서유럽에 알려준것은 13세기 이딸리아의 유명한 려행가 마르꼬 뽈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루스띠께르의 손을 빌어 낸 《동방견문록》을 통하여 수수께끼와 같은 조선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후 1653년 항행도중 태풍으로 제주도에 표착하여 14년간이나 억류되여 있다가 가까스로 일본 나가사끼로 탈출한 네데를란드사람 하멜이 쓴 《동방표류기》, 《조선수기》가 영어, 도이췰란드어,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소개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저 북조선사람들의 견인불발성은 동방에 14년동안이나 머물러있는 맥아더조차 수수께끼로 여기고있다.

(지금 북조선공산군은 어데 있을가? 무장도 변변치 않고 력량도 보잘것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되여 8군의 진공을 저지시킬수 있었을가?…)

맥아더는 지금 이 시각 거의 20만에 달하는 미제8군이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하였다. 시계를 보니 9시 18분이였다. 10시가 되면 공중과 지상에서 수백수천대의 비행기와 땅크의 지원하에 맹렬한 타격이 시작될것이다. 그러나 보다는… 원자탄을 사용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한때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한것은 지나친 힘의 과시였었다. 전쟁의 결말이 확연해진 때에 가서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일본에도 원자탄을 던졌었는데 여기 조선땅에서는 왜 못쓴단말인가?!… 맥아더는 지금 온 나라가 필사적으로 싸우고있는 이 땅에 보유하고있는 모든 원자탄을 마구 내던지고싶었다. 위험이 증대될수록 더 과감하고 더 혹독하게 싸우고있는 이 나라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살륙하고 불태워버리고싶었다.

이렇게 맥아더는 신의주 서쪽 압록강하구에까지 돌면서 기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눈덮인 산악지방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하

고있었다.

…신안주비행장에서 대기하고있던 8군사령관 워커중장과 미1군단장 밀번소장은 이미 몸이 얼어있었다. 그들의 찌뿌둥해하는 표정을 피끗 살피며 맥아더는 물었다.

《아군의 사기는 어떻소?》

《사기말입니까?》 워커는 말을 고르느라고 쭈밋거렸다. 《물론 사기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런데 뭐가 문제요?》

《보급때문에 골치를 앓고있습니다. 동기피복도 아직 오지 않았고 탄약도 부족한데다가 식량사정은 더욱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 집중수송을 조직하지 않았소?》

《조직했습니다, 각하! … 그런데 배후에 있는 공산군들이…》

《배후에 있는?…》

《예.》 워커는 장갑을 낀 두손을 세게 비벼댔다. 《배후에 있는 공산군들이 일체 보급로를 차단하고있습니다.》

맥아더는 언짢아했다. 전에도 워커가 배후에 있는 공산군들에 대해 전보로 알려왔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그때 맥아더는 그런 통보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전선이 압록강, 두만강에 이르면 그만이라고만 생각했던것이다.

《나와 나의 부하들은》하고 맥아더는 뜨직뜨직 말하였다. 《언제나 미륙군에 승리의 기록만을 남겼소. 당신도 나의 부하인만큼 이 점을 명심해두시오!》

맥아더는 가까이 굴러온 승용차로 걸어갔다.

…오전 10시, 미제8군 18만 9,000여명은 드디여 일제히 북진을 개시하였다. 대포들이 미친듯 울부짖고 눈가루 날리는 산마루우에서는 비행기편대들이 우뢰소리를 울리며 날아갔다. 땅크들이 굴러가며 짜당짜당 위세를 떨치면 그뒤를 따라 보병서렬이 전진하였다.

맥아더는 미24사단에 가서 떤의 후임인 쳐치소장을 고무해주고 다음은 미2사단으로 갔다. 벌써 공산군과의 처절한 싸움이 붙은

모양으로 흰눈에 덮인 둔덕에서 자지러진 총성들이 울리고있었다. 막료들이 만류했지만 맥아더는 전방가까이 2사단 9련대 2대대의 에프중대까지 나갔다. 중대장인 웰레스대위가 달려와 승용차에서 내리는 맥아더에게 목청을 돋구어 보고했다.

《사기는 어떻소?》 맥아더가 물었다.

《좋습니다, 각하!》

《중대의 력량과 무장장비는?》

《옛, 대원 129명, 땅크 4대, 자행포 2문, 박격포 16문, 경기관총은 4개 소대에 각각 2문씩 있습니다. 각하!》

그렇다. 현지에 나와보면 이렇듯 사정은 판판 다른것이다. 장비는 말할것도 없고 사기도 좋다. 그런데 워커는… 《부르독장군》은 무엇때문에 그닯지 않은 우는 소리로 나를 기분잡치게 하였던가?… 맥아더는 나지막한 둔덕을 가리키며 물었다.

《적정은 어떻소?… 저 둔덕우에까지 공산군이 진을 치고있단말이요?》

《아닙니다, 각하!》 웰레스대위는 여전히 청높은 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직승기에서 보급물자를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맞을 리승만군대가 먼저 덤벼들었습니다, 각하!》

《…》

맥아더는 인차 영문을 알수 없어 얼떠름해있었다. 다시 사정을 물어서야 벌어진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되였다. 직승기에서 전진하는 미군부대에 식량을 떨구어 사기를 돋구려 한것인데 굶주린 괴뢰군이 먼저 덤벼들어 둔덕우의 궤짝들을 사이에 두고 호상간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진것이였다.

《사격을 중지하시오!》하고 맥아더는 자제력을 잃고 고함쳤다. 《당장 이 추태를 중지시키오. 당장!》

《사격중지》를 알리는 구령소리들과 《총사령관각하가 나오셨다!》하는 웨침소리들이 한동안 둔덕쪽으로 날아갔다. 이쪽의 격렬한 총성이 그치자 저쪽 둔덕너머에서도 무슨 영문인가싶어 조용해졌다. 맥아더는 얼어붙은 눈더미를 밟으며 둔덕으로 올라갔다. 휘트니준장이 위험하다고 막아나섰지만 성난 눈길로 그를 밀

어던졌다. 여전히 기세높은 웰레스대위를 제외하고는 다들 주춤거리며 뒤떨어졌다.

발밑에서 눈더미들이 파헤쳐지고 마른 잡관목들이 와삭거렸다. 눈가루가 날려와 얼굴을 때렸다. 갑자기 눈앞의 돌무지에 탄알이 박혔다. 총성과 도탄되는 탄알의 아츠러운 회파람소리를 들은것은 그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심장이 덜컥 무너져내렸다. 등골로 줄달음치는 차디찬 전률을 느낌과 동시에 웰레스대위가 그 기세높던 긍지도 다 줴버리고 납작엎드리는것을 보았다. 그러자 맥아더는 자기 역시 그처럼 분별을 잃고 엎드렸다면 평생 지울수 없는 수치의 기록을 남겼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였다.

《통역을 부르오.》하고 그는 떨리는 목청으로 웨쳤다. 그리고 후들거리는 두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 한순간이라도 더 버티여내기 위하여 무섭게 긴장한 자세로 굳어져있었다. 통역이 나서서 무어라고 웨쳐대는 소리를 가까스로 분간해들었다. 그 다음 누군가 귀전에 대고 《각하, 그것들이 다 달아났습니다!》하고 속삭이기까지 악몽같은 순간순간을 지탱해냈다. 머리칼이 다 아파날 지경이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니 늙은 육체가 산산이 부서져나가는듯했다. 그러나 강심을 먹고 락하산이 달린 궤짝들이 있는데까지 다가갔다.

《열어보오.》

어느새 달려온 미군병사들이 총창으로 궤짝을 뜯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고 피곤과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의 누르께한 죽음의 음영이 비껴있었다. 추위도 아랑곳없이 사납고 광포한 열기로 궤짝들을 뜯어내거나 말 안듣는 고리쇠들을 두들겨부셔댔다. 맥아더는 침울한 눈길로 그 정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역시 무섭게 배가 고파나는듯이 여겨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궤짝들모두가 탄약상자, 수류탄들로 차있는것이다. 비명과도 같은 흐느낌소리가 터진후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닥쳐왔다. 기세높던 웰레스대위의 눈가에 무엇인가 번들거리는것이 보였다.

《대위.》하고 맥아더는 물었다. 《중대에 총탄은 넉넉하오?》
《아닙니다, 각하! 모두해서 다섯상자뿐입니다.》
맥빠진 대답이였다. 총공세에 나선 군인이라면 응당 이 상자들을 불안고 기뻐 날뛰여야 하겠으나 오히려 고통스럽게 이그러져있을뿐이였다.
그 순간 맥아더는 《보급로차단》이라는, 자기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을 최종적으로 격멸하기에 앞서 집요하게 추구해오던 작전이 상기되였다. 태평양상의 섬들에서 일본군 수비대들은 기아와 질병, 총탄의 부족으로 자멸하고말았었는데 오늘은 그의 병사들이 그 전철을 밟기 시작한것이였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하고 그는 미칠듯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방대한 공격력량이 그 출발선에서 벌써 이 지경에 달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말인가?)
배후에 남은 게릴라들에 또 생각이 미쳤다. 아니 그들은 그저 게릴라들인것이 아니라 조직된 력량, 정규군의 련합부대들이였다. 바로 그 련합부대들이 동서간의 작전적련계를 끊어버렸고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나는 **김일성**장군유격대 토벌에 직접 관계해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있다. … 그들과 싸우자면 전선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 유능한 작전가도 군사령관도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이 되고 만다. …》
전일본군 대좌 다께오의 말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비웃어 넘겼다. 다께오와 그의 《대일본제국》이 바로 맥아더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았던가… 웰레스대위의 병사들이 침울하게 모여서있는것이 보였다. 마음을 다잡아야 하였다. 그리고 창자가 비여있는 이 병사들— 공격의욕까지도 거덜이 난 이 병사들의 배를 불려주어야 했다. 한데 무엇으로?… 그 어떤것이든 지금 당장 줄수 있는것은 없을가?!…
《중대를 정렬시키오!》하고 마침내 맥아더는 거만한 시선을 높이 들었다. 전선에서 오래 싸운 병사들을 표창함으로써 전투의욕을 돋궈주리라고 생각한것이였다.

눈가루 날리는 둔덕에 백여명의 장교, 하사관, 병사들이 정렬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땅크와 자행포에 남은 병사들까지 모두 모이게 했다. 그러느라고 또 한동안 시간이 지체되였다.

맥아더는 낡은 군모를 비껴올리고 대렬앞에 나서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126일전… 바로 남조선에 상륙한 그때부터 계속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은 1보 앞으로 나오시오.》

그의 지시에 따라 대렬앞으로 나온 사람은 천만뜻밖에도 3명이였다. 게다가 두사람은 부상을 입고있었다. 맥아더는 126일간 계속 싸운 사람들에게 훈장을 달아줄 생각이였는데 몸이 성한채로 남은것은 부중대장인 와인중위뿐이였다.

《중위, 초기엔 중대성원이 몇명이였소? 상륙당시말이요.》 맥아더가 물었다.

《208명이였습니다.》

맥아더는 머리를 흔들었다. 한사람이나 부상당한자들까지 셋을 표창한다 하더라도 129명의 위를 불러줄 리유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그는 어리둥절해 정렬해선 중대를 남겨둔채 둔덕을 내리기 시작했다. 막료들의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뒤따랐다. 자그마한 둔덕이였으나 내리막길은 미끄러웠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는 에프중대의 백여명병사들이 바라보는데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끝내 눈더미에서 미끄러져 비틀거렸다. 당황망조한 막료들이 달려들어 거들어주려고 했으나 그는 말없이 한팔을 내젓고 가까이에 있는 마른 나무줄기를 잡아끌었다. 가까스로 로쇠한 몸을 바로세웠다. 이름모를 그 나무줄기가 끊어져 줌안에 남았다. 그는 그것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곧 신경질적으로 내던져버렸다.

맥아더는 평생 처음으로 전쟁의 전망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을 품고서 눈덮인 산발들을 바라보았다. 적은 지금 어데 있는가? 어데서 어떤 력량으로 무엇을 준비하는가?!… 아니 적의 력량은 가늠할수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민간인도 모두 군사인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맥아더는 문득 마쳐드는 이런 생각에 가슴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너무나 많은것을 모르고있었다. 총사령관이라는 권력을 쥐고 방대한 무력을 지휘하는 그였으나 바야흐로 도래하는 정세는 알수 없었다.

만일 그가 좀더 일찌기, 하다못해 하루전이라도 11월 25일 즉 이제 약 20시간이후부터 인민군대의 결정적인 반공격 즉 3계단 2차작전이 벌어지리라는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처럼 황량한 산기슭에까지 날아오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그의 머리우에 검은 구름장들을 낮추 드리우고있었다.

21

장자강발전소(독로강발전소)건설사무소 지배인이 리성조를 흔들어 깨웠다. 죽을 지경으로 피곤했던 리성조는 그의 말소리에서보다 안타까운 손짓으로 먼저 전화가 왔다는것을 어슴푸레 짐작했다.

《일어나우. 얼뜬 일어나라니까. 내각부수상 김책동지시오.》

리성조는 머리를 끄덕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지배인이 그에게 송수화기를 끄당겨주었다.

《어서 받소. 젠장！… 여보, 정신차리라니까. 김책부수상동지가 기다리시오！》

별안간 리성조는 침대우에서 벌떡 일어났다. 통나무의자들을 한데 겹친 침대가 기우뚱거렸다. 낡은 군대모포가 흘러내리고 머리맡에 놓았던 책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고나서 송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기사장 리성조입니다.》

《나 김책이요. 쉬는걸 깨운게 아니요？… 그렇다면 미안하게 됐소.》

《아닙니다. 부수상동지, 전…》 그는 지배인쪽을 향해 지금 몇시나 됐는가고 눈짓했다. 이제야 고작 10시 20분이라고 지배인이 입놀림으로 대주었다. 《전 아직…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부수상동지, 솔직히 말해 그만 정신없이 잠들었댔습니다.》

《수력발전전망계획은 어떻게 됐소?》

《다 끝냈습니다.》

사실 그때문에 며칠을 꼬박 밝혀온 그였다.

《수고했소. 기사장동무, 이거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킨게 아니요?》

《아닙니다. 부수상동지, 지금이 어느때라고…》

《그럼 설계도면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시오. 아직 그곳에 차가 가지 않았소?… 음, 이제 갈거요. 래일아침 내각청사에서 만납시다. 기사장동무의 숙식조건은 그 차를 타고간 사람이 다 조직해줄거요.》

김책은 송수화기를 놓았다. 수화구에서 울리는 덜컥 소리와 함께 뒤에 잇닿은 전류 흐르는 소리로 미루어 그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김책이 래일아침에 만나자고 하는 그것이였다. 내각에서라면 기다리겠다고 할것이였으나 차를 보내면서도 래일아침으로 미루는것은 어덴가 먼곳에서 전화를 걸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리성조는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한쪽구석에 놓인 바께쯔물을 떠서 급히 세면을 했다. 그가 지배인과 함께 일하고 자고 먹던 사무실바닥이 온통 물로 질벅해졌다. 별반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이건만 그는 조급해했다. 녀교원의 첫 강의, 시험비행사의 첫 리륙, 신인배우의 첫 출연이나 병사의 첫 출전이 그러하듯이 그는 자기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전쟁때문에 일시 중지되였던 여러 대상의 발전소건설방안을 이제 검토받게 되리라는것으로 몹시 흥분했던것이다. 늙수그레한 지배인이 그에게 수건을 내밀어주었다.

《소환이요?》

《글쎄요.》

《흠— 홀애비생활에 서로 정들가 하니 또 훌쩍 가버리는건가?…》

《원 걱정두, 이제 홀애비들살림을 더 멋지게 해봅시다. 내가 전기를 떠나서 가면 어데루 가겠다구 그러시오?》

이미 그사이 친숙해진 두사람은 서로 소리내여 웃어댔다. 전쟁의 제일 어려운 때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발전소건설에 어깨를 들이민 두사람이였다.

리성조는 말코지에 걸린 자기의 단벌옷과 코트를 입었다. 가스등불빛을 등지고 창문유리에 제 모습을 비쳐보려 하다가 그만두고 말았다.

(내각에서 계획을 검토하는것일가? 아니면 혹시?!…)

그러자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맹중리에 가서 송전작업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친히 전화를 거시여 그의 성공을 축하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었다.

《고생이 많았겠소. 성조동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밖에 해줄것이 없는데 량해해주시오.》

봄시위같이 세찬 격정이 그때 그의 가슴에 소용돌이쳐흐르고 있었다.

《장군님! 저에겐 그이상 더 큰 표창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든 또 맡겨주십시오. 제 힘자라는껏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장군님! 이제는 산도 떠옮길 힘이 솟습니다!》

《좋소. 그러리라고 믿었소.》

그이께서는 군수공장들에 걸려있던 난문제를 풀었으니 이제부터는 전후 수력발전총계획을 완성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리성조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왜 그러오?》하고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장군님!… 너무 뜻밖에… 아름차서 그만…》

《성조동무, 우린 아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헤쳐가야 하겠지만 래일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오. 그때에 가서 또 전기가 걸리면 어떻게 하겠소. 기사장동무를 또 어데 들여보내여 전기를 끌어오라고 할수도 없지 않소!》

그이께서 웃으시였다. 리성조 역시 그 호탕한 웃음에 이끌려 따라웃었다.

《동력문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오. 통이 크게 전후수력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해보시오.》

《알겠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믿소. 성조동무, 잘 해보시오.》

그때 리성조는 자기가 운명의 전환점에, 분수령에 올라섰음을 느꼈다. 불현듯 초인간적인 힘으로 기적을 향해 내닫고싶은 욕망을 걷잡을길 없었다.

하여 그는 잠도 휴식도 다 잊고 일에 몰두하였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유능한 설계일군들, 건설전문가들과 함께 대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을 예견한 총발전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제 이것을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실것이다!…

난로안에서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탁탁 불꽃을 튀기는 소리, 부글부글 진액이 끓어번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는 책상우에 도면을 펴놓았다.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린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의 일이였다. 도면두루말이를 안고 달려나간 리성조는 차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우뚝 멋어섰다. 뜻밖에도 그는 병기생산국 서병호국장이였다.

《오래간만이요. 기사장동무, 내가 모시러 왔소!》

그는 앞좌석을 가리키며 웃어보였으나 리성조는 말없이 뒤좌석쪽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서국장은 그의 곁에 자리잡았다. 한동안 이런저런 인사말들에 마지못해 대꾸하던 리성조는 코트깃을 올린채 덤덤히 어둠에 잠긴 황량한 산기슭을 내다보았다. 웬일인지 그는 대범하고도 사나운 정열을 가진 서국장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군했고 그것이 비위에 거슬렸다. 딱히 찍어 말할수 없는것이지만 체소하고 병약해보이는 그의 몸 어데선가 로동의 체취와 모루를 때리는 메질소리같은 금속성이 날카롭게 울리는듯싶었다.

날씨는 뼈속까지 얼어드는듯 맵짰고 밤길은 험하였다. 낡은 《윌리쓰》는 차체에서 끊임없이 삐걱소리를 내면서 돌멩이를 타고

넘을 때에도 요란스레 들추군했다. 오랜 시간의 침묵이 있은후 승용차가 넓은 신작로에 나섰을 때에야 서국장이 또 입을 열었다.

《기사장동무, 그새 정말 수고가 많았소. 그런데 난… 분별없이 날뛰기만 하면서 일을 쓰게 못했소. 이제 와선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소.》

리성조는 잠자코 있었다. 그것이 진정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성실성의 외피로 감싼 넉두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소란스레 한숨을 내뿜던 서병호가 그의 무릎에 옹이 박힌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왜 말이 없소. 기사장동무? 나때문에 부인까지도 집을 나갔으니…》

《그 일은 건드리지 마시오!》

어리무던한 리성조로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였다. 서병호는 조심스럽게 그를 곁눈질했다.

《좋소. 그만둡시다. 그렇지만 기사장동무, 모든것이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련관속에 놓여있는만큼 나는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켜보면서…》

리성조가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국장동무! 그런 얘길 왜 나한테 하는겁니까?》

《그럼 기사장동무 생각엔 어떻게 하는게 좋음직하오?》

《나같으면…》

리성조는 곧 입을 다물어버렸다.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는다면 그가 혹시 지난날에 대한 앙갚음처럼 여길가봐 주저한것이였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서병호는 무척 대범한 편이였다.

《원, 인테리들이란!… 뭘 그리 오밀조밀하는거요. 툭 털어놓고 얘기하구려.》

《그럽시다.》 리성조는 한쪽구석으로 약간 몸을 돌렸다.

《나같으면… 그 사업을 직접 맡아보는 김책부수상동지한테 찾아갔겠습니다. 찾아가서 정식… 제기했을겁니다.》

《무엇을? 뭘 제기한단말이요?》

《해임시켜달라는 제기지요.》

《그건 왜?!》

《글쎄요.》 리성조는 추운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야 국장동무가 더 잘 알고있을텐데… 그런것까지 나한테 묻습니까?》

《?!…》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였다. 웬일인지 리성조는 숨이 답답해지고 시간마저 한정없이 느린것처럼 생각되였다. 두눈가까이 손목시계를 가져다대고 겨우 문자판을 가늠해보니 출발한지 15분도 되나마나했다. 그때 서병호가 또 그의 무릎을 짚었다.

《고맙소. 기사장동무, 솔직히 말해줘서…》

《?!…》

《나도 그렇게 생각했댔소. 기사장동무처럼 그렇게 생각하구… 제기를 했소. 그런데 이틀후 김책부수상동지가 벼락같이 나를 호출하더니만… 호되게 책망하는게 아니겠소. 정말이지 또한번 진땀을 뺐소. 그분의 말이… 장군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노하셨다는거요!…》 무릎을 짚고있는 그의 손바닥이 떨리는듯했다. 목소리도 떨렸다. 《장군님께서는 어쩌면 그 동무가 그렇게 옹졸할수 있는가, 지금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때 과오가 있었다 해서 스스로 못하겠다고 물러서는것이 말이 되는가! 혁명이 어려운 때 못하겠다고 물러서면 파멸의 길로 굴러떨어질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다는거요.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과오는 있을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제때에 깨닫고 바로잡는것이다, 자기의 과오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현명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동무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자, 비록 과오는 있었지만 그 동무에게 헌신분투하는 열정이 있다, 이것이 귀중하다, 일단 혁명의 길에 나선이상, 반당분자가 아닌이상 우리는 끝까지 손잡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오.》 그는 부지중 목구멍에서 흐느낌소리처럼 새여나오는것을 삼키며 부르짖었다. 《나는 다시 태여났소. 나뿐만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여나고있는것이겠소. 기사장동무, 그렇지 않소? 기사장동무 역시 그 품속에서 새 인간으로 다시 태여난게 아니란말이요?!》

리성조는 어느결에 그의 손을 힘껏 부여잡고있었다. 발전소건설사무소에서 열띤 흥분속에 더듬던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였다. 우

리는 다시 태여났다！…

두사람은 이윽토록 손을 맞잡고있었다. 승용차는 목적한곳에 이미 들어서고있었다.

얼마후 강계시 연풍동의 림시내각청사 기요실에 도면과 문건들을 맡기고 나온 리성조는 서국장의 안내로 숙소인 서산동의 《영일려관》까지 다시 차를 타고갔다. 차에서 내리면서 서병호가 말했다.

《나는 다시 560호공장에 가봐야 하오.》

리성조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 밤중으로 또？…》

《일없소. 걱정마오.》 서병호는 청높은 소리로 말하며 웃었다. 《아직 이래뵈도 구형강처럼 단단하오.》

《…》

리성조는 덤덤히 서있었다. 처음으로 그를 향해 정깊은 목소리로 좀 쉬고 가라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서국장이 또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껏 아껴둔 말이 있는데… 기사장동무, 따님 소식을 들은적 있소？… 그럴테지, 이 전쟁통에 어데서 들어보았겠소. 기사장동무의 따님이 최현군단장의 담당간호장이라누만！》

《예？…》

리성조는 서국장이 그걸 어떻게 알랴 하는 생각에 머리를 기웃거렸다.

《왜 믿어지질 않아서 그러오？》 서국장이 또 토막웃음을 터뜨렸다. 《내 말을 믿소. 따님 이름이 리숙 아니요？… 그것보오. 지금 적후에 있소. 최현군단장이 장군님께 올리는 전투상보끝에 적구에 들어가 전기를 끌어온 전기기술자의 따님이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하고 적어넣었다는거요.》

《아니 그럼？！…》

《어디 그뿐인줄 아오？ 최현군단장은 이제 적후투쟁을 끝내고 장군님을 찾아뵈올 땐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다지 않소. 장군님께서 몹시 기뻐하셨다고 김책부수상동지가 말해주더군. 그

러면서 동무를 만나면 꼭 잊지 말고 전해주라고 했소!》

《!…》

리성조는 웃는지 우는지 알수 없게 입을 벙글써 하고 서서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웬일인지 그냥 속이 떨리고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 세상 제일 귀한 자기의 사랑, 이쁘고 정답고 들끓는 정열을 지닌 사랑하는 딸 리숙!… 네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을뿐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도 미치지 못할 큰 사랑에 받들려있구나!… 눈에서 눈물이 끓었다. 그는 서병호국장이 어깨를 잡아끌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서있었다.

《자, 추운데 인젠 들어가보오.》 서국장이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요. 려관에 들어가면 기사장동물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그는 여전히 얼떠름해있는 리성조를 문앞에까지 들여세운후 군대식으로 한손을 들어 인사하며 돌아갔다. 차에 올라 문을 닫기전에 또 한번 손을 내저었다. 이어 차는 떠났다. 희미한 불빛에 비추인 지푸래기들이 눈가루와 뒤섞여 비비 꼬이며 사라져갔다.

접수실의 온돌방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눈두덩까지 머리수건을 눌러쓴 장영실, 까만 비로도치마저고리우에 허름한 솜옷을 걸치고있었다.

려관주인은 리성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말 없이 버티고있는것을 보자 우정 너스레를 떨었다.

《아, 내각에서 잘 모시라던 그분이였구려. 저리 가십시다. 선생방은 맨끝에 준비해놓았수다.》

그때에야 장영실이 머리를 들었다. 그는 리성조가 온다는것을 미리 알고있은것 같았다. 조심히 주의깊게 그를 보고있었다. 별안간 리성조는 심장이 아프게 죄여드는것을 느꼈다.

《어서 가십시다.》 려관주인이 또 말했다. 《불도 때놓구 이부자리도 새것으로 준비해놓았수다.》

《…》

리성조는 여전히 얼어붙은듯 서있었다. 장영실도 무릎을 짚고 허리를 폈으나 리성조의 괴이한 표정에 어찌할바를 몰라 주춤거

렸다. 려관주인은 그들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요란스럽게 헛기침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안녕하세요?》 먼저 장영실이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다. 《그새 몹시 축가셨군요.》

《…》

여전히 리성조는 입을 열지 못했다. 가슴은 후둑후둑 아프게 뛰놀고 머리속도 헝클어져 뒤죽박죽이였다. 웬일인지 숨을 들이그을 때에조차 속이 뜨끔뜨끔해나군했다.

《왜 말이 없으세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것도 묻지 않는군요.》 장영실이 눈을 내려깔며 말했다. 입술을 깨물고 가볍게 한숨을 내긋고 여전히 아릿다운 얼굴을 찡그리며 또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말해드리죠. 전… 친정으로 갈가했댔어요. 이 전쟁을 피해서… 가고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들쓰고있는 그 오명과 굴욕도 피해서… 멀리 달아나려 했어요.》

그러니 그 녀자는 자기의 과거를 찾아 헤맨것이다. 사람들이야 피흘리며 싸우든말든 자기의 헛된 꿈이 자란 그 아늑한 과거에로 도피하려 한것이였다.

리성조는 첫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 차츰 랭정하게 자신을 다잡을수 있었다. 그의 표정을 살피던 장영실이 말을 이었다.

《난생처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리성조가 입을 열었다. 랭랭한 어조였다.

《어떻게 찾아왔소?》

장영실은 놀란듯했다. 어깨를 옴츠리며 죽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뭐 찾아오면 안되나요?》

《안되긴?!… 당신은 집을 나갈 때에도 뭐 나더러 물어보고 나갔소?》

《노하셨군요. 무척…》

리성조는 머리를 흔들었다. 노하다니!… 그것을 단순히 노했다는 말로 표현하는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사랑에는 노한다는것이 없다. 너무 아픔이 커서 증오할수는 있을지언정 노한다고 하

지는 않는다.

잠시 둘은 말없이 덤덤히 있었다. 이 침묵의 괴로움을 참다못해 장영실이 우정 밝은 어조로 례사롭게 말했다.

《어제 서국장동지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더군요. 당신이 큰 과업을 받았다는 소식이랑 다 알려주면서… 전후 수력발전총계획도를 거의 마무리짓는다면서 그 사람도 기뻐하더군요. 참, 소식을 들었어요? 리숙이, 우리 숙이가…》

리성조는 흠칫했다. 그 충격이 어찌도 컸던지 장영실도 입을 다물어버렸다. 리성조는 한손을 뻗쳐 벽을 짚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버티고 서있었다. 서국장이 알려주던 그 말이 귀전에 쟁쟁했다. 우리 리숙이 최현군단장과 같이 있다. 적후투쟁을 끝내고 장군님을 찾아뵈올 때 같이 온다. 장군님께서도 몹시 기뻐하셨다!… 헌데 그 소식을 지금 장영실이 또 외우고있다.

리성조는 무엇인가 뜨끔하니 깨무는것 같은 가슴을 한손으로 더듬어 눌렀다. 피흘려 싸워 오늘의 이 기쁨을, 상봉의 기쁨을 가져오고있는 우리 리숙이 이것을 알면 무어라 할가. 우리의 상봉에 이 녀자가 끼워들 자격이 있을가? 리숙이 그걸 허용할수 있을가?… 그는 타는듯 터갈라드는 입술을 추기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게 당신한테… 그리도 중요한… 그게… 그다지나…》

말이 되지 않았다. 격앙된 심정에 가슴속에서 눈보라가 일고 있었다. 듣다 못해 장영실이 물었다.

《무슨 말을 하시는거예요. 예?》

《당신이야 이 전쟁에…》 리성조는 헐떡이였다. 그러면서도 모지름을 쓰며 기어이 하던 말을 이어갔다. 《땀 한방울 바치지 않았는데… 우리 그애가 알면… 뭐라겠소.》

《그래도 전… 당신의 안해이고 또… 리숙이 어머니죠.》

《얼마전까진 그랬었지, 하지만 인젠 아니요!》

《뭐예요?…》

장영실은 뛰쳐 일어났다. 별안간 두손으로 가슴을 부여잡더니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였다. 한순간 무엇인가 찾는듯 두리번거리더니 풀어진 머리수건을 다시 동였다. 그리고는 똑바로 리성조를

바라보았다. 타는듯한 마지막기대, 두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다시 말해보세요.》 그 녀자는 겨우 속삭이고있었다. 《그러니 인젠… 다 끝장이란 말예요?》
《그렇소!》
장영실은 비틀거렸다.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한손으로 입을 싸쥐고 다른 한손으로 문고리를 더듬어 잡았다. 문이 버글써 열리면서 찬바람이 휘—쓸어들었다. 그러자 그 녀자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그 흐느낌소리에 리성조는 견딜수 없었다. 그러나 끝내 참았다. 자기의 모진 마음이 어데서 오는것인지도 모르며 입술을 꽉 악물고있었다.
마침내 장영실이 머리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을 리성조는 바라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그 녀자는 흐느낌소리와 더불어 이렇게 물었다.
《그래도 당신은… 저를 사랑하죠? 예?…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말이… 옳을수도 있소.》
《그리구 당신은… 나를 기다렸지요?》
《그렇소.》
리성조는 괴롭게 신음소리를 냈다. 처음으로 그는 모든것을 다 털어놓고 말해주고싶은 생각이 났다.
《기다렸소.》하고 그는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기다려도 무척 애태우며… 기다렸소. 인입선공사장에 나가있을 때… 특히 밤중이면 20리나 되는 그 집으로 돌아가보군했소. 오늘 가면… 당신이 있을거라고, 오늘은 돌아와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발이 얼고 기진맥진해서 비틀거리면서도 매일… 가보군했소. 그러나… 당신은 없고 싸늘한 빈 방만… 난 불도 없이… 누워서 또 기다렸소. 이따금… 남의 발자국소리에도 소스라쳐 놀라서 깨여나군했드랬소.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발자국은 지나가군했소. 어데선가 밤교대를 마친 사람들이 서로 다정히 말을 주고받으며 지나갈 때마다 더욱 마음이 괴로왔소. 하루는 주인집의 나어린 처녀애가 〈아저씨, 추운데 들어가계셔요. 암만 기다려두… 오지 않아요.〉하고

말해서야 나는 명백히 깨달았소. 모든 사람이 다 알고있는것을 나만은 모르고있었구나 하고 말이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소. 당신과의 생활은 벌써 흘러간 과거에 속하는것이였단말이요. 래일에로 이어지지 않는, 영영 가버리고만 과거였소. 가만있소. 내 말을 막지 마오. 그때… 내가 무엇을 바랐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댔는지 아마 당신은… 상상도 못할거요. 그날부터 나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소. 아니, 결심한게 아니라… 더 기다릴 리유도 없는것이였지. 나의 생활에서 제일 어려웠던 때, 가장 사랑이 필요했던 그때 당신은 멀리 가있었소. 그저 곁에만 있어주어도 힘이 되였을 그때에도 당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소.》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련한체하지 마오. 령리한 당신이 내 말을 리해하지 못할리 없소.》

《난… 앞날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떠난 길이… 이렇게 오기까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난 처음으로 자신을 모질게 책망했어요!》

리성조는 아프도록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먼 인정에 끌리는 자신을 다잡고있었다.

《하지만… 인젠 늦었소. 얼마전 내가 적후로 들어가기전까지만 해도 가능했었지만.》

《알겠어요. 당신만 가슴이 아팠단말이지요. 당신만 새 생활을 찾았단 말이지요!… 아니, 나도 체험했어요. 그리구 새 생활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어요. 사람들이 싸우는걸 보면서… 어른들이구 아이들이구 다 하나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억척스레 싸우는걸 보면서… 제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속에서 가련한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은연중 나를 구원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일도 했어요. 길닦이도 하구 다리놓는데도 나가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건… 지난날의 허물을 감싸려는게 아니예요. 변명두 아니구요. 당신은 생활을 잘 몰라요. 녀자들에 대해선 더욱 그렇구… 녀자들이 새로와진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당신은 영원히 모를거예요!》

그 녀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를 바라보면서 리성조는 사뭇 놀랐다. 확실히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녀자는 전날의 장영실이 아니였다. 과연 이 전쟁이 변형을 모르듯싶던 저 녀자의 심장마저 세차게 흔들어놓은것일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손끝을 떨고있는 녀자를 지켜보느라니 입안이 타드는듯했다. 하지만 사랑의 상처를 입고있는 그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져서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는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지었다. 그렇다. 사랑은 다시 오지 않을것이다. 전날의 사랑은 애달픈 여운만 남기고 영영 가버렸다. 그 녀자는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안고왔지만 사랑은 되살리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속으로, 이미 리성조가 영원히 결별해버린 그 과거속으로 잦아들었다.

리성조는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섰다. 조용히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억눌린 흐느낌도 숨소리도 없는 무거운 적막뿐이였다.

22

맵짠 추위가 대기를 옥죄고있었다. 칠성산너머로 흘러가던 구름쪼각들이 얼어붙은듯 움직이지 못했다. 처마끝에 길게 드리운 고드름은 서리찬 창끝처럼 날카로왔고 언땅을 굴으는 달구지바퀴소리는 아츠럽게 들려왔다.

오후였다. 길가에서 송아지가 음메— 하고 울었다. 어느 농가에서 솔가리를 태우는 냄새가 풍겨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옆의 벽쪽에 걸어놓은 지도를 바라보고계시였다. 강하천을 위주로 그린 단조로운 조선지도였다. 그옆에 리성조가 서있었다. 지금 그는 전후의 수력발전총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있었다.

얼마전 최현이 와서 손을 대고 짚어보던 림성골의 이 집— **김일성**동지께서 집무실로 쓰시는 맨웃방은 온기가 적었다. 그러

므로 그이께서는 여느때처럼 어깨우에 외투를 걸치고계시였다. 맞은쪽 벽가에는 김책이 앉아있었는데 그는 제자의 론문발표를 지켜보는 스승과도 같이 긴장되고 초조해하는 표정이였다.

리성조는 몹시 흥분하고있었다. 어찌보면 추위를 타는것 같기도 했다. 자기가 그린 지도에서 북부의 여러 강하천들과 예견하는 발전소위치를 짚을 때마다 손끝을 바르르 떨군했다. 어깨를 옹송그리고 벅차게 숨을 내긋는가 하면 말이 막혀 한참씩 갑자르기도 했다. 그때마다 김책은 난감해하고 낮게 기침소리를 내거나 손가락으로 책상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애써 준비한 전후수력발전계획이 장군님께 만족을 드릴수 있겠는가 하는데 전념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계시였다. 리성조가 가리키는 지도의 강하천들을 주의깊게 보시였다. 그 강줄기들을 리성조는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보았다. 정든 고향길처럼, 추억의 오솔길처럼 하나하나 더듬었고 밟아보았다. 그리하여 지금 그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래일의 발전소위치를 짚으며 그 전망을 확신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사람들— 재능이 있고 아름다운 꿈이 있고 깨끗한 량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껴야 한다. 이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의 량심을 믿으며 꿈을 꽃펴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성조의 설명을 귀담아들으며 줄곧 생각하시였다. 일신상에서는 따뜻한 정을 잃고 사는 리성조이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만큼 그의 가정생활을 념려하시지 않을수 없었다.

요즘 리성조는 일에 몰두하는것으로써 마음속 괴로움을 잊으려 애쓴다고 한다.

그는 사랑을 잃었고 가정은 깨여졌다. 남은것은 적후에서 싸우고있는 딸 리숙이뿐이다. 그 리숙이 최현과 같이 오면… 그래, 꼭 그렇게 함께 오도록 하여 부녀간의 상봉을 마련해주자. 나아가서 헐겁게 물려진 그의 가정을 새로 튼튼히, 굳건히 맺아주고…

고요했다. 리성조는 손을 내리고있었다. 단조롭게 울리던 말소리도 없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 모든것을 느끼지 못하고계시였다.

《장군님!》 김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어느덧 리성조는 입을 다물고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눈을 슴벅거리며 가슴을 조이며 그이께서 무슨 말씀이 계시겠는지 해서 기다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벽에 걸린 지도를 다시금 눈여겨보시였다. 래일의 수력발전소를 표시한 밝은 불빛들이 오불꼬불한 강하천들에 그려져있다. 깨끗하고 또 어찌보면 아름다운 지도였다. 여기엔 그이께서 매일 매 시각 펼쳐보시는 작전지도에서와 같은 적아간의 경계선, 돌출부, 지탱점, 공격방향, 톱날형의 대치선, 붉고 푸른 화살표들이 없다. 꿈과 념원, 밝은 래일과 리상이 있을뿐이다!…

《좋소!》

마침내 그이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리성조의 얼굴에, 김책의 얼굴에도 밝은 빛이 확 피였다. 그이께서는 리성조의 손을 잡아 의자쪽으로 끄당기시였다.

《수고했소. 성조동무, 난 방금…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보았소. 정말 고맙소!…》

《장군님!》 리성조가 부르짖었다. 《저희들은 그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계획을 세워보았을뿐입니다.》

그의 눈가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핑— 어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도 웬일인지 가슴이 쿡 쑤시는것을 느끼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깡그리 바치기로 결심한 이 인테리, 편협한 사람들에게서 수모도 받고 버림까지 받았지만 한사코 당을 따라온 사람이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자리에 앉히고 벽에 걸렸던 전망도를 상우에 펴놓으시였다. 엷은 문창호지가 된추위때문인지 바르르 떨었다. 장군님께서는 그 문 가까이 옮겨가시였다. 땡땡 얼어붙은 밖의 적막에 귀를 기울이는듯 잠자코 생각에 잠기다가 몸을 돌리시였다.

《성조동무, 오늘 모처럼 기회가 생긴김에 내 한가지 부탁을 할가 하는데…》

리성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눈빛이였다.

《장군님!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주신

다면 저는…》

《부탁이요. 그저 한가지만…》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리성조를 마주 보시였다. 《부인이 찾아왔댔다는 말을 들었소. 그를… 용서해줄수 없을가?…》

리성조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별안간 쓰라린 아픔을 상기한 모양이였다. 그는 두손을 꽉 마주잡으며 괴롭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어쩌면 그런 하찮은 일로 장군님께서!…》

《아니요. 이건 중대한 문제요.》 그이께서는 나직하나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의 부인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왔는지 모르오. 비록 한때는 일시적인 애로와 난관에 못이겨 집을 나갔댔지만… 어쨌든 돌아오지 않았소.… 왜 돌아왔겠는지 생각해봤소?… 그는 지금까지 자기자신이나 남편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롱당하고있다고 생각해왔을거요. 곡절도 없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소. 하지만 정작 준엄한 전쟁을 겪고있는 사람들속에 뛰여들어보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낡고 비좁은 자기 개인의 울타리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게 됐을거요.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 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벌리고있는것을 보고 왜 생각이 없었겠소. 멸시받고 우롱당하고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 무거운 임무를 맡고 사업하는걸 보고 왜 생각이 없었겠소. 그래서 그는 돌아왔소.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바라며… 돌아왔소. 그래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소?…》

리성조는 눈물에 젖고 흥분으로 하여 상기된 얼굴을 이지러뜨리며 입을 실룩거리고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북받쳐오르는 울음을 겨우 참고있었다. 그러한 그를 지켜보면서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우린 어려운 전쟁을 겪고있소. 사람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있소. 이런 때일수록 우린 사람들을 아끼고 돌봐야 하오. 우선 가까운 사람들부터 진정으로 아껴주어야 하오. 우리가 피흘려 싸우는 목적이 인민을 위함인데 인민이란 뭐겠소. 인민이란 우리의 부모처자들로부터 시

작되는것이요.

성조동무, 나는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부모와 동생, 많은 귀중한 동지들을 잃었소.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못다한 지성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다지군했소. 너무도 일찌기 내곁을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자, 아무도 우리 인민을 욕되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자, 더는 우리 인민이 눈물을 모르게 하자, 더 억세고 더 존엄있게 내세우기 위해 나의 한생을 다 바치자! 이렇게 말이요. 이런 심정이 동무의 부인도 생각하게 했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쫓지 않는 법이요. 성조동무, 나는 리숙이도 이걸 바라고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 순간 리성조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장군님!》하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김책도 자리에서 일어나있었다. 별에 탄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즐펀했다.

장군님께서는 리성조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그러리라고 믿었소. 성조동무, 이제 리숙이 싸움을 이기고 돌아오면… 모두 둘러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요. 나도 참가하겠소. 정말이요!…》

《장군님!—》

리성조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거침없이 떨어져내린 눈물이 그가 온갖 정성을 다해 그린 지도를 적시고있었다. 그리하여 오불꼬불한 강하천들에 새긴 붉은 별들이 빛을 뿌리며 푸른 물결을 흔들어댔다. 승리한 래일의 발전소 불빛들이 금시 살아나는듯했다.

저녁 8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일에게 전화로 물으시였다.

《최고사령부 작전적예비대인 제118군부대가 언제 기동을 하오?》

《오늘밤 향산방향으로 나갑니다.》

《거기 나가보겠소. 남일동무도 준비하시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예비대가 기동을 시작함은 새로운 반공격의 준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멀고도 험한 길이였지만 밤중으로 군부대를 지도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서시였다. 그때 맞은편 고간을 손질해쓰는 부관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슨 즐거운 이야기가 오고갔거나 재미난 일이 있는 모양이다. 나날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관실문을 여시였다. 순간 부관장과 부관들, 김비서와 오영혜 등을 보시였다. 그들은 모두 벽에 붙인 자그마한 조선지도를 두고 떠들던중이였다.

《장군님, 새 지도를… 그렸습니다!》

오영혜가 얼굴을 붉히며 벽에 붙인 지도를 가리켰다.

《음—》

장군님께서는 지도를 가까이 들여다보시였다. 흰 종이에 알뜰한 솜씨로 정성들여 그린 지도, 작은 기발들이 청천강류역의 정주, 안주, 개천, 구장, 향산을 거쳐 장진, 부전쪽으로 쭉 그려져있었다.

《그런데 제2전선의 전투지점들은 왜 없나?》

그이께서 물으시자 오영혜는 난감해했다.

《저… 장군님! 거긴 너무 복잡해놔서…》

《너무 복잡하다?》

《예, 오늘은 해방했다가 래일은 또 내주고… 한곳에서만도 몇번씩 전투가 벌어져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음— 그것도 연구해봐야겠군.》하고 그이께서는 웃으시였다. 《차라리 여기 적후투쟁지구는 붉은색으로 칠하는게 어때?…》

《아이 정말?!》

그이께서 또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여기 금천, 장풍, 련천, 철원, 이천, 화천!… 이 넓은 지역을 우리 제2전선부대들이 장악통제하고있소. 청천강류역의 승리도 제2전선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지… 영혜도 소식을 들어 알겠지만 얼마전엔 여기 곡산에 있는 놈들의 비행장을 들이쳐서 수

십대의 적기를 파괴하고 불바다로 만들었소. 공중우세를 자랑하는 놈들을 땅우에서 요정냈거든!…》

그이께서는 학습장크기의 작은 지도앞에서였지만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고계시였다. 적후에서 싸우는 전사들에 대하여 크게 내세우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이시였다.

《그런데… 영혜!》하고 그이께서 웃으며 또 말씀하시였다.

《이런 지도를 내 방에도 하나 그려붙이지 않겠나?!》

《어야나!》 오영혜가 놀란 소리를 질렀다. 《장군님 집무실에야 큰 작전지도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거야…》

《그래도 내겐 이 지도가 퍽 마음에 드는걸!…》

《아이, 장군님!…》

지금 그이께서 무엇보다 더 반가우셨던것은 한 기술서기에 불과한 나어린 이 처녀까지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분명히 깨닫고있는 그것이였다. 그리하여 후퇴가 시작되면서 소리없이 사라졌던 지도대신 반공격의 새 지도를 그려붙인것이다. 처녀의 마음속에 어느덧 승리의 봄이 오고있었다!…

밖에서 승용차 멎는 소리가 났다. 남일이 도착한것이다.

…이날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조직된 후비부대들의 공격선진출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얼어붙은 길을 가득 메우며 총을 멘 병사들의 대오가 흘러가고있었다. 땅크들이 굴러가고 포차들은 불도 켜지 않고 꼬리를 물고 전선으로 나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야밤의 맵짠 칼바람을 가슴 가득히 들여마시며 눈덮인 둔덕우에 서계시였다.

(얼마나 고대해온 이 시각인가!)하고 가슴후덥게 생각하시였다.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바쳐 앞당겨온 이 시각인가!… 하지만 아직도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많은 피와 땀을 바쳐야 한다.…)

총멘 전사들의 대오는 끝이 없는듯했다. 한결같이 새 군복차림에 새 기판단총을 메였다. 반땅크총을 앞뒤에서 같이 메고 가는 사수와 부사수, 중기관총 총차를 걸머진채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보는 전사도 있었다. 박격포병들이 길마를 진 포마들과 같이 지

나갔다. 그들의 등뒤에서는 하얀 눈가루들이 바람에 날리며 차디찬 별빛에 반짝이였다.

드디여 그날이 왔다. 11월 25일, 바로 적들이 《크리스마스총공세》를 시작한 다음날 주타격방향인 전선서부에서는 오래동안 애써 준비한 반공격이 시작되였다.

바야흐로 엄혹한 조선의 겨울이 한창이였다. 울부짖는 포성과 더불어 청천강에서는 얼음장이 쩡—쩡 터져갈리는 소리에 맹수들조차 치를 떨었다. 《크리스마스총공세》의 장엄한 포성에 발맞춰 산병선을 폈던 침략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눈보라속에 묻혀버렸다. 18만여명에 달하던 미제8군의 주력이 붕괴되고있었다. 살아남은자들은 상부의 명령도 없이 제가끔 살구멍을 찾아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바빠맞은 맥아더는 11월 28일밤, 워커와 알몬드 등을 도꾜에 불러 《도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맥아더는 참패를 인정하고 평양—원산계선으로 퇴각할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본국에 7만 4,000명의 병력보충을 긴급요구하였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미국본토에는 82공수사단밖에 없고 유럽에서도 이동시킬수 있는 병력이 겨우 1～2개사단병력밖에 없으므로 그 요구를 들어줄수 없다고 했다. 미제8군은 막다른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맥아더는 미제1군단, 9군단을 빨리 퇴각시켜 평양일대에서 방어를 조직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천강계선에 진출한 아군련합부대들로 하여금 적에게 새 방어선에서 저항할 시간을 주지 말고 재빨리 청천강을 건너 퇴각하는 적들을 추격소멸하게 하시였다. 한편 제2전선의 최현군단지휘부에 련락군관을 파견하시였다. 드디여 제2전선부대들이 결사전을 벌릴 때가 박두해온것이였다.

23

만성적인 최현의 병은 정신육체적으로 과로할 때 그리고 오래

동안 추위속에서 지낼 때에 특히 더했다. 고열과 심한 경련을 동반한 그 병세는 흔히 4～5일간, 때로는 1주일나마 계속되군했다.

그날도 최현은 자기의 육체를 게염스럽게 좀먹기 시작하는 병세때문에 불안해하고있었다. 특히 오늘래일중으로 최고사령부에서 파견한 련락군관이 도착하게 되여있어 더욱 안달복달하고있었다. 그는 벌써 군단내 여러 중급간부들과 인민유격대 대장들까지 불러놓고있었다. 련락군관이 전쟁제3계단의 작전적방침과 기본전선의 반공격에 배합한 제2전선부대들의 전투임무를 가지고 올것이 틀림없기때문이였다. 이 중대한 시각에 또 주기적인 병세가 발작하기 시작하였다. 최현은 이를 악물고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곁의 사람들이 자기의 병증세를 눈치챌가봐 각별히 조심하였다. 특히 일단 맘만 먹으면 최현으로서도 어쩔수 없이 혀를 내두르게 하고야마는 리숙을 떼여버릴 구실을 찾고있었다.

그러는차에 련락군관이 도착하였다. 오후였다. 5명의 끌끌한 자동총수들이 작전국방향참모를 호위해왔다. 전선을 돌파하여 수백리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얼굴은 거뭇거뭇하였고 신발과 솜옷바지가랭이에서는 얼음이 와삭거렸다. 최현은 어깨에 걸친 털외투깃을 활 펴들며 차가성을 가진 방향참모를 부둥켜안았다.

방향참모는 한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 밤낮 눈속을 헤치고 칼바람을 맞으며 달려온탓에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섭과 턱수염우엔 허옇게 성에가 불려있었다.

최현은 손수 그를 지휘부가 자리잡은 민주선전실로 데리고 들어가 몸을 녹여주며 장군님께선 건강하신가,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조급히 묻고 또 물었다. 방향참모를 호위해온 자동총수들에게까지 그는 손수 더운물을 고뿌에 따라주었다. 병사들이 송구해하자 그는 어성을 높였다.

《어서 들라구.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사절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군단장이 부어주는거야！》

고뿌에 가득 부은 더운물은 그들의 속을 덥히게 할 작정으로 최현이 따로 준비하게 한것이였다.

얼마후 민주선전실에서는 군단군정간부회의가 열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쟁제3계단의 작전적방침과 제2전선부대들의 활동방향이 전달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전쟁제3계단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38도선이남으로 몰아내면서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의 력량을 소멸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력량을 튼튼히 갖추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제2전선부대들앞에는 주력부대들의 반공격에 합세하여 맹렬한 배후타격을 벌리며 적들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가로막고 큰 포위환을 형성할데 대한 작전적방침이 제시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전선의 기본력량을 전선서부의 대동강, 림진강 류역에로 기동시키며 일부 부대들은 전선동부에서의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동해연선으로 적극 진출시킬것이 명령되였다.

최현은 자기의 병세도 잊은듯했다. 대동강,림진강 류역에로 기본력량을 즉시 기동시킬데 대한 구절을 거듭 읽었다. 그는 이것이 비상히 중대한 사변을 의미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말라터진 입술을 혀로 추기며 벅찬 흥분에 몸을 떨었다. 장군님께서 적후의 제2군단을 주타격방향의 작전에 불러주신다고 생각하니 흥분을 이길수 없었다.

그는 장군님께서 주신 작전방침에 준한 전투 및 기동계획을 세우고 련합부대,독립부대들의 임무를 확정하였다. 이어서 각지의 여러 유격대 대장들과 협의하였다. 북강원도의 거의 모든 인민유격대장들이 모여왔었다. 회양과 평강,이천,철원,세포,화천 인민유격대를 이끄는 각이한 사람들이였다. 지난날의 군당위원장,농맹위원장,새파랗게 젊은 사람,대머리진 사나이,말을 타고 달려온 사람,어깨우엔 렵총을,허리춤엔 콜트권총을 찬 사람 등 각양각색이였다.

협의회가 한창일 때였다. 군단장의 치료시간을 얻지 못하여 안절부절하고있던 리숙은 민주선전실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심결에 리숙은 그쪽으로 가

보았다. 여러필의 말들이 발을 저겨디디며 서성거리고있었는데 울장너머쪽에 말발구 한채가 서있었다. 군단지휘부 위병장이 그 발구에서 내린 장대한 사나이와 다투고있었다. 그 사나이는 허름한 솜옷에 군관혁띠를 띠고있는데 량쪽에 각기 권총집이 매달려있어 위엄을 돋구었다. 손을 허리에 짚고 버텨선것이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장수같은 기상이였다. 그가 을러메였다.

《이보게, 가서 군단장동지한테 제꺽 보고하는게 좋을거야. 금강인민유격대 대장이 〈혀〉를 끌고왔다구 말이야!》

《안됩니다. 대장동무 혼자서 들어가십시오.》 키는 작았지만 위병장도 만만치 않은 고집불통이였다. 《지금 회의중인데 〈혀〉가 다 뭡니까. 우리 군단장동지 성미를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왜 몰라. 알아두 잘 알지!》

《예?》

《글쎄 가서 보고하라니까. 그러다 이놈의 〈혀〉가 가지고있는 중대한 비밀이 시간을 놓쳐 쓸모없이 된다면 자네가 책임지겠나?》

《아니 그런 〈혀〉는 매일 잡다싶이합니다. 아시다싶이 우리 적후투쟁부대들에서는…》

《적후에서 싸우긴 매 한가질세. 그래 내 말을 들어주겠나 안주겠나?》

그들이 싱갱이를 하는동안 리숙은 발구우의 포로를 보았다. 미군장교놈이였는데 놀랍게도 누군가 개털모자를 씌워놓았다. 그놈이 얼가봐 무던히도 왼심을 쓴것 같았다. 바오래기로 단단히 결박했는데 그것도 안심치 않아서인지 맨머리바람인 한 소년이 그 바줄을 붙들고있었다. 소년은 새파랗게 얼어든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온 리숙에게 무슨 인사말을 했다. 리숙은 소년에게 다정히 미소했다.

(이애도 빨찌산인가?!…)

그때 위풍당당한 유격대장이 《혀》를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 위병장이 끝내 지고만것이였다.

《성일이만 따라오고 동무들은 여기서 기다리오!》

소년은 바줄을 잡아채며 《혀》를 끌어내렸다. 벌써 장대한 유격대장은 두개의 권총집을 앞으로 더 보기좋게 끄당기며 위병장을 따라 민주선전실 뜨락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성일이라고 불리운 소년이 잘 걷지 못하는 《혀》를 독촉하며 그뒤를 따라갔다. 리숙은 그때 부지불식간에 소년에게 달려가 그의 두손을, 새빨갛게 얼다못해 시커먼 빛으로 죽어가는 귀바퀴를 따뜻이 문질러주고싶은 충동이 이는것을 참고있었다. 궁지높은 소년이였지만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얼어있었던것이다.

얼마후 민주선전실안에서 떠들썩한 소음이 흘러나왔다. 최현군단장의 청높은 소리도 들렸다. 《혀》를 끌어온 사람들을 치하하는것 같았다.

부관이 나와 참모부쪽으로 달려갔다. 잠시후 영어통역을 겸하는 기무참모를 데리고왔다. 그들이 들어간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뒤에야 기무참모가 《혀》를 끌고 참모부로 갔다. 성일이라는 소년도 뒤따라 나왔다. 그러나 문턱을 넘어서자바람으로 바람벽에 붙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소년의 한손엔 지금까지 《혀》의 머리우에 씌워져있던 허름한 개털모자가 쥐여져있었다.

리숙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너 왜 우니?》

그러자 억눌린 흐느낌소리가 멎었다. 몰래 눈물을 닦는것 같았다. 리숙이 또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소년은 눈굽을 찍고있던 팔소매를 내렸다. 빨갛게 된 눈으로 리숙을 보더니 헐떡이듯 한숨을 내그었다. 아까 리숙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일 그때처럼 그애의 얼굴은 이지러졌다.

《난 그놈이… 굉장한놈인줄 알구… 내 모자까지 씌워주면서… 난 귀가 다 얼면서 왔는데 글쎄 그 개자식이… 무슨 후방근무장교라나요!…》

소년은 너무 분해 또 울음을 터칠듯한 기색이였다. 리숙이 그애를 위로했다.

《후방근무장교도 많은걸 알고있단다. 애, 너무 분해할건 없어.》

《그래도 우린… 최현대장동지한테 큼직한 선물을 가져온다구 막 흥이 나 하댔는데… 그만이야 그 개자식 같은게… 그따위 허줄한 놈팽인줄은 모르구…》

리숙은 여러가지 말로 소년을 위로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한성일이라는 이 소년이 《꾀꼴새소년빨찌산》의 참모장이며 그들 소년빨찌산대원들이 미군장교놈을 생포했다는것, 그리고 금강인민유격대는 최현군단장과 인연이 깊으며 800명으로 자란 유격대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아직 서화면에는 단 한놈의 적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것 등을 들었다.

협의회가 끝나자 여러 유격대장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나왔다.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롱질을 하기도 했다.

《여보, 우리한테 좀 들렸다 가지 않으려나? 전엔 도에 회의 갔다 올 때마다 그쪽 신세를 지군했는데 오늘은 내가 한턱 쓰지.》

《그럴새가 없군. 유감스러우이.》

《꿀술이 있는데두?》

《그럼 며칠후에 들르지. 미국놈들을 다 몰아내구. 응?!》

최현은 3명의 유격대장들과 같이 맨나중에야 나왔다. 앞서 나온 대장들이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말을 타고 가는 대장도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다. 철원군유격대장은 2차철원해방전투때 인민군대와 협동작전을 잘해준데 대한 감사로 박정덕사단장이 로획하여 보내준 말 다섯필을 모두 끌고왔었다. 대장이 탄 말을 따라 4명의 호위대원들이 위세를 뽐내며 떠나갔다. 여러 대장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그때 최현이 문득 생각난듯 소리쳤다.

《가만, 곡산!… 곡산대장은 벌써 갔소?》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울담너머에서 솜모자를 눌러쓴 나이 지숙한 사람이 대답했다.

《아까 말하던 그 녀장부를 좀 만나보기요. 걸이대로 미국놈 셋을 잡았다는… 같이 왔다구 하지 않았소!》

《예, 여기 있습니다.》

곡산유격대장은 같이 온 사람들가운데서 키가 작은 한 녀인을

데리고 왔다. 민주선전실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그 녀자의 얼굴을 비쳐주었다.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것이 얌전데기 새색시같았다.

《이 동무가？…》

최현은 놀랐다. 이렇듯 젊고 아릿다운 녀성이 결이대로 미국놈들을 제꼈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곡산유격대장이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말해주었다.

《미국놈들에게 온 가족을 다 잃은 동무입니다. 남편과 두살잡이 애까지 모두 일곱이나… 그래서 밤마다 외통길을 지켜섰다가 결이대로 세놈씩이나 잡았습니다. 놈들속에선 지금… 미친 녀자 하나가 돌아다니며 무섭게 달려든다고 소문을 내면서 이 동무를 잡지 못해 지랄발광이지요. 벌써 우리 유격대에 들어와 있는줄은 모르구…》

《음—》

최현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 이상 더 물을 필요는 없었다. 그는 젊은 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알고지냅시다. 군단장 최현이요.》

《홍이순이라고 합니다.》

《음— 홍이순！… 알게 되여 반갑소. 지금 녀성소대를 책임졌다지？》

《예.》

《잘 싸워주— 그럼 승리한 다음… 또 만납시다.》

이어 최현은 나머지 유격대장들, 한성일소년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속으로 사라져갈 때까지 한자리에 서서 지켜보고있었다.

리숙은 그의 뒤에 서있었다. 비로소 치료시간을 따낼수 있게 되였다.

《군단장동지！》

리숙은 조용히 불렀다. 인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을 생각이였다.

최현이 몸을 돌렸다.

《오, 간호장！ 마침 잘 왔소.》 그는 이제야 리숙을 발견한

듯했다. 《들어가자구. 오늘은 무슨 명절날같군.… 어서 들어가자니까！…》

리숙은 그를 따라 민주선전실로 들어갔다. 방금 모임이 있은 뒤여서 방안은 써레기담배연기로 꽉 차있었다. 최현은 앉은뱅이책상우에서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였다.

《자, 아버지 편지！》하고 최현은 말했다. 《련락군관이 가져왔더군.》

《？！…》

《사연깊은 편지야. 장군님께서 친히 리숙이 아버지더러 편지를 쓰라고 하셨다는거야.》

《장군님께서？… 그럼 장군님께서 저를 아십니까？…》

《아시구말구, 잘 아시지. 그래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신게 아닌가！… 자, 어서 받으라구.》

《？！…》

꿈같은 일이였다. 리숙은 두손을 가슴에 얹고 최현의 상기된 얼굴을 물끄러미 넋잃은듯 쳐다보기만 했다.

24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부대들에 대한 지도를 마치고 날이 저물녘에야 최고사령부로 차를 달리시였다. 며칠째 계속된 강추위는 아직도 풀릴념을 안했다. 구배진 령길마다에서 눈가루들이 회오리처럼 휩쓸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창유리에 허옇게 불린 성에를 바라보며 적후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생각하시였다. 이같은 강추위에 눈속에서 자고 먹으며 하루에도 수백리씩 행군하고 전투를 거듭하는 전사들이였다. 지금 그들은 전선서부의 반공격작전에 결정적인 국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의 휴식도 없이 대동강, 림진강 일대로 기동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제 적후의 제2전선부대들로 하

여금 평양을 해방하고 림진강류역에서는 적의 퇴로를 최종적으로 차단하게 할 결심이시였다.

전쟁3계단의 제2차작전이 바야흐로 절정에 이르고있는 이때 제2전선부대들에 의한 평양해방은 거대한 정치군사적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평양해방은 무엇보다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해줄것이며 적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게 될것이다.

평양이 해방되면 청천강에서 패주하는 적들은 부득불 대도로를 버리고 교통이 불리한 중부산악지대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기동수단에만 매달려온 적들을 총 붕괴상태에 빠뜨리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적후의 전사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속에서 지칠대로 지쳤으며 화력과 장비도 아주 빈약하다. 부상병들과 환자들은 날을 따라 늘어만 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성에불린 시창유리를 통해 은빛눈가루들이 휩쓸고있는 도로를 내다보고계시였다.

전조등이 켜졌다. 길아래쪽 얼어붙은 강바닥으로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 때였다. 길가의 불탄 집터를 막 지나치려던 순간 그이께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불탄 집터에서 한 늙은 어머니가 서까래를 힘겹게 들추고있는것을 띄여보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려 늙은이에게로 다가가시였다.

《피해가 많습니까?》

그이께서 먼저 물으시였다.

《폭격통에 집이 불타 없어졌수다. 보시는것처럼… 재만 남았지요.》

늙은이의 대답이였다. 날이 어두워서 장군님을 알아뵙지 못한것이였다. 장군님께서 근심어린 목소리로 또 물으시였다.

《가족들중엔 상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이의 음성이 범상치 않게 여겨졌던지 늙은이는 가까이 오신 그이를 눈여겨보았다. 다음순간 황황히 두손을 치마폭에 문지르

며 허리를 폈다.

《장군님！… 원, 이렇게 장군님께서 오실줄이야… 장군님, 이 늙은게 주책없이… 그만 장군님도 알아뵙지 못하구…》

늙은이가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는것을 그이께서는 일으켜주시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 그런데 가족들은 다 어데 있습니까. 누구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군님！… 두 아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다 전선에 나가구…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뭘하십니까. 날도 저물었는데…》

《저… 집재목을 좀 건져볼가 하구… 이 집두 벌써 두번씩이나 불탔습니다만 아직 양코배기놈들이 나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하고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왜 계속 큰길 가까이 집을 짓습니까. 멀리 안전한곳에 옮겨지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올시다, 장군님！》 늙은이는 황황히 부르짖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 애들이 찾아올텐데… 제가 왜 자리를 옮기겠습니까！ 미국놈들이 백번 불지르면 백번 다시 짓드래두… 그애들이 돌아올 때까진 자리를 뜨지 않으렵니다. 오두막같은 집이래두 제 살던 집에서 싸움을 이기고 오는 자식들을 맞아야지요.》

《예—》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그 늙은이의 소박한 말마디들이 한없이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지시였다. 잠시 그이께서는 아무말없이 불타버린 집터를 둘러보시였다.

그을음내가 코를 찔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재티들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시꺼멓게 타버린 서까래에서 작은 불찌들이 숨쉬듯 반짝이였다. 한쪽에 늙은이가 골라놓은 재목들이 쌓여있었다. 보잘나위없이 불에 탄 재목들이다. 그것으로 집을 고쳐 지을 때마다 집은 형편없이 작아지고 졸아들것이다. 하지만 승리하고 돌아올 아들들을 기다리는 강직한 이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졸아들지 않을것이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전선에서 싸운다는 두 아들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맏이는 인민군군관이고 둘째는 분대장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맏이는 김명길이고 둘째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그 이름들을 곱씹어보시였다. 어데선가 들어보신듯한 이름들이였다. 전선에서 만나보시였던 군관들과 병사들의 모습이 련이어 비쳐왔다.

《김명길, 김명진…》

그이께서는 기어이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내시려는듯 입속말로 거듭 뇌이시였다. 그러자 늙은이가 황황히 중얼거렸다.

《어찌 그애들까지 다… 장군님! 이름없는 우리 애들을… 그토록 관심해주시니… 무슨 말로…》

《원 무슨 말씀을!…》하고 장군님께서는 벌써부터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는 늙은이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였다.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들을 두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전선에서 용감하게 잘 싸우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늙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장군님께서 계셔서 우리 애들두 힘이 장사같애지구 무서운것이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인민군대 군관인 맏이만 하드래두 옛날 지주집에서 머슴을 살던 때 같애서야 어찌 그렇게 달라질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애들은 어질구 착하지만 장군님께서 그리도 오랜 세월 모진 고생을 하시며 찾아주신 내 나라, 내 땅을 미국놈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구 범처럼 무섭게 싸운답니다. 접때… 우리 둘째가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길래… 그게 얼마나 대견하던지… 하길래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을 험한 전쟁판에 내보내구두 가슴속엔 자랑스러움이 꽉 차있습니다. 온밤 가마니를 짜구 새끼를 꼬면서두 피곤한줄 모르구… 가슴아픈 일이 그리 많아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강심을 먹구 살아갑니다. 장군님! 그래서 이 늙은것도 애들이 돌아올 때까지 백번이구 집을 고쳐지으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이제 그애들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그땐 애들을

붙잡구 좀 울것 같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하시며 그이께서는 늙은이의 두손을 힘주어 꽉 잡으시였다. 《오늘 어머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

그이께서는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어둠에 싸인 불탄 집터가 그리도 한산하였지만 그이께서는 밝은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이제 전쟁을 이기고 아들들이 돌아오면 더 좋은 집을 짓고 살아봅시다. 보란듯이 기와집을 덩실하니 지어놓고 아들, 손주들까지 다 거느리며 잘 살아봅시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손등우에 떨어져내린 눈물의 뜨거움은 다시 길을 떠나실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눈보라가 휩쓸고있는 시창밖을 점도록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얼마나 변모되고 억세여졌는가！… 어제날 류랑의 보짐을 이고지고 피눈물 뿌리며 이 땅을 떠나가던 그 인민이 오늘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억척같이 싸우고있다. 두메산촌의 한 늙은이까지도 승리하고 돌아올 아들들을 기다리며 불탄 집터에 또다시 기둥을 박고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날은 완전히 어두웠다. 칼바람이 아츠러운 휘파람소리를 질렀다. 뽀얗게 날리는 눈가루들이 승용차의 전조등불빛에 무수히 반짝이였다. …

고산진 림성골의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동부의 반공격정형에 대한 보고를 읽으시였다.

11월 27일 20시, 전선서부에서 반공격을 개시한 이틀후 반공격에로 넘어간 전선동부의 아군부대들은 장진호반 계선에서 먼저 미제10군단 주력부대들을 대포위망에 몰아넣고 섬멸전을 벌리였다. 적들은 100여대의 비행기의 지원밑에 30여대의 땅크를 앞세우고 포위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했으나 결코 전멸의 비운에서 헤여날수 없었다. 겨우 극소수의 력량만이 비행대의 엄호밑에 함흥방

향으로 패주하였다.

혜산—풍산, 혜산—삼수지역에서도 미제7보병사단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청진방향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괴뢰군3보병사단을 차지한 계선에서 완강한 방어로 타격한 후 이어 12월 2일 현재 반공격을 개시하여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소멸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일을 부르시였다. 그를 통하여 주타격방향인 전선서부의 인민군련합부대들, 아군련합부대들이 해방한 지역과 제2전선부대들의 기동로정을 확인하신후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최현동무에게 곧 명령을 전하시오.》

그이께서는 남일이 수첩을 펴들기를 기다려 천천히 불러주시였다.

현재 청천강을 건넌 전선서부의 주타격부대들은 안주를 해방한데 이어 문덕, 숙천, 성천 일대에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전선동부에서도 장진호반의 적집단을 성과리에 포위섬멸하고있으며 풍산을 해방한데 이어 북청, 길주, 성진 지역에서 추격전을 벌리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패주하는 적들에게 숨돌릴 사이를 주지 말며 새 방어선을 구축할 기회를 주지 말며 병력을 재정리할 시간적여유를 주지 말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제2전선부대들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강력한 집중타격을 적극화하며 정치군사적요충지들을 장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천, 강동지역의 제2전선부대들을 급속히 평양으로 진출시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수도인 평양을 해방하며 동해연선에 진출시킨 제2전선부대들로 원산을 해방할것이다. 그리고 서울제4보병사단 등 전투력이 강한 부대들로 림진강계선에서 대매복전을 조직하여 패주하는 적집단들을 포위섬멸할것이다!…

명령서를 다 받아쓴 남일은 수첩을 덮자 차렷자세로 몸을 꼿꼿이 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숭엄하기까지 했다. 드디여 온갖 고난과 시련을, 모진 쓰라림과 아픔을 누르며 손꼽아 기다리던 그 환희와 기쁨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것이였다.

최현은 혼미한 의식속에서도 자기가 신음소리를 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희끄무레한 어둠속에서 무엇인지 하늘하늘 춤추며 불타고있었다. 불,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캄캄한 어둠을 짓태우며 황황 솟구쳐오르고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도가니속에 서있건만 온몸은 계속 와들와들 떨리고있다.

안깐힘을 써서 눈을 떴다. 방수포천막을 친것이 보였다. 머리말의 야전가방우에 남포등을 밝히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부관을 알아보았다.

《지금 몇시요?》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자기 귀에도 겨우 들릴가말가한 목쉰 소리였다. 《왜 행군이 멎었소. 지금 몇시요?》

《군단장동지, 군단지휘부는 휴식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휴식?…》 최현은 천근같이 무거운 머리를 흔들었다. 《날 좀 일으켜주—》

《안됩니다, 군단장동지!》

최현은 소리칠 힘도 없었다.

《그담 또 무슨 소식이 없소?》

《최고사령부에서 전신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밤 10시니까… 꼭 다섯시간전입니다.》

최현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뛰쳐일어났는지 그로서도 알수 없는 일이였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부관?!… 그런 일이 있었는데두 날 깨우지 않았어?》

그는 마치 자기가 잠을 자고있었던듯이 버럭 소리질렀다. 옷매무시를 바로 하느라고 후들후들 떨리는 손을 황급히 놀렸다. 덮고있던 털외투까지 껴입고 하나하나 정히 단추를 채웠다.

《어데 있소. 이리 주오!》

부관의 얼굴에 경련이 이는듯했다.

《군단장동지, 지금 군사위원동지가 가지고있습니다.》

《?!…》

최현의 얼굴은 험악해졌다. 고열로 신음하던 그 얼굴에 무서운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 하나하나의 반점들은 부들부들 턱을 떨 때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푸르끼레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가 어데 있소, 군사위원이？！…》

놀라울 지경으로 낮아진 거쉰 속삭임소리였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단장동지！》

부관이 방수포천막을 활 열어젖혔다. 그리고 군단장을 부축하려 했으나 최현은 사나운 눈빛으로 그것을 막아버렸다.

군사위원 리승엽은 멀지 않은 비탈면에 친 천막안에 있었다. 병기공급장과 두사람의 지대장들이 마주앉았는데 잉걸불우에서는 주전자가 끓고있었다. 최현이 들어서자 모두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으나 리승엽은 아주 절친한 사이기라도 한듯 손을 내밀며 반색했다.

《아, 군단장동무, 앓고계시더니… 어느새 일어나셨군요. 여기 불가까이 오십시오.》

《최고사령부에서 보낸 전문이 어데 있소？》하고 최현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걸 왜 아직까지 나한테 알리지 않고있는거요？》

리승엽은 칼칼해진 낯빛으로 가까이 있는 자기의 심복들을 둘러보면서 군단장이 이렇게 야밤중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우정 너스레를 떨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분을 애써 삭이며 최현은 최고사령부에서 보낸 전보를 읽었다. 헌데 그것은 평양과 원산을 해방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서였다.

《평양！…》하고 최현은 부르짖었다. 《장군님께서 평양을 해방할 영예로운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소. 적후에 있는 우리에게… 평양을！…》

전문을 읽고 또 읽었다. 누르끼레하게 병색이 짙은 얼굴우의 짧고 더부룩한 검은 눈섭이 흠칫거렸다. 그러다가 전문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엉거주춤 서있는 사람들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충혈진 두눈에서 퍼런 불꽃이 튀여나왔다.

《이걸 왜 깔아뭉갰소？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극심한 분

노로 하여 그의 목소리는 갈리고 거쉬여졌다. 《그래 여기선 뭣들을 하는거요?》

잉결불우에 놓인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어넘쳤다. 하얀 거품이 흠씰흠씰 뚜껑을 들어올리고 세찬 증기발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옮겨놓을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그렇단 말이지. …》

최현은 즉시 천막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리승엽이 《군단장동무!》하고 불렀다. 최현을 바라보는 그의 세모진 눈길엔 자못 고통스러워하는듯한 표정이 어렸다.

《우린 군단장동무가 앓고있기에… 아침에 보여줄가 했습니다. 그리구… 아무래도 지금 당장 련합부대들을 기동시키는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뭐요?》

《그러지 않아도 전사들은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로는…》

《무슨 소리?!… 전사들에게 평양을 해방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전달하기만 해보우. 천리를 달려갈거요.》

《하지만… 이제 적의 방대한 무력이 집중되여있는 평양, 원산 등의 도시해방전투를 벌리기 위해서는 하루이틀 푹 쉬운 다음…》

리승엽은 끝내 말끝을 잇지 못하고말았다. 무섭게 격노한 최현이 천막을 받쳤던 나무기둥을 쾅! 하고 쳤던것이다.

《뭐야?!》

천막이 통채로 무너질듯했다. 최현은 단말마의 고통에 모대기듯이 하얀 이를 악물고 검붉어진 볼을 후들후들 떨었다.

《누가 감히… 어느 누가 감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놓고 흥정을 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양을 해방하라고 하셨는데… 쉬고 가겠어?… 어따 대고 이짓들이야?!…》

《아, 군단장동무, 난 군사위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최현은 꺼멓게 얼고 튼 손으로 권총집을 더듬고있었다.

《용서치 않을줄 아오! 그가 누구던지… 다시한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놓고 흥정하거나 한치라두 어기면… 그자리에서 쏴죽일테요!…》

언제 넘어졌는지 주전자가 거품이 이는 진액을 쏟아놓았다. 그러자 뜨거운 증기발이 뽀얗게 솟구쳐올랐다. 천막안은 불속에라도 잠긴듯했다. 최현은 몸을 홱 돌려 천막밖으로 나갔다.

25

이때부터 최현은 2명의 무선수를 한시도 떼여놓지 않고 달고 다녔다. 그들은 임의의 시각에 군단장의 명령을 타전해야 했고 부대들에서 보내오는 보고를 즉석에서 군단장에게 알려야 했다.

최현의 명령으로 여러 련합부대들이 동시에 기동을 개시했다. 제7보병사단은 단 하루동안에 160여리를 강행군하여 평양에 이르렀고 마전리계선을 떠난 제2보병사단은 원산으로 진출을 다그치고있었다.

군단지휘부는 전선서부에로 기동해간 련합부대들을 쫓아 계속 강행군을 들이댔다. 무선기들이 동작하는동안만 최현도 걸음을 멈추군했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평양해방임무를 받은 그 시각부터 단 한시도 눈을 붙여보지 못하였다.

군단지휘부가 신평에 이르렀을 때였다. 정찰부장이 달려와 적들이 평양방향으로 작전적예비대인 미 제9군단 25사단을 긴급철도수송을 시작했다는것을 보고했다.

최현은 긴장했다. 바싹 정신을 차리고 칼칼해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다.

《다시 말해보— 뭣이라구?》

《군단장동지, 적들이 작전적예비대로 서울지역에 두고있던 미 제25보병사단을 평양으로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평양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심산인가?…》

《그런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창과 덕천지역에서 패주하

는 미 제1기병사단도 평양으로 향하고있습니다.》

《?!…》

최현은 또 숨이 막히고 답답해나서 두툼한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긁었다. 말라터진 입술을 또한번 깨물었다. 그놈들을 막아야 했다. 그놈들이 평양에 쓸어드는 날이면 적들의 평양방어선이 구축될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평양해방임무를 대단히 어렵게 할것이며… 결국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예견하시고 장군님께서는 주타격방향의 련합부대들이 이르기전에 적후의 제2전선부대들로 평양해방전투를 진행하게 하신것이다.

최현은 참모장을 불렀다.

《강동—평양간 도로로 제일 빨리 기동할수 있는 부대가 어느 부대요?…》

《한창봉동무의 련대입니다.》

《좋소. 그럼 참모장동문 군단기마통신중대에서 제일 날쌘 병사 3명을 곧 선발하시오.》

최현은 한창봉련대에 패주하는 적들이 평양으로 기여들지 못하게 차단할것을 명령하였다. 무선수가 명령을 타전하였다.

얼마후 군단기마통신중대의 병사들 셋이 갈개는 말들을 끌고 나타났다. 말들이 비비적거리며 얼어붙은 땅바닥을 투닥투닥 울렸다. 대가리를 흔들며 투레질을 하는놈도 있었다. 최현은 경험많은 로련한 시선으로 병사들과 말들을 쭉 훑어보고나서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손짓했다.

《동무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소. 우선 여기 와서 지도를 들여다보라구. 지도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중요 철다리들을 특히 잘 봐두라구.》

평양이남지역의 군용지도들이였다. 최현은 병사들이 모두 군용지도를 수월히 파악하는것을 보고 참모장이 괜찮게 선발했다고 생각했다.

《다들 봤지?… 중요철다리가 세군데 있어. 이걸 오늘밤중으로 파괴해야겠는데 그러자면 해당지역의 빨찌산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 시간이 없소. 그러니 동무들이 얼마나 빨리 빨찌산부대들에 련

락하는가 하는데 많은게 달려있소. 적들과 조우할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맞총질은 피하구 절대 죽어서도 안돼!

…빨찌산들과 련계를 어떻게 맺겠는가 하는건 참모장동무가 대줄거요. 물어볼게 없소?…》

《없습니다, 군단장동지!》

그들이 힘차게 대답하자 최현은 병사들의 어깨를 차례로 두드려주는것으로 악수를 대신했다.

이날 한창봉련대장은 4시간동안에 100여리를 강행군하여 평양으로 쓸어드는 적들을 막았다. 70여대의 적자동차종대에 박격포탄을 들붓고 뒤따르는 보병대오와 분리시켜 족쳤다. 적들은 비할바없이 우세한 력량이였지만 황겁히 도망쳤다. 그런데 매복전투가 거의 끝나갈무렵 무선으로 련락을 받은 적들의 《에프 80》형전투기 24대가 날아와 미친듯이 나팜탄과 기총탄을 쏟아부었다. 그때 지휘감시소에 있던 한창봉련대장이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피흐르는 허리를 한손으로 감아쥐고 부르짖었다.

《일없소. 다치지 마오! 난… 이자리를 떠날수 없소. 한놈의 적도… 평양으로 들어서게 해선 안되오!…》

출혈은 심해갔다. 련대지휘간부들과 부관, 련락병들이 눈물을 뿌리며 그를 후송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최후를 의식하고있었다. 마지막순간까지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전 련대가 항일투사이며 존경하는 부대장인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백배, 천배로 복수하기 위해 패주하는 적들을 40여리나 추격해갔다.

최현은 날이 어두웠을 때 이 비보를 받았다. 평양해방을 눈앞에 두고 오랜 혁명동지를 잃은 그의 가슴은 찢기는듯했다. 오래도록 한마디 말도 없이 줄곧 걷기만 했다.

그때 리숙은 군단장의 신색이 왜 그리 좋지 않은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그저 병세때문이리라 생각했고 어쩌는수 없어 속만 태우고있었다. 리숙으로서는 할수 있는껏 다했다. 남은것은 군단장을 설설 끓는 온돌방에 눕게 하는것인데 지금 평양해방전투지휘로

여념이 없는 그에게 그런 말을 비쳤다가는 벼락이 떨어질것이다. 군단장은 벌써 두끼째 식사도 잊고있다. 련락병이 몇번이나 말을 끌어왔지만 그것도 거절했다. 그는 걷기만 했다. 맵짠 칼바람속을 걸으며 사색하고 명령하고 병마와도 싸웠다. 그러다가 갑자기 리숙을 불렀다.

《참, 너무 바쁘다보니》하고 그는 말했다. 《미처 물어볼새도 없었군. … 그래 아버지한테선 어떤 소식이 왔나？…》

《？…》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다. 리숙은 걸어가면서 그의 얼굴표정을 훔쳐보았다. 캄캄한 밤중이여서 가늠할수 없었지만 웬일인지 침통한 표정같이 여겨졌다. 싸늘한 별빛이며 흰 눈더미들이 그렇게 보이게 했는지… 어쨌든 리숙에게는 군단장이 모진 아픔을 잊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있는듯이 생각되였다.

《왜 말이 없어？》

군단장이 또 석쉼해진 소리로 물었다.

《저… 군단장동지, 그저 사사로운 집안애기들입니다.》

《일없어. 들어보자.》

그리하여 리숙은 힘들게 걷고있는 그를 부축해가며 편지내용을 말해주었다. 그 내용이란… 군단장도 잘 알고있는것으로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아버지가 적구에 들어가 수풍전기를 끌어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것이였다. 나중엔 영영 갈라져버릴번했던 한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사연이 적혀있었다.

아버지는 편지에 썼다.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영영 떠나간줄 알았던 그가 다시 돌아왔단다. 헌데 판판 다른 사람이 되여 돌아왔구나. 모색도 변한게 없고 말씨나 차림새도 예전 그대로이건만 이제사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되여서, 비로소 숙이 어머니가 되여 돌아왔구나.

숙아, 나는 너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리라고 믿는다. 비록이 전쟁통에 고생도 했고 곡절도 많았다만 드디여 참된 한가정을 이루게 되였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유족하던 살림도 다 깨여지고 집은 불타 없어졌지만… 우린 보다 진실한 사랑을 찾지 않

았니.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의 품에서 우린 모두 새롭게 태여났구나. 이 하늘같은 은덕에 우리 무엇으로 다 갚을수 있겠니. 숙아, 부디 몸성히 잘 싸우기 바란다. 그리고 너를 기다린다.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그날을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손꼽아 기다린다. …》

리숙이 열번, 스무번 더 곱씹어 읽었던 편지의 구절이다. 이야기를 마친 리숙은 외투의 목단추를 끄르고 한껏 찬공기를 들여마셨다. 그러자 군단장이 그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음—좋군, 아주 좋아! …》

그는 무엇이 좋다는것인지는 까밝히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짓숙인채 걸음을 다우치고있을뿐이였다.

그때 그들이 가는 앞쪽에서 말투레질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대오가 멎었다. 지휘부군관들과 통신병들이 말잔등우에 쓰러져있는 한 병사를 안아내리고있었다.

최현이 다가가자 그들은 자리를 틔워주었다. 쓰러졌던 병사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때 최현은 그가 험한 상처를 입고도 말을 때려몰아 먼길을 달려왔다는것을 직감했다. 군단기마통신중대에서 선발한 3명 병사들중의 하나였다.

《군단장동지! …》 기마통신병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보고했다. 《대원 박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곡산인민유격대에서… 밤 9시 현재 군수렬차와 철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음—》

최현은 부관에게 시간을 물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곡산인민유격대가 제일 선참으로 자기맡은 파업을 수행한것이다.

《수고했소.》 최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간호장이 어데 있소? 이 동무를 후송해야겠소.》

그러자 그 병사는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더 보고드릴것이 있다고 했다.

《뭐요?》하고 최현이 물었다.

《군단장동지, 그들은… 철다리폭파임무를 희생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비로소 최현은 그가 철다리폭파과정에 대하여 말하고싶어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무엇인가 예감되는것이 있었다.

《말해보오.》

《알았습니다, 군단장동지！…》 병사는 헐썩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폭파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엄호대까지 해서 모두 열한명이 나갔는데… 폭파장치를 하다가 그만… 적들에게 발견되였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붙었는데… 여럿이 희생되고… 게다가 군수렬차까지 들이닥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끝내 실패했구나 하면서 분해했는데 그때 한 녀성유격대원이 폭약을 실은 말발구를 끌고 철다리로 들어섰습니다. 거기 발구우의 폭약엔 거지반 다 타들어간 도화선이 있었는데… 그 녀성동문 침목우로 들어서지 않으려는 말을 잡아끌며 죽기내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그냥 고삐를 끌며 달려오는 기차를… 맞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렬차와 함께… 모두… 날려가버렸습니다, 군단장동지！…》

최현은 물론 듣는 사람들모두가 몸을 떨며 숨을 죽이고있었다. 최현은 거의 속삭임소리같이 낮게 물었다.

《그 녀성동무 이름이 뭐요？》

《홍이순이라고 합니다.》

《？！…》

최현은 입으로 뜨거운 불길을 삼킨듯했다. 무엇인가 더 묻고싶었으나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는 한손으로 말벌의 울음소리같이 윙윙 울리는 머리를 짚고 자기가 만나보았던 한 녀성의 모습을 애써 상기했다. 곡산인민유격대장이 소개해주던 아릿다운 녀성, 걸이대로 미국놈 셋을 요정냈다고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놈들의 평양방어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의 평양해방전투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군수렬차를 맞받아나갔다.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 철다리를 폭파하였다！…

덮쳐들듯이 날려온 눈바람속에서 모래알같은 눈가루들이 얼굴을 후려쳤다. 최현은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있는 기마통신병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통신병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최현은 리숙을 불렀다.

《이 동무를 군단병원에 후송하오. 상처가 심한것 같은데 가면서 잘 돌보라구. 알았어?》

《?…》

리숙은 미처 대답을 못했다. 리숙이 자기는 군단장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군단장의 그 어조로 보아 누구도 그의 결심을 돌리지 못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벌써 최현은 힘들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걸어가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승리에 이르는 그 준엄한 길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특히 벅찬 환희를 눈앞에 둔 때 희생되는 사람들에 대한 애석함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한창봉련대장이 전사하고 또 이름없는 많은 전사들과 한 녀성유격대원이 희생되였다. 이제 이에 대해서도 장군님께 보고드려야 한다.…

얼마후 평양해방전투를 위하여 진출한 제7보병사단에서 무선이 왔다. 그것은 한개 련대는 무진리—중화방향, 다른 련대들은 대성요업공장—모란봉방향과 미림—사동—동대원의 세 방향으로 진출하여 공격출발위치를 차지했다는 보고였다. 한 구분대는 벌써 대동강역으로 나가 놈들의 군수렬차들을 습격파괴함으로써 적들이 빠져나갈 길을 차단했다고 한다.

최현은 명령했다.

《날이 밝으면 총공격을 개시할것!》

그리고는 부관의 부축을 받으며 말안장우에 올라앉았다. 련락병을 시켜 말의 배때끈과 자기의 발목을 묶어놓게 했다.

얼어붙은 물웅뎅이에서 별빛이 떨었다. 바람은 차츰 수그러졌으나 추위는 드러낸 살을 어이는듯했다.

최현은 든든히 결박됐는가를 살펴본뒤 부관에게 말했다.

《3시간후엔 평양해방전투가 시작된다는걸 잊지 말라구. 그때까지 우린 림진강에 닿아야 해. 놈들의 퇴로를 완전히 막고 포위섬멸하라는 장군님의 명령이야!… 혹시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도중에 나를 안장에서 내리는자는 처벌이다. 부관은 목적지까지 말을

때려몰라！…》

두필의 말이 앞서고 기마중대의 자동총수들(련락병들)이 말발굽소리를 울리며 뒤따랐다. 그리하여 말들은 벌름거리는 코구멍을 푸르륵거리며 편자를 친 발통으로 얼어붙은 땅을 굴렀다. 이따금 말발굽밑에서 불꽃이 튕겨나군하였다.

이렇게 군단장일행은 말 한마디 없이 금빛 아침노을을 향해 줄곧 달리고 또 달렸다.…

12월 6일,드디여 평양은 해방되였다！…

전보를 받은 맥아더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바로 어제밤 안주,문덕,숙천일대에서 된타격을 받고있는 미8군의 주력부대들을 지원토록 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을 총출동시킬것을 명령했던 그였다.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평양으로 미25보병사단관하 부대들을 긴급수송하였었는데 군수렬차들은 도중에 폭파되고말았다. 그리하여 새벽녘엔 본국에 7만 4,000여명의 병력보충을 요구하는 전문을 날렸었다. 어떻게 하나 미1,9군단으로 하여금 평양방어를 구축케하려고 했었다. 패주하는 대오를 평양으로 집결시킬데 대한 명령을 거듭 날렸었다. 그런데 하루밤새 거의 믿을수 없는 기적적인 사변이 일어난것이다. 그는 이것이 인민군제2전선 련합부대의 진출이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는 갈팡질팡하며 아무런 수습책도 세우지 못하였다.

이날에야 비로소 맥아더는 명성높은 자기가 불운하게도 조선에서 그 어떤 알수 없는 신비의 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패배하였다는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26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유동에서 보고를 받으시였다. 최현이 보

낸 전문이 그이의 손에 쥐여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작전협의에 모인 지휘관들에게 공포하시였다.

《동무들, 오늘 12월 6일 15시현재로 우리의 수도 평양이 완전히 해방되였습니다! …》

다들 한순간 굳어져버린듯했다. 그러다가 서로 부둥켜안고 환성을 질러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동안의 일이였다. 먼저 류경수가 가까이에 있는 김일에게로 머리를 홱 돌렸다.

《가만, 가만! … 총정치국부국장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시오? 이틀전만 해도 우리한테 와서 뭐라구 했소? … 지난 서울해방전투때 공격의 앞장에 선 땅크병들! 대전포위전의 영웅들! 평양해방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해선 안됩니다, 당과 조국은 동무들에게! … 뭐 이러면서 귀맛 좋은 소린 다 했지요? … 그래 말 좀 해보시오. 왜 꿀 자신 황소처럼 눈만 데룩거리시오? …》

김일은 뒤걸음쳤다. 실로 난감해하는 표정이였다.

《아, 류동무! … 나야 정치일군이 아니요. 사실 난 말이요. …》

그는 변명할 말도 미처 찾지 못하고있었다. 사실 그는 여러 련합부대들에 나가 자기의 우람찬 체구와 무게있는 언변으로 《귀맛 좋은》 소리들을 적지 않게 했던것이다. 그는 두툼한 입술을 비쭉 내밀며 남일을 눈짓했다.

《뭐 나한테 골받이할건 뭐요. 여기 장본인이 있질 않소? !》

《옳지!》 류경수가 부르짖었다. 《자 남일동무, 말해보우. 무슨 꿍꿍이를 했는지 솔직히 털어놓소!》

남일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러자 그옆에 있던 오백룡이 그의 가슴팍을 머리로 쿵 들이받았다.

《말로 해가지구서야 털어놓나. 체조를 시켜야지!》

웃음판이 터졌다. 다들 청을 돋구어 《얌전한체하며 남몰래 호박씨 까는 남일》을 거꾸로 매달자고, 그가 장군님께 《다른 련합부대장들은 다 믿을바가 못된다》고 고해바쳤기에 적구에 들어간 최현이 《호박을 땄다》고 우겨댔다.

그들은 어느덧 의젓하고 위엄있는 장령으로부터 수밤송이같은 머리에 때묻은 광목수건을 질끈 동였던 옛시절로 돌아간듯했다.

남일도 웃고있었다. 덜퍽진 김일이 《혁띠를 풀어 조기라구!》 하고 웨치자 덴겁하여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지중 눈굽이 쩌릿해지시였다. 모진 아픔을 누르며 북으로의 먼 후퇴길을 걷던 때가 언제였던가, 조국땅 저 한끝—남해기슭에까지 나갔던 이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가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조였던가!… 허나 이제는 전쟁의 종국적 승리가 불보듯 명백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려운 후퇴를 시작했는지, 그처럼 엄혹한 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 알게 될것이다. 지어 적들이 압록강가까이 이르고 한명의 병사가 그립던 그 엄혹한 때에도 왜 우리가 적후에 두개 군단의 무력으로 제2전선을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게 될것이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없을것이다. 세인이 그것을 제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협의가 끝나자 평양시해방에 즈음한 호소문을 쓰기 시작하시였다.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방송연설을 하시던 그날로부터 어언 두달이 흘러갔다. 2개월!… 얼마나 어려웠던 투쟁의 나날이였던가!… 그이께서는 벅찬 흥분을 누르며 힘주어 펜을 달리시였다.

《평양시 해방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영용한 인민군대와 빨찌산들!

형제적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휘하에 진행된 영용한 인민군부대들과 적후방에서 용감히 활동하는 빨찌산부대들, 형제적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의 맹공격에 의하여 반만년의 력사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유서깊은 고도이며 새 인민조선의 강력한 민주기지인 평양시는 지난 12월 6일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리승만매국역도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되였습니다.

평양시 해방에 즈음하여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부대와 빨찌산 부대들,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해방된 평양시민들과 전조선 동포형제자매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그이께서는 눈보라를 맞받아 말을 타고 달리는 최현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피흐르는 허리를 감아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하는 한창봉련대장을, 달려오는 군수렬차를 맞받아 나가는 한 녀성의 모습도 그려보시였다. 그 녀성의 이름은 홍이순이라고 한다. 또 한명의 젊은 녀성유격대원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야수적고문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황해도 벽성군 지남산유격대의 조옥희… 놈들은 그의 가슴을 도려내고 두눈을 뽑아내는 등 형언할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다했지만 그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불사신처럼 싸웠다 한다.

이러한 인민이 있어 우리는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최후승리에로 나가고있다.

《인민들의 힘은 무진장합니다. 이 힘은 백전백승의 힘입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인민에게 바치는 축문처럼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계속 힘주어 써나가시였다.

27

한밤중에야 리숙은 림진강기슭의 욕골근처에 이르렀다. 곧장 군단장을 찾아가 보고해야겠으나 군단장지휘감시소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겨우 서울제4보병사단이 배치된 골안을 찾았다. 어느 다리부근에서 전사들이 공병작업을 하고있었다.

《동무들, 여기 지휘관은 어데 있어요?》
누군가 청높은 목소리로 중대장을 찾는가, 대대장을 찾는가 하고 물었다. 한 전사는 공병도끼로 돌방책의 버팀목을 다듬다말고 《간호원동무 아니요?》하며 마주나왔다. 가까이 이르러서야 녀성군관임을 알아보고 제꺽 거수경례를 붙였다.
《안녕하십니까. 군관동무!… 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지요!》
사방에서 푸접좋은 그 병사를 두고 웃어댔다.
《누군가? 아는 사이래?》
《천만에, 괜히 수선을 떠는거지.》
《간호원처녀와 꼭 친해야겠다는 엉터리야!》
《어랍쇼. 꽤나 오랜 살겠군.》
《그건 왜?》
《간호원을 얻으면 밤낮 젖은 수건이나 약병을 들고 돌볼게 아닌가!》
《흐흐흐…》
리숙은 가벼이 미소했다. 녀성들과의 교제가 적은 화선병사들치고 누가 이런 때 롱을 건네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괜히 웃고 떠들며 자기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기분좋게 해주는 유쾌한 익살군들을 뭣때문에 나무라겠는가!…
리숙은 앞에 나와선 전사에게 물었다.
《4사공병별동대가 아니예요?》
《예, 군관동지!… 헌데 그걸 어떻게?…》
《중대장동문 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 중대장동무도 아십니까?》
《어데 있어요?》
《예, 예, 갑시다. 저기… 아니 이쪽으로!…》
수다스러운 그 전사를 따라 걸어갔다. 그러나 차츰 걸음이 떠졌다. 걸음마다 바재이고 입술을 깨물며 자기의 행동에 놀라와했다. 내가 왜 여기로 가나? 누가 오랬기에… 이쪽으로 가나?!…
별안간 와뜰 놀라며 뒤걸음쳤다. 발밑에 시꺼멓게 얼어붙어있

는 시체가 있었다. 그것을 밟을번했었다. 그밖에도 사방 적들의 시체가 널려있는것이 보였다.

《아— 그것때문에 그럽니까?》 길안내를 자청해나선 전사가 리숙을 돌아보며 웃었다. 《우리 부대가 해제낀놈들입니다. 그런데 군관동무… 여기가 처음입니까?》

《예, 군단병원에서 오는 길이예요.》

《아— 그렇댔군.》

그 전사는 화제거리가 생긴것을 기뻐했다. 대뜸 리숙이와 걸음을 맞추며 흥이 나서 어제와 그제에 있은 통쾌한 전투들에 대하여 늘어놓았다. 그리하여 리숙은 전날 군단장이 행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부대들을 기동시킨 까닭을 알게 되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서부에로 급히 기동한 제2전선 련합부대들이 여기 림진강계선에서 패주해오는 적들에 대한 대섬멸전을 벌린것이였다.

림진강은 우리 나라에서 일곱번째로 긴 강이다. 아호비령북쪽에 있는 두류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아호비령산줄기와 마식령산줄기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림진강은 개성, 장단 남쪽에서 한강과 강어귀를 같이하면서 바다로 흘러든다. 그러기에 적패주대렬은 이 강을 건느지 않고서는 남으로 빠질수 없다. 이 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살아 도망갈수 없다는것을 잘 아는놈들은 이미 제2전선부대들에 의하여 완전히 차단되여있는 이 길을 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나섰다.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38도선이남에 있는 작전적예비대까지 내몰아 퇴로를 열려고 하였다. 하지만 벌써 군단장 최현은 철원해방전투후 즉시 기동시킨 서울제4보병사단을 대섬멸전의 주력으로 삼고 림진강을 사이에 둔 석문리로부터 적동리에 이르는 10여키로메터구간에 강력한 매복진을 펴놓았었다.

이 지방사람들은 이 지대를 삭녕 20리골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난 9일 괴뢰군 7, 8사의 혼합대렬로 이루어진 대부대가 삭녕골이 미여지게 기여들었다. 장풍쪽으로 가는 길이 이미 귀래동, 결운리일대를 차지한 아군에 의하여 막혔으므로 부득불 림진강을 건널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놈들은 결사적으로 림진강을 건너서기는

했으나 철원쪽으로 뻗은 길로는 빠질수 없었다. 욕골부근에 진을 친 우리 부대들이 조성해놓은 얼음판이 립석리까지 수키로메터나 뻗어있었으며 물샐틈없는 장애물과 다면매복이 조직되여있었던것이다.

놈들의 첨병중대가 먼저 골안으로 들어왔다. 놈들은 쌍안경으로 한참씩 주위의 산들을 둘러보았으나 어떤 기미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지 이어 적대렬이 꼬리를 물고 골안에 흘러들었다.

삭녕골 20리!…무심한 바람결만이 휩쓸어대는 골안 가득히 들어찬 적들은 모두 총을 맞세워놓고 길바닥과 논밭에 마구 주저앉거나 드러누웠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놈들은 청천강계선에서 여기로 오기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것이다. 숱한 놈들은 부락에 들어가 짚더미들을 무져놓고 불을 놓았다. 젖은 군복을 말리고 언몸도 녹이자는것이였다. 일부 적들은 저녁차비에 서둘러댔다. 실로 삭녕 20리골안은 수천명의 적들로 한벌 덮이다싶이 했다. 대섬멸전의 첫총성은 바로 이 순간에 울리였다. 박격포병들이 제2차철원해방전투때에 로획한 수천발의 포탄을 적들에게 쉴새없이 퍼부어대고 중기관총,경기관총,각종 저격무기들의 일제사격으로 얼어붙었던 대기가 산산이 찢겨졌다.…

10일에도 여기서는 다시 치렬한 매복전투가 벌어졌다. 죽음의 골안에 기여든 적들은 전날에 쓰러진 저들의 무수한 시체앞에서 공포에 질려 굳어져버렸다. 이날 한개 련대 이상되는 적들은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투항하였다.

퇴로를 열려던 괴뢰군놈들의 이러한 말로에는 아랑곳않고 미제1군단의 1기병사단이 또 무리로 밀려오고있었다. 하기는 그것을 알았다 해도 그들에게는 다른 출로가 없는 이상 필사적인 모험으로 죽음의 삭녕20리골—절망의 함정속으로 기여드는수밖에 없는것이다. 림진강계선의 마지막 대섬멸전은 고조에 이르고있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말로를 가져다줄 격전이 또 벌어질것이며 그것은 다음날아침까지도 계속될것이다. 조선전쟁의 전행정에서 4,000여명에 달하는 적들을 쓰러눕힌 가장 규모가 큰 대매복전의 세번째 날이 밝아오기까지 아직 3시간

이 남아있었다.

《다 왔습니다. 저 다리가 보이지요?… 우리 중대장동문 저게 있습니다!》

마침 그쪽에서 누군가 큰소리로 사람들을 부르고있었다. 그가 바로 리숙이 찾는 류현수일는지 모른다. 웬일인지 목소리를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다리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다스러운 안내자가 급히 비켜서느라고 비칠거리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다리쪽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뛰여오고있었다. 앞선 사람이 무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리숙을 안내해가던 수다스러운 병사가 얼떠름해서 《왜 저럴가?》하고 말했다. 어느새 리숙의 앞으로 달려온 전사들 가운데서 누구인지 그의 코앞에 나타나 안경알을 번쩍거리며 가느다랗게 부르짖었다.

《폭파요. 피하시오!》

어느새 그 사람은 리숙의 팔을 잡아끌고 길섶에 구겨박힌 땅크에로 달려갔다. 가까운곳에서 여러 전사들이 파괴된 땅크며 자동차들에 몸을 숨기는것이 보였다. 잠시후 둔중한 폭음이 울렸다. 돌쪼각들이 파편처럼 어둠을 썰며 날아갔고 외통길의 레루방책에 부딪쳐 쩡— 하는 소리를 울리기도 했다. 크지 않은 폭발이였지만 추위에 얼어붙은 새벽대기를 산산이 뒤흔들어놓았다. 그때에야 리숙은 공병들이 림진강다리를 끊어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아참, 군관동무두… 내 아니면 어쩔번했습니까.》

안경낀 전사의 떨리는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귀에 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리숙은 어깨를 옴츠리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또 한번 폭발이 있을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것은 없었다. 사방에서 대피했던 전사들이 자기 위치로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누군가 아주 생소한 목소리로 대원들에게 빨리 서둘러 자기 맡은 일을 끝내라고 웨쳤다. 리숙을 끌고왔던 안경낀 전사도 화닥닥 일어나 다리쪽을 바라보았다.

《됐어, 됐어!…음, 그렇지, 되구말구… 군관동무, 보이지요? 다리중간이 끊어진게 보이지요?》 그는 리숙이 허리를 펴고 일어나자 어린애처럼 좋아하며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조금밖엔

안끊어졌거던요. 보이지요?》

리숙은 희여스름한 화약연기가 굼니는 다리쪽을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게, 그러되 좀 비난하는 어조로 말했다.

《조금밖에 안끊어진게 그리도 좋아요?…》

《?!…》

그순간 리숙은 알아보았다.

《원철동무! 어마나— 나를 몰라봐요?!》

《아니 이게!… 간호장동무!—》

사레들린것처럼 허덕거리며 서로 부르짖었다.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질문을 퍼붓고 대답을 했다.

《여기 우리 중대장이 누군지 알아요?… 류현수중대장입니다!》

《예, 중대장동무… 알아요!》

《알아요?… 만났댔어요?!》

《그저… 좀…》

리숙은 그의 지꿎은 질문에 급해났다.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원철동무, 하나 묻자요. 아까 하는 말이… 저 다리를 조금 끊어놨다고 그리도 좋아하던데… 왜 그랬어요? 폭약이 모자랐나요? 아니면 우정?…》

《아하—》 박원철은 우정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건 우리 중대장동무가 구상해낸겁니다. 수학적계산은 내가 좀 도왔구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다리 가운데를 조금 끊고 나머지는 흔들거릴 정도로 남겨두어서 말이지요… 아,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군. 빨리 갑시다!》

차디찬 강바람이 숨막히게 불어왔다. 군모밑에 흘러내린 머리칼이 눈앞을 가리며 마구 흩날렸다. 귀뿌리가 얼얼해졌다. 참을수 없을 지경으로 몸이 떨렸다.

다리 한복판에 이르러 박원철이 멎어섰다. 뭉청 끊어져나간 구간의 앙상하게 삐여져나온 철근들이 칼바람속에서 윙윙거렸다. 컴컴한 아래쪽에서 희끗희끗 깨여진 얼음장들이 물살에 떠밀리며 서로 부딪치고있었다.

박원철이 수학적인 계산의 도움으로 조금만 끊었다고 자랑하

던 구간이다. 한쪽은 약 2메터도 되나마나했고 다른쪽은 좀더 넓었다. 적땅크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면 제일 좁게 끊어진 구간은 그대로 넘어갈것 같기도 했다.

《이거 야단났군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가.…》 박원철이 아주 락망해서 하는 말이였다. 《중대장동문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건너간다？》

순간 리숙은 아릿한 안도감과 더불어 웬일인지 아픔과도 비슷한 실망의 감정을 체험했다. 끊어진 다리를 사이에 두고 류현수는 저쪽 어둠속에 있다. 네댓걸음만 뛰여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사이엔 무시무시한 심연이 가로놓여있다. 맞은편 다리란간쪽에 몰켜있는 검은 그림자들이 바삐 물러서는것이 보였다. 전지불이 번쩍거리며 두세사람이 그들에게로 다가섰다.

《누가 지휘관이요？》

호리호리한 키에 외투를 걸친 사람이다. 그러자 좀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그옆의 사람들이 대답했다.

《중대장동무！》

어둠속을 향해 누군가 소리쳤다. 순간 리숙의 눈에 익은 걸음걸이로 바삐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사단장동지！ 공병중대장 류현수, 당신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리숙은 그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박원철이 그의 팔소매를 당기며 무어라고 말하는것도 가려듣지 못했다. 젊은 사단장이 왜 다리를 조금밖에 끊지 못했는가고 따져묻는것 같았다. 강바람에 말끝들이 흩날렸다.

《사단장동지！ 우정 그렇게 했습니다.》 류현수의 대답이였다. 《이제 놈들의 륜전기재들이 끊어진 다리가운데 몰켜서면… 이 구간도 무너져내릴것입니다.》

그다음 또 무어라고 설명하자 그들모두가 끊어진 구간가까이 머리를 모으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전지불이 가까스로 붙어있는 골조들과 위태로운 경간들 그리고 깨여진 얼음장들을 샅샅이 더듬었다.

《좋소.》 마침내 사단장이 말했다. 《그럼직하오. 타산을 잘했소. 적땅크들이 다리우에 올라서면 저절로 무너진단말이지. 좋

소. 성공하길 바라오!》
잠시후 전지불은 급히 오던쪽으로 되돌아갔다. 사단장이 가면서 날이 밝기전에 급히 위장을 하고 매복하라고 하는 말들이 겨우 들려왔다. 사단장일행은 멀어져갔다. 류현수도 뒤따라 가버린듯했다.

리숙은 끊어진 다리 이쪽에서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깨여진 얼음장들이 비비적거리며 흠씰거리고있는 강바닥을 향하고있었다. 앙상한 철골들밑으로 숨가쁜 휘파람소리를 지르며 무심한 강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박원철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사단군의소는 여기서 멀지 않은데…》
《알고있어요!》 리숙이 말했다.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요. 곧 군단장지휘감시소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중대장동무랑 만나지 않고… 그냥 가겠나요?》
《가야 해요!》
《그러더라도 다리는 건너야겠지요?》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리숙은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리숙동무!》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퍼끗 눈길을 돌렸다.
《우릴 찾아왔소?》
류현수의 시꺼먼 형체가 끊어진 다리 저쪽에 있다. 리숙은 추위에 얼어든 입술을 놀려 대담하게 말했다.
《동물… 찾아왔어요!》
그러자 현수는 저쪽에서 얼어붙은듯했다. 맵짠 칼바람이 그들사이를 휩쓸어갔다. 리숙은 비로소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 깨달았다. 발이 얼고 온몸이 얼어들어 견디기 어려웠다.
(아이참, 왜 저러구있을가?…)
이발이 떡떡 마주쳤다. 바로 그때 저쪽의 어둠속에서 현수가 몸

을 움직였다. 비로소 돌발적인 흥분의 결박에서 풀려난것 같았다.

《리숙!》 그가 불렀다. 《조금만 기다리오. 내가 이제… 여길 건너오도록 도와주겠소. 잠간만!…》

그가 말을 마치자바람으로 이쪽에서 리숙이곁에 어정쩡해 서있던 박원철이 황급한 목소리로 웨쳤다.

《중대장동무! 그건… 내가 하지요. 내가 이제…》

어느새 박원철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스산한 페허와도 같이 끊어진 다리를 사이에 두고 두사람만이 남았다. 그러자 홀연 모든것이 어둠속에서 싸늘한 새벽추위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듯이 여겨졌다. 얼음장이 쩡—쩡 터갈리는 소리, 다리밑의 깨여진 얼음장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사나운 바람소리, 밤하늘 저 끝에서 홀로 외로이 떨고있던 별빛마저 어둠속에 삼켜져버리고말았다.

《리숙!》 현수가 또 입을 열었다. 《난 언제부터… 동무에게 꼭 하고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리숙은 다시 이발을 떡떡 맞쪼았다.

《그건 말이요. 그건… 리숙, 내 말을 듣소?》

현수가 바람새는 소리처럼 물었다. 리숙은 먼저 머리부터 재게 끄덕거렸다.

《예!… 듣고있어요!》

《난 사실… 동무가 나를 수술하던 그때부터… 아니, 그보다 썩 이전인…》

그때 박원철과 또 한명의 병사가 통나무를 메고 달려왔다.

《중대장동무, 됐습니다. 구했습니다!》

리숙은 물러섰다. 찬바람이 벌려진 입으로 쓸어들었다. 그는 몸을 떨고 흐느끼듯 가쁘게 호흡하며 박원철과 다른 병사가 크고 작은 통나무를 가지런히 건네놓는것을 망연히 지켜보기만 했다. 두다리가 후들거리는것이 더이상 서있기조차 힘들었다.

《건너갈만합니까, 군관동지?》

비로소 리숙은 아까 너스레를 떨던 병사를 분간해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나가지 않았다. 그때 맞은편의 현수가 통나무들을 짚어보며 천천히 건너왔다.

《갑시다. 무서워말구… 나를 꽉 잡소.》

그에게 매달리는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을 당하고있는지, 무엇때문에 이 다리를 꼭 건너야만 하는지 그것도 알수 없었다. 정작 흔들거리는 통나무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엔 두눈을 꾹 감고말았다. 다리밑으로 무시무시한 심연이 느껴졌다. 온몸에 줄달음치는 오한과 같은 전률에 머리끝까지 쭈볏이 일어섰다. 그러자 홀연 《리숙이!》하는 가는 속삭임과 함께 폭풍같은 힘이 그를 휘감아버리는것을 느꼈다. 숨막히는 압박감속에서 무엇인가 열렬하고 광포한 힘이 덮쳐드는것을 알수 있었다. 누가 신음했는지 무엇이 펄펄 끓고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를 밀어버리려고 애쓰며 또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어데론가 미지의 어둠속을 한치한치 움직여갔다. 리숙을 휘여감은 억센 팔뚝에서 무엇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내였다. 누구의 가슴에서인지 흉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박동소리도 들렸다. 온몸이 허공에 뜬것처럼 변화하고 끝없이 움직여갔다. 추위는 사라졌다. 불같은 열정에 몸을 맡긴채 리숙은 가까스로 흐느낌소리처럼 속삭이였다.

《아직 멀었어요?! 예?!…》

흐느낌소리가 목구멍에서 거품처럼 잦아들었다. 맵짠 칼바람이 거세찬 열풍처럼 어둠을 밀어가고있었다. 그들은 콩크리트바닥을 짚었다.…

리숙은 자기의 허리를 억세게 휘감았던 현수의 팔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미칠듯 고동치던 박동도, 목구멍까지 들어차던 흐느낌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들은 뜨거운 피의 도취에서 헤여났다. 두터운 콩크리트바닥이 발밑에 느껴졌다.

《리숙이!》

현수가 그렇게 속삭인듯싶었다.

《놓세요.》 리숙은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인젠 됐어요.》

리숙은 재빨리 군복옷섶을 쥐여당겼다. 계속하여 두손을 머리뒤로 가져다 머리빈침으로 뒤통수에 붙였던 채양없는 여름군모도 적당히 바로잡았다.

《고마와요.》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빨리, 도망치듯했다. 격렬한 도취에서, 무분별한 정열에서 빨리 헤여나고싶었다. 그러자 등뒤에서 현수가 소리쳤다.

《리숙동무, 은페부에 가있소. 내 곧 뒤따라 가겠소!》

현수는 또 련락병을 소리쳐 불렀다. 두사람이 대답하는것 같다. 하나는 박원철, 또 하나는 오윤남의 목소리이다.

《간호장동물 모셔가오. 거기서 전화를 걸게 하고… 적당히 대접두 하오!》

《알았습니다!》

역시 두사람의 대답이다. 그들 두사람이 인연깊은 간호장을 뒤따라왔다. 오윤남이 먼저 말했다.

《간호장동무, 그런 인사불성이 어데 있습니까. 우리도 만나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겠다구요!… 안됩니다. 저기 가서 우선 리치를 따져봅시다.》

박원철이 그의 말을 시정시켰다.

《리치가 아니라 도리를 따져야지.》

리숙은 홀연 마음이 개운해졌다. 숨막히던 가슴이 바람에 건듯 가셔진것 같았다.

《참, 전화가 있다지요? 마침 됐군요.》

…은페부는 릉선의 한쪽 귀퉁이를 깎아 대충 가름대를 세우고 천막을 덮은 반토굴이였다. 잉걸불이 있고 한쪽 돌판우엔 전화기가 놓여있었다. 친절한 오윤남이 리숙을 불담 가까이 자리잡게 하고 전화기까지 끌어다주었다. 리숙은 전화기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발전자돌리개를 돌렸다. 《〈갈매봉〉입니다!》하는 청높은 남자통신병의 목소리가 귀청을 두드렸다. 사단교환이 전투를 앞두고 긴장한 작업을 계속하는것이였다. 리숙은 자기가 군단장동지 담당간호장이라는것을 말하고 환자후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군단장지휘처와 전화를 련결시켜줄수 없는가고 부탁했다. 군단장동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급한 문제가 있다는것도 첨부했다. 물론 저쪽의 낮모를 전화수는 리숙의 그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군

단장지휘감시소를 찾아주겠다는것만은 흔연히 약속했다. 처녀의 애원이 섞인 부탁을 거절할 병사가 어데 있겠는가. 전선에서는 그가 군복입은 처녀라는 그 한가지만으로도 존경과 친절과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법이다.

얼마후 남자전화수의 청높은 목소리가 공명판을 찌르르 울렸다.

《01번동지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오!》

리숙은 《01》번이 군단장이라는것을 전화수의 어조에서 먼저 알았다.

《군단장동지! 담당간호장 리숙입니다.》

《리숙이, 지금 어데 있어?》

《군단장동지! 간호장 리숙 당신의 명령대로 부상당한 기마통신병을 군단병원에 후송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넨장,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지금 어데 있나 말이요?》

《군단장동지! 지금 4사공병중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거게 눌러있소. 전투가 끝날 때까지!…》

《군단장동지, 전…》

《명령대로 하오!》

다음 순간 군단장은 수화기를 놓고 말았다. 리숙은 입술을 깨물며 꼼짝하지 않고있었다. 오윤남이 뛰여들며 《놈들이 나타났소!》하고 소리치는것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누구요, 거기 간호장동무가 있소?》

《접니다.》

《리숙동무요? 나 부관이요.》 군단장의 부관,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성돌처럼 입이 무거운 사람이였다. 그 부관이 지금 성난 웨침소리를 지르고있었다. 《간호장동무, 당장 여기로 오시오. 그리고 이제부턴 그 누가 지시하든 자리를 뜨지 마오. 군단장동지가 명령을 해도 뻗대란말이요. 그런 배짱도 없으면 최현군단장곁에 있을 자격이 없소!… 그새… 동무가 없는새에… 군단장이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아오?… 책임질줄 아시오!》

리숙은 성난 그의 목소리가 반가왔다. 그처럼 가차없이 자기

를 질책하는것이 기쁘기까지 했다. 그 어떤 매질이라도 달게 받을것처럼 생각되였다. 누구인가 쉴새없이 몰아대고 고통을 주었으면 싶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는 전투를 앞둔 때에 류현수를 찾아왔고 여기서 지체하고있는것이다. 지체하는것은 감정이고 그것을 비난하는것은 리성이였다.

《간호장동무, 말을 듣소?》

저쪽에서 독촉하는 목소리에 리숙은 재빨리 대답했다.

《듣습니다, 부관동지!》

《강기슭에서 멀찍이 떨어져 와야겠소. 그쪽은 위험하오!… 그리구 알아둘건… 군단장동지가 이제 련천쪽으로 또 갈것 같소. 그런 말이 있었소. 그러니 지금 만나지 않으면 동문 계속 쫓아다니기만 할거요. 무슨 말인지 알만하오?》

《예, 알겠어요.》 리숙은 경련이 이는듯 입술을 떨며 속삭이였다. 《곧 가겠어요. 지금 당장!…》

송수화기를 내던지듯하고 리숙은 천막을 활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섰다.

28

날이 밝고있었다. 령너머에서는 벌써 땅크포가 꽈당거리고 대구경기관총이 무섭게 울부짖고있었다. 리숙은 그 총소리를 채찍소리같이 들으며 릉선우로 치달아올랐다. 릉선을 빼곡이 덮은 소나무들사이에서 반땅크총을 둘러멘 두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사수와 부사수였다. 두사람은 릉선우의 구뎅이곁에서 열심히 손짓하고있는 군관에게로 달리고있었다. 그때에야 날이 밝기전, 그토록 무시무시한 심연처럼 느껴지던 그 끊어진 다리우로 기여드는 적땅크들, 열바퀴차와 선두의 찦차를 보았다. 미군장교놈이 찦차우에서 손짓하자 대기하던 땅크들이 속도를 높여 다리 한복판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비좁은 다리우에 파르스름한 배기

가스들이 꽉 뒤덮였다. 열바퀴차가 비켜서고 찦차가 비켜서고 속도를 높인 땅크가 끊어진 다리중간에로 돌진해갔다. 별안간 다리 전체가 비스듬히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가까운 소나무숲에서 어느 전사인가 참지 못하고 《무너진다!—》하고 소리쳤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공병들인 모양이였다. 다음순간 다리우에 들어섰던 땅크들과 열바퀴차들 할것없이 모두 세차게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뒤걸음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다. 무너져내리는 경간과 함께 땅크와 포차들이 얼음물속으로 곧추 곤두박혀들어갔다. 얼음장이 꺼져나가고 물기둥이 솟구쳐올랐다.

리숙은 소란스럽게 숨을 내뿜었다. 하얀 입김이 터져나갔다.

(이젠 가야 한다. 공병들이 끝내… 성공했으니 빨리 가자, 빨리 가야 한다!)

그는 소나무들사이를 질러 강쪽으로 내려달렸다. 군단장 부관이 특별히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골안 한끝까지 가대려면 그 길밖에는 없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서는 적들이 보였다. 적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발부리에 날아와 박히기도 했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나오며 가까운 웅뎅이속으로 리숙을 밀어던졌다. 리숙은 대뜸 강기슭으로 면한 홈타기의 눈속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누군가 그를 장난감처럼 쥐여뿌린것 같았다. 전혀 아프지 않게 홀쩍 밀어던진듯한데 어느새 눈더미속에 날려가 머리를 구겨박은것이였다.

《다치지 않았수?》

그를 쥐여뿌린 우악스러운 병사가 고함치듯 물었다. 눈더미속에서 머리를 쳐든 리숙은 자기가 아주 위험한 집중사격구역에 들어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얼음판을 걸어 건너는 적들이 강기슭으로 면한 밋밋한 경사면에 미친듯 총탄을 퍼붓고있었다. 군단장부관이 강기슭으로는 들어서지 말라고 경고한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게다가 놀라운 일은 지난 전투때 죽어넘어진 적들의 시체가 강기슭에 끝없이 널렸는데 새로 나타난 미국놈들이 그것을 인민군대의 매복인줄 알고 끊임없이 집중사격을 퍼붓는것이였다. 리숙은 머리조차 들수 없었다. 일이 더럽게 되였다.

시간을 앞당겨 빨리 가대려 한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말았다.

《가만, 움직이지 마시우.》 리숙을 눈속에 구겨넣은 병사가 또 엄청나게 큰소리로 말했다. 《이런덴 왜 와가지구 남을 속쓰게 하시우.》

리숙은 힘꼴이나 쓸 건장한 그 병사의 흐려진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중대에나 유쾌한 익살군이 있는것처럼 과묵한 고집불통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말이 적고 침울한 사람들일수록 피벽스럽기때문이다.

기동기재를 움직일수 없게 된 적들이 저쪽 대안에 각종 전차와 포차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불을 다는것이 보였다. 짙은 연기가 강기슭을 핥으며 밀려오고있었다. 포차들에 적재했던 포탄상자들이 튀면서 무시무시한 폭음을 울렸다. 얼음판우에서 불길이 너울거리고 물에 빠진 적들의 비명소리가 구을러왔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얇은 얼음판우로 새까맣게 덮으며 건너오는 적들을 이쪽에서는 총 한방 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그것이였다. 적들이 쏘아대는 무질서한 총소리만이 새벽추위에 얼어붙은 대안을 선풍처럼 휩쓸뿐이였다. 강복판에서 미군장교들의 구령소리가 나는것을 똑똑히 들을수 있었다. 강기슭과 골어귀 그 어데라 할것없이 미국놈들로 꽉 들어찼다. 천으로, 만으로도 그 수를 셀수 없을것 같았다. 간단없이 쏘아대는 자동총의 련발사격소리와 웨침소리, 장구류들이 부딪치는 절커덕소리와 함께 어데선가 녀자의 비명소리, 어린애의 울음소리도 들려오는듯싶었다. 리숙은 자기가 신경과민인것처럼 생각되였다. 며칠째 잠을 설친탓이리라. 이 싸움판에서 난데없는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듣다니… 간밤에도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때문이라고 리숙은 생각하였다. 그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고 우악스러운 병사에게 간청하듯 말하였다.

《난 가야 해요.》

그러나 몸집이 실한 그 병사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알아듣지 못한것 같다. 리숙이 허리를 펴자 또 힘껏 잡아당겼다.

《제길, 가만있지 못하겠수!》

《동무！》 리숙은 증을 냈다. 《내겐…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병사는 여전히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리숙에게는 머리도 들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허리까지 몸을 일으켜세우고 이를 북북 갈고있었다.

《이 미친놈들, 짐승같은놈들아！… 악귀같은놈들！…》

리숙은 더 참을수 없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그 병사의 행동이 더없이 고맙긴 해도 더이상 여기서 지체할수는 없었다.

리숙은 벌떡 뛰쳐일어났다.

《동무, 난 가야 해요. 알겠어요？》

날카로운 부르짖음이였다. 몸집이 실한 병사가 놀래여 돌아보았다.

《예？ 군관동무, 뭐라구요？》

귀가 먼것 같았다. 한마디, 한마디를 고함소리처럼 내질렀다.

사납게 일그러진 그의 너부죽한 얼굴에서 한점 물기가 번질거렸다. 리숙은 아연해졌다. 입을 다물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납고도 쓰라린, 광포하고도 비애에 찬 표정, 리숙은 그에게서 뒤걸음쳤다. 그리고 아츠러운 총탄이 나무아지를 뚝뚝 부러뜨리는 숲으로 내달려갔다. 눈구뎅이속에 엎드려있을 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격렬한 총성들이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는듯했다. 맵짠 칼바람이 귀뿌리를 에이는듯했다. 총탄의 휘파람소리는 질풍보다도 더 세차게 그녀자를 휘감아버렸다. 사방에서 성난 웨침소리들이 날아왔다. 하지만 리숙은 몸집이 실한 그 병사, 우악스러운 그 병사의 눈가에서 번질거리던 초물같은 자욱만을 생각하고있었다.

(왜 그랬을가. 그 동문 왜 나를 그렇게 보았을가？…)

별안간 리숙은 나무그루터기에 걸려 나딩굴었다. 멀지 않은곳에서 비명같은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리숙이 적탄에 맞고 넘어진줄 안 모양이였다. 리숙은 해묵은 가랑잎들이 눈더미우에 널려있는것을 보았다.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산중턱으로 질러갈수 있을것이다. 어데선가 박격포병들이 적들의 무리가운데 포탄을 날려보내는듯싶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와와—밀려다니며 악마

구리끓듯하는 적들의 웨침소리들이 터지군했다. 그러나 일제사격의 총성은 아직 없었다. 적들을 삭녕20리골에 꽉 채워놓기전에는 쏘지 않을 작정인듯했다. 얼토당토 않은 생각인줄 알면서도 리숙은 이렇게 짐작해보았다. 그 순간 리숙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째지는듯한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은것이였다. 이어서 아까 어렴풋이 들었던 그 웨침소리—늙은이들과 아낙네들의 울부짖음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는 전장을 쏘아보았다.

암갈색의 짙은 포연이 삭녕20리골을 휩쓸고있었다. 꾸역꾸역 밀려가고 밀려오는 포연속에서 적들의 총알받이가 되여 허우적거리며 밀려오는 늙은이들,아낙네들,애어린 소년,소녀들이 바라보였다. 그들의 뒤에서 총을 겨눠둔 미국놈들이 악에 받친 고함소리를 지르며 잔등을 찌르고있었다. 놈들은 지난 이틀간에 수천의 시체를 남긴 죽음의 삭녕20리골을 어떻게 하든 뚫고나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는것이였다.

리숙은 바질바질 가슴이 타드는것 같았다. 비로소 우악스러운 그 병사의 눈가에 흘러내린 눈물이 리해되였고 자기를 쏘아보던 그 눈빛에 깃들었던 가차없는 경멸과 비난의 뜻을 알수 있었다. 한 녀인이 둘러안고있는 젖먹이의 울음소리가 특히 리숙의 가슴을 사정없이 찢고있었다. 포단과 띠개가 흘러내려 거의 발가숭이나 다름없는 젖먹이를 껴안고 녀인은 허척지척 걸음을 내짚고있었다. 바스라지듯 울어대는 어린것의 몸부림도 눈가루를 날리는 강바람도 무섭게 짖어대는 적들의 위협적인 총성과 욕설도 다 그 녀인에게는 들리지 않는듯하였다. 논두렁을 타고넘고 얼어붙어있는 적들의 시체도 밟고넘으며 어덴지 먼 하늘가 차디찬 려명속에서 마른 벼락처럼 섬광이 번쩍거리는 하늘가 한끝만을 바라보고있다. 쓰러질듯 비틀걸음을 하고있다.

언제였는지… 리숙은 자기의 눈가에 차디찬 눈물이 맺혀 얼어붙은것을 느꼈다. 무엇인지 그 젖먹이가 부르는 웨침소리가 있었다. 미래가 부르는 소리였다. 소중한 욕망,정겨운 환희,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가 부르고있었다. 리숙은 오직 그것만을 리해했다.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뒤는 싸늘한 인생의 페허

로 될것이였다. 리숙은 포연이 자욱한 그곳으로 막 뛰여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때 아우성치는 사민들가운데로 달려나가는 한사람이 있었다.

《지봉이！—》

《지봉동무！—》

산기슭의 홈타기들에서 병사들이 웨치고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어라고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웨치며 포연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가운데로 뛰여들고있었다. 모자도 없고 웃도리도 벗어제친 맨내의바람이다. 방금전 리숙에게 무자비한 경멸의 눈총을 쏘던 그 우악스러운 병사였다. 그 병사가 팔을 길게 내뻗치며 힘껏 웨치자 아우성치며 밀려오던 사람들이 좌우로 쫙 갈라지더니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총탄들이 불꽃을 튕기는 그곳, 논두렁 한가운데로 달리며 연신 무어라고 고함을 치고있었다. 적들과 끌려나왔던 인민들사이에 별안간 대통로가 열린듯 간격이 생겼다. 어지러운 총성들이 터지며 늙은이가 쓰러지고 두손을 맞잡은 오누이애들이 땅을 허비며 꿈틀거렸다. 매복했던 아군중대들에서 일제사격의 총성이 날아가며 적들을 쓰러눕혔다. 그러는 가운데 적들속에 뛰여들었던 병사가 젖먹이를 안은 녀인을 잡아끄는것을 리숙은 보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구겨박힌 녀인에게서 병사는 젖먹이를 그러안았다. 병사는 젖먹이를 품에 안았으나 웬일인지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다. 다음순간 태질하듯 울어대는 벌거숭이 젖먹이를 앞으로 쳐들었는데 그것은 마치도 리숙을 향하여 떠맡기려는듯이 보였다. 맵짠 바람에 젖먹이의 기저귀가 너펄거렸다. 리숙은 앞으로 내달렸다！…

얼음을 타고 강바닥을 기여 골안을 휩쓸던 찬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든 모양으로 젖먹이는 숨이 꺽꺽 막히군했다. 푸르스름한 반점들이 얼룩을 그리는 종아리를 꼭 껴안고 리숙은 그리 깊지 않은 홈타기로 달려가고있었다. 이제 다섯, 아니 여라문걸음만 더 달리면 어린것을 껴안은채 눈속에 딩굴것이다. 솜저고리쪼각이 날리고 쪼그라진 군용밥통이 발끝에 채웠다. 탄피들이 널린 밭둔덕아래 굳어진 시체들이 엇가로 누워있었다. 조금만, 몇걸음만 더…

순간 리숙은 둔중하고도 뜨거운 타격이 뒤잔등에서 가슴을 치는바람에 우뚝 멎어섰다. 숨이 콱 막혔다. 그가 바라고 숨가삐 달려온 홈타기는 눈앞에 있었으나 발을 옮길수 없었다. 다음순간 숨길을 메웠던것이 열리며 그는 비틀거렸다. 그때 리숙이 느낀것은 무엇인가 상서롭지 못한 일, 그가 바라지 않던 불행한 일이 뜻하지 않게 불쑥 일어났다는 어렴풋한 의식이였다. 그는 얼결에 한 손을 가슴앞섶에 밀어넣었다. 다음순간 손을 움츠러뜨렸다. 끈적끈적하고 뜨거운 감촉이 진저리나게 했다. 어쩔새없이 그는 허리를 꺾으며 주저앉았다. 가슴에 안은 젖먹이의 종아리가 푸들쩍 뛰는것이 감촉되였다. 그때 목쉰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그래 살았구나!… 너를…살렸구나!…)

리숙은 젖먹이를 껴안은채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발버둥치는 어린것의 울음소리를 귀담아들으며 놀랍게 생각하였다.

(웬일일가. 내가 왜 이 모양일가?…과연 그것이 왔단말인가?…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별안간… 온단말인가?…)

눈속에 틀어박은 이마가 뜨겁게 녹고있는듯했다. 등허리로부터 가슴 안쪽까지 뜨거운 쇠집게로 사정없이 쥐여뜯고있었다. 비로소 모진 고통과 무서운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그저 아픔인것이 아니고 참을길 없는 뜨거움이였다.

다급한 발자국소리들이 달려온것은 그때의 일이였다. 누군가 목터지게 리숙을 부르고있었다. 리숙은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흐릿해진 눈길로 누군가의 모습을 자꾸만 찾고있었다. …

…현수는 적들의 총알받이로 끌려나온 사람들이 로지봉이 밀어준 좌우측 산기슭으로 쫙 흩어져가는것을 보았다. 인제는 마음놓고 적들을 족칠수 있게 되였다. 적들의 무리속에서 박격포탄이 무시로 튀였다. 간단없는 웨침에 쩍 벌어진 시꺼먼 입들이 보였다. 현수는 강기슭으로 달려갔다. 로지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봉동무, 어데 있소?》

얼굴 한쪽이 째진 병사가 그를 향하여 소리쳤다.

《저기 지봉동무를 끌어옵니다. 부상입니다！…》

어깨를 낮춘 두 전사가 개인천막으로 감싼 로지봉을 끌어내는 것이 보였다. 그중 한 전사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있는 박영일이라는 전사였다.

《어떻게 됐소. 어델 다쳤소？》

현수는 휘청거리는 박영일을 붙들어 멈춰세웠다.

《부상입니다. 중대장동지！ 복부에 탄알을…》

그때 맨내의바람의 로지봉이 모지름을 쓰며 울부짖었다. 김빠진 거쉰 소리였다.

《중대장동무, 저 동물, 저 동무를 먼저…》

내의를 물들인 피자욱이 거뭇거뭇했다. 현수는 보지 않고도 상처가 중하다는것을 깨달았다.

《지봉이, 입을 다물어. 말을 하면 안돼！》 그는 박영일을 밀어내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후송하오. 위생병을 부르오！》

로지봉은 극심한 고통에 못이겨 헐썩거렸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긁으며 무섭게 부르짖기도 했다. 거쉰 그 소리를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여러 사람이 그를 맞들어갔다.

적들은 무리로 쓰러지면서도 계속 앞으로, 앞으로 밀려들었다. 수류탄이 날아가고 련발사격의 총성이 엇바뀌면서 무수한 불꽃을 쥐여뿌렸다. 그러나 앞에도 뒤에도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안 적들은 무작정 골안으로 계속 밀려들었다. 섬광이 번쩍거릴 때마다 춤을 추듯 너울거리는 그림자들이 늘어갔다. 악을 쓰는 고함소리, 단말마의 비명소리들이 불구름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지군했다.

그때 현수는 로지봉이 안아오던 젖먹이를 생각했다. 분명 리숙이라고 짐작한 한 처녀가 그에게서 어린것을 받아안던 모습도 상기했다. 그다음 회오리처럼 휩쓸어가던 불구름, 리숙의 모습을 더는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후려쳤다. 보지 못했다！… 당황한 눈길로 사방을 살폈다. 산중턱으로 기를 쓰며 달려오는 흰옷입은 사람들에게서 다음 강기슭에 면한 매복진지들에서 수류탄을 뿌려던지고있는 전사들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없다. 어데도 없다！… 별안간 가슴이 비틀리운듯했다. 어느 눈구뎅이속에 젖먹이를 안고

있는 박원철이 보였다. 그를 향해 무어라고 울부짖는것 같았다. 현수는 그리로 달려갔다.

《중대장동무！》 그를 알아본 박원철이 젖먹이를 안은채 벌떡 몸을 일으키며 부르짖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이 일을 어떡합니까. 예？！…》

현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것을 느꼈다. 다리가 무섭게 와들거리고 숨이 칵 막혔다. 무엇인지 무섭고 만회할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는 눈구뎅이속으로 뛰여들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그렇게도 낯익은 처녀의 얼굴을, 눈더미처럼 창백하고 모진 고통에 이지러진 리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믿을수 없는 일이, 상상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진것이다. 리숙이 몸을 옹크리고 깔고앉은 눈더미우에 질벅이 고인 검붉은 피가 굳어져있었다. 숨이 콱 막혔다. 손을 더듬어 처녀의 하얀 손우를 덮었다. 살을 지지는듯 차디찬 랭기가 전해졌다.

《리숙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나 리숙은 동그랗게 흡뜬 눈으로 그를 바라볼뿐이였다. 작은 입은 비통하게 꽉 다물려있었다. 역시 검푸르고 싸늘하게 굳어져가는 시선에는 몸서리치게 하는 무서운 의미가 있었다.

《붕대！》하고 현수는 격하게 소리쳤다. 《붕대를 주오！… 리숙이, 내 이제 응급처치를 하겠소. 걱정마오. 이제 곧… 붕대를 처매고… 원철동무, 뭣하오. 빨리 붕대를 꺼내！》

그러나 리숙의 어깨를 그러쥐던 손길을 가드라뜨리고말았다. 허리를 잔뜩 굽히고 몸을 꼬고있던 리숙이 《안돼요！》하고 신음소리처럼 부르짖었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고통스러워 손을 허우적거렸다. 호흡이 절박해졌다. 매순간, 매초마다 생명이 새여버리는듯했다.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아랗게 되였다. 현수는 가슴이 터지는듯했다. 이러한 참사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그것도 다름아닌 리숙에게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아무리 해도 믿을수 없었다. 갑자기 목이 꽉 메여와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부지중 처녀의 손을 꾹 더듬어쥐며 속삭이듯 부르짖었다.

《조금만 참소. 응？！ 이제 다 잘될거요. 이제 붕대를 매고 병

원에 보내겠소. 조금만 참으면 되오. 조금만! …》
그는 꿈결에서처럼 박원철이 내밀어준 붕대를 잡았다. 제손으로 상처를 헤치려 했다. 그러자 몸을 옹송그린 리숙이 또다시 가느다란 목소리로 힘겹게 그리고 차디찬 죽음의 목소리로 부탁하였다.
《안예요. 다치지 말아요. 제발…》 그 녀자의 두눈에서 한점 불꽃이 타올랐다. 불타는 애원을 거기에서 보았다. 대리석같이 희여진 이마 언저리가 메말라갔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도 얼어들었다. 가는 주름살들을 거쳐 스러져가는 경련의 파도가 분간되였다. 동그랗게 몸을 웅크린 그 녀자의 몸이 부르르 떨리고있다. 아마도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리도 모질게 애써 싸우는 육체의 전률인듯싶었다. 이슬머금은 한송이 보라빛 나팔꽃이 추위에 스러져가고있다.
현수의 마음은 조여들고 뿌직뿌직 심지처럼 타들었다. 거센 울부짖음소리가 막 터지려 했다. 여전히 12월의 하늘은 재빛연기에 쌔워 머리우에 낮추 드리웠고 바람은 살을 에이는듯 날카롭게 불어쳤다. 이따금 재가루인지 눈가루인지 아프게 떨리는 눈섭을 성가시게 때리군했다.
그때 리숙이 가드라드는 손으로 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잡아끌어당겼다. 현수는 숨길이 꽉 막힌듯 고통스럽게 몸을 떨면서 그 녀자의 가슴우로 머리를 수그렸다. 뜨겁고도 열렬한, 소란스럽고도 가쁜 숨결이 토막치듯 퍼부어졌다.
《현수동무, 나도… 꼭 하고픈 말이 있었는데…》
《리숙동무! 알고있어. 나도 그렇고… 동무도…》
《그래요. 정말 우린… 알고있지요. 그런걸 난… 그냥…》
리숙은 시꺼멓게 변하는 입술을 힘겹게 놀렸다. 무거운듯이 가까스로 눈을 뜨고있었다. 현수는 대원들에게 지시하여 군단지휘부에 전화를 거는 한편 리숙을 후송하게 했다. 리숙이 또 무슨 말인가 하고싶어했지만 막무가내로 그를 담가에 실었다.
포연속에서 흐릿해진 해빛이 눈녹은 땅우에 얼씬거렸다. 열띤 총성들이 무섭게 울부짖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리숙의 맥이 진한 한손을 꽉 잡았다. 차디찬 숨결이 파듯파듯 힘겹게 뛰고있

었다.

…최현이 리숙의 중상에 대하여 보고받은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였다. 욕골부근의 언덕우에 그는 서있었다. 눈앞에서는 여전히 미1기병사단의 패주대렬에 대한 섬멸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서울제4보병사단 전투원들이 돌격해 나가고있었다. 그때 4사의 통신참모로부터 군단장의 담당간호장 리숙이 한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해 비발치는 총탄속에 뛰여들었다가 중상당하였다는 전화가 왔다. 부관이 그에 대해 보고하였다. 최현은 시꺼먼 눈을 두릿거리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 우리 리숙이야 공병중대에 있질 않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투에？… 그가 왜 거기서 전투를 한단말인가. 당치 않은 소리！》

최현의 얼굴은 사납게 변모되여가고있었다. 기어이 무슨 사실을 부정해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시도였다. 부관은 그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침착하게 전말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최현은 솥진 장미를 흠칫흠칫 떨었다. 부르쥔 주먹을 번쩍 쳐들었으나 어쩌지 못하고 손가락을 쫙 펴들었다. 그런 다음 별안간 그 손으로 자기의 권총집을 꽉 움켜잡았다.

《그래 지금… 리숙이 어데 있소？》

《후송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요？》

《전투가 한창이여서… 담가를 메고서는…》

《자동차를 뛰게 하오！》하고 최현은 노기를 띠고 소리쳤다. 《큰길로 해서 군단병원까지 직통 가닿게！… 그리고 자동총수들로 호위를 조직하오！…》

부관이 참모장에게 달려간 다음에도 그는 한동안 누구를 기다리고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를 돌아다보군했다. 발자국소리만 나면 고개를 홱 돌렸다. 돌아보고는 킁 킁 코를 불면서 고통스럽게 미간을 찌프렸다. 나어린 전화수의 목소리에도 흠칠 놀라군했다. 그러나 기다리는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투는 이날 하루종일 또 밤새껏 계속되였다. 삭녕20리골의 모든 야산과 둔덕들, 논발과 강기슭은 적들의 시체로 한벌 덮이고있었다.

밤부터는 눈이 내렸다. 하염없이 퍼붓는 그 눈송이들을 맞으며 최현은 화토불곁에 앉아있었다. 그는 리숙의 위생가방가운데서 사진 한장을 꺼내들고 오래도록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라고 짐작되는, 구식 헬메트를 손에 든 사람이 리숙이와 나란히 어느 일각대문앞에 서서 웃고있었다. 리숙은 퍼그나 어릴때 모습으로 하얀 세라복을 입고있었다. 머리엔 무슨 꽃송이를 달고있는것 같았다. 동그란 까만 두눈이 최현을 쳐다보며 웃고있다. 위불없이 룡옥이의 어릴적 모습이다.

최현은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울컥 치미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구김새없이 웃고있는 리숙의 단아한 모습이 흐릿해졌다. …

29

《〈크리스마스총공세〉는 불행한 공세였소.》하고 트루맨은 정기적인 기자회견에 나가기전에 로스보도관을 보고 말하였다. 《오늘 나는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자고 결심했소. 왜냐하면 이건 다 저 동방의 늙다리장군이 저지른 엄중한 과오이기때문이요.》

이어 기자회견에 나간 트루맨은 수십번도 더 검토해본 성명서를 읽었다.

《지금 세계는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최근의 조선정세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세계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였다. 인류의 념원은 유린되고 좌절되고있다.》 트루맨이 랑독한 그 성명문은 처음부터 페허에 대한 극적묘사와도 같이 장엄하게 울리였다. 《…최근 사태는 북조선에 있는 유엔군이 매우 조직적이며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유엔군의 형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패배한채로 전쟁을 중지하지는 않을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유엔군은 조선에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공산주의 적색병은 일소될것이다!…》

성명서랑독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제기하였다.

《대통령각하! 우리는 조선전쟁의 현실태에 비추어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취할 의향인가 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필요한 수단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았소. 조선전쟁에 대해서도 합중국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수단도 취할 용의가 있소.》

《그 필요한 수단가운데 어떤 무기들이 포함되는가요?》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이 포함되오.》

그러자 기자석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화독에 물을 퍼부은것처럼 폭발적으로 뛰쳐일어난 기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어댔다. 개중에는 의자를 걷어차고 퇴장해버리는 기자들도 있었다. 《워싱톤포스터》지의 한 기자가 소음을 짓누르며 큰소리로 말했다.

《대통령각하! 당신은 보유하고있는 모든 무기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원자폭탄의 사용을 선언하는것이 아닌가요?》

《원자폭탄!》하고 트루맨은 부지중 그때 등골로 줄달음치는 전률을 느끼며 그 말을 되받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을 던진이래 세계력사상 가장 끔찍한 희세의 살륙자라는 비참한 《영광》을 얻은 그였다. 그러나 곧 몸을 떨고나서 으름장을 놓듯이 말했다. 《원자폭탄—그것은 무서운 무기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을 나의 손에 쥐여준 이상 나는 주저함이 없이 선언하는 바요. 〈원자폭탄은 필요한 때 사용된다!〉》

트루맨의 이 발언은 즉시 전세계에 보도되여 각국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새 세계대전까지도 결의한것으로 해석되였던것이다. 격렬한 론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수상 애틀리는 야당지도자이며 세계정치무대에서 저명한 활동

가로 공인된 이전수상 쳐칠까지 대동하고 워싱톤으로 날아왔다.

그리하여 12월 4일 트루맨대통령의 전용요트 《윌리암 스퍼크》호에서 미영수뇌자회담이 열렸다. 미국측에서는 트루맨과 국무장관 애치슨, 브래드리 합동참모 본부의장, 마샬국방장관이 참가하고 영국측에서는 애틀리수상, 베윈외무상, 쳐칠이 참가했다.

광범한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여기에서 트루맨이 관심한것은 조선전쟁에 대한 서유럽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였다. 다음 일본과의 단독강화조약타결, 그후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공개적으로 리용하는것이였다. 미국내에서는 《국가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륙군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해 론의했다.

영국수상 애틀리는 기본적으로 트루맨의 립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도 적극 싸울것입니다.》하고 그는 대륙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변함없이 충실한 동맹국으로 있을것을 약속했다. 《우리모두는 제3차세계대전에 대처할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되 그 모든것은 조선전선에서의 사태발전이 결정할것이라는것을 잊지 않는것입니다. 그런즉 대통령각하, 우리는 조선전선에서 유엔군이 결정적인 우세를 이룩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담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이전수상 쳐칠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시간적여유를 얻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교전대방에 즉시적인 정전을 제기하도록 권고했다.

《왜냐하면.》하고 로회한 책략가인 그는 력설했다. 《군사적으로 볼 때 될수록 빨리 정전이 이루어지면 유엔군은 위기를 수습할수 있을뿐아니라 대륙을 공격하려는 최종적인 목적도 달성할수 있기때문입니다.》

트루맨은 쳐칠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북조선측에 정전을 제기할데 대한 권고만은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전쟁확대를 위한 군비확장, 추종국가군대들의 증파,

《조선정전3인위원회》의 조작 등으로 트루맨은 분주탕을 피웠다. 그러나 여전히 트루맨을 난처하게 한것은 조선전쟁에서 실패한 책임을 지고 트루맨과 애치슨이 사직할것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집요한 공격이였다. 특히 조선전선의 맥아더가 날뛰였다. 《뉴욕타임스》지와 《뉴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드》지 등에 미군이 조선반도의 작전에서 부당한 제한을 받았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하였으며 유피통신사 사장 베이리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트루맨은 분노했다. 국방성, 국무성, 합동참모본부 간부회의를 소집한 트루맨은 대뜸 맥아더의 해임문제를 제기하였다.

《지금 맥아더는 실패의 책임을 워싱톤에 넘겨씌우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소. 물론 그런것쯤 참을수 있소. 우선 우리는 승리하여야 하오. 그러므로 나는 무능력하고 도발적이며 철면피한 현지사령관을 보다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사령관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있은후 국방장관 마샬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럼 대통령각하는 누가 그를 대신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브래드리대장이요!》 트루맨의 확신에 넘친 대답이였다. 《나는 벌써 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드리대장을 추천하기로 결심했소.》

브래드리대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각하! 신임해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원수는 많은 업적과 명성으로 미국국민의 기억에 새겨져있습니다. 만약 그를 해임한다면 미국을 둘로 갈라놓는 대론쟁이 벌어질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샬국방장관이 머리를 끄덕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원수를 해임하면 각하는 대통령임기중 가장 치렬한 싸움을 각오하여야 할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오?》

《예, 또한 그를 해임하면 군사예산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루맨은 미간을 잔뜩 찌프렸다. 구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애치슨을 넘겨다보았다.

《당신은 왜 침묵을 지키고있소?》

《각하!》하고 애치슨이 소심하게 말했다. 《저는 이 문제를 륙군참모총장 콜린즈대장이나 합동참모본부의 전체 성원들과도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트루맨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콜린즈대장이나 합동참모본부의 성원들 대다수는 맥아더의 옛 부하들이다.

《좋소.》 끓어오르는 격분을 누르며 그는 말했다. 《당분간 이 문제를 보류하기로 합시다. 당신들의 의견을 참작해보겠소.》

하지만 트루맨은 마음속으로 기어이 맥아더를 《영웅》의 기념탑우에서 끌어내려 시궁창에 처박고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12월 11일 오전 11시경, 림진강일대에서 미 제9군단이 섬멸당하고있을 때 맥아더는 자기의 전용비행기 《스캡》호로 하네다비행장을 떠나 련포비행장에서 알몬드소장과 만났다.

낡은 빠넬식 조립건물주위에 철갑모를 쓴 호위병들이 울바자처럼 둘러서있었다.

맥아더는 알몬드가 안내하는 목조건물로 들어갔다. 조그마한 석유난로가 방안을 덥히고있었다.

《일이 어떻게 돼가오?》

맥아더는 접이식쇠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물었다.

《각하, 해병대의 손실이 큽니다. 1해병사단 2만 3,215명중 전사자와 전상자 약 3,918명, 동상 등 전투이외의 부상자 7,313명으로서 병력의 절반이상에 이르고있습니다.》

맥아더는 석유난로에 손을 쪼이며 묵묵히 앉아있었다.

잠시후 1해병사단의 탈출형편을 물었다. 알몬드는 현재 해병대의 마지막후위에 있던 땅크 약 40대와 정찰중대가 고토리를 떠난후 진흥리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여기서부터는 화물자동차와

렬차를 리용하여 해안도시 흥남으로 빠질수 있다고 했다.

《해병소장은 지금 어디에 있소?》

《묘지에 가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련락을 받았습니다.》

《묘지?》

《예, 전사한 해병대원들이 도처에 매장됐는데 소장은 매장위치들을 다 지도에 장악하는 한편 자기가 직접 묘지들을 찾아 묵상하겠다고 했습니다.》

《…》

맥아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알몬드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당신을 축하해야겠소. 장군! 해병대가 손실은 크지만 지옥에서 빠져나온것은 당신의 생일에 대한 더없이 귀중한 선물이요.》

알몬드소장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바로 래일 12월 12일은 알몬드가 59살이 되는 생일날이다. 하지만 비참한 패배의 운명에 놓인 지금 생일에 대한 선물이요 축하요 하는 말들이 반갑게 들리지 않았다.

《각하.》 알몬드가 말했다. 《각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2의 바탄반도의 비극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별안간 맥아더의 수척해진 얼굴에 그늘이 비꼈다. 그는 맥없이 중얼거렸다.

《나갑시다. 비좁은 방안에 들어앉으니 우리에 갇힌것 같은 느낌이요.》

비행장은 황량했다. 칼바람이 회초리처럼 얼굴을 후려쳤다. 흰눈에 덮인 먼산 봉우리너머에서 웅근 포성들이 울려왔다. 맥아더는 알몬드의 팔을 끼고 호위병들의 귀에 미치지 않을가 저어하듯 아주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도 콜린즈대장을 만나서 알겠지만 지금 워싱톤에서는 조선전쟁에 대한 두가지 가상을 예견하고있소. 그 하나는 공산군측에 정전을 제기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군이 지난 여름처럼 부산교두보에 밀려가 롱성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최악의 경우엔 원자폭탄의 사용을 결심하게 될것이요.》

여기서 그는 말을 끊었다. 비행기있는데로 알몬드를 이끌어가다가 갑자기 멎어섰다.

《아니, 우린 승리해야 하오. 지금 당장 원자폭탄을 던져서라도 다시 압록강으로 진격할 가능성을 얻어야 하오!》

《각하!》

알몬드가 신음소리를 삼켰다.

《각하자신이 얼마전에 원자폭탄의 사용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조선전쟁에는 전선의 륜곽이 없고 적아가 뒤섞여있어서 원자폭탄도 쓸모없이 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맥아더는 두손으로 귀를 틀어쥐였다. 혹한이 그를 괴롭혔다. 활주로를 휩쓸어가는 눈바람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웠다.

《그랬지. 그렇게 말한 일이 있소.》 맥아더는 또 침울하게 이마를 찌프렸다. 《빌어먹을 전쟁이요. 운명이 나를 배반했소!》

그때 맥아더는 이제 자기가 몇달후 전쟁실패의 책임을 지고 철직되여 본국으로 소환되여가는 날 비행장에서 다시 이 말을 하게 되리라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맥아더는 비행기에 오르기전에 마지막으로 조선전선의 하늘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저기가 조선이지… 내가 평생에 이룩해놓은 모든것을 짓밟아버리고 나의 운명을 끌내 시궁창에 처박은 조선!…)

바람이 불면서 늙고 지치고 쓰라린 울분으로 하여 마음마저 병든 맥아더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온몸을 부르르 떨게 했다.

《아, 운명은 나를 배반했소!》

이 부르짖음에 그의 후임으로 온 릿지웨이가 열심히 위안하는 말을 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진물이 고인 우묵한 눈으로 점도록 음산한 하늘가를 보고있을뿐이였다.

《아니요. 나를 위안해줄 필요는 없소. 나는 패배했소. 우리는 다 비참한 패배를 당했소. 명심해두오. 북조선의 최고사령관은 비범한 예지를 가진 걸출한 명장이요!》

맥아더는 배웅나온 사람들 모두에게 손을 들어 대충 작별의 인

사를 하고 자기의 이전 전용기 《바탄》호로 힘들게 올라갔다. 사다리가 물러갈 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자기를 비참한 운명에로 차버린 조선을 향해, 그 무서운 인민이 사는 나라쪽으로 흐릿한 눈길을 돌려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수개월후에 있게 될 일이다.

맥아더는 점점이 널린 흰눈을 밟으며 전용비행기 《스캡》호로 걸어갔다. 알몬드 혼자서 그를 바래주었다. 전례가 없는, 기자들앞에서의 호화로운 성명도 없는 외로운 행차였다.

30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는 전선에서 멀지 않은 숲가에 있었다. 홍명희부수상이 여기에 도착한것은 오전 10시경이였다.

그는 주차장격으로 된 골어귀의 공지에 차를 세우고 경위중대장을 따라 눈을 쳐낸 숲속통로로 걸어들어갔다.

겨울치고는 류달리 잠풍했다. 눈부신 해빛이 어제 내린 하얀 눈더미우에서 자글자글했다. 눈을 함뿍 들쓰고있는 땅크들이 부릉부릉 발동기소리를 죽여가며 큰길가로 굴러가고있었다. 산자드락으로부터 골짜기를 따라 자동총을 휴대한 군인들이 한 50메터 간격을 두고 늘어서있었다.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특별경계근무성원들인 모양이였다. 다들 흰천으로 위장하고 자동총을 쥔 손에는 두툼한 솜장갑을 끼고있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는 홍명희의 마음은 불시로 뿌듯해졌다. 그 솜장갑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피땀이 들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그였던것이다.

그는 눈을 들쓰고 묵묵히 서있는 침엽수들을 지나 커다란 천막쪽으로 다가갔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여기에서 전선지휘를 하고계신다.

천막안에서 장령 두사람이 나오다가 홍명희에게 군대식 경례를 했다. 온통 흰눈을 쓰고있는 은빛세계에서 모직외투에 커다란

장령별을 박고있는 그들의 모습은 신기한 대조를 이루었다. 장령들은 홍명희가 지나갈수 있게 눈속에 한발씩 잠그고 길을 드터주었다. 홍명희는 황황히 그앞을 에돌아가며 한손을 들어 답례했다.

천막앞에 이르자 어느새 아셨는지 장군님께서 친히 나오시였다. 며칠전 내각 제30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하루종일 같이 계셨건만 그이께서는 대단히 반가와하시였다. 홍명희를 천막안쪽의 난로 가까이 자리잡게 하며 말씀하시였다.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눈길에 이렇게 빨리 도착할줄은 몰랐습니다.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장군님!》 홍명희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서며 송구스러워 했다. 《저는 뭐 바쁘지 않습니다. 해방지구 인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안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 몸을 좀 녹이십시오.》

천막안은 훈훈했다. 난로에서 장작불이 이글거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여러대의 전화기들이 놓인 탁자에 앉아계셨고 맞은편에는 남일이 서있었다. 그리고 탁자우에는 홍명희도 자주 보아온 커다란 지도—총참모부에서 작성한 정황지도가 펼쳐져있었다. 남일이 끊어졌던 보고를 다시 계속했다. 홍명희는 두손을 비비며 남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전선동부에서 우리의 제2전선부대들에 의하여 원산이 해방되고 고원,영흥(금야),정평 등 함흥이남에서 행동하던 인민유격대들에 의하여 이 일대가 해방되자 동해안을 따라 함흥—원산방향으로 패주하려던 미 제10군단과 괴뢰군1군단의 퇴로는 완전히 차단되고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미 제10군단과 괴뢰군1군단을 안변계선까지 퇴각시킨 다음 그곳에서 전선서부에서 퇴각하는 미 제8군부대들과 련합하여 황주—안변계선에 중간방어 〈A선〉을 실현하려던 맥아더의 기도 역시 파탄되였습니다.

지금 맥아더는 미 제10군단 패잔병들을 바다로 빼내기 위하여 〈흥남철퇴작전〉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정찰국의 보고에 의하면 미 제77기동분함대와 미90기동분함대가 흥남앞바다에 나타나 대대적인 비행기폭격과 함포사격을 퍼붓고있다고 합니다.…》

홍명희는 사뭇 놀란듯한 표정으로 남일을 바라보고있었다. 무엇인가 달라진것이 있었다. 예나 다름없이 남일은 꿋꿋한 표정이였고 억양도 예전 그대로였지만 벌써 그는 전날의 남일이 아니였다. 그 어떤 강인성과 독창성,목적지향성을 겸비한 참모일군이 그의 눈앞에 서있었다. 홍명희는 기억에도 생생한 지난 9월의 어느날 일을 상기하면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날 그의 얼굴은 침통하였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결국엔 아무런 방안도 없이 땀을 흘리며 장군님앞에 서있었다. 하지만 지금 남일은 자기의 의젓한 자세로써 그리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써 승리하는 전선을,전선의 실태를 보고드리고 있는것이다.

《…지금 적들은 어떻게 하던지 38도선에서만이라도 중간방어를 즉 새로운 〈B선〉방어를 조직하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종심에 예비대로 있던 괴뢰군3군단과 괴뢰군 륙군본부직속부대들을 38도선중부와 동부로 내몰고있습니다. 벌써 괴뢰군3군단지휘부는 원주로부터 춘천에 옮겨와 그 무슨 〈결사전〉을 부르짖고있습니다.

놈들은 먼저 이 지역의 우리 제2전선부대들을 구축해보려고 획책하고있습니다. 어제 하루동안만 해도 괴뢰군3군단의 2개 사단을 땅크,비행대의 지원밑에 춘천,가평 일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2전선부대들은 춘천—홍천사이의 모래고개 일대에서,가평—서울사이의 도로와 춘천—화천,춘천—양구사이의 도로에서 적들의 진출을 완강히 견제하였습니다.…》

홍명희는 버릇처럼 짧은 코수염을 비다듬으며 두눈을 찌긋하고있었다. 남일의 보고가 중단되지 말고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랐다. 난로의 뜨거운 열에 그의 얼굴은 벌거우리하게 상기되였다. 깊이 감동되고 금시 터질듯 부풀어오른 가슴을 한손으로 지그시 눌러대면서 어느새 주머니에서 꺼내든 《모란봉》담배갑을 만지작거렸다. 한갑에 40대나 들어있는 이 《모란봉》 큰 갑도 하루새에 다 태우군하는 애연가로서 그는 이 벅찬 흥분을 그대로만 참고있을수 없었다. 마침 장군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어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시였다.

그때 남일은 적들이 전선서부에서의 38도선중간방어를 기어이 성사시켜보려고 련천을 중심으로 대량 무력을 집결하고있는데 대하여 보고드리고있었다.

《지금 적들은 교활한 전술을 쓰고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놈들은 우리의 공격이 맹렬해지면 별로 대항함이 없이 시가지를 내주었다가 아군이 시내를 차지한 다음 땅크를 앞세우고 반돌격을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련천이 중요하오. 련천은 서울,개성,철원 등과 련결되여있는 중간지대로서 새로운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되고있소. 그러므로 최현동무에게 련락하여 어떻게 하든 련천일대를 장악하고 적예비대들의 38도선계선으로의 진출을 불허하며 적들의 38도선중간방어기도를 결정적으로 짓부셔버리도록 해야겠소.》

홍명희는 한껏 구수한 담배연기를 들여마셨다. 아니,그저 담배연기가 아니라 지난날들의 말 못할 고뇌와 우수를 다 태워버리는 그 형언할길 없는 환희를 가슴가득히 들여마신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언제 어떻게 남일의 보고가 끝났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덧 장군님께서 지도를 마주하고 서계시였다.

《곧 전선동부의 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련합부대들에 미제10군단과 괴뢰군1군단의 패잔력량을 포위섬멸할데 대한 명령을 전하시오.》

남일이 수첩에 급히 적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지도우에 확대경을 옮겨가며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해안연선을 따라 적을 추격하는 인민군련합부대들과 장진—함흥방향으로 공격하는 중국인민지원군련합부대들은 서로 긴밀히 협동하여 함흥북쪽과 동북쪽에서 저항하는 적을 소멸할것.

계속하여 흥남,서호 지역으로 적을 압축하면서 맹렬한 타격을 가할것. …》

홍명희는 자리에서 일어서있었다. 장군님께서 계속하여 전선서부와 제2전선부대들에 새로운 전투명령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그는 또다시 경건한 감정에 휩싸여 이 수수한 천막

과 커다란 지도며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구절구절을 되새겨 보고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오던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있었고 새로운 청각으로 듣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눈굽이 쩌릿쩌릿해났다. 눈앞이 뿌예지고 호흡이 절박해졌다. 시가에도 있듯이 기아에 허덕이다 한술의 밥을 먹어본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의 진가를 다 알지 못하는법이다. 새벽을 기다려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본적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기쁨을 다 알지 못하는법이다. 하다면 이 가슴속에 고패치는 이 재량할수 없는 환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가보냐?！…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시자 남일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올렸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장군님께서 홍명희에게 물으시였다. 그러나 그는 그이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단번에는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서류철을 당기며 황황히 서둘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홍명희가 펴든 대책안을 주의깊게 보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문제는 내각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긴절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해방지구인민들과 전재민들에게 량곡과 주택 등을 보장해주며 주요 시,군 소재지들에는 림시 양로원,애육원을 조직하여 무의무탁한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을 돌보게 해야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서류뚜껑에 손수 《내각결정 제×호—해방지구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라고 써주시였다.

홍명희는 얼마후 밖으로 나왔다. 작전국일군들과 새로 기동해가는 련합부대장들이 대기하고있어 몹시 서둘러야 했었다.

다시 경위중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큰길쪽으로 나왔다. 어느덧 태양은 중천에 떠있었고 흰눈에 반사되는 해빛으로 하여 눈이 부실지경이였다.

어데선가 노래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골어귀에 서있는 땅크우에서 한 병사가 하모니카를 불고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각이한 차림의 병사들,처녀들이 둘러서있는것이 보였다. 새로 전선으로 기동해가던 도중 휴식하는 부대같았다. 골안에서는 위장한 차들이 움

직이고있었다. 홍명희는 걸음을 멈추었다. 눈을 떠이고 허리를 잔뜩 꼬부린 로송결에서 남일이 웬 외국인과 마주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남일과 몇마디 말을 주고받고싶었는데… 홍명희는 잠간 망설였다. 무슨 사업상의 용건은 아니다. 언젠가 저 강직하고 영민한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을 못미더워하고 불안해했었다는 사실이 그와 마주서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다. 그저 말없이 굳은 악수를, 견실한 마음과 신뢰의 정만 표시하여도 한결 마음이 건듯해질것만 같았다.

홍명희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무엇인가 손세를 써가며 남일에게 열심히 말하고있던 외국인이 정중히 인사를 했다. 남일이 소개했다.

《기자 스딴도르 벤꼬입니다.》

홍명희는 그와 간단히 인사했다. 가죽잠바에 털모자를 눌러쓴 벤꼬는 감사를 표시했다. 그리고는 주홍색의 턱수염을 비비꼬면서 입을 열었다.

《저는 부수상선생도 계신 여기서 오랜 시간을 뺏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몇가지만!… 우선 이 놀라운 전변을 두고, 그야말로 경이적인 이 사변을 찾아 맨처음 달려온 외국기자로서…》

그 순간 남일이 야릇한 미소를 그렸다.

《떠날 때도 역시 맨먼저 갔었지요.》

벤꼬는 털모자를 벗었다. 광택이 없는 푸르스름한 그의 두눈이 허둥거렸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엔… 모든것이 결말을 짓고 있는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견해로써는… 파국이였지요. 저만 아니라 실상 온 세계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 돌이켜보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본것은 무엇이였겠습니까.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인 당신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슬픔에 굳어진 피난민들의 모습 그리고 진창에 빠진 포차를 꺼내려고 가득 몰켜서서 목에 피줄이 일어서도록 용을 쓰던 군인들… 그런것이였지요. 그런데… 아마 그런 침울하고 어두운 인상밖에 받지 못한것이 나의 돌이킬수 없는 실수였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것이 나의 커다란 과오였는가요？…》

남일은 홍명희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부수상선생, 이 사람이 무얼 말하고있는지 통역해드릴가요？》하는 의미였다. 홍명희는 가볍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다박다식한 홍명희는 일찌기 일본어, 중국고어, 영어, 프랑스어, 도이췰란드어 등 5개국 외국어를 소유하였고 쉑스피어, 괴테, 하이네, 유고의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었으므로 그들이 사용하고있는 로어도 그렇게 귀에 설지는 않았다.

홍명희와 남일의 표정을 살피던 스딴도르 벤꼬가 조심스럽게 또 입을 열었다.

《계속해도 좋을가요？》

남일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저는… 특파기자로서 제가 본 이 경이적인 사변에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모니카와 노래소리가 커갔다. 하모니카에 맞추어 땅크병들, 처녀병사들까지 목소리를 합쳐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
전차 한대 달리다가 문득 서더니
웃뚜껑 벌컥 열고 전차병 내려와서
…

전쟁전에 나온 노래였는데 근래에 와서 특히 널리 퍼졌다. 재진격의 피끓는 시기에, 충만된 힘과 열정과 기백에 넘친 전사들의 마음에 그 노래는 잘 화합되고있었다.

벤꼬는 두팔을 쩍 벌렸다. 남일은 물론 홍명희까지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것을 보고 그 어떤 실망감을 표현하고자 한것 같았다.

《벤꼬선생》 마침내 남일이 입을 열었다. 《선생자신이 여기서 보고 느낀 모든 점들로 그 대답을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대답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즉 전인민적인 항전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쳤다고말입니다.》

스딴도르 벤꼬는 손에 든 연필로 주홍색 턱수염을 재빨리 비벼대였다.

《옳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례입니다만 더 명백한 답을 바라는데…》

《그보다 더 명백한 답은 없습니다!》하고 남일은 노래소리가 울려오고있는 그쪽을 얼핏 바라보며 말했다.

《전인민적항전이라는 말을 결코 그 어떤 수자적개념으로 리해하면 안됩니다. 문제는 어떤 적을 상대로 어떠한 인민이 맞서 싸웠는가 하는것입니다. 당신도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전사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셨겠지요? 이제 우리의 나어린 소년,소녀들이 어떻게 소년빨찌산을 무어 침략자들과 싸웠는가를 들어보십시오. 적들이 강점한 모든곳에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떨쳐일어나 어떻게 싸웠는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같이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영웅조선〉,〈영웅적인민〉이라구요.》

《우리는 새롭게 태여났습니다. 그리고 영웅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세상에 알려진 순하고 어질고 례의바른 인민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을 존엄있고 굴함없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각성시키고 무장시키고 판가리싸움에로 궐기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있습니다!…》

벤꼬는 입을 벌리고 공기를 들여마셨다. 남일의 류창한 언변에 도취되여 한동안 숨을 멈추고있은듯했다. 광대뼈까지 불그레하게 물들이면서 그는 또 재빨리 입을 열었다.

《실례입니다만… 저는 좀더 명백한 답을 듣고싶은데요.…》

남일은 어처구니없다는듯 홍명희쪽을 흘끔 돌아보았다. 이 검질긴 특파기자에게 붙잡힌것이 애당초 잘못된 일이였다는 표정이였다. 그때 처음으로 홍명희가 그들사이의 대화에 끼여들었다.

《기자선생.》 그는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세상사람들 거개가 자기에게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에 류의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기의 능력이상의것을 할수 있다는 자부와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있는바이지만… 보시오, 모두가 패배를 예언하던 때에도 우리는 투쟁을 계속했고 끝내는 이겨내였지요.》

이렇게 말하고나서 남일에게 부탁했다.

《내 말을 좀더 정확히 통역해주시오.》

그러나 벤꼬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죄다… 듣습니다. 부수상선생! 어서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당신앞에 지금 두사람이 서있습니다. 구태여 소개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과거를,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있는지 당신도 잘 압니다. 그러던 우리가 얼마나 변모되였습니까. 초야에 묻혀살던 내가 공화국정부의 일원으로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육사업을 하던 사람이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제날 신문배달을 하던 젊은이가 련합부대장이 되고 산골막바지에서 화전을 일구던 감자바우청년이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호 우리 신문들을 보십시오. 열한명의 젊은이, 처녀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였습니다. 어떻게 되여 이런 경이가 이루어진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셨기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을수 없는 가장 귀하고 큰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인민을 내세워주셨기때문입니다.

기자선생, 그 어느 전선, 어느 마을에서 그 누구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에게나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홍명희가 말을 마치자 벤꼬는 낡은 가죽잠바주머니에 수첩을 찔러넣었다. 아직 그는 그 수첩에 글 한자 적어넣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택이 없던 그의 푸르스름한 두눈이 지금은 파아란 반점같이 타오르고있었다.

《고맙습니다, 부수상선생!》 그는 환희에 넘쳐 말했다. 《인제는 다 알만합니다. 부수상선생의 조언대로 영웅이 된 인민을 만

나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 키우신 영웅적인민의 새 모습에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수상선생! 고맙습니다, 총참모장동지!…》

털모자를 눌러쓰고 거듭 사의를 표하고 그는 물러갔다. 그가 주차장쪽으로 달려가는것을 지켜보던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서로 마주서며 미소했다. 홍명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자기가 남일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싶은것이 있어 여기 왔었다는것을 잊고있었다. 사실상 더는 할 말도 없었다. 그가 암시하고자했던 그 말을 방금 스딴도르 벤꼬와 마주서서 다해버렸던것이다.

두툼하게 쌓여있는 눈더미들이 소리없이 녹고있었다. 해볕은 따스했고 눈을 들쓰고있는 숲속의 나무들은 고요한 명상에 잠겨있었다. 경쾌한 하모니카반주에 맞춘 노래소리가 은빛의 황홀한 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음향처럼, 아름다운 색채처럼 조화롭게 울려오고있었다.

…
지평선 아득한 벌판 전차 한대 달리는데
분홍손수건 분홍손수건 펄펄펄 오래 나붓겨
…

홍명희는 승용차쪽으로 걸어갔다. 경위중대장이 도울 일이 있을가 해서 다가왔지만 팔을 내저어 쫓아버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색에 잠겨 걸어갔다.

마　　감

1

어느덧 전쟁의 두번째 해가 왔다. 곡절많은 전란의 이해— 1951년은 한강대안에서 맹렬하게 울부짖는 요란한 포성속에 시작되였다. 전선은 한강을 넘어섰으며 전선서부의 아군련합부대들은 퇴각하는 적을 맹렬하게 추격하여 1월 4일 서울을 해방하였다. 전선중부에서 행동하던 인민군제2전선부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원주, 제천, 횡성 등 적의 더 깊은 후방으로 들어가 맥아더가 급급히 준비한 《D선》방어진을 여지없이 뒤흔들어놓았다. 적들은 37도선이남으로 황급히 도주하고 날이 갈수록 3차작전의 포성은 멀어져갔다. 인제는 오만한 적기들도 평양상공에 자주 날아올새가 없었다. 하여 하루에도 수십차례 창문유리를 흔들던 폭음도 뜨문해졌다.

어느새 병원의 간호원들은 방공호로 때없이 뛰여들어야 하는 고되고 성가신 일을 덜게 되였고 차츰 깨여진 창문유리에 종이를 곱게 오려붙이는 일에까지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아침이면 등화관제를 위해 쳐놓았던 모포를 벗겼다. 그러면 성에불린 창유리에 벌거우리한 아침해빛이 아롱다롱한 문양을 방안벽면에 가득 그리며 비쳐들군했다.

그러한 창문유리들중 하나에 로지봉은 손을 가져갔다. 잔뜩 발돋움을 하고 똑똑똑…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로지봉은 목을 움츠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또 창유리를 두드렸다. 그러자 성에 낀 창유리에 하얀 위생복을 입은 간호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입김을 불며 밖을 내다보는데 희끗희끗 얼어든 유리때문에 퍼그나 늙어보였다.

로지봉은 고개를 끄덕여 어줍게 웃어보이며 방안구석쪽을 가리켰다. 그쪽 침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가 하는 의미의 손짓을 열심히 했다. 간호원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몇번 상종해본 일이 있는 로지봉이였던 까닭에 매정하게 물러가버리지는 않았다.

로지봉은 한쪽 어깨에 걸멘 배낭을 가리키며 잠간 들렸다 가도록 해달라는 손짓을 했다. 그 의미만은 간호원도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퇴원해가는 사람의 간절한 청이였다. 간호원은 창유리에 이마를 눌러대고 잠시 망설이더니 손목을 까딱이였다. 복도쪽으로 돌아오되 아주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로지봉은 발을 엉기적거리며 바람벽을 에돌아갔다. 처마끝에 매달린 창살같은 고드름이 해빛에 번쩍이였다. 날씨는 맵짰고 추위에 얼어붙은 대기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쟁쟁 울릴지경이였다.

로지봉은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복도로 들어가 가운데 16호실 앞까지 살금살금 걸어갔다. 큰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귀를 강구며 안의 동정을 엿들었으나 아무것도 가려들을수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간호원의 허락은 받았지만 녀성호실이여서 적당히 례절을 차리려는것이였다. 이어 버긋하니 문을 열고 머리를 들여밀었다. 그 순간 몸이 강마른 외과군의와 눈이 딱 마주쳤다.

《동문 누구요？ 왜 여기 와서 어스벙거리는거요？！》

《…》

로지봉은 굳어져버렸다. 일이 공교롭게 되여 그새 외과군의가 방에 들어간것을 몰랐던것이다. 그때 창가에서 니켈도금을 한 의료기구를 옮기고있던 간호원처녀가 아주 깔끔한 눈초리로 로지봉을 치떠보았다.

《저 동무를 내보내랍니까？》

그때 로지봉은 머리만 조금 디밀었을뿐이였다. 황급히 문을 닫으며 머리를 뽑는다는것이 그만 문짬에 끼우고말았다. 그는 겁먹은듯 목을 움츠러뜨리고 문결에서 물러났다. 그래도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는 복도벽에 허리를 기대고 쪼그려앉았다. 그러나 잠시후 외과군의가 밖으로 나왔다. 뒤따라나온 간호원처녀에게 그

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시키면 안되오. 동무가 딱 지켜앉아있소!》

그런 다음 로지봉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쪽 병실로 가버렸다. 간호원처녀가 곱게 눈웃음치며 말했다.

《들어가자요. 겨우 승낙을 받았어요!》

로지봉은 벌떡 일어났다. 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처녀이냐. 코잔등에,입귀에 다문다문 널려있는 저 주근깨들은 또 얼마나 복스럽고 정찬것이냐?!… 그는 처녀간호원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으나 벌써 처녀는 문안에 들어서고있었다. 그를 따라 병실로 들어서니 단번에 훗훗한 기운이 얼굴에 덮씌워졌다.

다음순간 로지봉은 병실가운데 못박힌듯 멎어서고말았다. 두눈을 슴벅거리며 그리도 해쓱한 처녀의 얼굴을,그리도 가냘프고 아름다운 리숙의 얼굴을 뿌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검푸른 리숙의 두눈이 그를 여겨보더니 알릴듯말듯 미소를 그렸다. 간호원처녀가 리숙의 침대가까이 작은 각의자를 가져다주었다. 로지봉은 배낭을 벗어들고 거기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리고 또 리숙의 피기 하나 없이 하얀 얼굴을 바라보았다.

리숙이 샘물같이 맑는 두눈에 미소를 가득 담고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그 순간 아주 제때에 로지봉이 입을 열었다.

《난 퇴원했어유. 자기 부대에 가게 승인도 받구…》

리숙이 엷은 미소로 대답했다. 정말 잘됐군요,바라던대로 다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는 의미같았다.

《참 엊그제 신문을 봤수?》하고 로지봉은 갑자기 생각난듯이 말했다. 사실은 여기 오면서 꼭 하고싶었던 말이고 또 대사까지도 미리 준비했던것이다.

《우리 중대에 대한 소식이 또 신문에 났지유. 아,거 인민군신문에 〈미제침략군8군사령관 워커를 포함한 수십명 고위장교들을 살상한 류현수동무소속 공병구분대를 찾아서〉 하고 난걸말예유.》

리숙은 비로소 바짝 마르고 터갈린 입술을 가만히 놀리며 대답했다.

《예,봤어요.》

로지봉은 그 말을 귀로 들었다기보다 그 미약한 입술놀림으로 알아보았다. 그다음 그들은 둘이 다 서로 웃음을 머금고 마주보았다. 똑같이 친근한 벗을,귀중한 사람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느라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웬일인지 로지봉에게는 그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진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몸을 궁싯거리며 이것저것 생각했다. 중상을 당한 리숙이 그동안 어려운 수술을 거쳐 삶을 지탱해오느라 그리도 허약해졌건만 여전히 강의하고 어여쁜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현수를 그려보며 그가 바로 이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리숙이 역시 현수를 그려보며 고요히 숨결을 툟고있는듯했다. 아니면 미륙군에서 제일 으뜸가는 《용장》이라는 워커를 즉살시킨 류현수중대에 대한 방문기사를 더듬고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난 12월중순에 있은 일이였다. 장군님께서 주신 작전방침에 따라 최현은 적들의 중간방어기도를 짓부시기 위해 은밀히 련천을 포위한 다음 공격에 앞서 적들의 퇴로를 끊기 위하여 련천으로 잇닿은 모든 길들을 차단하였다. 적들의 가장 중요한 퇴로로 예견된 련천—서울간 로상에는 보병들과 함께 지뢰를 가진 류현수중대의 공병매복조가 파견되였다.

이날 워커는 련천지구의 미 24보병사단과 영 제29려단을 시찰하고 그들의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하여 서울의 8군사령부를 떠났었다. 그곳으로 떠난김에 미 24보병사단에 있는 아들 삼 워커대위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다는 별개의 일정도 있었다. 그러나 워커가 련천에 들어갔을 때 인민군제2전선부대는 련천시내에 대한 포위를 결속하고있었다. 날이 밝자 맹렬한 공격이 벌어졌다. 후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날 1,800여명의 적들이 소멸되였는데 살아남은 적들은 서울쪽으로 다급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가운데엔 중땅크 1대를 앞세우고 뒤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 승용차들을 거느린 워커의 찦차도 있었다.

실상 워커의 찦차는 전선지휘용으로 특별히 개조한,더 정확히 말하면 방탄장치와 전복방지장치까지 갖춘 장갑차였다. 워커자신이 자기의 보좌관 타너중좌만 태우고 그 차를 직접 운전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엄밀히 타산되고 새롭게 개조된 방탄장갑차도 워커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는 전날밤 류현수중대의 소대장인 최종운 등 공병전사들이 언땅을 까고 지뢰를 매설한 다음 그우에 골고루 눈을 뿌리고 자동차다이야까지 굴려 차바퀴자국을 내였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매복에 걸리자 중땅크가 사슬을 풀어헤쳤고 워커의 찦차도 앞뒤에서 충돌하였다. 도로가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있을 때 인민군전사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수류탄을 뿌리고 기관단총을 휘둘러대였다. 결국 워커를 포함한 적병 80여명(주로 장교들)이 사살되고 중형땅크 1대, 자동차 8대가 불타버렸다.

지금은 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였으므로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리숙이도 의식을 차린후 그것을 읽었던것이다. 더더욱 리숙은 자기가 직접 참가하여 싸우던 제2전선부대들의 소식이라면 한사코 알아보려고 애썼다. 하물며 세상을 들었다놓은 그 매복전의 주인공들이 자나깨나 리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있는 류현수의 공병중대전사들임에야 말해 무엇하랴.

이렇게 그들 두사람—로지봉과 리숙은 점도록 아무말없이 미소를 담고 마주보기만 했다.

어느덧 해가 높이 떠오른듯했다. 눈부신 해빛의 홍수가 창문을 거쳐 리숙의 침대우로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그때 로지봉이 또 불쑥 물었다.

《편지가 온게 있어유?》

《?…》

그는 리숙이 무슨 말을 하는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여 가만히 굳어져있는것을 보고 피씩 웃었다.

《우리 중대장동무말예유, 현수!… 아직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수?》

리숙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안왔다는 뜻이다.

《아직 한번두?…》

미소, 리숙의 엷은 입술에 피기가 돌았다. 하지만 로지봉은 떫은 쑥이라도 씹은것처럼 이마살을 찌프렸다.

《온 그럴리야！… 어쩌문 그럴수가 있수, 예？… 내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 단단히 혼뜨검을 내줄테유. 정말이유！》

리숙이 또 소리없이 웃어보였다. 로지봉은 굵은 손가락으로 귀바퀴를 긁어대고있었다. 리숙이 웃고있는것에 그는 마음이 흐뭇했다. 그것이면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때 리숙이 아주 나직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물었다.

《거겐… 왔어요？》

로지봉은 편지를 받았는가 하는 의미였다. 그가 머리를 흔들자 리숙은 웃는 눈으로 그를 훌 스쳐보았다.

《그것봐요. 그들은… 적후에 있지 않나요.》

《？！…》

로지봉은 할말이 없었다. 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네 부대가 더 깊은 적구에 들어가 싸우고있다는것은 생각지 않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트집을 걸어본것이다. 하지만 로지봉 자기와는 달리 이렇듯 훌륭하고 아릿다운 리숙에게야 왜 편지를 못한단말인가, 적후에서 싸우는 소식이 신문과 라지오에 매일 소개되는데 편지라고 왜 주고받지 못한단 말인가？！… 로지봉은 자기의 이 생각을 열심히 터놓고싶었다. 그런데 벌써 간호원처녀가 자꾸 로지봉에게 눈짓을 하고있다. 인젠 면회를 그만하라는 암시였다. 로지봉은 두주먹을 쥐락펴락하며 바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빨리 끝내다니, 아직 하고팠던 말은 꼭지도 떼지 못했는데… 그는 처음 연단에 불리워나간 사람처럼 쿵쿵 마른기침을 했다. 그러다가 좀 이상한 목소리로 리숙을 불렀다.

《저… 내 이제 가면… 현수동무더러… 무슨… 전할 말이라도 있으면…》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게 무슨 힘든 말이라고 그랬는지… 리숙을 바라보니 그는 잠간 눈을 감고있었다. 가만히 한숨을 내긋고 조용히 눈을 떴는데 그 검푸른 눈동자속에서 밝은 미소가 불을 켰다.

《여기 머리맡에… 사진！…》

리숙이 힘들게 속삭이는 말이였다. 한동안 로지봉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엉거주춤하고있었다. 리숙의 눈빛언어까지 죄

다 알아맞히기에 습관된 간호원처녀가 다가오더니 머리맡에서 편지봉투와 사진 등을 꺼내였다.

《이 사진말이죠?》

리숙이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간호원이 로지봉에게 사진을 넘겨주었다. 오래된 사진으로서 끄트머리가 누르끼레하니 색이 바래였었다. 사진속에서 웬 낮모를 신사가 쎄라복을 입은 소녀와 함께 어느 일각대문앞에 서서 웃고있었다. 리숙이 후송된후 군단장 최현이 직접 그의 사품을 정리하여 보내준 그 사진이였다.

《이게 간호장동무였댔나유?》

리숙이 또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걸 중대장동무한테 가져가라는거지유?》

말없는 미소… 그러다가 리숙의 두눈에서 불빛이 흔들거렸다. 부지중 눈물이 핑 어리고있었다. 지금 리숙의 심장이 아플정도로 뛰놀기 시작했다는것을 로지봉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그 녀자자신도 모를수 있다. 다시 찾은 삶과 사랑… 지금 리숙은 다시금 어린 시절로, 아름다운 추억과 가렬한 전투장에로, 숫되고 어질고 불같은 류현수에게로 돌아가고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색이 바래고있는 이 옛날의 사진이 얼마나 많은 꿈과 많은 약속을 대신하는것인지 로지봉은 결코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수첩장에 끼워 정히 간수했다.

《그럼…》

로지봉은 더이상 오래 지체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정작 작별인사를 하고 떠나려니 웬일인지 가슴이 뻐근해졌다. 무엇인가 참으로 훌륭한 말 한마디를 하고싶었으나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 자기가 이 어여쁜 녀성군관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말하고싶었으나 그는 아직 그런 말을 할줄 몰랐다. 그는 두눈을 슴벅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럼 부디… 몸조리 잘하슈.》

리숙이 엷은 미소를 띠웠다.

《잘 싸워주세요.》

야전병원에는 《또 오세요.》 혹은 《다시 만나요.》하는 인사말이 없다. 《잘 싸워주세요.》라는 한마디속에 모든것을 다 담는다.

리숙의 눈빛은 로지봉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가 출입문께로 물러갈 때까지 줄곧 따라왔다. 로지봉은 드디여 출입문앞에 이르러 몸을 돌렸다. 또한번 눈인사를 하며 잔등으로 문을 밀었다. 얼마후 그는 밖에 나와있었다.

…얼마나 좋은 날씨이냐! 태양은 중천에 솟아있었고 나무가지에 하얗게 불린 서리는 해빛에 반짝이였다. 발밑에서 얼음쪼각들이 뿌적뿌적 부서져나갔다. 겨울의 대기는 로지봉의 마음에도 서리꽃같이 하얗고 기묘하고 튕기면 부서져나갈듯한 아기자기한 충동을 열심히 불러내고있었다.

로지봉은 이렇듯 밝고 상쾌한 기분을 느껴본적이 많지 않았다. 모든것이 새롭고 정답게 느껴졌다. 훌륭한 생활,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사무치는 애정이 가슴속으로 밀물처럼 흘러들었다. 동지적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그리운 중대,정든 집,귀중한 전우들인 류현수,리숙,주영섭,박영일,오윤남 등 그가 알고있었고 지금도 그를 부르는 친근한 사람들을 그려보면서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는 지금 고향으로 가고있었다.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귀중한 전우들과 발걸음을 맞추며 고향에로,최후승리의 그날에로 가고있었다.

2

김책이 탄 승용차는 삼석쪽으로 난 큰길을 따라 최고사령부야전지휘소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시내를 벗어나면서부터 승용차는 속도를 높였다. 파괴된 거리를 복구하는 사람들과 오고가는 차들이 거의 없어진것이였다.

저녁무렵이였다. 눈을 들쓰고있는 가로수들이 휙휙 뒤로 지나

가군했다. 맵짠 겨울의 대기는 유리같이 투명했다. 서켠하늘가에서는 어느덧 하늘의 한 귀퉁이가 노을에 불타고있었다. 짧은 겨울해는 서둘러 자취를 감추려는듯했다.

김책은 차창을 스쳐가는 례사로운 겨울풍경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모든것이 새롭고 정답고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눈이 녹지 않은 농가의 지붕들, 굴뚝이 미여지게 쓸어나오는 연기, 양지마다 거뭇거뭇 드러나있는 밭두렁들, 마을쪽으로 뻗어간 오솔길에서는 소잔등우에 올라앉은 한 소년이 뒤따르는 아이들을 향해 손나발로 웨쳐대고있었다. 그켠을 바라보고있던 김책이 운전사에게 피끗 시선을 던졌다.

《천천히, 좀더 천천히 모오!》

《?!…》

운전사는 자기가 잘못들었나 해서 몇번이고 흘끔흘끔 곁눈질했다. 차가 전속으로 달리는 때에조차 속도가 느리다고 불같이 다궂던 김책이였다.

여전히 김책은 소를 타고가는 소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소년은 또 무어라고 뒤쪽에 대고 웨쳤다. 한무리의 애들이 그쪽으로 와— 밀려가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뭐라고 했길래 저럴가… 저애들은 지금 무슨 일로 저리도 기뻐하고있는것일가?…)

이런 하찮은 일로 골똘히 생각에 잠겨보기는 처음이였다. 하지만 이게 왜 하찮은 일이랴, 그는 이것이 커다란 희생의 대가로 전취된 생활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저 천진한 어린이들의 웨침소리, 웃음과 환성, 책가방, 학교에로 오가는 이 길을 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바쳤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다. 그는 지금 그 어린이들과 어울려 막 뛰놀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맵짠 바람을 폐부에 가득 들여마시며 손이 빨갛게 익도록 눈싸움이라도 벌렸으면 하는 기이한 심정이였다. 하여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그린다. … 천천히 의자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인다.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려니 부지중 자기의 어린 시절의 발자국이 찍히던 함경북도—성진에서 수십리 떨어진 두메산골 옥천땅, 돌서덕아래

로 뻗어간 한줄기 오솔길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짚세기를 끌며 그 오솔길에서 떠난 발걸음이 오늘은 얼마나 멀리 왔는가!…

승용차의 진동에 온몸이 들썽거렸다. 그는 말라드는 입술을 감빨며 계속 생각을 이어갔다. 흘러간 싸움의 나날들, 그가운데서도 1941년의 일들이 가슴벅차게 상기되였다. 그때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처음 만나뵙게 된 김책은 최용건과 더불어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이께 한평생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겠다고 절절하게 부르짖었었다.

고난도 많았고 눈물과 아픔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셨기에 그 모든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시련도 끝내 이겨내고 오늘은 저 아이들의 웨침소리에, 미래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는것이다!…

승용차는 애들이 간곳을 좇아 작은 다리를 건너 마을앞으로 돌고있었다. 희끗희끗한 눈더미우에서 설핀 락조가 스러져갔다. 운전사가 경적을 울렸다. 앞쪽에서 소잔등에 타고가던 소년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를 뒤따르던 애들은 길 량쪽으로 쭉 갈라졌다. 그중에서 어깨에 책보를 동여맨 한 소년이 모자를 훌 벗어들고 경례를 했다. 소를 타고가던 소년은 황급히 뛰여내렸다. 어느새 귀덮개 달린 병사용 솜모자를 벗어들고 허리를 굽석했다. 그러자 구령이라도 있은것처럼 길 좌우로 비켜섰던 애들이 일시에 경례를 했다.

승용차는 소년들의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김책은 손을 들어 차창밖의 소년, 소녀들에게 일일이 답례를 했다. 피어린 전쟁을 겪고있는 새 세대에, 희망찬 래일을 향해 걸어가는 새 세대에 보내는 다정한 인사였다.

어느새 소년들은 멀리 뒤에 떨어졌다. 승용차는 어둠에 싸인 험한 길을 굴러갔다. 전조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눈더미들과 빛을 다투며 길섶의 잡관목들과 울퉁불퉁한 길바닥을 향방없이 휘저어갔다.

얼마후 김책은 최고사령부야전지휘소에 이르렀다. 방금 일시적후

퇴를 끝내고 나온 최고사령부는 여기서도 눈에 띄게 긴장하고 분주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실에서 매일 바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였다.

김책은 부관장과 마주서있었다. 부관장이 곧 보고드리겠다고 하는것을 막고 조용히 물었다.

《장군님께선 혼자 계시오?》

《예.》 부관장은 례사롭게 대답했다.

《방금전에 전선지휘관들이 작전협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김책은 부관장을 따라 장군님 계신 방앞에까지 갔으나 또 망설이였다. 부관장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장군님께선 몹시… 바쁘시겠지?》하고 물었다. 부관장은 머밋거렸다. 그것을 보자 김책은 한팔을 내저었다. 말 안해도 알만하다는 의미였다. 그는 토방아래에서 돌담까지의 사이를 말없이 거닐었다.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는 창문가를 이윽토록 바라보기도 했다. 그 창문에 장군님의 모습이 비쳐져있었다. 허리를 굽히시고 무엇을 적기도 하고 한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계시기도 하였다. 커졌다작아졌다 하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김책은 생각하였다.

(내 오늘 무슨 일로 장군님께 급히 달려왔던가?… 여느때와 달리 왜 오늘은 아무런 사전련락도 없이 무작정 달려왔던가?…)

이밤을 넘기고싶지 않은 그런 절박한 마음속 충동이 있었다. 꼭 장군님을 뵙고싶었고 장군님과 무릎을 마주하고 가슴속에 가득찬 심중의 사연을 말씀드리고싶었었다.…

김책은 그린듯이 서있는 부관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장군님께 보고드리오!》

부관장은 곧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후였다. 엷은 문창호지를 바른 세살문이 활짝 열리며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김책동무!》

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김책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자 장군님께서는 그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김책동무, 이밤중에 련락도 없이 험한 길을 오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군님!》 김책은 전혀 그답지 않게 우정 우스개소리처럼 말씀드리려고 애썼다.

《오늘따라 꼭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무엇을 하든간에 치밀하고 정확하고 단호한 김책이였다. 규칙적인 생활을 즐기고 그에 습관되여있는 그는 휴식을 하는 때에조차 한담으로 시간을 보내는것을 질색했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달라졌다. 이밤만은 그도 달라지고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또 스스럼없이 장군님과 함께 좀 거닐고싶다고 말씀드렸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장군님께서는 밝게 웃으시였다.

…찬바람에 얼고 굳어진 눈무데기우에 새의 발자국들이 나있었다. 그러나 차츰 창가의 불빛이 멀어지자 희끗희끗한 눈더미들과 신비로운 숲의 정적만이 남았다.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이 굵다란 가지를 쫙 펴들고 비좁은 골안상공을 덮고있었다. 어데선가 폐부를 쿡쿡 찌르는 차고도 싱그러운 숲의 미묘한 냄새가 풍겨왔다. 밤하늘에 널린 별들이 차디찬 빛을 뿌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는 빠그극빠그극 눈밟히는 소리가 났다.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에 잠긴 골안을 둘러보시였다.

《얼마나 좋은 경치입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도처에 인민들을 위한 휴양소, 료양소를 많이 지어야겠습니다.》

그이께서는 김책을 돌아보시였다.

《전쟁이 끝나면!…》하고 김책이 속삭이듯했다. 《그때엔 더 많은 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놈들을 타승한 우리 인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유족하고 더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느덧 그이께서는 흥분어린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시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엄있고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만들고싶

습니다. 위대한 인민이고 이 세상 제일 좋은 인민인데 복된 삶을 누려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 김책이 부르짖었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저도 한평생 인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눈더미우에 찍히는 발자국들은 키높이 자란 로송들주위를 돌아 가지런히 찍혀갔다. 장군님께서는 손에 잡히는대로 솔잎을 뜯어 잘근잘근 씹어보시였다. 떫은 그리고 아릿하면서도 상긋한 맛이 느껴지시였다. 그렇게 걸으면서도 그이께서는 김책이 무슨 일로 이밤중에 달려왔을가 하는 생각을 하시군했다. 그저 소풍이나 하고싶어 찾아오기엔 너무도 많은 일감을 안고있는 그였다.

그렇게 얼마간 또 시간이 흘렀다. 발자국들은 다시 처음 떠나던곳까지 되돌아왔다.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밤하늘에는 더 많은 별들이 눈을 뜨고 이따금 파란 꼬리를 끌며 류성이 떨어져내렸다.

문득 장군님께서는 김책이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있는것을 느끼시였다. 천천히 머리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시였다.

《장군님！》

김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람 한점 없이 추위에 얼어붙은 대기가 금선처럼 가늘게 흔들렸다.

《장군님, 지난달… 김정숙동무의 생일날에 못왔댔는데 이달도 다 가니 암만해도 그냥 있을수가 없어… 때늦게나마 찾아왔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가만히 서계시였다. 숨소리도 없이 그린듯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머리우에서 바늘잎사귀들이 푸시시 떨어져내렸다. 골어귀 부락한끝에 있는 농가에서는 등디불이 하나 가물거렸다. 호흡하듯이 커졌다작아졌다 하는 그 불빛을 이슥토록 바라보고계시던 그이께서 마침내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려운 전쟁을 겪고있는데 떠나간 사람의 생일까지 차리겠습니까. 설사 생일을 차린다 한들… 그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

그이의 음성은 젖어있었다. 어느새 김책은 슬그머니 손등을 눈언저리에 가져가고있었다. 그는 지근거리는 모진 아픔이 심장을 그

러죄는것을 느꼈다. 백두밀림의 눈보라속에서 녀성의 몸으로 헐벗고 굶주리며 사선을 넘어 조국의 광복을 안아온 혁명전우, 그 잊을수 없는 동지를 잃은지도 어느덧 두해가 되여온다. 김책은 가슴 한복판을 주먹으로 세게 얻어맞은것처럼 입으로 새여나오는 신음소리를 삼켰다. 눈시울이 사뭇 세차게 떨려났다. 그는 두주먹을 꽉 부르쥐고 저도 모르게 온몸을 떨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역시 아무 말씀도 없이 흘러간 지난날들과 이 세상 가장 귀중한 혁명전우였던 김정숙동지를 회고하시는듯했다.

숲속에서 무엇인가 흐느끼듯했다. 차츰 나무가지들이 설레였다. 바람이 불고 밤하늘엔 구름이 끼였다. 창공의 별빛들이 소리없이 꺼져갔다.

…

어느덧 장군님의 집무실 탁상시계는 밤 12시를 가리켰다. 김책은 그만 돌아가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고 몇번이고 권하시였다. 하지만 김책은 내각에서 아침에 조직한 사업이 있어 가야 한다면서 종시 일어나 문밖으로 나서려 하였다.

그때 장군님께서 김책의 양말 한쪽이 꿰여진것을 보시였다. 그이의 얼굴에 일순 어두운 그림자가 비껴갔다. 김책은 너무나 당황하여 꿰여진 양말을 감추려 했다. 발끝을 꼬부리고 다른 한발로 그것을 가리웠다. 그때 장군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너무 일만 일이라 하지 말고 빨리 집을 잡아놓고 소개지에 가있는 부인도 데려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오죽 바쁘면 양말도 미처…》

김책은 금시 눈이 멀고 입술이 다 타버리는듯했다. 장군님께 하찮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것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허둥지둥하며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이건 그저…》

그이께서는 어느새 자신께서 신으실 양말을 꺼내시였다. 김책은 그이께서 주시는 양말을 받아쥐고는 인사의 말씀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고 어둠속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장군님께서 손수 전지를 켜들고 그에게 길을 밝혀주시였다. 밝고 동그란 전지불이 김책의 걸음을 앞질러 더듬어갔다. 벌써 자동차는 발동이 걸려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김책이 차에 이를 때까지 전지불을 밝혀주시였다. 하지만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리별로 될줄이야 어찌 아셨으랴. …

그날… 1월의 마지막 날은 아침부터 겨울치고는 드물게 보는 투명한 안개가 골안 가득히 서려있었다. 아침해는 빛을 잃고 불그레해졌다. 골어귀의 농가들에서 솟아오른 재빛연기도 얼어붙은 땅바닥을 굼니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문을 펴들고계시였다. 그때 소리없이 문이 열리더니 부관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컴컴하게 질려있었고 눈길은 허둥거렸다. 그이께서는 순간 그 어떤 불길한 예감으로 하여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느끼시였다.

《왜 그러오?》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러나 부관장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같이 해쓱하였고 두눈은 공허하게 움직이고있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오!》

《장군님!》 부관장은 드디여 입을 열었다. 《방금 내각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책동지가 심장마비로 그만… 서거하였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슴푸레한 그림자들이 얽힌 그의 두눈을 놀라서 바라보시였다. 무슨 소리를? 무슨 거짓말을?!… 그이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묻고싶으셨지만 말이 나가지 않으셨다. 한순간 놀란 심장이 뜨끔하니 아프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이께서 급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내각사무국 부국장입니다. 장군님! 급히 알려드릴 말씀이…》

《말하시오, 어서!…》

《장군님! 지난밤 김책동지가…》

역시 김책의 서거를 알리는 비보였다.

그이께서는 손끝이 막 저려나는듯하여 송수화기를 급히 바꿔드시였다.

《동무, 무슨 말을 하는거요?》하고 그이께서는 다우쳐 물으시였다. 《김책동무는 방금 여기에 왔다갔는데… 똑똑히 알아봤소?… 뭐라구? 누가 확인했소, 누가?!…》

차츰 그이의 입술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저쪽에서 보고를 끝낸지 오랬건만 송수화기를 꽉 틀어잡고 혼자말처럼 줄곧 뇌이시였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 김책동무가 정말 갔단말이요?!…》

그이께서는 목에 경련이 이는것을 느끼시였다. 형언할길 없는 아픔에 가슴이 굳어지고 목을 움직이실수 없었다. 송수화기를 틀어쥐신 손도 과다든듯했다. 그러다가 여전히 굳어진채로 서있는 부관장을 보시였다. 그의 얼굴이 즐펀하게 젖어있는것을 보시고는 그만 송수화기를 틀어쥔 손을 맥없이 놓으시였다. 손끝에서부터 가슴속 깊은곳까지 찌릿찌릿한 아픔이 파문지어갔다. 어느덧 그이의 눈가에서도 피빛의 눈물이 떨리고있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아침식사도 점심식사도 다 건느시였다. 오후부터는 건강이 몹시 좋지 못하시였다. 열이 오르고 자주 기침을 하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예정된 작전협의까지 끝내고나자 부관장을 부르시였다.

《차를 준비하오.》

적기들이 상공을 배회하고있었다. 도로상에 승용차가 나타나자 기수를 숙이고 급강하했다. 차가 지나친 뒤쪽에서 폭탄이 터지고 기총탄이 마구 쏟아졌지만 그이께서는 줄곧 시창밖에만 시선을 주고계시였다.

내각사무국 1층홀에 김책의 령구가 놓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문앞에 이르시자 가슴을 허비는듯한 추도가의 선률이 물결쳐왔다. 그이께서는 흐느끼듯 숨을 들이그으시였다. 그러자 걸음마다 호흡이 절박해지는것을 느끼시였다.

천천히, 그러다가 급히 령구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부지불식간에 한손으로 가슴 한쪽을 꽉 눌러잡으시였다.

《김책동무！…》

숨을 들이그으실 때마다 뜨끔뜨끔 깨무는듯한 모진 아픔이 마쳐왔다. 어느덧 눈앞이 흐릿해지시였다.

김책의 모습은 생시나 다름없었다. 눈을 감고 고요히 평온히 누워있었다. 근엄한 표정, 바투 쓸어넘기던 머리카락이 이마우로 흘어져내렸을뿐… 자고있는듯했다. 지나친 과로에 못이겨 잠간 눈을 붙이고있는듯…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이마우에 흘어져내린 머리카락을 한오리 두오리 쓸어넘겨주시였다. 그래도 잠들어있다. 고요히, 숨결도 없이, 그이께서 오신것도 알지 못하고, 그이께서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여 가슴조이며 기다리시는줄도 알지 못하고… 고요히 누워있다… 순간 그이께서는 그만 북받쳐오르는 설음을 참기 어려워 《김책동무！—》하고 목메여 부르시였다. …

드디여 령구를 발인할 시각이 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수 부으신 커다란 술잔을 령구앞에 놓으시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꽉 잡으시였다.

《김책동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살아도 같이 살고 싸워도 같이 싸우자던 동무가 벌써 간단 말인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동무가… 그것이 바로 몇시간전의 일인데… 수많은 일을 남겨놓고 벌써 간단 말인가！…》

비분의 눈물에 그이의 음성은 갈리시였다. 지난밤의 일들이 떠올라,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것을 더 많이 주지 못해하면서도 그 자신은 꿰여진 양말을 신고있던것이 떠올라 더더욱 눈물을 참기 어려우시였다.

《김책동무, 이렇게 뜻밖에 숨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그렇게 험한 싸움길을 다 헤쳐온 동무가, 전선천리길에서도 끄떡없던 동무가 그렇게 간단 말인가？！… 승리의 날도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렇게 바라던 그 승리를 보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간단 말인가, 김책동무！ 어찌하여 내게 제일 가깝고 귀중한 동무들만 이렇게 먼저 간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령구를 붙안고 흐느끼시였다. 어둠속에서 몸부

림치듯 타오르던 수십대의 초불이 가물거렸다. 추도가의 주악도 떨리듯 흐느끼고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그만 참지 못하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이께서 먼저 일어서시여 몸소 령구를 메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찬바람이 불어쳤다. 밖에서는 솜털같은 눈송이들이 하나 둘 바람에 흩날리고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주위의 모든것이 무거운 적막에 잠겨들었다. 흩날리는 눈송이들만이 사람들의 눈물에 젖은 얼굴에 사정없이 휘뿌려졌다.

령구는 대성산에 운반되였다. 어느새 눈송이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며 퍼부어지고있었다. 눈우에 파헤쳐진 언 흙덩이들과 묘자리 밑바닥에도 눈이 한벌 덮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우에 내려쌓이는 녹지 않은 눈송이들을 손바닥으로 쓸어내고계시였다. 내리면 쓸고 또 쓸며 무엇인가 혼자말씀을 하시군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불들이 비통한 슬픔에 잠기신 그이의 눈가에 얼어붙은 물기를 쇠물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이윽고 눈내리는 밤하늘로 조총의 긴 메아리가 얼어든 대기를 찢으며 오래도록 울려갔다. …

길은 얼마나 멀고 아득했던가. 미국무력침범자들이 전쟁을 도발한 지난해의 그 6월 25일 새벽부터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오신 승리에로의 길은 얼마나 멀고 험난했던가!… 불별에 달아오른 수도의 포장도로, 구름처럼 먼지를 말아올리던 전선길, 비탈진 외통길과 수안보에로 이어지던 철길,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속을 뚫고가던 진창길과 적기들이 날치던 준엄한 밤길은 또 얼마였던가.

…가을락엽이 차창가에 흩날리더니 어느덧 설한풍이 휩쓸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수도의 거리에 들어서고있었다. 눈은 더욱더 기승스레 퍼부어지고있었다. 시창에 가득 달라붙는 눈송이들로 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지경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한가지 생각에만 집념하고계시였다.

《놈들의 폭격에 상할수도 있지. …》

그이의 말씀에 부관장이 《예？！…》하며 머리를 돌렸다.
《그래, 그렇게 하자.》하고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김책동무의 시신을 옮겨야겠어. 덕천군에 있는 굴속에 잘 안치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도로 내가 묘를 쓰게 하자. 나쁜놈들이 장난질을 할수 있으니… 누구도 모르게… 래일 당장！…》
차가 멎었다. 비로소 **김일성**동지께서는 흐릿한 시창유리로 밖을 내다보시였다. 갈림길어구였다. 전선으로 나가는 땅크와 포차들때문에 길이 막혀 차가 멎어선것이였다. 눈을 한벌 들쓴 땅크들이 우릉부릉 배기가스를 힘껏 내뿜으며 나가고있다. 포차들우에는 포병들이 굳어져있었다. 열병대오에 나선 전사들처럼 꿋꿋이 눈을 들쓰고있다.
부관장이 차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왜？》하고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저… 제가 나가서…》
길을 열겠다는 소리이다. 그이께서 그를 앉도록 손짓하시였다.
《놔두오. 얼마나 장쾌한 모습이요！》
땅의 진동이 느껴졌다. 아츠러운 무한궤도소리, 야밤의 얼어붙은 대기를 흔드는 발동기소리, 눈송이들사이로 퍼져가는 배기가스, 벌거우리한 전조등… 포신을 거연히 추켜든 저 땅크포탑안에서는 원쑤격멸에로 나가는 전사들의 불타는 눈빛들이 빛나고있을것이다.
땅크와 포차들의 대렬은 오래도록 끝없이 잇대여졌다. 다시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엔 희붐하게 날이 밝고있었다.
별안간 **김일성**동지께서 또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방금 지나친 콩크리트다리밑의 화토불이 마음에 걸리신때문이였다. 란간들이 떨어져나가고 교각마다 흠집투성이인 그 다리밑에서 처참할 지경으로 람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불을 피우고있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부관장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였다. 그러나 다리목에서 승용차들이 멎고 웬 군관이 다가오는것을 본 애들은 급기야 뿔뿔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애들아, 게 섰거라！》 부관장이 달려가며 소리쳤다. 《거기

서라는데 ! …》

그러나 어느새 다리밑은 텅 비고 임자없는 화토불만 탁탁 소리내며 기세를 돋구고있었다.

강부관장은 잠시 어쩔바를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별안간 눈덮인 페허쪽을 향해 소리쳤다.

《애들아,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찾으신다. 어서 나오너라 ! —》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눈송이들만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강부관장은 어쩌는수가 없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맥빠진 걸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척지척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별안간 멎어섰다. 고개를 홱 돌렸다.

눈덮인 페허쪽에 람루를 걸친 아이들이 주런이 나와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파리하고 우영한 두눈이 쑥 우묵져보이는 애들이였다. 부관장은 너무 반가와 《애들—》하고 소리치려 했으나 그만 또 입을 다물고말았다. 비로소 그는 그애들이 장군님 계신곳을 바라보며 한걸음, 두걸음 추위에 와들와들 떨며 가고있는것을 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 그애들을 향해 마주가시였다. 제일 앞서오던 나어린 한 소녀가 걸음을 멈추고 그이를 찬찬히 보고있었다. 소녀의 어지러운 손에는 반나마 불에 끄슨 강냉이가 쥐여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류처럼 가슴을 찌르는 충격에 못이겨 《애 ! 》하고 목메여 부르시였다. 그러자 새까만 강냉이를 쥔 소녀가 바들바들 떨며 가늘게 부르짖었다.

《장군님 ! —》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린 소녀를 덥석 안으시였다. 추위에 파랗게 얼어든 두손을 꼭 잡으시려니 별안간 그애는 왕 왕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말아. 애, 울지 마 ! 》

그이의 목소리는 떨리시였다.

그때였다. 페허쪽에 늘어서있던 애들이 일시에 와—달려왔다. 그러나 장군님앞에 이르자 모두 멎어섰다. 숨을 할딱거리며 이상한 목소리로 저마끔 부르짖었다.

《장군님！—》
눈송이들이 파들거리며 흩어졌다. 그이께서 한팔을 벌리시였다.
《얘들아！…》
그러자 애들은 일시에 그이의 품으로 뛰여들었다. 눈을 들쓴 더벅머리들이다. 형편없이 찢기고 더러워진 누데기옷들이다. 해여진 신발, 터진 발가락, 초췌한 얼굴, 그이의 손등우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이께서는 뒤에 서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였다.
《이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상처를 입었겠소. 이 어린 가슴들에 영영 지워지지 않을 아픈 상처가！…》 그이의 눈가에서 섬광이 펀뜩이였다. 《그러나… 안될것이요. 결코 놈들은 우리의 미래를 짓밟지 못할것이요. 우리의 미래는 찬란할것이요！…》
하늘에서는 함박눈이 계속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승리의 봄을, 희망찬 래일의 복된 삶을 약속하는 축복의 사절들이였다. …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조선의 힘**

제 2 판

저자 정기종 편집 량남익, 리일섭
표지 김용광, 백학훈 교정 오향옥, 박춘애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리순정, 김정옥
낸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81(1992)년 3월 28일
2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20일
2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30일

ㄱ—16670